

#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

1883~1945

편저자 김진수



분오갑 장훈 일요로 일팔 월팔 년원 양건 을서 선조

**논설**

○ 이달 팔일 판보에  
 엿호 말승을 안민들을  
 위하야 선군에 대항을  
 녀념나 오게 호노라  
 조취 ○ 조세를 상납 할  
 내에 맞당히 넘기지 못  
 할거시니 후전유히 바치  
 지 않당져 남저자들 미  
 필호였던지 견제가 되  
 던지 후면 덕저부대선  
 그슈악을 조슈 할야  
 한을 정하야 각각 그도  
 에연하에 심칙 하되 만  
 일다시 다 밋지안하  
 면 그슈령은 민화를 시  
 하고 업히 다스리라 호  
 웁셨더라 ○ 저도로 비쇼  
 간 리간창 김창학이 노  
 히고 전주부 관찰스 리병  
 홀보외분간이 되았더라  
 최영 ○ 전국 이심 상부  
 을 삼삼도로 곳쳐 정  
 고 가도에 관찰스름 우  
 되 무는 처쇼는 김기도  
 스 슈원 총생 북도는 슈  
 주 남도는 공슈 전나도  
 북도는 전주 남도는 관  
 주 경상도 옥도는 대구  
 남도는 진주 화하도는  
 현주 평안도 남도는 평  
 양 북도는 정주 강원도  
 호 춘천 함평도 남도는

함흥 북도도 평성으로 정호고 ○ 그전 한  
 성부에는 판을 둘 두고 ○ 광슈 기성 갑회 이  
 인천 동리 덕원 경흥은 부을 둘 두고 ○ 개  
 유는 옥대를 두고 ○ 심삼도에 관개 된 개  
 고을은 다성음으로 정하야 금슈는 그전  
 처 호나 ○ 평기도 ○ 읍성 광군 광슈  
 슈원 더슈 파슈 총의 함산 김포 가평 양  
 천 리천 교동 리성부 양슈 리천 포천 삭영  
 영광 동인 시흥 연천 가화부 장단 부령  
 죽산 안성 아전 을주 자평 양지 인천 부가  
 동진 남양 양근 고양 교화 진천 저성 양천  
 성 ○ 광청북도 ○ 심정군 공슈 옥천 청주  
 제철 영동 음성 성주 진천 고산 회인 화성  
 관 보은 청안 청천 단양 영춘 연중 ○ 남  
 도 삼십 천군 공슈 동슈 한산 단천 단양  
 정산 연살비인 허미적의 덕안 서천 영  
 전은 양척양 노성 남포 양진 영기 문의  
 면천 홍산 대흥 회덕 부여 결성 신창 아령  
 산곡 천서산 은진 평덕 진창 서성 보령  
 배산 지산 ○ 전나 북도 의성 동군 ○ 전  
 고부 여진 금구 순창 전산 옥구 장유 천  
 남원 김제 금산 원일 밀산 연경 정읍 구  
 배 리인 임창 부안 전안 통안 풍담 밀  
 영광 고산 운봉 ○ 남도 삼십 삼군 광  
 영광 보성 김진 농주 진도 순천 제주  
 양 회남 리안 흥덕 나주 장흥 부안 고  
 정영 영암 함평 담양 남평 차평 고창 진  
 도대평 광양 옥파 동산 경의 동곡 옥성  
 회소 울도 ○ 경향 북도 스십일군 ○ 삼  
 대구 안동 예천 청송 철곡 하양 진보 연  
 일 시대 경산 고령 김유 성주 김산 안동  
 풍의 영천 군위 예안 함창 자인 장의 의고  
 영선 산리 회령 영동 봉화 의흥 의령 영양  
 비안 영천 청도 순흥 동중 청하 성령 문  
 평호 하안중 ○ 남도 삼십군 동리부 입  
 을한 거창 함양 양산 거제 칠원 단성 진  
 주 밀양 의령 하동 고성 안양 초계 진  
 남회 창령 함천 영천 영산 안의 스천 창

#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

1883-1945

편저자 김진수

 김포문화원

## 새로운 김포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



1990년 인구 11만에서 2014년 현재 32만에 육박해 있는 김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약동하는 이런 때에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를 발간하게 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이야기를 막연하게 전해 듣는 것 보다 당시의 소식이 전하는 정보는 과거를 이해하기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의 생활상과 함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자료는 급변하는 세태 속의 어린 동남들에게 향토애와 역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귀중한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장년층에게는 호기심과 새로움으로 발전된 김포의 면모를 재확인 하는 기회로, 어르신들에게는 추억 속의 향수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문은 시대를 담는 중요한 그릇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잊고 지나치기 쉽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중한 과거의 자료가 됩니다.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은 김포가 걸어온 길, 김포인의 삶의 애환과 정서가 배인 기록입니다. 김포인의 삶의 내력이며 김포 문화의 맥을 잇는 귀중한 자료로 새로운 김포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 발간으로 시민들이 잊혀져가는 지역사회 변천사를 알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 김포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소중한 자료를 수집·조사 및 정리해 주신 김진수 김포문화원 전 부원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김포문화원장 이하준

## 김포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자료



근대 김포 향토사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고(古)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류역사에 있어 문자의 발명은 가장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동서양에 걸쳐 오랜 문명을 소유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이었고 소통의 수단으로 수많은 의사전달 매체로 발전되 왔습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이지만 정작, 우리 민족의 신문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등 민족의 시련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기에 근대사의 신문은 가히 민족혼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고(古)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는 이러한 근대사를 담은 무수한 자료 중 김포관련 기사를 집약한 것으로 지금껏 역사책에서 단편적으로 신문의 종류만을 알았던 것과는 달리 당시 김포의 시대상과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김포의 미래를 그려보고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발간사업에 애써주신 이하준 김포문화원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무쪼록, 『고(古)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김포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커다란 구심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김포시장 유영록

## 김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좌표



김포의 산과 들이 녹음으로 질어져가는 성하의 계절에 우리 지역의 역사를 옛 신문을 통해 돌아볼 수 있는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를 편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우리 향토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김포의 눈부신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좌표가 되는 것이 근대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선각자와 외국인이 활자와 사진을 통해서 김포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역사적 사건을 풍부하게 다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의 신문 속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편찬한 이번 책자는 김포의 역사적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인 여러분들이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소재를 찾아 김포의 정체성을 굳건히 확립해 나가는 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는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대역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통해 김포의 문화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김포시의회 의장 유영근

## 한말과 일제강점기 김포 사회상은 어떠했을까?



이 책은 1883년부터 1945년까지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15여종의 신문과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관보에서 김포지역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엮은 것이다.

한국 근대신문의 효시인 <한성순보>로부터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르기까지 총 1,881여 건의 기사를 발췌 소개하고 있다.

총 1,871여 건의 발췌 기사는 한성순보 3, 독립신문 43, 대한매일신보 76, 황성신문 321, 매일신문 14, 매일신보 1,213, 중외일보 39, 동아일보 45, 시대일보 18, 신한민보 4, 조선중앙일보 37, 공립신보 1, 해조신문 2, 제국신문 6, 조선신문 2, 관보 57건 등이다.

이 고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고신문 검색서비스 <미디어가온>의 고신문 검색을 통해 김포지역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김포지역의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한 기본단어는 <김포>와 <통진> 지역명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무려 약 3,000여 건을 찾아냈다. 이 3,000여 건의 기사 중 직접적으로 김포와 관련된 기사를 가려 뽑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았다.

찾아낸 기사 하나 하나를 펼쳐 기사내용이 김포지역 기사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중복된 기사와 김포와 관련 없는 기사를 제외한 총 1,881여 건의 기사를 가려 뽑았다. 이 과정에서 지면 제약으로 1961년까지 김포군 행정구역이던 양천(양동면, 양서면) 지역은 제외시켰으나 1995년 3월까지 김포군 검단면이던 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은 김포 관련기사로 포함시켰다.

김포지역 관련 총 1,881여 건의 기사는 보도된 해당 신문에 따라 기사문장이 <한문체> 혹은 <국한문 혼용체>, <한글 고어체> 등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인이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소개된 기사 가운데 약 900여 건의 기사를 현대어 번역과정을 거쳐 번역된 기사를 소개하였다.

지면에 기사 소개는 먼저 신문 발행일자, 기사제목, 신문사, 기사지면 배치, 기사원문, 기사해석 순으로 구성하였다.

보도된 <기사원문>은 ○으로 표시하였으며,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한 기사는 ►로 표시해 신문발행 일자별로 소개하였다.

또한 소개된 원문기사 중 한문의 내용은 한글로 번역하여<예: 金浦(김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이 많은 지면을 차지해 원문내용 중 김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은 <중략>으로 생략시켰다. 또한 기사제목만 소개된 부분 역시 같은 이유이다.

이번 고신문 편찬 및 번역 작업에는 편저자 이외 두 분이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 일부 한문 번역을 맡은 김포문화원 류지만 전 원장님과 한글고어체 번역을 맡은 오지윤 선생이다. 이 두 분이 번역 작업에 참여해주셨기에 김포지역 기사를 한데 묶어낼 수가 있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드린다.

김포지역 기사를 찾아내고 지면으로 옮기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워낙 분량이 많고 시간의 제한과 편저자의 부족함이 적지 않은 오탈자와 해석의 오류 등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어 번역 과정이 한 사람이 아닌 관계로 같은 단어와 내용일지라도 번역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내용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물리적인 시간 제약으로 각 번역된 내용에 대한 교차 감수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편저자의 몫이다. 넓은 이해를 구하고 질정을 기다린다.

이로서 김포 지역사의 부족했던 한말과 일제강점기 시기의 한 부분이 신문기록 등을 통해 김포의 사회 일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물론 소개된 신문기사가 액면 그대로 사실일 것이라고 전제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다. 신문 기사의 행간을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신문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닌 취사선택된 가공된 기사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더욱이 한말 일제 강점기 시기의 신문사와 보도기사는 총독부의 검열과 전시체제 아래 지역민을 수탈하기 위해 조작된 홍보기사로 일관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사를 들여다 보면 근대시기의 김포의 모습들을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책을 묶어내기까지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준 분들이 있어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린다.

먼저 이 자료집 발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발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이하준 김포문화원장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발간기획부터 참여해준 조성범 김포시 안전행정국장과 이정찬 복지문화국장, 이종안 김포문화원 사무국장께도 아울러 인사드리고자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행정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은 김포시 문화예술과 조성춘 과장, 황

창하 팀장에게 고마움을 전해드린다. 행정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수고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더욱이 꼼꼼한 교정을 보느라 애써준 김포문화원 권태일 문화팀장에게 편저자로서 고마운 뜻을 전한다.

처음 기획하고 의도했던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 생략되어지고 추후 기회로 미룬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번 자료집의 완성도가 성글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김포지역의 한말과 일제 강점기 시대의 김포의 근대역사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엮어가는 과정은 편저자로서 큰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

김포지역 근대사의 한 부분을 신문기록을 통해 김포의 역사 문화적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진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4년 6월

북성산 서재에서 편저자 김진수

<제목 차례>

신문개요	65
1. 한성순보[漢城旬報]	66
2. 독립신문[獨立新聞]	66
3. 매일신문[每日新聞]	67
4. 황성신문[皇城新聞]	68
5. 제국신문[帝國新聞]	69
6.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69
7. 공립신보[共立新報]	70
8. 매일신보[每日申報]	71
9. 해조신문[海朝新聞]	71
10. 시대일보[時代日報]	72
11. 중외일보[中外日報]	73
12.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73
13. 신한민보[新韓民報]	74
14. 동아일보[東亞日報]	74
15. 조선총독부 관보	75
일러두기	76

**1883**

1883-12-20 大臣次對(대신차대) [한성순보]	78
------------------------------	----

**1884**

1884-01-08 日本人開行里程約條(일본인한행이정약조) [한성순보]	78
1884-05-15 議政府啓(의정부계) [한성순보]~	79

**1896**

1896-05-14 통진 마송리 심능원이가 부주로 [독립신문]	80
1896-07-23 통진군 보곶면 직감 성준영씨가 [독립신문]	80
1896-08-08 이돌 팔일 관보에 잇는 말슴을 [독립신문]   논설	80
1896-09-03 김포 이성환이가 슈적으로 [독립신문]	81
1896-09-10 통진군 보곶면 성준영씨가 [독립신문]	81

1896-09-24 전일 김포 이성한이가 한정하의 논 [독립신문] .....81

**1897**

1897-05-27 통진군 가호가 2천 7백 19호요 [독립신문] .....81

1897-06-03 김포군 가호가 일천 칠백 오십일호요 [독립신문] .....81

1897-06-10 강원도 직판소 판스 관찰스 [독립신문] .....81

1897-06-10 군부 주스 이근형 통진 군수 강위영 [독립신문] .....82

1897-09-11 무산군 목장위원 [독립신문] .....82

1897-10-05 궁궐부에서 경무청에 훈령하기를 [독립신문] .....82

1897-10-09 경무청에서 김포 군수 홍봉관씨의게 [독립신문] .....82

1897-11-20 11월 18일 별운검 운용식 [독립신문] .....82

1897-11-23 11월 20일 법부 령 데 7호 [독립신문] .....82

**1898**

1898-01-18 독립협회 보조금 낸이는 김포군수 [독립신문] .....83

1898-01-25 법부 비서 과장 이규석씨가 [독립신문] .....83

1898-01-27 경무청에서 법부에 보고하기를 [독립신문] .....83

1898-02-03 경기 각군에 작년 년스 잘못 된 우심훈 [독립신문] .....83

1898-05-26 사즉골 사는 엄세영씨 집 [독립신문] .....84

1898-06-11 김포군수 덩극경씨가 근일에 [매일신문] .....84

1898-06-13 김포군수 덩극경씨의 일(전호연속) 보닌후 [매일신문] .....84

1898-06-15 김포군 공립 쇼학 [매일신문] .....85

1898-06-18 김포군 박용희씨가 본샤에 [독립신문] .....85

1898-07-29 통진군수 이완용은 적체 훈 공납이 태반이나 [매일신문] .....85

1898-08-19 통진군수 집에서 금번 원들 갈니는 [매일신문] .....85

1898-08-22 여주군수 남명기 통진군수 이완용 [매일신문] .....85

1898-08-22 최석민으로 통진군수를 임하고 [매일신문] .....86

1898-08-23 평산군수 조종서 덕산군수 [독립신문] .....86

1898-08-29 일전에 통진군 북면 사는 이경도 [매일신문] .....86

1898-09-09 한성 우테 주스 황중륜은 강화부와 김포군에서 [매일신문] .....86

1898-09-13 김포군 검단면에 소공 굶난 가마가 [제국신문] .....86

1898-09-29 김포군수 덩극경은 [독립신문] .....86

1898-10-04 특지 류빅 죄인 도병식씨가 일전에 [매일신문] .....86

1898-10-14 宮廷錄事(궁정록사) [황성신문] .....87

1898-10-14 참량이 업지 아니 하니 통진군 찬빅 [독립신문] .....87

1898-10-26	공관된 고을 [독립신문]	87
1898-12-17	周貧之義(주빈지의) [황성신문]	87
1898-12-24	경기도 통진군수 최석민씨난 실심으로 [제국신문]	87

## 1899

1899-01-21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도관징은 [매일신문]	88
1899-01-21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88
1899-01-23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88
1899-02-01	의정부에서 그저의 군수 여덜을 몬져 너는디 [매일신문]	88
1899-02-03	룩품 최기주는 김포군수를 임하고 [매일신문]	88
1899-02-08	散穀活人(산역활인) [황성신문]	88
1899-02-15	신임군수 [독립신문]	88
1899-02-15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89
1899-02-16	緊件遺失(긴건유실) [황성신문]	89
1899-02-18	망년된 일 [독립신문]	89
1899-02-25	최씨 세력 [독립신문]	89
1899-02-27	성은감축 [독립신문]	89
1899-03-06	爲官擇人(위관택인) [황성신문]	90
1899-03-22	경성군 사는 정왈룡이가 몇달 전에 [매일신문]	90
1899-03-25	通郡私校(통군사교) [황성신문]	90
1899-04-08	산송 민요 [독립신문]	91
1899-04-08	水中火賊(수중화적) [황성신문]	91
1899-05-05	有崔有趙(유최유조) [황성신문]	91
1899-05-29	통진 소식 [독립신문]	91
1899-06-15	인히도적 [독립신문]	91
1899-06-15	김포군 공립 소학교 부교원은 이의락으로 [독립신문]	91
1899-06-19	여항 전설 [독립신문]	92
1899-06-20	법관 임명 [독립신문]	92
1899-06-23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92
1899-06-30	군수 신임 [독립신문]	92
1899-07-01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92
1899-07-22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93
1899-08-02	京畿結戶(경기결호) [황성신문]	93
1899-09-04	교원 행위 [독립신문]	93
1899-09-06	敎員傾軋(교원경알) [황성신문]	93
1899-09-07	부교원 협잡 [독립신문]	93

1899-09-08 熱心教育(열심교육) [황성신문]	94
1899-09-11 9월 9일 김우정은 중추원 의관을 임하고 [독립신문]	94
1899-09-11 敘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94
1899-09-14 9월 13일 외국어 학교 부교관 이한응 [독립신문]	94
1899-09-15 學事(학사) [황성신문]	94
1899-10-02 농상회사 [독립신문]	95
1899-10-12 公器私橐(공기사탁) [황성신문]	95
1899-10-13 조 교관 명예 [독립신문]	95
1899-10-28 농상 시찰 [독립신문]	95
1899-12-13 學事(학사) [황성신문]	95

## 1900

1900-01-22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98
1900-02-06 敎在擇師(교재택사) [황성신문]	98
1900-02-14 地方學校 經費(지방학교 경비) [황성신문]	98
1900-03-26 查送稅額(사송세액) [황성신문]	98
1900-04-19 答贖寬限(태속관한) [황성신문]	98
1900-05-12 월미도 사건의 後報(후보) [황성신문]	98
1900-06-05 學事(학사) [황성신문]	99
1900-06-06 鹽稅疊徵(염세첩징) [황성신문]	99
1900-06-30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99
1900-07-09 津浦電震(진포박진) [황성신문]	99
1900-08-03 元氏公札(원씨공찰) [황성신문]	99
1900-08-04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99
1900-08-27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00
1900-08-28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00
1900-08-29 근일 통진군 근방에 화적이 대치해야 [제국신문]	100
1900-08-30 畿民嗷嗷(기민오오) [황성신문]	100
1900-09-11 통진군수 이규중씨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제국신문]	100
1900-09-11 通津水賊(통진수적) [황성신문]	100
1900-09-29 통진군 고리곶면 안행동거 이향근 [황성신문]	100
1900-10-03 梁吏押付(양이압부) [황성신문]	100
1900-10-10 통진 남면 대명촌거 권흥수가 [황성신문]	101
1900-11-12 金通水賊(김통수적) [황성신문]	101
1900-11-22 毆人盜錢(구인도전) [황성신문]	101
1900-11-23 災民來訴(재민래소) [황성신문]	101

1900-11-26	김포군 자령상민 흉병데등 17인이 [제국신문]	101
1900-12-14	鹽民呼訴(염민호소) [황성신문]	101
1900-12-18	水賊大熾(수적대치) [황성신문]	101

## 1901

1901-01-12	鹽民呼訴(염민호소) [황성신문]	101
1901-01-14	歎民缺納(겸민결납) [황성신문]	102
1901-01-31	初無派兵(초무파병) [황성신문]	102
1901-02-06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02
1901-02-26	鹽稅往復(염세왕복) [황성신문]	102
1901-03-16	통진군 거하는 민양로씨가 [제국신문]	102
1901-04-13	學事(학사) [황성신문]	102
1901-05-01	水賊被捉(수적피착) [황성신문]	103
1901-05-30	凶犯烈婦(흉범열부) [황성신문]	103
1901-06-05	敘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03
1901-06-11	水賊被捉(수적피착) [황성신문]	103
1901-08-15	통진거하는 趙容伍(조용오)가 명동약국하는 [황성신문]	103
1901-08-23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03
1901-09-23	苦況自盡(고황자진) [황성신문]	104
1901-10-01	劫財奪物(겁재탈물) [황성신문]	104
1901-10-04	立木勞金(입목로금) [황성신문]	104
1901-10-09	金浦甚荒(김포심황) [황성신문]	104
1901-10-17	通民等訴(통민등소) [황성신문]	104
1901-10-22	燒戶災結(소호재결) [황성신문]	105
1901-10-26	屯土歎荒(둔토겸황) [황성신문]	105
1901-10-29	安南米 貸下(안남미 대하) [황성신문]	105
1901-11-25	請劃 安南米(청획 안남미) [황성신문]	105
1901-12-17	報移隊費(보이대비) [황성신문]	106
1901-12-30	請米千石(청미천석) [황성신문]	106

## 1902

1902-01-18	본인이 김포군 노장면 완정리 소재 [황성신문]	106
1902-01-29	死亡調查(사망조사) [황성신문]	106
1902-04-01	禮山賊警(예산적경) [황성신문]	107
1902-04-01	沈氏 義捐(심씨 의연) [황성신문]	107

1902-05-06	본인이 김포 군내면 걸포리우 자담 [황성신문]	107
1902-06-14	一溺一驚(일익일경) [황성신문]	107
1902-07-14	金浦傳說(김포전설) [황성신문]	107
1902-07-17	學事(학사) [황성신문]	107
1902-07-29	郡守奏本(군수주본) [황성신문]	108
1902-08-01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08
1902-08-05	學事(학사) [황성신문]	108
1902-08-07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08
1902-08-15	民訴善政(민소선정) [황성신문]	108
1902-08-16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08
1902-08-16	學事(학사) [황성신문]	109
1902-08-25	宮廷錄事(궁정록사) [황성신문]	109
1902-08-29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09
1902-09-04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09
1902-09-08	學事(학사) [황성신문]	110
1902-11-22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10
1902-11-29	본인이 거병신년분에 경거 김진섭허에 [황성신문]	110

## 1903

1903-02-11	경기 관하 부윤 군수 치적 [황성신문]	110
1903-02-13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10
1903-03-21	學事(학사) [황성신문]	110
1903-04-14	學事(학사) [황성신문]	111
1903-04-16	學事(학사) [황성신문]	111
1903-04-23	學事(학사) [황성신문]	111
1903-04-25	본인의 전답 11석2두5승락이 [황성신문]	111
1903-04-28	본인 등이 병자년 전후간에 통진군 [황성신문]	111
1903-05-04	본인의 답 12석락이 통진군에 있는데 [황성신문]	111
1903-05-08	學事(학사) [황성신문]	112
1903-05-11	西郊賊警(서교적경) [황성신문]	112
1903-05-14	學事(학사) [황성신문]	112
1903-05-19	學事(학사) [황성신문]	112
1903-06-09	學事(학사) [황성신문]	112
1903-06-13	學事(학사) [황성신문]	113
1903-07-27	통진 월여곳면 사내동 소재 [황성신문]	113
1903-07-30	學事(학사) [황성신문]	113

1903-08-06	學事(학사) [황성신문]	113
1903-08-07	學事 [황성신문]	113
1903-08-10	學事(학사) [황성신문]	113
1903-08-11	金浦賊警(김포적경) [황성신문]	114
1903-08-15	學事(학사) [황성신문]	114
1903-08-26	學事(학사) [황성신문]	114
1903-08-27	學事(학사) [황성신문]	114
1903-10-30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14
1903-12-18	學事(학사) [황성신문]	114

## 1904

1904-03-15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15
1904-03-26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15
1904-03-29	定官查實(정관사실) [황성신문]	115
1904-04-12	學事(학사) [황성신문]	115
1904-04-15	學事(학사) [황성신문]	115
1904-05-09	고초계군수 이종석의 누대분묘와 [황성신문]	115
1904-05-16	본인가에 적한기인이 돌입하여 他(타)[황성신문]	116
1904-05-17	通津賊警(통진적경) [황성신문]	116
1904-07-16	남문외용주전창현처금월회일주 [황성신문]	116
1904-08-2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16
1904-08-27	募軍續出(모군속출) [황성신문]	116
1904-10-08	學事(학사) [황성신문]	116
1904-10-19	學事(학사) [황성신문]	117
1904-12-03	學事(학사) [황성신문]	117
1904-12-07	學事(학사) [황성신문]	117
1904-12-17	선하심 후하심 [대한매일신보]	117

## 1905

1905-01-18	김포군보 [대한매일신보]통신 1면	117
1905-01-23	炭礦調査(탄광조사) [황성신문]	117
1905-02-21	경기관하 부윤 군수 추동등 치적 [황성신문]	118
1905-04-24	海稅正供(해세정공) [황성신문]	118
1905-05-12	본인이 삼호 통진주인 남인우처에 [황성신문]	118
1905-05-20	果則賢倅(과칙현졸) [황성신문]	118

1905-06-13	交渉妥辦(교섭타판) [황성신문]	118
1905-06-23	請願起懇(청원기간) [황성신문]	118
1905-08-02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119
1905-08-27	地方制度(지방제도) [대한매일신보]	119
1905-10-20	廿二郡守(감이군수) [황성신문]	119
1905-10-26	學事(학사) [황성신문]	119
1905-02-13	賊奪稅錢(적탈세전) [대한매일신보]	119

## 1906

1906-02-1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19
1906-02-24	貪倖見困(탐졸견곤) [대한매일신보]	120
1906-03-23	鉛礦請認(연광청인) [황성신문]	120
1906-04-04	學事(학사) [황성신문]	120
1906-04-13	김포군수 이성직씨가 赴任未幾(부임미기)에 [황성신문]	120
1906-04-20	立標還拔(입표환발) [대한매일신보]	121
1906-06-15	通倖興學(통졸흥학) [대한매일신보]	121
1906-06-22	金浦强盜(김포강도) [황성신문]	121
1906-07-07	아민씨 선조 류수공이 하루대분묘가 [황성신문]	121
1906-07-07	통진군 분양학교 보조제씨가 如左(여좌) [황성신문]	122
1906-07-08	金校試驗(김교시험) [대한매일신보]	122
1906-07-10	汾校越旨(분교월지) [황성신문]	122
1906-07-23	삼호 통진주인 남린우처 5월 초1일 [황성신문]	122
1906-08-30	통진군 분양학교 찬성원 [황성신문]	123
1906-08-31	汾校盛況(분교성황) [황성신문]	123
1906-09-01	文明錄(문명록) [황성신문]	123
1906-09-19	崔氏設校(최씨설교) [황성신문]	123
1906-09-21	汾校盛宴(분교성연) [황성신문]	123
1906-09-26	請禁悖行(청금패행) [황성신문]	123
1906-10-1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24
1906-10-14	草坪事 對質(초평사 대질) [대한매일신보]	124
1906-12-06	汾陽志士(분양지사) [황성신문]	124
1906-10-16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24
1906-10-19	預知落科(예지락과) [황성신문]	124
1906-10-24	紛校試驗(분교시험) [황성신문]	125
1906-10-24	薦報呼訴(천보호소) [황성신문]	125
1906-10-29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25

1906-11-05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25
1906-11-09	宴席頒賞(연석반상) [황성신문]	125
1906-11-24	도지부령 제23호 [황성신문]	126
1906-12-06	汾陽志士(분양지사) [황성신문]	126
1906-12-07	沈氏美舉(심씨미거) [황성신문]	126
1906-12-20	何不銓考(하불전고) [황성신문]	126
1906-12-25	김포군 운양리거 여경화가 본읍형리와 [대한매일신보]	126
1906-12-25	收賭請願(수도청원) [황성신문]	127
1906-12-28	통진 사립분남보성학교의 찬성금 [황성신문]	127
1906-12-28	汾校盛況(분교성황) [대한매일신보]	127

## 1907

1907-01-07	경계자는 本人(본인)이 업자생인 바 [황성신문]	127
1907-01-07	본인의 죽인 통진벌곡거 이운하 [황성신문]	127
1907-01-07	要薦請逋(요천청포) [황성신문]	128
1907-01-10	汾土出義(분토출의) [황성신문]	128
1907-01-10	통진 사립분남학교의 찬성금이 [황성신문]	128
1907-01-16	農業幻燈(농업환등) [황성신문]	128
1907-01-18	汾校施賞(분교시상) [황성신문]	129
1907-01-18	분남학교 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29
1907-01-19	汾校漸進(분교점진) [대한매일신보]	130
1907-01-20	奇民悖習(기민패습) [대한매일신보]	130
1907-01-29	재일본단지 류학생학자 의연 [황성신문]	130
1907-01-30	재일본단지 류학생학자 의연 [황성신문]	130
1907-02-09	汾南義捐(분남의연) [대한매일신보]	131
1907-02-10	汾校施賞(분교시상) [대한매일신보]	131
1907-02-11	汾校月試(분교월시) [황성신문]	131
1907-02-15	文明錄(문명록) [황성신문]	131
1907-02-23	人身蝨口(인신천구) [황성신문]	131
1907-02-25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32
1907-03-16	통진군 사립 분남학교의 贊成金(찬성금)이 [황성신문]	132
1907-03-19	汾校愛國(분교애국) [황성신문]	132
1907-03-25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급액수 [황성신문]	132
1907-04-08	郡捉押上(군착압상) [황성신문]	134
1907-04-10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급액수 [황성신문]	134
1907-04-12	再盜處役(재도처역) [황성신문]	135

1907-04-15 兩門特義(양문특의) [황성신문]	135
1907-04-18 集會設社(집회설사) [황성신문]	135
1907-04-20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35
1907-04-23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36
1907-04-26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37
1907-04-27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37
1907-05-03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37
1907-05-04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1
1907-05-08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3
1907-05-17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3
1907-05-25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3
1907-05-27 강화 대운동 경황 [황성신문]	144
1907-05-29 志士義捐(지사의연) [황성신문]	146
1907-06-11 運動將行(운동장행) [대한매일신보]	147
1907-06-11 假稱權任(가칭권임) [대한매일신보]	147
1907-06-13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7
1907-06-21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8
1907-06-28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8
1907-06-28 通校運動(통교운동) [대한매일신보]	148
1907-07-02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148
1907-07-14 분양학교운동 [대한매일신보]	149
1907-07-16 汾陽校況(분양교황) [대한매일신보]	149
1907-07-18 협잡수세자금훈 [황성신문]	149
1907-07-19 畿察又報(기찰우보) [황성신문]	149
1907-08-01 標費請求(표비청구) [황성신문]	150
1907-08-07 敘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50
1907-08-08 勸告免官(권고면관) [황성신문]	150
1907-08-14 강화소식 [대한매일신보]	150
1907-08-14 地方消息一束(지방소식일속) [황성신문]	151
1907-08-16 지방정형 [대한매일신보] 사고	151
1907-08-21 日兵 向金浦(일병 향김포) [황성신문]	151
1907-08-30 江華安堵 希望(강화안도 희망) [황성신문]	151
1907-09-04 軍物輸移報部(군물수이보부) [황성신문]	151
1907-09-04 군물을 가져가 [대한매일신보]	152
1907-09-09 通津 軍物 運去(통진 군물 운거) [황성신문]	152
1907-09-11 통진적환 [대한매일신보]	152
1907-09-11 학교유지 [대한매일신보]	152

1907-09-22 請願封還(청원봉환) [대한매일신보]	152
1907-10-05 欠逋請刷(흄포청쇄) [황성신문]	153
1907-10-12 敘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53
1907-11-05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	153
1907-11-17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	153
1907-11-27 礦區許可(광구허가) [황성신문]	153
1907-12-01 地方消息(지방소식) [대한매일신보]	153
1907-12-01 地方消息(지방소식) [대한매일신보]	154
1907-12-14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	154
1907-12-22 조희문씨 모친 숙부인 전주이씨 [황성신문]	154

## 1908

1908-01-07 여산군에서 서남으로 10리 되는 땅에 의병 [대한매일신보]	155
1908-01-09 본인 사촌 구의범씨가 정월분의 무고출타하야 [황성신문]	155
1908-01-16 정미 음 12월초 7일야에 [황성신문]	155
1908-01-16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55
1908-01-19 민씨의 취리양책 [대한매일신보]	155
1908-01-21 捐義覓利(연의역리) [대한매일신보]	155
1908-02-08 女校成績(여교성적) [황성신문]	156
1908-02-19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56
1908-03-15 유시재김포인칭 [황성신문]	156
1908-03-22 沿海賊警(연해적경) [황성신문]	156
1908-03-31 獵夫被害(렵부피해) [황성신문]	156
1908-04-01 近畿賊警(근기적경) [황성신문]	157
1908-04-02 汾陽闡明(분양천명) [황성신문]	157
1908-04-09 김포의무교육 [해조신문]	157
1908-04-15 沿江騷擾(연강소요) [황성신문]	157
1908-04-18 본인이 상년 11월 10일 봉적지시에 [황성신문]	157
1908-04-23 정씨집의요 [대한매일신보]	157
1908-05-12 施賞還送(시상환송) [황성신문]	157
1908-05-13 訓導論駁(훈도론박) [황성신문]	158
1908-05-14 畿湖興學校(기호흥학교) [황성신문]	158
1908-05-14 別設運動(별설운동) [황성신문]	158
1908-05-15 송별 분양학교 학도 [황성신문]   논설	158
1908-05-15 午饌後勸諭(오찬후권유) [황성신문]	158
1908-05-15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	159

1908-05-16	분남학교 참례 [대한매일신보]	159
1908-05-17	江華學校運動(강화학교운동) [황성신문]	159
1908-05-17	趙氏勸學(조씨권학) [황성신문]	159
1908-05-24	초평상지 [대한매일신보]	159
1908-05-26	義兵消息(의병소식) [해조신문]	159
1908-06-09	분교운동 성황 [황성신문]	160
1908-06-16	본월 6일 봉화군에서 이강년 의병 [대한매일신보]	160
1908-06-27	수적피착 [대한매일신보]	160
1908-06-27	통진군 도적 [대한매일신보]	160
1908-06-27	通津賊警(통진적경) [황성신문]	161
1908-07-16	통진소식 [대한매일신보]	161
1908-07-23	분교시험 [대한매일신보]	161
1908-07-26	女校擴張(여교확장) [황성신문]	161
1908-08-12	사린학회 발기 [대한매일신보]	161
1908-08-14	夫人恤孤(부인恤고) [황성신문]	161
1908-09-02	통진학생 친목 [황성신문]	161
1908-09-06	거월 26일 온정원에서 의병40명이 일본군 [대한매일신보]	162
1908-09-10	銃丸誤發(총환오발) [황성신문]	162
1908-09-16	본월 1일 강원도 김성가임 주막에서 [대한매일신보]	162
1908-09-18	國債金乾沒(국채금건몰) [황성신문]	162
1908-09-24	女校針工科(여교침공과) [황성신문]	163
1908-10-20	단발하라고 신칙 [대한매일신보]	163
1908-10-30	분양교 졸업식 [대한매일신보]	163
1908-11-01	礦業認可(광업인가) [황성신문]	163
1908-11-05	兩倅轉任(양졸전임) [황성신문]	163
1908-11-05	川合於浦(천합어포) [황성신문]	163
1908-11-12	郡守奏本(군수주본) [황성신문]	164
1908-11-13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64
1908-11-24	辭金取義(사김취의) [황성신문]	164
1908-11-25	경기합군 [대한매일신보]	164
1908-12-02	본인이 금음력11월초6일 [황성신문]	164
1908-12-02	또 내어 주었다 [공립신보]	164
1908-12-08	일병 행패 [대한매일신보]	164
1908-12-09	水路逢賊(수로봉적) [황성신문]	164
1908-12-11	강군파영 [대한매일신보]	165
1908-12-12	본인이 음지월17일야의 중부포청교 [대한매일신보]	165
1908-12-12	魚逢賊(어봉적) [황성신문]	165

1908-12-23 勞學試驗(노학시험) [황성신문]	165
1908-12-23 통진 양릉면 곡촌 사립양흥학교 [황성신문]	165
1908-12-25 通津夜興(통진야흥) [황성신문]	165
1908-12-31 통진사개량 [대한매일신보]	166

## 1909

1909-01-06 文明錄(문명록) [황성신문]	166
1909-01-17 永一女學(영일여학) [황성신문]	167
1909-02-04 賊奪公錢(적탈공전) [황성신문]	167
1909-02-09 宮廷錄事(궁정록사) [황성신문]	167
1909-02-10 불법군수 [대한매일신보]	167
1909-02-16 심씨 봉적 [대한매일신보]	167
1909-02-25 稟請貸與(품청대여) [황성신문]	167
1909-03-05 閔氏贊校(민씨찬교) [황성신문]	167
1909-03-05 新進部(신진부) [황성신문]	167
1909-03-09 救饑建議(구기건의) [황성신문]	168
1909-03-16 金津(김진)의 面長會議(면장회의) [황성신문]	168
1909-03-19 救荒擬議(구황의의) [황성신문]	168
1909-03-19 實犯審査(실범심사) [황성신문]	168
1909-03-31 심씨 보조 [대한매일신보]   1면	168
1909-03-31 沈氏善心(심씨선심) [황성신문]	168
1909-04-01 지방정형 [대한매일신보]	169
1909-04-06 여교 졸업성황 [황성신문]	169
1909-04-13 兩氏歸任(양씨귀임) [황성신문]	169
1909-04-13 通津不穩(통진불온) [황성신문]	169
1909-04-25 통진교 폐지 [대한매일신보]	169
1909-04-27 四郡 聯合運動(4군연합운동) [황성신문]	169
1909-05-01 內度兩部協議(내도량부협약) [황성신문]	170
1909-05-09 鄭氏義恤(정씨의휼) [황성신문]	170
1909-05-12 일인무엄 [대한매일신보]	170
1909-05-16 지방정형 [대한매일신보]	170
1909-05-21 議論未定(의론미정) [황성신문]	170
1909-06-01 여자교육 강학회 [황성신문]	170
1909-06-01 장씨 호소 [대한매일신보]	171
1909-06-02 分賑窮民(분진궁민) [황성신문]	171
1909-06-06 海賊捕捉(해적포착) [황성신문]	171

1909-06-08	女學總會(여학총회) [황성신문]	171
1909-06-10	獎學會任員(학회임원) [황성신문]	171
1909-06-15	費過於恤(비과어홀) [황성신문]	171
1909-06-18	公告(공고) [황성신문]	172
1909-06-24	僞章賣土(위장매토) [황성신문]	172
1909-06-24	협잡탄로 [대한매일신보]	172
1909-06-27	見辱辭職(견욕사직) [황성신문]	172
1909-06-29	그런데는 정신있네 [대한매일신보]	172
1909-06-29	賈坪還退(매평환퇴) [황성신문]	172
1909-07-15	海賊搜索(해적수색) [황성신문]	173
1909-07-27	참혹한일 [대한매일신보]	173
1909-08-04	무엇이든지 협잡 [대한매일신보]	173
1909-08-04	飭署調查(칙서조사) [황성신문]	173
1909-08-06	토사병이 대치 [대한매일신보]	173
1909-08-06	通津(통진)의 吐瀉(토사) [황성신문]	174
1909-08-29	名所古蹟(명소고적) [황성신문]	174
1909-09-0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74
1909-09-19	적한피착 [대한매일신보]	174
1909-10-09	權氏起訴(권씨기소) [황성신문]	174
1909-10-14	築隄巨額(축제거액) [황성신문]	174
1909-10-15	이씨 호소 [대한매일신보]	175
1909-10-19	합일여교 진급 [황성신문]	175
1909-10-28	聞難停止(문난정지) [황성신문]	175
1909-11-16	宜有褒賞(의유포상) [황성신문]	175
1909-11-23	閔氏放奴(민씨방노) [황성신문]	175
1909-12-14	養興學校進級式(양흥학교 진급식) [황성신문]	175

## 1910

1910-01-06	又一聲討(우일성토) [황성신문]	178
1910-01-19	영성학교시험 [대한매일신보]	179
1910-03-18	鑛業許可(광업허가) [황성신문]	179
1910-03-30	汾校卒業(분교졸업) [황성신문]	179
1910-03-30	通校卒業(통교졸업) [황성신문]	179
1910-04-01	분남학교 졸업 [대한매일신보]	180
1910-04-22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80
1910-05-03	어찌사노 [대한매일신보]	180

1910-05-03 通民鳴冤(통민명원) [황성신문]	180
1910-05-26 기찰의 旱災報告(한재보고) [황성신문]	180
1910-05-26 경기한재 [대한매일신보]	180
1910-05-31 실지조사 시작 [대한매일신보]	181
1910-05-31 調査局員 實地練習(조사국원 실지연습) [황성신문]	181
1910-06-01 민씨기소 [대한매일신보]	181
1910-06-01 재판추심차 상경 [황성신문]	181
1910-06-09 경찰서 신설 [대한매일신보]	181
1910-06-09 김포군 신경서 [황성신문]	181
1910-06-10 學事(학사) [황성신문]	181
1910-06-15 패가자제 [대한매일신보]	182
1910-06-16 應卞代理(응변대리) [황성신문]	182
1910-06-16 조평재판 [대한매일신보]	182
1910-06-22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82
1910-07-13 문인만후대 [대한매일신보]	182
1910-07-14 일헌장향교차용 [황성신문]	182
1910-07-14 향교까지 청구 [대한매일신보]	182
1910-08-10 鑛業許可(광업허가) [황성신문]	182
1910-08-12 국유 미간지 조사 [황성신문]	183
1910-08-23 趙鄭被拘(조정피구) [황성신문]	183
1910-10-21 잡보: 측량기술원 派送(파송) [매일신보]	183
1910-11-09 서임급사령 [매일신보]	183
1910-11-15 잡보: 작금의 미곡시가 [매일신보]	183
1910-11-15 서임급사령 [매일신보]	183
1910-11-27 토지조사보호 훈령 [매일신보]	184

## 1911

1911-09-29 경기연혁과 製鹽(제염) [매일신보]	184
1911-12-03 토지조사 현상 [매일신보]	184

## 1912

1912-02-23 度量衡器(도량형기) 보급 [매일신보]	184
1912-03-06 教育勅語(교육칙어)와 감상 [매일신보]	185
1912-03-09 심 씨의 좋은 뜻 [매일신보]	185
1912-03-23 총독부공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18호 [매일신보]	185

1912-04-20	두창병과 예방 [매일신보]	185
1912-04-20	항로표식 건설 [매일신보]	185
1912-05-08	본도 잠종 배부수 [매일신보]	185
1912-05-19	실부 자살의 악한, 아버 죽인 인물의 징역 [매일신보]	186
1912-05-25	총독부 공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235호 [매일신보]	186
1912-06-05	본도 맥작 예상 [매일신보]	186
1912-06-19	家(가)도 燒(소) 人(인)도 死(사) [매일신보]	186
1912-06-21	착어등본 하부식 [매일신보]	186
1912-06-23	勤儉貯蓄講話(근검저축강화) 매일신보]	187
1912-06-30	巡廻講話日割(순회강화일할) [매일신보]	187
1912-07-09	각지의 農況(농황) [매일신보]	187
1912-07-17	금융조합 근황 [매일신보]	187
1912-07-17	農事改良幻燈(농사개량환등) [매일신보]	188
1912-07-27	연합 농산품평회 [매일신보]	188
1912-07-30	각 군의 문명경쟁, 각 지방의 문명경쟁 [매일신보]	188
1912-08-07	관내 학사의 調査(조사)[매일신보]	188
1912-08-27	모범적 근검가, 모범될만한 부지런 [매일신보]	189
1912-09-03	살인죄인 압송 [매일신보]	189
1912-09-19	李熹公(이희공)의 舍葬(합장) [매일신보]	189
1912-09-22	수원 자혜의 순진 [매일신보]	190
1912-09-26	이희공 묘소공사 [매일신보]	190
1912-10-12	양처 파선의 報(보), 두 곳에 파선한 소문 [매일신보]	190
1912-10-19	연합 농산품평회 [매일신보]	190
1912-10-27	파선 통보 연첩, 두 곳에 파선 통보 [매일신보]	190
1912-11-03	米作 收穫豫想(미작 수확예상)[매일신보]11면	190
1912-11-09	통진군의 火災(화재), 두 곳의 화재 소문 [매일신보]	191
1912-11-15	사람들은 모두 무사 [매일신보]	191
1912-11-27	파선소식 일속, 파선도 많이 되었지 [매일신보]	191
1912-12-04	김포의 도착 상황 [매일신보]	191
1912-12-04	통진군 파선, 통진군의 파선 소식 [매일신보]	191
1912-12-10	6군의 품평회, 연합품평회 [매일신보]	191
1912-12-18	경기도 징세 성적 [매일신보]	191

## 1913

1913-01-11	경기 관내 감저 성적 [매일신보]	192
1913-01-11	경기도의 임업 獎勵(장려) [매일신보]	192

1913-01-14	임업 강화의 효과 [매일신보]	192
1913-01-15	경기도의 菜蔬(채소) [매일신보]	192
1913-01-17	양잠조합에 관하여 [매일신보]	192
1913-01-19	연직 장려 好果(호과) [매일신보]	192
1913-01-26	貯金契(저금계) 현재 수 [매일신보]	192
1913-02-28	단기 농사강습회 [매일신보]	192
1913-03-14	무지 우악한 사람들 [매일신보]	193
1913-03-15	단기 강습회 성황 [매일신보]	193
1913-04-08	자행거의 불을 켜지 [매일신보]	193
1913-04-18	暴徒冒名(폭도모명)으로 협박 [매일신보]	193
1913-04-27	정부의 血淚滂滂(혈루방방) [매일신보]	193
1913-04-30	실습 어선 出漁期(출어기) [매일신보]	194
1913-05-03	공동묘지 認可數(인가수) [매일신보]	194
1913-05-09	조흔은 패가지본, 좋은 피가하는 장본 [매일신보]	194
1913-05-17	김포군 洞里(동리) 폐합 [매일신보]	195
1913-05-20	토지조사 위원 임명 [매일신보]	195
1913-05-28	학교 의의 配置(배치) [매일신보]	195
1913-05-30	어업 실습선 出漁(출어) [매일신보]	195
1913-05-31	그저 두지 못할 위인 [매일신보]	196
1913-06-03	토지조사 위원 임명 [매일신보]	196
1913-06-05	통진의 害虫(해충) 상황 [매일신보]	196
1913-06-12	김포의 해충 驅除(구제) [매일신보]	196
1913-06-15	경기도의 독행자, 김포군 검단면 [매일신보]	197
1913-06-19	경기도 插秧(삽앙) 상황 [매일신보]	197
1913-06-21	민간 제염의 상황 [매일신보]	197
1913-06-29	경기도청 대서장의 회의 [매일신보]	197
1913-07-03	경기도 역정풍상 [매일신보]	198
1913-07-08	맥과 삽앙(6), 전도 각 군아의 통신 [매일신보]	198
1913-07-08	경기 통진군 [매일신보]	198
1913-07-10	경기도 鹽業(염업) 조사 [매일신보]	198
1913-07-23	금융조합 직영 模範田(모범전) [매일신보]	199
1913-08-03	경기도 납세 성적 [매일신보]	199
1913-08-03	사기 전문자 압교, 사기취재에 졸업한 자 [매일신보]	199
1913-08-06	경기도의 製鹽高(제염고) [매일신보]	199
1913-08-08	한강유역 해적단, 한강 하류의 해적 출몰 [매일신보]	199
1913-08-15	동대문서의 경찰범, 동서의 경찰범과 벌금 [매일신보]	200
1913-08-16	各道(각도) 虫害(충해)의 상황 [매일신보]	200

1913-08-24 돼지 도적을 잡아 [매일신보]	200
1913-08-31 경기도 改修街道(개수가도) [매일신보]	200
1913-09-07 의원시료 감음, 수원자혜위원의 시료 [매일신보]	200
1913-09-16 李堉公(이준공) 성묘 연기 [매일신보]	201
1913-09-18 수원 자혜원 巡診(순진) [매일신보]	201
1913-09-21 경기 관내 퇴비사 [매일신보]	201
1913-10-01 경기도 금융조합 [매일신보]	201
1913-10-26 토지 등급의 조사 [매일신보]	201
1913-10-28 仁川(인천) 농산품평회 [매일신보]	201
1913-10-29 嫉妬心(질투심)으로 放火(방화) [매일신보]	202
1913-10-30 京畿(경기) 柞蠶(작잠)의 성적 [매일신보]	202
1913-11-12 계집을 찾아 달라고 [매일신보]	202
1913-11-15 김포군의 馬鈴薯(마령서) [매일신보]	202
1913-11-20 인천의 褒賞授與(포상수여) [매일신보]	202
1913-11-22 인천 품평회폐회 [매일신보]	203
1913-11-25 회원 도장관 출장 [매일신보]	203
1913-12-20 한강하류의 海賊(해적) [매일신보]	203
1913-12-24 김포 수상품 진열 [매일신보]	203

## 1914

1914-01-13 京畿麥作(경기맥작) 詳報(상보) [매일신보]	204
1914-01-25 小作人(소작인) 3백명 애원 [매일신보]	204
1914-01-28 경찰매일: 도작인송 [매일신보]	204
1914-03-01 어업장려 호황 [매일신보]	204
1914-03-03 부군 은사금 異動(이동) [매일신보]	205
1914-03-25 별 사기 취죄도 있다 [매일신보]	205
1914-03-31 독농가 糞肥製造(퇴비제조) [매일신보]	205
1914-04-05 金浦公校(김포공교) 졸업식 [매일신보]	205
1914-05-03 술값에 의관을 잡혀 [매일신보]	205
1914-05-16 초맥맥 이후방방, 40년 만에 모녀 [매일신보]	206
1914-06-07 지방통신: 경기도, 순회 진료 [매일신보]	206
1914-06-14 색마의 노한, 의붓딸을 강간하려다가 [매일신보]	207
1914-07-14 천하무쌍 노자유부 [매일신보]	207
1914-09-17 개성부호를 사기 [매일신보]	208
1914-10-04 李堉公(이준공) 성묘 [매일신보]	208
1914-10-06 준비 품평회 개최 [매일신보]	208

1914-10-09 지방토조 위원회 [매일신보]	208
1914-11-09 품평회 임장일정 [매일신보]	209
1914-11-20 토지대장 引繼(인계) [매일신보]	209
1914-12-12 토지조사료 예정지 [매일신보]	209
1914-12-23 나무도적이 성업 [매일신보]	209
1914-12-25 교지 10매에 백 원, 돛자리장수의 새 재수 [매일신보]	210

## 1915

1915-01-08 작년 고등 토지조사 [매일신보]	210
1915-01-13 일본도의 강도 [매일신보]	210
1915-01-16 김포. 강화 교통 두절 [매일신보]	210
1915-01-17 주인인체하고 도적 [매일신보]	210
1915-01-22 면장의 검사국 압송 [매일신보]	211
1915-01-23 강화 인천항 복구 [매일신보]	211
1915-01-31 능침만에 술 도적 [매일신보]	211
1915-03-05 횡령금 5백원 [매일신보]	211
1915-03-11 한강 대수리사업 [매일신보]	212
1915-03-18 부동산 등기 실시 [매일신보]	212
1915-03-18 토지개량 대 계획 [매일신보]	212
1915-03-25 大賊(대적)의 면장 [매일신보]	212
1915-07-04 감루종횡, 두 번 감형후 가출옥 [매일신보]	213
1915-07-04 군수에게 배상청구, 증명을 천연하였다고 [매일신보]	213
1915-07-09 敎員 夏期講習(교원 하기강습) [매일신보]	214
1915-08-03 대전기념 식수, 경기도는 5년 계획 [매일신보]	214
1915-08-29 榮轉警部(영전경부) 別宴(별연) [매일신보]	215
1915-09-29 虎列刺(호열자) 취보 [매일신보]	215
1915-10-06 강원도 장관의 來觀(래관) [매일신보]	215
1915-12-07 柴日萬束(시일만속)소실 [매일신보]	215
1915-12-19 미국선을 襲(습)한 한강 흥적 [매일신보]	215
1915-12-23 영면한 崔錫敏男(최석민남) [매일신보]	216

## 1916

1916-04-05 경기관내 시장 상황 [매일신보]	216
1916-04-19 집에 돌아온 강도 [매일신보]	216
1916-04-29 租(조) 5백여 석, 파선되어 물속에 [매일신보]	216

1916-05-07	매도한 토지에 이전등기 안한다고 [매일신보]	217
1916-06-13	강도질 하는 중 [매일신보]	217
1916-06-17	수해후보, 각도의 금번 수해, 영등포 전 [매일신보]	217
1916-07-13	내지 수재의 참보 [신한민보]	217
1916-08-03	소에게 받쳐 죽어 [매일신보]	217
1916-08-13	실없이 죽어보아 [매일신보]	217
1916-08-22	매도 후에 典當(전당)하고 [매일신보]	218
1916-09-02	눈망울을 깨트려 [매일신보]	218
1916-09-12	전 高陽署員(고양서원) 전임 [매일신보]	218
1916-09-17	수원에서: 농황 급 수해 [매일신보]	218
1916-09-17	兩(양) 署長(서장)에게 기념품 [매일신보]	218
1916-09-20	수원에서: 면사무 전습회 [매일신보]	218
1916-09-21	운전사의 과실로 전차 기다리다 중상 [매일신보]	218
1916-09-22	검문소 개시 [매일신보]	219
1916-09-23	水賊(수적)의 공소는 기각됨 [매일신보]	219
1916-09-26	全道(전도) 환자 254人(인) [매일신보]	219
1916-09-29	虎列刺(호열자) 휘보 [매일신보]	219
1916-09-29	누계 423, 순사 1명 순직 [매일신보]	219
1916-09-30	虎列刺(호열자) 휘보 [매일신보]	220
1916-09-30	이자작가의 적서 재판(2) [매일신보]	220
1916-10-04	全道(전도) 호역 누계 [매일신보]	220
1916-10-03	全道 虎疫累計(전도 호역누계) [매일신보]	220
1916-11-19	府郡(부군)참사 자문회 [매일신보]	220

## 1917

1917-01-13	해주교통 두절해 [매일신보]	220
1917-02-14	대맥추경 장려 [매일신보]	220
1917-03-30	본부의 부재중, 그 처를 강간함 [매일신보]	220
1917-05-16	광인 친모를 살해 [매일신보]기사	221
1917-07-21	雇人遺産(고인유산)을 횡령 [매일신보]	221
1917-10-05	이 군수 송별기념 [매일신보]	221
1917-10-07	李(이) 군수 부임 [매일신보]	221
1917-11-03	김포: 천장절 奉祝(봉축) [매일신보]	221
1917-11-04	경기 秋蠶(추잠) 상황 [매일신보]	221
1917-11-22	小松(소송) 권업주임 출발 [매일신보]	222
1917-11-25	김포: 小作粍(소작인) 품평 [매일신보]	222

1917-12-05 김포: 소작미 품평회 성황 [매일신보]	222
1917-12-20 풍범선 전복, 1명 동사 [매일신보]	222
1917-12-20 곡물선 난파, 김포 앞바다에서 [매일신보]	223

## 1918

1918-01-25 김포: 부업장려와 독지가 [매일신보]	223
1918-03-13 경무부장 巡閱(순열) [매일신보]	223
1918-03-17 2차 방화하고자, 변소에다 불을 놓아 [매일신보]	223
1918-03-17 경기 임야조사 [매일신보]	223
1918-03-21 유 참여관 출장 [매일신보]	223
1918-04-20 도적질하고자 인가에 방화 [매일신보]	224
1918-04-21 김포: 기동식씨 표창됨 [매일신보]	224
1918-05-11 산본씨 대기획, 간사지 기간 경영 [매일신보]	224
1918-05-11 김포: 김주연씨 호세 대납 [매일신보]	225
1918-05-26 김포에 권총 강도, 왜목 한 필을 훔쳐 가 [매일신보]	225
1918-05-29 대포 발견, 강화도에서 구한국시대의 것 [매일신보]	225
1918-05-30 山本(산본)씨의 농사경영방침 [매일신보]	225
1918-07-02 4천 정보의 개간, 東拓(동척)의 계획 [매일신보]	225
1918-07-14 매약상이 의원질, 발각되어 벌금 [매일신보]	225
1918-08-04 인사소식 [매일신보] 인사	226
1918-08-18 호우와 稻作(도작) [매일신보]	226
1918-09-03 경기 대두작황 [매일신보]	226
1918-09-11 김포 儒林(유림) 美擧(미거) [매일신보]	226
1918-10-06 아편을 휴대하고, 팔러다니다 가장하고 [매일신보]	226
1918-10-29 학사 시찰 일정 [매일신보]	226
1918-12-26 한강에서 범선이 난파되어 13명이 죽었다 [매일신보]	226
1918-12-28 경기 임야이외 토지조사 [매일신보]	227

## 1919

1919-03-25 소요사건의 후보, 경기도 김포 [매일신보]	227
1919-04-03 강화 김포에 소요 수모자 [매일신보]	227
1919-04-11 김포 평온에 귀향 [매일신보]	227
1919-04-12 선생의 온정에 감격한 부자 [매일신보]	227
1919-05-08 김포의 청년강화회 [매일신보]	227
1919-05-12 군내의 명망가 [매일신보]	228

1919-05-20 내지 독립단 소식 [신한민보]	228
1919-05-23 善行(선행)을 褒彰(포창) [매일신보]	228
1919-10-01 호역 휘보, 28일 현재 [매일신보]	229
1919-10-04 호역 휘보, 10월 2일 현재 [매일신보]	229
1919-10-10 김포 교사의 전임 [매일신보]	229
1918-10-29 학사 시찰 일정 [매일신보]	229
1919-11-03 양곡 공보교 신설 [매일신보]	229
1919-11-05 소위 독립운의 내막 [매일신보]	229
1919-11-05 돈만 내면 대신(大臣) 등용 [매일신보]	230
1919-11-12 京畿林野調査(경기임야조사) [매일신보]	230
1919-12-25 진기한 이혼 소송 [매일신보]	230

## 1920

1920-02-15 경기객년 미작, 평년작 이상 [매일신보]	232
1920-04-09 부평 김포 대수리계획 [매일신보]	232
1920-04-11 수리조합 계획, 지주회의 개최 [매일신보]	232
1920-04-13 경성 비료문제, 신처치방 교섭 [매일신보]	232
1920-04-18 수리대출 자금 이율인상 관측 [매일신보]	232
1920-04-30 경기 漆樹(칠수)조사 [매일신보]	233
1920-05-04 15만원 사기사건의 예심 결정서 발표(1) [매일신보]	233
1920-05-11 경기부장 시험성적 [동아일보]사회	233
1920-05-30 高陽泛舟記(고양범주기)(3) [매일신보] 문예	233
1920-06-02 동척 비료 배부 [매일신보]	233
1920-06-04 水+畚逸(수일한 승려) [매일신보]	233
1920-06-13 旱害窮民(한해궁민) 구제 [매일신보]	233
1920-07-17 각 군면장협의회 [매일신보]	234
1920-07-17 수해 의연금 할당 결정 [매일신보]	234
1920-07-19 각 회사에서 연출된 이재의연금 [매일신보]	234
1920-08-01 한강수해, 김포운하를 굴착하라 [매일신보]	234
1920-08-01 한강 대홍수에 대한 유언비어 [매일신보]	235
1920-08-21 농담하다가 살인 [매일신보]	235
1920-09-09 본사 모집 수해 의연금 불일간 분배 [매일신보]	236
1920-10-09 고 이회공 전하, 어묘소 면봉의식 순서 [매일신보]	236
1920-10-16 고이회공 전하의 어묘 [매일신보]	237
1920-12-27 지방통신: 署長更迭(서장경질) [매일신보]	237

## 1921

1921-01-08	경기 地稅(지세) 수납성적 [매일신보]	237
1921-01-20	수리관개 사업 현황, 경기도 [매일신보]	237
1921-02-22	농산 퇴비품평회 예정 [매일신보]	237
1921-02-22	불정승려 지방법원에 송치 [매일신보]	237
1921-02-28	근역지(56), (44) 경기도 [매일신보] 문예	237
1921-04-09	환전표를 절취, 못된 우편소 사무원 [매일신보]	237
1921-04-14	진단서를 위조 [매일신보]	238
1921-04-15	근역지(62), (43) 경기도 [매일신보]	238
1921-04-15	군수 시찰단 [매일신보]	238
1921-04-16	협잡배, 내지인 3명이 공모하고 [매일신보]	238
1921-04-17	근역지(63), 백금생(43) 김포군 [매일신보]	238
1921-04-24	제6회 당선자 발표 [매일신보]	239
1921-04-30	대강도 逮捕(체포) [매일신보]	239
1921-04-30	조선 공산물현황(2) [매일신보]	239
1921-06-12	부평 수리계획, 3천5백 정보에 공한 [매일신보]	239
1921-07-15	경기도작상황 [매일신보]	239
1921-07-15	김포에 8명의 강도 [매일신보]	239
1921-07-23	김포군에 호군 습래 [매일신보]	240
1921-07-25	김포호역은 陰性(음성) [매일신보]	240
1921-09-05	재판관할 문제로 경성은 안 되고 [매일신보]	240
1921-09-17	수리조합 성립 [매일신보]	240
1921-09-23	집회: 경기교화 강연회 [매일신보]	240
1921-10-07	사회교화 순강 [매일신보]	240
1921-10-12	선내 석탄매장량, 1개년 소비고는 약 백만톤 [매일신보]	240
1921-10-23	민총기등 검거 [매일신보]	240
1921-11-27	진위 김포 임야사정 [매일신보]	241
1921-11-28	김포 야학교 개학 [매일신보]	241
1921-12-25	광복회 예심결정 [매일신보]	241

## 1922

1922-02-03	마곡리 시장 인가, 김포군 하성면에 [동아일보]	241
1922-03-09	夫婦同居(부부동거) 訴訟(소송) [매일신보]	241
1922-03-30	처자를 방매한 못된 남편을 걸어 [매일신보]	242
1922-04-01	전과녀의 이혼소, 남편과 못살겠다 [매일신보]	242

1922-04-21	금융조합 증설 [매일신보]	242
1922-04-23	승려로 강도질 [매일신보]	242
1922-05-04	공의 강습회 [매일신보]	242
1922-05-07	강도단 잠입, 부내 경찰의 엄탐 [매일신보]	243
1922-05-13	통진 공보생 원족회 [동아일보]	243
1922-06-07	김포 수양구락부 [매일신보]	243
1922-06-10	경기 춘견 입찰 [매일신보]	243
1922-06-16	시모가 무녀란 이유로 [매일신보]	243
1922-06-20	경기 우시장, 매매두수 격증 [매일신보]	243
1922-07-11	경기실업 시찰단 [매일신보]	244
1922-08-06	금회의 강우와 손해 [매일신보]	244
1922-08-13	승려력사, 기차에 치어서 팔다리가 끊어져 [매일신보]	244
1922-08-21	김포군 구 통진보교 동창회 [동아일보]	244
1922-09-03	경기 수해조사 [매일신보]	244
1922-09-08	경기도내 6백만원 [매일신보]	244
1922-09-15	법인등기 공고 [매일신보]	245
1922-09-17	방화 협박죄로 음분녀는 검사국 [매일신보]	245
1922-09-21	임야조사사업인계 [매일신보]	245
1922-10-06	경기 연합품평, 11월개최 [매일신보]	245
1922-10-07	법정에 입한 내외, 계집은 음부이오 [매일신보]	245
1922-10-14	천정속에 권총 탄환 [매일신보]	245
1922-10-19	法人登記公告(법인등기공고) [매일신보]	246
1922-11-19	도경찰부내 이동 [매일신보]	246
1922-12-14	삼처강도의 진범인 [매일신보]	246

## 1923

1923-01-09	辭令(사령) [매일신보]   인사	246
1923-01-10	집회: 부인식씨 송별회 [매일신보]	246
1923-01-11	집회: 부인식, 허섭씨 송별회 [매일신보]	246
1923-01-16	월미도에서 대충돌 [매일신보]	246
1923-01-29	재판은 조화무궁 [매일신보]	246
1923-02-05	경기 시장 취인 [매일신보]	246
1923-02-22	수리조합 近狀(근상) [매일신보]	247
1923-04-15	人事消息(인사소식) [매일신보]	247
1923-04-15	어선 130척 행방 불명 [매일신보]	247
1923-04-19	부평수리 認可(인가) [매일신보]	247

1923-05-05	금란교 운동회 [매일신보]	247
1923-06-16	토지개량사업 현황 [매일신보]	247
1923-06-29	부평수리조합 기공식 집행 [매일신보]	247
1923-07-03	人事消息(인사소식) [매일신보] 인사	247
1923-09-30	김포 도착상황, 시설지사 시찰단 [매일신보]	247
1923-10-16	박지타지하여 치사케 [매일신보]	248

## 1924

1924-01-01	郡石歌(군석가) [매일신보]	248
1924-01-11	패도한 것을 봉적 신고 [매일신보]	248
1924-03-01	보제방을 파괴하여 천정보 관개 불능 [매일신보]	248
1924-03-01	세계 무전 여행자라 사칭하고 위협 [매일신보]	248
1924-03-20	수은에 중독 즉사 [매일신보]	249
1924-03-26	각도 평의원의 후보자 당선 발표 [매일신보]	249
1924-03-27	인천 강도 체포 [매일신보]	249
1924-04-14	김포군의 우량 농촌 표창식 거행 [매일신보]	249
1924-04-16	김포 영등포간 우편물의 수송 [매일신보]	249
1924-04-17	道(도) 보조금의 용도 [매일신보]	250
1924-04-19	김포전염병 증가 [매일신보]	250
1924-04-20	김포學議(학의) 개선 [매일신보]	250
1924-04-23	4인 사기단, 신문지를 돈이라고 [시대일보]	250
1924-04-24	군 신문의 발행 [매일신보]	250
1924-04-25	金陵青年(금릉청년) 설립총회 [매일신보]	250
1924-05-15	부평평야의 관개공사, [매일신보]	250
1924-05-16	전과를 회전하고 법정에서 체음 [매일신보]	250
1924-05-22	강화의 사격대회 [매일신보]	250
1924-06-14	김포 방면의 폭풍우, 피해가 많다 [매일신보]	250
1924-06-20	인천 축항에서 미인 자살미수 [매일신보]	251
1924-07-01	김포 위생전람 상황 [매일신보]	251
1924-07-05	김포 춘견매매, 25일로 종료 [매일신보]	251
1924-07-06	계란 공동 판매 [매일신보]	251
1924-07-23	김포 학생 巡講(순강) [매일신보]	251
1924-07-27	경기 관내의 수해 상보 [매일신보]	251
1924-08-05	肥後武雄(비후무웅)씨의 특지 [매일신보]	251
1924-08-10	위조지폐 발견, 조선은행 1원권 [매일신보]	251
1924-08-13	금고파괴 절도 [매일신보]	251

1924-08-21	김포 점사 驅除(구제)상황 [매일신보]	252
1924-08-21	김포군 대곶면 분서강습소 [동아일보]	252
1924-08-26	김포금융조합 업적 [매일신보]	252
1924-08-27	김포친목회 교육열 [매일신보]	252
1924-09-01	지방집회: 大和田(대화전)서장 송별회 [매일신보]	252
1924-09-04	진재기념 상황: 김포군 [매일신보]	252
1924-09-05	하성면 사무소 낙성비의 징수 [동아일보]	252
1924-09-06	지방집회: 池田(지전)교장 송별회 [매일신보]	253
1924-09-16	時實(시실)지사 김포 시찰 [매일신보]	253
1924-09-16	교육을 반대하는 면장 [시대일보]	253
1924-10-03	한강 지류에 시체 漂着(표착) [매일신보]	253
1924-10-24	김포의 夜間講話(야간강화) [매일신보]	253
1924-10-26	도작연부조제 실행조합 설립 [매일신보]	253
1924-10-27	김포 범죄의 감소 [매일신보]	253
1924-10-28	김포 소작인의 대불평, [매일신보]	254
1924-11-17	김포시찰단 출발 [매일신보]	254
1924-11-24	太商金(태상금)을 절취 [매일신보]	254
1924-11-24	김포 무덕관 상량식 [매일신보]	254
1924-11-27	김포 가축품평 유망한 계획 [매일신보]	254
1924년 12월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3조	255
1924-12-11	경기도 관내 整理淘汰(정리도태), 합 59인 [매일신보]	255
1924-12-11	김포의 행정 정리 [매일신보]	255
1924-12-15	김 면장의 칭송 [매일신보]	255
1924-12-18	연초 소매인대회 [매일신보]	255
1924-12-18	농사개량 강습회 [매일신보]	255
1924-12-27	김포군 공조회 역원회 [매일신보]	256
1924-12-27	연합검도 納會(납회) [매일신보]	256
1924-12-28	조선어 試驗(시험) [매일신보]	256

## 1925

1925-01-13	성황을 이룬 동지척사대회 [매일신보]	256
1925-01-30	성황을 극한 동지척사대회, 명예의 일등은 [매일신보]	256
1925-02-04	출가한 소녀, 못된자 따라서 [매일신보]	256
1925-02-07	汽船(기선)에서 분만, 배에는 오색기발 [매일신보]	256
1925-02-16	김포군 생산물품평회, 22일부터 [매일신보]	256
1925-02-16	현대의 王祥(왕상)인 白樂親兄弟(백악친형제) [매일신보]	256

1925-02-18	朴齊淵(박제연)씨 慈善(자선) [매일신보]	257
1925-02-20	김포산업 강습회 [매일신보]	257
1925-02-26	김포에 毒感蔓延(독감만연) [매일신보]	257
1925-03-01	김포읍내에 괴화빈빈 [매일신보]	257
1925-03-10	김포군수 부인식에게 [동아일보]	257
1925-03-15	김포부인저축회, 부업 장려와 학자로 계란 [매일신보]	258
1925-03-16	김포군 자강구락부, 10일에 발회 [동아일보]	258
1925-03-19	공의의 약에 중독즉사, 검사까지 [매일신보]	258
1925-03-20	김포금조 낙성식기 [매일신보]	258
1925-03-21	김포학교평의회 [매일신보]	258
1925-03-24	김포군 축산품평회 [매일신보]	259
1925-03-24	김포군 축산품평회 수상식 성황 [매일신보]	259
1925-03-31	옥구군의 면이원 시찰단 [매일신보]	259
1925-04-07	김포의 양단체 기념 식상 [매일신보]	259
1925-04-13	김포농사장려회 정기총회 [매일신보]	259
1925-04-17	김포금조의 정기총회 낙성식을 겸하여 [매일신보]	259
1925-04-28	자부의 발악에 시아비가 목을 매여 [매일신보]	259
1925-05-08	각지 은혼식 봉축 [매일신보]	259
1925-05-08	김포 범죄건수, 절도범 최다 [매일신보]	260
1925-05-12	김포군의 일어 해독자 [매일신보]	260
1925-05-13	은혼식 당일에 공전성황의 각지 봉축 [매일신보]	260
1925-05-13	김포 호수 증가 [매일신보]	260
1925-05-16	각지 독지가 : 도로공부의 칭송 [매일신보]	260
1925-05-16	기념저금 기부 [매일신보]	260
1925-05-16	김포정구대회 [매일신보]	260
1925-05-21	김포 초유의 정구대회, 대성황리에 종료 [매일신보]	260
1925-05-22	무상한 인생을 비관 [매일신보]	261
1925-05-26	거동수상자 引致(인치) [매일신보]	261
1925-05-31	장시 격투후 체포 [시대일보]	261
1925-06-04	김포에 강도 2명 [매일신보]	261
1925-06-08	지방집회: 영암면장 위로연 [매일신보]	261
1925-06-10	광견예방주사 [매일신보]	261
1925-06-10	김포묘대품평회 [매일신보]	261
1925-06-13	양계개량과 부인활동 [매일신보]	261
1925-06-14	김포시의 기념 [매일신보]	261
1925-06-14	김포에 춘잠견 공동판매 [매일신보]	261
1925-06-22	부인 저축회에 계란 절도 [매일신보]	261

1925-07-09 6일래의 호우로 각처 하천증수 [매일신보]	262
1925-07-15 부평수리제방 4개소 결궤 목하 수리중 [매일신보]	262
1925-07-18 부평수리안전 4개소 결과는 전연무근 낭설 [매일신보]	262
1925-07-19 정행묵씨와 창영부장의 기부 수해재민구제로 [매일신보]	262
1925-07-22 사자불지기수 행위불명자도 수천명 [매일신보]	262
1925-07-22 수리조합 피해 [매일신보]	262
1925-07-23 경인간 3군 답사기, 니해 150여리 돌파 [시대일보]	262
1925-07-24 적신도생자 600, 170호는 터도 없이 되고 [시대일보]	262
1925-07-24 본보 인천지국 구호반 활동 [시대일보]	262
1925-07-24 사망자 194명 전과 가옥이 537 [매일신보]	262
1925-07-24 점차 판명된 부평야의 수재참황 [매일신보]	262
1925-07-24 인천 각 단체, 수해 구호상황 [시대일보]	262
1925-07-25 수재삼화(2) 1만 사생의 비극 [시대일보]	262
1925-07-25 대홍수와 각지 구제 소식 [시대일보]	262
1925-07-25 전지침수가 6천정보 도교가 200호 유실이 [매일신보]	263
1925-07-25 농작물 유실로 悲觀繪死(비관액사) 죽은뒤 [매일신보]	263
1925-07-27 수난의 참적을 답사 [시대일보]	263
1925-07-29 간신히 도보 통행 전신전화 개통 [매일신보]	263
1925-07-29 김포수해 참상과 7월 22일까지 조사 [매일신보]	263
1925-07-30 황량한 폐야에 낭자한 통곡성 명재단석인 [매일신보]	264
1925-07-30 피난중에도 절도사건 빈발 하로 몇차례식 [매일신보]	264
1925-08-09 통진에 適雨(적우) [시대일보]	264
1925-08-23 수해동정금 재대판 동포로서 [매일신보]	264
1925-08-28 各地 篤志家(각지 독지가) [매일신보]	264
1925-09-14 어하사금 전달식 김포의 [매일신보]	264
1925-09-14 김포 일군의 수해액 250만원 [매일신보]	264
1925-09-23 국세조사의 감독관 임명 21일에 [매일신보]	264
1925-10-26 김포 각교 정구 11월 3일에 [매일신보]	264
1925-10-26 김포소채품평 11월십 5일경 개최예정 [매일신보]	264
1925-10-30 김포정구대회 [매일신보]	264
1925-10-30 용산-김포간 발동기선 개통실시 [매일신보]	264
1925-11-03 김포 수해복구지 답사기 [매일신보]	265
1925-11-18 토지를 양처에 매도 여자인 것을 [매일신보]	265
1925-12-02 김포 3조의 현상표어 모집 1등 입상자 [매일신보]	265
1925-12-02 김포의 농산품평 포상식 거행 [매일신보]	266
1925-12-08 도강타가 負傷(부상) [매일신보]	266
1925-12-21 東西南北(동서남북) [매일신보]	266

1925-12-21	김포 이재민의 철저한 구조방침 [매일신보]	266
1925-12-22	동성학원 유망 [시대일보]	266
1925-12-23	토사봉락 2명 중상 [매일신보]	266

## 1926

1926-01-14	조선인구통계 (1) 경기도 [시대일보]	266
1926-01-14	노량진 살인강도 김포서 체포압송 [매일신보]	266
1926-01-17	매일 10시간 노동에 최고임금 50전 [시대일보]	267
1926-02-13	김포척사대회 [매일신보]	267
1926-02-25	김포척사대회 성황으로 종료 [매일신보]	267
1926-03-15	사산봉락으로 인부참사 [매일신보]	267
1926-03-18	김포에 학교비평의회 12일에 개최 [매일신보]	267
1926-03-25	춘복의차매행불진 지방구매력불기로 [매일신보]	267
1926-05-01	란간계류 시체의 死因(사인)이 극히 수상 [매일신보]	267
1926-05-02	김포군 농회 설립인가<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39호>	268
1926-05-02	조복석 시체, 내막조사 애원 [시대일보]	268
1926-05-06	공금 이천 원을, 횡령한 금조서기, [시대일보]	268
1926-05-22	구제금 인수 [시대일보]	268
1926-06-05	김포군 통진공보 교장훈도 분쟁 [매일신보]	268
1926-07-09	김포 학생 순강, 금년 하기에 [시대일보]	268
1926-07-25	김포학생 순회강연 본사지국추원 [매일신보]	268
1926-07-30	김포수해, 도로 십리에, 침수로 교통곤란 [시대일보]	269
1926-08-21	수해파괴의 도로복구 영등포김포간 [매일신보]	269
1926-10-12	부평 수리조합 사업지별 견개황 [매일신보]	269
1926-10-26	김포서 사격회 [매일신보]	269
1926-10-31	수원에 체포된 괴한 경찰부로 호송취조 [매일신보]	269
1926-12-16	젖은 붓고 생각은 간절하야 [매일신보]	269

## 1927

1927-01-23	김포군에 소작인 조합창립 근근총회 개최 [매일신보]	269
1927-01-24	地方短評(지방단평) [매일신보]	269
1927-02-22	경기도의 약수분석 김포가 제일 [매일신보]	269
1927-03-20	열반기념 강습회 [매일신보]	270
1927-03-25	김포에 도망군이 [매일신보]	270
1927-04-09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기타	270

1927-04-16 김포견학단 금일 입경 본사분국 후원 [매일신보]	270
1927-04-18 김포견학단 일행 [매일신보]	270
1927-05-16 재판소 속이고 사기하려든 자 [중외일보]	270
1927-05-16 경기도내의 모범 우물수 아래와 같다 [중외일보]	270
1927-05-16 과부가 생남하여 아이 내어버리고 잡혀 갔다 [중외일보]	270
1927-05-20 큰 늑대와 강상에서 격투 [중외일보]	270
1927-06-02 단오가절에 전선공술회 김포에서 [매일신보]	270
1927-06-12 김포공보 유훈도 불경죄로 수기소 [매일신보]	270
1927-06-13 10년근속 양씨 기념축하회 성대히 거행 [매일신보]	271
1927-06-17 소금으로 금전사취 인천서 문제 [매일신보]	271
1927-06-22 6인조 권통단 경관대와 교화 쌍방에 [매일신보]	271
1927-06-23 모성의 륜락과 실자쟁송 빈번 [매일신보]	271
1927-06-24 불법고문 난타 살상 대명리민의 대폭행 [매일신보]	271
1927-06-27 대명리 살상범 인천에 이송 [매일신보]	272
1927-06-29 해상의 비밀 자살이나 피살이나 행선중에 [매일신보]	272
1927-07-05 의문의 해상비극 결국 타살로 증언 [매일신보]	273
1927-07-12 축산동업조합 연합회 설치인가<조선총독부고시 제217호>	273
1927-07-24 김포청년회 혁신임총, 대발전의 서광 [중외일보]	273
1927-08-05 도박단 검거 [중외일보]	273
1927-08-05 인천 대 김포 정구 [중외일보]	273
1927-08-06 어림없는 짓 하다, 독사에게 물려 [중외일보]	273
1927-08-10 췌어 나리다 소년중상 차표 일코서 [매일신보]	274
1927-08-13 상해 공산당의 소굴을 포위 습격 [매일신보]	274
1927-08-16 남선각지에 엽권총창궐 구제방법도 불명 [매일신보]	274
1927-08-26 부평수조 문제로 관계지 주회 [중외일보]	274
1927-08-29 김포 점등 개시 7일부터 [매일신보]	274
1927-08-30 퇴비 제조 강습 [매일신보]	274
1927-09-02 문제만흔 부평수조공사 자초지종의 [매일신보]	274
1927-09-04 우편소원 공금횡령 목하 엄탐중 [매일신보]	274
1927-10-05 김포 각 학교 추기 대운동회 체육데에 [매일신보]	274
1927-10-08 경기도내 납세 우량면 표창 [매일신보]	274
1927-10-13 김포 우적 출현 [매일신보]	274
1927-10-20 변호사 사무원등 부호자유인감금 [매일신보]	274
1927-10-27 미국대학교수 농촌단체시찰 김포에서 [매일신보]	275
1927-10-27 김포 강화간 자동차 개통 [매일신보]	275
1927-11-01 스포-쓰 [매일신보]	275
1927-11-12 역돈토 대부료를 결정하는 벼 1석당 환산가격	275

1927-11-19 인천 주류품평 20일 포상 수여 [중외일보]	275
1927-11-22 김강석 도적 김포서 잡아 [매일신보]	275
1927-11-23 5군 연합 조선주 품평회 성황으로 폐막 [중외일보]	276
1927-12-04 악지주 징치를 종로경찰에 탄원 [중외일보]	276
1927-12-14 곡물 반입검사 수수료권 매팔 허가	276
1927-12-24 살인죄 지은 8명의 피고 원수의 원수감다가 [매일신보]	276
1927-12-27 보교졸업생에게 농업실제 지도 [중외일보]	276

## 1928

1928-01-07 정의부원2명 신의주에 이송 [매일신보]	277
1928-01-24 김포 구력연말 경계 서장이하총출 [매일신보]	277
1928-02-24 김포에 강도 소득은 업서 [매일신보]	277
1928-02-25 경향각지를 횡행하는 강도일단 4명 피착 [중외일보]	277
1928-02-25 인심을 불안케 하든 4인조 강도를 체포 [매일신보]	277
1928-02-25 범죄사실을 시인한 피고 [매일신보]	277
1928-03-16 미인은 박명! 기생되는 안해 차저주오 미인 [매일신보]	277
1928-03-31 순사 살해강도, 5월 1일에 공판 [중외일보]	277
1928-04-21 김포에 영병 통계가 8명 [매일신보]	277
1928-04-25 김포영병감세 사자는 3명 [매일신보]	277
1928-04-26 우편소원 체포 [중외일보]	277
1928-05-03 순사 살해범 검사 사형을 구형 [중외일보]	277
1928-05-14 순사 살해범 무기와 12년에 [중외일보]	277
1928-05-15 아즉도 뒤를썬는 경성의 발진염병 [매일신보]	277
1928-05-26 석존의 법신 [매일신보]	277
1928-05-26 석가세존의 강탄기념일 [매일신보]	277
1928-05-27 釋尊(석존)의 法身(법신) [매일신보]	277
1928-07-05 대절도범 [중외일보]	278
1928-07-09 김포의 강도 경성으로 왔다고 크게 수삭중 [매일신보]	278
1928-07-13 의문의 살인사건 주범은 무죄 [중외일보]	278
1928-07-18 흥농조합총회 新隅山上(신우산상)에서 [매일신보]	278
1928-08-07 篤農家列傳(독농가렬전) (12) [매일신보]	278
1928-08-07 김포면장회의 한재 대책강구 [매일신보]	278
1928-08-15 열차도하자 처벌 [중외일보]	278
1928-08-30 팔미도 해상에서 선원 3명을 살해 [중외일보]	279
1928-09-09 7세 소아가 전신이 사형화 [매일신보]	279
1928-09-20 신궁기 인천예선 래월 2일 [매일신보]	279

1928-10-16 地方片片(지방편편) [매일신보]	279
1928-10-16 김포수조 창립위원회 조직 [매일신보]	279
1928-10-30 전매 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의 관할 구역 개정	279
1928-11-20 인천난파 진상, 인명은 전부 구조 [중외일보]	279
1928-11-20 한강하류에 파선 승객 7명은 모조리 죽었다 [매일신보]	279
1928-11-20 김포서아연활동 서장이하 활동을 개시 [매일신보]	279
1928-11-22 익사시상개 처처에서 발견되었다 [매일신보]	279
1928-12-11 비강타가 중상 시골사람이 덩빙대다가 [매일신보]	279
1928-12-23 국경의 일년간 검거된 범죄수 [매일신보]	279

## 1929

1929-01-05 삼일본산 대표 집합 각황사에 승려대회 [매일신보]	279
1929-01-10 혼인잔치에 살인한 범인 [매일신보]	280
1929-01-18 순사죽인 강도 원심대로 무기언도 [매일신보]	280
1929-03-03 의복도적 서서에 인치 [매일신보]	280
1929-03-22 인천해에 난파, 인명은 무사 [중외일보]	280
1929-03-22 바다의 勇者(용자) [매일신보]	280
1929-03-28 잠적 3시간 후 여관에서 체포 [중외일보]	280
1929-03-28 여관 잠복중 강도를 종로서에서 잡았다 [매일신보]	280
1929-04-12 황윤식 판결, 징역 6개월 [중외일보]	280
1929-04-14 인가 신청 중의 김포수리조합 [중외일보]	280
1929-04-29 탁주마저 빼앗아 통음 잠적 [중외일보]	280
1929-05-16 만성이 비등하는 석존강탄제의 성황 [매일신보]	280
1929-05-19 김포에서 금릉학원 기성, [중외일보]	280
1929-05-20 김포수조 창설에 대하여 삼동지주측이 반대 [매일신보]	280
1929-06-27 일사병으로 청년사망 [매일신보]	281
1929-06-29 서북지방은 흡족 남부지방 상불족 [매일신보]	281
1929-08-28 황해상에 습래한 폭풍우로 [중외일보]	281
1929-09-01 김연의씨 출옥 [중외일보]	281
1929-09-13 실모상대로 친권행사금지소 [매일신보]	281
1929-09-17 인천에 호역침입! 환자 6명중 4명 사망 [매일신보]	281
1929-10-05 김포 시흥, 등지에 축우 감모 대유행, 중외일보]	282
1929-11-11 11명의 노부랑단 종로서에 검거 [중외일보]	282
1929-11-28 각 군면의 결정 [매일신보]	282
1929-12-04 동거리행소 [매일신보]	282
1929-12-19 대곶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7호>	282

1929-12-23	고촌면사무소 위치 변경<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100호>	282
------------	---------------------------------	-----

## 1930

1930-01-27	묘령녀의 출가 목하 수사중 [매일신보]	284
1930-02-14	화촉성전도 작야옹 파경탄의 삼쌍소송 [매일신보]	284
1930-02-28	경기도 평의회원 후보자 선거관련 공고	284
1930-03-15	조선 선거사의 신기록 [매일신보]	284
1930-03-22	금일 일제 투표하는 경기도의 후보자 [중외일보]	284
1930-03-23	김포수조인가 [매일신보]	284
1930-04-06	토개대행 계약 [매일신보]	284
1930-04-25	병어리임을 기화로 토지사기 [매일신보]	285
1930-05-06	불교대강연 각황사에서 [매일신보]	285
1930-05-22	인천에 大賊(대적) [매일신보]	285
1930-06-25	坐洲沈沒(좌주침몰) [매일신보]	285
1930-07-03	경기서부 7군의 연합재무연구회 각 군수 이하 [매일신보]	285
1930-07-07	외간남자와 밀통 가산낭비 [매일신보]	285
1930-07-08	地方辭令(지방사령) [매일신보]	285
1930-07-11	노동자 모집 [매일신보]	285
1930-08-02	自動車竊盜(자동차절도) [매일신보]	286
1930-08-06	풍곡경찰관주재소의 명칭 등 변경	286
1930-08-09	승객자동차가 김포 영등포간 개통 [중외일보]	286
1930-08-16	급탄에 범선침몰 선객 18명 익사 [매일신보]	286
1930-08-16	水害義捐金(수해의연금) [매일신보] 기타	286
1930-09-05	금조급지소 62개소 증설 조합활동은 [매일신보]	286
1930-09-17	남창청년회 정기총회 경과 [중외일보]	286
1930-09-18	각 경찰서별의 발생 검거수 [매일신보]	286
1930-09-19	3인조 강도단 [중외일보]	286
1930-09-22	김포수조, 용지가격 결정 [중외일보]	286
1930-09-30	수해의연금 [중외일보]	287
1930-10-08	사형감하려다 피소된 면장 [매일신보]	287
1930-11-05	송충이 구제 예방규칙에 의한 활엽수 벌채 금지조치	287
1930-12-03	전개화산농민사 김포에 창설 [매일신보]	287
1930-12-25	3군 부연합 국자조합 창설 [매일신보]	287
1930-12-26	3군 연합국조 출자는 양조업자에 분담 [매일신보]	287

## 1931

1931-01-14 朝鐵業績不振(조철업적불진) [매일신보]	287
1931-01-15 금폭락 上海(상해)의 [매일신보]	287
1931-01-17 송전선의 확장 [매일신보]	287
1931-01-18 면포류의 수이입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매일신보]	287
1931-01-31 취직식혀준다 하고 3명에게 8원 편취 [매일신보]	287
1931-02-03 기생에 반하여 불제자 범행 [매일신보]	287
1931-03-10 김포수리 해산설 대두 [매일신보]	287
1931-03-30 1931년분 호세부와 예정액 배당	288
1931-04-01 3군 연합국자조합 창립위원회개최 [매일신보]	288
1931-04-15 흠애비 한집에 잇는 것은 위험한 일 [매일신보]	288
1931-04-15 면제개정 경과규칙에 의한 읍면 인구	288
1931-05-01 경기도내에 신설할 14개 공보교 [매일신보]	288
1931-05-01 한강하류 복선참변 후보 [매일신보]	289
1931-05-13 진행 열차에서 썰여내려 즉사 [매일신보]	289
1931-05-14 비강타가 로파가 참사 진행열차에 [매일신보]	289
1931-05-17 경기도내각읍면별 작년말인구총수 [매일신보]	289
1931-05-17 안해와 싸우고 여식을 교살 [매일신보]	289
1931-05-22 충북도의 우량촌 조성금 송강하소량리에 [매일신보]	289
1931-05-24 절도범 체포 [매일신보]	289
1931-05-25 병처와 유아를 버리고 장적 [매일신보]	289
1931-05-28 한강에서 발동선 전복 [신한민보]	289
1931-06-12 경기서부 7군의 군사무 연구회 [매일신보]	289
1931-06-21 서해안어민이 갈망튼 충남수산교인가 [매일신보]	289
1931-07-03 전매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관할구역 개정	289
1931-07-06 도·부·군·도·면별 인구<조선총독부 고시 제351호>	290
1931-07-07 김포군 김포소방조 직원의 정원 확정	290
1931-07-10 김포 자동차 6월부터 운전 [매일신보]	290
1931-08-12 강화, 문산, 김포 3군 대항정구전 [매일신보]	290
1931-08-26 굶으며 품파는 인부에 강제로 저금을 시켜 [동아일보]	290
1931-09-06 수미환사건 유족이 제소 [매일신보]	291
1931-10-24 16세의 소녀가 계모를 모살하기까지 [매일신보]	291
1931-10-27 성대교수까지 출장 머슴의 시체 해부 [매일신보]	291
1931-11-06 역둔토 대부료 산정용 쌀 1석당 환산가격	291

## 1932

1932-02-02	경기지부 취급의금 [매일신보]	291
1932-03-05	양기선 총돌 [매일신보]	291
1932-03-15	전매지국 및 전매지국 출장소의 판매소 위치 변경	291
1932-03-19	검단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	291
1932-04-11	1932년분 호세부와 예정액 배당	291
1932-05-04	의무는 이행안고 권리만 주장 [매일신보]	291
1932-05-10	대절도 체포 [매일신보]	291
1932-05-30	타살의 농후한 괴시체 표착 [매일신보]	291
1932-08-09	시국광구에 관한 양부장의 포부 (4) [매일신보]	291
1932-09-02	産業美談(산업미담) (10) [매일신보]	291
1932-09-07	제2회 학생브나로드운동 [동아일보]	292
1932-09-10	조림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	292
1932-09-26	탈주 잠적한 강도범 잡어되리기까지 [매일신보]	292
1932-10-04	김포수리조합에서 공비 5할보조요망 [매일신보]	292
1932-10-11	면장후임 문제로 면장대회 개최 [동아일보]	293
1932-10-18	김포면장회의 농촌진흥협의로 [매일신보]	293
1932-10-19	김포군 농촌진흥대회 년내로일제 설치 [매일신보]	293
1932-10-22	농촌진의 인기 (三) [매일신보]	293
1932-10-26	영등포 김포 양서 대항 경점사격회 [매일신보]	293
1932-10-29	김포 금조업적 9월말 현재 [매일신보]	293
1932-11-05	김포군의 자력경쟁 실천운동은 맹렬 [매일신보]	294
1932-11-08	침효부 표창식 [매일신보]	294
1932-11-21	김포군내면 협의회 개최 [매일신보]	294
1932-11-21	김포 연초 매상고 4만5천원 [매일신보]	294
1932-11-22	민심작흥 자력경쟁 [매일신보]	294
1932-11-22	김포 공보교 수업료 성적우량 [매일신보]	295
1932-11-23	김포 공보교생 락수집습 민심작흥운동 [매일신보]	295
1932-12-08	김포서에서도 나방기금 모집 [매일신보]	295

## 1933

1933-01-07	김포 월곳에 금광을 발견 [매일신보]	295
1933-01-17	경기도 관내의 자력경쟁 부락 [매일신보]	296
1933-01-19	김포, 영등포 양서 구년말 경계 [매일신보]	296
1933-01-21	변심한 남편 걸어 양반 안해 제소 [동아일보]	296

1933-02-22	부안군장동 진흥회총회 [매일신보]	296
1933-02-23	인습결혼이 낳은 비극 [신한민보]	296
1933-03-26	홍, 송 양씨 출옥 [조선중앙일보]	297
1933-03-28	27일에도 20명의 신환자 [조선중앙일보]	297
1933-04-01	역원 개선한 예산 각진흥회 [매일신보]	297
1933-04-12	이원찬 군수 명경기도 김포군 재근 [동아일보]	297
1933-04-15	축산동업조합 해산 ①<조선총독부고시 제162호>	297
1933-04-20	천연두 의연 만연 [조선중앙일보]	297
1933-04-21	경기도회 투표일·선거구·의원 수를 확정	297
1933-05-02	강화군 산조 제2기 총회 [매일신보]	297
1933-05-08	사건층 생첩출 [조선중앙일보]	297
1933-05-12	조선 통치사의 신기원 [매일신보]	297
1933-05-15	법원 인천지청, 부활론 대두로 [조선중앙일보]	297
1933-05-21	13만원 보조받아 설립되기도 전에 소비 [조선중앙일보]	297
1933-06-03	화성명충(化性螟蟲) 구제조치	297
1933-06-05	부·읍·면별 현주 인구	298
1933-06-12	군민의 열혈로 포광폭도로 완성 [매일신보]	298
1933-06-12	김포방공강화 [매일신보]	298
1933-06-20	문제의 김포수조 해산 [조선중앙일보]	299
1933-07-01	김포읍 중앙관통 도로 확장 [매일신보]	299
1933-07-01	김포이양 완료 우량흡족으로 [매일신보]	299
1933-07-02	흠친 돈으로 여흥하고 잡힌 자 [조선중앙일보]	299
1933-07-02	각 면마다 담당 지도원 배치 [매일신보]	299
1933-07-02	김포의 춘견가 비작년 5배로 [매일신보]	299
1933-07-08	김포주조조합 추첨권부로 대매출 [매일신보]	299
1933-07-09	김포군 고촌보교 설립기성회개최 [매일신보]	300
1933-07-18	김포군 농회 평의원 선거 [매일신보]	300
1933-07-18	김포 면장회의 [매일신보]	300
1933-07-25	김포군교육회 하계강습회 개최 [매일신보]	300
1933-08-20	천오백 계몽 대원 활동 [동아일보]	300
1933-08-22	열차절도범 영등포서 검거 [매일신보]	300
1933-09-14	강도절도 계속 [조선중앙일보]	301
1933-09-16	부천의 치정살인범 김포군서 체포 [매일신보]	301
1933-09-22	혼상시절약 철저히 실행 [매일신보]	301
1933-09-25	김포군농촌진흥위원회 개최 [매일신보]	301
1933-09-28	잠방동진흥회 이회장의 미거 [매일신보]	301
1933-09-29	빈촌의 진흥 위하여 오천원채권포기 [매일신보]	301

1933-10-09 7세 소아가 자동차에 중상 [조선중앙일보]	301
1933-10-19 혼잡한 가두에 스리가 횡행 [조선중앙일보]	301
1933-11-02 김포군의 납세선전 군직원총출 [매일신보]	301
1933-11-09 란고동진흥회 금주단연 성과 [매일신보]	301
1933-11-10 김포군의 음주량 [매일신보]	301
1933-11-10 조서환발 10주년기념 주간의행사 [매일신보]	302
1933-11-10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302
1933-11-12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302
1933-11-12 김포보교생의 소채품평회 [매일신보]	302
1933-11-13 교동구 정동진흥회 공경 [매일신보]	302
1933-11-13 양촌면 납세성적 우량 [매일신보]	303
1933-11-14 중견인물 양성으로 보교졸업 [매일신보]	303
1933-11-17 리호 재무부장 김포 시찰 [매일신보]	303
1933-11-18 대용 연료를 장려 분말석탄 [매일신보]	303
1933-11-20 언쟁튼 심장 인부를 살상 [매일신보]	304
1933-11-21 향산부인단의 활약 [매일신보]	304
1933-12-01 김포군 농촌 진흥협의회 [매일신보]	304
1933-12-04 김포서 사격대회 우승 축하회 [매일신보]	305
1933-12-08 고촌면 보교 위치 결정 [매일신보]	305
1933-12-09 제1기 계획으로 가마니 백만매 산출 [매일신보]	305
1933-12-09 김포군내의 주류경쟁 해결 [매일신보]	306
1933-12-09 김포군의 도량형기 검사 3일부터 [매일신보]	306
1933-12-17 인부 1명 력사 [매일신보]	306
1933-12-20 김포군 가마니 생산 계획 백만매 산출 결정 [매일신보]	306
1933-12-20 김포 면장회의 [매일신보]	307

## 1934

1934-01-03 진흥운동에 참된 공적자 [매일신보] 00	307
1934-01-16 농한기 이용하야 야학회 개설 [매일신보]	307
1934-01-16 대경성의 실현재이 [매일신보]	307
1934-01-15 조선곡물 검사령에 의한 검사지 지정	307
1934-01-20 김포공보교 농업강습회 [매일신보]	308
1934-01-21 김포군의 염료 공동구입 실시 [매일신보]	308
1934-01-21 작년중 김포군 연초 매상고 [매일신보]1	308
1934-01-23 김포군의 자작농 집단적 설정계획 [매일신보]	308
1934-01-24 김포군 각 진흥회 야학실시 [매일신보]	308

1934-01-25	김포군 농촌진흥위원회 [매일신보]1	309
1934-01-26	경기도내 신설 보교 3개 [매일신보]	309
1934-01-26	경기 3처 공보 신설 [조선중앙일보]	309
1934-01-27	낙성식 비용을 진흥회에 기부 [매일신보]	309
1934-01-28	김포군 장학아동 표창식 [매일신보]	309
1934-01-30	시가에 갈 찬물업서 허위강도 고발 [매일신보]	310
1934-02-08	敬老會(경노회) [매일신보]1	310
1934-02-12	기원가절에 영예의 표창자 발표 [매일신보]	310
1934-02-22	국제 공산당 기소결정 [신한민보]	310
1934-02-25	김포군 농촌연합협의회 [매일신보]	310
1934-02-27	김포군 집회 일속 [매일신보]	310
1934-03-05	강화 합일교에 김포군부 석탄 기부 [매일신보]	310
1934-03-06	김포군 제2기 지세 납부성적 [매일신보]	310
1934-03-06	농민무용촬영 [매일신보]	310
1934-03-13	김포 양곡보교 학급연장 진정 [매일신보]	311
1934-03-16	김포학교평의회 개최 [매일신보]	311
1934-03-16	주인 돈 훔치고저 인가에 방화소동 [매일신보]	311
1934-03-21	김포군농회 지주간담회 개최 [매일신보]	311
1934-03-22	김포 각 보교 졸업식 [매일신보]	312
1934-03-25	자라나는 명일의 경성 대도시계획 [매일신보]	312
1934-03-27	김포군 각종 품평포상식 거행 [매일신보]	312
1934-03-27	부인조까지 출동한 김포군제입경기 [매일신보]	312
1934-04-07	경북제입 공로자 표창식 거행 [매일신보]	312
1934-04-08	향토예술의 자랑 [매일신보]	312
1934-04-09	우리의 향토예술 [매일신보]	312
1934-04-12	부업의 김포군 기업을 지도장려 [매일신보]	312
1934-04-24	대만 수출용 표준 가마니 김포군서 제작 [매일신보]	313
1934-04-24	시흥, 김포 양군 부인견학단 조직 [매일신보]	313
1934-04-26	김포 농촌진흥으로 부녀강습회 개최 [매일신보]	313
1934-05-04	김포군수 외투 도난 [매일신보]	314
1934-05-09	사기결혼 당하고 분개방화 [매일신보]	314
1934-05-12	김포상공진흥회 총회 [매일신보]	314
1934-05-12	코스모스 파종 [매일신보]	314
1934-05-15	고촌보교 개교식 20일부터 거행 [매일신보]	314
1934-05-15	주점의 도박차 검거 [매일신보]	315
1934-05-21	기구한 노과부 생활난 자살 [매일신보]	315
1934-05-21	당목 훔친 도적놈 소녀강간타 피해 [매일신보]	315

1934-05-22	김포고촌보교 개학식 거행 [매일신보]	315
1934-05-23	3군 18동을 편입 200만 인구 도시건설 [조선중앙일보]	315
1934-05-23	지력증진 위해 심경법을 장려 [매일신보]	315
1934-05-26	김포군 양곡리 전등가설 운동 [매일신보]	315
1934-05-31	김포군 초등 교장회 개최 [매일신보]	316
1934-05-31	촌부의 수황증 김포서에 피검 [매일신보]	316
1934-06-01	세워둔 뾰트를 김포가서 賣喫(매깅) [매일신보]	316
1934-06-02	김포군 농진 표창식 거행 [매일신보]	316
1934-06-02	김포서 사격회 [매일신보]	317
1934-06-07	김포군 잠건공판소 1개소를 신설 [매일신보]	317
1934-06-09	인천지청 문제 부활준비 진척 [조선중앙일보]	317
1934-06-14	秧歌爭唱(양가쟁창) [매일신보]	317
1934-06-23	김포탁아소에 공의가 순회 [매일신보]	317
1934-06-24	김포군진흥회 야학강사강습 [매일신보]	317
1934-06-25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기타	318
1934-06-26	지나가는 괴한 의외의 대적 [매일신보]	318
1934-07-03	처일코 남의 집에 방화 [매일신보]	318
1934-07-08	김포군농회 산업연합협의 [매일신보]	318
1934-07-09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및 인구	318
1934-07-10	농촌경제로 보아 축우생사를 장려 [매일신보]	318
1934-07-12	김포군 장촌면 흥회장 총회 [매일신보]	318
1934-07-13	영등포 주조조합 주가협정 [매일신보]	318
1934-07-14	김포서 의생강습회 개최 [매일신보]	318
1934-07-27	박오창씨 영전 [매일신보]	319
1934-08-06	안동이재민 철저한 구조 [매일신보]	319
1934-08-08	김포군 산업협의 자금비료증산을 [매일신보]	319
1934-08-09	경전이 강화도 통진에 전기공급 [동아일보]	319
1934-08-10	중견청년 일야강습회 개최 [매일신보]	319
1934-08-13	김포 지주협의회 개최 [매일신보]	319
1934-08-17	조선은 인정나라 붓드자 매일신보]	319
1934-08-19	김포군 연초소매인 조합 정기총회 [매일신보]	320
1934-09-15	김포교육회 총회개최 [매일신보]	320
1934-09-16	김포군기업고속도로 증가 [매일신보]	320
1934-09-19	김포곡검출장소 곡물업자 간담회 [매일신보]	320
1934-09-27	노동임금으로 이재동포 구제 [매일신보]	321
1934-10-03	거동진흥조합에 쾌종을 기부 [매일신보]	321
1934-10-03	조선연극회 김포에서 흥행 [매일신보]	321

1934-10-09	본보 김포분국의 독자위안의 밤 [매일신보]	321
1934-10-09	김포군 면장 협의회 개최 [매일신보]	321
1934-10-11	경성부 행정구역에 편입 될 군부지역 [매일신보]	321
1934-10-11	김포군 면사무 연구회 개최 [매일신보]	322
1934-10-12	성동리 노변에는 코스모스가 爭妍(쟁연) [매일신보]	322
1934-10-16	조선노동자동맹 노사석 등의 공판 [조선중앙일보]	322
1934-10-18	세상의 악한 아버지 [조선중앙일보]	322
1934-10-21	망동진흥조합 업적이 날노 증진 [매일신보]	322
1934-10-24	거짓 訃告(부고) 장비사기 [매일신보]	322
1934-10-24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고 속여 [조선중앙일보]	322
1934-10-26	인사 [조선중앙일보] 1	322
1934-10-27	계관도 놀내는 교묘한 사기 파산당하다 [매일신보]	322
1934-10-27	청년상인이 사기로 피검 [조선중앙일보]	322
1934-10-28	김포군 고산하리 부인회의 업적 [매일신보]	322
1934-10-28	김포군 양촌면 산업협의회 [매일신보]	323
1934-11-01	김포군에서 인검사 실습 [매일신보]	323
1934-11-01	김포 양곡 소조발회식 [매일신보]	323
1934-11-05	이종석씨의 특지와 보인교운의 융창 [매일신보]	323
1934-11-06	강화에 전등가설 12월경에 실현 [매일신보]	323
1934-11-06	중간 이득 안 주기 위해 농민이 직접 매곡 [조선중앙일보]	324
1934-11-06	객주업자에 대타격, 인천 경기도 좌우 [조선중앙일보]	324
1934-11-07	김포군 소작위원 [매일신보]	324
1934-11-14	파선된 범선의 사망자 판명 [조선중앙일보]	324
1934-11-19	3각 충돌의 교통진 사고 [매일신보]	324
1934-11-21	소년절도 피체 [조선중앙일보]	324
1934-11-29	뱃속 검은 뱃사공놈 [매일신보]	324
1934-12-01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기타	325
1934-12-14	김포금조에서 수요품 공구 조합원을 위하여 [매일신보]	325
1934-12-14	농촌진흥의 암인 고리채 정리 진보 [매일신보]	325
1934-12-15	광부 임금 갖고 도주한 덕대 [조선중앙일보]	325
1934-12-16	와촌동진흥회 성적 양호 유범석씨 진력으로 [매일신보]	325
1934-12-28	한강연안이 김포군 연료공황시대 현출 [매일신보]	325

## 1935

1935-01-17	김포의 살인범, 김갑쇠 사형 구형 [조선중앙일보]	326
1935-01-22	김포군 교장회의개최 [매일신보]	326

1935-01-22 김포 살인강도, 김갑쇠 사형 언도 [조선중앙일보]	326
1935-01-24 한서흥업회사 발기인회 개최 [매일신보]	326
1935-01-26 인부에게 매맞고 제소한 청부업자 [조선중앙일보]	326
1935-01-31 색복 착용자기 9할4분 [조선신문]	326
1935-02-09 농촌의 암 점차 제거 자력갱생의 효력현저 [매일신보]	326
1935-02-24 책사러간 소년이 실종 된지 1개월 [조선중앙일보]	326
1935-03-09 익사자 3명 중, 선부 시체만 발견 [조선중앙일보]	326
1935-03-26 경기도의원 김포시찰 [매일신보]	326
1935-03-28 기적김포의 이상 [매일신보]	326
1935-03-29 경기도 의원단 강화를 시찰 [매일신보]	327
1935-03-30 가마니 시장 이전에 반대운동 [매일신보]	327
1935-03-31 김포군 마곡리 입시장 [매일신보] 기타	327
1935-04-05 재귀열에 걸린 영등포 토지 [매일신보]	327
1935-04-08 단침히 선거에 독히총통 진출 [매일신보]	327
1935-04-15 못이루는 사랑 죽어서 잇자 [매일신보]	327
1935-04-16 김포시가 하수공사 20일경에 준공 [매일신보]	328
1935-04-17 김포소방조 근속자 표창 춘계연습 당일에 [매일신보]	328
1935-04-27 면협의회원 선거 특례일부 개정	328
1935-05-24 풍우 일과후의 각지 선거 후보 [매일신보]	328
1935-05-25 당선된 면협의회원 [동아일보]	328
1935-05-28 5인조 체포-농촌을 전문으로 횡행하든 [매일신보]	329
1935-06-04 二(이) 少婦(소부) 출가 [조선중앙일보]	329
1935-06-07 강도살인의 양흉범 최후심도 사형 [매일신보]	329
1935-06-08 실종 8개년 비참한 소식 [매일신보]	329
1935-06-16 영등포세무서 인지세 검사 [매일신보]	329
1935-07-05 김포군 국세조사협의회 [매일신보]	329
1935-07-07 각군 학평 당선 [매일신보]	329
1935-07-09 붓방아 [매일신보]  문예	329
1935-07-24 김포침수로 자동차 불통 [매일신보]	330
1935-07-24 4호 유실 김포의 수해 [매일신보]	330
1935-07-26 부·읍·면별 호구 및 인구	330
1935-07-30 강화에 정전소동, 만 8시간동안 암흑화 [조선중앙일보]	330
1935-07-31 김포군하에 복면한 장난감 권총 강도 [조선중앙일보]	330
1935-08-29 폭한들 만나 주막서 봉변 [매일신보]	330
1935-09-01 전등료 불인하로 강화시민 분개 [매일신보]	330
1935-09-05 3군 1읍 신가입으로 팽창되는대경성부! [매일신보]	330
1935-09-14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남대문통에서 [조선중앙일보]	331

1935-09-18 경기도관하 인검사지정지 [매일신보]	331
1935-09-29 가마니 검사지정지구 및 지정지	331
1935-10-13 소전 이왕직 장관 김포에서 강연 [매일신보]	331
1935-10-17 양곡청년회 적이 우량 [매일신보]	331
1935-10-28 김포군 정조 검사장소와 [매일신보]	331
1935-10-31 음악구락부에 악기를 기증 김포군 [매일신보]	332
1935-11-06 김포청년단 [매일신보]	332
1935-11-20 경기 각 군 사무경열 [매일신보]	332
1935-11-21 금년도 경기도 농회 정조저장수량 현미합하야 [매일신보]	332
1935-12-04 하성주재소 2일에 낙성식 [매일신보]	332
1935-12-10 동변청년단 야학회 [매일신보]	333
1935-12-10 의례준칙 강연 김포보교에서 [매일신보]	333

## 1936

1936-01-04 확장안 실현되면 일약 60만부민 면적도 [매일신보]	333
1936-01-06 이팔소녀가 영아를 압살 [매일신보]	333
1936-01-07 분만한 아이를 압살한 처녀 [조선중앙일보]	333
1936-01-24 김포군하에 광견이 횡행 [매일신보]	333
1936-01-24 假(가)경전사원 [조선중앙일보]	333
1936-01-24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333
1936-01-25 십년 중 김포군 가마니 제조 상황 [매일신보]	333
1936-01-26 270회의 강습 수업생 3,700명 김포문맹퇴치 [매일신보]	334
1936-02-06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334
1936-02-09 오는 4월부터 경성인구 증가 [매일신보]	334
1936-02-11 김포군 색복 장려 [매일신보]	334
1936-03-07 제1회 전김포군축구대회 [동아일보]	334
1936-03-07 취객이 중상 열차에서 쫓겨내리다 [매일신보]	334
1936-03-11 홍삼밀조단 사건 검거범위 점광대 [조선중앙일보]	334
1936-03-14 김포군농회의 양기수 검거 [매일신보]	335
1936-03-24 고양, 시흥, 김포3군 면리구역의 변화 [매일신보]	335
1936-03-25 김포군 독직사건 6명 송국 [매일신보]	335
1936-03-26 회갑연비 절약 학각설립에 기부 [매일신보]	335
1936-03-31 김포노상에서 자동차 살인 [매일신보]	335
1936-04-14 농실교 설치에 50원씩 기부 [매일신보]	336
1936-04-27 김포군 농실교 20일에 개교 [매일신보]	336
1936-05-07 판매회사 설립코 양조업자를 구제 [매일신보]	336

1936-06-17	축건 단속 규칙 중 일부 개정	337
1936-06-24	김포군하에 직물업 보급 [매일신보]	337
1936-06-24	김포군 면장회의 [매일신보]	337
1936-06-24	김포 농민들의 연료문제 해결 [매일신보]	337
1936-06-28	珍奇三胎續(진기삼태독)[매일신보]	337
1936-07-01	마입건직 장려 [매일신보]	337
1936-07-10	약혼파기 당코 처녀가 음독 [동아일보]	337
1936-07-10	부여의한 인세 자살도 불여의 [매일신보]	338
1936-08-03	축음기 절도 [조선중앙일보]	338
1936-08-13	홍수 일과후의 참상!, 독도 일대 감수로 [조선중앙일보]	338
1936-09-01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	338
1936-09-06	도적질한 돈으로 극단을 조직 [매일신보]	338
1936-12-08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인천지소 소속 출장소의 명칭·위치	339

## 1937

1937-01-16	외국인 토지법 개정	339
1937-01-25	서울은 무서운 곳 [매일신보]	339
1937-02-07	록수원 양5천에 파경지탄이 百八十(180) [매일신보]	340
1937-02-27	김포 농실교 졸업 여행 [매일신보]	340
1937-03-10	농가경쟁 양고리채 대수술 [조선신문]	340
1937-03-11	진흥농촌의 송춘보 고리채 5십만원 정리 김포, [매일신보]	340
1937-04-03	78명 증인조사한 공문서 위조사기 [매일신보]	340
1937-05-11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경기도 [매일신보]	340
1937-05-13	증식계획의 전초공작 경기총모우 검사 [매일신보]	340
1937-05-27	노파즉사 도선중에 충돌 [매일신보]	340
1937-06-20	곱돌삿 통진 쌀밥운림 [동아일보]	341
1937-06-20	두 번이나 거듭 노적에 발화 [동아일보]	341
1937-07-30	김포군 농회기수 사기사건 [동아일보]	341
1937-08-05	김포군민대회 개최, 기원제 여행 [동아일보]	342
1937-08-05	김포 국방의금 총회 [동아일보]	342
1937-08-05	답지하는 국방 헌금 [동아일보]	342
1937-09-01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	342
1937-10-26	통진산조 설립재이 [동아일보]	342
1937-10-26	김포-안동포간 3등로 개수계획 [동아일보]	343
1937-11-12	인천, 김포직통의 도로공사거의 완성 [매일신보]	343
1937-11-13	권갑중 군수 명 경기도 김포군 재근 [동아일보]	343

1937-11-21 김포군청에서 면치강습 개최 [동아일보]	343
1937-11-16 강화, 김포 양군 위시 도량형순차 검사 [매일신보]	343
1935-12-04 하성주재소 1일에 낙성식 [매일신보]	344
1937-12-08 김포지방 소개판을 간행하면서...김포지국 [동아일보]	344
1937-12-17 석유등잔을 조심하라 [동아일보]	354
1937-03-11 양곡등 금조 지도로 김포군 농가 점명량 [매일신보]	354
1937-05-11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경기도 [매일신보]	354
1937-05-13 증식계획의 전초공작 경기 종모우 검사 [매일신보]	355
1937-11-12 인천, 김포직통의 도로공사 거의 완성 [매일신보]	355
1937-12-01 도회지 이용, 번영책 공장유치에 노력 [매일신보]	356
1937-12-19 『싸소링』에 인화폭발 무참! 부자소사 [매일신보]	356

## 1938

1938-01-11 무의한 맥전에 흑한이 습래 김포군하 농가 [동아일보]	356
1938-01-13 강화도, 김포간의 철교가설을 진정 [매일신보]	356
1938-01-14 강화, 김포간과 임진강 가교계획은 [매일신보]	357
1938-01-20 조선총독부 감액 여비규정 <관동첩 제2호>	358
1938-01-20 강화 김포간 연락하는 “케-불카” 가설 [매일신보]	358
1938-01-21 강화, 김포간 고가전철 지원부담금이 문제 [매일신보]	359
1938-01-24 강화연락에 “케불카” 가설은 결정적 [매일신보]	359
1938-01-24 김포군 년초의 면장회의 개최 [동아일보]	360
1938-01-25 면장회의 긴급 초집 케불카 문제토의 [매일신보]	360
1938-01-26  강화의 “케불카” 문제 7일에 확정 [매일신보]	361
1938-01-30 강화유지 좌담 고가전철 문제로 [매일신보]	361
1938-01-31 면의 명칭·구역 개정	361
1938-02-26 김포군에서 표창식 거행 [동아일보]	361
1938-02-26 김포 농민교 제2회 졸업식 [매일신보]	362
1938-02-27 김포 각 학교 졸업식 [매일신보]	362
1938-03-02 한심한 교육기관 6천 주민의 자녀가 문제 [동아일보]	362
1938-03-10 김포군 청사신축 기성회 결성 [매일신보]	362
1938-03-12 다년간 현안중이든 김포군청 신축실현 [동아일보]	363
1938-04-01 김포군 학교평의회 [동아일보]	363
1938-04-13 획기적 대매립공사 인천서 서곶면 지나 [매일신보]	363
1938-05-22 식모 능욕한 주 면도로 절경자살 [매일신보]	363
1938-06-09 3군 기독교도 회집 내선연합회결성 [매일신보]	364
1938-07-01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수	364

1938-08-18	남편과 살기가 실혀 낫으로 난자 김포군하에 [매일신보]	364
1938-08-20	누산도로 완성을 양곡면민 갈망 [동아일보]	364
1938-08-20	김포 군사강연 [동아일보]	365
1938-09-22	부평역과 김포읍간에 사설 철도부설 기획 [매일신보]	365
1938-11-02	근로지도강 습회 [매일신보]	365

## 1939

1939-01-18	『오토싸이』와 충돌! 신혼자동차 봉액 [매일신보]	365
1939-01-19	경향에 불덕한 준동! 채권자를 타살투강 [동아일보]	365
1939-01-28	무면허 운전수 살인! 김포가도서 [매일신보]	366
1939-03-07	시흥 근로단 제5차 출발 [매일신보]	366
1939-03-15	오정면 부천 오곡리 김포군 편입에 반대 [매일신보]	366
1939-03-29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지소 출장소 명칭·위치 개정	366
1939-05-04	김포군 음사회 총회개최 [동아일보]	366
1939-07-05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	366
1939-08-08	내외동방을 방해하는 처와 장모를 작살 [동아일보]	367
1939-09-06	토끼의 적극증식 김포군서 강습회 [동아일보]	367
1939-09-13	수답에도 이모작 김포군의 한해 대책 [동아일보]	367
1939-10-19	지주간담회에서 작인구제책협의 김포군의 한해 [동아일보]	367
1939-10-20	황기 2600년 기념 감나무 증식계획 [매일신보]	367
1939-10-22	강연영화회 23일 김포군에서 [매일신보]	367
1939-10-22	김포 양촌과 인천간 관통도로를 신설 [매일신보]	368
1939-10-22	김포에 경방단 [매일신보]	368
1939-10-27	김포강연과 영화회 [매일신보]	368
1939-10-28	김포군 경비 전화 래월초 착공 [동아일보]	368
1939-10-28	미검 위반자에 김포서에서 벌금 [매일신보]	368
1939-11-01	토목공사 실시에 관한 협의회 개최 [동아일보]	369
1939-11-03	경비 전화를 가설-김포서와 각 주재소 [매일신보]	369
1939-11-05	3백만매 목표 김포입직 보국운동 [매일신보]	369
1939-11-05	중간 상인을 취체하고 식량배급을 알선 [매일신보]	369
1939-11-08	김포경리회 [매일신보]	370
1939-11-22	금재순씨 특지 [매일신보]	370
1939-11-23	김포금릉학원 50원 기부 신흥군씨 특지 [매일신보]	370
1939-12-02	지원병 훈련생-각지에서 귀향봉고 [매일신보]	370
1939-12-05	한해 의연금- 김포양회사미거 [매일신보]	371
1939-12-06	깡생계획 수립-김포면 서기지도회 [매일신보]	371

1939-12-06 1면 1사 실현-김포군 면에조영 [매일신보]	371
1939-12-09 귀향 지원병-눈물의 신화 [매일신보]	371
1939-12-11 김포군에서도 경제전 강조 운동 [동아일보]	371
1939-12-11 술 마셔 낭비하고- 허위강도고발 [매일신보]	371
1939-12-16 축 김포지국 설치 [매일신보]	372
1939-12-22 강도 명일송국 서부 경성의 공포 [매일신보]	372
1939-12-22 김포미곡 반출 금월중 이만석 [매일신보]	372
1939-12-23 김포 경성간 선경 춘철에서 인계 [매일신보]	372
1939-12-29 김포에 화객홍수-교통기관의 부족으로 대곤란 [매일신보]	372
1939-12-29 꾸지람 듣고 소년이 자살 [매일신보]	373

## 1940

1940-01-05 축 황기 2600년 [매일신보]	376
1940-01-14 지원병 출발 [매일신보]	376
1940-01-16 머슴이 절도 [매일신보]	376
1940-01-16 金浦臨時種痘(김포임시종두) [매일신보]	376
1940-01-23 김포군 9면에 신사-2면 1사를 완성 [매일신보]	376
1940-01-24 김포수조는 유산 [매일신보]	376
1940-01-25 귀향 지원병 각지 순회 강연 [매일신보]	377
1940-01-26 전상향토 용사-김포에서 평유기원 [매일신보]	377
1940-01-26 김포서 무도납회 [매일신보]	377
1940-01-27 결혼 방해한 장인 걸어 제소 [매일신보]	377
1940-01-27 김포군 하에도 3인조 강도-경찰총동원 수사 중 [매일신보]	378
1940-01-30 브로커 초년생 일반에 피해가 부소-김포서에서 [매일신보]	378
1940-02-03 사기 당하고 허위강도 고발 [매일신보]	378
1940-02-04 유빙이 강화도 봉쇄-김포간도 수두절 [매일신보]	378
1940-02-04 地方集會(지방 집회) [매일신보]	379
1940-02-06 김포유도회 결성 [매일신보]	379
1940-02-07 식량수급을 조절-김포도 미곡배급 조합을 결성 [매일신보]	379
1940-02-09 가마니 보국운동 김포서 작년중에 [매일신보]	379
1940-02-09 식산계 사무, 김포서 강습 [매일신보]	380
1940-02-10 군청원을 매수코 -김포백미반입 사건 [매일신보]	380
1940-02-10 절미보국을 강조 김포정동리시장대회 [매일신보]	380
1940-02-11 경기도에서 거행될 각종의 표창식 [매일신보]	380
1940-02-11 김포 경성간 교통난 완화 [매일신보]	380
1940-02-13 김포군 내무과 삼산과장 영전 [매일신보]	381

1940-02-14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1	381
1940-02-28	초지대명간- 도선객 불평 [매일신보]	381
1940-03-01	지원병지망자 김포서 예비훈련 [매일신보]	381
1940-03-01	속성 상전 설치 김포양잠 장려 [매일신보]	381
1940-03-03	강화도와 김포간의 가교문제들어 토론 [매일신보]	381
1940-03-05	김포애국남 [매일신보]	381
1940-03-06	절미운동 강화 김포서 좌담회 열고 [매일신보]	381
1940-03-12	순직한 여차장 김포 각계 동정 [매일신보]	382
1940-03-31	김포동소교 정원의 5배 [매일신보]	382
1940-04-02	경기도 소학교장 이동 [매일신보]	382
1940-04-12	소녀 능욕한-인천서에서 체포 [매일신보]	382
1940-04-12	인천의 양대 도로, 북해안선과 수인간 [매일신보]	382
1940-04-15	양곡금융조합 총대회 [매일신보]	383
1940-04-16	김포소채조합 연합회를 결성 [매일신보]	383
1940-04-21	교육상수를 재배-김포의 산견장려책 [매일신보]	383
1940-04-25	가마니 증산 김포에서 독려 [매일신보]	383
1940-04-25	적십자무료치료 김포군 3개면에 [매일신보]	384
1940-05-07	위생강화회 김포서 성황 [매일신보]	384
1940-05-08	전군민이 일치 창씨에 매진-김포는 공전의 호적[매일신보]	384
1940-05-12	경춘「빠스」 또 전복! [동아일보]	384
1940-05-14	탕촌농림국장 김포지방시찰 [매일신보]	384
1940-05-15	구문 전보 취급을 폐지한 우편국분실 및 우편소	384
1940-05-17	시국좌담회 김포 각면에서 [매일신보]	385
1940-05-21	년산량 삼백만매 한해를 극복코 김포입직 호조 [매일신보]	385
1940-05-22	시내전화 가설 김포읍민 요망 [매일신보]	385
1940-05-25	김포근로보국대들 부평공사에 출역 [매일신보]	385
1940-05-25	김포동소교 후수회총회 [매일신보]	386
1940-06-01	지방 종합관-해소될 김포수조 [매일신보]	386
1940-06-05	사기도박단 김포서서 타진 [매일신보]	386
1940-06-07	김포 절도체포 [매일신보]	387
1940-06-23	김포군 근로보국 작업 [매일신보]	387
1940-07-01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 수	387
1940-07-19	식량전표제도-김포군에서도 실시 [매일신보]	387
1940-07-26	전군민이 창씨-김포군서 봉고제 집행 [매일신보]	387
1940-07-31	窃盜(절도) [매일신보]	387
1940-07-31	창씨완료 봉고제-김포의 성전, 축하식도 거행 [매일신보]	387
1940-08-10	장고봉기념일 김포군서 시국강연 [매일신보]	387

1940-08-18 김포군 면장회의 [매일신보]	387
1940-09-08 양곡 대 김포군 8일에 청구시합 [매일신보]	388
1940-09-29 식량 확보에 만전 김포군관공서총동원 [매일신보]	388
1940-09-29 김포공설운동장 수축비 답지 [매일신보]	388
1940-10-01 장가 못감을 비관- 청년결항자살 [매일신보]	388
1940-10-06 김포성지봉채기서식 [매일신보]	388
1940-11-01 교육칙어 환발 50주년 기념식 [매일신보]	388
1940-11-01 황기 2600년 김포군 봉축대회 [매일신보]	388
1940-11-03 김포 표창자 전달식 [매일신보] 0	388
1940-11-05 각지 명치절 배하식 [매일신보]	388
1940-11-07 김포군하 면화공판 [매일신보]	389
1940-11-07 김포양곡조합 창립 [매일신보]	389
1940-11-13 밀주 도처 성행-인천서에서 20명 적발 [매일신보]	389
1940-11-16 요소에 직원파견 군외 반출을 감시 [매일신보]	389
1940-11-1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389
1940-11-30 김포군 출신-지원병 8명 입영 [매일신보]	389
1940-11-30 김포서의 정신단련 [매일신보]	389
1940-12-08 김포군 관내 주요지 양곡배급일 재개시 [매일신보]	390
1940-12-08 김포군의 직장려 [매일신보]	390
1940-12-08 김포군의 명년도 비료배급 수량 [매일신보]	390
1940-12-17 양력과세 실행 김포군서도 적극지도 [매일신보]	390
1940-12-21 김포군 각면 직경기회 [매일신보]	390

## 1941

1941-01-15 천일염 판매가격	390
1941-01-16 폭발되는 각지의 지원병열 [매일신보]	390
1941-01-18 김포군 직경기대회 [매일신보]	390
1941-01-26 표창될 모범 아동 김포군하에 10명 [매일신보]	390
1941-01-31 체신관서 관제에 의한 우편국 지정	391
1941-02-01 청송군 상등병에 승진 [매일신보]	391
1941-02-02 춘풍추우 13년간 농회를 위하여 진철회 [매일신보]	391
1941-02-06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391
1941-02-09 고조된 지원병열-각지에 혈서응모자속출 [매일신보]	391
1941-02-10 표창받을 명예의 자복가정-경기도 [매일신보]	391
1941-02-11 숯불에 주의하라 일가 5명이 중독 [매일신보]	391
1941-02-11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391

1941-02-12	경기도청 표창식 [매일신보]	391
1941-02-13	세기의 첫 기원절-방방곡곡에 봉축일색 [매일신보]	391
1941-02-13	저축 장려공적자-77명을 표창 [매일신보]	392
1941-02-13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392
1941-02-14	각선결항 속출-인천강화간만 난항계속 [매일신보]	392
1941-02-15	각계 공적자 표창장 전달식-김포 [매일신보]	392
1941-02-16	애국반을 철저 지도 [매일신보]	392
1941-03-07	김포군 공품생산보국 주간 [매일신보]	392
1941-03-23	김포군농회 16회 총회 [매일신보]	392
1941-03-28	방범좌담회 [매일신보]	392
1941-03-28	김포군내 6소교 학년연장 결정 [매일신보]	392
1941-03-28	김포군하 자복가정 표창장 전달식 [매일신보]	392
1941-03-28	각지 동전 헌납열 [매일신보]	393
1941-04-11	면화 3,000만근 공판 목표로 [매일신보]	393
1941-04-13	경기도의 입후보자 [매일신보]	393
1941-04-13	김포, 통진, 양천 각문묘석전제 [매일신보]	393
1941-04-13	김포양곡 금조총대회 [매일신보]	393
1941-04-13	의용연맹을 조직 임적을 철저독려 [매일신보]	393
1941-04-14	맹아가 입직 김포군수가 표상 [매일신보]	393
1941-04-18	입공출의 신기록 한 면에서 하루에 십만매 [매일신보]	393
1941-04-20	가마니 50매를 헌납 [매일신보]	393
1941-04-23	김포면작타합회 [매일신보]	393
1941-04-27	선거사무 타합회 [매일신보]	394
1941-05-01	까마귀 잡다가 감전 즉사 [매일신보]	394
1941-05-02	김포경서축구대회 [매일신보]	394
1941-05-02	각지 건강증진운동 [매일신보]	394
1941-05-02	각지 천장절 봉축식 [매일신보]	394
1941-05-02	경기도의 입후보자 [매일신보]	394
1941-05-02	영연근속 표창장 전달식 [매일신보]	394
1941-05-09	전구역이 상당건조 산화방지에 노력하라 김포군[매일신보]	395
1941-05-09	김포군 양잠타합회 [매일신보]	395
1941-05-17	총력전의 수훈부대 각도에서 26명 선발 [매일신보]	395
1941-05-21	문묘직원 개선 [매일신보]	395
1941-05-21	육순연 폐지 헌금 [매일신보]2-0	395
1941-05-21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395
1941-05-28	맥적기예취 김포군에서도 장려 [매일신보]	395
1941-06-01	유도강연회 [매일신보]	395

1941-06-01	김포지방에서도 이양 개시 [매일신보]	395
1941-06-01	논두렁엔 “콩”을 김포군서 재배 장려 [매일신보]	395
1941-06-01	지원병 최종 전형시험에 김포군선 출33명 전부 [매일신보]	395
1941-08-14	김포군 우마차 운반통제조합 [매일신보]	396
1941-08-27	김포군 관민유지 대육회를 조직 [매일신보]	396
1941-09-05	건강진단·사체검안 지역	396
1941-09-17	김포군 청년단 결성식 [매일신보]	396
1941-10-05	김포염사상조합 창립 [매일신보]	396
1941-10-07	금천원식 기부-검단교 학급 증설비로 [매일신보]	396
1941-10-09	김포 관공서 직원 근로 보국대 편성 [매일신보]	396
1941-10-09	헌금과 유기 헌납 [매일신보]	397
1941-10-09	회갑연비 절약 2백원을 각계에 기부 [매일신보]	397
1941-10-21	優良牛 檢査(우량우 검사) [매일신보]	397
1941-11-22	적성의 헌금 답지 [매일신보]	397
1941-11-28	去勢牛(거세우)가 優良(우량) [매일신보]	397
1941-12-28	적성의 헌금답지 [매일신보]	397

## 1942

1942-02-01	翼贊(익찬)-동아공영-김포 [매일신보]	397
1942-02-17	도 순사 속사료 지급에 관한 토지등급 지정	397
1942-02-20	미곡 공출을 완료 김포군민들 신전에 [매일신보]	398
1942-02-21	철, 동 헌납부대 군 애국부에 연일육속 [매일신보]	398
1942-02-24	시국인식 강연회 [매일신보]	398
1942-02-24	현곡 각출제를 폐지하고-김포군의 구장우 우안 [매일신보]	398
1942-06-07	영전된 군수들-영정전 강화군수 [매일신보]	399
1942-06-11	京畿道辭令(경기도사령) [매일신보]	399
1942-06-11	榮轉(영전)된 權藤郡守(권등군수) [매일신보]	399
1942-06-16	소학생도 총출동 [매일신보]	399
1942-06-16	점심은 각자 지참 일군 밥해 먹이는 습관 폐지 [매일신보]	399
1942-06-29	노력조정에 만전 전면적 공동작업 전개 [매일신보]	399
1942-07-07	兩少女 出家(양소녀 출가) [매일신보]	399
1942-07-07	희수연비절약 헌금 [매일신보]	399
1942-07-09	지나사변 기념일 각지서 성대한 행사거행 [매일신보]	399
1942-07-11	獻金一束(헌금일속) [매일신보]	400
1942-07-16	中東版(중동판)-소매상조합설립 [매일신보]	400
1942-07-16	中東版(중동판)-품평회 입상자 표창 [매일신보]	400

1942-07-19	中東版(중동판)-각지에서 현금적성 [매일신보]	400
1942-08-20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조선총독부고시 제1131호>	400
1942-08-21	일본부인회 김포지부 결성 [매일신보]	400
1942-08-25	원전 경기경찰부장 김포군내 초도 순시 [매일신보]	400
1942-08-27	고경기도지사 강화초도 순시 [매일신보]	400
1942-08-29	입직경기대회-김포군서 개최 [매일신보]	400
1942-09-01	고경기도지사 김포군내 순시 [매일신보]	400
1942-10-04	3백만 경기도민의 저축액 절반육박 [매일신보]	401
1942-10-17	김포군 직원연성회 [매일신보]	401
1942-10-17	김포군청 신축낙성 [매일신보]	401
1942-10-17	잡곡류 반출 엄금 [매일신보]	401
1942-10-21	농촌부녀를 계발 경기도 800여 부락에 강습회 [매일신보]	401
1942-11-10	김포저축 간담회 [매일신보]	401
1942-11-12	경제좌담회 [매일신보]	401
1942-11-12	김포군 저축실적 4월부터 10월까지 30만여원 [매일신보]	402
1942-11-12	김포군 청원연성회 [매일신보]	402
1942-11-12	김포 간보 성적부진 [매일신보]	402
1942-11-26	면화 공출 부량한 6개군에 독려 통첩 [매일신보]	402
1942-11-28	4백만원 채권 소화전 연말 상여를 기해 전개 [매일신보]	402
1942-12-02	중동판-특별청년연성소 건병으로 대진군-京(경) [매일신보]	402
1942-12-14	지역별론 시흥수위-경기도, 저축목표의 6할 돌파 [매일신보]	403
1942-12-15	김포미곡 공출 [매일신보]	403
1942-12-16	성전기념 현금보-김포 [매일신보]	403
1942-12-24	국어교실-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북부강습회 [매일신보]	403

## 1943

1943-01-28	미곡공출 호성적-김포군 목표양 9할8분 달성 [매일신보]	403
1943-01-31	다리 다섯달린 송아지 탄생!-김포군의 기담일편 [매일신보]	403
1943-01-31	이파 경기보안과장-김포군내를 시찰 [매일신보]	403
1943-02-02	시국간담회 성황 [매일신보]	403
1943-02-07	김포, 기원절 행사 [매일신보]	403
1943-02-10	몽리 면적 4만여 정보 [매일신보]	403
1943-02-10	우량청춘과 청년대 [매일신보]	403
1943-02-10	필승의 경기 저축전 [매일신보]	404
1943-02-13	명심하라 이 영광을 기원절에 경기도 [매일신보]	404
1943-02-14	9할9분 돌파-김포의 정조 공출 [매일신보]	404

1943-02-14	오늘의 현금·현품 [매일신보]	404
1943-02-16	김포저축 전개가-목표액을 멀리 돌파 [매일신보]	404
1943-02-27	김포의 입직 증산운동 [매일신보]	404
1943-02-27	명태 특별배급 [매일신보]	405
1943-03-06	식량 대책 협의회 [매일신보]	405
1943-03-0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5
1943-03-09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5
1943-03-11	김포군청원들 죽으로 점심 [매일신보]	405
1943-03-14	적성의 현금 현품 [매일신보]	405
1943-03-18	부락 지도공로자 표창 [매일신보]	405
1943-03-18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5
1943-04-01	화류항도 전부 휴업 가마니증산에 김포군민 [매일신보]	405
1943-04-01	임야도를 지적도로 간주할 지역 지정	405
1943-04-02	농지가산출배를 개정 기초는 임대가 [매일신보]	406
1943-04-06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6
1943-04-07	청년연성소 개소 [매일신보]	406
1943-04-07	학교평의원회 개최 [매일신보]	406
1943-04-09	농촌순회 영화 [매일신보]	406
1943-04-10	농회통상총회 [매일신보]	406
1943-04-10	방공감사자금 답지 3월말 현재 [매일신보]	406
1943-04-10	증산공로장 수여 경기도연맹에서 [매일신보]	406
1943-04-10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7
1943-04-1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7
1943-04-20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7
1943-05-21	유기일만점 김포군민들의 적성으로 헌납 [매일신보]	407
1943-05-22	휴반에 콩을 재배 김포군서 [매일신보]	407
1943-05-29	시간을 지킵시다-김포군련맹의 6월중 실천사항 [매일신보]	407
1943-06-01	저축에 총력전 김포부서 각면의 배정액 결정 [매일신보]	407
1943-06-03	김포서 지주대회 증산보국의열의를 피력 [매일신보]	407
1943-06-06	가마니 짜서 소 한마리씩 [매일신보]	407
1943-06-15	면협의회원 선거권 요건 중 일부개정	407
1943-06-10	근로로 농가 장려 [매일신보]	407
1943-06-13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07
1943-06-16	김포서도 이양 [매일신보]	407
1943-06-16	송산성훈씨미거 [매일신보]	408
1943-06-16	해군지원병제 취지 보급좌담 [매일신보]	408
1943-06-19	목표액 달성기원 각지서 엄숙한 식거행 [매일신보]	408

1943-06-20	맥주기에취독려 영정김포군수 [매일신보]	408
1943-06-24	부평지구 농지개발사업 기공 [매일신보]	408
1943-07-01	김포서 면리원 시험 [매일신보]	408
1943-07-01	유언비어를 삼가고 청결, 위생에 힘쓰자 [매일신보]	408
1943-07-15	미곡사전 할당과 농민의 협력 - 증산열 [매일신보]	408
1943-07-15	勳員(동원) [매일신보]	408
1943-07-16	경기도수영지도순회강습회 [매일신보]	408
1943-07-18	김포이양장황고지사가 축찰 [매일신보]	408
1943-07-25	건초와 퇴비증산 [매일신보]	408
1943-07-28	결전생활 일층강화 각지서 [매일신보]	408
1943-07-28	대맥공출에 개가 김포서 목표량을 돌파 [매일신보]	409
1943-08-03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	409
1943-08-04	김포군련맹 역원상회 [매일신보]	409
1943-08-14	김포군에서 면리원 강습 [매일신보]	409
1943-08-15	목표의 2할에 불과 불진하는 경기도 [매일신보]	409
1943-08-19	거물면장 지적보고 [매일신보]	409
1943-08-26	상이군인 건강진단 경기도에서 순회 [매일신보]	409
1943-08-28	송탄유채취 호성적 [매일신보]	409
1943-08-31	김포군민 적성 [매일신보]	409
1943-09-02	징병감사결의 선장-김포 [매일신보]	409
1943-09-07	송잔지채취에 김포관민동원 [매일신보]	410
1943-09-09	징병취지 보급-김포 각면에서 강연 [매일신보]	410
1943-09-15	김포각경방단 연합검열성대 [매일신보]	410
1943-09-22	부인 총궐기 운동 김포군에서도 성대 거행 [매일신보]	410
1943-09-28	몸뻘用(용) 면포 배급 [매일신보]	410
1943-09-29	부인국여강습 김포일부 지부서 [매일신보]	410
1943-09-29	김포부면장 임명 [매일신보]	410
1943-09-30	면행정연구회 개최 [매일신보]	410
1943-09-30	농사간담회 개최 [매일신보]	410
1943-10-08	부평, 김포간 자동차운전시간을 개정 [매일신보]	410
1943-10-13	콜레라 예방관련 건강진단 등 시행	410
1943-10-19	금년 김장 걱정 말자 수요량확보하고자 [매일신보]	411
1943-10-19	145만원 목표 김포에서 저축대평정회의 [매일신보]	411
1943-10-19	부인강습회 김포군에서 개최 [매일신보]	411
1943-10-20	고공품 증산하자 경기도에서 각 군을 독려 [매일신보]	411
1943-10-23	신사 추계 예제 [매일신보]	411
1943-11-26	김포서도 전원지원 [매일신보]	411

1943-11-26 김포군연맹 역원회 [매일신보]	411
1943-11-27 일본적십자사원 총회 [매일신보]	411
1943-12-01 세무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표	411
1943-12-12 중서-결전 저축 총궐기 운동-김포군에서 [매일신보]	411
1943-12-12 농작물 공출 성적-김포군 각면 모두 양호 [매일신보]	411
1943-12-17 김포국민개창운동 [매일신보]	412
1943-12-17 오산농산부장 래금 [매일신보]	412
1943-12-22 김포국민개창대회성 [매일신보]	412
1943-12-23 저축은 부인서부터-김포군서 지도층 여성 [매일신보]	412
1943-12-25 송탄유 증산에 박차 김포에서 [매일신보]	412
1943-12-29 정조공출에 개가 김포관민의 일치협력이 [매일신보]	412

## 1944

1944-01-07 김포경찰 훈련 시식 [매일신보]	412
1944-01-07 新年始式(신년시식) [매일신보]	413
1944-01-07 신년시식 [매일신보]	413
1944-01-07 6만석 증수를 목표누산평야에 수리공사 [매일신보]	413
1944-01-08 경인시가지 계획 관련 결정사항 [매일신보]	413
1944-01-08 필승신념 더욱 굳게 [매일신보]	414
1944-01-09 근량을 속이는 고기 장사 영벌 [매일신보]	414
1944-01-13 최후의 혈투를 계속-김포군의 저축운동 최고조 [매일신보]	414
1944-01-13 회갑연비 절약 헌금 [매일신보]	414
1944-01-15 가마니 이백만매 생산 [매일신보]	414
1944-01-15 獻金二件(헌금이건) [매일신보]	414
1944-01-16 보국 가마니 공출-김포군에서 [매일신보]	414
1944-01-26 김포군연맹 역원회 [매일신보]	414
1944-01-29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14
1944-01-29 뢰호지사, 초순시-김포의 증산상황을 독려 [매일신보]	414
1944-01-29 시국강연, 사상강습-김포에서 [매일신보]	414
1944-01-29 미영격멸 전의양양협의회 [매일신보]	415
1944-02-01 김포저축 성적 양호-목표의 9할 [매일신보]	415
1944-02-02 우량아동을 표창- 김포 [매일신보]	415
1944-02-05 관기진속을 강조 - 김포면장회의 석상에서 [매일신보]	415
1944-02-06 벽촌도 멀적기백-순후한 농민도 분기 [매일신보]	415
1944-02-10 국민총궐기 운동-김포군에서 강력 전개 [매일신보]	416
1944-02-10 면민 지기양양대회-김포면서 성대 거행 [매일신보]	416

1944-02-17	김포상업사봉대-3월10일 [매일신보]	416
1944-02-19	군면직원 연합연성대회 [매일신보]	416
1944-02-26	고공품 증산을 독려 [매일신보]	416
1944-02-26	김포군 연맹상회 [매일신보]	416
1944-02-26	김포농업전수교 졸업식 [매일신보]	417
1944-02-26	총력운동의 공적자 [매일신보]	417
1944-03-02	中西(중서) 말단행정쇄신강화 [매일신보]	417
1944-03-05	저축실적 150여만원-김포군민 열성 [매일신보]	417
1944-03-05	전시생활 좌담회-김포군에서 세국민 모아 [매일신보]	417
1944-03-07	조기·청소운동 김포군연맹도 [매일신보]	417
1944-03-11	입자 이백만매는 목척 [매일신보]	417
1944-03-12	경기도 김포에 개가-애국기 이백대 기금 [매일신보]	418
1944-03-21	조기, 청소에 독려반-김포에서 [매일신보]	418
1944-03-22	부인국어강습회-일부 김포군지부서 개최 [매일신보]	418
1944-03-26	시국인식 철저 간담회 [매일신보]	418
1944-04-09	17만석을 목표-토지개량사업과 수리사업으로 [매일신보]	418
1944-04-09	적탄받고서도 맹격! [매일신보]	418
1944-04-09	적탄 받고서도 맹격 [매일신보]	419
1944-04-12	탄환절수 당첨 즉시 비기자금 헌납 [매일신보]	419
1944-04-19	婦人屋外勤勞(부인옥외근로) [매일신보]	419
1944-04-19	時艱克服座談會(시간극복좌담회) [매일신보]	419
1944-04-22	地主蹶起大會(지주궤기대회)[매일신보]	419
1944-04-22	군청구내농원화전청원성한 작업 [매일신보]	420
1944-04-25	김포서원의 수범 [매일신보]	420
1944-04-25	각지가봉감사봉고제 [매일신보]	420
1944-04-26	홍보위원회개최 [매일신보]	420
1944-04-29	菴麻增産(비마증산)의 壯觀(장관)	420
1944-05-03	獻金(헌금) [매일신보]	420
1944-05-05	잠사제 성대거행 김포군서 [매일신보]	420
1944-05-07	부인들 근로작업 김포군 유지부인 동원 [매일신보]	420
1944-05-10	金浦貯蓄協議會(김포저축협의회) [매일신보]	420
1944-05-12	노무원호협력회조직 [매일신보]	420
1944-05-12	중서-고하원수 총흔 닳자 김포군민 [매일신보]	420
1944-05-12	적십자사총가입 경기는 구군완료 [매일신보]	421
1944-05-14	선제, 감사저축을 김포군에서 결정 발표 [매일신보]	421
1944-05-16	부락마다 사무촉탁-김포군에서 근근설치 [매일신보]	421
1944-05-17	육상에게서 받은 상금 즉시국방헌금 [매일신보]	421

1944-05-17	부평, 김포간자동차발착시각개정 [매일신보]	421
1944-05-17	논두렁에 콩을 심자 [매일신보]	422
1944-05-18	고하원수 추모 현익기금-김포군민이 [매일신보]	422
1944-05-22	고하원수, 김포군민 [매일신보]	422
1944-05-23	김포생필조합 총회 [매일신보]	422
1944-05-23	김포산채 채취운동 [매일신보]	422
1944-05-26	부인 총궐기는 이때-김포군서 [매일신보]	423
1944-05-28	4만8천원 회사-서주중도씨가 [매일신보]	423
1944-06-06	남자에 지지 않게-김포군서 [매일신보]	423
1944-06-10	이양에 공동작업반-김포군서 주식에 [매일신보]	423
1944-08-04	증산에 拍車(박차) [매일신보]	423
1944-10-11	맥류증산에 총력전 [매일신보]	423
1944-01-14	김포수리조합 폐지(조선총독부고시 제1241호)	423

## 1945

1945-02-23	근로동원과 설치와 각 군 전임과장 임명 [매일신보]	424
1945-05-31	강습소생이 현금 [매일신보]	424
1945-06-02	은제품 헌납 반 서장이 해군에 [매일신보]	424
1945-06-06	국원군이 징용자원 [매일신보]	424
1945-06-07	京畿郡守異動(경기군수이동) [매일신보]	424
1945-06-12	영정군수 고양으로 후임에는 藤邱軾氏(등구식씨) [매일신보]	425
1945-06-17	권농일의 盛況(성황) [매일신보]	425
1945-06-1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425
1945-06-18	藤邱金浦郡守(등구김포군수) 着任(착임) [매일신보]	425
1945-06-27	적기이양에 돌격전 [매일신보]	425

여 백

## ○ 신문 개요

1. 한성순보[漢城旬報]
2. 독립신문[獨立新聞]
3. 매일신문[每日新聞]
4. 황성신문[皇城新聞]
5. 제국신문[帝國新聞]
6.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7. 공립신보[共立新報]
8. 매일신보[每日申(新)報]
9. 해조신문[海朝新聞]
10. 시대일보[時代日報]
11. 중외일보[中外日報]
12.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13. 신한민보[新韓民報]
14. 동아일보[東亞日報]
15. 조선총독부 관보

## 1. 한성순보[漢城旬報]

조선 말기 개항 이후 정부는 근대화를 위해 주변 선진국의 문물을 배워오는 외교활동을 펼쳤다.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박영효(朴泳孝)는 일본에서 신문제작의 문물을 보고 한국에서도 국민계몽의 차원에서 신문 발간을 서둘러야한다고 생각했으며 귀국길에 신문 발행에 도움이 될 일본인 인쇄공 및 기자를 데리고 왔다.

한성부 판윤(지금의 서울 시장)직에 부임한 그는 왕(고종)을 자주 알현하고 신문의 역할과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간행 허가를 간청하였다. 이에 고종은 한성부에서 관장하여 신문을 발행토록 허가하였다(1883. 2).

이 신문은 10일에 한 번씩 발간하는 순보(旬報)였다. 신문의 성격은 순보서(旬報序)에 밝힌 바와 같이, '외국 신문을 많이 번역하여 게재하고 국내 사건도 실으며,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해서 취사선택하도록 하였고, 신문으로서 바름(正)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외국 기사로는 중국의 <중외신보> 와 일본의 <동경일일신보> 등 여러 신문의 기사를 선택적으로 번역하여 게재하였는데, 당시의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벌어지는 전쟁이나 군사장비, 국방정책, 개화문물, 민주주의, 의회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국내 기사로는 개인적인 일, 관(官)에서 하는 일, 한성시에서 하는 일 등을 구분하여 게재하였다. 각 관아에 배포하여 관리들이 읽도록 하였으며, 관청과 개인 모두 구독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박문국에, 지방에서는 경저(京邸)에 연락하여 구독할 수 있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 정치적 대격변을 겪으면서, 정변의 실패와 함께 박문국의 인쇄 시설이 모두 불에 타 신문 발간이 중단되었다. 중단 1년여가 지난 후에 <한성주보>(漢城週報)로 다시 발간되어(1886. 1. 25) 신문의 맥을 잇게 되었으며 발행주기면에서 순보와 다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2. 독립신문[獨立新聞]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徐載弼)이 정부로부터 4,400원(3,000원은 신문사 창설비, 1,400원은 서재필의 주택구입비)의 자금을 지급받아 1896년 4월 7일 창간하였다. 처음에는 가로 22cm, 세로 33cm의 국배판 정도 크기로 4면 가운데 3면은 한글전용 독립신문으로 편집하고, 마지막 1면은 영문판 The Independent로 편집하였다.

창간 이듬해인 1897년 1월 5일자부터 국문판과 영문판을 분리하여 두 가지 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신문은 여러 가지로 한국 신문사상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한국사회의 발전과 민중의 계몽을 위하여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변자가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알릴 것이며, 부정부패 탐관오리 등을 고발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독립신문이 정부의 탄압을 받는 한편 수구파의 미움을 사게

되자 서재필은 1898년 5월 14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윤치호(尹致昊)가 주필 겸 실질상의 관리자로 운영을 맡았다.

윤치호는 창간 이후 격일간으로 주(週) 3회 발행하던 것을 1898년 7월 1일부터 일간으로 발전시켰다. 1899년 1월 윤치호가 덕원부사겸원산감리(德源府使兼元山監理)가 되어 신문발행에서 손을 떼자 H.G.아펜젤러가 한동안 주필이 되었고, 6월 1일부터는 영국인 엠벌리가 맡았으나, 정부가 이 신문을 매수하여 1899년 12월 4일자로 폐간하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정부에서 발간한 신문이었으며, 한문으로만 기사를 썼던 데 비해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은, 민중을 위해 알기 쉬운 신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 독립신문은 신문의 중요성을 일반에 널리 인식시켜 그 후에 여러 민간 신문이 창간되는 계기를 만들어 1898년에는 매일신문(每日新聞), 대국신문[帝國新聞] 등이 창간되었고, 이들 신문의 체재와 기사 작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1957년부터 언론계는 독립신문 창간일인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3. 매일신문[每日新聞]

1946년 3월 1일에 창간된 남선경제신문(南鮮經濟新聞)으로 출발하여, 1950년 8월 1일 대구매일신문(大邱每日新聞)으로 개제하였다. 1950년 10월 1일 천주교 대구교구 유지재단(維持財團)이 인수하여 초대 사장에 최덕홍(崔德弘) 주교가 취임하였다.

1960년 7월 7일부터는 제호에서 '대구' 두 자를 뺀 매일신문(每日新聞)으로 바꾸어 지역성을 탈피한 전국지를 지향하였다. 강한 재야 기질의 논조를 지켜온 이 신문은 몇 차례의 필화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자유당 정권 때인 1955년 9월 14일 '대구매일신문테러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문사 백주 테러를 당하였고, 주필 최석채(崔錫采)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피소당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무죄가 확정되었다.

1964년 8월에는 정부가 언론윤리위원회법(言論倫理委員會法)을 제정 공포하고 이의 시행을 피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과 함께 지방신문으로서는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1965년에는 간첩관계 기사, 반공법 위반혐의로 편집국장 등이 구속 기소되었으나, 1969년 무죄 판결을 받아 보안법과 반공법에 의한 두 번의 필화에서 모두 무죄의 판례를 남겼다.

1980년 10월 25일 사옥을 대구시 중구 계산동(桂山洞)으로 옮기고, 그해 11월 언론기관통폐합 때 대구에서 발행된 영남일보(嶺南日報)를 통합 흡수하여 대구에서 발행되는 유일한 일간신문이 되기도 했다. 또, 지령 1만 1,198호(1980.12.1)부터는 제호를 대구매일신문으로 환원했으나, 1988년 3월 다시 《매일신문》으로 바꾸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4. 황성신문[皇城新聞]

19세기 말 한성순보가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창간된(1883. 9) 이후 국내에서는 여러 지식층이 신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징 있는 신문을 발간하였다. 한성순보가 10일에 한번 간행하는 순보인 것에 부족함을 느낀 남궁억(南宮穉)은 나수연(羅壽淵) 등과 함께 외세입에 대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항쟁의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일간신문을 간행하였다(1898. 9. 5). 이 신문은 이미 발간중인 대한황성신문의 판권을 인수받아 오늘날의 합자회사와 같은 고금제(股金制, 股는 주식과 같음)를 최초로 사용하여 자본가를 모아 발행한 민간자본 신문이었다.

제호는 '대한'을 삭제하고 황성신문이라 하였다. 1896년에 발간된 독립신문이 순 한글만을 사용한 것에 반해, 황성신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한문이 많이 사용되어 지식층의 독자를 많이 갖게 되었다. 신문은 3단으로 하여 논설, 관보, 외보, 별보, 잡보 등으로 기사 내용이 다양화되었고, 광고란이 등장하였다.

지면 크기는 초기에는 소형(23×31cm)이었으나, 1899년 11월 13일부터는 지면을 조금 키우고(25.2×34.5cm) 4단으로 하였으며, 4면을 발행하였다. 내용도 보다 다양하게 증가시켰다. 1900년 1월 5일부터는 '전보'기사란에 '한성 루터 전특체(電特遞)'라는 부제를 달고 외국 뉴스를 게재하기 시작하였다(영국 로이터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신을 공급받음).

황성신문은 국민계몽에 큰 기여를 하였고,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저항언론으로서의 명성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1904. 2. 10) 초기에 대외중립을 선언한 한국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이 전쟁을 유이하게 진행시키고 한국 침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를 신문이 보도하였다가(1904. 2. 24) 기사를 삭제 당했다. 그리하여 저항정신을 살이고 국민에게 일본의 탄압상을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 활자를 거꾸로 인쇄한 이른바 '벽돌신문'을(활자의 뒤쪽 네모진 모습만 인쇄됨) 발행하였다.

일본이 주한일본공사를 통하여 한국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오자(1904. 6. 17), 이의 부당성을 사설을 통해 폭로하고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반대운동을 일으키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보안회(保安會)를 홍보하고 지지하여 애국사상을 고취시켰고, 결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키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의 본격적 침략인 '을사늑약'(乙巳勒約 -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었다는 뜻)에 대한 비분을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 놓아 통곡한다.)이라는 사설로 국민에게 알이자 집행진이 모두 체포되고 정간 당하였다(1905. 11.20).

그 후에도 일제 강점이 진행되는 동안 민족의식 고취와 대일 비판의 자세는 지속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5. 제국신문[帝國新聞]

1898년 8월 10일 이종일(李鍾一)이 창간하였다.

제국신문이 나올 무렵인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독립신문》과 1898년 4월 9일에 창간된 티일신문, 그리고 일인(日人) 및 서양선교사들이 발행하는 신문 몇 종이 있을 뿐이었다.

제국신문은 창간호부터 1910년에 폐간될 때까지 한말의 대표적 민족지로서 황성신문(皇城新聞)과 함께 가장 오랜 발행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한글전용을 고수하여 일반 서민층과 부녀자들 간에 독자가 많았다.

이 신문에는 이종일을 비롯하여 이승만(李承晩)도 초기에는 논설을 집필하였고, 최강(崔岡)·장효근(張孝根)·정운복(鄭雲復)·이인직(李人植)·이해조(李海朝)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폐간될 때까지 경영의 어려움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필화사건 때문에 여러 차례 정간당하기도 하였으나, 국민의 문명개화와 자주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경영난으로 휴간하려고 할 때마다 국내외 유지들의 도움을 받았다. 또, 처음에는 제호도 제국신문으로 한글을 사용하였으나, 1903년 7월 7일부터는 한자로 바꾸었고, 본문은 한글을 전용하여 국한문을 혼용하던 황성신문과는 색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한글의 보급과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

제국신문에는 이인직의 신소설 혈(血)의 누(淚) 속편과 이해조의 고목화(古木花)등이 연재되기도 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68

## 6.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영국인 배설(裴說, 베텔:Ernest Thomas Bethell)이 양기탁(梁起鐸)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7월 18일에 창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던 무렵은 일본 측이 한국 언론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고 직접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주한 일본 헌병사령부의 검열을 받지 않고 민족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사세(社勢)가 확장되고 독자수도 늘어나면서,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된 이후에는 민족진영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언론기관이 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창간 당시에는 타블로이드판(版) 6페이지로서 그 중에서 2페이지가 한글전용이었고, 4페이지는 영문판이었다. 창간 다음해인 1905년 8월 11일부터는 영문판과 국한문신문을 따로 분이하여 두 가지 신문을 발간하였다. 영문판의 제호는 The Korea Daily News였고, 창간 당시는 순 한글로 만들었던 국문 판은 국한문을 혼용하여 발간하였다. 그러나 국한문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전용 신문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되어 1907년 5월 23일부터는 따로 한글판을 창간하여 대한매일신보

사(社)는 국한문 · 한글 · 영문판 3종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부수도 세 신문을 합쳐 1만 부를 넘어 당시로서는 최대의 신문이 되었다. 논설진으로는 양기탁 외에 박은식(朴殷植)·신채호(申采浩)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을 가진 신문이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자 일제는 이 신문에 대해 여러 가지 탄압을 가하게 되었다. 일본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발행인 배설은 1907년과 1908년 2차례에 걸쳐 재판에 회부되었고, 양기탁도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배설은 이러한 탄압과 싸우는 가운데 1908년 5월 27일부터 발행인 명의를 영국인 만함(萬威: Alfred Marnham)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09년 5월 1일 배설이 죽고 난 후, 1910년 6월 1일부터는 발행인이 이장훈(李章薰)으로 바뀌었고, 국권피탈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7. 공립신보[共立新報]

1905년에 창간되었던 재미동포단체 신문.

1905년 11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포단체인 공립협회(共立協會)의 기관지로 창간되었다. 사장은 안창호(安昌浩), 주필은 송석준(宋錫俊)이었다.

처음에는 활자를 갖추지 못하여 손으로 필사하여 순국문으로 석판인쇄하여 매월 2회 발행하였다. 1907년 4월 26일자(제2권 제1호)부터 활판으로 인쇄하여 주간신문 형태로 발행하였다.

이때부터 편집 겸 발행에 정재관(鄭在寬), 인쇄는 이교담(李交談)이 맡았으며, 신문체제도 새롭게 하여 순한글판으로 4단제 4면으로 발행하였다.

이 신문의 발간목적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동포들에게 민족정신 고취와 국권회복운동을 보도하는 데 있었으며, 국내에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창간호 논설에서도 밝혔듯이, 매호마다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단순한 보도기관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지식의 계몽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중시하였다. 또한, 국내의 민족지들의 동태에 대해서도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1907년 제국신문(帝國新聞)이 재정난에 빠졌을 때는 의연금 모금을 하였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의 애국정신에 대해서도 크게 보도하였다.

보급망으로는 미국 본토 이외 지역의 배포를 위하여 하와이에 4개 소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1개 소의 보급소를 두었다. 본국에는 서울을 비롯, 전국 32개 보급소를 통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배포되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908년 4월 일제가 <광무신문지법 光武新聞紙法>의 단속규정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발간되어 국내에 유입되는 동포신문도 통감부에서 통제함에 따라 빈번하게 압수, 또는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공립협회가 1909년 2월 국민회(國民會)로 개편, 통합됨에 따라 대동공보(大同公報)와 함께 통합되어, 1909년 2월 10일 제119호부터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新韓民報)로 바뀌었다. →신한민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8. 매일신보[每日申報]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배설(裴說:Ernes Thomas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일제가 사들여 국권침탈 직후인 1910년 8월 30일부터 ‘대한’ 두 자를 떼고 매일신보(每日申報)로 개제한 것이다.

경영상으로는 일어판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에 통합시켜서 경성일보의 일본인 사장과 편집국장 밑에 두어 일제의 한국 통치를 합리화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는 논조로 발간되었다.

1920년 초까지의 무단정치 기간에는 매일신보가 유일한 한국어 일간지였으므로, 이 신문에 이인직(李仁植)·조중환(趙重桓)·이해조(李海朝)·이상협(李相協) 등이 신소설 또는 번안소설을 발표하였고, 이광수(李光洙)가 처녀작 무정(無情), 개척자(開拓者)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20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민족지가 창간된 후로는, 민족지와 대립된 논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1920년에는 편집국을 경성일보 편집국에서 분리시켰고, 1930년에 처음으로 한국인 부사장이 임명되었으며, 1938년 4월 16일경성일보에서 완전 독립된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와 함께 제호도 매일신보(每日新報)로 바꾸고 최린(崔麟)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자매지로 월간매신(月刊每申)(1934.2), 매일신보사진특보(每日新報寫眞特報)(1938.11), 국민신보(國民新報)(1939.4) 등을 발간하였다. 1940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된 뒤로 광복될 때까지 다시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가 되어 일제의 침략전쟁과 민족 말살정책을 대변하였다. 따라서 매일신보는 일제가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날부터 광복 되던 날까지 중단된 일 없이 발간된 단 하나의 한국어 신문이다. 8·15광복 뒤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9. 해조신문[海朝新聞]

해외에서 우이말로 발행된 최초의 일간신문으로, 한인동포 최봉준(崔鳳俊)이 투자하여 1908년 2월 26일 창간호를 냈다.

순국문 석판인쇄인 이 신문은 준창호(俊昌號 :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고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 사이를 내왕하던 선박)의 선주이며 거부인 최봉준이 사장을 맡고, 왕창동(王昌東)이 편집을 전담하였고, 「이날에 목 놓아 우노라(是日也放聲大哭)」라는 논설로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 사장직을 물러난 장지연(張志淵)을 주필로 초빙하여 항일애국의 논설을 집필하게 하였다.

발족취지문에서 “일반 국민의 보통지식을 계발하며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완전하게 하기로 목적함.” 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애국독립투쟁을 고무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신문보급도 러시아 영내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성(京城)·원산·인천·평양 등지에 지국을 설치하고 선편으로 원산항을 거쳐 국내 각지로 반포하였다.

내용은 논설, 국내외 소식, 교민사회의 동향, 계몽기사로 이루어졌고, 특히 매호마다 격렬한 항일구국논설이 게재되어 애국지사의 피를 들끓게 하고 일본통감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일제의 통감부는 해조신문등 해외교포 발행의 신문이 국내에 흘러들어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자, 이에 놀라 1907년 7월에 제정된 「신문지법(新聞紙法)」을 이듬해 4월에 뜯어고쳐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신문을 압수하였다.

해조신문은 1908년 4월 이후 2개월 미만에 발매반포 금지 횟수가 17회이며, 압수된 부수는 1,569부에 달하였다. 이렇듯 국내의 보급이 어려워지고 사장 최봉준에게 일제가 폐간을 강요하고 갖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자신의 사업에까지 어려움이 미치게 되자, 1908년 5월 26일자(제7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고 말았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10. 시대일보[時代日報]

시대일보의 전신(前身)은 주간지 동명(東明)으로서, 3·1운동 후 일제가 한국민들에게 몇 개의 신문·잡지 발행을 허용하자 최남선과 진학문(秦學文)은 시사잡지 동명을 신문지법에 의해 허가받았다. 동명은 1922년 9월 3일 타블로이드판 20페이지의 주간잡지로 창간되었는데, 사장 최남선, 편집 겸 발행인 진학문이었다.

표지에 이 잡지가 시사주보(時事週報)임을 밝히고, 매호 ‘조선민족(朝鮮民族)아 일치합시다. 민족적 자조(自助)에 일치합시다’ 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내용은 시사평론·문화평론·국제정세를 비롯해서 최남선의 조선역사통속강화(朝鮮歷史通俗講活)을 연재하는 등 학술논문도 실고, 소설·만화·단평 등을 고르게 다루었다. 이 잡지는 1923년 6월 3일까지 통권 41호를 발간한 후 중단되었고, 7월 17일에 일간지의 발행허가로 1924년 3월 31일에 시대일보로 창간되었다.

창간 때의 진용은 사장 최남선, 편집국장 진학문, 정치부장 안재홍(安在鴻), 사회부장

염상섭(廉尙燮) 등이었다. 이 신문은 이미 발간되고 있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는 달이 1면을 정치면으로 꾸미지 않고, 대담하게 사회면으로 만들었다. 1면 에는 ‘오늘일 내일 일’이라는 시평 칼럼을 두어 특색을 살렸고, ‘응석반이’라는 미국 만화와 특약계약을 맺어서 6단 길이와 6단 폭으로 6컷짜리 대형만화를 연재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더불어 3대 민간지가 되었는데, 편집 내용에서는 신선한 감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경영난으로 창간 2개월 후부터 판권을 보천교(普天敎)에 넘기려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25년 4월 초에는 사장 홍명희(洪命熹), 편집국장 한기악(韓基岳) 등으로 진용이 바뀌었으나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1926년 8월 중순까지 발행한 후 휴간에 들어갔다. 이로써 시대일보라는 제호는 없어졌고, 이상협(李相協)이 9월 18일 중외일보(中外日報)라는 제호로 새 신문의 발행허가를 받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11. 중외일보[中外日報]

중외일보의 전신(前身)은 1924년 최남선이 창간한 시대일보(時代日報)로서, 이 신문이 경영난으로 1926년 8월 중순부터 발행을 중단하자 이상협이 중외일보로 개제하여 총독부로부터 발행허가를 받은 것이다.

당시 신문계의 귀재(鬼才)로 불리던 이상협은 ‘가장 값싸고 가장 좋은 신문’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기존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맞섰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빈약하여 경영난을 겪던 중 1928년에는 논설위원 이정섭(李鼎燮)의 아일랜드 기행문이 문제가 되어 발행인 이상협과 필자 이정섭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직업화(職業化)와 추화(醜化)’라는 사설로 말미암아 무기정간을 당하였다.

1929년 9월에는 자본금 15만 원의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사장에 안희제(安熙濟), 부사장에 이상협이 취임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재정 형편으로 인한 소극적인 경영정책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성을 꾀하여 그 때까지 다른 민간지가 다루지 못하였던 조석간 4면씩 하루 8면의 발행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8면으로 맞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재력이 빈약하였던 중외일보는 스스로 시작한 이와 같은 경쟁에서 자신이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재정난을 타개하지 못하고 1931년 6월 19일자 지령 제1492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하였고, 그 판권으로 제호를 중앙일보(中央日報)로 바꾸어 같은 해 11월 27일 제1493호로 새로 출발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12.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1933년 2월 16일 여운형(呂運亨)이 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하여 3월 7일부터 제호를 조선중앙일보로 고쳤다. 1934년 6월 27일에는 사의 조직을 자본금 30만 원의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사장에 여운형, 부사장에 최선익(崔善益), 전무에 윤희중(尹希重), 편집국장에 김동성(金東成) 등의 진용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민간 3대지로서 경영의 안정을 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6년 8월 13일자 신문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사진을 실으면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버린 것이 말썽이 되어 그보다 며칠 뒤에 역시 손기정 선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와 함께 9월 5일부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이 무기정간은 이듬해인 1937년에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휴간 동안에 뿌리 깊은 사내의 내분이 다시 일어나고, 재정 상태는 재기불능으로 악화되어 1937년 11월 5일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어 일제 치하 민간 3대지의 하나였던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다. 자매지로는 월간잡지 중앙(中央)(1933.11)과 소년중앙(少年中央)(1935.1)이 있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13. 신한민보[新韓民報]

초대 편집 겸 발행인은 최정익(崔政益)이었다. 구성은 4면으로 1-3면은 국문판, 4면은 영문판이며 매주 수요일 발행한다. 샌프란시스코 교민단체인 국민회의 기관지로, 1909년 해체된 공립협회의 기관지 공립신보(共立新報)와 대동보국회의 기관지 대동공보(大同公報)를 통합하여 만든 신문이다.

국권회복 운동과 관련된 기사와 논설, 한국 소식과 재외 동포들의 동정, 일본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특히 재미동포의 지식 보급에 힘쓰고 3·1운동 때는 격일간으로 발행하여 국내의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려 힘썼다.

8·15광복 뒤에도 계속 발간하여 교민들의 동정과 미국 내 교민들의 권익을 위한 기사를 실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발간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14. 동아일보[東亞日報]

3·1운동 후 조선총독부가 이른바 문화통치(文化統治)를 표방하면서 3개의 한국인 발행 민간신문을 허가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아일보로서 1920년 4월 1일에 창간하였다. 창간사에서 조선 민중의 표현기관, 민주주의, 문화주의를 사시(社是)로 내세웠다.

초대 사장에는 박영효(朴泳孝)를 추대했으나, 설립자 김성수(金性洙)가 중심이 되어 1921년 9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송진우(宋鎭宇)·이승훈(李昇薰)·백관수(白寬洙) 등이 8·15광복 전까지 사장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4차례에 걸친 무기정간(無期停刊)을 당하기도 했고, 1920년 11월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琿春]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한국동포학살 사건을 취재하러 갔던 장덕준(張德俊)이 일본군에 피살당하여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순직자를 내기도 하였다.

1936년 8월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우승을 보도하면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日章旗)를 말소시킨 사진을 실었다가 정간당한 것도 유명한 사건이었다.

1931년 11월에 월간지 신동아(新東亞), 1933년 1월에 여성지 신가정(新家庭)을 창간했고, 1930년대에는 문맹타파와 한글보급을 목표로 한 브나로드운동, 이충무공 유적보존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940년 8월 10일 조선일보(朝鮮日報)와 함께 일제의 강요로 폐간되었다. 8·15광복 후인 1945년 12월 1일에 중간(重刊)하였고, 6·25전쟁 때에는 부산에서 신문을 속간하여 당시로서는 전국 최고부수를 발행했다. 1953년 8월에 서울로 복귀, 1950년대에는 이승만(李承晩) 정권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야당지가 되어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는 발행부수 30만 부를 돌파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15.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관보는 1910년~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공고 기관지다. 관보는 그 성격상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자체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지라고 보면 된다. 관보가 갖고 있는 공적인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 관보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체 실상을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관보는 일제 36년 동안 거의 매일 발행되어 총 1만여 호, 13만여 쪽, 2억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 ① 조선총독부 이하 도·부·군·면, 세무서, 철도국 등 모든 관청의 각종 행정행위
- ② 각종 회사·은행·조합 등 모든 경제·사회기관의 영업·운영내용
- ③ 인구·산업·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
- ④ 인가·허가·공시송달·증명·등기 등 조선인의 경제·사회활동의 모든 세부내용
- ⑤ 관리·조합·교사와 같은 관공리와 회사임원과 같은 경제활동인물의 모든 임명·사임·사망 사실 등 일제시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공적 기록을 포괄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관보는 이와 같이 일제가 당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분을 침탈·통제하여 들어오는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 관보는 현재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항하여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당시의 사실을 연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함에 있어 제일 먼저 정리하여 활용해야 할 자료이다.

또한 현재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제시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재산환수에 있어서도 조선총독부 관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공적, 사적 행적과 특권의 획득과 활용, 재산증식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조선총독부관보활용시스템)

## <일러두기>

•고신문으로 보는 김포의 근·현대사 기록은 1883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말 및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간된 신문에 보도된 김포지역 기사들을 모았다.

•기사발체는 아래 기관이 소장 및 구축해 놓은 신문데이터를 활용하였다.

- 1)한국언론진흥재단
- 2)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3)국사편찬위원회
- 4)국립중앙도서관
- 5)독립기념관
- 6)국가보훈처 공훈사료관

•김포지역 관련 기사 검색은 '김포', '통진'의 단어를 통해 김포지역 기사들을 발췌한 후 김포와 통진지역과 관련없는 기사들을 제외시켰다. 또한 당시 행정구역이 김포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양천' (현 서울시 강서구 지역) 관련기사도 제외했다.

•1995년 3월 이전까지 김포군 검단면이었던 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지역 기사들은 김포기사로 포함시켜 게재했다.

•기사 게재는 발행일자, 기사제목, 발행신문, 기사주제, 기사지면, 기사본문, 기사해석문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기사구성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기사원문 : ○

원문해석 : ▶

<중략> : 기사 본문 내용 중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은 지면관계상 <중략>으로 삭제했다

•기사게재 구성은 기사원문과 현대어 해석문이 함께 게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일부는 지면제약으로 기사본문을 생략하고 현대어 번역문만 혹은 기사제목만 게재하였다.

•기사원문 이해를 위해 한문 옆에 (한글) 번역을 게재하였다. 예)>金浦郡守 (김포군수) 崔基柱(최기주)

•기사 제목은 한문 및 국한문혼용체, 한글고어체로 되어있는 원문을 한글로 옮겨 게재하였지만 일부는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다.

# 1883-1899

## <범례>

○ 기사본문

▶ 원문해석

<중략>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 생략

1883-12-20 大臣次對(대신차대) [한성순보]|국내관보|03면|01단|

○17일 좌의정 金炳國(김병국)이 次對(차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아뢰었다. 一, 임금의 학문을 힘쓸 것. 一, 학교를 세울 것. 一, 각 도의 砲兵(포병)에 연습을 시킬 것. 一, 상인이 바친 貢物(공물)의 값을 戶曹(호조)와 惠局(혜국), 그리고 鑄錢所(주전소)로 하여금 支拂(지불)하게 할 것. 一, 州縣(주현)의 관원들이 부정하게 貸出(대출)하여 장부를 정확히 하지 않는 여러 가지 폐단을 자세히 적발하여 貪贓律(탐장률)로 처벌하고, 現任者(현임자)는 爪滿(조만)이 되도록 그 직에 있게하여 맡은 일을 책임지고 마치도록 할 것. 一, 京司(경사)에 상납할 때 苛斂誅求(가렴주구)하여 사복을 채우는 무리들을 낱알이 조사하여 부정을 저지른 郎官(낭관)을 각기 그 낭관이 소속한 아문에서 稟啓(품계)하여 勘罪(감죄)할 것. 一, 文敬公(문경공) 金集(김집)에게 영의정을 추증할 것. 一, 春川府使(춘천부사) 金明鎭(김명진)· 鐵原府使(철원부사) 梁柱星(양주성)· 德源府使(덕원부사) 鄭顯奭(정현석)· 光州牧使(광주목사) 兪致禧(유치희)· 瑞興府使(서흥부사) 趙奭永(조석영)에게는 모두 璽書表裏(새서표리)의 은전을 배부시키고, 永平郡守(영평군수) 朴齊性(박제성)· 金浦(김포)군수 趙駿九(조준구)· 舒川(서천)군수 金益成(김익성)· 金提(김제)군수 趙弼永(조필영)· 新溪縣監(신계현감) 徐騎輔(서기보)에게는 모두 別薦(별천)을 시행할 것이며, 각도 御史(어사)가 천거한 學行(학행)이 특이한 자는 모두 吏曹(이조)에서 擬用(의용)할 것.

1884-01-08 日本人閑行里程約條(일본인한행이정약조) [한성순보]|국내관보|02면|01단|

○제1조: 兩國(양국) 정부는 일본 明治(명치) 15년 8월 31일, 조선 壬午(임오)년 7월 17일, 각국의 全權大臣(전권대신)이 議定(의정)했던 續約(속약) 제1관의 취지에 의거하여 조선국에 있는 仁川(인천)· 元山(원산)· 釜山(부산) 세 항구에서 금년에 확충해야 할 閑行里程(한행이정)을 지금 두 나라 委任大臣(위임대신)의 議訂(의정)을 거쳐 以下(이하)와 같이 開列(개열)한다.

제2조: 인천항구는 동으로 安山(안산)· 始興(시흥)· 果川(과천), 동북으로는 陽川(양천)· 金浦(김포), 북으로는 江華島(강화도)까지를 한계로 정하고, 원산항구는 서쪽으로 德源府(덕원부)를 한계로 하여 馬息嶺(마식령)을 관할하고, 남으로는 安邊府(안변부)를 한계로 하여 古龍池院(고룡지원)을 관할하고, 북으로는 文川郡(문천군)을 한계로 하여 業加直(업가직)을 관할하며, 부산항구는 동으로 機張(기장), 서로는 金海(김해), 남으로 鳴湖(명호), 북으로 梁山(양산)까지를 한계로 한다. 이상 정한 각 곳의 경계에는 두 나라 관리들의 입회하에 각기 뜻말을 세워 四方(사방)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제3조: 일본 明治(명치) 17년 조선 辛未(신미)년에 다시 확장할 里程(이정) 경계는 마땅히 그때 가서 양국 위원의 의정을 거쳐 이 약조의 附錄(부록)을 만들기로 한다.

제4조: 이 里程(이정) 내에서는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총을 쏘고 사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人家(인가)와 가까운 곳 또는 조선 정부에서 금지하는 곳에서는 총을 쏘지 못한다.

제5조: 만약 일본인이 이 이정 내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혹 경계를 넘어서는 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지방을 관할하는 관리가 체포하여 일본 영사관에 인도하고, 혹은 그곳에 억류해 둔 채로 영사관에 알리어 조치토록 한다. 단 억류하거나 송치할 때 너무 가혹하게 다룰 수 없으며 억류 기간은 영사관에 갔다가 올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이 이정 내에서 만약 조선인이 일본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곳 지방관이 즉시 관리를 파견하여 구호하는 동시에 그 행패 사람을 엄벌 한다.

제7조: 일본인이 한가히 거닐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지 못하거나 혹은 도중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沿路(연로)의 人民(인민)들은 그의 청에 따라 驍馬(교마)를 마련해 주거나 혹은 자기 집에서 쉬어 가게 하여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

제8조: 조선 정부는 제4조 이하의 각 조항을 그 이정 내에 있는 마을과 길에다 揭示(게시) 廣告(광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막론하고 준행하게 한다. 이것을 양국의 위임대신이 記名捺印(기명날인)하여 서로 信守(신수)할 것을 약속한다.

大日本國(대일본국) 明治(명치) 16년 월 일

大朝鮮國(대조선국) 開國(개국) 492년 월 일

1884-05-15 議政府啓(의정부계) [한성순보]|국내관보|01면|01단-02면|

○20일에 의정부가 아뢰기를 『곧 경기 연안의 海防(해방)을 總管(총관)하는 사무에 대한 閔泳穆(민영목)의 上疏(상소)를 보니 진술한 여러 조항은 바로 海防事務(해방사무)의 切急(절급)한 것이므로 廟堂(묘당)으로 하여금 稟處(품처)케 하시도록 下命(하명)하소서.

1, 지금 관할하는 바는 다만 陸軍(육군)만이 守備(수비)하고 있어 매우 허술하므로 沿界(연계)의 水軍(수군)에게 海防(해방)의 節制(절제)를 따르도록 할 것.

沿海(연해)의 중요한 곳은 水軍(수군)의 힘을 빌어야 하는데 현재 衙門(아문)에 속해 있는 군사는 수천명도 못되는 陸軍(육군)일 뿐이니, 外侵(외침)을 豫防(예방)하는 일이 어찌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沿海(연해)에 있는 水軍(수군)을 아울러 통괄하라는 일로 분부할 것.

- 喬棟(교동)은 孤島(고도)여서 군량이 모두 떨어진 형편이므로 統禦(통어)의 명칭은 한갓 有名無實(유명무실)일 뿐이니, 수시로 변혁하되 많은 전례를 참작하여 通變(통변)할 것. 비록 統禦(통어)라는 명칭은 있으나 兵制(병제)와 餉需(향수)가 전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에도 여러차례 변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방에 소속시킨다면 通變(통변)에 합당합니다. 水軍節度通禦(수군절도통어)의 職銜(직함)을 格下(격하)하여 그곳 府使(부사)에게 防禦(방어)의 책임을 맡게 할 것.

- 南陽大阜島(남양대부도)는 화륜선박이 왕래하는 요충지이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물에 익숙하니 該臺安礮(해대안포)에 따로 1鎮(진)을 만들고 別將(별장)을 두되 본 아문으로부터 천거하여 차임할 것. 이 섬은 靈興(영흥)과 德積(덕적) 사이에 끼여 있으므로 실지로 海門(해문)의 요충지이니 진을 설치하는 의논은 참으로 깊은 생각입니다. 別將(별장) 한명을 그 곳 아문에서 천거하여 차임해 보내게 할 것.

- 연안읍에 배치한 礮軍(포군)의 定員(정원)이 1천8백70명인데 그중 병기를 잡을 수 있는 자는 겨우 3분의2 뿐이고, 나머지는 伙夫(화부)와 廝徒(시도)이나 그들도 없앨수 없

으니 營房(영방)을 세우고 기계를 수집하여 차례로 訓練(훈련)하고 總理(총리)의 礮牙兵(포아병)과 守禦(수어)의 別破陣(별파진)과 鎮撫(진무)의 新練兵(신련병)을 때로 훈련하여 때에 따라 調發(조발)할 것. 沿邑礮軍(연읍포군)의 기계를 수선하고 기예를 조련하며, 3營(영) 군사의 操筋(조칙)과 徵調(징조) 등을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할 것.

- 경기지방의 水路(수로)는 서쪽은 豐德(풍덕)을 경유하고 남쪽은 通津(통진)을 경유하며, 육로는 仁川(인천)의 濟物港(제물항)과 南陽(남양)의 馬山浦(마산포)가 모두 서울로 가는 直路(직로)이니 海防守備(해방수비)는 江華營(강화영)에 맡겨 전담케하고 陸地(육지)수비軍(군)은 현재 富平(부평)에 주재해 있는데, 豐德(풍덕)과 南陽(남양)에도 다시 兩枝軍(양지군)을 두어 요새를 지키면서 서로 호응하여 연락하게 할 것.

군사를 分散(분산)시키면 형세가 약해지는 것이니 남양과 풍덕에 따로 용맹스러운 土兵(토병)으로 두세 부대를 만들고 지식과 思慮(사려)가 깊고 兵事(병사)에 익숙한 자를 골라 오래도록 그 고을을 맡긴다면 군사를 訓練(훈련)하는데 편리할것입니다.

水陸(수육)의 要害處(요해처)에 별도로 土兵(토병)을 뽑아 단속하고 組練(조련)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니 兩邑(양읍)의 守令(수령)을 久任(구임)시킨 뒤에야 효과가 있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특별히 銓曹(전조)에 명할 것. <중략>

1896-05-14 통진 마송리 심능원이가 부자로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3단|

○통진 마송리 심능원이가 부자로 동리 빅곱흔 사름의 집 삼십호에 일찍 스십여명을 정월 브터 보리 나기선지 양식을 니여준다니 춤 올흔 일이더라

▶통진 마송리 심능원이가 부자로 동네 배고픈 사름의 집 30호 140여명을 정월부터 보리 나섬지기 양식을 나누어 준다니 참으로 옳은 일이다.

1896-07-23 통진군 보곶면 직강 성준영씨가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1단|

○통진군 보곶면 직강 성준영씨가 면리 가난한 사름들을 전곡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야 폐농홀 디경을 면헸다더라

▶통진군 보구곶면 직강 성준영씨가 면내 가난한 사름들에게 전곡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여 폐농할 지경을 면하다.

1896-08-08 이돌 팔일 관보에 잇는 말슴을 [독립신문]|논설|01면|01단

○이돌 팔일 관보에 잇는 말슴을 인민들을 위 하야 신문에 대강 올너 널니 보게 하노라 조칙 조세를 상납 홀 때에 맞당히 넘기지 못 홀거시니 혹 전슈히 밋치지 안턴지 남저지를 미필 하엿던지 건체가 되던지 하면 탁지부 대신이 그슈익을 쥬슈 하야 한을 정 하야 각각 그 도에 엄 하게 신칙 하되 만일 다시 다 밋치지 안 하면 그 슈령은 면관을 식히고 엄히 다스리라 하 옹섯더라 <중략> 경기도 삼십 팔군 광주부 슈원 여쭈 파쭈 풍덕 안산 김포 <중략>

▶이 달 8일 관보에 잇는 말슴을 인민들을 위해 신문에 대강 올려 널리 보게 한다. 조칙 조세를 상납할 때에 마땅히 넘기지 못할 것이니 혹 모두 바치지 않거나 나머지를 아직 끝내지 못하거나 연체가 되던지 하면 탁지부 대신이 그 수효를 맞추어 보아 제한을 정하

여 각각 그 도에 엄하게 타일러서 경계하되, 만일 다시 모두 바치지 않으면 그 수령은 관리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고 엄히 다스리라 하셨다. <중략> 경기도 38군 광주부, 수원, 여주, 파주, 풍덕, 안산, 김포 <중략>

1896-09-03 김포 이성한이가 슈적으로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1단|

▶김포 이성한이 8월 27일에 통진 한정하를 도적이라 하여 경무청에 잡아오다. 경무청에서 신문한 즉 이성한이 한정하의 논 판 돈을 임의로 가져가 쓰고는 도리어 한정하가 은전으로 33원 짜리 금전 6원과 25만 냥짜리 일본은행 표를 가져갔다 칭탁하고 한가를 붙들고 경무청으로 왔으니 남의 돈을 다 쓰고 갚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을 한 이성한이는 이른바 적만하장이다.

1896-09-10 통진군 보곶면 성준영씨가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2단|

○통진군 보곶면 성준영씨가 가난한 인민들과 밋천 업는 상고들을 구급을 만히 하여 주윗기로 그 사름들이 본군슈의게 고 하였더니 군수가 제스 호기를 성씨의 의리와 선심이 군주에 지낸 바니 관찰부에 보 호겠다고 하였더라.

▶통진군 보구곶면 성준영씨가 가난한 인민들과 밋천 없는 상고들을 구급을 많이하여 주었으므로 군수가 성씨의 의리와 선심이 군자를 지낸 바니 관찰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다.

1896-09-24 전일 김포 이성한이가 한정하의 논 [독립신문] <잡보> 03면 03단

▶전일 김포 이성한이가 한정하의 돈을 탈취한 후에 도로 갚을 길이 없자 한가를 모해하여 이인영이 일본에 오라 하고, 금전 6월 돈 것을 한가가 집어갔다 하고 거짓을 고하여 경무청에 끌고 갔는데, 이인영이 돌아옴을 기다려 대질 심문을 한 즉 금전 준 일이 없다 하다.

1897-05-27 통진군 가호가 2천 7백 19호요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3단|

○통진군 가호가 이천 칠백 십 구호요 인구는 일만 일천 오백 칠십 칠명 너에 남은 륫천 이백 스십 륫명이요 녀는 오천 삼백 삼십 일구며

▶통진군 가호가 2,719이요, 인구는 1만 1,577명내에 남자는 6,246명이요. 여자는 5,331명이다.

1897-06-03 김포군 가호가 일천 칠백 오십일호요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3단|

○김포군 가호가 일천 칠백 오십 일호요 인구는 륫천 오백 오십명 너에 남은 삼천 륫백 칠십 삼명이요 녀는 이천 팔백 칠십 칠구며

▶김포군 가호가 1,751호요. 인구는 6,550명 내에 남자는 3,673명, 여자는 2,877명이다.

1897-06-10 강원도 지판쇼 판스 관찰스 [독립신문]관보|02면|03단|

○<중략>통진 군슈 이완용 김포 군슈 덩극경 <중략>명

▶통진군수 이완용, 김포군수 정극영 <중략>명

1897-06-10 군부 주사 이근형 통진 군수 강위영 [독립신문]|관보|02면|03단|

○군부 주사 이근형 통진군수 강위영 <중략> 김포 군수 <중략> 해

▶군부주사 이근형 통진군수, 강위영 <중략> 김포군수 <중략>

1897-09-11 무산군 목장위원 [독립신문]|관보|02면|01단|

○무산군 목장 위원 유태용 명 김포군 공립 소학교 교원 조관중 림 무산군 목장 위원 김홍서 해

▶무산군 목장위원 유태용 명,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조관중 임, 무산군 목장위원 김홍서 해

1897-10-05 궁내부에서 경무청에 훈령하기를 [독립신문]|각부신문|03면|03단|

▶궁내부에서 경무청에 훈령하기를 김포 홍도 초평은 내장사에서 관리하는데 가화, 이두항과 공덕리 박성원이 거간꾼이라 하고 몰래 팔아 재물을 속여 뺏음.

외부에서 경무청에 훈령하기를 법국 공사의 편지내용을 들은 즉 경무청에서 순검을 김포에 보내 추수하는 교민 3명을 잡아다 가두었다니 귀 대신은 해당 교민 3명을 즉각 석방하고 구타하지 말라 하였다는데 무슨 말인지 답복하라 하다.

1897-10-09 경무청에서 김포 군수 홍봉관씨의게 [독립신문]|전보|02면|03단|

○ 경무청에서 김포 군수 홍봉관씨의게 훈령하기를 파주 리경진이 본군 광탄리에 인삼 오십간을 심어 지금 오년 썩리가 되었는데 키서 리여삼의 집에 못기고 감안히 일본 사람을 체결 해야 괴여이 감안히 팔고져 하다가 탈로가 되어 저의가 임의 조복 하였스즉 그 삼을 못당히 속공 할지라 리가의 집에 잇는 슈삼을 써 돈드러 올려 보내라 하였더라.

▶경무청에서 김포군수 홍봉관씨에게 훈령하기를 파주 이경진이 본군 광탄리에 인삼 50간을 심어 지금 50뿌리가 되었는데 캐서 이여삼의 집에 맡기고 몰래 일본 사람과 체결하여 몰래 팔고자 하다가 저희가 스스로 자백하였은즉 그 삼을 마땅히 속공하라고 하다.

1897-11-20 11월 18일 별운검 윤용식 [독립신문]|관보|02면|01단|

○관보 십일월 십팔일 별운검 윤용식 시종원 분 시어 박병익 명 <중략> 통진군 공립 소학교 교원 최인식 림 <중략> 본관 4호외 십일월 십팔일

▶<중략>통진군 공립소학교 교원 최이식 임명<중략>

1897-11-23 11월 20일 법부령 제 7호 [독립신문]|관보|02면|03단|

○법부령 제 칠호로 한성 지판소와 경기 지판소에 관할 구역은 좌와 같으니 한성 지판소는 한성 오서요 경기 지판소는 광주 기성 강화 인턴 수원 여주 양주 장단 통진 파주 남양 리턴 부평 풍덕 포천 죽산 양근 안산 삭령 안성 고양 김포 영평 믈턴 교하 가평 통인 음죽 진위 양탄 시흥 디평 적성 파탄 연탄 양디 양성 교동이다.

▶법부령7호로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에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한성재판소는 한성, 경기재판소는 광주, 개성, 강화, 인천, 수원, 여주, 양주, 장단, 통진, 파주, 남양, 이천, 부평, 풍덕, 포천, 죽산, 양근, 안산, 삭령, 안성, 고양, 김포, <중략>

1898-01-18 독립협회 보조금 내이는 김포군수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3단|

○요스이 독립 협회 보조금 내이는 김포 군수 덩극경씨 스원 평안 북도 관찰스 서상우 씨 십원 청도군 사는 전 군수 윤성원씨가 오원이더라

▶김포군수 정극영이 독립협회 보조금 4원을 내다.<중략>

1898-01-25 법부 비서 과장 이규석씨가 [독립신문]|각국명담속담류|3면|01단|

▶각부 신문, 법부 비서과장 이규석씨가 음력 선달 그믐날 경무청에 잡혔는데 그가 진술하기를 선달 초승에 서울 화개동에 사는 변석주 씨가 와서 말하기를, 한성재판소에 갇힌 양의환이 석방되도록 주선하여 주면 뇌물로 돈 오백 냥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관인으로서 뇌물을 받는 것이 법에 어긋나기에 변 씨를 책망하였다.

바로 그때에 범부대신이 소태영에 대해 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석방하려 할 때 고등재판소에서 양의환도 죄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함께 석방하기로 하였다.

3, 4일이 지나도록 석방되지 않자 변 씨가 또 와서 말하기를 돈 오백 냥을 보관하고 있는데 양의환을 곧 석방해 주면 삼백 냥은 가져오고 이백 냥은 자기가 마땅히 과세하겠다고 하므로 곧 편지를 하고 본소의 소장에게 부탁하여 7, 8일이 지나 양씨가 석방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무청에서 이규석씨에게 다시 묻기를 ‘네가 법부 관원으로서 어찌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한즉 이규석씨가 진술하기를 ‘이 일은 변씨 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고 있는 김포군 석곡에 사는 노서방이 여러 번 간곡히 부탁하므로 그렇게 하였다’ 고 진술했다.

경무청에서 계속 이규석씨에게 다른 일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재촉하자 그는 북서 성산리에 사는 김경재와 김수근이 4주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뇌물 3백 냥을 받고 그들이 석방되도록 주선해 준 일도 자백하였다. 우편 규칙(제6호 연속)

1898-01-27 경무청에서 법부에 보고하기를 [독립신문]|각국명담속담류|02면|03단|

▶경무청에서 김포군 양주봉의 소장을 조사한즉 법부 참서관 이규석이 뇌물 받고 협잡한 죄가 있어 뇌물 준 피고 김원일과 이장우, 청축질한 박경화와 김수민, 거간질한 변석주와 변석용 등을 잡아 보내니 살펴 처리하라고 법부에 보고했다.<중략>

1898-02-03 경기 각군에 작년 년수 잘못 된 우심훈 [독립신문]|전보|03면|03단|

▶경기 각 군에 작년 농사 잘못이 우심한 고을은 18인데 강화, 인천, 수원, 통진, 장단, 부평, 남양, 풍덕, 죽산, 안산, 안성, 김포, 음죽, 진위, 양천, 지평, 양성, 교동이고 지체된 고을은 20인데 광주, 개성, 여주, 양주, 파주, 이천, 포천, 양근, 삭령, 고양, 영평, 마전, 교하, 가평, 용인, 시흥, 적성, 과천, 연천, 양지이며 각 군에 신재는 7,170결 22부 3속이라 하다.

1898-05-26 사즉골 사는 엄세영씨 집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4면|01단|

○사즉골 사는 엄세영씨 집 청직 김창현이가 그 집에 구종 이쇠놈이를 짜려 죽이고 김포군 싸으로 도망 해야 숨어 잇는것을 경무청에서 잡아서 한성부 직판쇼로 넘겨 법률노 죽은 사람의 원슈를 갹하 주게 하였고.

▶사즉골에 사는 엄세영씨 집 청지기로 있던 김창현이 그 집에 오랫동안 종으로 있던 이쇠놈이를 때려죽이고 김포군 지역으로 도망하여 숨어 잇는 것을 경무청에서 잡아서 한성부 재판소로 넘겨 법으로 죽은 사람의 원수를 갹아 주게 하였다.

1898-06-11 김포군슈 정극경씨가 근일에 [매일신문]잡보|03면|02단|

▶김포군수 정극경씨가 최근에 농사철 백성들을 잡아다가 칼을 썬우고 차꼬를 채우며 때리고 가둔 게 20여 명이라 하는데, 정씨가 데리고 내려간 아로가 죄인을 가둔 곳에 드나들며 사사로이 악형을 하고 돈을 억지로 달라고 하여 먹는다는 것을 고을 감정리에 사는 이침사 백경씨의 아우가 올해 정월에 기록하였기에 앞에 있었던 일들로 잡으라고 하였으나 당사자는 피하고 그 형 백경을 잡아 가두었는데 돈 6,000냥을 아로에게 주고 풀어주었다.

김문경의 집에 어떤 드나드는 사람이 들어와 이유 없이 트집을 잡기에 김가가 관부에 호소하여 정씨가 관청 사람을 보내 결박하여 잡아올 때, 그 사람이 수원 순검이라고 공문을 내어 보이는 것을 관리가 듣지 않고 그대로 때리며 잡아서 가두었더니, 정군수가 관찰부 순검이란 말을 듣고 크게 겁이 나서 즉시 돈 8백 냡을 주어 애걸복걸 빌고(미완)

1898-06-13 김포군슈 정극경씨의 일(전호연속) 보닌후 [매일신문]잡보|02면|02단|

▶김포군수 정극경씨의 일(전호에서 이어짐)을 내보낸 후 즉시 김문경을 잡아다가 분부하기를 네가 관가 돈을 썼으니 갹아서 바치라고 가두고 김가의 논밭 문서를 세무서로 빼앗았다.

또 김가의 동생의 조카를 잡아다가 돈 1천 2백 냡을 바치라고 독촉하다가 김문경이 죽기로 맹세하며 못 바치겠다고 발악하기에 김가를 다 풀어주었으나 아직 논밭 문서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고을 소학교 학원 중에 평민으로 학원에 들어온 세 사람이 양반 학원과 무례하게 트집을 잡았다고 엄하게 곤장 30대씩 때렸다.

진흙전(흥년에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는 돈)을 한 사람마다 5돈씩 주는데 정씨가 관에 10명을 데리고 친히 살핀다고 하며 동리마다 술과 밥을 얻어먹자 그곳 인민들이 말하기를 원님과 지방 관아의 하인들 16명에게 음식을 주는 돈이 굶주린 백성에게 주는 돈의 배를 내도 부족하겠다고 하다.

13세 된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이끌고 진흙전을 타갔는데 그 아이의 당숙은 따로 살기 때문에 진흙전을 타러 들어갔더니 관장을 속이고 또 달라고 한다고 불기짝 20여대를 때렸다.

그리고 정씨가 '지방관'에서 '방'을 떼어낸 '지관' (뫓자리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무영의 매부가 뫓자리를 구하는데 정씨가 친히 다니며 뫓자리를 살펴보다가 충

청도에 사는 신씨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정하여 주며 쓰라고 하고 그 묘지기가 산의 주인에게 통지하러 갔다고 본사에 편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기록만 하거니와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정씨가 내부에 있을 때에는 평상시에 부정한 일이 없다더니 지금 김포군수로 간 후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 좌우지간에 권리를 가지게 되면 마음이 변하여지는가 보다.

1898-06-15 김포군 공립 소학 [매일신문] | 관보 | 02면 | 02단 |

○인천부 공립 소학교 부 교원은 남순희 김포군 공립 소학교 부 교원은 리의락으로 립 용했더라

▶인천부 공립소학교 부교원은 남순희,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은 이의락을 임용하였다.

1898-06-18 김포군 박용희씨가 본사에 [독립신문] | 잡보외방통신 | 04면 | 01단 |

▶김포군 사는 박용희가 신문사에 편지하기를 대한민국 독립문은 개명하는 표적인데 지금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다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금 2원을 보조비로 보내오다.

박씨의 의리에 감탄하여 조야 신민들이 대한민국 독립문을 모두 박씨 같이 위하기를 바란다 고 한다.

1898-07-29 통진군수 이완용은 적체 훈 공납이 태반이나 [매일신문] | 관보 | 03면 | 01단 |

○통진군수 이완용은 적체훈 공납이 태반이나 리포라 슈쇄홀 기약이 잇스니 어진 솜씨가 쏘흔 슈그럽도다

▶통진군수 이완용은 쌓인 공납이 태반이나 관아에서 일을 보던 자가 공금을 사용한 빚이라 수습할 기약이 있으니 어진 솜씨가 또한 괴롭다.

1898-08-19 통진군수 집에서 금번 원들 갈리는 [매일신문] | 관보 | 03면 | 02단 |

○통진군수 집에서 금번 원들 갈리는 중에 통진군수도 그중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궁내 대신 리직순 씨 의게 전갈하기를 원 은 갈녘스나 너직 으로나 붓쳐 달나고 수츠 말 하니 대신이 밋우 괴로히 풀니는중에 잇다더라

▶통진군수 집에서 이번에 군수들을 바꾸는 중에 통진 군수도 그중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궁내 대신 이재순 씨에게 전하기를 군수는 바뀌었으나 내직으로나 붙여 달라고 수차례 말하니 대신이 매우 괴로워 부대끼는 중에 있다고 한다.

1898-08-22 여주군수 남영기 통진군수 이완용 [매일신문] | 관보 | 02면 | 01단 |

○려주군수 남영기 통진군수 리완용 <중략>은 다 관찰스 보고를 디디여 면본관 하다

▶여주군수 남정기, 통진군수 이완용, <중략>은 다 관찰사 보고를 지체하여 수령직을 물러나게 한다.

1898-08-22 최석민으로 통진군수를 임하고 [매일신문] | 관보 | 02면 | 02단 |

<중략> 최석민으로 통진군수를 임하고 <중략>

▶ <중략> 최석민으로 통진군수를 임명하고, <중략>

1898-08-23 평산군수 조종서 덕산군수 [독립신문] | 관보 | 02면 | 02단 |

○ <중략> 통진 군수 최석민 <중략> 임

▶ <중략> 통진군수 최석민 임명

1898-08-29 일전에 통진군 북면 사는 이경도 [매일신문] | 잡보 | 03면 | 01단 |

▶ 며칠 전에 통진군 북면에 사는 이경도, 백계행 양인이 각각 소 한필씩 가지고 공덕리에 와서 채소밭으로 가는데, 남의 일을 해주다가 밤이 되어 그 두 사람이 함께 소를 먹이고 있는데 수풀 속에서 도적 4, 5명이 칼을 가지고 나와 그 소를 다 가져가서 그 두 사람은 하릴없이 지탄만 하였다.

마침 경무관 이종화씨가 살피며 돌아다니다가 그 사실을 알고 순검 한 명에 동리 사람 열 명씩 데리고 가서 그 수풀을 에워싸니 도적은 간 데 없고 소만 있기에 다 찾아서 잡다 하고 하니 이경무관은 참직모에 주의하여 생명을 보호한다고 칭찬들을 하였다.

1898-09-09 한성 우테 주사 황종륜은 강화부와 김포군에서 [매일신문] | 관보 | 02면 | 01단 |

○ 한성 우테 주사 황종륜은 강화부와 김포군에서 경기 관찰부로 발송 하는 공문을 허부군으로 환송 흠이 잇기로 삼기일 벌봉에 처하고 친위 일연디 이대덕 부 부위 홍무형 리근영 권용학은 핑기가 망작 해야 군규에 손히 흠이 잇기로 아올나 다섯 주일 중근신에 처 하였더라

▶ 한성우체국 주사 황종윤은 강화부와 김포군에서 경기 관찰부로 발송하는 공문을 해당군으로 환송한 일이 있기에 직무상에 주의하지 못한 것이라.

3개월 감봉에 처하고, 친위 1연대 2대대 부부위 홍무형, 이근영, 권용학은 처신이 망측하여 군대의 규율에 손해를 입히기에 아올러서 5주의 중근신에 처하였다.

1898-09-13 김포군 검단면에 소곰 굶난 가마가 [제국신문] | 잡보 | 04면 |

1898-09-29 김포군수 정극경은(9월 13일에 신고 하였더라) [독립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 김포 군수 정극경은 九월 十三일에 신고 하였더라

▶ 김포군수 정극영은 9월 13일에 신고하였다.

1898-10-04 특지 류빅 죄인 도병식씨가 일전에 [매일신문] | 잡보 | 03면 | 01단 |

○ 특지 류빅 죄인 도병식씨가 일전에 고등지판소에서 말하기를 선칙을 두번히지 말고 단번에 선칙해야 비소를 덩혀 달나야 취슈치 아니하였더니 쏘 들은즉 통진으로 비소를 덩혀야 길을 써나는디 총상회에서 총위위원 오십명을 선당하여 강두에 썩지 던송하였

다더라

▶임금의 특별한 명령으로 유배된 죄인 조병식씨가 일전에 고등재판소에서 말하기를 임금의 칙서를 내리는 것을 두 번 하지 말고, 단번에 칙서를 내려 귀양지를 정하여 달라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또 들은 즉 통진으로 귀양지를 정하여 길을 떠나는데, 총상회에서 총대위원 50명을 선정하여 강가의 나루 근처까지 전송하였다고 한다.

1898-10-14 宮廷錄事(궁정록사) [황성신문]|관보|02면|01단|

○十月十三日(십월십삼일)

(宮廷錄事(궁정록사)) <중략> 詔曰(조왈)不無參量者存 通津郡 竄配 三年 罪人 趙秉式 特放(무참량자존 통진군 찬배 삼년죄인 조병식 특방) `十月十一日(십월십일일)<중략>

▶10월 13일

(궁정기록) <중략> 조서에 적히기를 헤아림이 없지 아니한 자가 있어, 지방에서 3년 동안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형벌을 받은 통진군의 죄인 조병식을 특별히 석방하였다. 10월 11일 <중략>

1898-10-14 참량이 업지 아니 하니 통진군 찬비 [독립신문]|관보|02면|03단|

○참량이 업지 아니 하니 통진군 찬비 3년 죄인 조병식을 특별히 방 허라 허옵시고 조병식을 특별히 면 증계 허라 허옵섯더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없지 않으니 통진군 유배 3년의 죄인 조병식을 특별히 놓아주라고 하시고, 조병식을 특별히 증계하는 것을 면하라고 하셨다.

1898-10-26 공관된 고을 [독립신문]|잡보|03면|03단|

○공관된 고을) 각도에 지금 공관된 고을을 다 말 흘슈는 업스나 여주는 八삭 포천은 六삭 김포는 五삭 강서는 一년 공관 되야 민정과 읍세가 말이 못 된다고 하며 영암군은 여러해 상납이 엽전三十여万량이 적테 되야 가위 폐읍이라더라

▶수령이 없는 고을) 각도에 지금 수령이 없는 고을을 다 말 할 수는 없으나, 여주는 8개월, 포천은 6개월, 김포는 5개월, 강서는 1년 동안 수령이 없어 민정과 읍의 형세가 말이 아니라고 하며, 영암군은 상납이 엽전 20여 만 냥이 쌓여있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폐읍과 같다고 한다.

1898-12-17 周貧之義(주빈지의) [황성신문]|잡보|03면|03단|

▶<잡보>인천 제물포 사는 선달 차학삼이 금년 4월 곡기가 올라 부평, 김포, 빈민 수천 명이 아사지경에 이르자 외국인에게 빚을 내 백미 100석과 속비 200석을 무역하여 양 군 빈민에게 외상으로 분급하고 값은 추수 후에 갚도록 하여 양 군 빈민이 아사를 면했다고 하다.

1898-12-24 경기도 통진군슈 최석민씨난 실심으로 [제국신문]|잡보|3면|

1899-01-21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도관징은 [매일신문]|잡보|02면|01단|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도관징은 승서 판임관 오등하고.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조관중은 승서 판임관으로 승진하고.

1899-01-21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2면|01단|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陞敍判任官五等(승서판임관오등) 金浦郡公立小學校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교원) 趙寬增(조관중) <중략>

▶김포군공립소학교교원 조관중<중략>

1899-01-23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관청 사항

경기도 관할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는 군수의 업적 <중략> 통진군수 최석민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묵은 것을 없애고, 평소 조건 없이 베풀며 다스리니 백성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 <중략> 김포군수는 파견하지 않았다. <중략>

1899-02-01 의정부에서 그저씨 군슈 여덜을 먼저 낙년되 [매일신문]|잡보|01면|02단|

▶의정부에서 그저씨 군슈 8명을 먼저 임명했는데 양지군은 신용균, 아산군은 조병철, 김포군은 최기주, 청산군은 김병설, 이천군은 이희덕, 문천군은 이두연, 삭녕군은 홍세영, 연천군은 송경인 씨인데, 홍세영 씨는 충신 홍계훈 씨의 아들이요, 송경인 씨는 동학 우두머리 000를 잡은 이라고 한다.

1899-02-03 특품 최기주는 김포군슈를 임하고 [매일신문]|관보|01면|02단|

○특품최기주는 김포군슈를 임하고 <중략>

▶6품 최기주는 김포군슈를 임명하고<중략>

1899-02-08 散穀活人(산역활인) [황성신문]|잡보|03면|03단|

▶곡식을 나눠준 사람

올해 음력 7월에 인천항에 사는 차학삼 씨가 재물을 늘리고자 좁쌀 200여 석을 사들여 부평군 시천포에 쌓아두었는데, 그때 부평과 김포의 주민들이 밥 짓는 연기가 없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에 차 씨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기가 어려워 좁쌀 200여 석 모두를 인구를 계산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어서 수천 명이 버텨서 생활하였다니, 차씨는 참으로 바다와 같은 자비를 가진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더라.

1899-02-15 신임군슈 [독립신문]|관보|04면|03단|

○신임 군슈) <중략> 김포 장윤환 <중략> 제씨가 헛었더라

▶신임군수 김포 장윤환 <중략>

1899-02-15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4면|01단|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金浦郡守(김포군수)崔基柱(최기주) 依願免本官(의원면본공) <중략> 任金浦(임김포) 四等(4등) 警務官(경무관) 張允煥(장윤환)

면직 및 인사

▶<중략>김포군수 최기주는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본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다.<중략> 4급 경찰관 장윤환에게 김포를 맡긴다.

1899-02-16 緊件遺失(긴건유실)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김포군수 장윤환이 양력 2월 10일 남서 조동(棗洞) 근처에서 명함갑을 잃었으니 주는 사람은 창동(倉洞) 장금포(張金浦) 집으로 보내주기 바람.

1899-02-18 망년된 일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3단|

▶망년된 일) 통진군 후평에 사는 소재천의 처가 그의 남편 소씨를 위해서 자기의 집 후원에다 단을 쌓고 백일기도를 한 후에 서울로 올라 와서 내부에 청원하기를 그 남편 소 씨를 통진군수나 백천군수를 시켜달라고 하였다니 여인네가 그 남편을 위하는 일은 극히 기특하다고 할 만하나 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지각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성이 감천이라 하였으니 기도를 안 하더라도 정성만 있다면 어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으리요. 청원하러 분주히 다니는 것은 틀림없이 감탄할만한 지성은 없었고, 다만 어리석고 하찮은 탐욕만 있었나 보다.

1899-02-25 최씨 세력 [독립신문]|잡보|02면|02단|

○최씨 세력) 최기주씨는 몇날 스이에 김포 안변 두 고을 군수를 도둑 하고 또 몇날이 못 되어 합천 군수를 흐려 하니 최씨의 세력은 당금에 데일이라고들 공론이 자자 하다더라.

▶최씨 세력) 최기주 씨는 며칠 사이에 김포와 안변 두 고을의 군수를 하고, 또 며칠이 못 되어 합천 군수를 하려고 하니 최씨의 세력은 지금 제일이라고들 공론이 자자하다.

1899-02-27 성은감축 [독립신문]|잡보|02면|02단|

▶성은 감축) 평산군 아전 김치상이 공금 37,381냥 7전 3푼을 써버리고 진작 청산하지 못 하였기에 교수형에 처하는 것으로 1월 30일 관보에 반포하였더니, 공금을 써버린 김 씨가 해군 감옥을 넘어 도망치고 그 써버린 공금은 그 일가들이 분배하여 물어내어 바쳤는데, 해도에서 그 사실을 탁지부에 보고하고 탁지부에서 그 연유를 임금께 말하자 황상 폐하께서 처분하기를 죽는 것이 무서워 도망갔으니 죄가 더하여지나 그 상황이 불쌍하니 잡는 대로 교수형에 처하지 말고 노역을 시키라고 하셨다니 황상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덕택을 신민된 자들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는가.

무릇 대한 동포들은 각자 조심들 하여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황상의 지극한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보답할 것이다.

1899-03-06 爲官擇人(위관택인) [황성신문]|잡보|03면|03단|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고르라

선대의 임금의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 있는데, 『대전통편(大典通編)』에 ‘한 마음으로 공변되게 하며,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고르라’ 고 뚜렷하게 큰 글씨로 쓰셨으니, 정권을 잡은 사람 중 누가 감히 충실히 따르지 않으리오.

이번 3월 4일에 관보를 살펴보니 47명의 군수 중에 25명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그 관직을 해면하였는데, 의원직은 당사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에 의함이지 무슨 사고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25명이 동시에 청원하였는지 의문이 더욱 심해져서 들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략>

시종관 이완용은 통진에 재임할 때에 정치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깎아 내려진 게 반년이 겨우 지났거늘, 갑작스럽게 착해져서 놀라울 정도였는지, 황해도와 평안도의 좋은 자리로 관리를 골라서 등용하니 그 뒤로 불선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하여 거리낌이 없고 제멋대로 탐욕스럽고 포악하다.

이와 같은 풍속을 한 나라의 300여 명 군수가 도처에서 나쁜 줄 알면서 따라 하면 아아, 저런 탐관오리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못하거니와 어찌 이 나라의 백성이라 하오?

또한 벼슬과 직책을 나누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니 아아, 정권을 잡은 대신은 선왕의 가르침을 제발 생각 좀 하옵소서.

1899-03-22 경성군 사는 정왈룡이가 몇달 전에 [매일신문]|잡보|03면|02단|

▶경성군에 사는 정왈룡이 몇 달 전에 통진 등지에 가서 돈 800여 냙을 가지고 오다가 양천군 갯가 옆쪽 주막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떠한 수상한 무리 3-4명이 정 씨에게 말하기를 ‘이런 험난한 시절에 어찌하여 돈을 남들이 보게 가지고 다니냐’ 고 하기에 정왈룡의 말이 ‘경전을 바꾸지 못하여 그렇다’ 고 하기에 그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무리를 보며 하는 말이 ‘여보게 그 1원 전을 저 노형과 바꾸어 주라’ 고 하면서 ‘무슨 돈이든지 내여 놓으라’ 하기에 정씨가 돈을 바꿔준다는 말을 곧이듣고 동전 300냥을 자루에서 내어 놓으니 그 자들이 싱긋싱긋 웃으며 하는 말이 ‘여보시오 정서방 함께 안 떠나시오’ 라고 하고 1전은 커녕 엽전 한 푼도 안 바꿔 주기에 정씨가 하도 어이없어 다시 말도 못하고 서울에 와서 두 달 후에 경무청에 찾아가서 고발하기에 경무청에서 허성노, 임석준, 김경옥 등 네 명을 잡았는데 모두 모화관 근처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

1899-03-25 通郡私校(통군사교) [황성신문]|잡보|03면|01단|

▶통진군 북면 사는 전 주사(主事) 최석(崔錫)이 사립학교를 세우고 학도 30여 명을 선발하여 각 과정을 교습함이 날로 번성하더니, 이번 음력 2월 8일 천추경절(千秋慶節)에 대차일(大遮日)을 만들고 잔치를 베풀어 경축을 표하였다 하다.

1899-04-08 산송 민요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1단|

▶묘지에 얽힌 소송 민요) 포천군에서 어떤 사람들의 묘지에 얽힌 소송 사건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타인의 매장을 허용하자는 편이 400여 명이고, 그대로 타인의 매장을 금하자는 편이 400여 명이라 서로 무리지어 대단히 소란스럽다고 하기에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통진군수가 명사관으로 갔다고 한다.

1899-04-08 水中火賊(수중화적)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근기 연강(沿江) 등지에 수륙간 절도가 극성임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하였거니와 지금 또 들으니 고양, 양천, 김포, 통진, 교하, 풍덕, 강화, 교동, 배천, 연안 등지에 수적이 극심하여 칼과 육혈포를 가지고 강과 바다를 누비며 배의 물화를 약탈하고 인명까지 해하여 상업이 쇠퇴하고 있다 한다.

1899-05-05 有崔有趙(유최유조) [황성신문]|잡보|03면|02단|

▶통진군 월여곶면 오산현(烏山峴) 사는 최석(崔錫)이 거금을 들여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학도 30여 명을 선발해 학문을 교습하는데 교사 조능현(趙能顯)이 말하길 최씨가 시무에 뜻을 둔 것은 모두 자신의 지도라 하나 최씨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명예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1899-05-29 통진 소식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2단|

▶통진 소식) 어떤 친구의 말을 들으니 통진군은 스스로 좋은 쌀이 많이 나는 곳이라 갑오 이후에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내는 세금을 돈으로 마련하여 바꿔서 탁지부에 상납하는데, 해당 군 관속들이 매년 세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재기를 하여 큰 이익을 보고, 상납은 그럭저럭 미루어 가다가 최석민씨가 그 지역 군수로 내려가서 작년 세금은 가을에 거두어들여 즉시 몰수하거나 독촉하여 날마다 새롭게 빚을 청산하였더니, 해당 군 관속들이 더 이상 사재기를 하던 것을 못한 까닭에 최 군수를 대단히 원망하는 모양이다.

1899-06-15 兪희도적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2단|

▶통진군에 사는 이채삼은 어린아이를 유괴해 팔아먹기로 유명한 자인데 저번에 어느 아이를 유괴하여 적성군에 팔다가 그 아이 부모에게 발각된 행적이 있다.

송삼철이란 아이의 모친과 살다가 아이 모친이 이채삼의 행적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자 송삼철을 몰래 감춰두어 그 엄마가 아이를 찾아달라고 경무청에 호소하다.

1899-06-15 김포군 공립 소학교 부교원은 이의락으로 [독립신문]|잡보|02면|01단|

○인천부 공립 소학교 부교원은 남순희와 김포군 공립 소학교 부교원은 리의락으로 임용 할일(완)

▶인천부 공립소학교 부교원은 남순희와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은 이의락으로 임명 할일.(완성)

1899-06-19 여항 전설 [독립신문]|잡보|03면|01단|

▶여항 소문) 중추원 의관 최석창 씨는 이전에 먼저 버렸던 소실을 도로 모두 들이고 세간 짐물과 의복이며 신기하고 보기 좋은 물건을 별안간에 돈 수만금을 들여 날마다 새롭게 사들였다.

갑작스럽게 대문을 굳이 닫아걸고 그 동안 상종하던 친구들 모두 배척하고 사랑에 출입을 못하게 하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최 의관의 육촌 되는 통진군수 최석민씨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와서 최의관의 집에 잠깐 묵고 있는데 아침저녁 밥도 잘 하여 주지 않기에 최군수가 부득이 하여 다른 집으로 옮겨 가서 또 밥을 사 먹고 통진군으로 내려갔다니 여항 사이에 소문이 시끄럽다고. 하지만 최석창 씨는 사리 때에 이유를 밝혀 설명한다고 하니 이 여항의 소문이 혹시 와전된 건 아닌가 싶다.

1899-06-20 법관 임명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2단|

○법관 임명) 의정부 총무국장 홍종우씨와 법부 참서관 윤필씨는 다 평리원 척임 판사를 하고 통진군수 최석민씨는 법부 참서관을 하였더라.

▶법관 임명) 의정부 총무국장 홍종우 씨와 법부 참서관 윤필 씨는 모두 평리원에서 임금의 임명으로 판사를 하고, 통진 군수 최석민씨는 법부 참서관을 하였다고 한다.

1899-06-23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任法部參書官敍奏任官五等(임법부참서관서주임관오등) 通津郡守(통진군수) 崔錫敏(최석민) 六月十七日(6월17일) 任警務官敍奏任官六等(임경무관서주임관육등) 九品(구품) 金在浩(김재호) <중략>

▶면직 및 인사

법부 참서관 5등에 통진 군수 최석민을 임용한다. 6월 17일 경무관 6등에 9품 김재호를 임용한다. <중략>

1899-06-30 군수 신임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1단|

○군수 신임) 다투대신이 그것기 밤에 각군 군수 주분을 올렸다는디 <중략> 통진에 리규중 <중략> 시흥에 리병의 제씨가 다 서임이 되엇다더라.

▶새로 임명된 군수) 내부대신이 그저께 밤에 각 군의 군수가 임금에게 올린 글을 올렸다는디 <중략> 통진에 이규중 <중략> 시흥의 이병의 각각에게 벼슬자리를 내렸다고 한다.

1899-07-01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관보六月三十日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任通津郡守五等(임통진군수오등) 從二品(종이품) 李槻重(이규중) <중략>

관보 6월 30일

▶면직 및 인사

<중략>통진 군수 5등에 종2품 이규중을 임명한다. <중략>

1899-07-22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관보|02면|02단|

○官廳事項(관청사항)

<중략>通津(통진) 李槻重段(이규중단)은 未赴任(미부임) <중략>金浦(김포) 張允煥段(장윤환단)은 既切願治之念(기절원치지념)하니 第觀著續之効(제관저속지효)흠 <중략>

▶관청 사항

<중략>통진의 이규중은 발령을 받고도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중략> 김포의 장윤환은 처음부터 다스리고자 절실하게 바라였으니, 누각에 계속 나오는 것이 본받을 만하다. <중략>

1899-08-02 京畿結戶(경기결호) [황성신문]|잡보|03면|02단|

○(京畿結戶(경기결호))

金浦(김포) 一天二百一結(1,201결) 九十八負(98부) 四束(4속) 戶錢(호전) 五天兩(5,000냥) <중략> 通津(통진) 二千四百十九結八十八負一束(2,419결88부일속) 戶錢六千兩(호전륙천량), <중략> 以上一府八郡每結三十兩式(이상일부팔군매결삼십량식)(未完(미완))

▶경기도 결호(結戶) 김포 1,201결 98부 4속 호전 5,000냥 <중략> 통진 2,419결 88부 1속 호전6,000냥 <중략>

1899-09-04 교원 행위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2면|03단|

▶교원 행위)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조관중 씨는 본래 학식도 없을뿐더러 또한 언행이 사나운 중에 많은 학교의 학비를 모두 훔쳐 먹고, 어느 학도가 학교를 그만두면 퇴학비라고 칭하여 수효를 헛되이 불러서 독촉하여 받고,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 이미 지났지만 학도를 한명도 가르치지 않으니, 특별히 누구를 보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라고 관찰부에서 학부에 보고 하였다.

1899-09-06 敎員傾軋(교원경알) [황성신문]|잡보|03면|01단|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조관중(趙寬增)이 인사가 폐악하고 학비를 중간에서 횡령했다며 군수 장윤환(張允煥)과 부교원 이의락(李義洛)이 학부에 보고하다.

학부에서 장과 이를 불러 대질했는데 장씨가 변명하되 경비의 반은 학비로 쓰고 반은 학교 건물이 남아 수리하는데 썼으며, 인사가 폐악하다는 것을 불량한 학도들을 타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다.

학부에서 교원들이 교무에 힘쓰지 않고 서로 알력만 있다면 학교를 폐지하자고 논의하다.

1899-09-07 부교원 협잡 [독립신문]|잡보외방통신|03면|03단|

▶부교원 협잡)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이의락씨가 많은 학교 교원을 속여서 교원

조관중씨를 황당한 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꾸며서 학부에 거짓으로 보고한 지경에 이르렀다.

교원 조씨와 부교원 이 씨가 학부에 가서 변질하는 마당에 교원 조씨는 당초에 결백한 증거가 다 명백하고 부교원 이 씨는 아무 증거도 없이 간사하게 벗어났음에도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못된 마음을 가져 그 학교에 다니는 학도들을 지휘하여 학교에 다니지 말게 하고, 그 학교를 폐지시킬 계획을 또 꾸민다니 과연 그렇게 되면 이의락 씨와 같은 이로 인해 인민의 자녀들 교육상에 크게 손해가 될 테니 학부에서는 아무래도 살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1899-09-08 熱心教育(열심교육)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2단 |

▶ 통진군 공립소학교는 최석(崔錫)이 개시하여 교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등 학도 교육에 열성인데, 지금 또 전 위관(尉官) 조능현(趙能顯)이 교원직을 자칭하고 학도들을 체조 교련하여 두 사람의 열심교육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

1899-09-11 9월 9일 김우정은 증추원 의관을 임하고 [독립신문] | 관보 | 02면 | 02단 |

○ <중략> 조관중은 인천항 공립 소학교 교원을 임 하고 유학수는 김포군 공립 소학교 교원을 임 하고 <중략>

▶ <중략> 조관중은 인천공립소학교 교원으로 임명하고, 유학수는 김포군 소학교 교원으로 임명하고 <중략>

1899-09-11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3단 |

관보九月九日○(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金浦郡公立小學校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 교원) 趙寬增(조관중) 任 <중략>

▶ 관보 9월 9일, 김포군공립소학교 교원 조관중 임명 <중략>

1899-09-14 9월 13일 외국어 학교 부교관 이한응 [독립신문] | 관보 | 02면 | 02단 |

▶ 외국어학교 부교관 이한응, 윤태헌, 김옥동, 윤태은은 학부 명령을 지키지 않아 진작 개학을 안 하고, 관립소학교 교원 박지양, 이원규, 김성진, 조한설은 학부를 허가하지 않은 학교 건물을 마음대로 옮겨 자리를 잡았기에 모두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하였다.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관 이의락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규탄하여 보고하는데 사실과 다르므로 직위를 해직한다.

1899-09-15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2면 | 02단 |

○(學事(학사))

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 李義洛(이의락)은 論報寮員(논보료원)이 極爲爽實(극위상실)하기 免本任(면본임)할 事(사), <중략>

▶ 학사

김포군 공립소학교의 부교원 이의락은 다른 교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담아 보고한 것이 몹시 사실과 다르기에 본임을 해임하게 할 일이다. <중략>

1899-10-02 농상회사 [독립신문] |잡보|03면|02단|

▶통진군 사는 서상칠 등이 농상계를 설립하고 농사에 힘써 한 사람이 한 해 뽕나무 20주씩 심어 누에농사를 하며 혹 가난하여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홀금을 주어 농사에 보태게 했다고 하다.

1899-10-12 公器私橐(공기사탁) [황성신문] |잡보|02면|03단|

▶개인의 것이 아닌 관직으로 사사로이 돈을 모으다.

조병식씨가 법무대신을 대신할 때에 거느리던 하급 관리의 임명과 면직을 회상하기를, 참서관 최석민씨가 통진 군수에 재임할 때 조씨가 귀양으로 유배지에 갔는데 팔대함이 있었으므로 일부 함께 일하기 어려우니 아랫사람으로 있는 것을 피하여 직책에서 면직시키고 대신 조예석 씨를 임명하였다. <중략>

조씨는 관직의 임명과 면직에 갖가지 수단이 있었다라고 평판이 자자하였다.

1899-10-13 조 교관 명예 [독립신문] |잡보|03면|01단|

▶조관중이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해당 학교 부교원 이의락과 논쟁하다가 해당 학교에서 재판하여 이의락은 면임되고, 조씨는 인천향 공립소학교 교원으로 옮겼는데, 지금 들으니 해당 학교 학도들이 조교원을 대단히 마땅치 않게 여겨 모두 자퇴하여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경이라 하다.

1899-10-28 농상 시찰 [독립신문] |잡보|04면|01단|

▶농상 시찰) 서울, 일본 거류지 상업 회의소 이사 임호웅 씨가 농상 시찰을 하기 위해 이달 14일 서울에서 떠나 인천 수로로 군산에 당도하여 금강을 거슬러 강경을 시찰하고 육로로 공주, 광정, 천안, 직산, 성환, 칠원, 진위, 수원, 과천 등지를 시찰하고 그르저께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콩은 도처에 풍년이고 미곡은 평년이라는데 임호웅씨가 또 광주, 양주, 파주, 김포, 부평 등지에 시찰하려고 오늘 내일 사이에 떠난다고 한다.

1899-12-13 學事(학사) [황성신문] |관보|01면|02단|

○(學事(학사))

<중략>金浦郡 公立小學校 副敎員(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은 黃龍晁(황용면)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중략>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은 황용면으로 <중략> 임용한다.



光武二年三月八日  
農商工部認可

# 皇城新聞

第 每  
十 日  
六 刊  
號 卷 行

## 論說

○余一誠淺蠅附하고  
才沒巴斤하야胸中塞  
莽豈能히勇去치못하  
의對人애必汗하且臨  
紙에白毛라三十年積  
鬱氣氣痛鬱鬱虛과  
無하더니今日寒窓  
案에時事叢報第一號  
題旨을得覽하고拍案  
長呼曰吾爾가在此三  
다其雄健한文法과  
明을事理가古人에求  
하야도부호호多得하  
하니如此히時局을  
達言大才筆을何處에  
서得來하았는고此三  
非但我一人의阿好호  
바이라實로邦國의光  
이오非但邦國의光이  
라實로天下의光이  
余一必獨先生의堂에  
登하기는不獲하얏스  
나그유히先生의文을  
誦誦의明鏡이心部에  
照照과如하야前日積

鬱氣氣가自然히消釋호을不覺하깃스니  
然則先生의一共가華扁의千方보다勝하  
다謂하리로나況余一蠅字虫技의粗解를  
敢恃호고驅鳴犬吠의麗聲을妄發호야大  
方家의笑을貽하얏스니一邊은自愧도하  
거니와一邊은自幸호것기이寸挺이大鍾을  
撞호의隨響應하는效力이此로從하야  
有한지로나猶歎盛矣라我大韓이自甲午  
以來로前世에未終호바를發하야學校를  
比立하고新聞社를廣設하되익양時局을  
洞明호者少하야有志者에常歎하는  
비되더니山谷間으로自하야往往隱君子  
가出하더니吾人의才不借於異代라는言을  
果信하깃도다

## 宮報抄錄

○一月十一日  
○宮廷錄事 一月十九日大醫院卿少卿  
摘要來飲來待矣奉  
旨付入  
○張生、辭命 掌禮院左掌禮張斗植、  
弘文館侍讀李等範、常司事洪在九  
成鏡南道觀察府上事盧正誠、忠清北道  
觀察府上事鄭雲陶、儀禮廳本官  
任掌禮院左掌禮叙奏任官五等 四品洪  
承斗○任弘文館侍讀叙判任官六等 九  
品李琦浩○任奉常司主事叙判任官四等

四品張斗植○任成鏡南道觀察府上事叙  
判任官八等 權永鶴○任忠清北道觀察  
府主事叙判任官八等 盧采勳  
尹泰憲、金吳東、方大榮、  
在外國高學校副敎官叙判任官六等  
以上一月十九日

## 官廳事項

○京畿管下府尹郡守請願  
廣州府尹李種元段은經濟苦... 章  
이餘事라何煩信科... 章  
之方幸  
開城府尹金正煥段은... 章  
地方之亦... 章  
民事之責幸

江華府尹全思... 章  
仁海府尹徐相益... 章  
提이各有敝宜호고... 章  
理理가行其責幸

水原郡守李站... 章  
滯版이오... 章  
驪州郡守 未奉  
楊州郡守任原... 章  
信日報... 章  
成見幸

長湍郡守尹... 章  
通津郡守崔錫敏... 章  
見其督이... 章  
惠幸

# 1900-1909

<범례>

○ 기사본문

▶ 원문해석

<중략>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 생략

1900-01-22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官廳事項 <중략>通津郡守 李槻重段(통진군수 이규중단)은 持心謹厚(지심근후)의 老而靡懈(노이미해)라 凡百措施(범백시조)를 寔遵規例(식준규례)함 <중략> ○金浦郡守張允煥段(김포군수장윤환단)은 寬嚴互濟(관엄호제)하고 奉公愈勸(봉공유권)이라 謹慎規度(근신규도)가 自有條理(자유조리)함<중략> 以上一月十七日(이상1월17일)

▶관청사항 <중략> 통진군수인 이규중은 조심스럽고 중후하였던 마음가짐이 늙어서도 해이함이 없으니, 온갖 시행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규칙에 따랐다. <중략>

김포군수 장윤환은 관대함과 엄격함이 있으며, 나라를 위해 힘을 바치고 매우 부지런하며,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계획하는 것이 자유로우며 조리있게 한다.

<중략> 이상 1월 17일.

1900-02-06 敎在擇師(교재택사)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김포군에 소학교를 설립한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학도가 증가하지 않고 10여 명에 불과하더니 교원 유학수(柳學秀)가 함흥(咸興)에서 온 이후 교육에 열심하여 학도가 4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이번 기말시험 우등생을 유 씨가 월급으로 시상한다고 하다.

1900-02-14 地方學校 經費(지방학교 경비)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지방학교 경비) 동래부 개성학교의 1년 경비는 1,200원이니 울산의 공금을 쪼개 돌려서 사용하고, 일천 일어학교와 공립소학교의 1년 경비는 1,400원 이니 통진군의 공금을 잠시 돌려쓰고, 12부 관하의 각 군의 소학교는 매월 20원씩 부군에 있는 읍의 공금에서 잠시 돌려쓰기로 학부에서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1900-03-26 査送稅額(사송세액) [황성신문]|잡보|02면|01단|

▶조사하여 알린 조세의 액수) 탁지부에서 농업부서에 공문을 보내기를, 김포군내 균역청 소관 세금 136냥 6전과 통천 등 9군의 물고기 세금 16,800냥과 강릉 등 5군 선박 세금 3,675냥을 농업부서에 파견된 사람이 거둬서 가졌으니 모두 조사하여 빨리 넘겨서 건네라고 하였다.

1900-04-19 答贖寬限(태속관한)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태형을 받지 않는 대신 돈을 내는데, 그 기한을 넉넉히 물리다.) 통진군수 이규중씨가 청명(4월 5일 무렵)에 능의 제사를 불참한 이유로 관직을 해면하고 평리원에서 태형 80대에 처하여 죄 값을 받기로 검사가 선고하였는데, 이규중 군수가 말하기를 내가 수령이 새로 바뀌었으니 혹시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 있는 줄 알고 있으시오, 집에는 본래 쌓여있지 않으니 10일 후에야 거둬서 실어다가 바치겠노라 하였다.

1900-05-12 월미도 사건의 後報(후보)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인천항 월미도(月尾島) 사건으로 강면희(姜冕熙)와 송정섭(宋廷燮)을 구속, 작년 7월

송정섭이 수륵과장 강면희에게 청하여 약현(藥峴)사는 김준희(金俊熙)와 통진 사는 임원상(林元常)이 월미도 진황지를 개간하고 매년 조 30석을 상납하겠다고 함에, 강 과장이 이를 인허하고 인천 감리에게 조회한 후 기사를 파견해 지형을 조사하게 했더니, 그 땅은 일본인 길천(吉川)이 이미 매입한 것이었고 당초 청원하였던 김과 임은 이미 도주해 버린 것이라 하다.

1900-06-05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黃龍冕(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황용면)은解任(해임)하고 李義洛(이의락)으로 <중략>

▶ 학사 <중략>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황용면은 해임하고, 이의락으로 <중략>

1900-06-06 鹽稅疊徵(염세첩징)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 통진군 염민(鹽民) 한덕하(韓德河) 등 30여 명이 농상공부에 모여 호소하기를, 매년 염막세(鹽幕稅)가 불과 1~2냥이다가 갑오 이후 아주 혁파되었는데, 근일 파견된 수세관이 매 염막에 3등으로 나누어 염 6냥씩 독촉하고 감고니 사검이니 하는 자들이 매 석에 염 2전씩 독촉한다고 하다.

1900-06-30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敎員崔麟植(통진군공립소학교교원최린식) <중략> 以上六月二十三日(이상 6월 23일)

▶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교원 최린식 <중략> 이상 6월 23일.

1900-07-09 津浦雹震(진포박진)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津浦雹震(진포박진) 本月四日金浦通津等郡(본월사일김포통진등군)에 雨雹(우박)하야 小麥(소맥)과 菜種(채종)이 委靡破碎(위미파쇄)하얏고 通津居柳致心(통진거류치심)의 弟十四(제십사)歲兒(아)가 震死(진사)하얏더라

▶ 본월 4일 김포. 통진에 폭우가 내려 소맥과 채소 등 농작물이 모두 쓰러졌고, 통진 사는 유치심(柳致心)의 동생이 벼락에 맞아 죽었다 한다.

1900-08-03 元氏公札(원씨공찰)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 김포군수 장윤환(張允煥)이 교민(敎民)을 학대한 일로 미국인 원두우(元杜尤)가 내부 대신에게 편지하여 교민을 학대하는 것은 군수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다.

1900-08-04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 관청사항 <중략> 통진군수 이규중은 다스릴 때 부지런히 힘쓰는 것이 늙고 구차해져서 점점 더 병들어 가는데, 이를 바로 잡을 생각으로 방법을 찾고, 그것을 떨치고 일어남이 본받을 만하다. <중략>

김포군수 장윤환은 곧음이 밤나무와 같고, 일을 보면 바람이 일어나듯 신속하다. 자주 순찰하며 새것과 헌것을 먼저 분별하여 거두어들이고, 판결과 단속을 빨리 행하는 것에 밝고 어두움을 펼쳐서 억울함을 잘 정돈하였다고 한다. <중략> (미완)

1900-08-27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敎員柳學秀(김포군공립소학교교원류학수)<중략>以上八月二十三日(이상8월23일)

▶<중략>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유학수 <중략> 이상 8월 23일.

1900-08-28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官報(관보)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任金浦郡公立小學校敎員叙判任官四等(임김포군공립소학교교원서판임관사등)<중략> 以上八月二十四日(이상8월24일)

▶김포군 공립보통학교 교원 서판임 <중략>

1900-08-29 근일 통진군 근방에 화적이 대치하야 [제국신문]|3면|

1900-08-30 畿民嗷嗷(기민오오)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畿民嗷嗷(기민오오))金浦通津等郡(김포통진등군)에 旱災(한재)가 頗甚(파심)하야 民皆離散(민개리산)하느디또 賊黨(적당)이 大熾(대치)하야 人心(인심)이 尤極嗷嗷(우극오오)하디더라.

▶김포. 통진 양 군에 가뭄이 극심한데 도적까지 극성을 부려 민심이 흉흉하다.

1900-09-11 통진군수 이규중씨가 내부에 보고하기를 [제국신문]|2-3면|

1900-09-11 通津水賊(통진수적)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통진 공보에 따르면 황해도. 평안도와 삼남 수로의 상하 상선이 모두 이 군에 머무는데 지금 수적이 극성이어서 왕래하는 선박의 재물과 물화를 탈취하나 본 군의 인력으로 는 이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다.

1900-09-29 통진군 고리곶면 안행동거 이형근 [황성신문]|광고|03면|02단|

▶통진군 고리곶면(古里串面) 사는 이형근(李亨根)의 밭이 본군 대파면(大坡面) 적암(赤岩) 방죽에 있는데, 8촌 적암이 자신의 밭이라 칭하고 경향에 출몰하여 자의로 팔려고 하니 내외국인은 이에 속지 말 것.

1900-10-03 梁吏押付(양이압부)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김포군 관리 양도환(梁道煥)이 공전 수천 냥을 횡령, 도주하여 사방으로 이를 정탐하

더니 그제 군수 장유훈(張允煥)이 상경하는 길에 양씨를 만나 경부(警部)로 보냈다 한다.

1900-10-10 통진 남면 대명촌거 권흥수가 [황성신문]|광고|03면|01단|

▶통진 남면(南面) 대명촌(大明村) 사는 권흥수(權興洙)가 자신의 전답 문권을 위조하여 몰래 팔려고 하는 사촌 경희(敬喜)에게 속지 말라는 광고.

1900-11-12 金通水賊(김통수적)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근일 김포. 통진 등 연해에 도적이 극심하여 행인이 두절되더니, 어제는 해암(蟹岩) 하류에서 수적이 출몰하여 배에 실은 조 40여 석을 탈취하고 선원 4명을 물에 던져 살해하다.

1900-11-22 賊人盜錢(구인도전)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통진 동면(東面)사는 박주사 집에 수십 명이 돌입하여 돈 2만 냥을 내놓으라고 협박함에 없다고 애걸하자 그냥 물러가더니, 다음날 다시 찾아와 박주사를 무수히 난타하고 돈 3,000냥을 탈취해 갔다고 한다.

1900-11-23 災民來訴(재민래소)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어제 김포 군민 100여명이 일제히 상경하여 탁지부(度支部)에 호소하기를 본년도 작황이 나빠 수확이 전폐하니 재결을 감해주고 구황비를 호별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며 결호전(結戶錢)과 사환미(社還米)는 다음 추수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다.

1900-11-26 김포군 자령상민 홍병태등 17인이 [제국신문] 3면

1900-12-14 鹽民呼訴(염민호소)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통진군 염민(鹽民) 이기태(李起泰) 등이 내부에 호소하기를 본군 관리들이 염세를 강제 징수하니 이를 돌려달라 하자 지령(指令) 내에 무명잡세는 이미 혁파하였는데 어찌하여 관리들이 이런 농간을 부리냐며 엄히 다스리라고 하다,

1900-12-18 水賊大熾(수적대치)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해적과 대치) 통진, 부평, 인천, 홍주 등 바닷가에 인접한 읍에 해적이 번성하여 왕래하는 상선에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함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되니, 읍의 지방민 소유의 선박은 자연스럽게 막혀서 끊기게 되고, 도적 무리가 항구 언저리의 부유한 집에 뛰어들어 빼앗고 겁탈하는데 통진에 거주하는 남씨 참판 집에서 5,000냥을 빼앗았다고 한다.

1901-01-12 鹽民呼訴(염민호소)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鹽民呼訴(염민호소)

通津郡(통진군)鹽民(염민) 等(등)이 內部(내부)에 呼訴(호소)호되 本郡吏輩(본군이배)가 鹽民處(염민처)에 無前稅額(무전세액)을 恣意收納(자의수납)호야 急於星火(급어성화)호기로 民難支保(민난지보)라 호얏더라.

▶통진군 염민(鹽民)들이 내부에 호소하기를 본군의 관리들이 명분없는 세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어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한다.

1901-01-14 歎民缺納(겸민결납)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통진군 소식에 따르면, 작년 흉작으로 민심이 흉흉하여 내부(內部)에 흠금을 청하고 공납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는 백성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데 강화 진위대에서 소용비를 통진군의 결전에서 떼어 받기로 했다며 심히 독촉하자 군수 이규중(李槻重)이 수세할 방도가 없으니 병정을 파견하여 직접 수세해 가라고 하자, 병정들이 민간에 횡행하며 수세를 독촉하여 백성들 다수가 흠어졌다고 하다.

1901-01-31 初無派兵(초무파병)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지난번에 통진군의 흉년으로 결세를 수세할 방도가 없는데 강화 진위대 경비를 이 군의 결전에서 떼어 쓰기로 함에 병정을 파견하고 수세를 독촉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지금 그 군민이 와서 말하길 신문에 잘못 보도되어 진위대에서 부대 체면을 손상시켰다며 마을의 수서기와 도봉(都捧)을 조사한다고 부대로 잡아갔으니 다시 정정해 달라고 하다.

1901-02-06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관청 사항, 경기도 관할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는 군수의 업적 <중략> 김포군수 장윤환은 일을 대하는 것에 묵묵히 연구하고 깊게 헤아리니 빠르게 베풀고, 가로 세로로 뒤섞여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업적으로 이뤘다고 한다. <중략> 이상 2월 2일

1901-02-26 鹽稅往復(염세왕복)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내부(內部)에서 내장원(內藏院)에 조회하기를 경기 연해 각 군의 작년도 재해가 극심한데, 통진 염민(鹽民)이 세액 수납 중지를 호소하고 군수도 청원하니 세액을 혁파해 달라고 하자 대장원에서 염세는 원래 내장원에서 수세하는 정세이니 잡세혁파 이후의 것은 받지 않겠지만 혁파 이전의 것은 받겠다고 회답하다.

1901-03-16 통진군 거하는 민양로씨가 [제국신문]|3면|

1901-04-13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學事(학사)

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 李義洛(이의락)은 解任(해임)호고 池榮禧(지영희)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관보> 학사(學事)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인 이의락(李義洛)을 해임하고 지영희(池

榮禧)로, <중략> 임명할 것)

1901-05-01 水賊被捉(수적피착)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김포군에서 수적 김원보(金元甫)란 자가 경향의 적당과 체결하여 연강(沿江)을 횡행하며 왕래하는 상선의 화물을 탈취하고 뱃사람 두 명을 타살하더니 일전에 해군의 수교에게 체포되었다 하다.

1901-05-30 凶犯烈婦(흉범열부)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김포군 공보에 선공감(繕工監) 초평(草坪)사는 이남산(李南山)이란 자가 같은 마을사는 박소사(朴召史)의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돌입하여 간음하려 하다 박소사가 따르지 않자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한다.

1901-06-05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任金浦郡守敍奏任官三等(임김포군수서주임관삼등) 前郡守(전군수) 李弼永(이필영) 任漆谷郡守敍奏任官四等(임칠곡군수서주임관사등) 金浦郡守(김포군수) 張允煥(장윤환) <중략> 以上五月三十一日(이상5월31일)

▶면직 및 인사

<중략>전 군수 이필영을 김포군수 주임관 3등 관직에 임명한다. 김포군수 장윤환을 칠곡군수 주임관 4등 관직에 임명한다. <중략> 이상 5월 31일

1901-06-11 水賊被捉(수적피착)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해적이 붙잡히다.

통진에 사는 뱃사람 이창보는 조길성과 이구현의 위협을 피하여 해적이 되어 과거에 인항 팔미도에서 상선에 실은 쌀 40석을 약탈하였고, 진동에 사는 박윤학의 집에 들어가 양목 16필을 가져오고, 곡교에 사는 채선달 집에 들어가 백목 10필과 명주 5필을 탈취하여 해당 군에 체포되었다.

1901-08-15 통진거하는 趙容伍(조용오)가 명동약국하는 [황성신문]|광고|02면|04단|

○通津(통진) 居(거)하는 趙容伍(조용오)가 明洞藥局(명동약국)하는 鄭義西許(정의서허)에 陰六月十五日(음6월15일)로 推尋(추심)홀 錢一萬兩於音(전일만냥어음)을 闕失(서실)했스니 誰某(수모)던지 拾得(습득)해서도 休紙(휴지)로 施行(시행)했깃습 通津居(통진거) 趙容伍(조용오) 告白(고백)

▶통진사는 조용오(趙容伍)가 분실한 어음을 휴지 처리함.

1901-08-23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관청 사항

<중략>통진군수 이규중은 연세가 많다고 말하지 말라. 매사에 더욱 굳세고 씩씩해지며, 삼가 조심하여 충실하고, 재주를 자랑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중략>

김포군수 이필영은 듣자하니 군수가 파산으로 떠난 뒤에 그리워한다고 귀가 시끄러울 정도라.

지금 저녁에 금천으로 돌아왔으니 멀지 않아 부임할 것인데 어이 슬퍼하는가. <중략> (미완)

1901-09-23 苦況自盡(고황자진)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통진군에 해를 거듭하여 흉년이 들어 부자도 구걸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평산(坪山)사는 권씨(權氏)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본래 부자였으나 금년 가뭄으로 먹고 살길이 없자 한탄하다 결국 자살하였다 한다.

1901-10-01 劫財奪物(겁재탈물)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음력 8월 12일 강화부 월곶에서 도적들이 무리지어 상선의 물품과 돈을 빼앗고 김포군 보산창(浦山倉)에서 인천항으로 내려가는 상선을 약탈하여 돈 수만 냥을 탈취해 갔다고 하다.

1901-10-04 立木勞金(입목로금)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나무를 심은 비용

홍릉에 명을 전하려고 강가 마을 곳곳에 게시한 전문을 서울 서부를 관할하는 경무관서의 순검이 옮겨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진에서 시작된 강을 따라 난 길은 풀이 어는 이른 봄 시기와 물이 불어서 넘치는 여름철에 뱃길이 어려워 오고 가는 선박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 번번이 많으므로, 일찍이 주교사(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하여금 나무로 경계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사회 개혁 이후에 그 관청이 폐지가 되어, 나무가 없으므로 뱃길이 더욱 험하고 어려운지라 홍릉에게 맡겨서 꽃말을 갖추고, 특별히 관리를 따로 정해 수시로 나무를 세우며, 오고 가는 선박에게 그 대가로 세금을 징수하라고 하였다.

1901-10-09 金浦甚荒(김포심황)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김포군 소식을 들은 즉 금년 가뭄이 극심하여 군민들이 구휼 방도와 결호(結戶) 감해 줄 것을 군수에게 연일 호소함에 군수가 마을을 조사하니 빈집이 절반이나 되는 고로 군수가 주민들에게 자신도 상부에 보고할 터이니 너희들도 경부(京府)에 가서 호소하라며 여비 28원을 주었다고 한다.

1901-10-17 通民等訴(통민등소)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어제 통진 군민 100여 명이 탁지부(度支部) 문전에 모여 호소하기를, 금년 흉년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 흩어진 백성이 십중팔구로 세금을 낼 방도가 없으니,

지세와 호전(戶錢) 징수를 내년으로 연기해 주고 구휼 및 혜택을 내려 구체해 달라고 하다.

1901-10-22 燒戶災結(소호재결) [황성신문] |잡보|02면|03단|

▶불에 탄 집과 재앙을 입은 논밭

<중략>

김포군수 이필영씨 보고서에는 그 해 농사의 형편이 이미 나쁘고, 백성들은 잇따라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기에 군수가 직접 조사한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이 841결 14부이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가구가 321호라, 탁지부를 옮겨서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의 집에 베풀어 조세 따위의 일부를 면제하라고 하였다.

1901-10-26 屯土歉荒(둔토경황) [황성신문] |잡보|02면|01단|

○屯土歉荒(둔토경황)

金浦郡民(김포군민) 金重默(김중묵) 等(등) 七人(7인)은 屯畝稅條蠲減事(둔답세조건감사)와 延安郡屯土作民(연안군둔토작민) 李冕植(이면식) 等(등) 七十餘人(70여인)은 當此歉荒(당차경황)호야 離散者(이산자) 過半(과반)이라 特念民情(특념민정)호야 救恤之方(구휼지방)을 施惠(시혜)호라고 內藏院(내장원)에 呼訴(호소)호더라.

▶어제 김포군민 김중묵(金中默) 등 7명이 내장원(內藏院)에 모여 둔답세(屯畝稅) 감해 줄 것과 구휼해 줄 것을 호소하다.

1901-10-29 安南米 貸下(안남미 대하) [황성신문] |잡보|02면|04단|

▶안남미 대여

황해도 연해 각 군의 농사는 흉년이 들 거라고 미리 판단하여 많은 백성들이 흩어진다는데, 소식을 들은 연안군 가운데 살림이 넉넉한 집들이 회의하고 군수에게 청원하여, 국민의 전담문서를 관아에 내어 관청에서 담보하고 안남미(베트남 쌀)를 빌려서 고을의 흉년을 만난 백성이 어려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면 쌀의 값은 내년에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각각 수습하여 바치기로 하였다.

군수가 상경하여 그곳에 잡힌 땅의 소유권 문서를 내장원에 납부하고 그 의원 이용익씨에게 안남미 1만 석을 빌린 후 내려왔다고 하였더니, 이를 들은 통진군수 이규중씨도 경기도에 흉년이 들거라고 판단하여 그 고을의 살림이 넉넉한 집들의 바람으로 연안의 하나의 사례로 안남미를 빌리려고 한다고 한다.

1901-11-25 請劃 安南米(청획 안남미) [황성신문] |잡보|02면|03단|

▶안남미를 청할 계획

김포군수 이필영씨를 잡아서 고발한 근거는 그 고을이 재해를 입은 것이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궁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아무도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말미암

아 보부(해당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문서)에 보이는 백성들의 호소에, 안남미가 지금 곳간에 쌓여있으므로 일정한 값을 매겨 주라고 하니,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는 것 말고 별다른 것이 필요가 있겠는가. 쌀 6-7백 석을 청하여 얻은 값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을에 거두겠다고 하였다.

1901-12-17 報移隊費(보이대비)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군대 비용을 옮겨 줬다.

김포군수의 보고를 근거로 한 군대 비용 3,590여 원을 이 군의 결호전(논밭 세금에 덧붙여 거두어들였던 돈) 가운데 나누어 주었으나, 지금 그 고을의 백성들이 굶주림을 못 견디어서 사망에 흠어지는 사람들이 열 가구 중 여덟, 아홉 가구이며, 병사의 음식은 절박하여 군대의 재축이 나날이 심해지니, 1900년은 이미 납세를 끝내고, 1901년은 갑작스럽게 어려워져 어수선한 사태를 바로잡으니, 군대 비용은 곡식이 보통은 된 산고을의 곡식 가운데서 뭇으로 떼어주고, 김포의 뭇은 기다려서 내년 가을 이후에 나누라고 하였다.

1901-12-30 請米千石(청미천석)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請米千石(청미천석)

通津郡守(통진군수) 李槻重氏(이규중씨)가 該郡民(해군민) 孫基一(손기일) 等(등) 訴(소)를 因(인)하여 京部(경부)에 報(보)하되 當此歉年(당차겸년)하야 民皆渙散轉壑之境(민개환산전학지경)이오니 內藏院(내장원)에 移照(이조)하고 安南米(안남미)一千石(1,000석)만 貸下(대하)하오면 該價額(해가액)은 待明秋收納(대명추수납)하깃다 하얏더라.

▶통진군수 이규중(李槻重)이 군민 손기일(孫基一) 등의 호소에 따라 경부(京府)에 청원하기를 흉년으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안남미 1,000석을 빌려주면 내년 가을에 갚겠다고 한다.

1902-01-18 본인이 김포군 노장면 완정리 소재 [황성신문]|광고|03면|01단|

▶본인이 김포군 노장면 완정리에 있는 공유상씨의 논과 검단면 우번리 백씨의 논을 합하여 7석 2두 되는 문서를 잃어버렸기에, 김포군에 청원하였다.

관청에서 분부한 것을 신문에서 알리기를,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원인이라 하니 이에 널리 알리니 내외국인은 자세히 알고 있으시오.

한성의 서쪽 마을 공덕리에 사는 박섬환의 고백.

1902-01-29 死亡調查(사망조사)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경기관찰사 관내 유망호(流亡戶)를 조사하여 내부(內部)에 보고.

남양군(南陽郡)에 373호, 김포군에 524호이고, 김포군 검단면 사는 권치정(權致正)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모두 굶어 죽었다고 하다.

1902-04-01 禮山賊警(예산적경)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예산의 도적 경계

요사이 예산군에 도적의 기세가 커져서 수십 명씩 작당하여 각각 총이나 칼을 쥐고 있다고 한다. 그 고을의 부자 장예산이 말하기를, 통진의 여러 집안에 들어가 돈을 빼앗아 갔는데 그곳에서 가까운 군에 도둑질을 당한 자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욱 심하더라.

1902-04-01 沈氏 義捐(심씨 의연)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통진군수 이규중(李規重)의 내부(內部) 보고.

통진군 마송리 사는 전 참봉 심능원(沈能遠)이 작년 10월부터 의연금(義捐金) 수천 원을 모아 부근 동민 76호를 구휼하니 그 뜻이 심히 가상하다고 하다.

1902-05-06 본인이 김포 군내면 걸포리우 자답 [황성신문]|광고|03면|01단|

▶본인이 김포군 내면 걸포리 우씨의 논과 벼 4두 문권(땅이나 집 또는 그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과 쌀 11두 문권을 포함한 3장을 남문 안에서 잃어버려서 알리는데 아무나 물건을 습득하더라도 폐하여 버린다.(유현오 고백)

1902-06-14 一溺一驚(일익일경)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한 명은 빠지고, 한 명은 놀라고

일전에 마포에서 통진 선상 2명이 무슨 사건으로 인하였던지 서로 다투다가 1명이 물에 던져져 죽음에 이르러서 서울 서부 관할 경무 관서에서 순검을 파견하여 죽을 지경에 이른 원인을 조사할 즈음에, 해당지역 포구 백성들이 일컫기를 사람을 죽인 큰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 도피하고 늙은 할머니 1명만 집에 있는 까닭에 포박하여 정탐했다고 하는데, 할머니 또한 놀라서 겁을 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

1902-07-14 金浦傳說(김포전설)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김포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

김포에서 온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을군수 이필영씨가 작년 흉년에 백성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안남미를 빌리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땅의 세금을 내는 것을 불쌍히 여기어 세금을 일체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즈음 탁지부에서 올해 일정한 액수를 미납한 군수를 면관한다는 말을 군민이 듣고 이 군수가 면관할까봐 두려워 보리를 내다 팔아 세금을 한꺼번에 스스로 납부하여 밀린 세금이 없겠다고 한다.

1902-07-17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학사

인천부 공립소학교 부교원 한병옥은 해임하고 조동화를 임명한다. 남원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진흙은 해임하고 <중략> 류형달을 임명한다.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최범구는 해임하고 전영규를 임용한다.

1902-07-29 郡守奏本(군수주본)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2단 |

○郡守(군수) 奏本(주본) 再昨日內部(제작일내부)에서 郡守奏本(군수주본)을 上(상)하야 蒙(몽) 裁(재)함이 如左(여좌)하니 <중략>

通津安中植(통진안중식) <중략> 諸氏合三十六人(제씨합36인)이더라.

▶군수가 임금에게 올린 글

그저께 내부에서 군수가 임금에게 쓴 글을 올렸는데, 어리석음이 왼쪽에 적힌 내용과 같으니 <중략> 통진 안중식 <중략> 모두 합하여 36명이더라.

1902-08-01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임명 인사

정3품 오구영을 수륜원 국장 주임관 5등 관직에 임명한다. <중략>

진 군수 안중식을 통진 5등 관직에 임명한다. <중략>

통진군수 이규중과 제주 지방관 이재호를 중추원 의관 주임관 5등 관직에 임명한다. <중략> 이상 7월 29일

1902-08-05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3단 |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教員全榮奎(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전영규)는 解任(해임)하고 金炳永(김병영)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학사,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영규(金榮奎)를 해임하고 김병영(金炳永)을 임명한다.

1902-08-07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임명 인사

<중략>

김포군수 이필영, 의흥군수 박주동, 남해군수 권명호 <중략>

진 군수 박주동을 김포군수 주임관 6등 관직에 임명한다. <중략>

이상 8월 3일.

1902-08-15 民訴善政(민소선정)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김포군민 등이 군수 이필영(李弼永)이 체임되자 군수의 치적을 열거하며 유임시켜 줄 것을 내부와 탁지부에 청원하자 유임을 허락하다.

1902-08-16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教員尹貞圭(김포군공립소학교교원윤정규) 任鐵原郡公立小學校教員叙判任官四等(임철원군공립소학교교원서판임관사등) 京畿觀察府 公立小學校 教員 嚴觀燮(경기관찰부 공립소학교 교원 엄관섭) 任金浦郡 公立小學校 教員叙判任官六等(임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서판임관륙등) <중략> 以上八月十三日

(이상 8월13일) <중략>

1902-08-16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3단 |

○學事(학사)<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李晩炳(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이만병)은 解任(해임)하고 文器燮(문기섭)으로 <중략> 任用(임용)

▶ 학사, <중략> 통진공립보통학교 부교원 이만병은 해임하고 문기섭으로 <중략> 임용.

1902-08-25 宮廷錄事(궁정록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 궁정 기록

의정부 찬정, 탁지부 대신, 육군부장인 심상훈이 아뢰기를 <중략>

올해 들어 세금 납부를 지체하는 폐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점점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법률의 근본 취지로 헤아릴 때 훈계하고 독촉할 필요 없이 스스로 서둘러 납부해야 하거늘, 훈계하고 독촉한 것은 들쭉치고 여러 번 아뢰었는데 끝내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기강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1901년 조 조세로 말하면, 현재 이미 여름철이 되었는데도 아직 바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공금을 돌려써서 장사로 이익을 얻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기한이 지났건만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군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수령의 책임이 무엇이고 지방관의 임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장차 조세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만약 별도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후일의 폐단은 말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양이 가장 많은 전 통진 군수 이규중 <중략>

광무 6년 8월 5일 올림 <중략>.

1902-08-29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4단 |

▶ 관청 사항

경기 관하 군수의 공적 (계속) <중략> 통진군수 이규중이 늙었다고 말하지 말라.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군의 흉년이 가장 심하니 집이 없이 떠돌아 다니는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 위급하다.(미완)

1902-09-04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3단 |

▶ 관청 사항

경기 관하 군수의 공적 (계속) <중략> 김포군수 이필영은 일찍이 칭찬이 자자하였고 지금도 일함에 있어서 그와 같다. 재해를 입은 논밭을 조사하여 나누어 주니 허투루 징수하지 아니하며, 빌린 배에 곡식을 실어서 고루 나누니 백성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다.

1902-09-08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3단 |

○學事(학사) <중략> 韓啓律(한계률) 노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全泓建(전홍건)은 解任(해임)하고 崔敬敎(최경교)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전홍건은 해임하고 최경교로 <중략> 임용한다.

1902-11-22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命金浦郡臨時郵遞主事(명김포군임시우체주사) 金義集(김의집) <중략> 以上十一月十九日(이상십일월십구일)

▶ <중략> 김의집을 김포군 임시 우체국 주사로 임명한다. <중략> 이상 11월 19일.

1902-11-29 本인이 거병신년분에 경거 김진섭허에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2단 |

▶ 내가 1896년 무렵에 경성에 거주하는 김진섭의 허락으로 통진 적암리 소재 논 9석 10두 5승락과 밭 18곳간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강화에 거주하는 김경초가 나의 맏형의 맏아들인 정식을 피어내어 못쓰게 된 토지대장을 가지고 경성과 시골로 왔다 갔다 하며 팔려고 하니, 내외국인은 속임에 당하지 말기 바란다.

통진 적암리에 거주하는 한정하 고백.

1903-02-11 경기 관하 부윤 군수 치적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京畿管下府尹郡守治蹟(경기관하부윤군수치적) <중략> 通津郡守(통진군수) 安中植段(안중식단)은 吏事繪事(이사회사)에 專心以治(전심이치)함 <중략> 未完(미완)

1903-02-13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 관청 사항

<중략> 경기도 관할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는 군수의 업적 (계속) 고양 군수 이주현은 공적인 것을 등지고 사사로움을 베풀기를 선비처럼 생각한다.

김포군 박주동은 새로운 세금을 미리 내니 처음으로 집무하는 것이 불만하다. <중략> 이상 1월 1일.

1903-03-21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學事(학사)

<중략> 申昌熙(신창희)로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全始麟(전시린)은 解任(해임)하고 辛在演(신재연)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전시린은 해임하고 신재연으로 <중략> 임용한다.

1903-04-14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咸仲實(함중실)노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辛在演(신재연)은 解任(해임)하고 徐士寬(서사관)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신재연은 해임하고 서사관으로 <중략> 임용한다.

1903-04-16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안창석(安昌錫)을 해임하고 조계(趙稽)로, <중략> 임용할 것.

1903-04-23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學事(학사)

<중략>韓晚淇(한만기)로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安昌錫(안창석)은 解任(해임)하고 趙鵬渤(조봉발)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안창석은 해임하고 조봉발로 <중략> 임용한다.

1903-04-25 본인의 전답 11석2두5승락이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4단 |

▶ 공주사는 성인호의 전답이 통진군 보곶리에 있는데, 20여년전 통진군 사는 금흥신(琴興信)에게 매입한 것으로 문권과 양안도 있어 지금까지 문제가 없더니 흥신의 손자 일룡(一龍)이 이 전답의 문권과 양안을 위조하여 같은 마을 사는 이판서 집에 팔려다 탄로나 도망다니더니, 지금 또 문권을 위조하여 몰래 팔러 다닌다고 하니 내외국인은 속지 말 것.

1903-04-28 본인 등이 병자년 전후간에 통진군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3단 |

○本人(본인) 等(등)이 丙子年前後間(병자년전후간)에 通津郡甫串里(통진군보곶리)에 所在(소재)호 田畝(전답)을 江華府下居(강화부하거) 琴一龍(금일룡)의 祖(조) 興信(흥신)이 在世時(재세시)에 買(매)호얏난디 今聞一龍(금문일룡)이가 僞造文券(위조문권)호야 儉賣(투매)코져 扵다 호기 玆以(자이)광고호오니 內外國人(내외국인)은 勿爲見欺(물위견기) 伏望(복망) 河字畝三斗落買主(하자담삼두락매주) 成濟泳(성제영) 淡字畝九斗落買主(담자담구두락매주) 宋仁植(송인식) 李字畝十七斗落買主(이자담십칠두락매주) 林永和(임영화) 鹹字菜字畝六斗落買主(함자채자담6두락매주) 柳順今(유순금) 通津居買主(통진거매주) 等(등) 告白(고백)

1903-05-04 본인의 답 12석락이 통진군에 있는데 [황성신문] | 광고 | 04면 | 01단 |

○寄書(기서)

近聞貴社經用尙多窘絀慨歎之情切於言外玆以本郡七年度新聞價額十二元七十四錢四厘預此

計呈只基愧惡之私外附寄金(근문귀사경용상다군출개탄지정절어언외자이본군칠년도신문가  
액십이원칠십사전사리에차계정지기괴죽지사외부기김) 本郡守十元鄉廳二元書記廳二元共計  
二十六元七十四錢四厘專遞上送照領爲希(본군수십원향청이원서기청이원공계이십륙원칠십  
사전사리전체상송조령위희) 光武七年四月二十八日(광무7년4월28일) 通津郡鄉長(통진군향  
장) 林陽株拜具(임양주배구)

1903-05-08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學事(학사)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趙鵬渤(조봉발)은 解任(해임)하고 辛  
寧復(신영복)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조계발(趙鷄渤)을 해임하고, 신영복(辛寧復)으로  
<중략> 임용할 것.

1903-05-11 西郊賊警(서교적경)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 근일 김포군과 통진군에 도적이 극심하여 수십 명씩 작당하여 총칼을 휘두르며 마을  
에 돌입하여 재산을 탈취하고 방화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다.

1903-05-14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學事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辛寧復(신영복)은 解任(해임)  
하고 李愚日(이우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신영복(辛寧復)을 해임하고 이우일(李愚日)로 <중  
략> 임용할 것.

1903-05-19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李愚日(이우일)은 解任(해임)  
하고 權重協(권중협)으로 任用事(임용사)

▶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이우일은 해임하고 권중협으로 임용한다.

1903-06-09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重燮(중섭)은 解任(해임)하고  
安敎默(안교묵)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남중섭(南重燮)을 해임하고, 안교묵으로 <중략> 임  
용할 것.

1903-06-13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安敎默(안교묵)은 解任(해임)하고 權寧學(권영학)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안교묵을 해임하고 권영학으로 <중략> 임용할 것.

1903-07-27 통진 월여곶면 사내동 소재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3단 |

▶ 통진 월여곶면 사내동 소재 논밭의 합이 3석락인 곳의 토지대장 관부 증명서를 이번 달 첫째 날 길바닥에서 잃어 버렸으니, 내외국민 아무나 물건을 습득하더라도 폐하여 버린다.(정인항 고백)

1903-07-30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學事(학사)

<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 李義洛(이의락)은 解任(해임)하고 金周煥(김주환)으로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이의락(李義洛)을 해임하고 김주환(金周煥)을 임용할 것.

1903-08-06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學事(학사)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權寧漢(권영한)은 解任(해임)하고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권영한은 해임하고 <중략> 임용한다.

1903-08-07 學事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高明學(고명학)은 解任(해임)하고 <중략> 任用事(임용사)

▶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고명학은 해임하고 <중략> 임용한다.

1903-08-10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李熙明(이희명)은 解任(해임)하고 <중략> 任用事(임용사)

▶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이희명은 해임하고 <중략> 임용한다.

1903-08-11 金浦賊警(김포적경)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 김포군수 박주동이 내부에 보고

김포군은 강화부 및 인천군과 인접한 지역인데다 연이은 흉년으로 인민이 흩어진 지경인데 하물며 도적들이 봉기하여 수십 명씩 작당하여 마을을 횡행하며 부민(富民)들의 전재(錢財)를 탈취하니 별순교를 증설하여 도적을 금지하지 못하면 도로가 두절되고 인민들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다.

1903-08-15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1단 |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홍재무(洪在茂)를 해임하고 최홍선(崔弘善)을 임용할 것.

1903-08-26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崔弘善(최홍선)은 解任(해임)하고 韓昌履(한창리)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최홍선(崔弘善)을 해임하고 韓昌履(한창리)을 임용할 것.

1903-08-27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 韓昌履(한창리)난 解任(해임)하고 李周永(이주영)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한창리(韓昌履)을 해임하고 이주영(李周永)을 임용할 것.

1903-10-30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 관청 사항

경기도 관할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는 군수의 업적 <중략>

통진 안중식은 세금을 독촉할 때에는 엄하게 단속하는 교활한 관리와 같고, 흉년이 든 때에는 조세를 감하여 이에 생활이 어려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자비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 <중략>

김포 박주동은 장부를 살펴서 세금을 받아내니 벼슬아치의 간사함이 없으며, 군대를 갖추는 것을 청하니 백성으로 하여 의지가 된다. <중략> (미완)

1903-12-18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 金周煥(김주환)은 解任(해임)

고 金義培(김의배)로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주환(金周煥)을 해임하고 김의배(金義培)를 임용할 것.

1904-03-15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命通津郡臨時郵遞主事(명통진군립시우체주사) 林陽洙(임양수) <중략> 以上三月十二日(이상삼월십이일)

▶ 통진군 임시우체국 주사 임양수 <중략> 이상 3월 12일

1904-03-26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 관청 사항

<중략> 경기도 관할의 행정 사무를 맡아 보는 군수의 업적 <중략> 김포군수 박주동은 부지런하며 세금을 거둬들이고, 흉년이 든 때에 더욱 따져서 조세를 감한다.

1904-03-29 定官查實(정관사실)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2단 |

▶ 관원 조사

고양군수 이주현 씨가 일본 병사였던 과거에, 인부 품삯 건으로 내부에서 알아본 것으로 인해 통진군수 안중식씨를 명사관(감사관)으로 파견하여 마땅히 안건을 조사하였다.

1904-04-12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 <관보> 학사. <중략>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의배(金義培)와, <중략> 남양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방희명, 안산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유인수, 양주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권성규, 부평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유대현, 진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윤병순을 해임할 것.

1904-04-15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3단 |

○學事(학사) <중략>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教員黃來源(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황래원)과 密陽郡公立小學校副教員趙義元(밀양군공립소학교부교원조희원)과 <중략>

鏡城郡公立小學校副教員朴台尤(경성군공립소학교부교원박태우)을 并解任事(병해임사)

▶ 학사 <중략>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황래원과 밀양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조희원과 <중략> 경성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박태우를 바꿔 임명할 것.

1904-05-09 故초계군수 이종석의 누대분묘와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3단 |

○故草溪郡守李鍾奭(고초계군수이종석)의 屢代墳墓(누대분묘)와 傳來田畓(전래전답)이 在於通津郡送田面登山里而鍾奭之養子膺洙(재어통진군송전면등산리이종석지양자응수)의

生父潤鍾(생부윤중)이 該田畝(해전답)을 欲爲暗賣故(욕위암매고)로 本人(본인)이 去陰曆二月初七日(거음력이월초칠일)황성신문中舉實廣佈(중거실광포)矣(의)러니 潤鍾(윤중)이 方在京中(방재경중)하야 又欲暗賣故(우욕암매고)로 茲更(자경)광고하오니 內外國人(내외국인)은 洞悉後該郡所在結戶貴每田畝(동신후해군소재결호귀매전답)를 勿爲買得(물위매득)하야 後悔(후회)마시옵 前主事李重九(전주사이중구)告白(고백)

1904-05-16 본인가에 적한기인이 돌입하여 他(타)[황성신문]|廣告|03면|03단|

▶통진군 반이촌면 꽃이꽃리 사는 정학균(鄭學均)의 집에 도적이 돌입하여 저당 잡은 다른 사람 가권과 본인의 가권, 전답 문권, 정유창(鄭裕昌)이란 성명 도장을 빼앗겼으니 내외국인은 사기당하지 말 것.

1904-05-17 通津賊警(통진적경) [황성신문]|잡보|03면|01단|

○通津賊警(통진적경) 陰三月二十八日夜通津郡半伊村鄭議官李進士李監役家(음삼월이십팔일야통진군반이촌정의관리진토이감역가)에火賊二十餘名(화적이십여명)이 各持銃劍突入(각지총검돌입)하야 錢財(전재)와 家產什物(가산잡물)을沒(몰)奪去(탈거)하얏더라.

▶음력 3월 28일 밤 통진군 반이촌 사는 정의관(鄭議官), 이진사(李進士), 이감역(李監役) 집에 화적 20여 명이 총칼을 휘두르며 난입하여 전재와 가산 일체를 탈취해 갔다고 한다.

1904-07-16 남문외용주전창현처금월회일추 [황성신문]|광고|03면|03단|

○南門外容主全昌鉉處今月晦日推次當錢一萬兩於音一片(남문외용주전창현처금월회일추차당전일만량어음일편)失故茲以(실고자이)광고誰某拾得休紙施行(수모습득휴지시행)通津居沈頁澤(통진거심혈택)告白(고백)

1904-08-2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振威郡公立小學校教員金顯龜(진위군공립소학교교원김현구)任金浦郡公立小學校教員叙判任官四等(임김포군공립소학교교원서판임관사등)<중략>

▶진위군 공립소학교 교원 김현구를 김포군 공립소학교 교원 임명<중략>.

1904-08-27 募軍續出(모군속출) [황성신문]|잡보|03면|02단|

▶금번 운반 인부 모집에 대해 인민이 소요하는 일이 많자 경기관찰사가 사실을 명백히 해명함에 소요가 일어났던 통진군, 용인군, 시흥군 등에서 응모자가 속출하여 통진군 80명, 용인군 100명, 시흥군 50이 응모하였고, 인천군, 강화부, 교동군 등지에서도 응모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다.

1904-10-08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學事(학사) <중략>

京畿管下府尹郡守治蹟(경기관하부윤군수치적) <중략> 通津郡守安中植(통진군수안중식)

綜詳勅理行查尤明(중상전리행사우명) <중략> 金浦郡守朴注東(김포군수박주동) 治不求譽  
善多可紀(치불구예선다가기)<중략>

1904-10-19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4단|

○學事(학사) 通津郡公立小學校副敎員李潤雨(통진군공립소학교부교원리윤우)난 解任(해임)하고 安聲玉(안성옥)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통진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이윤우는 해임하고 안성옥(安聲玉)으로 <중략> 임용한다.

1904-12-03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學事(학사)<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金秉濟(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김병제)난 解任(해임)하고 金孝哲(김효철)로 任用事(임용사)

▶ 학사<중략> 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병제는 해임하고 김효철(金孝哲)로 임용한다.

1904-12-07 學事(학사) [황성신문]|관보|01면|03단|

○學事(학사) <중략>通津部公立小學校副敎員安聲玉(통진부공립소학교부교원안성옥)은 解任(해임)하고 金采獻(김변헌)으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 학사 <중략> 통진부 공립소학교 부교원 안성옥은 해임하고 김변헌으로<중략> 임용한다.

1904-12-17 선하심 후하심 [대한매일신보]|잡보|02면|01단|

▶ 김포군 사는 사람이 쌀 5섬을 배에 싣고 가다가 배에 불이 나 구원을 요청함에 지나가던 이웃 배가 불을 꺼 주자 쌀 주인이 타버린 반 섬을 배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4섬 반만 싣고 와서는 재판소에 쌀 한 섬을 받아 달라고 무고하여 뱃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서에 갇혔다 한다.

1905-01-18 김포군보 [대한매일신보]|잡보통신|1면|03단|

▶ 김포군수가 외부에 보고

본월 12일 일본 사람 상야길태랑이 우리 나라 백성 5-6명을 거느리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약탈하니 일본 공사관에 조회하여 일본인을 잡아가고 약탈한 재물을 찾아달라고 하다.

1905-01-23 炭礦調査(탄광조사)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炭礦調査(탄광조사)

日本(일본)에서 近日(근일) 韓國內(한국내)에 石炭礦(석탄광)을 調査(조사)함이 如左(여좌)하니 慶尙道慶州(경상도경주) 蔚山(울산) 京畿道通津(경기도통진) 江原道三陟(강원도삼척) 旌善(정선) 平安道平壤(평안도평양) 咸鏡道永興(함경도영흥) 吉州(길주) 明川(명천) 鏡城(경성) 等(등) 諸郡(제군)이더라.

▶ 탄광조사 최근 한국에서 석탄광을 조사하니 경상도 경주, 울산, 경기도 통진 <중략>

등이다.

1905-02-21 경기관하 부윤 군수 추동등 치적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京畿管下府尹郡守秋冬等治績(경기관하부윤군수추동등치적)

<중략>通津郡守安中植(통진군수안중식) 臨事而明聽訟也公上(임사이명청송야공상)<중략>  
金浦郡守朴注東(김포군수박주동)醇謹其人善多可紀上(순근기인선다가기상) <중략>

▶경기 부윤, 군수의 치적, 통진군 군수 안중식 <중략> 김포군수 박주동 <중략>

1905-04-24 海稅正供(해세정공) [황성신문]|잡보|03면|01단|

1905-05-12 본인이 삼호 통진주인 남인우처에 [황성신문]|광고|03면|03단|

○本人(본인)이 三湖通津主人(삼호통진주인) 南仁祐處(남인우처)에 今月十一日推次(금월10일추차) 當坪二千六百兩(당평2600냥)과 鹽(고) 二十八石會計張(28석회계장)를 并爲遺失(병위유실)하옵스니 誰某拾得(수모습득)하와도 休紙施行(휴지시행)함

通津(통진) 崔德仁(최덕인)告白(고백)

1905-05-20 果則賢倅(과칙현졸) [황성신문]|잡보|03면|02단|

○果則賢倅(과칙현졸)

通津來書(통진래서)를 據(거)하 則(칙) 郡守(군수) 李普鉉氏(이보현씨)가 下車以來(하차이래)로 民情(민정)을 安撫(안무)하야 各面各洞(각면각동)을 特爲親審(특위친심)하 後近來(후근래) 本陸間蕩賊(본륙간탕적)이 頗多(과다) 故(고)로 買洋銃(매양총)하 派送巡校(파송순교)하야 四方要害之處(사방요해지처)를 每日巡察(매일순찰)하되 前後浮費(전후부비)를 特爲畫給(특위화급)하야 無一毫貽弊於民間處(무일호이페어민간처) 故(고)로 民安其生(민안기생)하야 到任數月(도임수월)에 頌聲(송성)이 載路(재로)라 하얏더라.

1905-06-13 交涉妥辦(교섭타판)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김포군수 박주동(朴注東)이 외부(外部)에 보고하기를 고양군 철도 아용조(阿用組) 출장소의 일본인 9명이 조선인 30여명을 구타하여 민정이 어지러웠는데 엇그제 외부에서 참서관(讖書官) 원응상(元應常)이 파송되어 철도감부(鐵道監部)와 교섭하고 있다고 하다.

1905-06-23 請願起懇(청원기간)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請願起懇(청원기간)

宮內府主事(궁내부주사) 劉彰烈氏(류창렬씨)가 農商工部(농상공부)에 請願(청원)하되 本人(본인) 等(등)이 荒蕪地段(황무지단)을 起墾(기간)하야 農務(농무)를 興旺(흥왕)하 次(차)로 爲先通津郡藥山洞沿海漲灘地(위선통진군약산동연해창탄지)를 修築(수축)하야 起墾作畝(기간작답)코져 하오니 特爲認許(특위인허)하라 하얏더라.

1905-08-02 官廳事項(관청사항)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官廳事項(관청사항)

京畿管下府尹郡守治績(경기관하부윤군수치적)

<중략>△通津郡守(통진군수)李普鉉(이보현)觀乎新政可期來效上(관호신정가기래효상)

<중략>△金浦郡守朴注東(김포군수박주동)三載一規闔境晏然上(삼재일규합경안연상)<중략>

1905-08-27 地方制度(지방제도)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05단 |

▶근래 합도(合道) 합군(合郡)한다는 소문에 대해 전국 인민이 주목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될 지방제도는 13도는 8도로, 342군은 162군으로 정한다고 한다.

그 중 경기도는 2부 17군으로 소재지는 수원이라고 하다. 2부는 한성부, 인천부, 17군은 수원, 양주, 광주, 교동, 개성, 풍덕, 파주, 교약, 교하, 여주, 음죽, 양지, 이천, 안성, 죽산, 진위, 양성, 김포, 통진, 양천, 시흥, 안산, 과천, 양근, 지평, 장단, 마전, 포천, 영평, 가평, 삭녕, 연천, 남양.

1905-10-20 廿二郡守(감이군수)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廿二郡守(감이군수)

再昨日(재작일) 內部(내부)에서 郡守奏本(군수주본)을 奏裁(주재)하였는디 <중략> 通津(통진) 金炳旭(김병욱) 金山(김산) 林承學(임승학) 等(등) 諸氏(제씨)더라.

1905-10-26 學事(학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學事(학사)

<중략>金浦郡公立小學校副敎員(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 金孝哲(김효철)은 解任(임)하고 朴容珪(박용규)로 <중략> 任用事(임용사)

▶<중략>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김효철(金孝哲)은 해임하고 박용규(朴容珪)로 <중략> 임용한다.

1905-02-13 賊奪稅錢(적탈세전)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04단 |

▶김포군수 박주동(朴注東)의 보고 : 작년 음력 세말(歲末)에 적한(賊漢)이 총검을 들고 본군 세무서에 쳐들어와 세봉색(稅捧色)과 수직이교(守直吏校)를 결발하여 난타하고 세전(稅錢) 지화(紙貨) 600원을 빼앗겨 간 일로 관찰부에 보고하였는데, 그 적한들을 추적하여 돈을 징출(徵出)하여 상납하라 하였으나 적한들을 잡을 길이 없으니 빼앗긴 세전은 상납할 총액수 중에서 제감(除減)하고, 군부(軍部)에 조회(照會)하여 군물(軍物)을 공급함으로써 이후의 적당을 방비케 하기 바란다 하다.

1906-02-1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金浦郡守朴注東(김포군수박주동) <중략>△任金浦四等(임김포사등) <중략> 以上二月九日(이상 2월 9일)

1906-02-24 貧倅見困(탐졸견곤)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06단|

▶김포군 이민(吏民)들이 얼마 전 체임(遞任)된 김포군수 박주동이 재임동안 늑탈(勒奪)한 전재(錢財)를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다.

1906-03-23 鉛礦請認(연광청인) [황성신문] |잡보|02면|02단|

○鉛礦請認(연광청인)洪祐哲氏(홍우석씨)가 通津郡 栗村 大名村露出等地(통진군 울촌 대명촌 로출등지)에 黑鉛礦(흑연광)을 開採(개채)하기로 農商工部(농상공부)에 請認(청인)하였다.

1906-04-04 學事(학사) [황성신문] |관보|01면|02단|

○學事(학사) 江華府公立小學校副教員韓誠教(강화부공립소학교부교원한성교)는 解任(임)하고 李圭鶴(이규학)으로 金浦郡公立小學校副教員朴容珪(김포군공립소학교부교원박용규)는 解任(임)하고 崔中觀(최중관)으로 任用事(임용사)

▶학사<중략>김포군 공립소학교 부교원 박용규는 해임하고 최중관(崔中觀)으로 임용한다.

1906-04-13 김포군수 이성직씨가 赴任未幾(부임미기)에 [황성신문] |광고|04면|02단|

○金浦郡守李性植氏(김포군수이성직씨)가 赴任未幾(부임미기)에 弊局(폐국)更新(신)하고 文明發達(문명발달)에 熱心注意(열심주의)하여 禁褻務清(금잡무청)하고 聽訟公明(청송공명)하며 捐廩減布(연름감포)하고 救恤失火(구휼실화)하며 刑法大典(형법대전)을 捐廩貿來(연름무래)하여 分給面長(분급면장)에 咸知法律(함지법률)케 하고 教育(교육)에 熱心(숙심)하여 頽圯(퇴비)한 校舍(교사)을 重修(중수)하고 諭導青年(유도청년)하여 勸務學業(권무학업)하되 教員南宮燮氏(교원남궁섭씨)와 副教員朴容珪氏(부교원박용규씨)와 有志人梁璣煥氏(유지인량기환씨)와 相議(상의)하여 日語名譽教師全斌氏(일어명예교사전빈씨)을 延聘(연빙)하여 晝夜學(주야학)을 教育(교육)하노니 郡守(군수)는 晝夜(주야)로 來臨學校(래림학교)하여 對學員熱心勸諭(대학원열심권유)하고 紙筆(지필)을 捐廩貿給(연름무급)하며 教員南宮燮氏(교원남궁섭씨)와 教師全斌氏(교사전빈씨)는 教育(교육)에 熱心(열심)하여 不厭其勞(불염기로)하고 愚昧(우매)한 學徒(학도)을 詳細教授(상세교수)하여 日就月將(일취월장)하며 且衙中(차아중)에 來留(래류)한 李恒植氏(이항직씨)는 本以聰俊才器(본이충준재기)로 武官學(무관학)과 法律學(법률학)을 卒業之人(졸업지인)이라 晝夜來臨學校(주야래림학교)하여 法律與体操(법률여체조)을 教授(교수)하고 教學員討論時事(교학원토론시사)하여 愚生之茅塞(우생지모새)한 胷襟(흉금)을 開悟(개오)케 하니 亦可謂名譽教師也(역가위명예교사야)라 一郡之民(일군지민)이 咸頌郡守之德化(함송군수지덕화)는 道路立碑(도로립비)와 頌聲載路(송성재로)가 難以盡舉(난이진거)어니와 各教師(각교사)에 熱心教育(열심교육)을 誰不感頌哉(수불감송재)야 郡守以下義捐金(군수이하의연금)이 如左(여좌)하거나 境內有志人(경내유지인)도 聞風感化(문풍감화)하여 將欲優數義捐(장욕우수연)하고 學員(학원)도 郡守(군수)와 教師(교사)에 熱心(열심)을 効則(효칙)하여 學業(학업)을 熱心勸務(열심권무)하여 將有進就之望故(장유진취지망고)로 該

學徒(해학도)에 父兄(부형)이 學校經費之窘絀(학교경비지군출)을 憂慮(우려)하야 義捐(의연)을 優數(우수)하기로 布論(포론)이된다하니 學校(학교)가 將有擴張之望(장유확장지망)이다 去來之人(거래지인)이 咸有(함유)稱譽之言(예지언)이러라.

1906-04-20 立標選拔(입표환발)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3단|

▶김포군수 이성직(李性植)이 농상공부(農商工部)에 보고하기를 경내 덕온공주궁(德溫公主宮) 기지초평(基址草坪)을 일진지부회장(一進支部會長) 안태중(安泰重)과 평의원(評議員) 권중협(權重俠) 등이 기간(起壘)한다고 농상공부의 허가를 청하여 표목(標木)을 세웠는데 표목은 본부의 지칙(指飭)에 따라 모두 뽑아버렸으나 일진회민 안, 권은 모두 서울에 살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여다고 하다.

1906-06-15 通倅興學(통졸흥학) [대한매일신보] |잡보|03면|2단|

○通津郡守趙東善氏(통진군수조동선씨)가 境內(경내)에 紳士(신사)를 勸勉(권면)하야 學校(학교)를 設立(설립)하고 聰俊(충준)을 教育(교육)하기를 熱心(열심)하야 一百元(일백원)을 義捐(의연)하미 一郡人士(일군인사)가 郡守(군수)에 實心贊成(실심찬성)함을 感服(감복)하야 爭募義金(쟁모의금)하고 不日成立(불일성립)이되얏다하더라.

▶통진군수 조동선(趙東善)이 경내(境內)에 신사(紳士)들을 권면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충준자제(聰俊子弟)를 모아 교육에 열심인데다 100원을 의연(義捐)하여 통진군의 인사들이 모두 이에 감복하여 다투어 의금(義金)을 모집하다.

1906-06-22 金浦强盜(김포강도) [황성신문] |잡보|02면|06단|

○金浦强盜(김포강도)

金浦郡內(김포군내)에 賊警(적경)이 大熾(대치)하야 各持銃劔(각지총검)하고 橫行村間(횡행촌려)하야 搶奪人財(창탈인재)에 衝火民家(충화민가)하야 高蘭台面蹲山里(고란대면준산리)에 居崔春夏之妻(거최춘하지처)는 經擾落胎(경요락태)하야 仍爲致死(잉위치사)하고 楓谷里居趙夏先(풍곡리거조하선)의 家屋十二間(가옥12칸)이 沒燒(몰소)하야 捷遑道路(서황도로)에 其情(기정)이 極慘(극참)이라 人命致死(인명치사)와 家舍燒燼(가사소신)이 俱爲驚駭(구위경해)이니 優施恤金(우시휙김)하라고 該郡守(해군수)가 內部(내부)에 報告(보고)하얏더라.

1906-07-07 아민씨 선조 류수공이 하루대분묘가 [황성신문] |광고|04면|01단|

○我閔氏先祖留守公以下累代墳墓(아민씨선조류수공이하루대분묘)가 在於通津位谷(재어통진위곡)이온디 支孫鳳基(지손봉기)가 以無識悖類(이무식패류)로 禁養松楸(금양송추)를 方欲偷賣云(방욕투매운)하니 內外國人(내외국인)은 切勿見欺(절물건기)하시고 如或有欺買(여혹유기매)라도 終歸無效(종귀무효)니 洞亮爲要(동량위요)홈 驪興閔氏宗中(여흥민씨종중) 告白(고백)

1906-07-07 통진군 분양학교 보조제씨가 如左(여좌) [황성신문]|광고|04면|03단|

○通津郡汾陽學校補助諸氏(통진군분양학교보조제씨)가 如左(여좌) 本郡守(본군수) 趙東善(조동선) 一百元(100원)前承旨(전승지) 李舜夏(이순하) 一百元(100원) 幼學(유학) 朴喜陽(박희양) 二十元(20원) 前主事(전주사) 沈晉澤(심진택) 二十元(20원) 前議官(전의관) 鄭鶴均(정학균) 四十元(40원) 前參奉(전참봉) 閔樂鎬(민악호) 一百元(100원) 幼學(유학) 趙東錫(조동석) 十元(10원) 李恒秀(이항수) 五元(오원)

前主事(전주사) 林炳璇(임병선) 十元(10원) 李範吉(이범길) 四十元(40원)

幼學(유학) 李運夏(이운하) 三十元(30원) 參奉(참봉) 金健洙(김건수) 四元(4원) 前主事(전주사) 李象奎(이상규) 三十元(30원) 幼學(유학) 閔丙雲(민병운) 四十元(40원) 林玄洙(임현수) 四元(4원) 趙南薰(조남훈) 四元(4원) 前主事(전주사) 林陽洙(임양수) 四元(4원) 幼學(유학) 林準模(임준모) 十元(10원) 沈宜采(심의변) 二元(2원) 黃始淵(황시연) 十元(10원) 前參奉(전참봉) 沈能遠(심능원) 八十元(80원) 一進支會(일진지회) 二十元(20원) 前主事(전주사) 李寅燮(이인섭) 九十元(90원) 幼學(유학) 沈駿澤(심준택) 三十元(30원) 洪時達(홍시달) 二元(2원) 洪大永(홍대영) 三元(3원) 一進會員(일진회원) 慮宗鎬(여종호) 二元(2원) 幼學(유학) 李演興(이연흥) 十元(10원) 吳兢相(오금상) 四元(4원) 閔斗鉉(민두현) 四元(4원) 李台儀(이태의) 二元(2원) 尹台鉉(윤태현) 一元(1원) 張準相(장준상) 一元(1원) 前主事(전주사) 朴受敦(박수돈) 二元(2원) 前參奉(전참봉) 李榮漢(이영한) 八元(8원) 幼學(유학) 崔胤植(최윤식) 三元(3원) 李秉元(이병원) 二元(2원) 前五衛將(전오위장) 廉廣宣(염광선) 二元(2원) 進士(진사) 李庚薰(이경훈) 七十元(70원) 幼學(유학) 申龍善(신룡선) 十元(10원) 監役(감역) 李庚厚(이경후) 七十元(70원) 洪鍾學(홍종학) 一百元(100원) 先達(선달) 朴圭秉(박규병) 四十元(40원) 平民(평민) 李春雨(이춘우) 四十元(40원) (未完(미완))

1906-07-08 金校試驗(김교시험) [대한매일신보]|잡보|03면|3단|

▶<잡보>김포군수 이성직(李性植)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봄에 금릉학교(金陵學校)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열심히 공부하도록 권면하자 사인(士人)들이 모두 감복하여 적극 도와주게 되었고, 6월 그믐에는 하기(夏期)시험을 치러 주학원(晝學員) 최우등은 박경래(朴慶來), 우등은 김사훈(金思勳), 최기화(崔祺和), 이재근(李載根)이며, 야학원(夜學員) 최우등은 김상묵(金尙默), 우등은 최석희(崔奭熙), 김업동(金業同), 이문성(李文成) 등이라 하다.

1906-07-10 汾校越旨(분교월지) [황성신문]|잡보|02면|06단|

▶통진군(通津郡) 읍저(邑底)에 분양학교(汾陽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은 통진군수 조동선(趙東善)이 되었다 한다.

1906-07-23 삼호 통진주인 남린우처 5월 초1일 [황성신문]|광고|04면|01단|

○三湖通津主人南麟佑處五月初一日捧次當文八仟伍百十伍兩於音一片中先上五千兩在條三

千五百十五兩於音遺失故仰佈誰某拾得休紙施行(삼호통진주인남린우처오월초일일봉차당문  
팔천오백십오량어음일편중선상오천량재조삼천오백십오량어음유실고양포수모습득휴지시  
행) 南門外里門洞金永泰(남문외리문동김영태) 告白(고백)

1906-08-30 통진군 분양학교 찬성원 [황성신문] | 광고 | 04면 | 03단 |

▶ <광고> 통진군 분양학교에 유학(幼學) 황수(黃秀) 등이 협찬한 것에 대하여 광고하다.

1906-08-31 汾校盛況(분교성황) [황성신문] | 잡보 | 03면 | 03단 |

▶ 통진군 분양학교(汾陽學校) 개교식을 했는데, 출석한 학원(學員)이 52명이고, 내빈이 수백 명이라 하다.

1906-09-01 文明錄(문명록) [황성신문] | 社告 | 03면 | 02단 |

○ 文明錄(문명록)

海州(해주) 公立學校(공립학교) 三圓七十三錢五里(3환73전5리) 通津(통진) 一進支會(일진지회) 三圓二十八錢五里(3환28전5리) 李景善氏(이경선씨) 三圓(3환) 醫學校(의학교) 二圓十五錢(2환15전) 官立中學校三十五錢(관립중학교35전)

1906-09-19 崔氏設校(최씨설교) [황성신문] | 잡보 | 03면 | 02단 |

○ 崔氏設校(최씨설교) 現任 法官 養成所教官 崔氏(현임 법관 양성소 교관 최씨)는 原來 教育上(원래교육상)에 有志(유지)하야 曾往(증왕)에 漢陽學校(한양학교)를 設立(설립)하얏고 又日本(우일본)에 留學(류학)하야 關西大學校(관서대학교)를 卒業(졸업)하얏 修法學士(수법학도)로 還國(환국)하얏다는디 今又通津鳥山峴本第(금우통진조산현본제)에 光進學校(광진학교)를 瓶立(설립)하얏고 同氏(동씨)가 校長(교장)이되야 校監(교감)은 趙東玄氏(조동현씨)오 教師(교사)는 日本人佐藤浩氏(일본인좌등호씨)를 雇聘(고빙)하얏고 科程(과정)은 日語及普通學(일어급보통학)인디 隣近青年(인근청년)이 多數就學(다수취학)하야 前進之望(전진지망)이 頗有(과유)하더다.

1906-09-21 汾校盛宴(분교성연)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6단 |

○ 汾校盛宴(분교성연) 通津郡汾陽學校事務員權永奎氏(통진군분양학교사무원권영규씨)가 今番(금번) 萬壽聖節(만수성절)에 慶祝宴(경축연)을 設(설)하얏고 境內紳士百餘人(경내신사백여인)과 學員八十五人(학원팔십오인)이 齊會(제회)하얏 萬歲(만세)를 三呼(삼호)하얏고 愛國歌(애국가)을 齊唱(제창)하얏며 懇遍(간뵈)하얏 演說(연설)과 諄諄(순순)하얏 勸勉(권면)으로 盡日謀樂(진일심악)하얏다하니 地方(지방)에 守舊(수구)하얏던 紳士(신사)도 時勢形便(시세형편)을 覺悟(각오)하얏듯하니 攢賀(찬하)하얏만하더다.

1906-09-26 請禁悖行(청금패행) [황성신문] | 잡보 | 03면 | 03단 |

○ 請禁悖行(청금패행) 駱洞居朴性德氏(약동거박성덕씨)가 年前(년전)에 草坪(초평)을 金

浦郡(김포군)에 買寘(매치)했더니 金鍾滢爲名人(김중형위명인)이 藉托一進會(자탁일진회)하고 稱以陳荒地(이진황지)에 所種牟近三十餘石(소종모근삼십여석)을 勒奪刈去(특탈예거)했었는데 該朴性德氏(해박성덕씨)가 農商工部(농상공부)에 請願(청원)하기를 嚴禁其行悖(엄금기행패)하고 該牟價(해모가)는 一(일) 一推給(일추급)했음을 伏望(복망)이라 했더라.

1906-10-14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奏任官三等(주임관삼등) 抱川郡守李海盛(포천군수이해성) 坡州郡守金奎昌(파주군수김규창) 通津郡守趙東善(통진군수조동선) 振威郡守白南奎(진위군수백남규) <중략>

1906-10-14 草坪事 對質(초평사 대질)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3단 |

○朴性德氏(박성덕씨)의 金浦郡所在草坪(김포군소재초평)을 一進會(일진회)의서 陳荒地(진황지)라 稱托勒奪(칭탁특탈)한다 事件(사건)은 前報(전보)에 揭載(게재)하였거니와 昨日農商工部(작일농상공부)에 一進會員(일진회원)과 朴氏(박씨)가 頭質次(두질차)로 兩造(양조)하였다는데 其立落(기립락)은 姑未知(고미지)하갿다더라.

▶ 김포군에 있는 박성덕(朴性德)의 초평(草坪)을 일진회에서 진황지(陳荒地)라면서 빼앗고자 한일은 이미 게재(揭載)하였거니와 어제 농상공부에 일진회원과 박씨가 두질차(頭質次)로 양조(兩造)하였다는데 그 입락(立落)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다.

1906-12-06 汾陽志士(분양지사)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 통진군 유지(有志) 문사(文士) 이인혁(李寅嫻), 심상대(沈相大), 이건영(李建英) 등 30명이 7-8년전에 강회(講會)를 열어 각자 1원씩 모아 이후 교육상(教育上) 경비로 쓰기로 하고 모아 두었는데 금년 가을 수합문(收合文)이 180여 원이 되자, 통진군 전(前) 비서승(秘書丞) 심계택(沈啓澤)이 연재(涓財)하여 학교를 세워 교육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고맙게 여겨 자신들이 임원을 맡고 그 돈의 식리(殖利)로 학교의 사소한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심씨의 교육에 대한 의무와 제원(諸員)의 협조에 대해 사람들이 매우 칭찬하고 있다.

1906-10-16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交河郡守尹夔夔(교하군수윤기섭) 金浦郡守李性植(김포군수이성직) <중략>

▶ 인사<중략> 교하군수 윤기섭, 김포군수 이성직 <중략>

1906-10-19 預知落科(예지락과)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預知落科(예지락과) 金浦郡草坪(김포군초평)을 民人等(민인등)이 自來耕食(자래경식)하던것인데 一進會中(일진회중)으로서 陳荒地(진황지)라 稱托(탁)하고 欲爲開墾(욕위개

간)코자한다하야 該郡民朴承德氏(해군민박승덕씨)가 此事狀(차사상)을 農商工部(농상공부)에 請願後(청원후)에 一進會員李鍾亨尹定植兩氏(일진회원이종형윤정식랑씨)와 朴承德氏(박승덕씨)가 卞明歸正事(변명귀정사)로 農商工部(농상공부)에서 連三日質辦(련삼일질판)하더니 昨日(작일)에 該部大臣(해부대신)이 草坪地圖(초평지도)와 事之曲直(사지곡직)을 詳覽亮燭後(상람량촉후)에 一進會員(일진회원)은 寘之於落科(치지어락과)하 則會員尹李兩氏(칙회원윤이양씨)가 言(언)하기를 此部(차부)에서는 宜例落科(의례락과)할 줄을 預先知之(예선지지)라하고 退歸(퇴귀)하얏다더라.

**1906-10-24 紛校試驗(분교시험)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紛校試驗(분교시험) 通津紛陽學校(통진분양학교)에서 九月月終試驗(9월월중시험)을 經(경)하얏는디 甲班優等及及第(갑반우등급급제)는 朴勝赫趙鍾殷等八人(박승혁조중은등8인)이오 乙班優等及及第權曰一李喜丁等六人(을반우등급급제권왓일이회정등6인)이오 丙班優等(병반우등)에 洪吉成及第(홍길성급제)에 金興福(김흥복)인디 校長趙東善氏(교장조동선씨)가 賞品(상품)을 頒給(반급)하야 諸學徒(제학도)의 速成(속성)함을 攢頌(찬송)하얏다더라.

**1906-10-24 薦報呼訴(천보호소)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薦報呼訴(천보호소) 今番各郡(금번각군)에서 主事(주사)를 薦報(천보)하얏는디 金浦郡(김포군)에서는 該郡中聲譽人(해군중성예인)으로 公選薦報(공선천보)치아니하고 該郡首書記(해군수서기)로 徑先單報(경선단보)하얏다고 該郡儒鄉中人士(해군유향중인사)들이 憤苑(분을)하야 內部(내부)에 呼訴(호소)하기로 上來(상래)하얏다더라.

**1906-10-29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중략>△任金浦郡主事叙判任官八級(임김포군주사서관임관팔급)九品朴容珪(구품박용규)△任燕岐郡主事叙判任官九級(임연기군주사서관임관구급) 林東勳(임동훈)<중략>

**1906-11-05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官報(관보)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중략>△任通津郡主事叙判任官九級朴商玄(임통진군주사서관임관구급박상현) 以上十月二十九日(이상10월29일)<중략>

**1906-11-09 宴席頒賞(연석반상)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宴席頒賞(연석반상) 通津汾陽學校(통진분양학교)에서 日前(일전) 繼天紀元節(계천기원절)에 境內紳士(경내신사)가 齊會(제회)하야 慶祝宴(경축연)을 設(설)하고 盡日歡樂(진일환악)하야 愛國歌(애국가)와 萬歲聲(만세성)에 一境(일경)이 慶頌(경송)하고 十月月終試驗優等生朴勝赫(10월월중시험우등생박승혁)과 權富出(권부출)과 洪吉成等(홍길성등)을 次第(차제)로 呼名(호명)하야 紙筆(지필)을 頒賞(반상)하니 學員(학원)의 勇敢志(용감

지)와 競爭心(경쟁심)이 一倍奮發(일배분발)한다더라.

1906-11-24 도지부령 제23호 [황성신문]|관보|01면|04단|

○度支部令第二十三號(도지부령제이십삼호) 管稅官位寘及管轄區域(관세관위치급관할구역)에 關(관)한 件(건) 第一條(제일조) 管稅官位寘及管轄區域(관세관위치급관할구역)을 別表(별표)와 如(여)히 定(정)함이라.

附則(부칙) 第二條(제이조) 本令(본령)은 頒布日(반포일)로부터 施行(시행)함이라 光武十年十月二十七日(광무10년10월27일) 管稅官位寘及管轄區域表(관세관위치급관할구역표) 各道稅務(각도세무) 稅務官(세무관) 稅務監管下稅(세무감관하세) 監位寘(감위치)位寘(위치) 務官管轄區域(무관관할구역)<중략>通津金浦麻田漣川(통진, 김포, 마전, 연천)<중략>未完(미완)

1906-12-06 汾陽志士(분양지사)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汾陽志士(분양지사) 傳說(전설)를 聞(문)한 則通津郡有志文士卅員(척통진군유지문사 삼원)이 七八年前(7-8년전)의 講會(강회)를 設(설)하고 各出金一圓(각출김일원)하여 日後教育上經費(일후교육상경비)로 立本取利(입본취이)하더니 今秋(금추)의 收合文(수합문)이 一百八十四圓(일백팔십사원)이라 本郡前秘書丞沈啓澤氏(본군전비서승심계택씨)가 捐財設校(연재설교)하여 教育上(교육상)의 熱心(열심)함을 感謝(감사)하여 該金(해김)을 從今(종금)으로 付校殖利(부교식이)하여 校中(교중)의 些少(사소)한 經費(경비)의 萬一之助(만일지조)를 永久(영구)히 贊成(찬성)하기로 會同約定(회동약정)하였다하니 沈啓澤氏(심계택씨)의 教育上美務(교육상미무)를 令人可賀(령인가하)하깃더라.

1906-12-07 沈氏美舉(심씨미거) [황성신문]|잡보|03면|03단|

○沈氏美舉(심씨미거) 前秘書丞沈啓澤氏(전비서승심계택씨)가 時務教育上(시무교육상)의 慨然有志(개연유지)하여 今秋(금추)의 通津鄉第(통진향제)로 下去(하거)하여 庄土(장토)를 放賣(방매)하여 熱心設校(열심설교)하고 校名(교명)은 汾南普成學校(분남보성학교)라하며 遠近學徒(원근학도)를 募集(모집)하였더라.

1906-12-20 何不銓考(하불전고)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何不銓考(하불전고)內部(내부)에서 一進會總代趙聖根氏(일진회총대조성근씨)의 請願(청원)을 因(인)하여 京畿觀察道(경기관찰도)로 發訓(발훈)하기를 貴管下金浦郡守李性植(귀관하김포군수이성직)이 赴任以後(부임이후)에 專事貪虐(전사탐학)하여 數多生靈(수다생령)이 至於魚肉之境(지어어육지경)이라하니 到即定查官(도즉정사관)하여 該郡守(해군수)의 犯贓錢(범장전)을 查覈實數(사핵실수)하여 以爲馳報(이위치보)하라하더얏다.

1906-12-25 김포군 운양리거 여경화가 본읍형리와 [대한매일신보]|광고|03면|3단|

▶<광고> 김포군 운양리에 사는 노경화(盧敬化)가 읍내 형리(刑吏와 통진군 향동(香洞) 사는 이치준(李致俊) 등과 인천항 표목동(標木洞)에 사는 정낙진(鄭樂進) 등과 부동(符

同)하여 노씨의 부친 순보(順甫)의 양안(量案) 입지(立旨)를 군수에게 받아 내 일본인에게 전집(典執)하려다가 그 부친이 이를 찾아 갔으니 내외국인은 돈을 빌려주지 말기 바람. 盧敬文(노경문) 告白(고백)

1906-12-25 收賭請願(수도청원) [황성신문] |잡보|03면|03단|

○收賭請願(수도청원) 陽川富平金浦等郡(양천부평김포등군)에 築堰稅賭(축언세도)를 收捧事(수봉사)로 尹迥求氏(윤형구씨)가 抵到查定時(저도사정시)에 金浦郡民(김포군민)이 聚黨(취당)하여 亂打幹事人(란타간사인)하며 勿勿收賭之意(물수도지의)로 勒捧手標(특봉수표)하고 前後文簿(전후문박)를 亦爲勒奪(역위특탈)하니 訓飭該郡(훈칙해군)하여 手標及文簿(수표급문부)를 還推(환추)하고 無弊收賭(무폐수도)케 하라고 尹氏(윤씨)가 農商工部(농상공부)에 請願(청원)하였다.

1906-12-28 통진 사립분남보성학교의 찬성금 [황성신문] |광고|04면|01단|

○通津私立汾南普成學校(통진사립분남보성학교)의 贊成金(찬성금)이 如左(여좌)하니 校監李敦煥三十元(교감리교환30원) 學監(학감) 李冀鍾十元(이기종10원) 事務長南廷容十元(사무장남정용10원) 總務(총무) 沈相一十元(심상일10원) 提議(제의) 李敦煥十元(이돈환10원) 評議長李象奎十元(평의장이상규10원) 贊成員李範亨十元(찬성원이범형10원) 慶健秀十元(경건수10원) 李建英十元(이건영10원) 金重驥五元(김중기5원) 成煥翼五元(성환익5원) 沈能勳四元(심능훈4원) 崔興九四元(최흥구4원) 李文相四元(이문상4원) 朴洪鎭四元(박홍진4원) 沈宜甲四元(심의갑4원) 沈義澤四元(심의택4원) 李象玉四元(이상옥4원) 安玉振二元(안옥진2원) 權秉惠二元(권병덕2원) 崔錫九二元(최석구2원) 申弘善二元(신홍선2원) 金健洙二元(김건수2원) 未完(미완))

1906-12-28 汾校盛況(분교성황)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6단|

○通津郡(통진군) 私立汾南普成學校(사립분남보성학교)에서 陰曆本月(음력본월) 초三日(3일)에 開學式(개학식)을 設行(설행)하였는듯 生徒(도)가 六拾餘名(육십여명)이오 校長以下諸(교장이하제)임員(원)이 極爲熱心(극위열심)하며 隣近邑紳士莫不贊頌(린근읍신사막부찬송)한다더라.

▶ 통진군 사립 분남보성(汾南普成) 학교에서 음력 이 달 3일에 개학식을 가졌는데, 학생은 모두 60여 명이며, 교장 이하 여러 임원들이 교육에 전념하는지라 인근 마을의 신사(紳士)들이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다.

1907-01-07 경계자는 本人(본인)이 업자생인 바 [황성신문] |광고|03면|06단|

1907-01-07 본인의 족인 통진벌곡거 이운하 [황성신문] |광고|03면|06단|

○本人(본인)의 族人(족인) 通津堡谷居(통진벌곡거) 李芸夏(이운하) 兒名(아명)은 奇孫(기손)이라 性本浮浪(성본부랑)하여 欺人挾雜(기인협잡)으로 認作能事(인작능사)하고 江

華(강화) 金浦(김포) 坡州(과주) 仁港(인항) 等地(등지)로 閃忽往來(섬홀왕래)하야 本人(본인)의 姓名(성명)을 冒稱(모칭)하며 自稱某參判之子(자칭모참판지자)요 某承旨之弟(모승지지제)라 하며 農商工部參書官(농상공부참서관)이라 하고 本人之名譽(본인지명예)를 損傷(손상)케 하니 內外國人(내외국인)은 幸勿見欺(행물건기)하시옵 李泰夏(이태하) 告白(고백)

1907-01-07 要薦請逋(요천청포)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要薦請逋(요천청포)

通津郡守(통진군수) 趙東善氏(조동선씨)가 今番(금번) 郡主事(군주사) 修報時(수보시)에 該郡鄉長(해군향장) 李星根氏(이성근씨)가 自己(자기)로 薦報(천보)하기를 懇請(간청)하되 郡守(군수)가 其爲人(기위인)이 不合該任(불합해임)함을 深知(심지)함으로 答(답)하되 君有公錢所逋(군유공전소포)하니 不可薦報(불가천보)라 하되 李鄉長(이향장)이 然其言(연기언)하야 東西貸取(동서대취)에 所犯公錢(소범공전)을 淸納(청납)하거늘 逋雖磨勘(포수마감)이나 爲人(위인)이 不合(불합)하야 郡吏(군리) 朴商玄(박상현)으로 修報(수보)하야 已爲敍任(이위서임)이거늘 該鄉長(해향장)이 不思資格之不足(불사자격지불족)하고 以謂欺人淸逋(이위기인청포)라 하고 憤怒含憾(분노함감)하야 煽動族戚幾人(선동족척기인)하고 冒錄他人姓名(모록타인성명)하며 募集米商幾人(모집미상기인)하야 誣呈內部(무정내부)하얏다더라.

1907-01-10 汾土出義(분토출의) [황성신문]|잡보|02면|06단|

○汾土出義(분토출의) 通津私立汾南學校(통진사립분남학교)에서 一鄉多士(일향다사)가 贊成金(찬성금)을 自願爭出(자원쟁출)하야 校況(교황)이 漸就興旺(점취흥왕)하더니 諸氏(제씨)의 教育上熱心(교육상열심)함을 譔賀(찬하)하노라

1907-01-10 通津 사립분남학교의 찬성금이 [황성신문]|광고|03면|05단|

○通津私立汾南學校(통진사립분남학교)의 贊成金(찬성금)이 如左(여좌)하니  
正三品(정3품) 閔泳德(민영덕) 十五元(15원) 全(동) 邊成一(변성일) 十元(10원) 前參奉(전참봉) 沈能遠(심능원) 四十元(40원) 士人(사인) 沈駿澤(심준택) 十五元(십오원) 吳兢相(오경상) 二元(2원) 沈鳳澤(심봉택) 一元五十錢(1원50전) 李運夏(이운하) 十元(10원) 李寅赫(이인혁) 二十元(20원) 前參奉(전참봉) 金永老(김영로) 一元五十錢(1원50전)

1907-01-16 農業幻燈(농업환등) [황성신문]|잡보|03면|03단|

○農業幻燈(농업환등)

農商工部(농상공부)에서 勸業模範場員(권업모범장원) 山田熙氏(산전희씨)에게 訓誨(훈령)하되 各地方農民(각지방농민)의 智識(지식)을 開(개)하기 爲(위)하야 農事講話會(농사강화회)를 開設(개설)하고 以幻燈(이환등)으로 農業上改良(농업상개량)에 最緊要(최긴요)한 件(건)을 丁寧(정녕)히 講話(강화)할 事(사)로 委任派遣(위임파견)하니 各郡(각

군)에 往(왕)하야 與各該郡守(여각해군수)로 協議(협의)하야 講話處所(강화처소)를 公廳中(공해중)에 隨宜定設(수의정설)하고 原定日(원정일)에 齊會農民(제회농민)하야 敦明(돈명)하라 하얏는디 其講話日字(기강화일자)가 如左(여좌)하니

一月十五日 陽川(1월15일 양천) 十六日富平十七日 金浦(16일 부평, 17일 김포) 十九日 通津(19일 통진) 二十日 江華(20일 강화) 二十二日 交河(22일 교하) 二十三日 坡州(23일 파주) 二十五日 楊州(25일 양주) 二十七日 高陽(27일 고양) 三十日 廣州(30일 광주) 等(등) 各郡(각군)이더라.

1907-01-18 汾校施賞(분교시상) [황성신문]|잡보|03면|02단|

○汾校施賞(분교시상)

通津郡公立普通學校(통진군공립보통학교)에서 年終試驗(년종시험)을 經(경)하얏는디 甲班優等(갑반우등)에 朴玉俊(박옥준) 朴大德(박대덕) 申泰赫(신태혁)이오 乙班優等(을반우등)은 權曰一(권왈일) 權富出(권부출) 李喜丁(이희정)이오 丙班優等(병반우등)은 吳寶卿(오보경) 金興福(김흥복) 文尙祿(문상록)이니 稅務主事(세무주사) 洪喬秀氏(홍학수씨)가 紙筆(지필)을 優數(우수)히 賞給(상급)하고 諸學員(제학원)에 學業(학업)을 勸(권)奨하며 京居(경거)하는 金義澤氏(김의택씨)와 崔昌善氏(최창선씨)가 錢(전)穀을 出義捐助(출의연조)하고 懇摯勸勉(간지권면)하야 學員(학원)의 學業(학업)을 進就(진취)케 하얏다 하니 諸氏(제씨)에 教育上熱心(교육상열심)함은 可以欽頌(가이흠송)하깃다더라.

1907-01-18 分南 학교 취지서 [대한매일신보]|잡보|03면|2단|

○凡國家(범국가)에 基礎(기초)는 在養成人才(재양성인재)하고 人材(인재)의 養成(양성)은 在知識發達(재지식발달)하니 學校之不可不擴張(교지부가불확장)이 是也(시야)라 現今時代(현금시대)의 列強(열강)이 競爭(경쟁)하야 固非舊日閉門獨守(고비구일폐문독수)의 斥鷃自足者(척앵자족자)지 比擬則其(비의척기)학問(문)이 亦不無損益(역불무손익) 沿革取捨古今(혁취사고금)지 異同(이동)일식 惟我同胞二千萬圓顛方趾(유아동포이천만원노방지)人(인)이 孰不知埃及波蘭(숙불지애급파란)지 昭昭前鑑(소소전감)이리오마는 尙(상) 불見團結其心(견단결기심)하야 進步文明者(진보문명자)는 竄由乎門路各殊(단유호문로각수)하고 趣志不同(취지불동)하야 泥古者(니고자)는 不識通變(불식통변)하야 株守舊規(주수구규)지 腐習(부습)하고 好新者(호신자)는 弁髦舊(변모구)학의 爭趣虛僞(쟁취허위)지 粉飾(분식)하야 恬若無事(념약무사)라가 竟至今(경지금)급급乃已則同病(내이척동병)지 憐(련)이 曾所激切者矣(증소격절자의)러니 何幸挽近(하행만근)의 識時知務(식시지무)지 家(가) 處處設校(처처설교)에 擴張教育(확장교육)하야 上承(상승) 皇上切至(황상절지)지 恩(은)척하고 次續政府諸公(차속정부제공)지 熱心(열심)하니 國權(국권)의 來復(래복)과 生命(생명)의 維持(유지)가 將權輿于此矣(장권여우차의)로다 生等(생등)이 亦於分南(역어분남)의 設校聘師(설교빙사)하야 教育爲務(교육위무)하니 凡我諸任員及諸(범아제임원급제)학員(원)은 實心贊助(실심찬조)하며 實心教授(실심교수)하야 時措便宜(시조편의)는 雖有古今(수유고금)지 別(별)이나 忠孝心道德心(충효심도덕심)은 必無新舊(필무신구)학지

異同(이동)이니 參(참)지舊(구)학하며 즐지新(신)학하며 其所設施(기소설시)가 皆爲實效(개위실효)면 人聚成家(인취성가)요 家聚成國(가취성국)이라 一人(일인)지학問(문)이 一家(일가)의 幸福(행복)이요 一家(일가)지幸福(행복)이 一國(일국)의 基礎(기초)니 簡人簡人(개인개인)은 勉(면)지勉(면)지여다.

1907-01-19 汾校漸進(분교점진)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2단 |

○通津私立汾南(통진사립분남)學校(학교)에 境內有志(경내유지)지士(사)가 贊成(찬성)금을 自願爭出(자원쟁출)하며 校況(교황)이 漸就興旺(점취흥왕)하며 生徒(도)가 日加月增(일가월증)하니 諸(제)씨의 教育上熱心(교육상열심)함을 讚賀(찬하)하노라.

▶ 통진군 사립분남학교(汾南學校)에 경내(境內) 유지신사(有志紳士)들이 스스로 다투어 찬성금(贊成金)을 내므로 교황(校況)이 점차 흥왕(興旺)하고 학생들도 점차 늘어난다고 하니 제씨(諸氏)의 교육에 열심임을 찬하(讚賀)하는 바이라 하다.

1907-01-20 奇民悖習(기민패습)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5단 |

○金浦郡居悖類奇哥(김포군거패류기가)가 無端(무단)히 該郡守李性(해군수이성)직氏(씨)를 構(구)날하며 民擾(민요)를 창起(기)하다가 觀察道(관찰도)에 押上牢囚(압상죄수)하얏다더라.

▶ 김포군에 사는 패류(悖類) 기가(奇哥)가 팬서리 군수(郡守) 이성직(李性植)을 트집잡아 민요(民擾)를 일으키려다가 관찰도(觀察道)에 압상(押上)되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다.

1907-01-29 재일본단지 류학생학자 의연 [황성신문] | 광고 | 04면 | 04단 |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재일본단지류학생학자의연) 京畿道觀察道警務署巡檢(경기도관찰도경무서순검) 李友松氏(이우송씨) 二十五錢(25전) 全鳳薰氏(전봉훈씨) 五圓(5원) 通津郡公立普通汾陽學校(통진군공립보통분양학교) 校長(교장) 趙東善氏(조동선씨) 三圓(3원) 評議長(평의장) 李舜夏氏(이순하씨) 二圓(2원) 敎師(교사) 李寅杓(이인표) 朴喜陽(박희양) 葛亨大(갈형대) 柳重煥(유중환) 學員(학원) 林憲奎(임헌규) 已上諸氏(이상제씨) 一圓式(일원식) 李範昊(이범호) 朴玉俊(박옥준) 朴大德(박대덕) 申泰赫(신태혁) 朴加同(박가동) 朴勝赫(박승혁) 洪重杓(홍중표) 李奎應(이규응) 林靖鉉(임정현) 李康錫(이강석) 李範哲(이범철) 張根秀(장근수) 李康錫(이강석) 已上諸氏(이상제씨) 五十錢式(50전식) 金儀洙(김의수) 韓龍範(한룡범) 吳福泳(오복영) 崔九日(최구일) 已上諸氏(이상제씨) 卅錢式(삼전식) 洪惠杓(홍덕표) 孫永奎(손영규) 金鳳俊(김봉준) 已上諸氏(이상제씨) 二十五錢式(25전식) 文尙祿氏(문상록씨) 三十錢(30전) 朴昌奉氏(박창봉씨) 十五錢(15전)

1907-01-30 재일본단지 류학생학자 의연 [황성신문] | 광고 | 04면 | 04단 |

○在日本斷指留學生學資義捐(재일본단지류학생학자의연) 大廣橋東邊書舖(대광교동변서포) 高裕相氏(고유상씨) 一圓(일원) 信川邑無名僧(신천읍무명창) 一圓(일원) 通津郡公立普通汾陽學校(통진군공립보통분양학교) 趙鍾殷(조중은) 李駿夏(이준하) 李大泳(이대영)

朴容薰(박용훈) 任應宰(임응재) 林弘模(임홍모) 李厚寧(이후녕) 林魯典(임로전) 李豐寧(이풍녕) 朴柄璿(박병선) 李仁泳(이인영) 孔致榮(공치영) 權富出(권부출) 林石順(임석순) 已上諸氏(이상제씨) 二十錢式(20전식) 金台根(김태근) 李載夏(이재하) 李平國(이평국) 已上諸氏(이상제씨) 十錢式(십전식) 郡主事(군주사) 朴商玄氏(박상현씨) 一圓(1원)

1907-02-09 汾南義捐(분남의연)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3단|

▶통진군 사립분남학교(汾南學校) 학생 이건성(李健星) 등이 대한매일신보사에 기함(寄函) 본인 등이 귀 신문을 보니 일본유학생 21명이 단지동맹(斷趾同盟)하고 피로써 수업(修業)하는 의무(義務)를 받고자 한다는데, 본인들도 이들이 수학(受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바이며, 이에 8원 50전을 모아 보낸다 하다.

1907-02-10 汾校施賞(분교시상)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5단|

▶통진군 사립분남학교(汾南學校)에서 개학 후 1월 월말시험을 치르고 교장 심계택(沈啓澤), 학감(學監) 이기종(李冀鍾)이 우등생들에게 상을주고, 정3품(正3品) 변성일(邊成一)도 필묵(筆墨)을 연조(捐助)하여 권면(勸勉)하였다고 하다.

1907-02-11 汾校月試(분교월시) [황성신문] |잡보|01면|05단|

○汾校月試(분교월시)

通津私立汾南學校(통진사립분남학교)에서 開學後(개학후) 一月月終試驗(일월월종시험)을 經(경)하였는데 普通科(보통과) 優等(우등) 李寅祐(이인호) 及第(급제) 沈相久(심상구) 等(등) 二人(2인) 高等科(고등과) 優等(우등) 李寅善(이인선) 及第(급제) 李圭容(이규용) 等(등) 六人(6인) 初等科(초등과) 優等(우등) 李龍順(이용순) 及第(급제) 成萬基(성만기) 等(등) 六人(6인)인데 校長(교장) 沈啓澤氏(심계택씨)와 學監(학감) 李冀鍾氏(이기종씨)가 施賞(시상)하고 正三品(정삼품) 邊成一氏(변성일씨)도 筆墨(필묵)을 優數(우수)히 捐助勸勉(연조권면)하였다더라.

1907-02-15 文明錄(문명록) [황성신문] |社告(사고)|03면|01단|

○文明錄(문명록)

<중략>通津郡守(통진군수) 趙東善氏(조동선씨) 主事(주사) 書記(서기) 八圓六十四錢(8환64전)<중략>

1907-02-23 人身蠶口(인신천구) [황성신문] |잡보|02면|04단|

○人身蠶口(인신천구)

農商工部(농상공부)에서 桑苗(상묘)를 各郡(각군)에 送交(송교)하고 價金(가김)을 收納(수납)하라 함은 已爲揭載(이위게재)어니와 金浦郡吏胥(김포군이서) 朴完秉氏(박완병씨)가 該價金(해가김) 三百四十兩(340냥)을 犯逋(범포)하고 卽爲逃走(즉위도주)하였다고 該郡守(해군수)가 農商工部(농상공부)에 報告(보고)하였다더라.

1907-02-25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任公立通津普通學校副敎員敍判任官十級(임공립통진보통학교부교원서관임관십급) 朴喜陽(박희양) 以上二月十八日(이상2월18일) 命宮內府特進官敍勅任官二等(명궁내부특진관서척임관이등) 從一品(종일품) 李憲植(이헌직) <중략>

1907-03-16 통진군 사립 분남학교의 贊成金(찬성금)이 [황성신문]|광고|03면|03단|

○通津郡私立汾南學校(통진군사립분남학교)의 贊成金(찬성금)이 如左(여좌)하니 前郡守 申鍾協(전군수신중협) 五元(5원) 六品(6품) 宋啓殷(송계은) 二元(2원) 前參奉洪淳珪(전참봉홍순규) 十元(10원) 正三品崔成龍(정3품최성룡) 六元(6원) 士人(사인) 申鍾夏(신중하) 二元(이원) 叀(동) 閔完植十二元(민완식12원) 叀(동) 沈普澤五元(심보택5원) 叀(동) 李康錫四元(이강석4원) 叀(동) 閔泳伯十元(민영백10원) 通津私立學校(통진사립학교) 告白(고백)

1907-03-19 汾校愛國(분교애국)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汾校愛國(분교애국)

西來人(서래인)의 傳說(부설)을 得聞(득문)호 則(칙) 通津郡汾南學校(통진군분남학교)에서 校長以下任員(교장이하임원) 諸氏(제씨)가 國債報償(국채보상)에 對(대)호야 斷烟同盟(단연동맹)호고 境內士民(경내사민)의게 義金(의금)을 現今(현금) 收合(수합)호는 中(중)이라더라.

1907-03-25 國債報償의무금집송인원급액수 [황성신문]|社告(사고)|03면|04단|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급액수) 內井汲水軍(내정급수군) 五十六人(56인) 朴承雲(박승운) 金春瑞(김춘서) 李承佐(이승좌) 安士一(안사일) 金載弘等(김재홍등) 合(합) 六圓(6환) 通津教育契(통진교육계) 七十一人(71인) 沈能遠(심능원) 十三圓(13환) 徐雲集(서운집) 五圓(5환) 蘇祈永(소기영) 二圓(2환) 金輔卿(김보경) 一圓(1환)

鳳山郡榆洞(봉산군유동) 李台健(이태건) 廿圓(환) 男鍾舜(남중순) 鍾禹(중우) 鍾洛(중락) 鍾濂(중렴) 鍾漢(중한) 各二圓(각2환) 弟忠健(제충건) 二十圓(12환) 孝健(효건) 十圓(10환) 侄鍾夏(질중하) 廿圓(환) 李淳健(이순건) 四圓(4환) 李鍾文(이중문) 二圓(2환) 安秉哲(안병철) 李淳鳳(이순봉) 各一圓(각1환) 李東俊(이동준) 尹彦永(윤언영) 李應錫(이응석) 李裕權(이유권) 李世文(이세문) 李昌範(이창범) 李京錫(이경석) 李基璜(이기황) 李漢瑞(이한서) 李一錫(이일석) 李漢範(이한범) 朴東敏(박동민) 李上淡(이상담) 各五十錢(각50전) 李漢興(이한흥) 金成鍾(김성중) 各卅錢(각10전) 李淳蒙(이순몽) 李周錫(이주석) 李升英(이승영) 徐京淳(서경순) 全致水(전치수) 李漢璧(이한벽) 李弘錫(이홍석) 李元淡(이원담) 朴根模(박근모) 朴允成(박윤성) 各二十錢(각20전) 李永煥(이영환) 五圓(5환) 張世瑛(장세영) 張世瑢(장세용) 各一圓(각1환) 張鶴鎭(장학진) 張鳳鎭(장봉

진) 張龍鎭(장룡진) 各五十錢(각50전) 朴東益(박동익) 金尙燁(김상엽) 李德基(이덕기) 李朋錫(이봉석) 各一圓(각1환) 以上合(이상합) 一百九十圓六十錢(190환60전) 公州駐隊(공주주대) 李秉殷(이병은) 十五圓(15환) 權重燮(권중섭) 十圓(10환) 林魯羲(임로희) 五圓(오환) 李敦學(이돈학) 朴昌熙(박창희) 林興周(임흥주) 全致貞(전치정) 各一圓(각1환) 廿五錢(5전) 金鳳鎭(김봉진) 丁奎憲(정규헌) 金光玉(김광옥) 一圓十錢(1환10전) 朴奇榮(박기영) 申聖元(신성원) 安斗相(안두상) 金興濟(김흥제) 方英根(방영근) 李元錫(이원석) 金伯鉉(김백현) 崔文明(최문명) 金用培(김용배) 金容箕(김용기) 朴炳翼(박병익) 李敬文(이경문) 姜興寬(강흥관) 卞寅圭(변인규) 方泰鉉(방태현) 宋永錫(송영식) 崔彭俊(최팽준) 各八十錢(각80전) 梁俊甲(양준갑) 金仁洙(김인수) 朴春明(박춘명) 孔德基(공덕기) 李宇相(이우상) 朴道元(박도원) 全用柱(전용주) 趙亨元(조형원) 鄭德好(정덕호) 朴文奉(박문봉) 千永根(천영근) 崔順溶(최순용) 黃圭台(황규태) 金成勳(김성훈) 李道鎭(이도진) 鄭庚默(정경묵) 方德鉉(방덕현) 姜日馨(강일형) 李重善(이중선) 尹基淵(윤기연) 金淳萬(김순만) 朴星云(박성운) 郭用得(곽용득) 金五福(김오복) 張在憲(장재덕) 各七十錢(각칠십전) 吳應台(오응태) 金鍾元(김종원) 朴鼎熙(박정희) 金俊培(김준배) 李基福(이기복) 李鳳基(이봉기) 朴泳善(박영선) 李萬星(이만성) 趙泰元(조태원) 千樂弼(천악필) 白壯業(백장업) 崔聖三(최성삼) 申平憲(신평헌) 林奉根(임봉근) 洪淳範(홍순범) 白先奉(백선봉) 徐德輔(서덕보) 李成用(이성용) 金基明(김기명) 崔泳福(최영복) 李壯燁(이장업) 金福男(김복남) 洪斗煥(홍두환) 林炳根(임병근) 黃信台(황신태) 尹喆熙(윤철희) 崔學俊(최학준) 徐玉淳(서옥순) 盧吉鉉(노길현) 李惠用(이덕용) 金昌三(김창삼) 俞相濬(유상준) 洪秉鶴(홍병학) 邊相煥(변상환) 林相玉(임상옥) 李殷喆(이은철) 鄭國鉉(정국현) 李敬淳(이경순) 金奭用(김석용) 金在用(김재용) 鄭昌夏(정창하) 林世元(임세원) 金泳祿(김영록) 姜相南(강상남) 金思用(김사용) 安秉直(안병직) 李鍾三(이종삼) 金永基(김영기) 鄭寅吉(정인길) 安鶴伊(안학이) 郭元鍾(곽원종) 各六十錢(각60전) 以上合(이상합) 一百圓(100환) 官立漢城師範學校速成科第二回卒業生等(관립한성사범학교속성과제2회졸업생 등) 崔在裕(최재용) 崔世鳴(최세명) 金秀英(김수영) 金鳳五(김봉오) 張道斌(장도빈) 崔善東(최선동) 崔鼎魯(최정로) 吳熙轍(오희철) 鄭麟源(정린원) 金振聲(김진성) 李龍星(이룡성) 韓錫麟(한석린) 池弘游(지홍유) 宋完燮(송완섭) 吳珪泳(오규영) 尹達洙(윤달수) 姜新馨(강신형) 崔成瓚(최성찬) 朴宗杰(박종걸) 崔暉烈(최경렬) 李鎬建(이호건) 曹正煥(조정환) 元貞龍(원정룡) 金學瑞(김학서) 郭龍泰(곽룡태) 李康瑄(이강선) 以上(이상)廿六人(6인) 各五十錢(각50전) 合(합) 十三圓(13환) 佩物廳居間會同(패물전거간회동)

裴德仲(배덕중) 十圓(10환) 安永弼(안영필) 安瑛植(안영식) 林東先(임동선) 各一圓(각1환) 李春植(이춘식) 郭允秀(곽윤수) 金潤根(김윤근) 金鳳圭(김봉규) 權昌浩(권창호) 裴德基(배덕기) 各五十錢(각50전) 劉漢圭(유한규) 辛敏植(신민식) 各三十錢(각30전) 李禹卿(이우경) 廿二錢五里(2전5리) 金雲瑞(김운서) 金昌根(김창근) 張榮弼(장영필) 各二十錢(각20전) 金受汝(김수여) 十錢(10전) 合(합) 十七圓五十二錢五里(17환52전5리) 楊州校村洞(양주교촌동) 洪範杓(홍범표) 一圓四十錢(1환40전) 鄭泰景(정태경) 十錢(10전) 李顯世(이현세) 十五錢(15전) 洪淳絃(홍순현) 十錢(10전) 鄭繼容(정계용) 四十錢(40전) 咸碩

運(함석운) 李敬淑(이경숙) 李敬天(이경천) 申命億(신명억) 各十錢(각10전) 李福民(이복민) 十五錢(15전) 裴晚東(배만동) 卅錢(3전) 咸敎學(함교학) 廿錢(전) 李學順(이학순) 李昌奎(이창규) 咸長玉(함장옥) 各十錢(각십전) 李善奉(이선봉) 二十五錢(25전) 崔允碩(최윤석) 張德成(장덕성) 各二十錢(각20전) 崔閒碩(최한석) 李鍾億(이중억) 各十錢(각10전) 成奉碩(성봉석) 十八錢(18전) 李順祿(이순록) 李漸達(이점달) 各十錢(각10전) 以上合(이상합) 四圓七十三錢(4환73전) 金額(금액)을 本社(본사)에 收入(수입)지 아니하면 姓名(성명)을 廣告에 掲載(게재)치 아니함.

1907-04-08 郡捉押上(군착압상)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郡捉押上(군착압상)

通津郡守(통진군수) 趙東善氏(조동선씨)가 該郡(해군)에서 賊漢(적한) 三名(3명)을 捕捉取招(포착취초)한 則(칙) 陳供自服(진공자복)하기를 果非賊黨(과비적당)이오 今番(금번) 軍部大臣(군부대신) 權重顯氏(권중현씨)를 謀殺(모살)하려던 者(자)와 同黨(동당)인 玆(거주)는 全南一進會員(전남일진회원)이라 하는지라 趙東善氏(조동선씨)가 上部(상부)로 報告(보고)하였더니 警務補佐官(경무보좌관)과 巡檢及巡查(순검급순사)가 來到(래도)하여 警務廳(경무청)으로 押上(압상)하였다더라.

1907-04-10 國債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通津普通學校(통진보통학교)

趙東善(조동선) 五圓(오환) 李舜夏(이순하) 四圓(사환) 朴喜陽(박희양) 李寅杓(이인표) 葛亨大(갈형대) 朴應來(박응래) 申鍾協(신중협) 各一圓(각1환) 洪重杓(홍중표) 六十錢(60전) 申泰赫(신태혁) 洪應杓(홍덕표) 李範昊(이범호) 各五十錢(각50전) 朴玉俊(박옥준) 張根秀(장근수) 朴勝赫(박승혁) 林憲奎(임헌규) 各四十錢(각40전) 李豐寧(이풍녕) 朴柄璿(박병선) 朴大德(박대덕) 林靖鉉(임정현) 李奎應(이규응) 金八援(금8원) 趙道用(조도용) 孔致榮(공치영) 朴容泰(박용태) 李載夏(이재하) 各三十錢(각30전) 金台根(김태근) 朴容勳(박용훈) 崔九日(최구일) 各二十五錢(각25전) 李康錫(이강석) 李駿夏(이준하) 李範哲(이범철) 趙鍾殷(조종은) 任應宰(임응재) 金儀洙(김의수) 金鳳俊(김봉준) 權曰一(권왈일) 朴加同(박가동) 李厚寧(이후녕) 李炳鎬(이병호) 姜守業(강수업) 吳福泳(오복영) 趙昌順(조창순) 金興福(김흥복) 林昌俊(임창준) 金昌根(김창근) 朴원춘(朴元春) 文上祿(문상록) 姜德延(강덕연) 田五得(전오득) 朴흥춘(朴興春) 權富出(권부출) 李喜丁(이희정) 趙學成(조학성) 金天命(김천명) 黃錫鎭(황석진) 洪吉成(홍길성) 任是宰(임시재) 李快釗(이쾌쇠) 朴昌奉(박창봉) 朴英春(박영춘) 韓亨植(한형식) 趙載麟(조재린) 韓龍範(한룡범) 李大泳(이대영) 李仁泳(이인영) 林弘模(임홍모) 林魯典(임로전) 孫相河(손상하) 林碩舜(임석순) 林容九(임용구) 林容直(임용직) 李平國(이평국) 各二拾錢(각20전) 沈長順(심장순) 廉太壽(임태수) 廉洪伊(임홍이) 河富石(하부석) 河興龍(하흥룡) 徐英春(서영춘) 黃浩性(황호성) 各十錢(각10전) 合(합) 新貨(신

화) 三十圓九拾五錢(30환95전) <중략>

1907-04-12 再盜處役(재도처역)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再盜處役(재도처역)

金浦郡居(김포군거) 裴尙律爲名人(배상률위명인)이 竊盜罪(절도죄)로 懲役一年(징역일년)에 處(처)호얏다가 限滿放釋(한만방식)호얏는디 日本人(일본인)의게 雇傭(고용)호다가 白米(백미) 一升(일승)을 竊取被捉(절취피착)되야 竊盜再犯律(절도재범률)에 依(의)호야 役終身(역종신)에 處(처)호틀 터인디 參究情跡(참구정적)에 實係矜惻(실계금측)이라 호야 役十五年(역15년)에 處判宣告(처판선고)호얏다더라.

1907-04-15 兩門特義(양문특의) [황성신문]|잡보|01면|01단|

○兩門特義(양문특의)

傳說(전설)를 聞(문)호는 즉 通津居(통진거) 璿派子孫(선파자손)에 李寅赫(이인혁) 李建英(이건영) 諸氏(제씨)가 今番(금번) 國債報償(국채보상)에 各其(각기) 宗中(종중)으로 特爲捐助(특위연조)호려 發文勸告(발문권고)호엿고 靑松(청송) 沈氏門中(심씨문중)에서도 沈能勳(심능훈) 沈宜達(심의달) 兩氏(양씨)가 通文(통문)을 其宗中老幼(기종중로유)의게 輪示(륜시)호면서 特出義金(특출의김)호야 以表國民之義務(이표국민지의무)호자 호엿다더라.

1907-04-18 集會設社(집회설사) [황성신문]|잡보|01면|03단|

○集會設社(집회설사)

京畿金浦郡(경기김포군)에서 申弘善(신홍선) 沈忠植(심충식) 朴容義氏(박용희씨) 等(등) 六人(6인)이 國債報償斷烟會(국채보상단연회)를 組織(조직)하고 趣旨書(취지서)를 發佈(발포)하야 一般(일반) 人民(인민)의 義務(의무)를 勸勉(권면)하얏고 平南成川郡(평남성천군)에서 朴濟均(박제균) 李庭脩氏(이정수씨) 等(등) 九人(9인)이 國債報償義濟社(국채보상의제사)를 設立(설립)하고 勸告文(권고문)을 輪佈(륜포)하얏는디 個人個人(개인개인)이 葉錢(엽전) 六兩五錢式(6량5전식)만 出捐(출연)하면 國債(국채)를 必報(필보)하깃다 하얏더라.

1907-04-20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社告(사고)|03면|01단|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通津郡郡內面葛山里(통진군군내면갈산리) 趙成九(조성구) 李聖敎(이성교) 各五十錢(각50전) 李權夏(이권하) 이성천(李聖天) 各拾錢(각20전) 禹相集(우상집) 趙寬敍(조관서) 趙永賢(조영현) 李成一(이성일) 各二拾錢(각20전) 李聖賢(이성현) 安學甫(안학보) 各拾錢(각10전) 趙善一(조선일) 三拾錢(30전) 金龍鶴(김룡학) 二拾錢(20전) 金光雲(김광운) 崔用奇(최용기) 李順命(이순명) 趙成雲(조성운) 各十錢(각10전) 合(합) 三圓拾錢(3환10전)

月余串面位谷里(월여곶면 위곡리) 朴敬云(박경운) 三圓(3환) 金玉根(김옥근) 六拾錢(6

습전) 李海昇(이해승) 林漢喆(림한철) 李鎬雲(이호운) 閔致京(민치경) 金光弼(김광필) 金漢根(김한근) 李鍾九(이종구) 金丙柱(김병주) 各五拾錢(각오습전) 金命根(김명근) 金千吉(김천길) 金丙夏(김병하) 各四拾錢(각40전) 閔丙六(민병육) 李鎬衡(이호형) 盧寬玉(노관옥) 沈鎔柱(심용주) 李基用(이기용) 朴景五(박경오) 申興規(신흥규) 金丙殷(김병은) 朴景秀(박경수) 各卅錢(각삼전) 金寬錫(김관석) 李鎬哲(이호철) 李鎬承(이호승) 洪在信(홍재신) 金鳳學(김봉학) 李慶九(이경구) 李瓚九(이찬구) 李舜九(이순구) 金壽重(김수중) 金黃龍(김황룡) 各二拾錢(각20전) 金樂善(김악선) 廿五錢(5전) 李增(이증) 拾五錢(15전) 金齊鉉(김제현) 林魯(임로)돈 金敬雲(김경운) 崔巨萬(최거만) 李淳用(이순용) 李大用(이대용) 李鎬行(이호행) 金致模(김치모) 金千(김천)돌 金大根(김대근) 金元根(김원근) 金英學(김영학) 李致善(이치선) 金進淑(김진숙) 金在鉉(김재현) 金學日(김학일) 金學演(김학연) 金鳳鉉(김봉현) 盧永遜(노영손) 盧雲伯(노운백) 金大福(김대복) 崔致順(최치순) 李錫崇(이석승) 各十錢(각10전) 合(합) 拾六圓二十錢(16환20전) 울內里(울내리) 韓賢錫(한현석) 韓箕錫(한기석) 林魯鳳(임로봉) 鄭奎賢(정규현) 林德容(임덕용) 各三拾二錢五里(각32전5리) 權德奎(권덕규) 閔丙斗(민병두) 韓龍洙(한용수) 各(각)廿二錢五里(2전5리) 韓致洙(한치수) 閔致行(민치행) 南廷玉(남정옥) 朱福吉(주복길) 張今哲(장금철) 朴福同(박복동) 各十五錢(각15전) 林今出(임금출) 韓春龍(한춘룡) 各五錢(각5전) 朱興福(주흥복) 拾四錢(14전) 合(합) 三圓四十四錢(3환44전) 半伊村面道谷里(반이촌면도곡리) 李庚薰(이경훈) 一圓五拾錢(1환50전) 李庚厚(이경후) 鄭泰源(정태원) 各一圓(각1환) 李奭春(이석춘) 李庚泰(이경태) 李鶴九(이학구) 李明九(이명구) 吳信泳(오신영) 各五拾錢(각50전) 李儀九(이의구) 八拾錢(80전) 李昌九(이창구) 四拾錢(40전) 李啓春(이계춘) 李冕秀(이면수) 李應河(이응하) 各三拾錢(각30전) 李庚元(이경원) 李庚大(이경대) 朴喜貞(박희정) 李和九(이화구) 金順汝(김순여) 柳一能(유일능) 尹振命(윤진명) 鄭萬源(정만원) 金弘昌(김홍창) 朴萬昇(박만승) 各二拾錢(각20전) 李興九大夫人金氏(이흥구대부인김씨) 李庚薰室內金氏(이경훈실내김씨) 李儀九室內金氏(이의구실내김씨) 鄭龍澤大夫人李氏(정룡택대부인이씨) 鄭龍業大夫人朴氏(용업대부인박씨) 各五十錢(각50전) 李奭春室內全氏(석춘실내전씨) 李鶴九大夫人(이학구대부인) 李氏(이씨) 各拾五錢(각15전) 李明九大夫人(이명구대부인) 李氏(이씨) 十錢(10전) 合(합) 十三圓(13환) 以上合(이상합) 新貨(신화) 三十五圓七十四錢(35환74전) <중략> 金額(금액)을 本社(본사)에 收入(수입)지 아니하면 姓名(성명)을 廣告에 掲載(게재)치 아니함.

1907-04-23 國債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國債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通津郡大坡面陶馬山大村里兩洞中(통진군대포면도마산대촌리랑동중) 合(합) 當五(당오) 三百五十兩(350냥) 廣州初月面新丹里(광주초월면신단리) 朴性大(박성대) 三十兩(30냥) 朴백산(朴伯山) 二十五兩(25냥) 朴永植(박영식) 三十兩(30냥) 朴春和(박춘화) 十五兩(15냥) 朴性信(박성신) 朴性基(박성기) 朴時和(박시화) 金俊同(김준동) 各五兩(각5냥) 朴德和(박덕화) 二十兩(이십량) 朴性民(박성민) 十兩(10냥) 朴性珠(박성주) 十五兩

(15냥) 朴復和(박복화) 三十兩(30냥) 朴性和(박성화) 朴性俊(박성준) 朴敎和(박교화) 各二十兩(각20냥) 徐相信(서상신) 卮 琴瑞(금서) 各十兩(각10냥) 棼(합) 新貨(신화) 五圓五十錢(5환오10전) <중략> 金額(금액)을 本社(본사)에 收入(수입)지 아니하면 姓名(성명)을 廣告에 揭載(게재)치 아니함.

1907-04-26 國債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通津郡所伊浦面沙也老里(통진군소이포면사야로리) 洪採(홍채) 一圓(1환) 宋旻勉(송선면) 四十錢(40전) 宋頌萬(송령만) 卅錢(3전) 洪晁裕(홍면유) 宋澤勉(송택면) 權近壽(권근수) 宋來萬(송래만) 呂東善(여동선) 各二拾錢(각20전) 宋鍾萬(송종만) 李琮(이종) 李俊植(이준식) 李春植(이춘식) 洪泰厚(홍태후) 洪寧厚(홍녕후) 金允三(김윤삼) 宋直勉(송직면) 洪明裕(홍명유) 各拾錢(각습전) 棼(합) 新貨(신화) 三(3)환 六拾錢(60전) <중략>

1907-04-27 國債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通津半伊面佛堂洞(통진반이면불당동) 金聚燮(김취섭) 李龍培(이룡배) 各六十錢(각60전) 徐壽東(서수동) 三十錢(30전) 韓必淳(한필순) 朴昌義(박창의) 許基錫(허기석) 李元植(이원식) 吳永根(오영근) 洪淳燮(홍순섭) 李敬心(이경심) 趙致萬(조치만) 各二拾錢(각20전) 李仲三(이중삼) 拾錢(습전) 金敬先(김경선) 洪英杓(홍영표) 各五錢(각5전) 棼(합) 新貨(신화) 四(4)환 二拾環(20경) <중략> 金額(금액)을 本社(본사)에 收入(수입)지 아니하면 姓名(성명)을 廣告에 揭載(게재)치 아니함.

1907-05-03 國債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金浦郡邑內北邊里(김포군읍내북변리) 朴容義(박용희) 四(4)환 吳順基(오순기) 二圓(2환) 宋春根(송춘근) 四拾錢(40전) 이윤구 三十錢(30전) 鄭善在(정선재) 孫仲元(손중원) 崔永順(최영순) 金良汝(김량여) 金桂弘(김계홍) 金致植(김치식) 石學先(석학선) 高近成(고근성) 孔尙根(공상근) 各 廿錢(전) 朴 東奎(동규) 朴順秉(박순병) 黃石元(황석원) 洪應岳(홍응악) 張汗益(장한익) 張學植(장학식) 孔(공)들 伊(이) 各拾錢(각습전) 棼(합) 九(9)환 二拾錢(20전)

西邊里(서변리) 崔亨默(최형묵) 二(2)환 金元白(김원백) 五拾錢(50전) 黃仁植(황인식) 四拾錢(40전) 金永玄(김영현) 朴동근 (朴東根) 朴윤배(朴允培) 各 三十錢(30전) 宋官心(송관심) 金允先(김윤선) 朴 春三(춘삼) 朴聖交(박성교) 金石化(김석화) 各 二十錢(20전) 鄭云日(정운일) 十五錢(15전) 黃召史(황소사) 朴順興(박순흥) 朴善明(박선명) 金德化(김덕화) 高春實(고춘실) 各二拾錢(각20전) 金春學(김춘학) 黃春順(황춘순) 金聖在(김

성재) 朴聖世(박성세) 權聖存(권성존) 各十錢(각10전) 張元植(장원식) 金潤萬(김윤만) 趙台順(조태순) 各五錢(각5전) 朴順明(박순명) 二拾錢(20전) 合(합) 六(6)환 八十錢(80전)

內面坎井里(내면감정리) 李云京(이운경) 文致成(문치성) 各五十錢(각50전) 李元凡(이원범) 金永實(김영실) 各四拾錢(각40전) 李云先(이운선) 李近先(이근선) 趙致三(조치삼) 李君先(이군선) 劉昌西(류창서) 金順元(김순원) 各卅錢(각30전) 朴聖三(박성삼) 李元根(이원근) 朴性培(박성배) 權善良(권선량) 李点山(이점산) 各(各)廿錢(전) 金興西(김흥서) 李元甫(이원부) 李永根(이영근) 劉興元(유흥원) 金致順(김치순) 李云成(이운성) 劉化先(유화선) 李凡律(이범률) 曹致文(조치문) 徐奉九(서봉구) 各拾錢(각10전) 合(합) 五(5)환 六十錢(60전)

甕井里(옹정리) 李炳益(이병익) 鄭斗鉉(정두현) 金仁鉉(김인현) 各一(1)환 金教周(김교주) 六拾錢(60전) 李元植(이원식) 金台鉉(김태현) 各五拾錢(각50전) 鄭晉鉉(정진현) 四拾錢(40전) 李台植(이태식) 三拾錢(30전) 金仁洙(김인수) 鄭志彦(정지연) 鄭志英(정지영) 金春植(김춘식) 印俊男(인준남) 各二拾錢(각20전) 李權弘(이권홍) 李學奎(이학규) 李教植(이교식) 李基東(이기동) 李英植(이영식) 鄭七星(정칠성) 李範植(이범식) 李允淵(이윤연) 金辰三(김진삼) 李錫圭(이석규) 李權一(이권일) 鄭志奭(정지석) 金炳昭(김병소) 鄭履鉉(정리현) 鄭禹鉉(정우현) 金光鉉(김광현) 金敬鉉(김경현) 金斗鉉(김두현) 張德有(장덕유) 金秉植(김병식) 金重鉉(김중현) 李基萬(이기만) 文成甫(문성보) 金九鉉(김구현) 各拾錢(각10전) 合(합) 八(8)환 七拾錢(70전)

石閒面場基里(석한면장기리) 沈榮澤(심영택) 二(2)환 五拾錢(50전) 沈能哲(심능철) 梁龍甲(양용갑) 沈雨澤(심우택) 曹秉日(조병일) 金晉用(김진용) 金晉文(김진문) 各五拾錢(각50전) 車興順(차흥순) 成煥壽(성환구) 沈能九(심능구) 李庚奉(이경봉) 崔石甫(최석보) 李玉山(이옥산) 各二十錢(각20전) 金靑山(김청산) 四拾錢(40전) 金在鉉(김재현) 拾錢(10전) 合(합) 七(7)환 二拾錢(20전)

高昌里(고창리) 沈雲澤(심운택) 二(2)환 沈能淳(심능순) 一(1)환 五拾錢(50전) 沈成澤(심성택) 李文相(이문상) 徐德弘(서덕홍) 各一(각1)환 沈仁澤(심인택) 沈兢澤(심경택) 各五拾錢(각50전) 申德均(신덕균) 沈冕澤(심면택) 沈能範(심능범) 沈建澤(심건택) 各四拾錢(각40전) 沈能一(심능일) 三拾錢(30전) 申鉉五(신현오) 李孝免(이효면) 沈能璿(심능선) 沈熙之(심희지) 沈文澤(심문택) 申赫均(신혁균) 各二拾錢(각20전) 李思格(이사격) 沈能赫(심능혁) 沈友澤(심우택) 沈相壽(심상구) 李應元(이응원) 沈相耆(심상기) 沈能述(심능술) 申仁均(신인균) 洪元燮(홍원섭) 沈相億(심상억) 柳道一(류도일) 朴卜成(박복성) 張順學(장순학) 徐弘伊(서홍이) 宋大門(송대문) 各十錢(각10전) 合(합) 拾二圓拾錢(12환10전)

雲游下里(운유하리) 李康益(이강익) 一圓(1환) 李芳儀(이방의) 七拾錢(70전) 李聖日(이성일) 四拾錢(40전) 梁柱逸(양주일) 趙敏植(조민식) 各三拾錢(각30전) 李錫亨(이석형) 李明宇(이명우) 黃光淵(황광연) 黃泰淵(황태연) 柳東根(유동근) 李錫範(이석범) 各(各)

廿錢(전) 金敏濟(김민제) 十五錢(15전) 趙鍾元(조종원) 金思慶(김사경) 柳培根(유배근) 李德潤(이덕윤) 柳誼(유의) 各拾錢(각10전) 合(합) 四圓五十五錢(4환55전)

淸水洞(청수동) 金元錫(김원석) 八拾二錢五里(82전5리) 李源昌(이원창) 金福孫(김복손) 金順集(김순집) 金士凡(김사범) 金振燮(김진섭) 各四拾錢(각40전) 金士執(김사집) 六拾錢(60전) 金昌範(김창범) 五拾錢(50전) 金永道(김영도) 申雲景(신운경) 各三拾錢(각30전) 尹公憲(윤공헌) 金永信(김영신) 金奉汝(김봉여) 金永七(김영칠) 金景春(김경춘) 李泰云(이태운) 各二拾錢(20전) 金連甫(김련보) 車俊植(차준식) 金順汝(김순여) 金順謙(김순겸) 金順京(김순경) 各拾錢(각10전) 合(합) 六圓(6환) 廿二錢五里(2전5리)

雲陽里(운양리) 盧春三(노춘삼) 金明燮(김명섭) 金興守(김흥수) 各五十錢(각50전) 陶深汝(도심여) 洪景章(홍경장) 金永守(김영수) 金應澤(김응택) 各四拾錢(각40전) 金景植(김경식) 韓重三(한중삼) 金石甫(김석보) 朴聖根(박성근) 鄭泰順(정태순) 陶興辰(도흥진) 金成根(김성근) 金應汝(김응여) 金應有(김응유) 金德守(김덕수) 李德(이덕) 陶致公(도치공) 陶興植(도흥식) 李順去(이순거) 李成彦(이성언) 金應凡(김응범) 李學均(이학균) 陶致葉(도치엽) 金應大(김응대) 陶致正(도치정) 金德信(김덕신) 李德基(이德基) 金應早(김응조) 李道弘(이도홍) 金景萬(김경만) 洪斗賢(홍두현) 金(김) 安(안) 趙永三(조영삼) 申石均(신석균) 金應奎(김응규) 盧(노) 甫(보) 李致根(이치근) 各二拾錢(각20전) 嚴聖璧(엄성벽) 廿五錢(5전) 陶興奎(도흥규) 拾五錢(15전) 李德昭(이덕소) 李自進(이자진) 鄭致三(정치삼) 金春興(김춘흥) 陶致云(도치운) 陶學汝(도학여) 各十錢(각10전) 合(합) 拾圓五拾錢(10환50전)

泉峴里(천현리) 沈忠植(심충식) 一(1)환 五拾錢(50전) 李義宗(이의종) 一圓(1환) 趙存忠(조존충) 李孝淳(이효순) 李能文(이능문) 沈倫(심륜) 辛輔善(신보선) 金大卿(김대경) 沈允植(심윤식) 各五拾錢(50전) 任昌鎬(임창호) 李亨淳(이형순) 朴俊鐵(박준철) 李仁淳(이인순) 李義賢(이의현) 朴永化(박영화) 各三拾錢(각삼십전) 金泰容(김태용) 李商燮(이상섭) 李能哲(이능철) 高學先(고학선) 各(각) 廿五錢(5전) 沈永植(심영식) 金淳卿(김순경) 李義河(이희하) 沈駿植(심준식) 任基準(임기준) 沈燾駿(심혁준) 申玄守(신현수) 李順學(이순학) 各二十錢(각20전) 沈東植(심동식) 李能善(능선) 柳光烈(유광렬) 沈寅植(심인식) 任永鎬(임영호) 沈榮植(심영식) 李能善(이능선) 辛承五(신승오) 李鎭河(이진하) 辛台善(신태선) 李載明(이재명) 沈庸植(심용식) 各十錢(10전) 合(합) 十一(11)환 六十錢(60전)

馬山面大谷里(마산면대곡리) 鄭萬鍾(정만중) 愼鳳成(신봉성) 愼龍成(신룡성) 鄭東默(정동묵) 安炳喜(안병희) 李相河(이상하) 申潤永(신윤영) 各二拾錢(각20전) 李慶燮(이경섭) 五拾錢(50전) 李相彦(이상언) 三拾錢(30전) 李基榮(이기영) 李斌燮(이빈섭) 柳致德(유치덕) 柳泰賢(유태현) 柳鳳九(유봉구) 鄭志元(정지원) 各(각) 廿錢(전) 安賢植(안현식) 三十錢(30전) 申基永(신기영) 鄭志益(정지익) 各五拾錢(각50전) 申極永(신극영) 正昌默(창묵) 李秉應(이병응) 李建祥(이건상) 鄭志華(정지화) 鄭聖鉉(정성현) 申雨永(신우영)

申政秀(신정수) 李建容(이건용) 鄭在珠(정재주) 鄭在斗(정재두) 愼學成(신학성) 鄭膺鍾(정응중) 鄭顯鍾(정현중) 李在禧(이재희) 鄭志喆(정지철) 鄭在亨(정재형) 鄭在寅(정재인) 朴利秉(박이병) 金昌順(김창순) 各拾錢(각10전) 梁柱邦(양주방) 十五錢(15전) 鄭志仁(정지인) 五錢(5전) 申氏門中(신씨문중) 申明善(신명선) 申膺善(신응선) 申宅善(신택선) 各二十錢(각20전) 申止善(신지선) 十五錢(15전) 申右永(신우영) 四拾錢(40전) 申夏永(신하영) 十錢(십전) 申華永(신화영) 廿五錢(5전) 申哲永(신철영) 廿錢(전) 申興均(신흥균) 五拾錢(50전) 合(합) 九圓十五錢(9환15전)

葛梅洞洞中(갈매동동중) 二(2)환 五十錢(50전)

不老里(불로리) 金學仁(김학인) 二(2)환 文景守(문경수) 李景植(이경식) 文允巨(문윤거) 朴公先(박공선) 各一(1)환 文公直(문공직) 八拾錢(80전) 文永植(문영식) 文致山(문치산) 文永西(문영서) 各六拾錢(각60전) 朴聖交(박성교) 文潤白(문윤백) 各五拾錢(각50전) 朴聖七(박성칠) 文致云(문치운) 朴致西(박치서) 文公植(문공식) 文建實(문건실) 朴聖汝(박성여) 文春基(문춘기) 文應順(문응순) 文致順(문치순) 各三十錢(각30전) 朴聖九(박성구) 朴公眞(박공진) 朴公圭(박공규) 金淳先(김순선) 文公三(문공삼) 文潤甫(문윤보) 各二拾錢(각20전) 趙致言(조치언) 金永順(김영순) 文氏山(문씨산) 姜文玉(강문옥) 文公西(문공서) 朴春心(박춘심) 徐士凡(서사범) 李春三(이춘삼) 文且(문차) 둘 文良甫(문량보) 金而先(김이선) 朴聖云(박성운) 文連景(문련경) 林景云(임경운) 文致守(문치수) 文公白(문공백) 趙致化(조치화) 林永文(임영문) 趙景煥(조경환) 各十錢(각10전) 合(합) 十五(15)환 四十錢(40전)

頤角里(돈각리) 李炳大(이병대) 五十錢(50전) 鄭基祿(정기록) 三拾錢(30전) 李基亨(이기형) 尹亮燮(윤량섭) 尹理燮(윤이섭) 金重和(김중화) 李占石(이점석) 鄭致文(정치문) 各二拾錢(각20전) 金白舜(김백순) 五錢(5전) 合(합) 二圓五拾錢(2환50전)

黔丹面安東浦(검단면안동포) 金龍澤(김용룡택) 尹相鉉(윤상현) 方明甫(방명보) 各一圓(일환) 方明甫夫人金氏(방명보부인김씨) 六十錢(60전) 金景有(김경유) 金顯昌(김현창) 各一(1)환 許萬燁(허만엽) 金應西(김응서) 各六拾錢(각60전) 許江(허강) 趙景三(조경삼) 元永先(원영선) 趙奉祚(조봉조) 金興植(김흥식) 孫聖權(손성권) 鄭喜順(정희순) 各五十錢(각50전) 吳善益(오선익) 尹用三(윤용삼) 千順元(천순원) 鄭喜先(정희선) 金汗甲(김한갑) 鄭長(장순) 各四十錢(각40전) 金春五(김춘오) 三拾五錢(35전) 金云先(김운선) 崔局先(최국선) 金士元(김사원) 安德甫(안덕보) 崔永春(최영춘) 各三拾錢(각삼십전) 金元植(김원식) 崔奉云(최봉운) 各(각) 廿五錢(5전) 金元化(김원화) 鄭德三(정덕삼) 鄭德咸(정덕함) 裴甫年(배보년) 李德順(이덕순) 尹文順(윤문순) 金尙彦(김상언) 李萬(이만순) 李分甫(이분보) 尹元三(윤원삼) 李永守(이영수) 李石突(이석돌) 李曾玉(이증옥) 朴元和(원화) 劉準燮(유준섭) 各二拾錢(20전) 各拾八(각18)환 五錢(5전)

金谷里(금곡리) 李汝道(이여도) 李이운 甫(보) 李致三(이치삼) 各五拾錢(각50전) 李長有(이장유) 李春道(이춘도) 各四十錢(각40전) 金義道(김의도) 李石玄(이석현) 各三拾錢

(각30전) 李在道(이재도) 李敬信(이경신) 金尹三(김윤삼) 李上奉(이상봉) 李致(이치)순  
李致交(이치교) 李春元(이춘원) 朴淳官(박순관) 各(각)廿錢(전) 金春山(김춘산) 拾錢(10  
전) 合(합) 四圓六十錢(4환60전) (未完(미완))

<중략>

四月十五日國債報償(4월십5일국채보상)광고中(중) 安山月谷面一里洞(안산월곡면일리동)  
各八圓二十錢中(각8환20전중) 李鍾元(이종원) 五圓(5환)이 漏落(루락)이고 龍仁水眞面亭  
坪里(룡인수진면정평리) 李近陽(이근양)을 以朴近陽(이박근양)으로 正誤(정오)함.

1907-05-04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社告(사고)|03면|01단|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金浦郡(김포군) 續(속)

黔丹面小旺吉里(검단면소왕길리) 李善文(이선문) 四拾錢(40전) 李善在(이선재) 三拾錢  
(30전) 李善浩(이선호) 李德根(이덕근) 李幸順(이행순) 李化一(이화일) 各二拾錢(각20  
전) 李善官(이선관) 李因文(이인문) 姜元才(강원재) 各十錢(각10전) 合(합) 一圓八十錢  
(1환80전)

麻田里(마전리) 李世容(이세용) 一圓(1환) 洪秉悌(홍병제) 五拾錢(50전) 洪義燮(홍의  
섭) 洪夏燮(홍하섭) 洪在範(홍재범) 金疇壽(김주수) 各四十錢(각40전) 洪秉五(홍병오)  
洪信燮(홍신섭) 洪智燮(홍지섭) 李昉容(이방용) 李時容(이시용) 李順男(이순남) 李敬九  
(이경구) 金完吉(김완길) 林永石(임영석) 金連奉(김련봉) 韓景石(한경석) 許汗石(허한  
석) 許三禮(허삼례) 梁泰煥(양태환) 各二十錢(20전) 洪慶燮(홍경섭) 李箕燮(이기섭) 李  
晉容(이진용) 李俊應(이준응) 許汗祿(허한록) 金石俊(김석준) 田福萬(전복만) 金芝樂(김  
지악) 金學同(김학동) 各十錢(각10전) 合(합) 六(6)환 八十錢(80전)

旺吉里(왕길리) 李年實(이년실) 金永安(김영안) 各五拾錢(각50전) 李順巨(이순거) 李化  
春(이화춘) 李順元(이순원) 各四拾錢(40전) 鄭辰五(정진오) 金景先(김경선) 權聖三(권  
성삼) 李順明(이순명) 各卅錢(각3전) 李順寬(이순관) 鄭氏同(정씨동) 李景實(이경실) 李  
景弼(이경필) 李文能(이문능) 各二拾錢(각20전) 鄭在潤(정재윤) 李淳祚(이순조) 鄭春先  
(정춘선) 金景七(김경칠) 金敬化(김경화) 各拾錢(각10전) 合(합) 四(4)환 九拾錢(90전)

左洞(좌동) 梁柱七(양주칠) 申在祿(신재록) 申錫夏(신석하) 崔學教(최학교) 各五拾錢  
(각50전) 梁錢洙(양전수) 梁柱三(양주삼) 各卅錢(각3전) 申泰益(신태익) 金在永(김재영)  
梁柱表(양주표) 朴順京(박순경) 吳俊成(오준성) 張承賢(장승현) 趙先根(조선근) 各(각)  
廿錢(전) 梁宣洙(양선수) 權君先(권군선) 各十五錢(각15전) 梁智煥(양지환) 梁柱天(양주  
천) 申泰白(신태백) 各拾錢(10전) 朴永淑(박영숙) 十六錢(16전) 合(합) 四(4)환 七十六  
錢(76전)

如來里(여래리) 梁文煥(양문환) 梁柱雲(양주운) 各五十錢(각50전) 梁明煥(양명환) 申亨  
善(신흥선) 各三拾錢(각30전) 金命根(김명근) 二拾錢(20전) 梁一煥(양일환) 梁柱鶴(양주

학) 梁鳳煥(양봉환) 申學善(신학선) 安用根(안용근) 李才根(이재근) 各拾錢(각10전) 合(합) 二(2)환 四十錢(40전)

廬長面元堂里(노장면원당리) 金道欽(김도흠) 五拾錢(50전) 韓聖敎(한성교) 安喜喆(안희철) 各四拾錢(각40전) 朴才元(박재원) 柳俊成(유준성) 各三十錢(각30전) 金在欽(김재흠) 朴順興(박순흥) 各 廿錢(전) 金益欽(김익흠) 金重益(김중익) 安德喆(안덕철) 安許東(안허동) 尹所回(윤소회) 各 拾錢(10전) 金重淳(김중순) 金麟欽(김린흠) 各拾五錢(각15전) 合(합) 三(3)환 拾錢(10전)

古縣內面游峴洞(고현내면유현동) 姜元欽(강원흠) 五拾錢(50전) 許炷(허주) 三拾錢(30전) 姜敬欽(강경흠) 許潤(허윤) 許有(허유) 姜鳳欽(강봉흠) 各二拾錢(각20전) 姜龍欽(강룡흠) 韓益河(한익하) 許勳(허훈) 許煌(허황) 各拾錢(각10전) 合(합) 二(2)환

仙壽洞(선수동) 申泰悌(신태제) 申道均(신도균) 各一(각1)환 申泰孝(신태효) 申泰善(신태선) 洪建華(홍건화) 黃友仁(황우인) 各(각)廿錢(전) 申鉉卿(신현경) 申龍均(신룡균) 金重奎(김중규) 金重熙(김중희) 金重雲(김중운) 黃明熙(황명희) 各拾錢(각10전) 合(합) 三(3)환 四拾錢(40전)

新里(신리) 金景集(김경집) 柳允瑞(유윤서) 各一(각1)환 廿錢(전) 金禮集(김례집) 金鎮亨(김진형) 各一(각1)환 鄭德汝(정덕여) 七拾錢(70전) 柳永西(유영서) 金喆熙(김철희) 各 六拾錢(60전) 柳希俊(유희준) 五拾錢(50전) 金英集(김영집) 李建一(이건일) 洪在德(홍재덕) 各四拾錢(각40전) 柳用官(유용관) 三十錢(30전) 金致俊(김치준) 李景俊(이경준) 李建植(이건식) 趙順學(조순학) 金元順(김원순) 張煥明(장환명) 金君善(김군선) 金春心(김춘심) 各(각)廿錢(전) 金明集(김명집) 鄭春一(정춘일) 柳興奎(유흥규) 金重集(김중집) 金永心(김영심) 鄭 化善(정화선) 各拾錢(각10전) 柳寬瑞(유관서) 六十錢(60전) 合(합) 十一圓十錢(11환10전)

石閒面鉢山里(석한면발산리) 杜根壽(두근수) 九十錢(90전) 金近培(김근배) 三十錢(30전) 杜元交(두원교) 杜云先(두운선) 金德有(김덕유) 全同先(전동선) 金 聖云(김성운) 杜元善(두원선) 杜根實(두근실) 杜根俊(두근준) 金訓才(김훈재) 全福突(전복돌) 金訓德(김훈덕) 各(각)廿錢(전) 杜元益(두원익) 十五錢(15전) 全同彦(전동언) 金順汝(김순여) 田文植(전문식) 全聖有(전성유) 各十錢(각10전) 金聖云(김성운) 五錢(오전) 合(합) 三圓八十錢(3환80전)

以上並合(이상병합) 一百七十八圓二十三錢(178환23전)

五里內一百七十四圓先納餘四圓二十三錢五里未收(5리내174환선납여4환23전5리미수) (完(완)) <중략> (未完(미완))

廬衛局局出身廳浪壽康(호위국국출신청량수강) 等(등) 七十五人(75인) 書記(서기) 一人(1인) 各十錢式(각10전식) 合(합) 七圓六拾錢(7환60전)

1907-05-08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社告(사고)|03면|01단|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金浦郡黔丹面束沙串里(김포군검단면속사곶리)

沈俊(심준)식 一圓(1환) 沈律(심율) 金錫殷(김석은) 李敎高(이교설) 梁澤華(양택화) 權常五(권상오) 權光允(권광윤) 權德五(권덕오) 各五拾錢(각50전) 李聖模(이성모) 拾錢(10전) 權學洙(권학수) 柳在九(유재구) 李炳模(이병모) 金錫完(김석완) 各二拾錢(각20전) 柳魯麟(유로린) 權炳錫(권병석) 李頡壽(이영수) 李召史(이소사) 各拾錢(각10전) 梁在龜(양재구) 二拾錢(20전) 合(합) 新貨(신화) 六圓(6환)

<중략>

通津郡月余串面鳥山峴里(통진군월여곶면조산현리)

林在鳳(임재봉) 林璉相(임련상) 舊貨(구화) 拾元(10원)

楊根北面草谷洞石村里(양근북면초곡동석촌리)

李慶世(이경세) 五圓(5환) 李玄謨(이현모) 一(1)환 五拾錢(50전) 金光哲(김광철) 一(1)환 金守大(김수대) 八拾錢(80전) 金萬興(김만흥) 六拾錢(60전) 黃順奉(황순봉) 李漢用(이한용) 朴元石(박원석) 朴允萬(박윤만) 各四拾錢(각40전) 金學日(김학일) 金貴突(김귀돌) 朴先玉(박선옥) 朴聖卜(박성복) 朴四吉(박사길) 朴七星(박칠성) 朴順吉(박순길) 崔光澤(광택) 李碧伊(이벽이) 李老昧(이로매) 鄭奉云(정봉운) 各二拾錢(각20전) 李春晚(이춘만) 李箕俊(이기준) 李聖祿(이성록) 金貴得(김귀득) 李漢祿(이한록) 金順奉(김순봉) 金占成(김점성) 各拾錢(각10전) 李萬石(이만석) 徐守萬(서수만) 各五錢(각5전) 合(합) 新貨(신화) 拾三(13)환 五十錢(50전)

1907-05-17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社告(사고)|03면|01단|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南陽利洞(남양리동) 鄭致雲(정치운) 二十錢(20전) 仁川港內洞(인천항내동) 趙容九(조용구) 一圓二十五錢(1환25전) 通津養元面(통진양원면) 金永燮(김영섭) 一圓(1환) <중략> (未完(미완))

1907-05-25 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社告(사고)|03면|01단|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 通津郡陽陵面溫山里(통진군양릉면온산리) 洪淳珪(홍순규) 一圓(1환) 洪聖規(홍성규) 朴與先(박여선) 各五十錢(각50전) 吳喜永(오희영) 三拾錢(30전) 李永云(이영운) 朴允集(박윤집) 吳善敬(오선경) 李命友(이명우) 李命道(이명도) 洪聖浩(홍성호) 李文在(이문재) 各二拾錢(각20전) 朴德敬(덕경) 洪元七(홍원칠) 洪亨燮(홍형섭) 鄭在福(정재복) 各十五錢(각15전) 合(합) 四圓三十錢(4환30전)

所伊浦面金浦里(소이포면김포리) 張思俊(장사준) 張雲澤(장운택) 各五拾錢(각50전) 趙景顯(조경현) 呂東璇(여동선) 金所回(소회) 金命吉(김명길) 各二拾五錢(각25전) 合(합)

## 二圓(2환)

郡內面郡下里(군내면군하리) 李寅轍(이인철) 五圓(5환) 李命夏(이명하) 李範吉(이범길) 各二圓五拾錢(각2환50전) 朴 商玄(상현) 二(2)환 李萬學(이만학) 五拾錢(50전) 李京龍(이경룡) 金桂完(김계완) 姜萬成(강만성) 各二十錢(각20전) 全京得(전경득) 朴商悅(박상열) 各十錢(10전) 吳允學(오윤학) 白孝鵬(백효봉) 朴宗春(박종춘) 安汝道(안여도) 金弘福(김홍복) 朴今龍(박금룡) 各二十錢(각20전) 金順辰(김순진) 安永順(안영순) 文君哲(문군철) 各拾錢(각10전) 金三龍(김삼룡) 五拾錢(50전) 朴漢珏(박한각) 李 富成(이부성) 金喜昌(김희창) 田義善(전의선) 各二拾錢(각20전) 吳允德(오윤덕) 金奉駿(김봉준) 吳鍾基(오종기) 李志學(이지학) 全益成(전익성) 崔連興(최련흥) 各拾錢(각10전) 吳基遠(오기원) 金守永(수영) 朴天奉(박천봉) 朴商舜(박상순) 崔儀俊(최의준) 趙淳奎(조순규) 各二拾錢(각20전) 文義燦(문의찬) 吳奉根(오봉근) 金今山(김금산) 吳秉善(오병선) 金今俊(김금준) 各拾錢(각10전) 吳昌植(오창식) 各 客純(객순) 金士奉(김사봉) 金仲奎(김중규) 各二拾錢(각20전) 玄致三(현치삼) 高銀孫(고은손) 吳英植(오영식) 李元永(이원영) 車義石(차의석) 尹福萬(윤복만) 劉元實(유원실) 朴商範(박상범) 金義相(김의상) 朴商鎭(박상진) 崔大元(최대원) 各十錢(10전) 合(합) 新貨(신화) 二拾圓三拾錢(20환30전)

### 郡內面高陽浦(군내면고양포)

朴圭秉(박규병) 一圓(1환) 朴大秉(박대병) 朴泰秉(박태병) 朴大遠(박대원) 李炳斗(이병두) 朴彝秉(박이병) 各 五拾錢(50전) 李秀漢(이수한) 六十錢(60전) 閔丙泰(민병태) 四十錢(40전) 李時淵(이시연) 朴民秉(박민병) 朴鼎秉(박정병) 尹應鎭(윤응진) 李根命(이근명) 李炳泰(이병태) 李根翼(이근익) 安漢默(안한묵) 李聖薰(이성훈) 李鍾觀(이종관) 李根奭(이근석) 柳燦(유찬) 李鍾鎭(이종진) 李 鳳漢(이봉한) 尹建永(윤건영) 尹成南(윤성남) 林學洙(임학수) 李南薰(이남훈) 李奇奉(이기봉) 金奉雲(김봉운) 李炳浩(이병호) 李炳龍(이병룡) 嚴順兼(엄순겸) 各二十錢(각20전) 閔商植(민상식) 張驥相(장기상) 崔順石(최순석) 李炳老(이병로) 李炳天(이병천) 各三拾錢(각30전) 李德薰(이덕훈) 許迄(허홀) 朴容德(박용덕) 朴容哲(박용철) 各十錢(각10전) 李卓薰(이탁훈) 五錢(5전) 合(합) 拾一(11)환 五錢(5전)

都合(도합) 新貨(신화) 三拾七圓六拾五錢(37환65전)

### 春川郡西上面盤松下里(춘천군서상면반송하리)

閔冀顯(민기현) 一圓(1환) 成樂韶(성악소) 鄭 泰淵(태연) 各(각)廿錢(전) 李在萬(이재만) 閔致淳(민치순) 黃永大(황영대) 金鳳林(김봉림) 李二突(이이돌) 申聖玉(신성옥) 金石伊(김석이) 文正老未(문정로미) 趙戊星(조무성) 各十錢(각10전) 申鳳學(신봉학) 廿錢(전) 趙庚辰(조경진) 卅錢(3전) 合(합) 新貨(신화) 二圓八十錢(2환80전)

1907-05-27 강화 대운동 경황 [황성신문]|外報(외보)|01면|04단|

○江華大運動景況(강화대운동경황)

現今(현금) 教育家(교육가)로 第一指屈數(제일지굴수)하는 普昌學校長(보창학교장) 李東暉氏(이동휘씨)가 江華郡內(강화군내)에 所有(소유)한 普昌學校(보창학교)와 各里各村(각리각촌)에 所在支校(소재지교) 三拾二校(32교)와 鄰近各郡公私立學校(정근각군공사립학교) 合(합) 三十八校(38교)에 公函(공함)하여 春期聯合大運動(춘기연합대운동)을 開(개)하는디 學徒(학도)가 一千一百八十餘名(1,180여명)이오 女學徒(여학도)가 二十餘名(20여명)이라 本月二十一日(본월21일)에 東門外鍊兵場(동문의련병장)에다 設場(설장)하고 運動科目二十二條(운동과목이십이조)를 次第(차제) 設行(설행)하는디 來賓(래빈)은 京鄉有志紳士(경향유지신사)가 咸集(함집)하였고 女賓(녀빈)이 亦不下數千人(역부하수천인)이오

帳幕布陳(장막포진)의 具備(구비)함과 茶果食料(다과식료)의 豐足(풍족)함은 本郡內贊成諸員(본군내찬성제원)과 耶蘇敎會(야소교회)와 義務社諸氏(의무사제씨)의 誠心誠力(성심성력)이 自然團體(자연단체)를 成立(성립)한 所以(소이)라 各項(각항) 競走(경주)의 運動(운동)을 十科(십과)에 纔過(재과)하여 忽然(홀연) 天陰雨下(천음우하)하여 勢不得停止(세불득정지)解散(산)하는지라 當場(당장)에 각 學徒父母(학도부모)가 此天然的殺風景(차천연적살풍경)을 十分(10분) 愛惜(애석)하여 一齊(일제)히 會所(회소)에 口舌(구설)로 請願(청원)하기를 今既雨注廢會則(금기우주폐회칙) 來日待天晴(래일대천청)하여 繼續了畢(계속료필)하자 하며 會中認可(회중인가)를 得(득)한 後(후)에 一般(일반) 來賓(래빈)과 各處學徒(각처학도)의게 夕飯(석반)과 朝飯等(조반등) 食料饌品(식료찬품)을 分掌(분장)하며 市陳物品(시진물품)을 達宵把守(달소파수)하여 翌日(익일) 繼行(계행)하였스니 子孫(자손)의 學務(학무)를 爲(위)하여 如彼(여피)한 誠意(성의)는 令人欽歎不已者(령인흠탄불이자)라 該運動科程中(해운동과정중) 新發明(신발명)한 科目(과목)은 防禦攻擊(방어공격)이니 十歲內外(십세내외)된 學徒(학도) 一百名(100명)을 抄出(초출)하여 五十名式(50명식) 分作兩小隊(분작량소대)하고 一小隊(일소대)는 砲隊帽子肩章服裝(포대모자견장복장)을 着(착)하여 大砲(대포) 一坐(일좌)를 左右列(좌우렬)로 繩(승)을 牽(견)하며 該小隊長(해소대장)이 執刀領率前進(집도령솔전진)케 하였고 一小隊(일소대)는 步兵帽子笠前毛(보병모자립전모)를 插(삽)하며 步兵肩章(보병견장)에 曲號兵(곡호병) 一雙(일쌍)이 該小隊長(해소대장)을 隨(수)하여 前進(전진)하였고 又十五歲內外學徒(우십오세내외학도) 六十名(육십명)은 輕裝(경장)을 着(착)하고 靑紅巾(청홍건)으로 頭部(두부)를 裹(과)하여 最後列(최후렬)이 되어 決死隊貌(결사대모)樣을 하였고 二十歲內外學徒(이십세내외학도) 十名(10명)은 赤十字票(적십자표)를 右臂(우비)에 付(부)하며 擔輿器具(담여기구)를 持(지)하고 該旗號(해기호)를 隨行(수행)하였는디 敵陣形勢(적진형세)는 運動場一邊(운동장일변)에 學徒(학도) 五十名(오십명)이 一城(일성)을 擁護(옹호)한 모양이오 城內高壘(성내고루)에 敵將(적장)이 一旗(일기)를 執(집)하고 號令挑戰(호령도전)하며 外面(외면)에는 學徒(학도) 二百名(이백명)이 一字長蛇陣(일자장사진)을 開(개)하였더라 小焉(소언)에 兩陣(량진)에서 砲聲(포성)이 連發(련발)하여 一場(일장)을 酣鬪(감투)할 際(제)에 砲隊(포대)에서 遠距離(원거리)로 大砲(대포)를 發射(발사)하되 敵勢(적세)가 堅固(견고)하여 卒莫衝突(졸막형돌)터니 後列決死隊(후렬결사대)가 一齊蜂

擁而來(일제봉용이래)하며 長蛇陣(장사진)을 破潰(파괴)케 하며 敵壘護兵(적루호병)을 殺散(살산)하고 敵旗(적기)를 拔取(발취)할식 一邊(일변)에서는 赤十字軍(적십자군)이 死傷兵(사상병)을 擔去(담거)하고 一邊(일변)에서는 捕虜兵(포로병)을 結縛捉來(결박착래)해야 一場大戰鬪(일장대전투)를 經過(경과)한 후에 萬歲三唱(만세삼창)하고 軍歌(군가)를 唱(창)하며 一陣將卒(일진장졸)이 各各受賞而歸(각각수상이귀)하였스니 可謂稀罕(가위희한)한 運動科程(운동과정)일너라

當日上午二時(당일상오이시)에 各樣(각양) 運動二十二條(운동이십이조)를 畢(필)한 후에 茶果(다과)를 進(진)하고 演說會(연설회)를 開(개)하니 男女老少(남녀로소)와 各處學徒(각처학도)가 萬數(만수)에 洽滿(흡만)한디 言壇(언단)을 周圍(주위)하여 整齊(정제)히 坐定(좌정)한 후 職員演說(직원연설)은 魚鎔善氏(어용선씨)요 來賓演說(래빈연설)은 廬伯麟(려백린) 姜祖源(강조원) 劉元杓(유원표) 三氏(삼씨)요 婦人演說(부인연설)은 許氏(허씨)가 하였는디 傍聽人中(방청인중) 通津居(통진거) 前參判(전참판) 李寅轍氏(이인철씨)가 今年(금년) 六旬(육순)인디 言權(언권)을 請得(청득)하여 演說(연설)을 하였는디 今日(금일) 國家(국가)의 如此悲境(여차비경)을 當(당)함은 政府(정부)의 暗弱(암약)과 人民(인민)의 蒙昧(몽매)함이라고 一場痛論(일장통론)한 즉 滿場一致(만장일치)로 喝采(갈채)하기를 如彼(여피)한 老宰(로재)의 健康(건강)은 世所稀罕(세소희한)이여니와 我朝縉紳章甫(아조진신장부)가 多數(다부)하였더면 國勢(국세)가 此境(차경)에 不至(불지)하였스리라고 하였고 劉元杓氏演說中(유원표씨연설중)에 曰(왈)한디 余(여)가 今春(금춘) 聯合大運動(연합대운동)을 三處(삼처)에 參觀(참관)하였는디 平南二十三郡大運動(평남이십삼군대운동)에는 有志人士(유지인사)의 團體力(단체력)이 可敬(가경)할 비오 訓練院公私學徒大運動(훈련원공사학도대운동)에는 規則方範(규칙방법)이 可敬(가경)할 비오 此江華大運動(차강화대운동)에는 人力物品(인력물품)이 可敬(가경)할 비라 하였더라 演說(연설)을 畢(필)한 후에 李東暉氏(이동휘씨)가 登壇(등단)하여 餘興(여흥)이라고 四十二件(42건)의 遊戲(유희)를 하고 散會(산회)하였다더라.

1907-05-29 志士義捐(지사의연)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志士義捐(지사의연)

通津郡主事(통진군주사) 金東赫氏(김동혁씨)가 補助金(보조금) 一圓(1환)과 求禮郡(구례군) 趙龍夏氏(조룡하씨)가 金一圓(김일환)을 本社(본사)에 寄付(기부)하였더라.

1907-06-11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馬山港基督教會中(마산항기독교회중) 李敏中等(이민중등) 第二回十二圓七十錢(제2회12환70전) 豐基四部面長善里(풍기사부면장선리) 吳昌永(오창영) 一(1)환 全面(동면) 黃永瓚(황영찬) 二十錢(20전) 司畜洞四十四統(사축동44통) 崔九淵(최구연) 一(1)환 麻田郡內面三華里(마전군내면삼화리) 李教哲(이교철) 一(1)환 漢城日語學校內同窓會(한성일어학교내동창회) 二(2)환 五拾錢(50전) 高山東面山川里(고산동면산천리) 河(하)창 泰(태) 一

(1) 환 永興減飯會(영흥감반회) 이 氏(씨) 二(2) 환 巡洞(순동) 宋秉燮祖母崔氏(송병섭조 모씨) 一(1) 환 金浦各面四月十六日收送額(김포각면4월16일수송액)

五月四日(5월4일) 廣高中(중) 一百七十八圓二十三錢五里(178환23전5리) 內不足條(내부 족조) 四圓(4환) 廿三錢五里(3전5리)

金浦黔丹面新里(김포검단면신리)

李周賢(이주현) 五拾錢(50전) 金天命(김천명) 四拾錢(40전) 李象漢(이상한) 李 德賢(이 덕현) 金命福(김명복) 各三十錢(각30전) 李象膺(이상응) 朴洪鎭(박홍진) 李象濂(이상렴) 李象寬(이상관) 李 周云(이주운) 各二拾錢(각20전) 李象瀟(이상로) 拾五錢(15전) 李建春(이건춘) 金龍參(김룡참) 各拾錢(각10전) 合(합) 新貨(신화) 三圓拾五錢(3환15전)

金浦(김포)검단면반월촌 부인 三十一人(31인) 池씨 덕촌 부인 二十一人(21인) 池씨 봉화촌 부인 十一人(11인) 池씨 덕소왕길리 부인 十八人(18인) 池씨 통진황기울중말상룡식말 부인 三十六人(36인) 池씨 구레골 이귀중씨부인김씨 二拾錢(20전) 南정용씨덕부인허씨 五拾錢(50전) 合(합) 新貨(신화) 二拾圓(20환)

<중략> (未完(미완))

1907-06-11 運動將行(운동장행)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5단 |

○通津郡來人(통진군래인)에 傳說(전설)을 聞(문) 卽則汾南學校長本郡守(칙분남학교장본군수) 趙東善氏(조동선씨)와 私立汾陽學校長沈啓澤氏(사립분양학교장심계택씨)와 贊成長沈能遠三氏(찬성장심능원삼씨)가 公私立聯合大運動(공사립연합대운동)을 本郡長(본군장)임等地(등지)에서 陰五月五日(음5월5일)에 舉行(거행) ggi로 方今極力周旋中(방금극력주선중)이라더라.

▶<잡보>통진군 분남학교(汾南學校) 군수(郡守) 조동선(趙東善)과 사립 분남학교장 심계택(沈啓澤)과 찬성장(贊成長) 심능원(沈能遠)이 서로 모여 음력 5월 5일 통진군 장(長)임 등에서 공사립 연합운동을 열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하다.

1907-06-11 假稱權任(가칭권임)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2단 |

▶<잡보>김포군 임촌면(林村面) 사는 김소사(金召史)의 선산(先山)이 이 마을에 있는데, 인근에 사는 조연삼(趙連三)이 이곳에 입장(入葬)하려는 것을 김석준(金石俊)이 이를 금장(禁葬)하려 하자 조가 문중(門中) 수십명이 김씨를 마구 때리며 억지로 입장하였고, 수십 일 후에는 조씨의 사위 이(李) 주사(主事)가 병으로 앓다가 죽자 김포군 분파소(分派所) 순검(巡檢) 이흥태(李興泰)가 자칭 권임(權任)하고, 산송(山訟)으로 이 주사를 때려 죽였다고 하면서 김씨의 숙질(叔姪) 3명을 붙잡아 가서 여러 날 동안 풀어주지도 않고 경리(警吏)라 하여 사람을 잡아가서 토색(討索)을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다.

1907-06-13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通津月余串面祖江里(통진월여곶면조강리) 里長(이장) 李錫夏(이석하) 等(등) 洞中(동

중) 新貨(신화) 二十一圓(21환)<중략>

1907-06-21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通津郡大坡面藥山里(통진군대과면약산리) 沈星澤(심성택) 四元(4원) 沈駿澤(심준택) 沈宜迪(심의적) 沈宜敬(심의경) 黃秀(황수) 沈霆澤(심정택) 鄭志學(정지학) 各一元(각1원) 沈相禹(심상우) 四十錢(40전) 沈宜敏(심의민) 沈宜榮(심의영) 鄭德民(정덕민) 趙東熹(조동희) 各三拾錢(각30전) 李奎淵(이규연) 沈天澤(심천택) 黃(황)티 沈文澤(심문택) 柳瑢(유용) 金鎮寬(김진관) 金有孫(김유손) 李萬哲(이만철) 金商卜(김상복) 沈相好(심상호) 沈相晉(심상진) 黃和(황화) 金壽鳳(김수봉) 李庸和(이용화) 李春和(이춘화) 沈佑澤(심우택) 沈鳳澤(심봉택) 朴云明(박운명) 蔡奎列(채규렬) 合(합) 二拾錢(20전) 沈龜澤(심구택) 六拾錢(60전) 合(합) 舊貨(구화) 十六元(16원)<중략>

1907-06-28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金浦郡高蘭台面閑基里(김포군고란대면한기리)

韓成教(한성교) 金道汝(김도여) 金益壽(김익수) 各一(각1)환 李義元(이희원) 金應壽(김응수) 金壬孫(김임손) 金漢吉(김한길) 金允用(김윤용) 金山玉(김산옥) 鄭桂山(정계산) 各二十錢(각20전) 金漢奉(김한봉) 十錢(10전) 合(합) 新貨(신화) 四圓五十錢(4환50전) <중략> 金額(금액)을 本社(본사)에 收入(수입)지 아니하면 姓名(성명)을 廣告에 掲載(게재)치 아니함.

1907-06-28 通校運動(통교운동)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2면 | 4단 |

○通津郡公私立兩校(통진군공사립양교)에서 今陰曆端陽日(금음력단양일)의 聯合運動式(연합운동식)을 舉行(거행)하여는대 數百名生徒(수백명생도)의 愈快(유쾌)한 氣像(기상)과 活(활)발한 趣味(취미)는 今人讚揚(금인찬양)할뿐더러 觀光(관광)하는 私塾(사숙)의 學童(학동)도 競走一科(경주일과)로 特參(특참)케 하며 本郡守趙東善氏(본군수조동선씨)가 一體施賞(일체시상)하고 切切勸(절절권)◆하여 教育上觀感(교육상관감)케 함이 足(족)히 一郡(일군)의 模範(모범)이 된다더라.

▶<잡보> 통진군 공사립학교에서 음력 5월 5일에 연합운동회에 학생 수백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고, 군수(郡守) 조동선(趙東善)이 시상(施賞)하고 격려하였다고 하다.

1907-07-02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 社告(사고) | 03면 | 01단 |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국채보상의무금집송인원금액수)

<중략>通津迭田面冬乙山洞(통진질전면동을산동) 姜順會(강순회) 李應漢(이응한) 박 銀甫(은보) 각 一元(1원) 趙存常(조존상) 鄭鳳朝(정봉조) 安永壽(안영수) 趙重華(조중화) 俞明化(유명화) 각 八拾錢(80전) 趙存奎(조존규) 李景九(이경구) 金鳳鉉(김봉현) 각 六

拾錢(60전) 閔建洙(민건수) 李秀凡(이수범) 李眞實(이진실) 趙景良(조경량) 閔商植(민상식) 鄭道源(정도원) 卞春先(춘선) 各 五拾錢(50전) 南勝熙(남승희) 李景心(이경심) 趙景伯(조경백) 趙景三(조경삼) 安永集(안영집) 李應道(이응도) 崔永命(최영명) 各 四拾錢(40전) 李德文(이덕문) 李允漢(이윤한) 各三拾錢(각30전) 韓允一(한윤일) 安永道(안영도) 任召史(임소사) 各二拾錢(각20전) 合(합) 舊貨(구화) 拾六元六十五錢(16원65전)

1907-07-14 분양학교운동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1면 | 04단 |

1907-07-16 汾陽校況(분양교황) [대한매일신보] | 잡보 | 01면 | 6단 |

○通津汾陽學校(통진분양학교)에서 天中佳節(천중가절)에 校長(교장) 趙東善氏(동선씨)가 本郡汾南學校(본군분남학교)와 江華普昌學校學員(강화보창학교학원)을 請(청)하야 郡內長(군내장) 林坪(평)에서 聯合運動(연합운동)을 行(행)하미 三校學員(삼교학원)이 四百餘人(400여인)이요 境內私塾學校(경내사숙학교)가 百餘人(백여인)이라 當日上午八時(당일상오팔시)에 隊伍(대오)가 整列(정렬)하미 郡守兼校長(군수겸교장)이 登壇演說(등단연설)하되 今此三校(금차삼교)가 集合運動(집합운동)함은 只爲親睦(지위친목)이오 且爲習藝(차위습예)니 諸青年(제청년)은 勿以優劣勝負(물이우렬승부)로 爲主(위주)하코 一走二步(일주이보)에 不忘國家思想(부망국가사상)하코 青年諸君(청년제군)이 擔負(담부)가 不輕(불경)하니 一肩(일견)에는 五百年(오백년) 宗社(종사)요 一肩(일견)에는 二千萬生靈(2천만생령)이라 學文(학문)과 實業(실업)을 熱心(열심)하야 世界上(세계상)에 稱譽(칭예)를 希望(희망)하노니 諸名(제명)은 勉旃哉(면전재)여다 汾南校長沈啓澤氏(분남교장심계택씨)가 또 激烈(격렬)하 演說(연설)하미 各校學員(각교학원)과 如雲來集(여운래집)하 觀光者數百名(관광자수백명)이 兩校長(양교장)의 熱心勸學(열심권학)을 感泣(감읍)치아 니리가 無(무)하더라 當日盛況(당일성황)과 諸學員(제학원)의 活潑氣像(활발기상)은 頗有進步之望(과유진보지망)이오 普昌學校長李東暉氏(보창학교장이동휘씨)가 賞品寄附(상품기부)가 不少(불소)하코 經費二百圓(경비이백원)을 郡守(군수)의 殘廩(잔름)으로 充用(충용)하미 郡內大小民(군내대소민)이 莫不稱頌(막불칭송)하코 一年一次式永爲定例(일년일차식영위정례)하즈고 齊聲來懇(제성래간)하얏다더라.

▶<잡보> 통진군 분양학교(汾陽學校)에서 천중가절(天中佳節)에 교장(敎長) 겸 군수(郡守) 趙東善(趙東善)이 동군(同君) 분남학교(汾南學校))와 강화보창학교(江華普昌學校)와 함께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이동회는 적지 않은 상품을 내놓고, 군수는 기부금 200원으로 경비를 충용(充用)하자 대소민(大小民)이 이를 칭송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례화하자고 청하였다고 하다.

1907-07-18 협잡수세자금훈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1907-07-19 畿察又報(기찰우보)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畿察又報(기찰우보)

京畿觀察使(경기관찰사) 崔錫敏氏(최석민씨)가 內部(내부)에 報告(보고)하되 永平郡守(영평군수) 李敎承(이교승) 安城郡主事(안성군주사) 李奎琬(이규완) 金浦郡主事(김포군주사) 朴容珪(박용규) 諸氏(제씨)가 不合資格(불합자격)뿐더러 行政處理(행정처리)에 暗昧時宜(암매시의)하니 卽爲奏免(즉위주면)하라 하였더라.

1907-08-01 標費請求(표비청구)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標費請求(표비청구)

農商工部(농상공부)에서 度支部(도지부)에 照會(조회)하되 陽川郡塔山里(양천군탑산리)로 起(기)하야 金浦郡石串里間一帶船路(김포군석곶리간일대선로)에 淺灘(천단)이 頗多(파다)하기로 標木(표목)을 植立(식립)하야 指名避險(지명피험)케 囑은 船民航路(선민항로)에 大有裨益(대유패익)인 바 光武二三年間(광무이삼년간)에는 本部(본부)에서 該標木(해표목)을 官費(관비)로 植立(식립)하다가 繼行(계행)치 못하였더니 該地附近(해지부근) 人民(인민)이 私自植立(사자식립)하고 酬勞費(수로비)로 來往船舶(래왕선박)에 徵收(징수)하야 弊癘(폐막)이 疊生(첩생)하기에 業自本部(업자본부)로 該徵收稅(해징수세)를 革罷(혁파)인 즉 立標一節(립표일절)은 宜以官費(의이관비)로 辦設(판설)이기 該工役(해공역)을 派員測量(파원측량)한 後(후)에 所入費額(소입비액)을 別紙(별지)에 明細調製(명세조제)하야 照會(조회)하니 該費額(해비액) 四百二十五圓(425환)을 筭外支出(산외지출)하라 하였더라.

1907-08-07 敘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1단|

○敘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免本官(면본관) 金浦郡主事(김포군주사) 朴容珪(박용규) 右(우)는 京畿觀察使(경기관찰사) 崔錫敏(최석민)의 報告書(보고서)를 據(거)한 즉 該員(해원)이 莫念補佐(막념보좌)하고 反爲欺蔽(반위기폐)하야 容私事務(용사사무)에 貽害人民(이해인민)이라 하얏기 是以(시이)로 免本官(면본관) 以上七月三十一日(이상7월31일)

命秘書監卿敘勅任官二等(명비서감경서척임관이등) 判敦寧司事(판돈녕사사) 金宗漢(김종한) <중략> 以上八月二日(이상8월2일)

命奉常司提調敘勅任官二等(명봉상사제조서척임관이등) 宮內府協辦(궁내부협판) 李範九(이범구) △命宮內府協辦敘勅任官二等(명궁내부협판서척임관이등) 法部次官(법부차관) 金玉鉉(김각현) 以上八月三日(이상8월3일)

1907-08-08 勸告免官(권고면관) [황성신문]|잡보|02면|06단|

1907-08-14 강화소식 [대한매일신보]|잡보|02면|04단|

▶<잡보>강화군에서 한일 양국 병사들이 교전하여 많은 살상자(殺傷者)가 발생하였는데, 한병(韓兵)은 요해처(要害處)를 지키면서 김포(金浦) 통진군(通津君)으로 옮겨간 자도 있다고 하다.

1907-08-14 地方消息一束(지방소식일속)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地方消息一束(지방소식일속)

通信管理局長(통신관리국장) 池田十三郎氏(지전십삼랑씨)가 內部警務局(내부경무국)에 通知(통지)하되 江華郡(강화군)에는 九日(9일)에 郵便取扱所長及韓人通譯(우편취급소장 급한인통역)은 共(공)히 乘舟(승주)하고 十一日上午十時(11상오10시)에 龍山(용산)에 到着(도착)하였다

<중략>金浦(김포) 通津(통진)에도 本月十日(본월10일)에 江華隊兵(강화대병) 十餘名(10여명)이 來到通津郡(래도통진군)하야 彈丸(탄환)을 該郡守(해군수)에게 強請(강청)한 즉 該郡守(해군수)는 避身(피신)하였다 金山郡(김산군)에도 人民(인민)이 不穩(불온)한 狀態(상태)가 有(유)함으로 該郡守(해군수)는 辭職(사직)하였다 하얏더라.

1907-08-16 지방정형 [대한매일신보]|사고|03면|03단|

▶<잡보><지방경보(地方警報)> 지난 14일, 강화군에서 탈영한 병정들이 통진군에 들어가 총을 쏘며 양민을 위협하여, 분파소(分派所)에 보관 중이던 총(銃) 10정(挺)과 탄약을 빼앗아 갔고, 의병 40여명이 여주분파소를 습격하였는데, 일본 순사(巡查) 1명이 즉살(即殺)하고, 1명은 일본인 가족을 데리고 원주수비대(原州守備隊)로 갔다한다. 15일 오전 0시경에는 흑의(黑衣)를 입은 한인(韓人) 수십 명이 수원정차장(水原停車場) 부근을 향하여 10여 발의 총을 쏘았는데 수원수비대에서 이들을 추적하였으며, 의병 300명은 무기를 지니고 죽산군(竹山君)에 도착하여 안성군을 습격할 형세이며, 장호원(長湖院)에 거류(居留)하던 일본인 9명이 이를 피해 안성으로 가다가 죽산에서 1명은 피해(被害)되었다 한다.

한편 12일에도 의병 40명이 여주분파소를 습격하여 일본 순사와 3시간 동안 접전(接戰)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상인남녀(商人男女) 10명을 데리고 도망치는 것을 의병들이 추적하여 산골짜기에서 다시 대전(對戰)하다가 날이 저물어 순사들은 산속으로 도주했는데 이들 10여 명의 생사는 알 수 없다고 하다.

1907-08-21 日兵 向金浦(일병 향김포)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日兵向金浦(일병향김포)

仁川港(인천항)에 駐在(주재)하였던 日本守備隊陸軍歩兵少尉(일본수비대육군보병소위) 葛卷常彦氏(갈권상언씨)가 通辯(통변) 一名(일명)과 兵丁(병정)을 領率(령솔)하고 本月十四日(본월14일)에 富平郡(부평군)에 到着(도착)하였다가 金浦郡(김포군)으로 發向(발향)하였다고 富平郡守(부평군수)가 內部(내부)에 報告(보고)하였다더라.

1907-08-30 江華安堵 希望(강화안도 희망)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1907-09-04 軍物輸移報部(군물수이보부)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軍物輸移報部(군물수이보부)

通津郡(통진군)에 在(재)한 軍物(군물)을 江華郡巡檢(강화군순검)이 輸去(수거)하였다  
고 京畿觀察使(경기관찰사) 李圭桓氏(이규환씨)가 內部(내부)에 報告(보고)하였다.

▶통진군에 있는 군물을 강화순검이 수거하였다고 경기관찰사 이규환씨가 내부에 보고하였다.

1907-09-04 군물을 가져가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3단|

▶<잡보> 통진군에 있는 군물(軍物)을 강화순검(江華巡檢)이 모두 훔쳐갔다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내부에 보고하다.

1907-09-09 通津 軍物 運去(통진 군물 운거)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通津軍物運去(통진군물운거)

通津郡(통진군)에 日本少尉(일본소위) 一人(1인)이 兵丁(병정) 八名(8명)과 警部(경부) 一人(1인)과 巡查(순사) 八人(8인)을 率(솔)하고 來到(래도)하여 該郡分派所(해군분파소)에서 保管(보관)하던 毛瑟銃(모슬총) 十九柄(19병)과 火藥(화약)을 盡爲輸去(진위수거)하였다고 京畿觀察使(경기관찰사) 李圭桓氏(이규환씨)가 內部(내부)에 報告(보고)하였다.

1907-09-11 통진적환 [대한매일신보]잡보외방통신|2면|4단|

▶<잡보> 통진·김포군 등에 강도 40여 명이 저마다 총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밤낮으로 재산을 약탈하며 부녀(婦女)를 겁간(劫姦)하고 있음.

1907-09-11 학교유지 [대한매일신보]잡보|03면01단|

○通津郡所在經理院所管屯土(통진군소재경리원소관둔토)를 該郡小學校(해군소학교)에 附屬(부속)하고 校費(교비)를 補用(보용)케 하되 饒富(요부)한 人沈能遠權永圭兩氏(인심능원권영규량씨)로 擔任幹事(담임간사)케 한다더라

▶<잡보> 통진군에 있는 경리원(經理院) 소관 둔토(屯土)를 통진군 소학교에 부속(附屬)하여 교비(校費)를 보용(補用)케 하는데, 요부(饒富) 심능원(沈能遠) 권영규(權永圭)가 관리하게 하다.

1907-09-22 請願封還(청원봉환) [대한매일신보]잡보|03면|1단|

○通津郡守(통진군수) 趙東善氏(조동선씨)는 莅任三載(이임삼재)에 一境(일경)이 賴安(뢰안)은 人所共知(인소공지)어니와 何許人(하허인)이 構虛捏無(구허날무)하여 某報(모보)에 揭載(게재)하였기로 名譽(명예)의 損傷(손상)함을 痛憤(통분)하여 內部(내부)에 辭職請願(사직청원)하였는데 內部(내부)에서도 該(해)씨의 政治(정치)의 嫻熟(한숙)과 教育(교육)에 熱心(열심)함을 洞諒(동량)함으로 該請願狀(해청원상)을 封還(봉환)하였다.

▶<잡보> 통진군수 조동선(趙東善)이 부임한 이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어떤 사람이 조씨를 모함하는 글을 모보(謀報)에 게재(揭載)하자 조씨가 내부(內部)에 사직을 청하였

으나 내부에서 조씨의 공적(功績)을 살펴 사직 청원장(請願狀)을 돌려보냈다고 하다.

1907-10-05 欠逋請刷(흠포청쇄) [황성신문] |잡보|01면|05단|

○欠逋請刷(흠포청쇄)

漢城稅務官(한성세무관) 金敎聲氏(김교성씨)가 度支部(도지부)에 報告(보고)하되 金浦郡守(김포군수) 李性植氏(이성직씨)의 所逋丙午度結戶錢一千二百五十一圓三十錢(소포병오도결호전1,2501환30전)을 督刷(독쇄)하라 하였더라.

1907-10-12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관보|01면|01단|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金浦郡守(김포군수) 李性植(이성직) <중략>

以上十月八日(이상10월8일)

1907-11-05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 |잡보|02면|06단|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중략> △臨津江河岸附近(임진강하안부근)을 討伐次(토벌차) 發向(발향)한 日兵(일병)이 去月二十八日(거월28일)에 通津(통진)에서 義徒(의도) 一百五十名(150명)을 擊退(격퇴)하였더라.

1907-11-17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 |잡보|02면|06단|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本月十日曉頭(본월10일효두)에 銃器(총기)를 携帶(휴대)한 義徒(의도) 十九名(19명)이 漢江下流水路通津郡祖江浦(한강하류수로통진군조강포)에 下陸(하륙)하여 松致洞(송치동)에서 朝飯(조반)을 強請(강청)하고 洞民(동민) 鄭歲汝家(정세여가)에서 錢二十圓(전20환)을 掠奪(략탈)하였다는 急報(급보)를 接(접)하고 一巡檢(일순검)이 江華郡駐在日兵(강화군주재일병)에게 急報(급보)하여 巡檢(순검) 二名(2명)이 該義徒(해의도)에 踪跡探知(종적탐지)한 즉 午後一時半(오후일시반)에 伊村面祖江面(이촌면조강면)에 侵入(침입)하여 車石範氏家(차석범씨가)에서 獵銃諸具(렵총제구) 火藥(화약) 등(등)을 掠奪(략탈)하고 白石峴方面(백석현방면)으로 發向(발향)하였다 하고<중략>

1907-11-27 礦區許可(광구허가) [황성신문] |잡보|02면|05단|

▶<잡보>22일에 통진군 소재 석탄광(石炭鑛 781,003평은 경성사는 상원금삼랑에게 안산군 소재 금광 499,345평은 경성사는 우다야연삼랑에게 허가하였다 한다.

1907-12-01 地方消息(지방소식)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6단|

▶<잡보><지방소식> 3일밤 김포군 임촌면 장촌리에 사는 윤용구(尹用求)의 집에 의병장의 사자(使者)라는 자가 격문(檄文)을 갖고 와서 주인을 유권(誘勸)하고, 4일에는 읍내

민가 두 집에 격문을 첩부(貼付)하였다.

1907-12-01 地方消息(지방소식) [대한매일신보]|잡보|02면|4단|

○<중략>▲水原金浦分派所管(수원김포분파소관)의 義兵大將李某(의병대장이모)라 記名(기명)하고 路傍(로방)의 檄文(격문)을 粘付(점부)함이 如左(여좌)하니 我韓國現狀(아한국현상)을 思維(사유)건티 豈不寒心哉(기부한심재)아 我二千萬同胞(아이천만동포)가 一身同體國(일신동체국)을 守而安民(수이안민)은 人道(인도)의 當然這義務(당연저의무)라 聞金浦(문김포)는 國家(국가)를 不顧(불고)하고 若鼠之日本人(약서지일본인)을 付隨(부수)하고 結稅(결세)를 星火督促(성화독촉)하니 稅金(세금)이 國庫(국고)의 收入(수입)하는 줄노 思想(사상)하는나 汝等(여등)은 日本人(일본인)을 汝之父祖(여지부조)로 思想(사상)하는나 收捧(수봉)하는 面(면)장稅務主事及書記等(세무주사급서기등)을 爲先燒殺(위선소살)할 터고 巡檢李兵泰(순검이병태)은 如何(여하)한 輩(배)인대 日本人(일본인)을 符同(부동)허야 人民(인민)을 壓制(압제)하니 此(차)는 日人(일인)의 種類(종류)라 故(고)로 分派所(분파소)를 屠戮(도륙)할 터고 人民(인민)을 驚動(경동)치 아니할 터이라 金浦(김포)는 耶蘇教徒(야소교도)가 多數(다수)하니 汝衆(여중)이 同謀(동모)허야 爲先國家(위선국가)를 爲(위)허기를 務(무)하고 望(망)허나나 天國(천국)의 往(왕)허기 만 엇지 말허야 반다시 進步(진보)할 道(도)를 講(강)허라 万若不聽(만약불청)이면 倭賊(왜적)을 斬(참)허던 軍刀(군도)로써 邑(읍)의 赤血(적혈)을 濺(천)홀이라 허앗더라.

<중략>

1907-12-14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水原金浦分派所所管內(수원김포분파소소관내)에 義徒大將(의도대장) 李某(이모)라 記名(기명)허야 路傍(로방)에 檄文(격문)을 揭示(게시)허얏는디 其概意(기개의)가 如左(여좌)하니 我國(아국)의 現狀(현상)을 思(사)허면 엇지 寒心(한심)치 아니허리오 二千萬同胞(이천만동포)가 一身同體(일신동체)로 國(국)을 守(수)하고 民(민)을 安(안)함은 人道(인도)의 當然義務(당연의무)어늘 金浦郡(김포군)은 國(국)을 不思(불사)하고 鼠(서)와 如(여)한 日人(일인)의 指使(지사)로 各稅(각세)를 督促(독촉)하니 稅(세)를 徵收(징수)하고 國庫(국고)에 入(입)함으로 思惟(사유)하는지 汝等(여등)은 日本人(일본인)을 父(부)와 祖父(조부)로 認(인)하는지 收捧(수봉)한 面長(면장) 稅務官及書記(세무관급서기)는 爲先燒殺(위선소살)홀지오 且巡檢(차순검) 李興七(이흥칠)은 日本人(일본인)과 符同(부동)허야 人民(인민)을 壓制(압제)하니 此(차)는 日本人種(일본인종)이 아니리오 分派所(분파소)는 未久(미구)에 屠戮(도륙)홀지니 民(민)은 安心(안심)하고 驚愕(경악)지 勿(물)허라 허앗더라.<중략>

1907-12-22 조희문씨 모친 숙부인 전주이씨 [황성신문]|광고|03면|04단|

○趙義聞氏母親淑夫人全州李氏今月二十一日巳時卒逝同月二十四日午前九時發靚于金浦郡

先山(조희문씨모친숙부인전주이씨금월이십일일사시졸서동월이십사일오전구시발인우김포  
군선산)

知舊間照亮(지구간조량)

暮服人(기복인) 趙義淵(조희연)

趙性根(조성근)

1908-01-07 여산군에서 서남으로 10리 되는 땅에 의병 [대한매일신보] |사고|03면|04단|

1908-01-09 본인 사촌 구의범니가 정월분의 무고출타 허야 [황성신문] |광고|03면|04단|

○本人四寸具義範(본인사촌구의범)니가 正月分(정월분)의 無故出他(무고출타)허야 至于  
今十餘朔終無消息(지우금십여삭종무소식)허와 茲以(자이)광고허오니 兪君子(첨군자)은  
此人所在處(차인소재처)을 通奇(통기)허시면 厚謝(후사)허기습  
通津馬松里居具仲範(통진마송리거구중범) 告白(고백)

1908-01-16 정미 음 12월 초 7일 야에 [황성신문] |광고|03면|02단|

○丁未陰十二月初七日夜(정미음십이월초칠일야)에 本人家(본인가)에 賊警(적경)이 有  
(유)헌바 豐德東面興教里伏在八字家字等田三日耕(풍덕동면흥교리복재팔자가자등전삼일  
경)과 本面照門里伏在相字等田一日耕(본면조문리복재상자등전일일경)과 本面宮川里羅字  
半日耕(본면궁천리라자반일경)과 通津郡桑串里伏字鬱字禽字樓字等田二日耕(통진군상곶리  
복자울자금자루자등전이일경)과 畚一石二斗落(답일석이두락)과 通津大坡面千字世字富字  
車字等田二日耕(통진대과면천우세자부자차자등전이일경)과 畚四斗落文記(답사두락문기)  
을 見失故茲以仰告(견실고자이양고)허온니 內外國人間(내외국인간)에 此文記(차문기)는  
休紙遵行(휴지준행)허깃삽

隆熙二年一月十六日(음희2년1월16일)

豐德東面興教里居柳冀台(풍덕동면흥교리거류기태) 告白(고백)

1908-01-16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관보|01면|02단|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任金浦三等(임김포삼등) 通津郡守趙東善(통진군수조  
동선)<중략>

1908-01-19 민씨의 취리양책 [대한매일신보] |잡보|3면|04단

1908-01-21 捐義覓利(연의역리) [대한매일신보] |잡보|02면|5단

▶<잡보> 통진군 유지신사(有志紳士)들이 학교를 세우고 학생 60여 명을 가르치다가 학  
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편에 따라 돈을 모아 교육계(教育契)를 만들었는데, 죽산군 요  
호(饒戶)인 진 참봉(參奉) 민락호(閔樂鎬)가 처음에는 10두(斗)를 내고 참여하였으나 올  
해에는 그 돈이 아까운지 5두만 내고 5두는 장리(長利)로 7두 5승을 돌려주라고 재촉하여

찾아갔다고 하여 사람들이 민씨의 연조(捐助)는 돌려주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고 하다.

1908-02-08 女校成績(여교성적) [황성신문]|잡보|01면|04단|

○女校成績(여교성적) 北署壯洞進明女學校(북서장동진명녀학교)에서 年終學期試驗(년종학기시험)을 經(경)하고 各社會(각사회)의 紳士(신사)와 學徒(학도)의 父兄(부형)이 齊會(제회)하여 其成績(기성적)을 考閱(고열)한 後(후)에 課工(과공)의 進就(진취)됨을 致賀(치하)하고 學界(학계)의 模範(모범)됨을 勸勉(권면)하였스니 其優等生(기우등생)은 三年級(삼년급)의 韓泳達崔龍珠鄭昭君(한영달최룡주정소군)이오 二年級(2년급)의 鄭子英張金順金德性(정자영장김순김덕성)이오 一年級(1년급)의 金養性趙南淑崔蕙卿(김양성조남숙최혜경)이오 預備班朴榮玉(예비반박영옥)인디또 學徒(학도)을 募隻(모척)한다더라.

1908-02-19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

△前副敎員朴喜陽(전부교원박희양) 任公立通津普通學校專科副訓導叙判任官五等(임공립통진보통학교전과부훈도서관임관오등)<중략>

1908-03-15 유시재김포인칠 [황성신문]|잡보|01면|06단|

○有是哉金浦人七(유시재김포인칠) 金浦群(김포군)의 有志紳士(유지신사)들이 國民(국민)의 昏昧(혼매)한 程度(정도)를 覺察(각찰)하고 時勢(시세)의 震蕩(진탕)하는 風潮(풍조)를 推測(추측)하여 郡內人士(군내인사)를 會同(회동)하여 義務敎育(의무교육)을 設始(설시)한기로 決議(결의)하였다니 吾輩(오배)는 該郡人士(해군인사)를 爲(위)하여 感賀(감하)의 情(정)을 表(표)하노라.

1908-03-22 沿海賊警(연해적경) [황성신문]|잡보|02면|06단|

○沿海賊警(연해적경) 江華喬桐通津郡(강화교동통진군)에서 挽近海賊(만근해적)이 大熾(대치)에 十數成群(십수성군)하여 沿邊(연변)으로 來往(래왕)하는 商船(상선)을 執留或奪財(집류혹탈재)하는 弊(폐)가 種種有之(종종유지)함으로 附近警察署及憲兵隊(부근경찰서급헌병대)에서 現今戒嚴(현금계엄)하는 中(중)이라더라.

▶<잡보>강화 교동 통진군에서 해적이 무리를 이루어 나타나 연변으로 내왕하는 상선을 집류(執留) 혹 탈재(奪財)하는 폐가 종종 있어 부근경찰서 및 헌병대에서 현재 엄히 경계하는 중이라 하다.

1908-03-31 獵夫被害(렵부피해)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獵夫被害(렵부피해) 本月二十日頃(본월20일경)에 通津郡鳳上里(통진군봉상리)에서 義徒十餘名(의도10여명)이 過去(과거)하다가 適其時(적기시)에 行獵(행렵)하는 日本人一名(일본인1명)을 殺(살)하였다더라.

1908-04-01 近畿賊警(근기적경)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近畿賊警(근기적경) 挽近畿內(만근기내)에 賊警(적경)이 大熾(대치)한다 各報館(각보관)에 無日不揭(무일불게)어니와 傳說(전설)을 據(거)흔즉 金浦通津富平等郡(김포 통진부평등군)에 賊漢(적한)輩가 各持銃鎗(각지총삼)하고 村間(촌려)에 橫行(횡행)하야 人民(인민)의 貧富(빈부)를 無論(무론)하고 威脅奪產(위협탈산)하며 或農牛(혹농우)를 牽去(견거)하며 甚至於畝五斗落所有者(심지어답오두락소유자)에게 脅迫(협박)하기를 二斗五升落(이두오승락)은 耕食(경식)하고 其餘二斗五升落(기여이두오승락)은 放賣(방매)하야 余(여)에게 納(납)하라하더라니 當此農時(당차농시)하야 人民(인민)의 情況(정황)이 若是困難(약시곤난)하니 地方警察(지방경찰)은 此(차)를 不知(불지)하느니 知(지)하고 不問(불문)하느니.

1908-04-02 汾陽闡明(분양천명)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汾陽闡明(분양천명) 趙東善氏(조동선씨)가 通津郡守(통진군수)로 在任時(재임시)에 學校(학교)를 設立(설립)하고 一境(일경)을 勸勉(권면)하기로 汾陽學校(분양학교)는 學員六十餘人(학원륙십여인)의 工課(공과)는 熱誠修業(열성수업)하고 一境(일경)이 薰化(훈화)하야 汾南學校(분남학교)가 成立(성립)되고 陽陵面(양릉면)에 申鍾協氏(신종협씨)와 郡內(군내)에 巡檢白孝元氏(순검백효원씨)가 樵童四五十人式募集(초동사오십인식모집)하야 夜學(야학)을 設施(설시)하기로 境內(경내)에 閒遊(한유)하느니 兒童(아동)이 無(무)하고 教育(교육)이 漸次興旺(점차흥왕)하더라.

1908-04-09 김포의무교육 [해조신문]

▶김포군에 유지신사들이 국민의 혼매한 정도를 개탄이 여겨 일향신사를 회동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더라

1908-04-15 沿江騷擾(연강소요)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잡보>통진군 조강리에 사는 정성여씨는 가세가 초요한데 일전에 명칭 의도가 수십명이 총검을 갖고 돌입하여 정성여와 이장을 잡아가 풍덕에 이르러 정성여에게 팔천냥을 토하고 또 기천냥을 능봉하며 동장에게는 동리에서 일만냥을 즉납하라고 수표를 봉하였다 하고 또 강화 산리포에도 수십명이 들어와 장씨와 이장을 잡아가 기천냥을 토색함은 알지 못하나 장씨도 부유한 사람이라 한다.

1908-04-18 본인이 상년 11월 10일 봉적지시에 [황성신문]|광고|03면|01단|

1908-04-23 정씨집의요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4단

1908-05-12 施賞還送(시상환송)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施賞還送(시상환송) 通津郡 汾陽學校(통진군 분양학교)의 生徒三十餘名(생도삼십여

명)이 各官私立學校聯合大運動會(각관사립학교연합대운동회)에 參加(참가)하기 爲(위)하야 昨日上來(작일상래)하얏는디 學部大臣(학부대신)이 說明(설명)하기를 地方學校生徒(지방학교생도)는 運動會(운동회)에 參加(참가)치못하기로 指飭(지칙)도 有(유)흐썬더러 浮費(부비)만 空生(공생)하느것이 不無(불무)하니 卽爲還下去(즉위환하거)하라하얏고 鉛筆及空冊等物(연필급공책등물)로 賞與(상여)하얏다더라.

1908-05-13 訓導論駁(훈도론박)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訓導論駁(훈도론박) 通津郡公立普通學校(통진군공립보통학교)에서 今番聯合大運動會(금번연합대운동회)에 參加(참가)하기 爲(위)하야 該校訓導(해교훈도)가 學徒(학도)를 領率(영솔)하고 再昨日(재작일)에 上京(상경)하얏더니 學部(학부)에서 言(언)하기를 地方學校(지방학교)에서는 運動(운동)에 參與(참여)함이 空費(공비)가 甚多(심다)함으로 上來(상래)치 勿(물)하라고 業已指飭(업이지칙)하얏거날 指飭(지칙)을 不遵(불준)하고 何爲上來(하위상래)하얏는지 既爲上來(기위상래)하얏스즉 賞品(상품)이나 授與(수여)하야 下送(하송)하라고 鉛筆及空冊等物(연필급공책등물)로 施及(시급)흐즉 該訓導(해훈도)가 賞品(상품)은 領受(령수)흐 必要(필요)가 無(무)하다하야 還納(환납)하고 曰訓導(왈훈도)로 上官(상관)에게 言語(언어)를 不恭(불공)이함은 事體(사체)에 有違(유위)하나 既(기)히 訓導(훈도)를 退職(퇴직)하기로 作定以上(작정이상)에야 何言(하언)을 敢諱(감휘)하리오하고 學部(학부)를 大端論駁(대단론박)하얏더니 學部(학부)에서 該訓導(해훈도)를 免官(면관)하라고다가 姑爲中止(고위중지)하고 參加(참가)하라고하얏다더라.

1908-05-14 畿湖興學校(기호흥학교)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畿湖興學校(기호흥학교) 畿湖興學會(기호흥학회)에서 通津郡公立普通學校學徒(통진군공립보통학교학도)를 勞問(로문)하고 金四圓(김사환)을 寄付(기부)하야 食費(식비)에 助用(조용)하라고하얏다더라.

1908-05-14 別設運動(별설운동)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別設運動(별설운동) 學部(학부)에서 永柔郡學徒及通津郡學徒(영유군학도급통진군학도)가 今番運動會(금번운동회)에 上來(상래)하얏슴으로 此學徒(차학도)를 規則(규칙)에 有碍(유애)하다하야 本會(본회)에 參加(참가)치못하고 運動(운동)을 畢(필)후 後(후)에 別(별)노히 運動(운동)을 設(설)하고 體操(체조)와 其他數科(기타수과)를 舉行(거행)후 後施賞(후시상)하얏다더라.

1908-05-15 송별 분양학교 학도 [황성신문]|논설|02면|01단|

1908-05-15 午饌後勸諭(오찬후권유)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午饌後勸諭(오찬후권유) 今日上午十二時(금일상오12시)에 興士團(흥사단)에서 通津郡公立普通學校(통진군공립보통학교)와 該郡私立汾陽學校(해군사립분양학교)와 永柔郡私立

李花學校(영유군사립이화학교)의 任員諸氏及學員一同(임원제씨급학원일동)을 勞問(로문)하기 爲(위)하야 公函(공함)을 發送(발송)하얏더니 通津郡兩學校(통진군량학교)는 昨已發還(작이발환)하故(고)로 永柔學校(영유학교)만 請邀(청요)하야 午饌(오찬)을 接待(접대)하고 學問的(학문적)으로 勸諭(권유)하얏다더라.

1908-05-15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황성신문]|잡보|02면|06단|

○地方消息一通(지방소식일통)

<중략>△本月九日(본월9일)에 金海分遣所憲兵(김해분견소헌병)이 通津郡古里串面黃洞附近(통진군고리곶면황동부근)에서 義徒二十餘名(의도20여명)과 二十分間交戰(20분간교전)하얏다하고△本月八日(본월8일)에 日兵(일병)이 信川郡斗羅坊新興村南方(신천군두라방신흥촌남방)에서 義魁閔孝植等二十餘名(의괴민효식등20여명)과 交戰(교전)의얏다더라.

1908-05-16 분남학교 참례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3단|

1908-05-17 江華學校運動(강화학교운동)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1908-05-17 趙氏勸學(조씨권학)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趙氏勸學(조씨권학) 趙義淵氏(조희연씨)가 通津普通學徒(통진보통학도)에게 訪問勸(방문권)獎(상)하고 紙石板與石筆一枚式分給(지석판여석필일매식분급)하야 歡迎(환영)하는 情(정)을 表(표)하얏다더라.

1908-05-24 초평상지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2단|

1908-05-26 義兵消息(의병소식) [해조신문]|제76호|

▶평양에 일헌병대가 수안군 방면으로 향하다가 도중에서 三四十(30-40)명 의병을 만나 3-4차례 교전하여 피차 사상이 있으며 의병은 수산과 대성삼을 근거하여 3백여 명씩 수삼처에 둔취하였다 한다.

성현군에 의병 30여 명이 습래하여 탁지부 재무조사국 출장소를 총화하여 공문과 가옥을 일절 불사르고 통역 3-4인을 총살하였다 한다.

청안군으로부터 청주 방면으로 발송하는 체전부를 청주군 일면 산세에서 의병 三十(30)명이 돌출하여 방총하므로 호위병 수명이 즉사하고 재물을 탈취하였다 한다.

풍천군 운산면 청룡도에서와 순흥군 영식면 조양리에서와 양양군에서와 고성군 서방차호에서와 삼등군 동방 십리지에서와 흥천군 마치령에서와 광주군 북방 사암리에서와 통천군 장임리에서와 통진군 향관면에서와 배천군 송성면에서와 이천군 광차동에서와 삭령군 남방 이리지에서와 진주군 서방 구리지에서와 영덕군 북방 이리지에서 三四十(30-40)명, 육칠십 명(60-70명), 一二백 명(100-200명), 三사백 명(300-400명), 오륙백 명(500-600명)까지 되는 의병들이 일헌병과 일 순사와 일 수비대로 접전하여 다수한 사상

이 났다 한다.

1908-06-09 분교운동 성황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汾校運動盛況(분교운동성황) 通津郡公立汾陽學校(통진군공립분양학교)에서 本月三日(본월3일)에 本郡馬松里東坪(본군마송리동평)에서 境內各學校(경내각학교)와 江華金浦諸學校合十三校(강화김포제학교합십삼교)가 會集(회집)하여 聯合大運動(연합대운동)을 設行(설행)하고 十八科目(십팔과목)을 次第(차제)로 舉行(거행)하였는데 學員(학원)이 六百二十人(620인)이오 觀光男女(관광남녀)가 人山人海(인산인해)을 成(성)하여 數三萬名(수삼만명)에 過(과)한지라 金浦郡女學徒(김포군녀학도)는 妹娣送旗箒術穿針諸科目(매제송기산술천침제과목)을 爭先競走(쟁선경주)하니 觀光人(관광인)이 莫不稱贊(막불칭찬)하고 防禦攻擊(방어공격)을 舉行(거행)할제 賊兵(적병)이 西北方(서북방)에 據(거)하였거날 砲兵一隊(포병일대)는 西南方(서남방)으로 衝突(충돌)하여 大砲(대포)로 射擊(사격)하고 步兵二隊(보병이대)는 東南(동남)으로 襲擊(습격)하여 一時半(일시반)를 酣戰(감전)할 時(시)에 衛生隊(위생대)는 赤十字旗(적십자기)를 高舉(고거)하고 負傷兵(부상병)을 擔救(담구)하며 勝負(승부)를 未決(미결)하더니 決死隊(결사대)가 南方(남방)으로서 突擊(돌격)하여 賊陳(적진)을 攻破(공파)함되 砲烟(포연)이 漲天(창천)하고 喊聲(함성)이 動地(동지)러니 太極旗(태극기)가 半空(반공)에 颺揚(양)하며 萬歲聲(만세성)이 中天(중천)에 震動(진동)하는지라 綠陰(록음)은 滿地(만지)하고 芳草(방초)는 如烟(여연)하되 凱旋歌(개선거)를 齊唱(제창)하고 軍樂隊(군악대)가 前導(전도)하니 學生(학생)에 勇敢(용감)한 氣概(기개)와 觀光人(관광인)의 欣慕(흔모)하는 狀況(상황)이 實是盛舉也(실시성거야)오 其中有志(기중유지)한 人(인)이 義捐金(의연금)을 各出(각출)하여 數百元(수백원)에 達(달)하였다니 此郡此舉(차군차거)는 眞個盛況(진개성황)이라고 觀光人(관광인)이 來傳(래전)하더라.

1908-06-16 본월 6일 봉화군에서 이강년 의병 [대한매일신보]|사고|03면|04단|

▶본월 9월에 김포군 남방사리허에서 의병 60명이 일헌병 5명과 충돌하였다 한다.

1908-06-27 수적피착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4단|

▶통진군 동리에 사는 김봉룡 등 3명은 본시 유명환 도적이는데 경시청에서 잡아 심사한 후에 한성재판소로 이송하였다더라.

1908-06-27 통진군 도적 [대한매일신보]|잡보외방통신|2면|04단|

▶통진군 반이촌면 마송리에사는 전주사 홍종선의 집에 도적 8명이 총을 가지고 지난 23일 상오 1시경 돌입하여 은비녀, 은가락지와 지폐 20여환을 가져가고 또 그 동리 윤씨 집에 돌입하여 20여환어치를 도적하여 갔다는데 도적이 해당 군에 근일 대치한다더라.

1908-06-27 通津賊警(통진적경)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通津賊警(통진적경) 通津來信(통진래신)을 據(거)흔즉 去二十日頃(거이십일경)에 後郡米伊村面馬松里居前主頃洪鍾宣氏家(후군미이촌면마송리거전주경홍중선씨가)에 賊徒八人(적도팔인)이 各持銃劔(각지총일)하고 乘夜越牆突入(승야월장들입)하야 銀指環一雙(은지환일쌍)과 銀簪一雙(은잠일쌍)과 紙貨二十餘圓(지화20여환)을 奪去(탈거)하고 隣居沈氏家(린거심씨가)에 又入(우입)하야 紙貨六十圓(지화육십환)을 抑奪以去(억탈이거)하얏다더라.

1908-07-16 통진소식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5단|

▶통진군에 의병장은 전 군수로 있던 사람인데 그 고을에 들어와서 인민을 다수 유인하여 지금 큰 단체를 이루었는데 그 고을에 있는 순사 주재소 한일순사를 살해하겠다하더라.

1908-07-23 분교시험 [대한매일신보]|잡보외방통신|02면|04단

▶통진군 사립분양학교에서 제2회 하기 시험을 치렀는데 일반 우등생은 이인선 등 3인이오, 2반 우등생은 성순기 등 3인이다.

급대성은 이규용 등 20인이오 3반 우등생은 심상근 등 15인인데 차례로 상품을 주고 일장 권면을 하였다더라.

1908-07-26 女校擴張(여교확장) [황성신문]|잡보|01면|06단|

○女校擴張(녀교확장) 北壯洞進明學校內(북장동진명학교내)에 女中學校(녀중학교)를 建築(건축)하고 女子中中學校(여자중중학교)에 合格(합격)흔 者(자)를 多數(다수)히 募集(모집)하고 小學校生徒(소학교생도)와 幼穉科生徒(유치과생도)도 限二百名養成(한200양성)하기로 寄宿舍(기숙사)와 教室(교실)를 準備(준비)한다더라.

1908-08-12 사린학회 발기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5단|

▶사린학회발기

김포, 통진, 양천, 부평 등 4군에 사는 유지신사들이 청년교육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린흥학회를 조직하고本月 16일 상오 10중에 김포군 명륜당 안에서 개회식을 한다더라.

1908-08-14 夫人恤孤(부인恤고) [황성신문]|잡보|01면|06단|

1908-09-02 통진학생 친목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通津學生親睦(통진학생친목) 通津郡(통진군)에서 汾陽汾南兩校生徒(분양분남량교생도)와 在京遊學(재경유학)하는 同郡各處學員(동군각처학원)이 親(친)睦會(회)를 組織(조직)하얏는디 申泰赫金容雲黃完秀諸氏(신태혁김용운황완수제씨)가 發起(발기)하니 趣旨書(취지서)가 如左(여좌)하더라.

夫國家富強(부국가부강)은 在於社會之進步(재어사회지진보)오 社會進步(사회진보)는 在

於人心之團合(재어인심지단합)이오 人心團合(인심단합)은 在於學生之親睦(재어학생지친목)호느니 親者(친자)는 志氣(지기)를 親密(친밀)호야 衆人相和之誼也(중인상화지의야)오 曉者(자)는 交義(교의)를 敦篤(돈독)호야 同胞相愛之義也(동포상애지의야)라 凡我汾鄉學生(범아분향학생)은 或奔馳於京師(혹분치어경사)호며 或遠遊海外(혹원유해외)호고 或負笈於他校(혹부급어타교)호야 同志而不同學(동지이불동학)호고 同學而不同居(동학이불동거)호야 有意未遂(유의미수)에 隻掌難鳴(척장난명)호야 逮于今日(체우금일)에 寂無一會之設立(적무일회지설립)호고 又無一次之聯合(우무일차지련합)호니 然則其爲同窓之誼(연척기위동창지의)에 豈非一欠事也哉(기비일흠사야재)아 今以有志諸君(금이유지제군)이 嘆於斯感於此(탄어사감어차)호야 創設一會(창설일회)호니 名之曰汾鄉學生聯合親(명지왈분향학생련합친)曉會也(회야)라 茲以謹告于一境(자이근고우일경)호오니 同學僉彦(동학첨언)은 實心贊成(실심찬성)호야 同樂(동란)圖席(석)에 舊交(구교)를 敦(돈)曉호며 新智(신지)를 討論(토론)호야 使我鹵學莽蔑(사아로학망멸)로 有益於蓬麻之直(유익어봉마지직)호며 有効於附驥之遠(유효어부기지원)호야 後日社會(후일사회)의 文明發達(문명발달)을 是務(시무)호야 國家(국가)의 自主獨立(자주독립)을 是望(시망)호오니 惟吾同學諸公(유오동학제공)은 勉旃勉旃(면전면전)이어다.

1908-09-06 거월 26일 온정원에서 의병40명이 일본군 [대한매일신보]|사고|03면|03단|  
 ▶거월 26일 통진군에서 의병 30여명이 이천경찰서 순사들과 헌병으로 더불어 접전중이라고 한다.

1908-09-10 銃丸誤發(총환오발)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銃丸誤發(총환오발) 本月二日(본월2일)에 交河郡(교하군)에 駐在(주재)호 憲兵補助員三名(헌병보조원삼명)과 日兵一名(일병일명)이 通津郡(통진군)에 暴徒(폭도)가 闖入(뜸입)호았다는 說(설)을 聞(문)호고 馳往(치왕)호즉 該徒(해도)는 他處(타처)로 發向(발향)호지라 該補助員一行(해보조원일행)이 該郡(해군)에서 留宿(류숙)호는디 卒然(졸연)히 暴徒(폭도)가 入(입)호다고 來告(래고)호거날 補助員一行(보조원일행)이 該徒(해도)를 襲擊(습격)호 次(차)로 出(출)호다가 銃丸(총환)이 誤發(오발)호야 補助員曹致衡氏(보조원조치형씨)는 卽時中丸被殺(즉시중환피살)호고 日兵(일병)은 面部(면부)를 被傷(피상)호았다더라.

1908-09-16 본월 1일 강원도 김성가임 주막에서 [대한매일신보]|사고|03면|04단|

▶거월29일 경기도 통진군 조강리에서 30여명 의병은 일헌병과 헌병보조원과 접전하였다.

1908-09-18 國債金乾沒(국채금건몰)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國債金乾沒(국채금건몰) 傳說(전설)을 據(거)호즉 通津郡古里申面長林玄洙氏(통진군고리곶면장림현수씨)가 昨年四月分(작년4월분)에 該內碎岩里洞中(해내쇄암리동중)의 國

債報償金(국채보상금)을 乾沒(건몰)한 事(사)로 該洞中人民(해동중인민)과 現今爭詰中(현금쟁힐중)이라더라.

1908-09-24 女校針工科(여교침공과) [황성신문] |잡보|01면|05단|

○女校針工科(녀교침공과) 北壯洞進明學校內(북장동진명학교내)에 針工科(침공과)를 設置(설치)하고 學生(학생)을 見習(견습)키 爲(위)하야 一等善手針工(일등선수침공)을 雇聘(고빙)하야 內外國紳士(내외국신사)의 各色洋服(각색양복) 禮服(례복) 平常服(평상복) 軍服(군복) 學徒服裝(학도복장)을 請求(청구)하는디로 廉價(렴가)로 迅速(신속)히 隨應(수응)한다더라.

1908-10-20 단발하라고 신칙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2단|

▶ 단발하라고 신칙

김포군수 조동선씨가 경내 인민을 단발케할 생각으로 각 면이장을 불러서 엄히 시칙하고 면장과 이장은 당연히 단발하고 각 이장은 각각 자기 동리 인민을 단발케하라고 지시하였다.

1908-10-30 분양교 졸업식 [대한매일신보] |잡보|3면|02단|

▶ 분양학교 졸업식

통진분양학교에서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우등생에 김영배, 신태혁 등 3명이고 일어와 산술의 속성과에 심정택, 임용우 등 16인데 상품을 나눠준다고 한다.

1908-11-01 礦業認可(광업인가) [황성신문] |잡보|02면|04단|

○礦業認可(광업인가) 去月二拾一日(거월이십일일)부터 廿六日(입6일)까지 礦業認可(광업인가)함이 左(좌)와 如(여)하니 平安南道价川郡北面黑鉛鑛二萬六千二百四拾力坪(평안남도개천군북면흑연광이만륙천이백사십력평)은 平安北道寧邊郡居留平澤壽三郎(평안북도녕변군거류평택수삼랑)과 金興烈等(김흥렬등)에게 京畿道通津郡月餘串面石炭鑛九十四萬九千四百五拾六坪(경기도통진군월여곶면석탄광구149,456평)은 京城居金永彥(경성거김영언)에게 黃海道海州郡代飲面砂金鑛九萬九千六百四拾坪(황해도해주군대음면사김광구19,640평)은 黃海道甕津郡居留杉材小一郎同郡居金奉右許德天等(황해도옹진군거류삼재소일랑동군거김봉우허덕천등)에게 許可(허가)하였더라

1908-11-05 兩倅轉任(양졸전임) [황성신문] |잡보|02면|02단|

○兩倅轉任(양졸전임) 京畿觀察使(경기관찰사)의 報告(보고)를 因(인)하야 開城郡守沈鍾舜氏(개성군수심중순씨)는 通津(통진)으로 轉任(전임)되고 其代(기대)에는 陽川郡守洪在箕氏(양천군수홍재기씨)가 轉任(전임)된다는 說(설)이 有(유)하더라.

1908-11-05 川合於浦(천합어포) [황성신문] |잡보|02면|02단|

○川合於浦(천합어포) 內部(내부)에서 京畿陽川郡(경기양천군)은 金浦郡(김포군)으로

合併(합병)한다더라.

1908-11-12 郡守奏本(군수주본) [황성신문]|잡보|02면|02단|

○郡守奏本(군수주본) 內部(내부)에서 觀察使(관찰사)의 薦報(천보)를 因(인)하여 郡守十餘窠(군수십여과)를 奏本(주본)하였는디 其氏名(기씨명)이 如左(여좌)하니 長興朴在圭(장흥박재규)·咸平金在錫(함평김재석)·麗水金鍾然(려수김종휴)·定平朱(정평주)우·通津沈鍾舜(통진심중순)·開城洪在箕(개성홍재기)·安邊崔達斌(안변최달빈)·北靑金璣泳(북청김기영)·甲山薛泰熙(갑산설태희)·文川徐廷淑(문천서정숙)·永興李昌郁諸氏等(영흥이창욱제씨등)이더라.

1908-11-13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관보|01면|02단|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任通津郡守叙奏任官三等(임통진군수서주임관삼등) 開城郡守沈鍾舜(개성군수심중순)<중략>

1908-11-24 辭金取義(사김취의)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1908-11-25 경기합군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1단|

▶경기합군

경기도의 각 군을 합병하는데 김포군은 양천군으로 고양군은 교하군으로 과천군은 시흥군으로 마천군은 적성군으로 합군한다고 한다.

1908-12-02 본인이 금음력11월초6일 [황성신문]|광고|03면|01단|

○本人(본인)이 今陰曆十一月初六日三湖通津主人南麟祐處當錢四千七百七十六兩於音闕失故茲以(금음력11월초6일삼호통진주인남린우처당전사천칠백칠십륙량어음서실고자이)광고 하오니 內外國人間誰某拾得(내외국인간수모습득)이라도 休紙施行(휴지시행)함 南門米塵李潤植(남문미전이윤직) 告白(고백)

1908-12-02 또 내어 주었다 [공립신보]|01면|05단|

▶10월 21일로 26일까지 일인에게 광산을 허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략>경기도 통진군 월곶면에 있는 석탄광 949,456평은 일인 금영언일에게 나눠주고 <중략>

1908-12-08 일병 행패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2단|

1908-12-09 水路逢賊(수로봉적)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水路逢賊(수로봉적) 甕津郡龍湖島(옹진군룡호도)에居(거)하느 延順燮等十名(연순섭등십명)이 去月二十四日(거월24일)에 仁川(인천)에서 歸鄉(귀향)하느 迪通津浦(통진포)에서

四名(4명)의海賊(해적)을 逢(봉)하야 所帶(소대)한 金八拾餘圓(금80여환)을被奪(피탈)하얏다더라.

1908-12-11 강군파영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4단 |

▶강화군에서 의병소요를 지낸후로 일병 200명이 그 고을에 내려가서 전선을 설치코자하여 장릉에 있는 소나무를 작별하고 김포, 양천, 통진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심게한다더라.

1908-12-12 본인이 음지월 17일야의 중부포청교 [대한매일신보] | 광고 | 03면 | 06단 |

1908-12-12 魚逢賊(어봉적)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6단 |

○魚逢賊(어봉적) 日前(일전)에 通津郡奉城面杜谷里居(통진군봉성면두곡리거)하느前稅務官魚浩善氏家(전세무관어호선씨가)에賊漢(적한)이突入(돌입)하야家産什物(가산십물)을多數奪去(다수탈거)하얏다더라.

1908-12-23 勞學試驗(노학시험)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4단 |

○勞學試驗(노학시험) 通津郡下勞働夜學校(통진군하 노동야학교)에서 第一學年學期試驗(제1학년 학기시험)을 經過(경과)하얏는디 甲班優等(갑반우등)에 白孝煥吳煥(백효환오환) 弼朴商雨(약박상우)오乙班優等(을반우등)에 金(김)■舜高(순고)들錫金台文(석김태문)이오 丙班優等(병반우등)에 朴亨春 吳季春 尹春緣(박형춘 오계춘 윤춘연)인디 校長白孝元氏(교장 백효원씨)의 設校教育(설교교육)하 實績(실적)이 今番試驗(금번시험)에 可見(가견)하깃다고 莫不贊揚(막불찬양)하다더라.

1908-12-23 통진 양릉면 곡촌 사립양흥학교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6단 |

○通津陽陵面谷村私立養興學校補助金(통진 양릉면 곡촌사립양흥학교 보조금)이如左(여좌)함 沈啓澤 李夔夏 韓九錫 林錫煥 各拾元 閔範鏞 鄭文謨 各五元 李起贊 李正儀 申鍾奭 李寅旭 申鍾元 林官相 洪鍾翼各四元 申鉉兌 李寅和 各三元 姜在華 陶春根 李冀鍾 申泰俊 李鳳壽 沈元澤 李寅哲 李寅昌 李寅圭 韓龍學 申泰元 崔漢輔 韓範浩 裴順輔 李雲集 各二元 李政夏 洪在範 郭禹鍾 閔參鉉 申在星 李敦煥 閔泳參 李聖五 閔贊鏞 李鴻儀 鄭景眞 鄭寅亨 鄭基亨 李錫俊 金石(심계택 이기하 한구석 임석환 각10원 민범호 정문모 각5원 이기찬 이정의 신종석 이인욱 신종원 임관상 홍종익 각4원 신현태 이인화 각3원 강재화 도춘근 이기중 신태준 이봉수 심원택 이인철 이인창 이인규 한룡학 신태원 최한보 한범호 배순보 이운집 각 2원 이정하 홍재범 광우종 민참현 신재성 이돈환 민영참 이성오 민찬호 이홍의 정경진 정인형 정기형 이석준 김석)準各一元 申泰雨 六元 陶順元 金鍾安 各八十錢李容宇 鄭志亨 李舜謙 金演大 各 四拾錢(각 1원 신태우 6원 도순원 김종안 각 80전 이용우 정지형 이순겸 김연대 각 40전)

1908-12-25 通津夜興(통진야흥)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5단 |

○通津夜興(통진야흥) 通津郡 陽陵面 谷村居 申鍾協氏等(통진군양릉면곡촌거신중협씨 등)이 養興學校(양흥학교)를 設立(설립)하얏는디 其趣旨(기취지)가 如左(여좌)하니 尙書(상서)에 曰民惟邦本(왈민유방본)이니 本固(본고)라 사邦寧(방녕)이라하니民之爲重(민지위중)이 不待(불대)芻言(언)이라 有國而無民(유국이무민)이면 不可謂之國(불가위지국)이 오 有民而無敎(유민이무교)면 不可謂之民(불가위지민)이니 爲其邦本者豈不以敎育(위기방본자기불이敎育)으로 爲重要哉(위중요재)아 惟我東方(유아동방)이 自檀箕以來(자단기이래) 禮樂文物(례악문물)과 典章法度(전장법도)가 非不備矣(비불비의)나世 級(세급)이 已久(이구)에 風氣(풍기)가日渝(일투)하라 仍成文具(잉성문구)하고 未踏實地(미답실지)라가 迨此全毬風潮日變之時(대차전구풍조일변지시)하야 舊日文具(구일문구)만 是尙(시상)하고 今日(금일) 智(지)를 未開(미개)하면 以積敗(이적패)한文具(문구)로 勇進(용진)하논 實地新學(실지신학)과 那能并驅乎(나능병구호)아 又此人種競爭(우차인종경쟁)하논 時(시)를 當(당)하야 以新智識(이신지식)으로 兵戈(병과) 代(대)하야 點血(점혈)을 不刃(불인)하고 人種(인종)을 滅亡(멸망)케하니 是(시) 觀(관)하면 新舊知識(신구지식)이 豈不判然懸殊哉(기불판연현수재)아 北美紅人之往鑑(북미홍인지왕감)과 波蘭埃及之前轍(파란애급지전철)이 總因新智(총인신지)를 未開(미개)하고 舊習(구습)을 徒尙(도상)한 所以(소이)라 今吾同胞(금오동포)는 豈不悚然哉(기불송연재)리오 何幸年來(하행년래)에 惟我闔境人士(유아합경인사)가 同聲齊唱(동성제창)하야 公立私立(공립사립)이 往往建置(왕왕건치)하야 敎育英才(敎育영재)하고 開發新智(개발신지)하니 凡在觀感(범재관감)에 孰不欽歎(숙불흠탄)이리오마는 但有志新學者(단유지신학자) 事力(사력)이 不敷(불부)하야 寄宿(기숙)이 爲難(위난)하고 道路(도로)가 間濶(간활)하야 來往(래왕)이 不便(불편)일식 惟我面內諸彥(유아면내제언)이 深切慨歎(심절개탄)하야 爰(원) 瓶一校(일교)하고 命名曰養興(명명양흥)이라하야 各(각) 據規範(규범)은 一遵部令(일준부령)하고 凡係器具(범계기구)는 務從便簡(무중편간)하니 庶幾權輿乎青年之養成(서기권여호청년지양성)이오 羽翼乎左海之文明(우익호좌해지문명)이라 一面人士(일면인사)가 國民(국민)의義務(의무)를各自擔任(각자담임)하야 義金(의금)을是捐(시연)하고 籌盜(주도)을 另設(령설)하야 維持方針(유지방침)을 永遠是圖(영원시도)하니豈不休哉(기부휴재)며 曷不偉哉(갈불위재)아 爲國思想(위국사상)이今日(금일)에 始(시)하니 有始克終(유시극종)하기를 懋哉勗哉(무재욱재)어다.

1908-12-31 통진사개량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2단 |

1909-01-06 文明錄(문명록) [황성신문] | 광고 | 03면 | 01단 |

○文明錄(문명록)

金浦郡守主(김포군수주) 書記(서기) 拾一圓五十二錢(합1환52전)

淸道郡守主事書記(청도군수주사서기)

八圓六拾四錢(8환64전)

義城郡守主事書記(의성군수주사서기)

八圓六十四錢(8환64전)

禮安郡守(예안군수) 一圓五拾二錢(1환52전)

水平郡守主事書記(수평군수주사서기)

九圓六拾錢(9환60전)

1909-01-17 永一女學(영일여학)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6단 |

○永一女學(영일여학) 通津郡 邑內 永一女學校(통진군 읍내 영일여학교)에서冬期試驗(동기시험)을 經(경)히얏는디 甲班優等生朴容姊金鳳姊等二人(갑반우등생박용자김봉자등이인)이오 及第吳晚齋(급제오만재)오 乙班優等生李萍子(을반우등생이평자)오 及第趙厚齋金純齋等五人(급제조후재김순재등오인)이오 丙班優等生趙華齋趙熙鼎等三人(병반우등생조화재조희정등삼인)이오 及第吳正齋(급제오정재)라더라.

1909-02-04 賊奪公錢(적탈공전)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賊奪公錢(적탈공전) 通津郡 越田面(통진군 월전면)질아시 居結錢領收員黃大汝氏家(거결전령수원황대여씨가)에 賊漢八名(적한팔명)이 突入(돌입)히야 公錢八千兩(공전팔천량)을 奪去(탈거)히얏다더라.

1909-02-09 宮廷錄事(궁정록사)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宮廷錄事(궁정록사)<중략>通津郡守(통진군수) 沈 堯(순) 金浦郡守(김포군수) 趙東善(조동선)<중략>

1909-02-10 불법군수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2단 |

1909-02-16 심씨 봉적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5단 |

▶통진군 마송리에 사는 심주성씨의 집에는 음력本月 18일 밤에 도적 2명이 돌입하였는데 1명은 잡지 못하고 1명은 경찰서로 잡아갔다더라.

1909-02-25 稟請貸與(품청대여)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稟請貸與(품청대여) 昨年中(작년중)에大雨(대우)와 及旱魃(급한발)를 因(인)히야 交河(교하) 通津兩郡(통진량군)은目下饑饉(목하기근)이 切迫(절박)히 故(고)로 該兩郡守(해량군수)가 觀察使(관찰사)를 經由(경유)히야 該郡民納稅(해군민납세)에 驛屯土(역둔토)와 及 宮屯土(급궁둔토)의 賂租(도조)를 本年秋(본년추)까지 貸與(대여)히얏다가 秋季收獲(추계수획)할時(시)에 納稅(납세)할意(의)로 稟請(품청)히얏다더라.

1909-03-05 閔氏贊校(민씨찬교)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5단 |

1909-03-05 新進部(신진부) [황성신문] | 광고 | 04면 | 01단 |

○新進部(신진부)

白俊天氏(백준천씨) 觀岷(관현)  
公立通津普通學校(공립통진보통학교)  
東部警察署(동부경찰서)

1909-03-09 救饑建議(구기건의)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救饑建議(구기건의) 金浦通津富平陽川等郡(김포통진부평양천등군)이 昨年分(작년분)에 歉荒(겸황)을 被(피)호는事(사)에 對(대)호야 該郡居紳士南廷薰丁台燮氏等(해군거신사 남정훈정대섭씨등)이 發起(발기)호야 中樞院(중추원)에 獻議(헌의)호기를 該郡民濱死(해군민빈사)의 情景(정경)을 天陛(천폐)에 奏達(주달)호야 救恤(구휼)케호라호앗는디 昨日(작일)에 中樞院(중추원)에서 月曜例會(월요일회)를 開(개)호고 內閣(내각)에 建議與否(건의여부)를 協議(협의)호야 建議(건의)호기로 一致可決(일치가결)되앗다더라.

1909-03-16 金津(김진)의 面長會議(면장회의)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金津(김진)의 面長會議(면장회의) 金浦 通津等地(김포통진등지)는 昨年(작년)의 饑饉(기근)을 因(인)호야 住民(주민)은 離散(이산)의 境(경)에 陷(함)호는者(자)가 居多(거다)호는故(고)로 自然徵稅成蹟(자연징세성적)이 甚(심)히 不良(불량)호는지라 金浦財務署(김포재무서)에서는 此(차)에關(관)호야 日間面長會議(일간면장회의)를 開(개)호고 將來徵收(장래징수)에 對(대)호야 協議(협의)호터이라더라.

1909-03-19 救荒擬議(구황의의)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實犯審査(실범심사) 仁川警察署(인천경찰서)에서 月前(월전)에 通津方面(통진방면)에서 強盜及同嫌疑者十餘人(강도급동혐의자십여인)을 捉囚審査(착수심사)호는다더니 其無罪(기무죄)호는者(자)는 漸次放還(점차방환)호고 實犯二人(실범이인)만 尙此審査中(상차심사중)이라더라.

1909-03-19 實犯審査(실범심사)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救荒擬議(구황의의) 金浦 通津 陽川 富平等郡(김포통진양천부평등군)이 昨年歉荒(작년겸황)을 被(피)호는 人所共知(인소공지)어니와 官人社會(관인사회)에서 優異(우이)호는 恤金(휼금)을 救濟(구제)호기로 擬議中(의의중)이라더라.

1909-03-31 심씨 보조 [대한매일신보] | 잡보 | 1면 | 05단 |

▶통진군 대파면 약산리에 있는 신명의숙은 설립한지 반년에 학교집이 협착하나 재정이 부족하여 건축할 방침이 없었으나 전참봉 심의림씨가 교육에 열심히 24칸 집을 보조하였다한다.

1909-03-31 沈氏善心(심씨선심)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5단 |

▶심씨 선심 통진군 반이촌면 마송리에 사는 전 참봉 심능원씨는 동네에 노동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에 열심할뿐 아니라 십원을 자진 후원함으로 해당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더라.

1909-04-01 지방정형 [대한매일신보]|사고|3면|02단|

▶27일 경기도 통진군 동남방으로 20리되는 곳에서 의병 30여명이 그 고을 헌병분견소 상등병 이하 3명과 순사4명으로 접전하였다 한다.

1909-04-06 여교 졸업성황 [황성신문]|잡보|01면|03단|

○女校卒業盛況(여교졸업성황)

再昨日(재작일)에 北壯洞 進明女學校(북장동 진명녀학교)에서 第二回卒業式(제2회 졸업식)을 行(행)하였는데 各項設備(각항설비)의 壯麗(장려)와 一般(일반) 學徒(학도)의 成績(성적)이 可謂文明(가위문명)의 本色(본색)을 呈出(정출)하였고 來賓(래빈)은 本國女官(본국녀관) 諸氏(제씨)와 東西洋紳士(동서양신사) 諸氏(제씨) 婦人(부인) 諸氏(제씨)가 咸集(함집)하였고 學徒父兄(학도부형) 姊妹(자매) 等(등) 親屬(친속)이 人山人海(인산인해)을 成(성)하였더라 證書(증서)를 授與(수여)한 後(후) 學徒(학도)가 唱歌音樂(창가음악) 等(등) 順序(순서)를 奏畢後(주필후) 劉元杓(류원표) 大垣丈夫(대원장부) 鄭雲復(정운복) 三氏(삼씨)가 次第(차제)로 祝辭演說(축사연설)하고 閉會(폐회)하였더라.

1909-04-13 兩氏歸任(양씨귀임)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兩氏歸任(양씨귀임)

金浦(김포), 通津(통진), 陽川(양천), 始興(시흥), 等郡(등군)에 饑饉情況(기근정황)을 視察次(시찰차)로 出張(출장)하였던 內部地理課長(내부지리과장) 羅壽淵(나수연) 主事(주사) 金光燮(김광혁) 兩氏(양씨)가 該視察(해시찰)의 事務(사무)를 畢了(필료)하고 再昨日(재작일)에 歸任(귀임)하였더라.

1909-04-13 通津不穩(통진불온) [황성신문]|잡보|02면|06단|

○通津不穩(통진불온)

暴徒(폭도) 四十餘名(40여명)이 日昨(일작)에 通津郡 沙草里(통진군 사초리)에 突入(돌입)하여 人民(인민)을 威脅(위협)하고 軍需錢(군수전)을 多數(다수)히 奪去(탈거)하였더라.

▶폭도 40여명이 통진군 사초리에 돌입하여 인민을 위협하고 군수전을 다수 탈거하였다더라.

1909-04-25 통진교 폐지 [대한매일신보]|잡보|3면|02단|

▶통진법률학교에서 재정이 곤란하여 부득이 폐지하였는데 그 학생들이 각기 자의로 전문학교에 청원 입학하였다 한다.

1909-04-27 四郡 聯合運動(4군연합운동) [황성신문]|잡보|02면|03단|

○四郡聯合運動(4군 연합운동)

交河(교하) 高陽(고양) 坡州(파주) 通津(통진) 四郡(4군)의 各學校(각학교)는 來月四日(래월4일)에 交河郡(교하군)에서 聯合大運動會(연합대운동회)를 開(개)한다더라.

1909-05-01 內度兩部協議(내도량부협약)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內度兩部協議(내도량부협약)

京畿道 始興郡外 金浦(경기도 시흥군외 김포) 通津(통진) 等(등) 七郡(7군)이 昨年度(작년도)에 農作(농작)이 歉荒(겸황)호 所致(소치)로 本年度(本年度) 農糧(농량)을 難繼(난계)호므로 該道(해도)에서 官吏(관리)를 派遣(파견)호야 實地(실지)를 調查(조사)호 結果(결과)로 內部及度支部間(내부급도지부간)에 交涉(교섭)호야 社還米(사환미)를 窮民(궁민)에게 貸付(대부)호기로 協議(협약)호다더라.

1909-05-09 鄭氏義恤(정씨의휼) [황성신문]|잡보|01면|04단|

○鄭氏義恤(정씨의휼)

通津郡 半伊村面 道谷里(통진군 반이촌면 도곡리) 居(거)호 前議官(전의관) 鄭泰源氏(정태원씨)는 平生做心(평생주심)이 寬厚長者(관후장자)인디 今年(금년) 春窮(춘궁)에 該隣近洞七八十戶人口(해린근동칠팔십호인구)가 饑倒溝壑(기도구학)호를 見(견)호고 若干(약간) 所存田畝及家畜(소존전답급가사)를 典執得債(전집득채)호야 該飢口(해기구)에게 分賑(분진)호야 資生作農(자생작농)케 호므로 該近面人民(해근면인민)덜이 鄭氏(정씨)의 義心(의심)을 無不稱頌(무불칭송)호다더라.

1909-05-12 일인무엄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3단|

▶일본인이 민간목을 쓴다하고 김포군 장릉에 소나무를 임의로 작별하고도 능관이 금지할 수 없어서 그 소유를 궁내부에 보고하였다 한다.

1909-05-16 지방정형 [대한매일신보]|사고|03면|02단|

▶풍덕 김포 통진군내에는 의병 수십명이 자주 출몰하여 일헌병과 수차 접전하였다고 한다.

1909-05-21 議論未定(의론미정)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議論未定(의론미정)

始興(시흥), 果川(과천), 通津(통진) 等郡饑民(등군기민)에게 社還米(사환미)를 分給(분급)케 호얏다고 昨報(작보)에 已揭(이게)호 바어니와 更聞(경문)호 즉 京畿觀察道(경기관찰도)에서 議論(의론)이 不一(불일)호기를 或(혹)은 金錢(김진)으로 支撥(지발)호즈 호고 或(혹)은 米穀(미곡)으로 支給(지급)호즈 호야 携貳(휴이)호는 中(중)이라더라.

1909-06-01 여자교육 강학회 [황성신문]|잡보|01면|04단|

○女子教育(여자교육) 獎學會(장학회)

日昨(일작)에 紫霞洞 進明女學校內(자하동 진명여학교내)에서 漢城內(한성내)에 在(재)호 各女學校十九個所(각여학교 19개소)의 諸任員(제임원)을 會同(회동)호야 臨時會長(임시회장)은 李珪卿氏(이각경씨)로 選定(선정)호 後(후) 教育(교육)獎學會(학회)를 組織(조직)호고 女子教育(여자교육)에 關(관)호 諸般(제반) 事項(사항)을 協議(협약)호얏다더라.

1909-06-01 장씨 호소 [대한매일신보] | 잡보외방통신 | 3면 | 01단 |

통진군에 사는 장희헌은 2월 2일께 풍덕군 석기의 선산에 상포하러 가는길에 의병과 관련이 있다고 일병이 잡아다가 고성군 경찰서에 가두었다가 경성 감옥서로 압송하였는데 그 박씨 장운혁씨가 그 아우의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였다 한다.

1909-06-02 分賑窮民(분진궁민)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6단 |

○分賑窮民(분진궁민)

富平(부평), 安山(안산), 交河(교하), 陽川(양천), 始興(시흥), 金浦(김포), 通津(통진)의 七郡飢民(칠군기민)에게 本月六日(본월6일)부터 糶(인) 一千百八十九石(1,189석)을 分賑(분진)한다더라.

1909-06-06 海賊捕捉(해적포착)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5단 |

○海賊捕捉(해적포착)

仁川警察署 管内 通津郡 沿岸(인천경찰서 관내 통진군 연안)에 近日(근일) 海賊(해적)이 出沒無常(출몰무상)하다더니 再昨日未明(재작일미명)에 海賊(해적) ◆名(명)이 一隻漁船(일척어선)을 搭乘(탑승)하고 村落(촌락)을 向(향)하여 襲擊(습격)코져 함의 警察官吏(경찰관리)가 巡察(순찰)하다가 此(차)를 發現(발현)하여 卽時(즉시) 逮捕(체포)하였다더라.

1909-06-08 女學總會(여학총회)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女學總會(여학총회)

再昨日(재작일) 各女學校聯合(각여학교연합)獎學會(학회)에서는 北部壯洞 進明女學校內(북부장동 진명여학교내)에서 該會(해회)의 總會(총회)를 開(개)하였다더라.

1909-06-10 獎學會任員(학회임원)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獎學會任員(학회임원)

日昨(일작) 北部 紫霞洞 進明女學校內(북부 자하동 진명여학교내)에서 各女學校聯合(각여학교연합) 獎學會總會(장학회총회)를 開(개)하였다 함은 已報(이보)하였거니와 更聞(경문)한 즉 再昨日下午四時(재작일하오사시)에 女校聯合(여교연합) 獎學會總會(학회총회)를 開(개)하고 任員(임원)을 選差(선차)하였다는데 該會長(해회장)은 進明女學校 教師(진명여학교 교사) 余袂禮黃氏(여메례황씨)로 副會長(부회장)은 官立高等女學校教授(관립고등녀학교교수) 尹貞媛氏(윤정원씨)로 總務(총무)는 前監理(전감리) 河相翼氏(하상기씨)의 夫人(부인) 河蘭史氏(하란사씨)로 選定(선정)하였다더라.

1909-06-15 費過於恤(비과어홀)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費過於恤(비과어홀)

京畿管下金浦(경기관하 김포) 通津(통진) 等(등) 七郡(칠군)의 飢饉(기근)을 視察次(시찰차)로 內部(내부)에서 官吏派送(관리파송)한 事(사)는 已報(이보)하였거니와 近聞(근

문)은 즉 始興郡(시흥군)에서는 正租(정조) 七石(칠석)으로 各貧戶(각빈호)에 分給次(분급차)로 計筭(계산)은 즉 不過二升租(불과이승조)라 遠面人民(원면인민)은 此(차)를 領受(령수)하더라면 來往浮費(래왕부비)가 二升租(이승조)보다 超過(초과)하깃는 故(고)로 舉皆不肯(거개불긍)하더니 政府(정부)에서는 該地方(해지방)에 官吏派送(관리파송)하는 旅費(려비)로 恤金(휼금)이나 趣卽頒給(진즉반급)하얏더면 實效(실효)가 有(유)할 듯하다고 批評(비평)이 有(유)하더라.

1909-06-18 公告(공고) [황성신문]|광고|03면|03단|

○公告(공고)

一(일), 京畿道高陽郡(경기도 고양군), 金浦郡(김포군) 始興郡(시흥군) 陽川郡(양천군) 漢城府 大東門外所在度支部所管草坪(한성부 대동문외소재도지부소관초평)

右(우)는 本年度(본년도) 生草刈取權(생초예취권)를 競爭入札(경쟁입찰)로써 賣却(매각)하니 入札希望者(입찰희망자)는 本月二十五日(본월이십오일)까지 本局備置(본국비치)하 入札人心得書(입찰인심득서)를 熟覽(숙람)하고 入札(입찰)에 關(관)한 事項(사항)을 諒知(량지)할 事(사)

隆熙三年六月十五日(음희3년6월15일)

漢城財務監督局(한성재무감독국)

1909-06-24 僞章賣土(위장매토) [황성신문]|잡보|02면|05단|

○僞章賣土(위장매토)

通津郡奉城面(통진군 봉성면)에 一草坪(일초평)이 有(유)하야 幾十年來(기십년래)로 該面內人民(해면내인민) 等(등)이 保管取利(보관취리)하던 것인디 近聞(근문)하 즉 浮浪悖類幾個人(부랑패류기개인)이 符同(부동)하야 面里長(면이장)의 圖章(도장)을 僞造(위조)하야 本年度(본년도)에 總理大臣(총리대신) 李完用氏(이완용씨)에게 賣渡(매도)한 事(사)가 綻露(탄로)되야 人民(인민) 等(등)이 此(차)를 呼訴還推次(호소환추차)로 多數(다수) 上京(상경)하얏다더라.

1909-06-24 협잡탄로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4단|

1909-06-27 見辱辭職(견욕사직) [황성신문]|잡보|01면|03단|

1909-06-29 그런데는 정신있네 [대한매일신보]|잡보|2면|03단|

1909-06-29 買坪還退(매평환퇴)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買坪還退(매평환퇴)

總理大臣(총리대신) 李完用氏(이완용씨)가 月前(월전)에 通津郡(통진군)에 在(재)하 草坪幾許(초평기허)를 六千圓(육천환)에 結價買得(결가매득)하얏다 흙은 已報(이보)하얏거

니와 更聞(경문)은 즉 該郡鄉校直員(해군향교직원) 閔範植(민범식) 前稅務官(전세무관) 魚浩善(어호선) 主事(주사) 沈相德(심상덕) 等(등) 三人(삼인)이 居間(거간)하야 六千圓(육천환)에 結價(결가)후 後(후) 一千圓(일천환)을 互相分食(호상분식)후 事(사)이 綻露(탄로)되야 總理大臣(총리대신)이 聞知(문지)후고 該沈氏(해심씨)를 對(대)하야 該草坪(해초평)을 還退(환퇴)후고 價金(가김) 六千圓(6천환)을 覓來(먹래)후라고督促中(독촉중)이라더라.

1909-07-15 海賊搜索(해적수색) [황성신문] |잡보|03면|01단|

○海賊搜索(해적수색)

去十二日(거12일)에 金浦郡 月串面(김포군 월곶면) 等地(등지)에서 海賊(해적) 十餘名(10여명)이 出沒(출몰)후다는 報告(보고)가 有(유)함으로 該郡駐在巡查(해군주재순사) 二名(2명)과 憲兵(헌병) 一名(1명)이 出張(출장)하야 搜索中(수색중)이라더라.

1909-07-27 참혹한일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5단|

▶통진군에는 4월 17일에 비가 좀 와서 모를 대강 심었으나 그 후로는 비가 오지 않아 모가 다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져서 아무 가망이 없으므로 가난한 백성들은 어찌할줄 몰라 인천으로도 가고 각처 정거장으로도 가는데 그 참혹한 참상은 참아 볼 수 없다고 한다.

1909-08-04 무엇이든지 협잡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2단|

▶총리대신 이완용씨가 통진군 봉성면에 있는 초평을 개발함은 이미 고지하였거니와 그 초평은 원래 효창원 것인데 심사덕 민범식 양인이 효창원에서 봉성면으로 기부하는 증명을 도둑하여 이총리에게 풀었다함으로 한성세무서에서 통진군 세무서로 신칙하여 자세히 조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

1909-08-04 飭署調查(칙서조사) [황성신문] |잡보|02면|04단|

○飭署調查(칙서조사)

總理大臣(총리대신) 李完用氏(이완용씨)가 金浦郡奉城面(김포군 봉성면)에 在(재)후 草坪(초평)을 買得(매득)후 已爲揭報(이위게보)후 바어니와 更聞(경문)은 즉 右土地(우토지)인 즉 李昌園(이창원)의 付屬(부속)인티 沈相德(심상덕) 閔範植(민범식) 等(등)이 該李昌園(해이창원)에서 本面(본면)으로 寄付(기부)후는 證明(증명)을 圖得(도득)후야 賣渡(매도)후 것이라 漢城財務監督局(한성재무감독국)에서 該事實(해사실)을 聞(문)후고 該郡財務署(해군재무서)로 申飭調查(신칙조사)케 후았다더라.

1909-08-06 토사병이 대치 [대한매일신보] |잡보|3면|03단|

▶통진군 상곶면에는 토사병이 대치하여 거월 25일 이후로 그 병으로 앓는 사람이 15명이나 된다 한다.

1909-08-06 通津(통진)의 吐瀉(토사) [황성신문] | 잡보 | 03면 | 03단 |

○通津(통진)의 吐瀉(토사)

通津郡乘串面(통진군 상곶면) 等地(등지)에는 去月末日頃(거월말일경)부터 吐瀉病(토사병)이 流行(유행)하야 該病(해병)에 罹死者(이사자)가 十五人(15인)이라 當地警察署(당지경찰서)에서 此(차)를 消毒(소독)키 爲(위)하야 再昨日(재작일)에 韓日警吏(한일경리) 幾員(기원)을 同地(동지)로 急速(급속) 派送(파송)하얏다더라.

1909-08-29 名所古蹟(명소고적) [황성신문] | 連載(연재) | 03면 | 02단 |

◎名所古蹟(명소고적)

△文洙山(문수산)은 通津郡治北十里(통진군치북십리)에 在(재)하니 一名(일명)은 比兒(비아)이라 其上(기상)에 山城(산성)이 有(유)하니 周回五里(주회오리)니 肅宗祭酉(숙종제유)에 厚陵(후릉)에 幸行(행행)하사 此山(차산)을 望見(망견)하시고 承旨(승지)를 命(명)하사 圖形(도형)을 覽(람)하신 後(후) 江都(강도)의 關防重地(관방중지)됨으로써 甲戌春(갑술춘)에 三軍門(삼군문)을 命(명)하사 築城(축성)케 하셧든니 丙寅洋擾(병인양요)에 公廩(공해)가 灰燼(회진)되고 城堞(성첩)도 年久頽圯(년구퇴비)하더라 丁卯戊辰間(정묘무진간)에 朝令(조령)을 因(인)하야 城內(성내)에 亭臺樓閣(정대루각)과 城堞(성첩)을 一新修繕(일신수선)하코 特別監官(특별감관)을 置(치)하야 輪番把守(륜번파수)하더니 今(금)에 廢止(폐지)하니라.

1909-09-04 敍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1909-09-19 積한피착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5단 |

▶ 김포군 마산면 누산리에 있는 적한 5명은 그 고을순사에게 잡혀서 인천항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한다.

1909-10-09 權氏起訴(권씨기소)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權氏起訴(권씨기소)

總理大臣(총리대신) 李完用氏(이완용씨)가 本年春(본년춘)에 通津郡草坪(통진군 초평)을 買得(매득)하얏다 흙은 已報(이보)하얏거니와 更聞(경문)하 즉 該草坪主人中(해초평주인중)에 權景先氏(권경선씨)가 右草坪(우초평)를 還推次(환추차)로 日昨(일작) 水原觀察府(수원관찰부)에 呈訴(정소)하얏다더라.

1909-10-14 築隄巨額(축제거액)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4단 |

○築隄巨額(축제거액)

一進會員(일진회원) 洪淳一氏(홍순일씨)는 通津郡後坪(통진군 후평)에 在(재)하 草坪(초평) 幾萬坪(기만평)을 三萬圓(삼만원)에 買得(매득)하야 防築(방축)을 修築(수축)하단디 豫算(예산)은 五十萬圓(오십만원)으로 豫定(예정)하얏다더라.

1909-10-15 이씨 호소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5단|

▶채사골사는 박모씨가 도수장 전주라 칭하고 통진군에 사는 이춘삼씨의 소 3필을 산후에 값을 주지 아니하고 피신한고로 이씨가 경시청에 고소하였다 한다.

1909-10-19 합일여교 진급 [황성신문] |잡보|01면|04단|

○合一女校進級(합일녀교진급)

通津郡邑合一女學校(통진군읍 합일여학교)에서 去陰八月十六日(거음8월16일)에 進級禮式(진급례식)을 舉行(거행)하였는디 優等(우등)은 金鳳姊(김봉자) 次等(차등)은 朴容娣(박용제) 等(등) 九人(9인)이러라.

1909-10-28 聞難停止(문난정지) [황성신문] |잡보|03면|01단|

○聞難停止(문난정지)

前學部大臣(전학부대신) 李載崑氏(이재곤씨)가 昨日(작일)에 通津先塋(통진선영)에 省楸次發程(성추차발정)하려다가 伊藤公遭難(이등공조난)의 報(보)를 據(거)하고 因爲停止(인위정지)하였다더라.

1909-11-16 宜有褒賞(의유포상) [황성신문] |잡보|03면|02단|

○宜有褒賞(의유포상)

通津郡居(통진군거) 鄭學均氏(정학균씨)는 自來(자래)로 醫藥(의약)에 從事(종사)해야 該附近(해부근) 地方(지방)에 居生(거생)하는 貧寒人民(빈한인민)에게는 無代金治療(무대김치료)도 하고 本年春(본년춘)에는 租苞(조포) 四十餘石(사십여석)으로 無依(무의)한 人民(인민)을 救濟(구제)한 事(사)도 有(유)한디 該郡守(해군수)가 右事由(우사유)를 內部(내부)로 修報(수보)하고 特別褒賞(특별포상)하라 하였다더라.

1909-11-23 閔氏放奴(민씨방노) [황성신문] |잡보|02면|04단|

○閔氏放奴(민씨방노)

北部大安洞(북부대안동) 居(거)하는 閔藝植氏(민예식씨)는 通津郡鄉第(통진군향제)에 在(재)한 奴僕(노복) 等(등)을 一切(일절) 放送(방송)하고 自由生活(자유생활)케 하였다더라.

1909-12-14 養興學校進級式(양흥학교 진급식) [황성신문] |잡보|01면|05단|

○養興學校進級式(양흥학교 진급식)

通津郡陽陵面私立養興學校(통진군 양릉면 사립양흥학교)에서 本月一日(본월1일)에 進級式(진급식)을 舉(거)하였는디 來賓(내빈)이 二百餘人(200여인)에 達(달)하였고 校長以下任員(교장이하 임원) 諸氏(제씨)와 來賓諸氏(내빈제씨)가 學徒(학도)에게 對(대)하여 勸勉(권면적)으로 激切(격절)히 演說(연설)하고 進級證書(진급증서)를 給與(급여)한 後(후) 賞品(상품)을 優數(우수)히 褒贈(포증)하였는디 進級生(진급생)은 如左(여좌)하니

甲班優等生(갑반우등생) 鄭元謨(정원모) 姜一會(강일회) 李範允(이범윤) 李珪夏(이규하) 等(등) 十人(10인) 及第生(급제생) 梁善煥(양선환) 李起煥(이기환) 二人(2인) 乙班優等生(을반우등생) 李應夏(이응하) 李教鼎(이교정) 申鳳均(신봉균) 等(등) 七人(7인) 及第生(급제생) 金訓卿(김훈경) 鄭聖謨(정성모) 李英夏(이영하) 等(등) 七人(7인)이라더라.

# 1910-1919

<범례>

○ 기사본문

▶ 원문해석

<중략>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 생략

1910-01-06 又一聲討(우일성토) [황성신문|잡보|03면|01단]

○又一聲討(우일성토) 京畿道 通津郡 人民代表 權永奎 閔範植 沈啓澤 朴喜陽 諸氏(경기도 통진군 인민대표 권영규 민범식 심계택 박희양 제씨)가 一進會聲討(일진회성토)에 對(대)하야 國民大演說會(국민대연설회)에 致書(치서)호 全文(전문)이 如左(여좌)하니 敬啓者本人等(경계자본인등)이 蟄在鄉谷(침재향곡)하야 啞聲世事(아롱세사)나 惟有一段愚衷(유유일단우충)이 自同人類(자동인류)하야 每念君國現狀(매념군국현상)에 徒切東郭漆室之憂(도절동곽칠실지우)하야 永夜無眠(영야무면)에 閱覽社報(열람사보)하다가 至所謂一進會長李容九(지소위일진회장이용구)輩의 政合邦上疏及長書(정합방상소급장서)하야 自不覺鬮髮上指(자불각린발상지)호고 噲目盡裂(쾌목진렬)하야 擲紙痛罵曰如此亂賊(척지통매왈여차란적)은 不待王章(불대왕장)호로 人人得以誅之(인인득이주지)하야 不容晷貸(불용귀대)라 洛下人士(락하인사)가 除得一進會員外(제득일진회원외)에 不下萬千計(불하만천계)니 豈獨無熱血男兒在其中者哉(기독무열혈남아재기중자재)아 次閱翌報(차열익보)하다가 至國民大演說聲討(지국민대연설성토)하야는 始乃爽快而曰有是哉國民也(시내상쾌이왈유시재국민야)여 今而後(금이후)에 可見天賦之攸同(가견천부지유동)이며 我(아) 列聖朝培養名教(렬성조배양명교)를 不可誣也(불가무야)라 彼容九(피용구)輩의 豺心狼行(시심랑행)이 何處得來(하처득래)인지 顧我三千里土壤(고아삼천리토양)과 二千萬民族(이천만민족)과 四千年監統(사천년감통)에 天以艱大(천이간대)로 遺投我(유투아) 大皇帝陛下(대황제폐하)커시늘 彼容九以我家世世靑氈(피용구이아가세세청전)으로 看作奇貨(간작기화)하야 賂人賣權(뢰인매권)하야 欲以無國(욕이무국)하니 其罪必誅一也(기죄필주일야)오 君父臨御何等尊嚴(군부림어하등존엄)이완되 彼其上疏句語(피기상소구어) | 極涉凶悖(극섭흉패)하야 脅制無憚(협제무탄)하야 欲以無君(욕이무군)하니 其罪必誅(기죄필주)也(야)오 顧今全國民衆(고금전국민중)이 於一進會(어일진회)에 誰不欲肉之而其宣言(수불육육지이기선언)에 必(필)稱一百萬團體(일백만단체)와 二千萬代表(이천만대표)라하야 虛張聲勢(허장성세)하야 援作同黨(원작동당)하니 其罪必誅三也(기죄필주삼야)오 斯民也(사민야)는 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삼대지소이직도이행야)어날 彼以東學餘孽(피이동학여열)로 一敗無歸(일패무귀)하야 嘯聚善良(소취선량)하야 百計淵藪(백계연수)하고 名稱一進(명칭일진)에 義托四大(의탁사대)하고 宣言入會者(선언입회자)는 不久位躋卿相(불구위제경상)하고 富(부)埒金谷(김곡)이라하니 哀此愚蒙(애차우몽)이 駸駸見欺(침침견기)하야 傾財蕩產(경재탕산)이 指不勝僂(지불승루)하니 鄴巫嫁女之風(엽무가녀지풍)이 復見於此(복견어차)라 欺人騙財(기인편재)하니 其罪必誅四也(기죄필주사야)오 日本之於我韓(일본지어아한)에 誼同兄弟(의동형제)하고 勢如輔車(세여보차)하야 內有責善之益(내유책선지익)호고 外禦闖牆之侮(외어혁장지모)어날 彼以不測心腸(피이불측심장)과 無稽言說(무계언설)로 作俑其間(작용기간)하야 以合邦二字(이합방이자)로 煽惑觀聽(선감관청)하야 期使兩國交好(기사랑국교호)로 致(치)疑點(의점)하니 其罪必誅五也(기죄필주오야)라 凡此五罪(범차오죄)는 有一合誅(유일합주)커던 況兼有之者乎(황겸유지자호)아 衷憤所激(충분소격)에 固當勇殲此賊(고당용섬차적)하야 誓不共戴(서불공대) 天(천)이는 自恨七尺(자한칠척)이 素乏縛鷄(소핍박계)호고 顛倒白里(전도백리)에 不及奔驥(불급분기)하야 尙此茹憤容忍(상

차여분용인)터니 何幸僉閣下以堂堂聲討(하행침각하이당당성토)로 昭布中外(소포중외)하야 大聲一呼(대성일호)하니 衆夢(중몽)이 始醒(시성)하고 羣迷悉復(군미실복)하야 彼(피)輩中見欺猶豫者(중견기유예자)는 類多覺非而輟返(류다각비이철반)하고 脅從鳥合者(협종조합자)는 太半因勢而七崩(태반인세이칠붕)하니 彼窩窟之(피와굴지)解散(산)을 將不日可見(장불일가견)이로되 惟其巨魁若干(유기거괴약간)輩가 鼠竄罅隙(서찬하극)하야 醞釀後禍(운양후화) | 恐無所不至而尙未蒙顯戮(공무소불지이상미몽현륙)하니 凡此一般民衆(범차일반민중)이 誰不齎憤戰心哉(수불재분전심재)야 本人等(본인등)이 雖本無似(수본무사)나 唯有心矢一(유유심시일)과 談惟一(담추일)과 筆鋒一(필봉일)하야 庸助(용조)殲賊之一臂(적지일비)하노니 伏願照亮(복원조량)하라 하얏더라.

1910-01-19 영성학교시험 [대한매일신보] | 공보 | 01면 | 06단 |

▶ 통진군 월여곶면 조강 영성학교에서 작년 12월 26일에 연말시험을 치렀는데 우등생이 7명이고, 교주 이서하와 교사 이대영, 김교룡 양씨가 교육이 시급함으로 간절히 권면한 후 상품을 많이 주었다 한다.

1910-03-18 鑛業許可(광업허가)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6단 |

○鑛業許可(광업허가) 農商工部(농상공부)에서 鑛業法(광업법)에 依(의)하야 許可(허가)한 者(자)이 如左(여좌)하더라

<중략>△京畿 金浦郡 默丹面 所在 鉄鑛四萬二千九百三拾六坪(경기 김포군 검단면 소재 철광 사만이천구백삼십륙평)은 日人 麻生音波(일인마생음파)에게

△黃海道黃州郡高井坊所在鉄鑛九萬九千四百九拾九坪(황해도황주군 고정방소재철광구만구천사백구십구평)은 日人 川本準作外一名(일인천본준작외일명)에게 許可(허가)하얏더라.

1910-03-30 汾校卒業(분교졸업)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4단 |

○汾校卒業(분교졸업) 通津郡 私立汾南學校(통진군 사립분남학교)에서 第二回卒業試驗(제2회 졸업시험)을 經(경)하얏는되 入格者(입격자)가 如左(여좌)함

優等生八人李圭容沈相珽沈昌燮李龜夏沈大燮朴英錫李聖變成舜基及第生十人李元夏李圭尙李孝貞沈相喜李會聖李福漢陶俊星崔炳道沈英澤李建定(우등생 8인 이규용 심상정 심창섭 이구하 심대섭 박영석 이성섭 성순기 급제생 10인 이원하 이규상 이효정 심상희 이희성이복한 도준성 최병도 심영택 이건정)더오 三年級優等(3년급우등)■李贊(이찬)■萬基等二十人(만기등 20인)이오 二年級(2년급)에 沈相慶李(심상경이)■夏(하)■四人(4인)이오 一年級新募集者(1년급신모집자)가 十餘人(10여인)에 達(달)하얏다더라.

1910-03-30 通校卒業(통교졸업)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4단 |

○通校卒業(통교졸업) 通津郡 公立學校(통진군 공립학교)에서 四年級生徒第二回卒業式(4년급생도제2회졸업식)을 行(행)하얏는되 優等生 權爾玉 李載夏 閔丙大 黃在鎭 朴容泰 朴容敦 韓龍植 等七人(우등생 권이옥 이재하 민병대 황재진 박용태 박용돈 한룡식등 7인)

에게 証書(증서)를 授與(수여)하고 該郡守沈鍾舜(해군수심중순씨)와 來賓金思說諸氏(래빈김사설제씨)가 懇篤(간독)히 演說(연설)로 一場勸勉(일장권면)함이 觀光諸氏(관광제씨)가 莫不贊歎(막불찬탄)하였다더라.

1910-04-01 분남학교 졸업 [대한매일신보] | 공보 | 1면 | 06단 |

▶ 통진군 사립분남학교에서 제2회 졸업시험을 개최하였는데 우등생은 이규용, 심상임, 심창섭, 이귀하, 심대섭, 박영석, 이성섭, 성순기이고, 급예성은 이원하, 이규상, 이효정, 심상희, 이희성, 이복한, 도준성, 최병도, 심영택, 이근영이라고 한다.

1910-04-22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官報(관보)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三月三十日(3월30일)

通津郡守 沈鍾舜(통진군수 심중순) 兼任公立通津普通學校長(겸임공립통진보통학교장) <중략> △金浦郡守趙東善(김포군수 조동선) 兼任公立金浦普通學校長(겸임공립김포보통학교장) <중략> (以上四月十一日學部(이상4월11일학부))

1910-05-03 어찌사노 [대한매일신보] | 잡보 | 3면 | 02단 |

▶ 통진군은 융희 2년과 융희 3년에 한재를 당함은 모두 다 아는바 그곳 역둔토 도조를 인민들이 지금까지 받치지 못하였으므로 소관 부서에서 방금 목봉중이라는데 인민은 생활을 할 도리가 없어서 대표자 조의진씨 등이 일전 탁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한다.

1910-05-03 通民鳴冤(통민명원)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5단 |

○通民鳴冤(통민명원) 通津郡(통진군)이 隆熙二年及三年度(융희2년급3년도)에 歉荒(겸황)됨은 一般知了(일반지료)하는바어니와 驛屯土小作人(역둔토소작인)이 賭租(도조)를 請減(청감)하되 財務署(재무서)에서는 一一收捧(일일수봉)하는 故(고)로 人民代表趙義晉氏(인민대표조의진씨)가 度支部(도지부)에 鳴冤書(명원서)를 日昨提呈(일작제정)하였다더라.

1910-05-26 기찰의 旱災報告(한재보고)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5단 |

○畿察(기찰)의 旱災報告(한재보고) 近日旱虐(근일한학)이 太甚(태심)함은 一般知了(일반지료)하는바어니와 京畿觀察使金思默氏(경기관찰사김사묵씨)의 報告(보고)를 據(거)하되 楊平始興金浦通津其他某某十九郡(양평시흥김포통진기타모모십구군)은 尤甚(우심)하야 秋麥(추맥)은 半秀不吐(반수부토)하고 春牟(춘모)는 貼地不茁(첩지부줄)에 市直(시직)은 日騰(일등)하야 民心(민심)이 嗷嗷(오오)하다하였다더라.

1910-05-26 경기한재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4단 |

▶ 김포, 통진, 부평, 시흥, 양평 등 19개 고을은 한재가 심함으로 봄에 심은 작물 모두가 피지 않음으로 민심이 우려된다고 경기관찰사가 내부에 보고하였다 한다.

1910-05-31 실지조사 시작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2단|

▶탁지부 토지조사국에서는 한인기수와 일인 기수 합 20명을 자작일에 부평, 통진등 군으로 파송하여 실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한다.

1910-05-31 調査局員 實地練習(조사국원 실지연습) [황성신문] |잡보|02면|03단|

○調査局員實地練習(조사국원실지연습) 度支部地調査局(도지부지조사국)에서는 韓日人技手及主事三十餘名(한일인기수급주사삼십여명)을 再昨日(재작일)에 富平通津兩郡(부평통진량군)에 派送(고송)하여 實地(실지)로 見習(견습)하였다더라.

1910-06-01 민씨기소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5단|

▶총상 이완용씨가 년전에 통진군 초평 및 만평을 사두었는데 그 고을에 사는 민의식씨의 사패땅이 침범한지라 민씨가 도로 달라고 누차 교섭하여도 듣지 아니하는고로 고소하여 재판하기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한다.

1910-06-01 재판추심차 상경 [황성신문] |잡보|02면|05단|

○裁判推尋次上京(재판추심차상경) 總相李完用氏(총상이완용씨)가 年前通津郡(년전통진군)에 草坪(초평)을 買入(매입)할 時(시)에 同地居(동지거)하는 閔羲植氏(민희식씨)의 賜牌地段(사패지단)이 犯入(범입)되었으므로 該地段(해지단)을 還推次(환추차)로 李總相(이총상)에게 屢(루) 交涉(교섭)되 終乃不給(종내불급)하 故(고)로 閔氏(민씨)는 裁判推尋次(재판추심차)로 目下周旋中(목하주선중)이라더라.

1910-06-09 경찰서 신설 [대한매일신보] |잡보|2면|01단|

▶내부에서는 김포군에 경찰서를 신설하고 일인 춘산영태랑으로 서장을 선임하였는데 양천, 통진 양 군을 관리케 하였다.

1910-06-09 김포군 신경서 [황성신문] |잡보|02면|06단|

○金浦郡新警署(김포군신경서) 內部(내부)에서 金浦郡(김포군)에 警察署(경찰서)를 新建築(신건축)하고 陽川通津兩郡(양천통진량군)을 該管下(해관하)로 附屬(부속)케 하였는데 新任警察署長(신임경찰서장) 人秋山英太郎氏(인추산영태랑씨)를 今明間出發赴任(금명간출발부임)케 하였다더라

1910-06-10 學事(학사) [황성신문] |관보|01면|03단|

○學事(학사) 隆熙二年學部訓令第六十六號(융희2년학부훈령제66호)에 基因(기인)하고 觀察道令(관찰도령)에 依(의)하여 漢城府及各觀察道(한성부급각관찰도)에서 左開學務委員(좌개학무위원)을 囑託(촉탁)하 報告(보고)가 有(유)함 (六月六日學部(6월6일학부))

<중략>公立通津普通學校(공립통진보통학교) 朴喜乘(박희병) 朴善陽(박선양) 閔丙億(민병억) 權章奎(권장규) 田泰鉉(전태현) 公立坡州普通學校(공립과주보통학교) 李承禧(이승

회) 申鉉周(신현주) 李鳳集(이봉집) 尹五榮(윤오영) 李台興(이태흥) 公立金浦普通學校  
(공립김포보통학교) 朴會善(박회선) 鄭志(정지) 處  
李炳六(이병륙) 沈能勳(심능욱) 李義福(이의복)<중략>

1910-06-15 패가자제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3단 |

▶ 김포군수 조동선씨는 공전 범포할 것을 청장할 계획으로 월급 중에서 돈을 저축하였  
다가 1천환을 복부 조군수의 본집으로 올려보내었더니 조씨의 아들이 무뢰배들에게 그  
돈을 빼앗겨 화류계에 탕진하였다 한다.

1910-06-16 應卞代理(응변대리) [황성신문] | 잡보 | 03면 | 01단 |

○應卞代理(응변대리) 金浦郡糞島草坪(김포군분도초평)은 前判書洪淳馨氏(전판서홍순형  
씨)의 所有件(소유건)이라는데 一進會(일진회)에서 年前(년전)에 陳荒地(진황지)로 認定  
開墾(인정개간)한 事(사)로 年來相詰(년래상힐)하다더니 再昨日京城地方裁判所(재작일경성  
지방재판소)에서 第一回裁判(제일회재판)을 開庭(개정)하였는데 一進會長李容九(일진회장이  
용구)의 代理(대리)는 同會員李民觀(동회원 이민관)이가 出頭應卞(출두응변)하였더라.

1910-06-16 조평재판 [대한매일신보] | 잡보 | 2면 | 04단 |

1910-06-22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황성신문] | 관보 | 01면 | 02단 |

○叙任及辭令(서임급사령)  
<중략>△郡主事沈圭澤(군주사심규택) 命金浦郡在勤(명김포군재근) (以上六月十四日內部  
(이상6월14일내부)) <중략>

1910-07-13 문인만추대 [대한매일신보] | 잡보 | 1면 | 04단 |

1910-07-14 일헌장향교차용 [황성신문] | 잡보 | 02면 | 03단 |

○日憲長鄉校借用(일헌장향교차용) 通津陰竹兩郡(통진 음죽 양군)에 駐在(주재)한 日憲  
兵分遣所長(일헌병분견소장)이 各該郡鄉校(각해군향교)의 附屬建物(부속건물)을 借用(차  
용)하겠다고 交涉(교섭)한 事況(사황)을 該道觀察使(해도관찰사)가 學部(학부)로 修報  
(수보)하고 道難擅便(도난천편)이라하였더라.

1910-07-14 향교까지 청구 [대한매일신보] | 잡보 | 3면 | 01단 |

▶ 통진과 음죽군에 있는 헌병 분견소장이 그 고을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집을 빌려쓰겠  
다고 함으로 그 도에서 학부로 보고하였다 한다.

1910-08-10 鑛業許可(광업허가) [황성신문] | 잡보 | 01면 | 06단 |

○鑛業許可(광업허가) 鑛業法(광업법)에 依(의)하여 今番(금번)에 許可(허가)된 者(자)

如左(여좌)하더라.<중략>△京畿通津郡內面石炭鑛一五三(경기통진군내면석탄광일오삼)·九六五坪(구륙오평)은 牧野作兵衛等三人(목야작병위등삼인)에게 慶北尙州郡外東面長川面金鑛九四六(경북상주군외동면장천면김광구사륙)·四二四坪(사이사평)은 日人渡邊榮太郎(일인도변영태랑)에게△京畿金浦郡默丹面蘆長面黑鉛六七(경기김포군검단면로장면흑연륙칠)·五四一坪(오사일평)은 日人稻田勝彦等二人(일인도전승언등이인)에게△平北義州府廣坪面金鑛七一六(평북의주부광평면김광칠일륙)·一七五坪(일칠오평)은 日人地足立豐等二人(일인지족립풍등이인)에게 同熙川郡長洞面金鑛五二(동희천군장동면김광오이)○·○一三坪(일삼평)은 博川人李宅源(박천인이택원)에게 認許(인허)하얏더라.

1910-08-12 국유 미간지 조사 [황성신문]|잡보|01면|05단|

○國有未墾地調査(국유미간지조사) 交河坡州通津等郡(교하파주통진등군)에 國有未墾地(국유미간지)를 貸村請願(대촌청원)하 事(사)에 關(관)하야 其實地(기실지)를 調査(조사)하 爲(위)하야 農商工部(농상공부)에서 日人木村主事(일인목촌주사)를 再昨日(제작일)에 派送(고송)하얏다더라.

1910-08-23 趙鄭被拘(조정피구) [황성신문]|잡보|02면|04단|

○趙鄭被拘(조정피구) 金浦郡守趙東善氏(김포군수조동선씨)는 夏期休務(하기휴무)를 因(인)하야 上京(상경)하얏다는데 何事故(하사고)를 因(인)함인지 去土曜日夕(거토요일석)에 警務總監部(경무총감부)에 被捉(피착)하얏고 政友會員鄭應(정우회원정응)■氏(씨)는 昨日(작일)에 被捉(피착)하얏다더라.

1910-10-21 잡보: 측량기술원 派送(파송)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0-11-09 서임급사령 [매일신보]|인사|01면|02단|

1910-11-15 잡보: 작금의 미곡시가 [매일신보]|기사|01면|06단|

▶잡보 : 작금의 미곡시가

경성에 있는 3곳의 시가의 소식을 들은즉 다음과 같다는데 수일 내에 수원, 김포방면으로 부터 햅쌀 수입이 많아져서 점차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제 1석에)

품목	10월30일	11월10일
0	3원90전	3원 75전
현미	9원40전	8원 05전
백미	11원40전	10원 61전

1910-11-15 서임급사령 [매일신보]|인사|03면|02단|

1910-11-27 토지조사보호 훈령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토지조사보호훈령

토지부토지조사국에서는 부평,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 등지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리를 파송하기로 예정하고, 소관 도청에 훈령하여 극력 보호하라 하였다더라

1911-09-29 경기연혁과 製鹽(제염)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경기도 연안과 제염

인천부 주안면 상정리의 천일제염전은 명치 40년 재정고문부에서 염업의 개량지도를 위하여 설립한 곳인데 그 규모는 크지 않아도 계속 성업 중이다.

원래 경기도 연안은 해안선이 굴곡이 심하고 갯벌이 넓어서 자연염전을 개척할 적지가 많고 특히 인천부와 통진, 김포, 부평, 안산 4군의 연안도 똑같이 토질 성분이 염전에 적합해서 이미 조성한 염전 외에도 개척할 적지가 무려 5천 정보가 넘는다고 하는데 작년에 주안 천일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이 43만7천9백80근이고 올해는 일기가 좋지 않아 작년에 비하면 감소할지도 모른다는데 9월 12일 현재까지 소금 생산량은 14만5천3백91근이라고 한다.

1911-12-03 토지조사 현상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토지조사현상

임시토지조사국에서는 현재 300명의 조사원을 5개 반으로 나누어 각도에 소유권 조사에 종사중인데 그 조사를 종료한 곳은 경기도 부평,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 시흥, 과천, 안산, 인천, 경상도 대구의 각 부군이고 내년 3월내에 완료할곳은 경기도 광주, 남양, 수원, 진위, 양성, 안성, 죽산, 양지, 용인과 경상북도 경산, 고령, 현풍, 청도의 각 군이다.

을 12월에 비로소 준비조사에 착수한 곳은 경상남도 창령, 부산, 밀양의 3군이고, 내년 1월에 착수할곳은 경기도 여주, 이천, 음죽, 충청남도 평택, 온양, 천안, 목천, 신창, 예산, 충청북도 음성, 진천, 경상남도 울산, 언양, 양산, 기장의 각 군인데 그곳들은 준비조사 착수 후 3개월이 걸리고 소유권조사는 3개월이 지나야 측량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성부에 토지조사에 대하여 각종 풍설이 있지만 토지조사국으로는 도저히 즉시 일을 착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택지조사상에 곤란한 일이 있고, 토지에 관한 이동이 많은 점, 조사원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불가능함으로 숙련된 조사원을 일시에 투입하여 그 조사를 단시일내에 종료할 방침인데 그 착수 시기는 내년 말에나 가능하다.

1912-02-23 度量衡器(도량형기) 보급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도량형기 보급

경기도 김포경찰서 관내에서는 작년 4월 도량형기 보급명 실시와 동시에 그 동안 써오던 옛 도량형기는 임의 몰수 혹은 파손케 하고 새로운 도량형기를 보급하여 금년 11월

추수기를 맞아 새 도량형기의 사용법을 설명하여, 구입에 필요성을 장려한 결과 각기 수요가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수확이 양호해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계속해서 구매자가 나타나고 있다.

4월 이후에 구입한 도량형기 수는 도기 1,072개, 양기는 1,395개, 형기는 6,000개이다.

1912-03-06 教育勅語(교육칙어)와 감상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12-03-09 심 씨의 좋은 뜻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경성 중부 이문동에 사는 심상덕 씨는 작년 음력 연말에 경기도 김포군 고창리 자기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그 동리 빈민에게 베풀어 두 섬 여덟 말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급하여 세금으로 내게 하였으니 그 빈민들은 심씨의 자선심을 칭송하였다.

1912-03-23 총독부공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18호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12-04-20 두창병과 예방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두창병과 예방

강화와 통진 양군에서 지난번 두창병이 발생함에 대하여 경기도 내무부장의 이름으로 각 부윤군수에게 통첩하기를 점차 일기가 온화한 때를 맞아 이와 같은 나쁜 병이 유행할 뿐만 아니라 만연될 징조가 있으니 일반민에게 단단히 타일러서 위생관념을 분발케하고 이러한 두창병을 예방하며 혹은 환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필히 보고하라고 하였다.

1912-04-20 향로표식 건설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향로표시 건설

조선 서안 한강 향로표시는 결빙으로 인하여 지난 겨울내로 철거하였는데 해빙된 고로 지난 28일부터 이와 같이 건설하였다.

부표

-운양리 김포 부근

-홍도평 1호 김포 부근

-양화진 양화진 부근

-마포 마포 부근

-령표

-동시암리 소이포면 부근

1912-05-08 본도 잠종 배부수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본도 잠종배부수

경기도청에서 각 군에 대하여 공동사육용으로 추잠종 배부수를 살펴보면 양주 70장, 수

원20, 광주 40, 개성 20, 양평 150, 강화 50, 여주 15, 남양 20, 용인 20, 파주 15, 이천 20, 풍덕 15, 포천 60, 죽산 40, 안산 15, 삭령 48, 안성 20, 고양 20, 가평 68, 통진 15, 김포 45, 영평 58, 마전 15, 교화 15, 시흥 42, 적성 15, 과천 30, 연천 15, 양지 80장이고 일반 당업자용으로 배부수는 112장 잠박 송부는 각 군을 통하여 75건인데 일반 인민들 감독지도하에 열심히 사육하여서 장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당국자는 예상하였다.

1912-05-19 실부 자살의 악한, 아버 죽인 인물의 징역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아버지를 죽인 인물의 징역

인천지청에서 공판한 결과 징역 6개월에 처한 경기도 통진군 대파면 율촌리에 사는 이효열은 현재 나이가 43세이다.

성품이 본래 방탕한 까닭으로 그의 아버지 이진환의 재산을 거의 주색에 탕진하여 불효가 막심한 자이다.

메이지 43년 음력 5월 3일에, 그 아버지와 이별하고 강화군으로 이사하였는데 그 후에도 부당한 행동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해 그달 20일에 그 아버지에게로 가서 보리 다섯 말을 집어가지고 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보았는데,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작은 칼로 그 아버지의 아랫배를 찔러서 중상을 입혀, 그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 신음하다가 작년 음력 5월 26에 죽은 것을 이즈음에 김포경찰서에서 탐지하고 인천지청으로 보냈는데 지난 15일에 공판한 결과로 징역 6개월에 처하였다.

1912-05-25 총독부 공문: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235호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1912-06-05 본도 맥작 예상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본도 맥작 예상

경기도청에서 각 부군의 올해 맥작상황을 조사하여 총독부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작년에 비하여 보통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데 이를 군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군명 소화예상고 차년표

<중략> 통진군 4500 별로 차이가 없음 <중략>

1912-06-19 家(가)도 燒(소) 人(인)도 死(사)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집도타고 사람도 죽어

지난 12일 오후 10시경에 경기도 김포군 노장면 원당리 사는 윤웅섭의 집에서 불이 나서 집이 다타버렸으며 사람 1명이 사망하고 손해는 10여원 가량이라고 한다.

1912-06-21 칙어등본 하부식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칙어 등본하부식

영등포 공립소학교 시흥, 광주, 남양, 마전, 이천, 연천, 고양, 통진군 등의 공립보통

학교에 대하여 칩어 등본을 수여하기 위하여 어제 오전 10시경에 본도청 선화당 내에서 칩어 등본 하부식을 하였다고 한다.

1912-06-23 勤儉貯蓄講話(근검저축강화)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근검저축강화

근검저축 장려 및 민풍진작의 목적으로서 먼저 경기도 관내를 순회 강화하여 막대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총독부 촉탁 찬상유길씨는 오는 27일부터 시흥, 안산, 남양, 인천, 부평, 양주, 김포, 통진, 강화, 교통, 풍덕, 개성, 장단, 문산, 파주, 고양등 각지를 순회강화하고, 8월 11일에 귀청 예정이라고 한다.

그 강화에 요지는 총독의 유고와 훈시 취지를 기본으로 해서 전하고 근검저축을 장려하여 이에 관련된 각종 산업부업을 그 지방의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모범적 행위를 가르치고 교육하여 각지에 커다란 영향을 파급시키는 중이다.

1912-06-30 巡廻講話日割(순회강화일할)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순회강화 일할

근검저축의 장려와 미풍진흥의 목적으로 이번 총독부에서 찬상촉탁으로 하여금 본도 관내에 각 군에 순회 강화케 하였는데 그 일정표 다음과 같다.

지명	착	강연기간	출발
양천	10월	13일-14일	15일
김포	10월	17일	17-18일 20일
통진	10월	20일	21일 22일

1912-07-09 각지의 農況(농황)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경기 통진군 맥작

평년작 이상 보리 수확 예상고는 4430석이니 작년과 별 차이가 없고 벼농사는 비가 충분히 와서 모내기가 잘 끝났고, 묵은쌀 잔존량은 백석으로 작년과 같다.

1912-07-17 금융조합 근황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금융조합 근황

경기도에 금융조합이 설립된 곳이 17곳인데 양평, 가평은 현재 설립중이다.

그중에서 창고가 있는 곳은 수원, 안성, 문산포, 남양, 여주, 이천, 포천, 연천의 8개 조합이니 김포, 강화, 광주, 장호원, 양주는 금년 내로 설립할 예정이다.

위탁판매와 공동구입을 시작한 곳은 영등포, 수원, 남양, 이천, 여주, 강화 등이며 그 종류는 위탁판매 곡류와 식염 등이고 공동구입품은 종묘, 농기구, 비료와 경작 등이며 기타 장려사업으로 농업기술원으로 배치하여 모범전, 감독전, 모범 상원(뽕밭)등의 시설을 위하여 농업이 개량발달을 도모하고 부업장려로 양계, 양돈, 양잠, 제연(대자리) 등을 장려중이라 한다.

1912-07-17 農事改良幻燈(농사개량환등)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농업개량 환등

본 도청에서는 관내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농업개량상, 실지 상황을 견습케하기 위하여 구보다 농업순회 교사를 각 군에 파송하여 환등기를 통하여 교육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양천 7월 15일, 16일

김포 7월 17일, 18일, 19일

통진 7월 20일, 21일

1912-07-27 연합 농산품평회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연합 농산품평회

경기도청에서는 이번 관내 농산물의 발달개량을 도모할 목적으로 관내를 8곳으로 나누어 제1구(경성, 시흥, 고양, 과천, 광주) 제2구(인천 부평 김포, 양천, 통진, 강화, 교통) 제3구(개성, 장단, 파주, 교하, 풍덕, 제4구(수원, 진위, 남양, 안산, 용인) 제5구(안성, 양성, 양지, 죽산) 제6구(여주, 이천, 음죽, 양평) 제7구(양주, 가평, 포천) 제8구(연천, 마전, 삭령, 영평, 적성) 으로 나누고 매 구에 농산물을 수집하여 연합 농산품평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품평회를 개최할 경성, 인천 개성, 수원, 안성, 광주, 양주, 연천의 8개 부군은 250원 내지 150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개최 기간은 5일씩이며 장소와 일정은 제3구(개성, 제6구(여주)는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며 제8구(연천) 제5구(안성)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제7구(양주) 제4구(수원)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고 제1구(경성)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2구(인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본회에 출품한 물건은 출품인 연합회 부군에서 금년도 생산한 1.쌀(현미, 백미, 또는 가루) 5홉씩 2.맥(대소) 5홉씩 3.콩(대소) 5홉씩 4. 밤 5홉씩 5.마, 감자 5개씩, 6.연초 10매, 7.( )생사 5홉, 생사 10돈, 9. 소채 및 과실 혹은 그 외 물품이라도 농업상의 참고가 될 만한 물품도 적당하며 이런 출품물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그중에 우수한 물품은 4등까지 등급을 매겨서 출품인에게 포상을 수요할 터인데 지금 각 군에 회장을 선택하는 중이더라.(인천지국)

1912-07-30 각 군의 문명경쟁, 각 지방의 문명경쟁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각 군의 문명경쟁

경기도 김포군수 심중순씨와 <중략> 경상북도 성주군수 유봉환씨와 강원도 영월군청에서는 각 기관 내에 인민들의 지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면장을 불러 열심 권유한 결과 본 신보를 구독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문의가 계속 있어 문명사상이 발전하게 되면 불과 수년 내에 조선 전체가 모두 문명한 무대에 오를 줄을 예측하다.

1912-08-07 관내 학사의 調査(조사)[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관내 학사의 조사

본 도청에서 양주, 수원, 광주, 강화, 장단, 남양, 용인, 포천, 죽산, 삭령, 안성, 고양, 김포, 마전, 교하, 시흥, 과천, 양성 등 공립보통학교에 대하여 특별 조사보고의 건을 통지하고 올봄에 입학사항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였다.

1912-08-27 모범적 근검가, 모범될만한 부지런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모범될만한 부지런함

통진군 상곶면 구래동사는 남연용씨는 저축심이 많고 유익한 사업을 경영하기에 열심하여 현재 경영하는 식산공업의 종류는 1.농업, 2.상업, 3.어업 양어등, 4.식림, 5.양돈, 양계, 양봉, 6.공업, 등인데 아우는 농사를 담임하고 맏아들은 가사와 직조 등을 담임케 한지라 이제 여섯 가지 종류에서 작년에 산출한 이익을 들어 참고해 적어놓는다.

1.농업은 논 30두락, 밭 30두락인데 소출은 논에서 현미 16석(가격은 320원) 밭에서 잡곡 15석(가격은 150원가량), 2.상업은 포목전, 일 년 판매액이 1천800원(이익금 미상), 3.어업은 이백5십 석 싼는 범풍선에 어부 12명을 고용하여 인천 바다에서 고기 그물질을 하게하고 양어는 동군 대포면 어포포리에 대략 250평의 양어지를 설치하고 잡고기 수천마리를 수용하였고, 식림은 솔나무를 심은지 10년 된 자 3만주가 있는데 7년 된 것은 200주이고, 3년 된 것은 8만주이다. 또 감나무 10여주가 있어 1년 반만에 수입을 얻고 그 밖에 밤나무, 뽕나무 잡목 등이 많다. 양돈은 작년 경성에서 돼지를 사서 새끼 27두를 얻었는데 한 마리에 2-3원으로 판매하여 70원의 수입이 있고, 또는 미노루가 종자인데 작년은 60마리이더니 올해는 30마리를 얻었고 그 밖에는 말 한 마리, 개 4마리가 있고 양잠은 춘잠 두말을 얻었다.

2.이기종은 공공사업과 실업권면에 열심하고 자기가 먼저 식산흥업에 진력하는데 사립 학교에 열심하여 이씨의 교육을 받아가고 촌민에 과수원과 상원을 권유하여 병합 후는 일등국의 식민이 되었다. 국어를 학습하며 또 촌민을 대하여도 국어의 학습을 권유하는 실로 모범 이장이라 하겠고 동군 양릉면 면장 이운하는 융희2년부터 면장으로 면민 400호의 인민을 향하여 농업여가에 식산흥업을 권면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식림을 하여 본월 16일 이래로 온 비에 의지하여 큰 풍년의 조짐이 있다고 한다.

1912-09-03 살인죄인 압송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경기도 부평군 석천면 황곡리에 거주하는 한광숙 23세 된 자와, 신영춘 32세 된 자와, 이복남 25세 된 자는 음력 3월 20일 동면 향동에 거주하는 그 고장 사람 인성호 16세 된 자를 때려 죽인 행적이 발각되었던 것은 전보에 이미 실렸었는데, 지난 30일에 김포군 경찰서로부터 인천경찰서에 송치하여 하룻밤 유치하였다가 다음날 31일 오전 9시 경에 인천지청으로 압송하였다.

1912-09-19 李熹公(이희공)의 습葬(합장)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이희공의 합장

고 이희공 전하의 임금묘소는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김포군 풍곡리에서 오는 29일 임금을

매장할 터인데 동시에 20년 전에 돌아간 양주에 매장된 왕비와 합장한다 하더라.

1912-09-22 수원 자혜의 순진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5단 |

▶ 수원 자혜의 순진

수원 자혜의원에서 의원을 다음 일정과 같이 지방에 파송하여 순회 진단을 실시한다고 하여 경기 도청에서 각 군의 먼저 통지하였다고 한다.

오는 28일과 10월 3일은 장단, 10월 5일과 9일은 파주, 11월 13일은 교하, 15일, 19일은 통진, 21일 23일은 김포, 25일 29일은 양천, 31일과 11월 4일은 부평, 6일 8일은 영등포, 9일에 귀원할 예정이다.

진단과 시약방법은 돈이 없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무료 시료하고, 기타는 규정에 약값을 징수한다고 하였다.

1912-09-26 이회공 묘소공사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3단 |

▶ 이회공의 묘소공사

김포군 풍곡리의 이회공 전하의 묘지 공사는 이왕직 감독하에 200여명의 조선인을 사역하여 밤낮으로 하고 있는데 한강 계선장으로부터 묘소까지는 3칸 폭에 70중에 신도로는 전부 준공되었고, 기타 각종 건설물 등은 이미 70-80% 준공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계선장의 잔교건설에 착수중인데 이곳은 용산으로부터 한강을 내려오는데 기선으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1912-10-12 양처 파선의 報(보), 두 곳에 파선한 소문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4단 |

1912-10-19 연합 농산품평회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7단 |

▶ 연합회 농산품명회

경기도 각 부군의 연합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여 농민의 농업개량과 발전 그리고 사상을 장려코자 한다는데 그 연합회 구역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인천(부평, 김포, 양천, 통진, 강화, 교동) <중략>

1912-10-27 파선 통보 연침, 두 곳에 파선 통보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2단 |

▶ 파선통보 연루

두 곳의 파선통보

<중략> 지나간 18일에 경기도 김포군 고란테면 연안에서 인천 추진상회 소유의 범선 한척이 얇은 여울을 올라가다가 물결에 모래가 내리 밀려 파손되어 손해가 1천600원에 달하였다 한다.

1912-11-03 米作 收穫豫想(미작 수확예상) [매일신보] | 기사 | 11면 | 01단 |

▶ 미작 수확예상

경기 김포군 비가 적게와서 마디병이 발생하여 말라죽는 것이 많아 평년수확에 비하면 약 3할이상 감소가 예견되고 일부분 심한곳에서는 반이상 감소가 우려되어 흉작을 면하기 어렵고 묵은쌀의 잔고가 겨우 300석 내외의 소량이고 50포 대비 1호의 독농가에서 재고가 있으므로 대다수 농민들은 저녁을 일찍 먹는다고 한다.

1912-11-09 통진군의 火災(화재), 두 곳의 화재 소문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12-11-15 사람들은 모두 무사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12-11-27 파선소식 일속, 파선도 많이 되었지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12-12-04 김포의 도착 상황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김포의 도착 상황

김포지방 금융조합에서 설치한 채종밭의 도착상황과 아울러 벼 종자별로 수확량을 조사한 결과 개량종 조신력은 5석 8두 재래종은 2석 1두 5승, 고구마 재배수확 관수는 6월 9일에 심은 것은 8묘(2,400평) 210관(1관 3.75Kg) 7월 1일에 심은 것은 5묘(1,500평)에 75관으로 성적이 좋은 편이다.

1912-12-04 통진군 파선, 통진군의 파선 소식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거월 24일 오후 11시경에 경기도 통진군 보구곶면 연안에서 곡식 50석을 실은 배 한 척이 풍파를 만나 파선되었는데 배를 탔던 사람은 무사하였으나 손해가 350여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1912-12-10 6군의 품평회, 연합품평회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6개 군 연합 품평회

통진군청에서는 인천 외 여섯 고을이 연합하여 농산물 품평회를 열었는데, 군내의 면리상과 기타 유지 70명을 단합하여 시찰단을 조직하여 관람하게 하였는데, 각 군의 출품물을 공평히 비평 심사한 결과로 우등 양호한 자에 대하여 상품을 주고, 앞으로의 농사에 노력하여 정성으로 주의하여 이다음에는 우수한 등급을 출품하기를 계획하였다. 또한 소학교 성적품 전람회에 참여하여 내지인 교육기간이 빠짐없이 갖추어진 것을 칭찬하며 통진군에도 장래 교육을 장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1912-12-18 경기도 징세 성적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경기도 징세성적

경기도 관내 3부 36군의 대정 원년도 12월말 현재의 조세 징수성적 순위는 다음과 같다. 장단, 통진, 교화, 가평, 양성, 김포, <중략>

1913-01-11 경기 관내 감저 성적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13-01-11 경기도의 임업 獎勵(장려) [매일신보]|기사|01면|05단|

1913-01-14 임업 강화의 효과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13-01-15 경기도의 菜蔬(채소)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13-01-17 양잠조합에 관하여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13-01-19 연직 장려 好果(호과)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가마니 제조 장려 성과

경기도청에서 관내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가마니 제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윤 군수에게 단단히 타일러서 일을 시행케하였는데 여러 군의 실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포군청에서는 지난 5일부터 11일 1주간 관내 고란대면 사립금란학교 일부를 견습장소로 만들고 견습생은 면내에서 선출하여 장래 지방에 부업발달 방침으로서 특히 독려하고 교사 진삼차랑씨가 열심히 지도한 결과 그 성적이 양호한 바 견습 중 부군 부락인민이 계속해서 참관하였고 군 참사 기동식씨는 제반 사무를 알선하고 이 면의 면장 김선장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반 견습생의 편의를 제공하여 견습생 중 열 명은 가마니 제조 성적이 양호하였다.

1913-01-26 貯金契(저금계) 현재 수 [매일신보]|기사|01면|05단|

▶저금계 현재수

경기도에서는 올해 관내 조선인에게 저축을 장려하여 각 부군에 통첩하여 저금계의 조직을 하도록 하는 중인데 작년 말까지의 그 효과로 그 저축을 행한 자는 다음과 같다.

인천 16명, 용인 16명, 양주 63, 이천 17명, 개성 3명, 삭녕 8명, 여주 1명, 고양 3명, 통진 13명, 김포 4명, 마전 4명, 수원 4명, 음죽 8명, 광주 3명, 시흥 10명, 양평 10명, 연천 3명, 남양 4명, 파주 3명, 영평 3명, 죽산 16명, 교하 11명, 안성 6명, 진위 4명, 가평 1명, 과천 1명, 부평 3명, 양지 2명, 양성 19명, 양천 5명, 교동 1명 합계 250명 또 조합원 수는 35272명에 달하고 영세한 저금의 합계액은 2만 원 이상에 달하고 또 날로 증가할 모양이다.

저금은 대개 우편저금으로 하고 조합원 간에 수금방법은 조합에서 적립하는 사람과 조합에 직접 와서 내는 사람이 있으며 대개는 부업을 해서 그 소득으로 저축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더라.

1913-02-28 단기 농사강습회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13-03-14 무지 우악한 사람들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경기도 통진군 월곶면 보구곶리 1통 8호 농민 류경영은 자기 아내 이성녀가 그 동리 김치형과 간통함을 알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8일 오후 7시경에 그 친족 류근억, 류수영, 류도현과 같이 김치형의 집에 가서 김치형을 묶어 놓고 몽둥이로 난타하고 류근억은 화로에 쫓힌 인두로 김치형의 다리를 지진 후 그 이튿날 낮까지 포박한 죄상이 탄로되어 김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13-03-15 단기 강습회 성황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단기 강습회 성황

경기도청의 계획에 따라 단기 농사강습회가 양주, 진위, 교하, 용인, 김포, 강화, 영평, 양지, 통진 9개 군에서 지난 1일부터 6일간 집행하였고, 강습장소는 대개 군청, 보통학교에서 하였고, 강습생은 희망자 중에서 40-50명을 선발하였는데 각 군을 통틀어서 단 한명의 결석자도 없었고 열심히 경청하여 예상외로 호황을 이루었다.

1913-04-08 자행거의 불을 켜지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자전거의 불을 켜자

김포군 고촌면(고란태면)에 사는 금융조합 사무원 기충섭 씨는 그저께 오후 12시경에 마을 중심 농로에서 등불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순찰 중이던 순사에게 발견되어, 이것은 경찰의 처벌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북부경찰서로 잡아다가 벌금 50전을 받고 엄중히 말로 타이르고 풀어주었다고 한다.

1913-04-18 暴徒冒名(폭도모명)으로 협박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13-04-27 정부의 血淚滂滂(혈루방방)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절개를 깨트린 것이 철천지한

말도 못하고 피눈물만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에서 전부터 예심 중이던 경기도 김포군 노장면 죽저리 6동 10호 노병문의 아내 이성녀 63세 된 자와 그 홀 며느리 김성녀 31세 된 자의 두 명에 대한 살인과 사체를 내버린 사건은 21일에 예심을 마치고,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쳤는데 이제 그 자세한 사실을 들은 즉, 김성녀가 17세가 되었을 때에 노병문의 장남과 결혼하였는데 남편의 애정을 겨우 짐작할만한 이듬해에 그 남편이 신병으로 인해 원통한 청춘에 돌아오지 못할 다른 세계로 혼령을 옮겼다.

김성녀는 이래 14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극진히 효성을 다하며 다른 한편으로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집안의 생계를 꾸리므로 그곳의 사람들 중에서 칭찬을 안 하는 이가 없음으로, 마을에 있는 부랑한 남자들이 그 용모와 행동을 흠모하여 때때로 무례 음란한 행동으로 김성녀를 대하는 중 그 근처에 거주하는 이근심은 특히 김성녀에 대한 은근한 생각이 간절하여 김성녀를 만날 때마다 음란한 말

로 절개를 깨트리기를 애걸하나 김성녀는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못 들은체하더니 작년 2월 16일 오후 6시 경에 김성녀는 자기 집에서 한참 되는 산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는 길에 마침내 이근심에게 강제로 욕을 당한 후 평생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정절을 별안간 못된 놈에게 훼손당하게 된 것을 원통하게 여겨 두 줄의 뜨거운 눈물이 <중략>로 돌아왔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분풀이는 될지 몰라도 자신이 망신이 되겠음으로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내더니 팔자가 사나운 김성녀의 몸에 한층 더 고통을 더하느라고 공개히 한 번 강간을 당한 이근심의 자식이 뱃속에 머무르게 되어 달달이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작년 음력 11월 25일에 마침내 딸아이를 무사히 낳았으나 아이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시부모되는 이성녀에게 사실을 말하고 계교를 부려서 드디어 아이의 목을 매여 죽인 후 산 눈덩이 속에다 묻어 둔 것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녹아 3월 중순경에 나무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급히 알렸으므로 경찰서에서 범인을 수색한 결과 전개한 사실이 분명함으로 곧 체포하였다.

1913-04-30 실습 어선 出漁期(출어기)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실습 어선 출어기

경기도에서 올해 시설의 어업실습은 지금 수원, 남양, 안산, 인천, 부평, 김포, 풍덕, 교동, 교화, 통진의 10개 군으로부터 각 1명씩 선발중인고로 다음 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두 척이 출어할 예정이라고 하다.

1913-05-03 공동묘지 認可數(인가수)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공동묘지 인가수

경기도청에서 토지경제상 조선 사람에게 공동묘지 선정에 있어서 고심조사하였는데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고양군 2곳, 양성군 12곳, 포천군 11곳, 영평 13곳, 양천군 5곳, 과천 2곳, 강화 21곳, 진위 7곳, 김포 3곳, 개성 1곳, 교화 8곳, 합계 11개 군 85개소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다고 하다.

1913-05-09 조혼은 패가지본, 좋은 피가하는 장본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조혼은 패가하는 근원

어린 계집의 악한 행위

매일신보 인천지국, 인천부,

인천지청에서 예심 중이던 경기도 통진군 소이포면 신리 5통 3호 김영성의 처 공복순 17세 된 여자아이의 방화 사건은 요즘 예심을 마치고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친바, 그 사건의 내용을 들은 즉, 복순은 4년 전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김 모 씨에게로 시집을 왔지만, 그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던 것을 잊지 못하여 거짓으로 몸이 아프다고 하고, 물 한 방울을 먹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 시부모 되는 사람은 걱정을 하다가 시집 온지 열흘 만에 분가로 데려다 주었는데 그날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앓던 병이 나왔다.

이듬해 음력 1월 30일에 그 남편 되는 김 모 씨가 가서 복순이 오기 싫다는 것을 꾸짖어서 데리고 왔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그 남편에게 끌려오며 천지에 용납하지 못할 악의를 마음에 품어 그 남편을 죽여 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평생을 지내려고 온지 이틀 되던 날 저녁 때 <중략>

1913-05-17 김포군 洞里(동리) 폐합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김포군 동 리 폐합

김포군에서는 그간 동리 폐합을 출원중이던바 5월 16일부로 인가된다는데 그 내용은 군내면 7개리를 북변리, 걸포리, 감정리 3개리로, 석한면 7개리를 운양리, 장기리 2개리로, 마산면의 5개리를 목공리, 불로리 2개리로, 고란태면의 6개리를 향산리, 풍곡리, 태리 3개리로, 검단면의 13개리를 황전리, 금곡리, 오류리 3개리로, 노장면의 7개리를 당하리, 원당리 2개리로, 고현내면의 5개리를 풍무리, 급사리 2개리로, 임촌면의 4개리를 신곡리, 전호리 2개리로 병합하였다 한다.

1913-05-20 토지조사 위원 임명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토지조사위원 임명

토지조사회 임원회의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각 지방에 대하여 적당한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요즘 점차 정리가 되어 사무상 부산을 제외하고 기타 각 시가지(해주는 당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이에 포함함)에 대한 시가지 조사위원회 자문에 부의하려고 하는데 3일내에 임명 발표할 예정이며 또 지방토지위원회 대해서도 경기도 중에 부천, 양천, 김포, 통진, 인천, 안산, 시흥의 각 군과 경상북도 대구, 고령, 현풍의 각 군은 이미 토지조사가 완결 정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회 개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동시에 위원회 임명을 하리라고 한다.

1913-05-28 학교 의의 配置(배치)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학교담당 의사의 배치

경기도 관내 촉탁교의에 배치를 알아본즉 경성 종로, 남대문은 일출봉정이, 각 학교를 일괄하여 한성병원으로 하고 용산, 원정 2개 학교에는 1명, 인천 2개교에 1명, 수원, 남양, 용인, 포천, 삭녕, 가평, 영평, 마진, 적성, 연천, 고양, 광주, 양지 등 각 공립학교를 일괄하여 수원 자혜의원으로 하고, 개성, 장단, 풍덕 등 각 학교를 통틀어서 1명이, 교하, 파주에 1명, 양주 1명, 김포, 부평에 1명, 인천 1명, 시흥, 안산, 안양, 과천 1명, 여주, 양평, 이천, 음죽 1명, 안성, 죽산, 양성, 진위 1명, 강화, 교동, 통진에 1명, 계 15명을 배치하였다고 한다.

1913-05-30 어업 실습선 出漁(출어) [매일신보]|기사|01면|03단|

▶어업 실습선 출어

경기도 어업실습선은 28일에 인천항으로부터 출어하기로 하였는데 실습생은 남양, 수

원, 안산, 부평, 김포, 통진, 풍덕, 강화, 교동, 인천의 일부 부군으로부터 한명씩 도합 10명을 두 척의 어선에 승선하고 기수 감독 하에 연해에서 참조기, 새우, 농어 등 즐낚시와 양꼬망 어업 방법 등 기술을 스스로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913-05-31 그제 두지 못할 위인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 검단면 완정리 4통 4호에 사는 최학여는 고양군에 거주할 때에 그의 아내 홍성녀 21세 된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 일이 있어 남에게 수치가 되어 지금 거주하는 김포군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데도 그 여자는 비루한 행동을 고치지 않았다.

하루는 제 서방에게 말하기를 성이 다르지만 일가가 되는 사람의 집에 다녀오겠다고 청하기에 의심 없이 허락하였더니 그 길로 허경수라는 자와 같이 서울 구경을 하려고 올라오던 날 밤에 허경수와 비루한 행동이 있었는지라 본서방 되는 최학여는 그 여자가 서울로 올라온 것을 알고 즉시 상경하여 모든 방면으로 찾아다니다가 수일 전에 서부사직동 등지에서 그 여자와 허경수를 만났다.

서대문 경찰분서로 끌고 와서 그 여자의 행실과 허경수의 못된 악습을 일일이 진술하였고 그 여자와 허경수를 엄중히 취조하였더니 전후 사실을 자백하기에 그제 두지 못할 일이라 하고 허경수와 홍성녀를 경성지방법재판소로 압송하였다.

1913-06-03 토지조사 위원 임명 [매일신보]|기사|01면|03단|

▶토지조사위원 임명

시가지와 지방토지 조사위원 임명권은 누차에 보도한바와 같이 21일부로 부산을 제외한 26개 시가지 지방에는 경기도, 부평, 양천, 시흥, 김포, 과천, 통진 안산, 강화, 교동, 양성, 남양, 11군과 경상북도 중에 경산, 고령, 현풍의 3개 군 도합 14개 군에 임시 토지조사위원을 발표하였는데 그 조직-시가지 및 지방 조직-은 임시위원으로 민간에서 2명, 당연직 위원으로 부의 직원 또는 군수로 1명을 임명하고, <중략>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는데 위원회 개최는 시가지를 먼저하고 빠르면 7월 하순 예정이며 북쪽 중동부에서 시작하여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개최할 방침이며 경성과 해주는 진행상 마지막으로 미루었다고 한다.

1913-06-05 통진의 害虫(해충) 상황 [매일신보]|기사|01면|05단|

▶통진의 해충 상황

경기 통진군에서는 송모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충구제를 위하여 일면 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잡게 했는데 전부 전멸할 생각인데 잡은 해충은 전부 순사주재소에 보관할 예정인데 현재 잡은 양은 많으면 2-30석, 적으면 10석 내외로 잡은 해충이 주재소에 산과 같이 쌓였는데 전체 양이 150석 이상이라고 한다.

1913-06-12 김포의 해충 驅除(구제)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김포의 해충구제

경기도 김포경찰서 관내에서는 해충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함으로 관할 경찰서장은 군수와 협의 후 구제키로 하였는데 5월 18일부터 월말까지 구제수량이 6,686판이 넘는다고 한다.

1913-06-15 경기도의 독행자, 김포군 검단면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경기도의 독행자

김포군 검단면 반월촌 유생

농 이규원씨(48세)

이규원씨는 성변이 선량하여 일찍 이장을 봉직한 일이 있고, 항시 농업개량의 발달을 도모하여 풍토에 적당한 좋은 곡종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조선 각 지방에 파종하여 농업을 경영하는데 그 수확이 매년 증가하여 타 농민에 비하면 우위를 점하고 이규원씨는 언제나 농가가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종자의 선택에 있다고 반복해서 설명하여 이를 실천케 하고 또 제반 농사의 개량에 노력하여 면민의 칭송이 자자했다.

1913-06-19 경기도 插秧(삽앙) 상황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1913-06-21 민간 제염의 상황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민간제염의 상황

대정 원년도 경기도 관내에 있는 민간제염 상황을 알아본 즉 제조 인원은 1,348명이고 인부 수는 657명 염전면적은 2,114,590평, 생산액은 3,726,800근, 세액은 2,236원 08전인데 이중 남양군이 2,776,003근이 가장 많고, 전체 생산액의 7할 4리를 점하고 있으며 통진군에 247,600근, 인천 242,700근, 안산군 189,100근, 그 다음이 강화, 수원, 부평, 김포 순위로 영업자가 최근에 자금난이 심하고 금리가 연5할에 달한지라 이로 인하여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저리자금의 공급과 가마 개량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중이다.

1913-06-29 경기도청 대서장의 회의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경기도청 대서장의 회의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청 선화당(경기관찰사 집무실)에서 개최한 경찰관 회의는 오전 9시부터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인천, 개성, 수원, 안성, 영등포, 강화, 교화, 김포 등 8개 경찰서장과 제1분대장 장촌정 대위, 제2분대장 신압 대위, 용산분대장 춘전대위, 양근 외 9개소에 분견대장 등이며 약사 천부정, 가원부관과 직야동 양 경부가 임석하였고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7일 대서장 관내 정황보고,

28일 질의 희망사항 해답

29일 자문 및 지식(송사검사정 강화)

30일 부외강화(도장관 및 경감부 각 과장 강화)

1913-07-03 경기도 역정풍상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경기도 역정풍상

고견 경기도 기술사는 도내에 각 부군 농업현황을 시찰하고 30일에 귀임하였는데 그에 말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의 모내기는 약 1/5 정도가 끝난 모양이고 각지가 다 같이 농수량이 풍부하여 모내기가 힘든 수답은 극히 적은 고로 이 상태로 가면 금년의 쌀 생산은 낙관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맥작에 대해서는 각 부군을 시찰하기 전까지는 비판하였으나 겨울에 추위가 혹심하고 가문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군을 실제 돌아보니 예상과 달리 그 곳 농민들은 보리의 풍작을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보리 수확량이 예상한 것보다 양호함을 알게 되어 평년작은 이상은 확실하며, 지난해의 풍작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확을 종료하였고 본연의 각지의 해충 발생이 없어서 도작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며 약 3일전에 김포군 고란태면을 통과할 때 이 면에 논 일부에 명충이 발생하여 근처에 있는 농민이 모여 즉시 눈에 마른 잎을 채취해서 시의 적절하게 조치해 박멸하였음을 보았고 그 면적이 협소하여 주위에 만연될 염려는 없다고 한다.

1913-07-08 맥과 삼양(6), 전도 각 군아의 통신 [매일신보]|사설|01면|02단|

▶맥과 삼양(벼 이앙)

(전도군아의 통신)

경기도 김포군 7월 3일경에 거의 모내기를 종료하였으며 심은 면적은 2,022중 2반보고 강우가 자주 와서 오히려 모내기가 어려웠으며 벼 품종은 재래종과 개량종 중 조신역, 석백 등으로 모내기가 양호하고 쌀 예상고는 476석이고 보리 실 수확량은 6,776석이고, 대맥은 6,300석, 소맥은 476석이라하고.

1913-07-08 경기 통진군 [매일신보]|사설|01면|02단|

▶용수가 부족하여 7월 3일까지 모내기한 면적은 약9할5분 정도로 3,231중 8반보 정도 모내기를 종료하였으며 벼 품종은 재래종이 주가 되고, 개량종은 소수라 쌀 생산고는 300석이고 맥은 성적이 극히 양호하나 현재 수확중인고로 실 수확량은 알 수 없으나 예상고는 8,960석 가량이내이고 대맥은 7,460석, 맥은 1,500석 가량이라 한다.

1913-07-10 경기도 鹽業(염업) 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경기도 염업조사

경기도의 염업은 미미하고 부진하나 고래로 염업지로 유명한 남양군이 있어 염전, 674,428평이 있고 가마수는 1,128개이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3명이고, 안산군 62,995평 가마수는 19개 141명의 종사자가 있다.

그 외에 부업적으로 김포, 인천, 부평, 통진, 강화 등에도 산재하여 있어 장래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특히 사용하는 송염(솔잎)은 1년에 약 2,165석으로 시가 9만여 원에 달하며 임업에도 큰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석탄을 사용하게 할뿐만 아니라 연료와 제

염법 개량방법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1913-07-23 금융조합 직영 模範田(모범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금융조합 직영 모범 전(밭)

경기도 관내 수원, 개성, 남양, 안성, 이천, 강화, 김포, 포천, 연천, 부평, 장단, 양주, 광주의 각 지방 금융조합의 금년도 직영 모범전 사업은 농작물 좋은 종자 보급경작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경비 686원 전을 투입하여 논벼, 밭벼, 고구마, 감자, 대두, 맥류 기타 채소 등의 농작물을 지었는데 그 농사지은 면적은 1중(3,000평) 1반(300평) 1묘(30평) 3보(1보 3평)이고 수확예상고는 논벼 80석(1가마니)9두(1말), 밭벼 6석7두, 고구마 1795관, 감자 1148관(1관 3.75Kg), 대두 7석5두 6승, 맥류 6석3두라. 이와 같은 수확한 농산물은 조합원에게 내년도에 종자로 교환하거나 염가로 배포한다고 한다.

1913-08-03 경기도 납세 성적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경기도 납세성적

경기도내 인천, 가평, 음죽, 남양, 통진, 강화, 개성, 연천의 각 군 92개소에 납세조합 제2기(6월말) 말 성적은 현재 조합원 10,150명 본기 저축금고 2,985원69전으로 누계 4,892원89전5리이며 불입이 안 된 세액은 335원13전5리(납세충당) 현재액은 4,557원66전이라 한다.

1913-08-03 사기 전문자 압교, 사기취재에 졸업한 자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13-08-06 경기도의 製鹽高(제염고)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경기도의 제염고

경기도 관내 제염상황을 알아본즉 전업자는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제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1년 중 100일간을 못 넘길 것이고 하루에 주야간 줄이는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도 4번 이상 어려우며 2회 정도 가능하다.

1회에 소금의 생산량은 1석3두 내지는 3석에 달한다. 가령 최소수로 1년에 100일 동안 해봐도 하루에 2번 밖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에 1석의 소금을 생산한다고 해도 1년에 소금생산량은 200석이니 한 되를 두 근으로 환산하면 4만근을 제조할 터이고 동 관내 제염지로는 김포, 인천, 안산, 남양, 수원, 부평, 통진, 강화 북쪽이 주 생산지이다.

1913-08-08 한강유역 해적단, 한강 하류의 해적 출몰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한강 하류에 해적 출몰

강화 경찰서에서 잡아

용산면 공덕리 대현동 99통 8호에 거주하는 술장사 서병두(37)는 7월 26일 오전 8시경에 마포나룻가에서 조선 배를 얻어 소주를 싣고, 사공 김학여, 김덕심 두 사람은 배를 저어 김포군 봉성리 강령포 등을 지나 27일 오후6시 경에 강화군 송정면 송래동 해안에 닿고 <중략>

1913-08-15 동대문서의 경찰법, 동서의 경찰법과 벌금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동서의 경찰법과 벌금

신문들도 못 보았던가

<중략> 경기도 통진군 월평리 서호동에 거주하는 김재선 30세 된 자는 말고삐를 놓고 길로 지나가다가 발견되어 즉시 과료금 30전에 처하였다.

1913-08-16 各道(각도) 虫害(충해)의 상황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각 도 충해의 상황

총독부에서는 각도 장관에게 명하여 각지에 도착 충해의 상황을 조사 중인데 강원도 장관으로부터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원주군 부론면, 본부면, 영월군 좌변면, 우변 및 북면, 횡성군 고모성면, 우천면에 이화명충과 멸구가 발생하였으나 각각 구제법을 시행하여 큰 피해는 없고, 또 경기도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고양군 중면, 통진군 군내면 및 반이촌면에 이화명충이 발생하였으나 각각 구제법을 시행해서 역시 큰 피해는 없다고 한다.

1913-08-24 돼지 도적을 잡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인천지청에 2, 3일 전에 경기도 김포군 경찰서로부터 송치한 경성 동대문 안에 거주하는 차재혁 23세 된 사람과 동남부 성명방에 거주하는 성명원 21세 된 자 두 명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에 공모하여 경기도 부평군 하면 원종리 2통 3호 장문삼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 한 마리를 훔쳐 동편 삼정리에 거주하는 박영덕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57전을 받고 판 일이 발각되어 김포경찰서에 잡힌 자이다.

1913-08-31 경기도 改修街道(개수가도)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경기도 개수 가도

경기도 관내에 안성 가도 진위군 병파면 경부철도 평택역으로부터 양성, 안성, 죽산, 음죽등 각 군을 지나 여주군 읍내까지 20리의 도로는 산악이 첩첩이 있어 위험을 면키 어려워 올해 7월내에 폭 2칸 내지 2칸 반으로 개수 완성하였다.

강화 가도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 경부철도 정거장으로부터 양천, 김포, 통진 등 각 군을 지나 강화군 강화읍까지 13리 4정은 폭 2칸 내지 3칸을 4월내로 개수 완성하였다. <중략>

1913-09-07 의원시료 감음, 수원자혜의원의 시료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수원 자혜의원의 무료 치료

일반 병자의 무료 치료 감사가 늘어

풍덕군에는 지난달 23일에 수원 자혜의원 의사 고교숙과 조수 심상년 두 사람이 출장해서 해군 공립보통학교내에 진료소를 정하고, 풍덕군과 개성, 통진 등 삼군에 있는 각종 병자를 치료하는데 약값은 무료로 이달 1일까지 매일 병자가 몰려와서 약 팔백 명에 달하였으므로 앞에서 말한 두 사람은 몹시 심한 더위에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치료하여 주는 것을 일반 병자가 감사해 한다고 한다.

1913-09-16 李堉公(이준공) 성묘 연기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13-09-18 수원 자혜원 巡診(순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수원 자혜원 순진

경기도 수원군 자혜의원에서는 요즘 인천부청에 의사 수명을 출장하여 순회 진료를 한다는 통첩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소관 각 면장에게 통지하여 면민 중에 알려야 하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재력이 전혀 없는 내지인(부운, 헌병 순사의 증명을 요함)과 조선인에 한하고 기타에게는 규정한 약값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진료기일과 장소구역을 알아본즉 다음과 같다.

진료기일	장소	구역
9월 15일-9월 21일	시흥읍내	시흥, 과천, 안산
9월 24일-10월 5일	부평읍내	인천, 부평 김포, 양천
10월 8일-10월 9일	강화읍내	강화, 통진
10월 21일-10월 31일	교동읍내	교동

1913-09-21 경기 관내 퇴비사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경기도 관내 퇴비사

그 동안 조선에서 경남지방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퇴비를 생산한 것이 없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인천, 영평, 광주, 김포, 통진, 수원, 진위, 남양, 양성과 기타 11개 지역에서 퇴비사를 설치하고 그 재료비로 각 5원씩 보조금을 주었는데 성적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1913-10-01 경기도 금융조합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경기도 금융조합

1913년 8월말 경기도 내 수원, 남양, 개성, 안성, 이천, 여주, 김포, 기타 12군의 금융조합 상황은 자산과 대부금 194,162원24전, 농구채료 13,091원20전, 현금 13,770원26전, 예금 37,040원이라 한다.

1913-10-26 토지 등급의 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13-10-28 仁川(인천) 농산품평회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인천농산품평회

다음달 17일부터 4일간 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 우천체조장에서 개최한 인천부, 부평군과 김포군의 연합 농산물 품평회의 출품 수는 인천부가 400점, 부평군과 김포군이 각 300점씩 합계 약 1천점인데 경비는 도보조금 외 관계 부군의 유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보통 출품물은 개최 7일전까지, 저장보관이 어려운 물품은 1일전까지 도착해야 하고 매품수는 1등 5점, 2등 10점, 3등 25점, 4등 100점이라 한다.

1913-10-29 嫉妬心(질투심)으로 放火(방화)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질투심으로 방화

경기도 통진군 보구곶면 성동리 나룻배를 운영하는 황여수(32)는 수년전 김성녀(19)를 첩으로 맞아들여 부부가 화목히 생활하더니 가게가 어려워짐으로서 부부간에 의논하여 금년 5월부터 김성녀는 주막을 개업하였다.

김성녀는 원래 미인인고로 청년남아 등이 다수 출입하며 김성녀도 상업상 부득이 손님에게 애교를 부리는 것을 황여수는 때때로 집에 들어와 목격하고 질투심이 일어나 험한 말을 하고 가내에 풍파가 그치지 않았다.수일 전에는 김성녀가 동네 모 남자가 후문에서 술값을 셈하느라 이야기하는 것을 황여수가 보고 정부라 생각하여 질투심으로 논쟁하다가 주막을 폐업하지 않으면 집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김성녀는 불응함으로 자가에 불을 질러 전소케 하였으므로 방화범으로 김포서에 체포되어 경성법원 검사국에 압송되었다고 한다.

1913-10-30 京畿(경기) 柞蠶(작잠)의 성적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13-11-12 계집을 찾아 달라고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경기도 김포군 고창리 4통 2호 박복성의 아버지 박 모 씨는 경성 서부 인달방 사직동 48통 12호에 거주하는 김상필의 누이 김성녀를 민며느리로 8살이 되었을 때 데려다가 수년 전에 박복성과 결혼하여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며 2살 된 아들까지 두었다.

그런데 김성녀는 어찌된 일인지 박복성을 싫어하여 어린 자식을 내버리고 어디로 도주하였으므로 박복성은 사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서대문 분서에 수색원(사람을 찾아 달라고 청원)을 제출하였다.

1913-11-15 김포군의 馬鈴薯(마령서)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김포군의 마령서(감자)

경기도 김포군에 작년도 감자수확 총량은 2,085관인데 올해는 개량 장기적종 250관을 배포해서 이를 심도록 한 결과 그 수확량이 2,778관이 나왔다.

재래종의 수확고는 925관에 달하여 근래에 농민사이에서는 환영하는 일이 적지 않아 올해는 특히 이 종자의 저장을 권장하였더니 각 면을 통해서 저장인원 156명, 저장종 감자는 개량 장기적종으로 하고 또 김포공립보통학교 교장의 알선과 독려로 학교농원을 이용하여 생도에게 지시하여 재배 육성케 하였다.

그 수확물은 각각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내년도 종자로 쓰게 하고 나머지는 식용으로 하여 부모들이 환영하였는데 그 저장 인원은 41명이고 저장수량은 76관으로 내년 번식재배 효과는 가히 기대할만 하다고 한다.

1913-11-20 인천의 褒賞授與(포상수여)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인천의 포상수여

인천부 부평군과 김포군 연합농산물 품평회 포상 수여식은 18일 오후 1시부터 인천공립심상소학교 운동장에서 거행하였다.

경성측에서 내빈은 산연 정무총감 대리 증천 농무과장, 총재 회한 도장관 대리 유참여관 송병준자, 인천측에서 화전 관측소장, 궁목 세관장, 암기민장, 와전검사공관서장, 시교 우편국장, 기타 유지등이 입장하고, 출품자가 순서대로 식장에 들어와 착석한 후 회장 구수 부윤은 개회를 선언하고 동시에 긴 인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심사장, 죽전 기사의 심사보고가 끝나고 나서 총재 대리 유참여관으로부터 1등 수상자 인천부, 현미 김재구, 벼(조신역) 인천부 신수영, 김포군 벼(재래종) 임병의, 인천부 대두 최진환, 부평군 장성진, 이하 2등, 3등, 169명에게 포상을 수여한 후 잠시 총재의 훈시가 있었고 이에 출품자 총 대표로 석총 농산공 장관의 축사가 있는 후 오후 2시 30분에 폐회하였다.

이번 출품 수는 1,250점이고, 참고품 250여점이고, 수상점수는 1등 5점, 2등 16점, 3등 94점, 4등 104점 합계 165점이고 당일 내빈은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관람자가 3,000여명에 달하여 전무후무한 성황을 이루었다고 보고하였다.

#### 1913-11-22 인천 품평회폐회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 ▶인천품평회 폐회

지난 17일부터 인천공립심상소학교 구내에서 개최 중이던 인천부, 부평군, 김포군 연합농산물 품평회는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을 얻었다.

20일 오후 4시에 대회를 폐회하였는데 개최 중 관람자의 총수는 1만5천명이고 그 중에 조선 사람은 4천여 명에 달하고 출품한 물건의 반 이상은 팔렸고, 나머지 기타는 폐회와 동시에 각 출품자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 1913-11-25 회원 도장관 출장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 1913-12-20 한강하류의 海賊(해적)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 ▶한강하류의 해적

12월 7일 오후 11경 경기도 통진군 하성면 전류리 나루터 하류에 약 1정여의 한강에 정박 중인 강삼석 외 2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벼를 가득 실은 배안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 2명이 곤봉을 들고 들어와 벼를 인도치 아니하면 구타하겠다고 위협하여 정조 10석, 보리 1석, 피 1석, 견적가격 87원을 강탈 도주하였다는 보고가 김포서에서 인천지청 검사국에 보고되었다고 한다.

#### 1913-12-24 김포 수상품 진열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 ▶김포수상품 진열

김포군에서는 전날 인천부에서 개최한 농산품평회가 일반 농민에게 널리 알리지 못하여 군에서 이를 관람한 사람은 5~6명에 불과하여 이를 유감으로 여겨 지난 19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군청사무실에 군내 수상자의 미맥, 대두, 소두, 율 등 50여점, 통진군에 33여 점을 진열케하고 일반의 관람을 하도록 하였는데 출품물에 대하여는 직원이 일일이 설명하였는데 장려하는데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1914-01-13 京畿麥作(경기맥작) 詳報(상보)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경기맥작 상보

1913년도 경기도의 맥작은 총 작부 반별 66,184정 4반이고 실 수액은 625,384석인데 전년보다 작부 반별 1/2 수확량이 1할3분4리가 증가하였다.

감소한 곳은 경성, 영평, 가평, 이천, 여주, 음죽, 죽산, 남양, 양천, 파주, 마전 등 11개 군이고 증감이 있는 곳은 안산, 김포의 두 군이고 기타 25개 부군은 전부 증가를 보였다.

맥종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맥종 작부반별 실수액 일반부 전수량

대맥 47,791정2반 486,096석 1,017석

소맥 17,315정1반 131,109석 757석

나맥 1,078정1반 8,179석 759석

계 66,184정4반 625,348석

**1914-01-25 小作人(소작인) 3백명 애원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소작인 300명 애원

김포군 흥도의 광야 수백정보는 윤 후작의 소유인데 금년부터는 소작인에게 보리나 잡곡을 농사짓지 못하게 함으로 이 농지의 소작인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원차 300여명이 지난 22일에 상경하여 후작과 면회하고 애원한 바 있다고 한다.

**1914-01-28 경찰매일: 도작인송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경찰매일

도작인송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7통 7호 농부 박한봉(31세) 같은 동네 7통 4호 송성옥(33세) 두 사람은 지난 13일 오전 1시20분경에 경기도 통진군 월곶면 동을산리 이성한 소유인 김포군 군내면 곁포리 소재 산림에서 작은 소나무 10벌을 도벌하여 집으로 운반하다가 도중에 김포서에 체포되어 26일 인천지청에서 매30대를 맞았다고 한다.

**1914-03-01 어업장려 호황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어업장려 호황

경기도에서 어업개발에 투자하기 위하여 1913년도에는 강화, 인천, 수원, 김포, 통진, 풍덕에 각 군 어업과에 보조금 1천원을 지원하여 안강만 15개, 어선 6척을 새로 만들어 시험 조업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강화군 황정희는 4월부터 12월까지 80일간에 800여원의 어획을 올렸고, 같은 군에 한운현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215일간 1,827원76전의 어획고를 올렸다고 한다.

1914-03-03 부군 은사금 異動(이동) [매일신보]|기사|01면|03단|

▶군수임면일부

부군 폐합에 따른 군수임명은 기하 보도한 바 있고 28일 관보로서 발표하였는데 이 달 2일에 총독부 관보로 발표한다고 한다.

경기 군수 이동

3월 1일 부군폐합 실시에 따라 전 도에 군수이동이 있었는데 이미 알린바와 같이 경기도의 인사이동은 다음과 같다. <중략> 김포군수 차석민(유임) <중략>

1914-03-25 별 사기 취재도 있다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별 사기 취재도 있다

인천 무부내면 율목동에 거주하는 김정춘 27세 된 자는 작년 음력 10월 2일에 장사차 김포, 군산의 면삼리에 사는 객주 박인서의 집에 투숙하는 중에 박 모 씨의 처 이성녀가 그의 아들 기순의 처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이성녀를 데려다 말하기를 교동군 송가면 하동에 거주하는 자기의 사촌 동생 김기보의 만딸 18세 된 규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성녀를 교동 부근까지 동행하여 혼인비로 돈 10원을 속여 빼앗았는데, 즉시 체포되어 인천지청에서 공판한 결과 징역 5개월에 처하였다.

1914-03-31 독농가 糞肥製造(퇴비제조)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독농가 퇴비제조

조선 농업자는 퇴비 제조하는 방법을 몰라 농업발전의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안타깝게 여겨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사는 서상희는 독농가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제조장을 설치하겠다고 경기도청에 신청하였더니 보조금으로 5원을 보조하고 이를 모범 퇴비장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1914-04-05 金浦公校(김포공교) 졸업식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김포공립학교 졸업식

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 4월 26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각 관아 직원 학부형과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김포군에서 처음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유지신사들의 기부금 총액이 48여원에 달하였는데 이 학교 직원은 기부금 사용처를 연구 중이라 한다.

1914-05-03 술값에 의관을 잡혀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술값에 의관을 잡혀

김포군에 사는 조성준 35세 된 자와 부천군 가월리에 사는 이사언 두 명은 인천이 하도 좋다 함을 듣고 돈백이나 가지고 인천 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질탕이 놀고도 무엇이 부

죽하여 명월이란 기생집에서 술 1원50전어치를 먹고 그대로 나가는 것을 그 집에서 고용한 어린아이들이 두루마기를 잡고 술값을 내놓으라고 할 사이에 이사인은 도망을 갔다.

조성준은 붙잡혀 무수히 얻어맞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어찌할 수 없어 두루마기와 갓을 잡으라고 하며 한참동안 용동 큰 길에서 모양이 창피하였고 한다.

1914-05-16 초맥맥 이후방방, 40년 만에 모녀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사십년 만에 모녀 서로 만나

당사자는 물론 타인까지 반겨

권성녀(장성녀의 막내딸), 경기도 인천부, 담동천주교당, 안산군, 김포군

이달 10일 오전 10시경에 인천 담동 천주교당 층층다리에 오고가는 사람이 하나 둘 모여 수백 명으로 인산을 이루던 중 그 가운데 두 부인이 서로 손목을 잡고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무슨 소회가 있는지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 내용을 들은 즉, 인천 안에 있는 리 130번지에서 시계점을 하는 지영태 씨의 수양모 장성녀 77세 된 부인은 본래 소녀 시절에 안산 다방에서 권 모 씨와 결혼하여 지내다가 연분이 거기까지인지 권 모 씨가 갑자기 첩을 얻은 후로는 집안에 풍파가 그칠 날이 없고, 장성녀의 마음이 온순하지 못하여 36년 전에 본 남편을 배반하였다.

세 딸이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와서 여러 곳을 집으로 삼아 방물장사를 하여 돈이 모이므로 전지 영태로 수양자를 삼아 늙어가는 신세를 의지하고 천주교를 믿고 있었다.

지금 김포군 웅정리에 사는 자기 막내딸 권성녀 43세 된 자는 7세 되던 해에 자기 모친을 생이별하고 지금까지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 사방으로 수소문하다가 인천에서 넉넉하게 산다는 것을 듣고 다른 일은 다 제쳐 놓고 지난 10일에 인천에 당도하였는데 그날은 마침 쉬는 날 뿐만 아니라 자기 모친이 교회 신자라 하여, 마침내 천주교당에 간 줄을 짐작하고 천주교당 문 앞에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을 일일이 살피나 36년 동안에 모친의 얼굴을 잊었으니 어찌 찾을 수 있겠나 만은 천륜은 할 수 없는지라 모친 장성녀를 만나니 자연스럽게 반가운 마음이 생겨 친근하게 문답하다가 36년 전에 이별한 모녀라는 것이 판명되어 쌓여있던 슬픔과 기쁨이 서로 합하여 대성통곡을 하였다는데, 듣는 사람마다 참 반갑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였다.

1914-06-07 지방통신: 경기도, 순회 진료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경기도 5일착, 순회 진료

수원)지난 4월 9일부터 강화, 인천, 부천, 김포 등 각지에 의원이 출장하여 일반 환자들을 5월 30일까지 진료를 끝냈다.

오는 7월 2일에 귀원하는데 강화군은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약20일간 환자 총수는 1,481명이었다.

인천부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인데 7일간 환자총수는 353명이며, 부천군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7일간 환자 총수는 458명이다.

김포군은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하였는데 10일간 환자총수는 1,000명이었다.

각 지방은 통틀어 진료일수는 44일간으로 환자총수는 3,292명에 달하였는데 각 진료소 중 강화군은 폐지스토마 환자가 경기도내에서 제일 많았다.

앞서 이야기한 환자 중에도 59명이 있다고 하며 소화기 질환은 각 진료소에 그 수가 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피부병, 암병, 호흡기병 등이 아주 많고 그 외에 질병은 기생충 병중에 촌충환자가 도처에 많이 있다고 한다.

원래 조선인은 음식물 관계로 이 질병에 걸리는 자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촌충이 인체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유해물임을 생각지 않더니 의사의 주의가 있고나서 점차 개인의 위생관념이 발달하여 요즘에 와서는 이를 치료받기 시작한 것은 실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음 진료는 이달 20일경부터 즉시 관내 지방 진료를 위하여 의원을 파견한다고 한다. (수원지국발)

1914-06-14 색마의 노한, 의붓딸을 강간하려다가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의붓딸을 강간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무수 난타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과해리 12통 7호에 사는 부끄러움은 조금도 모르고 다만 61세까지 약간의 자본으로 밤낮으로 술자리에만 빠져 허송세월하는 김창용이라는 자는 자신의 첩 김성녀가 데리고 들어온 딸 김간난 현재 17세 된 어린 여자아이의 예쁜 얼굴을 흠모하여 집착하여 생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올해 3월 경에 염치도 없이 불같은 욕심이 치밀어 김성녀의 집으로 가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김간난에게 여러 가지로 달래여 입을 맞추자하며 또한 억지로 강간하고자 하자 간난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엄마를 부르자 욕심을 행하지 못 하였다.

또한 그 후에 다시 와서 전의 모양으로 난잡한 행동을 하였으나 또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지난 12일 새벽에 김성녀의 집으로 또 가서 간난이가 그 엄마와 한방에서 자는 것을 불러서 일어나게 하여 광으로 끌고 가서 그 자리에다가 넘어트리고 장차 강간을 하려고 할 때에 김성녀가 딸을 찾으러 나와 일장풍파가 일어났다.

또한 그 추악한 욕심을 채우지 못하였음을 분하게 여겨 몽둥이로 김성녀를 구타하고 세간을 보이는 대로 모조리 깨트리고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섰다가 그날 오전 9시쯤 되어 또다시 자기 둘째 아들 김교수 29세 된 자를 데리고 와서 김성녀와 그때 마침 다녀왔던 김성녀의 큰아들 김무용에 대해 사실이 조금도 없는 자신을 이리저리하다고 순사주재소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니 너희들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하며 부자가 달려들어 협력하여 두 사람의 팔과 발을 속마로 꼬아 만든 줄로 칭칭 감고 긴 몽둥이를 두발 사이에 가로질러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양편으로서 뱅뱅 돌려가며 난타하였는데 김성녀와 김무용 두 사람이 다리와 어깨 여러 곳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고소되어 요사이 체포되는 동시에 상해죄라 하여 인천지청에 기소되었다.

1914-07-14 천하무쌍 노자유부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한 살 먹은 아이의

## 18세 된 맏아들

어리고 어린 젓먹이는 아버지가 되고 장성하여 지금 나이 18세 <중략> 친절한 벗에게 자기의 박복함을 항상 말하여 오던 중 작년 5월경에 어떤 자의 권고로 김포군에 사는 친척 원모의 아들 원창옥 18세 된 아이를 양손으로 정하여 겨우 마음을 얼마간 위로하여 오는 터 <중략>

1914-09-17 개성부호를 사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주사위 노름에……

……삼천여원 빼앗음……

시내 남대문 안창동에 사는 이명서 29살 된 자는 경기도 통진군 월곶면에 사는 오준삼 31살 된 자와 개성군 영북면 길수리에 사는 백태흠 31살 된 자 두 명과 함께 피하고 경성 부자로 유명한 왕한근을 속여서 타짜 노름으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달 닷새날 왕한근을 여러 가지로 꾀여 노름하기로 약속하고 주사위를 장만하여 한번 지는 때에는 때인 돈의 다섯 배씩 주기로 작정한 후 사기도박을 하여 왕한근의 돈 1700원을 빼앗았고 또 그 후 계속하여 경기도 연천군 사는 권태운을 속여 또한 1,500원을 빼앗은 사실이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 석촌 판사의 재판 심리로 이명서를 징역 8개월에 처하였고, 기타 두 명은 각각 여섯 달에 처하였다.

1914-10-04 李堉公(이준공) 성묘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이준공 성묘

이준공 전하께서는 10월 4일 오전 9시 반에 왕궁에서 출발하여 마포에서 선편으로 김포에 도착하여 성묘를 한 후 동일 오후4시경에 되돌아간다고 한다.

1914-10-06 준비 품평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준비품평회 개최

경기도에서는 내년 가을철에 개최할 기념공진회의 준비로 오는 12월 중에 각 군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성부와 인천부는 폐합되어 농산물이 없으므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개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여주 5일부터 7일, 안성 16-18일, 이천 9-11일, 진위 20-22일, 용인 13-15일, 가평 5-7일, 수원 17-19일, 양주 10-12일, 시흥 21-23일, 광주 14-16일, 양평 18-20일, 김포 21-23일, 고양 22-24일, 강화 25-27일, 개성 5-7일, 연천 5-7일, 장단 9-11일, 포천 9-11일, 파주 13-15일, 부천 17-19일, 심사장은 고견기사로 심사위원은 수산기수 순회교사로 정하였다고 한다.

1914-10-09 지방토조 위원회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지방토조위원회

경기도에서는 시흥, 김포, 양군에 각 토지조사위원을 소집하여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토지조사위원회를 열고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실시한 사하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한다.

**1914-11-09 품평회 입장일정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 품평회 입장일정

경기도 관내 각 군에서 개최하는 품평회에 대해서 도에서 장관과 각 부장 등이 참석하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월 10~11일 이천군(장관)
- 10월 10~12일 양평군(통역관)
- 11월 10~11일 장단군(재무부장)
  - 14~15일 용인군(사무관)
  - 14~15일 파주군(참여관)
  - 15일 광주군(내무부장)
  - 16~18일 안성군(사무관)
  - 18~19일 수원군(장관)
  - 19일 부천군(참여관)
  - 19일 양주군(내무부장)
  - 21일 진위군(장관)
  - 22일 시흥군(참여관)
  - 22~23일 김포군(내무부장)

**1914-11-20 토지대장 引繼(인계)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 토지대장 인계

토지조사국에서는 올해 중 토지소유자 및 경계사정을 끝내고 토지대장을 가까운 시일 안에 다음과 같이 부군에 인계할 예정인데 사법부에서는 이 인계가 끝난 후 즉시 등기령을 시행하여 등기절차를 시행한다고 한다.

(경기도) 시흥, 김포, 강화, 부평 (경북도) 달성, 고령, 경산, 청도 (충남도) 천안, 아산, 예산, (경남도) 밀양

**1914-12-12 토지조사료 예정지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 토지조사 완료 예정지

금년도 말 즉 1914년 3월까지 토지조사를 전부 끝내고 이를 부군에 인계할 예정지는 경기도에는 시흥, 김포, 강화, 부천 등 각 군이고, 경상북도에는 달성, 고령, 청도 등 각 군이고, 충청남도에는 천안, 아산, 예산, 경상남도 밀양군 등이다.

**1914-12-23 나무도적이 성업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 박원일, 김덕화, 산림도벌, 경기도 김포군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에 사는 박원일 현재 59살 된 자는 지난 9일 동면하동 김덕화의 소유 산림에 가만히 들어가 길이가 3, 4척 되는 소나무 130여개를 벌목하여 놓고 밤중이면 자기 집으로 운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김포서에서 취조를 마친 후 요사이 인천지청으로 송치하였는데, 본인은 산림도벌죄에 의해 두어 번이나 처분을 받은 자라고 한다.

1914-12-25 교지 10매에 백 원, 돛자리장수의 새 재수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돛자리 장사의 사기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18통 8호에 사는 원석춘(47)은 올해 음력 7월경에 김포군 양서면 개화리에 사는 최유삼이라는 협잡꾼과 자본을 합작하여 돛자리 장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8월경에 최유삼이 외상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하고 이내 도망을 갔다.

이때 원석춘은 매일 기다리다가 눈이 뒤집혀 사방으로 수색까지 하였으나 종적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분한 기운에 유삼의 행방을 뒤져보던 중 교지라는 것 열장을 발견한 후 즉시 교지의 출처를 탐문하고 돌연히 악의를 지녀 지난번 돛자리 장사에 실패당한 것을 만회하려고 안양리 18통 1호 윤종록과 공모하였다.

9월 25일쯤 되어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에 사는 장광국을 불러 이 위조 교지는 너의 필적이 확실하니 만약 경찰서에서 알아채는 날에는 엄독한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하고 최유삼이가 어떤 사람에게 100원 차용증을 위조한 것을 내보이며 지금 백 원을 물어주면 이 교지와 차용증을 도로 주고 갈 테니 네가 만약 불응하면 곧 경찰서에 고발하여 너를 징역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가운데 몰아넣고 두 자가 강도보다 더하게 하던 때 순찰 중이던 경관이 탐지하고 즉시 체포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인천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는데 이 자들은 경찰 규칙 위반죄로 두 번 처분을 받았던 악한 사람들이라더라.

1915-01-08 작년 고등 토지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15-01-13 일본도의 강도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중략> 경기도 김포군에 사는 경봉용이란 자는 작년 11월 5일 밤에 통진군 상곶면 오순업의 집에 들어가 현금 7원 70전과 은불이 7개, 합계 27원 60전 가치가 되는 물건을 강탈한 죄가 발각되어 며칠 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선고를 받았다.

1915-01-16 김포. 강화 교통 두절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지난 13일부터 강화도 김포간과 강화도 및 인천 사이에 얼음이 흐름으로 인해 교통이 막혔다.

1915-01-17 주인인체하고 도적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당시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릉리 심보택의 집에 고용으로 있던 정연봉 20세 된 자는 지난 10일 오전 2시에 동리 심원택의 집에 주인이 없고 다만 그 안에 시각 장애인 김

성녀만 있음을 핑계로 속여 들어갔는데 시각 장애인 김성녀는 그 남편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장속에 있던 두루마기 두 개 외 모든 의복가지를 훔쳐서 가지고 나오다가 진짜 주인에게 잡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망쳤는데 요사이 김포경찰서에서 잡아 취조한 후 14일 인천지청검사국으로 보내었다.

**1915-01-22 면장의 검사국 압송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이민관(김포군 군내면장), 김포경찰서, 인천지청, 횡령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에 사는 군내 면장 이민관 46살 된 자는 수일 전에 공금을 사용한 죄로 김포경찰서에 잡혀 인천지청으로 송래하였는데 즉시 예심에 부쳐졌다. 그 내용은 아직 알리기 어려우나 대강 들은 바로 본 면장은 자기가 보관 중이던 면비를 횡령하여 소비한 듯하다.

**1915-01-23 강화 인천항 복구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얼음이 흐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통이 두절되었던 강화도 김포 사이와 강화도 및 인천 사이에 교통은 요사이 복구되었다.

**1915-01-31 능침안에 술 도적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13통 6호에 사는 오윤화 46살 된 자는 이달 21일 오후 5시쯤 군내면 장릉 나라 소유의 산림에 들어가서 바깥 둘레가 두자, 길이가 삼척 이상 되는 소나무 수십 개를 잘라가지고 나오다가 행순 순사에게 발견되고 체포되었다. 산림령 위반이라 하여 28일 인천지청에 송치되었다.

**1915-03-05 횡령금 5백원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자기 몸을 자기가 결박하고

죄상을 감추라는 면장

인천지청 장미 검사에게로 심리중이던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 8통 7호에 사는 군내 면장이민관에 대한 예심은 지난 27일에야 압류를 마치고 당일 경성지방법원 합의부 공판에 부쳤다.

그 범죄 내용을 들은 즉, 민관이 1914년 4월 1일에 그곳 면장으로 임명되어 공립보통 학교에 속한 학교비의 부과세금 증수 및 지출사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같은 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각 조정액에 대하여 미납금이라고 고쳐 279원을 그 다음에는 22원, 85원, 150여 원과 또 얼마를 이와 같이 여러 번 군청을 기만하였다.

도합 471원 43전 5리를 횡령하여 집안 살림에다가 모두 소비를 한 후로는 이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될까봐 염려하여 1914년 1월 2일에 면사무소에서 숙직하는 중 팔 및 왼쪽 발에다가 일부러 상처를 내고 또한 얼굴에다가는 재를 넓게 바르고, 의복을 이리저리 함부로 찢겨 놓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이때 이 급보를 들은 사범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현장 검증을 할 때 민관은 당돌하게 경관을 속이고 자기의 맞은 상처를 보이며 말하되, 새벽에 강도가 들어와 한쪽을 구타하며 온갖 위협을 하더니 보관하여 두었던 세금 중에서 5원 몇 전은 남겨 놓고 그 나머지 400여 원을 강탈하여 갔다고 설명하였으나 마침내 민첩한 경찰서의 활동으로 사실이 명백하게 발각되었다.

1915-03-11 한강 대수리사업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한강대수리사업

경기도 부평, 김포 양군에 있는 큰 평야는 종래 관개시설이 없어 수천정보의 옥토가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는데 이번에 좌등공학사의 계획으로 풍부한 한강물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관개사업을 경영하기로 당국에 출원 중이었는데 10일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총독부 지전기사와 고견 경기기사를 대동하고 이곳에 출장하였고, 또한 양수목리구역은 아주广大하여 약 4,000정보가 넘는다고 한다.

1915-03-18 부동산 등기 실시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이미 토지조사를 끝낸 구역에서 오는 18일부로 총독부령으로 부동산 등기령이 시행 발표되어 4월 1일 이후에 실시할 터인데 그 구역은 경기도 시흥군,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충청남도 천안군, 아산군, 예산군, 경상북도 달성군, 청도군, 경산군, 고령군, 경상남도 밀양군 등이라고 한다.

1915-03-18 토지개량 대 계획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경기도 김포, 부천, 양군에 있는 4-5천 정보 되는 평야에 대한 토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전, 고견, 두 기사가 김포, 부천지역에 출장하여 지금 바로 일부를 남겨놓고 실측 중인데 그 지방은 예로부터 비옥한 경지였으나 수해와 가뭄의 피해로 인하여 점차 황폐되어가고 있어 지금은 1천여정보는 전혀 황무지가 되고 약 2천 정보는 수해를 여러 번 입었다.

1천여 정보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여 관개 및 배수 등의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인데 총공사비는 적게 잡아도 3-4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1915-03-25 大賊(대적)의 면장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세금으로 자식 혼인

도적이 말하되 도적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 8통 7호에 사는 이민관은 1914년 4월 1일 군내 면장으로 있어 일절 경비 부과에 대한 증수와 지출 사무에 종사하는 것 외 또 공립보통학교에 대한 학교비의 부과 증수하는 것까지 위임을 받아가지고 4월부터 그해 12월 21일까지 이르도록 그 군내면에 사는 백성에게 세금조정액 279원에 대해 미납액 22원 80전을 제하고 256원 20전을 부과 증수하였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금의 조정액 902원 82전에 대해 85원 54전의 미납액을 제하고 817원 28전을 부과 증수하고 또 국세 증수에 관한 수수료 즉 국세 교부금으로 김포군수에게 8원 96전을 받았고 또 기타를 합해 △1,113원 44전과 학교비로 하여 지세 세금의 백분의 일(을) 부과 증수할 동면 지세 부담자에게 부과 조정액 45원 14전에 대하여 미납액 5원 24전을 제하고 39원 90전을 증수하여 보관하던 중 이민관의 면장 경비로 471원 43전 5리를 지출하고 국세에 대한 미납금 153원 32전은 어떻게든지 완납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그 면장 경비와 또 523원 32전은 자기 아들 강가 가는 데 조금도 꺼림 없이 써버렸다.

그 후는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올해 1월 2일 그 면사무소에서 숙직하고 있던 중 그 날 오전 4시에 눈에 재를 칠하고 발과 기타에 칼로 조금씩 상처를 낸 외 의복을 갈갈이 찢어 가지고 △금방 죽는 듯이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러 모두 놀라 사유를 묻자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이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공금을 매우 크게 강탈하여 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들은 경관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충분한 증거가 없던 중 가만히 그 자를 보며 도적이 들어와 진실로 재를 눈에 뿌렸을 것 같으면 눈 속에도 재가 적지 않고, 또 눈을 뜨지도 못할 터인데 가만히 보더라도 자기 손으로 뿌리는 것처럼 되어 눈가로만 조금씩 살살 바른 것이 의심적어 엄밀히 취조한 결과 마침내 그 사실이 탄로나 그동안 경성지방법원에서 취조 중이더니 며칠 전 함의부 공판을 열고 총원 재판장, 이동 판사, 야전 검사 기타 통역 서기 오수영 씨가 참석하여 심문을 개시하고 당시 면장으로 있어서 그같이 교활한 꾀를 쓴 것이 가증하다고 시원스럽게 준엄한 어조로 논고를 한 후에 검사는 징역 1년을 요구하였는데 가까운 며칠 안에 선고가 있을 것이다.

**1915-07-04 감루중형, 두 번 감형후 가출옥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중략>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사는 최영근은 1810년 12월에 인천지부에서 징역 10년의 형벌을 받고 복역 중 징역 6년에 감형되었다가 다시 작년 칙령에 의해 징역 4년 8개월로 감형되어 이래 두 명은 인천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행하는 일과 동정이 모두 회개하는 모양이 있던 바 지영길은 1916년 1월 4일이 만기가 되며, 최영근은 올해 9월 7일 아니면 출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특별히 사내총독으로부터 남은 형 기간에 가출옥을 허가하게 하여 포춘 분감장은 곧 가출옥 증표 교부식의 식을 거행하였다.

처음에는 오직 망연히 서서 무엇을 잃은 것처럼 알고 있던 모양이더니 점점 가출옥 증표를 받고 또 재감 중에 작업 상여금 20원을 받고는 기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두 번 재 감형 된 것과 지금 또 가출옥의 은전을 입어 가정의 단란한 화락을 다시 볼 생각을 하고 심히 넓고 큰 은혜에 감동하여 정당한 직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하며 저희의 죽을 때까지 기념일로 생각하여 장래를 경계하겠다고 하며 기쁘게 출옥하였다.

**1915-07-04 군수에게 배상청구, 증명을 천연하였다고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증명을 천연하였다고

경성부 조일정에 사는 내지인 고교구길은 이번 김포군수 차석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들어보니, 당초에 고교구질이 이완용의 공정 증서로 인해 이전에 1,660여 원을 뒀던 후 갚지를 않기에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재산도 없기에 주저하고 있다가 어느 방면으로 탐문한즉 이완용의 소유되는 산야 면적이 16정 5반 3묘 8보가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김포군에 내려가서 군수 차석민 씨에게 소유권 증명을 신청하자 군수는 이완용의 지적보고가 있으나 며칠이 지나야만 증명이 되겠다고 하기에 얼마 동안을 기다리다가 끝내 증명을 얻어가지고 즉시 인천지청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자 그 지청으로부터 통지하기를 산야는 그 소유권이 벌써 1914년 12월 이튿날 내지인 석교구태랑에게 옮겨 갔다하므로 마침내 집행을 못하게 된 까닭은 오로지 군수의 날짜를 미루고 지체하고, 증명을 바로하지 않은 까닭으로 손해를 입었기에 마땅히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기소하였다.

1915-07-09 敎員 夏期講習(교원 하기강습)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경기도내 조선인 사립학교

경기도 사립학교 조선인 교원 강습회에는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인데 수원지역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성은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 다음 개성이 순서인데 각 3주 동안 하계강습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성은 수하동, 수원은 수원, 개성은 개성 제1회 공립보통학교를 강습회장으로 정하여 경성은 60명, 수원 개성은 40명의 강습생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강습생의 자격은 지금 사립학교 교원이 된 자로 강습의 정도는 사립학교 교원 시험에 정도로 하고 수신, 국어, 교육, 산술 등을 교수하여 개최장을 빼고, 1일 35전의 수당이 있다는데 수강생의 구역은 다음과 같다.

경성회장 : 시흥, 부천, 인천, 강화, 김포, 고양, 경성,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수원회장 : 수원, 용인, 이천, 양평, 여주, 안성, 진위, 광주,

개성회장 : 개성, 장단, 파주

1915-08-03 대전기념 식수, 경기도는 5년 계획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경기도에서는 대전본도기념 식수 계획을 알아본 즉 관내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임야 중 민간인이 비용을 들여서 경영하는 것은 약20만 정보로 추산하고, 그중에 특히 황폐가 격심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아주 급속히 복구조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약 1만정보로서 이를 대전본도 기념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5개년 계획 하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한다.

사업구역 및 면적표(단위는 정)

고양 500정, 개성 200정보, 수원 600정보, 부천 800정보, 연천 100정보, 김포 200정보, 양주 3,900정보, 진위 700정보, 이천 800정보, 용인 100정보, 파주 700정보, 시흥 700정보, 안성 100정보, 여주 600정보, 총 1만 정보

△연도별 사업진행예정

년차 사방식재 보통식재 천연생

대정3년(1914) 11정 351정 200정

대정4년(1915) 220정 1,200정 700정  
 대정5년(1916) 220정 1,400정 700정  
 대정6년(1917) 220정 1,400정 700정  
 대정7년(1918) 329정 1,649정 700정  
 계 1,000정 6,000정 3,000정

1915-08-29 榮轉警部(영전경부) 別宴(별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본정서원 일동이 지금 본정경찰서 사법계 주임으로 7~8년간 근무하던 대진경부가 이번 경기도 김포경찰서장으로 전보다 더 좋은 직위로 가는데 대해 그 경찰서의 일반경관은 섭섭한 뜻으로 지난 26일 오후 6시에 본정 이정목에 있는 청향원에서 송별회를 열고 경관 일동이 모여 피차 섭섭한 뜻을 표하였다.

1915-09-29 虎列刺(호열자) 휘보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호열자 휘보

신환자 발생

인천, 경성을 제외한 경기도 관내에서 26일 오후 9시 이후에 발생한 환자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 하점면 1명, 길상면 1명, 김포군 양촌면 2명, 부천군 오정면 3명, 문학면 1명, 서곶면 1명, 부서면 1명.

1915-10-06 강원도 장관의 來觀(래관)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중략> 단체 관객으로는 김포군 70인 인현보통학교, 대전은 4명의 산업견습소 생도 등이 와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야간 개장 시에는 여흥도 있으므로 운동장 뒤가 가득하도록 들어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1915-12-07 柴日萬束(시일만속)소실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각 소방대 일시 분잡

5일 오전 5시경 김포경찰서 관내 영등포에서 15리쯤 되는 곳에서 들에 쌓아놓았던 나무 일만 속이 타버렸는데 경성 용산의 각 소방대에서는 큰 불이 난 줄 알고 일시에 출동 준비에 매우 바빴다.

1915-12-19 미곡선을 襲(습)한 한강 흥적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세 사람을 죽이고

곡식을 뺏은 도적

배성철, 고태봉, 김운철, 심형택, 경기도 고양군, 김포군, 개성군, 황해도 백천 곡식을 싣고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가 간혹 해적을 만난다는 말을 듣고 고양경찰서장은 특히 연안에 주재한 순사에게 명하여 경계를 시키는 중이더니 지난 12일 밤에 동막에 근무하는 하기 순사는 한강 강변을 밀행하다가 거동이 수상한 조선 사람을 잡아 경찰서에

강제로 끌고 가 취조한 즉, 그자는 김포군 군내면 주막업을 하는 배성열이라는 자이며 심문하는 중에 이자는 무서운 범죄를 자백하였다.

그는 수일 전에 개성군 창릉포에 사는 고태봉(19), 고연수(23), 김운칠(39)의 3명이 동막 부자 심형택의 쌀 80여 석을 신고 황해도 백천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11일 밤에 한강 하류 김포 어구에서 배를 멈추었다는 말을 듣고 흥적 배성열은 다른 자 한 명과 같이 작은 배를 타고 그 배를 습격하여 깊이 잠들어 자는 세 명 중에 두 명을 닳줄로 묶어서 뱃간에 집어넣고 쌀 한 섬이 담긴 가마니로 문을 가로 막은 후에 제일 나이 어린 고태봉으로 하여금 그 배에 실은 쌀 39석을 자기 배에 옮긴 후에 이 고태봉도 묶어서 다른 두 명과 같이 물속에 집어넣고 돌려 그 배를 깨트려 침몰하게 한 후에 대담히 시치미를 뚝 때고 동막까지 신고 와서 마포 미곡상 윤의선의 1명에게 팔아 그 대금으로 주막에서 술을 먹고 놀았다.

그 전에 선부 3명 외 가족들은 그 부형이 탄 배가 김포어구에 가라앉았다는 말을 듣고 그 염려가 되어 그 쌀을 부친 주인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고대하던니 그 배가 풍파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도적을 만났으며, 그 도적은 이미 고양경찰서에 잡혔다는 말을 듣고 일동이 동서에 출두하여 눈물을 흘리며 원수를 잡아주었다고 감사하는 동시에 시체를 수색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중이다.

그 유족들은 배타는 뱃삿을 받아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터인데 별안간에 이 모양이 된 고로 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 지내며 지금 짐을 부친 주인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보전하나 주야로 호흡하여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을 이루었다. 또 고양경찰서에서 그 공범한 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대구치 경부가 순사 몇 명을 인솔하고 경비선 연호를 타고 짐을 부친 주인의 배와 시체를 찾는 중이다.

1915-12-23 영면한 崔錫敏男(최석민남)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6-04-05 경기관내 시장 상황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6-04-19 집에 돌아온 강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의 정구도와 개성군 진봉면 탄통 옥천 절의 승려인 이문찬 두 명은 1915년 4월 9일 밤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의 윤정섭의 집에 돌입하여 강도질을 하고 지금까지 종적이 없었는데 요사이 두 명이 집에 돌아와 있음을 김포경찰서에서 탐지하고 그 두 명을 어렵지 않게 자기 집에서 잡았다.

1916-04-29 租(조) 5백여 석, 파선되어 물속에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파선되어 물속에

인천 화방정 삼정목 복전학길은 그 소유 천신환은 뱃사공과 한배를 타고 4월 22일 용산을 출발하여 김포군 하성면 전류리에 당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조수가 밀려 들어와 자못 위험한 곳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선체를 조종하던

중 배 꼬리가 바위 뿌리와 충돌하며 깨져 홀연히 침수됨으로 선원은 간신히 상륙하였으나 그 배에 실었던 벼 537석 1,879원 50전어치는 그 결과로 물속에 빠져버렸고 근처 사람의 힘으로 선체만 건져내었다.

1916-05-07 매도한 토지에 이전등기 안한다고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이전 등기 안 한다고

노경환, 심상익, 경기도 김포군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포목상 노경환은 작년 2월 중에 조준여 김순재 등의 사기로 경성 낙원동 132번지 심상익이 소유한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땅을 1480원에 사기로 결정하고 돈을 치를 때 토지에 대한 심상익의 소유권 증명 서류와 교환 한 뒤 노경환은 심상익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을 해달라고 청구하나 좌우로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일을 끝어서 미루어 온다고 경성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16-06-13 강도질 하는 중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의 정구도와 개성군 진봉면 암동리의 이문찬 두 명은 중의 신분으로 절도질하기를 꾀하였다. 1915년 4월 9일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의 윤정섭 및 동리 윤이섭 두 명이 갯돈과 소판 돈을 가진 것을 알아내고 그날 밤 두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새끼로 결박하고 가진 돈 3원 90전을 강탈한 죄상이 탄로나 경성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916-06-17 수해후보, 각도의 금번 수해, 영등포 전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경기도 김포군 관내에는 다리 다섯 개와 속도랑 네 개가 파손하고 경작지 침수가 500정보며, 보리와 밭벼에 해가 많아 지금 조사 중이라 따리가 떨어진 곳은 나룻배로 이어 주고 있다. <중략>

1916-07-13 내지 수재의 참보 [신한민보]|01면|05단|

1916-08-03 소에게 발쳐 죽어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흥도평리 박치원은 7월 27일 오후 3시에 무슨 물건을 사기 위해 부천군 계양기리 시장에 갔다가 근처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취중에 장난삼아 김포군 하성면 전류리의 민광호가 팔기 위해 매여 둔 소를 건드려 소는 돌연히 박치원을 몹시 받아 넘어트린 후 빨로 아랫배를 한번 받았더니 받은 즉시 죽었다.

1916-08-13 실없이 죽어보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경성 내자동 3번지에 거주하는 이진구의 아우 이점동은 이달 6일 오후 6시경에 마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무렵 아이들이 강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에 많이 깊지가 않을 것 같아서 배를 탄 채로 가지 않고 별안간 급류 중에 들어가 헤엄을 치

고자 하였으나 그만 증거가 없어져서 크게 소동이 나서 마포헌병출장소로부터 계원이 가서 여러 시간 동안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시체는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에 가서 떠올랐음으로 즉시 검시 후 가족에게 인도하였다.

1916-08-22 매도 후에 典當(전당)하고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그 뒤에도 팔아먹어

인천지청에서 사기범으로 심리중인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에 사는 권연수(50)는 이번에 유죄로 결정되어 인천지청의 공판에 붙였졌다.

그 죄상은 1913년 11월 석탄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 약간의 두락을 대금 170원으로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금재순이란 자에게 팔고 그 후 이전등기의 절차를 하지 않고 태연히 자기 소유 명의로 둔 채로 있었다.

올해 3월에 그 매매한 사실을 감추고 고양군 용강면 동막 이용의에게 그 땅을 전당 잡혀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돈 220원을 받고 그 후 올해 6월 26일 다시 그 토지를 300원으로 이용의에게 팔아넘긴 후 지난번 240원을 빼고 나머지 60원을 받아 속여 빼앗은 죄이다.

1916-09-02 눈망울을 깨트려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인천부 출생 당시 김포군 월곶면 서암리에서 주막을 하는 차석현과 같은 군 양촌면 마송리 주막의 차두선 이 두 명은 지난 20일 오후 2시경에 차석현의 집 앞길에서 같은 군 양촌면 도사리의 김태성이 욕설을 하였다고 마구 때리고 오른쪽 눈을 멀어놓게 할 뿐만 아니라 가슴, 허리 기타 몇 곳에 중경상을 입혀 피의자로부터 고소하여 요사이 인천 지경에서 □□□으로 기소되었다.

1916-09-12 전 高陽署員(고양서원) 전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6-09-17 수원에서: 농황 급 수해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16-09-17 兩(양) 署長(서장)에게 기념품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6-09-20 수원에서: 면사무 전습회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16-09-21 운전사의 과실로 전차 기다리다 중상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전차 기다리다가 중상

지난 19일 오후 8시 5분경에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장기리 서덕홍(52)씨가 전차를 타기 위해 남대문 안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종로방면으로부터 용산으로 향하던 운전수 김기철씨가 운전하는 경성 전기회사의 87호 전차가 전기 정류장에 다다를 즈음 김기철은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서서 기다리던 서덕홍 씨가 즉시 쫓아가서 차를 타려고 하

다가 땅에 엎어져서 다리가 골절되고 얼굴이 상하여 인사불성에 이른 것을 총독부 의원으로 보내서 치료중이고, 그 운전수는 본정경찰서에서 취조 중이다.

정류할 정류소에서 그대로 지나가다가 사람을 중상 입힌 것은 당연히 운전수의 과실을 면치 못할 일이다.

근데 같은 날 오후 5시 35분에는 경성 천연동 32번지 김원보(59)씨는 용산에서 떠나 동대문 행이던 전차 112호가 남대문동 상업은행 앞 정류소에 정차 하려고 할 때 김원보는 어깨를 차에 부딪치어 넘어지며 얼굴까지 중상을 당하여 닷새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중상으로 부근 병원에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 1916-09-22 검문소 개시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 ▶경기도에 검문소 개시

경기도 경무부에서는 관내 인천 및 부천,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콜레라가 창궐될 조짐이 보여 전파를 예방할 방침으로 한강 연안 일대 즉 개성 및 파주, 고양군, 고양포, 양화진, 남방, 김포와 시흥군의 경계, 부천과 시흥군의 경계 등 주요한 길목, 마포 서빙고 한강 뚝섬의 발 닿는 곳에는 헌병 또는 순경을 파견하여 검문소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상륙하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문하는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고 한다.

#### 1916-09-23 水賊(수적)의 공소는 기각됨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 ▶해적의 공소는 기각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시암리 7통 4호의 이치간과 같은 곳에 사는 문영석 이 두 명은 올해 안 작은 배를 타고 강 위로 다니며 물건을 실은 배를 몰래 습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등 강도 살인을 여지없이 하던 자이다.

그는 1915년 12월 10일 같은 군 군내면 걸포리의 홍도평을 멀리 떨어진 등남 해안으로부터 오는 연백군 해월면 중이리 김용권의 벼 29석을 실은 배를 몰래 습격하여 뱃사공 이춘원, 유성태 두 명을 결박하고 또 배의 주인인 김용권을 위협하여 현금 60전을 강탈하고 뱃사공 두 명을 결박한 채로 강물에 던져 죽이고 도주한 사건은 그 후 모두 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치간은 사형, 문영석은 무기징역에 처분한 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 법원에 공소한 결과 심리 후 지난 18일 같은 법원에서 두 명의 공소를 기각하였다.

#### 1916-09-26 瘧道(전도) 환자 254人(인)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 ▶모든 도의 환자 245명

인천 관내에서는 24일에 새로운 환자 36명이 발생되어 <중략> 김포 3명 <중략> 조선 모든 도의 합계가 245명이다.

#### 1916-09-29 虎列刺(호열자) 휘보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 1916-09-29 누계 423, 순사 1명 순직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16-09-30 虎列刺(호열자) 휘보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16-09-30 이자작가의 적서 재판(2)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16-10-04 全道(전도) 호역 누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전도 호역누계

△경기 경성 11명, 인천 329명, 부천군 57명, 강화군 23명, 김포군 5명, 고양군 6명, 소계 430명 <중략>

1916-10-03 全道 虎疫累計(전도 호역누계)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전도 호역누계

△경기 경성 11명, 인천 329명, 부천군 57명, 강화군 23명, 김포군 5명, 고양군 6명, 소계 430명 <중략>

1916-10-28 호역소식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16-11-19 府郡(부군)참사 자문회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17-01-13 해주교통 두절해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해주 교통 두절

인천으로부터 강화수로를 지나 황해도 해주까지 가는 항로는 강화군 양사면 외양(강화와 교동사이)이 결빙되어 모든 항로는 1월 3일 이래로 교통은 두절되어 우편물은 김포를 경유하여 육지로 배송하는데 김포군과 갑곶간의 교통도 때대로 두절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사리때인 음력 2월 16-17일 경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917-02-14 대맥추경 장려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대맥추경 장려

경기도에서는 강화군을 중심으로 하고 김포, 개성, 인천, 부천, 시흥, 고양, 수원, 진위, 안성, 광주, 용인 등 각 군을 통하여 대맥의 추경을 장려한 결과 거의 추경이 되었는데 춘경과 추경에 수확성적을 보면 춘경 2할 3분 3리, 추경 7할6분7리이다.

경기도 전도에 있는 대맥작부 반별을 알아보면 기 반별은 61만3천7백7십3정보 내에 추경은 4만2천8백2정보고, 추경은 47만9백49정보라고 한다.

1917-03-30 본부의 부재증, 그 처를 강간함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그 처를 강간함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공한규는 지난 2월 6일 밤 11시쯤 되어 동리 장한동이 없는 사이를 타서 그 사람의 처 황순이의 침실에 들어가서 강간을 한 죄로 경성지방법원

미즈노 검사가 취조 중이다.

1917-05-16 광인 친모를 살해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쇠공이로 때려서

경기도 김포군 대곡면 대문리 박수만의 아우 박수남은 3년 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겨 때때로 광포한 짓을 하였던 바 5월 3일 밤 별안간 미친병의 증세가 드러나 그 친모 김씨의 침실에 뛰어 들어가서 폭행을 하므로 김씨가 놀라 도주하는 것을 쫓아가서 자기 집에서 60간 가량 떨어진 동리 장영순의 집 뜰에서 가져왔던 쇠공으로 한번 때려 김씨는 머리가 분쇄되어 즉사하게 된 급한 소식을 접하고 김포경찰서에서 즉시 경관이 달려가서 수만을 잡았다.

1917-07-21 雇人遺産(고인유산)을 횡령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양자라고 자칭하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 김언지라는 여자는 홍우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동리에 사는 박봉래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양자무효 및 가독(집안을 상속할 만아들의 신분) 상속권 무효 확인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장의 내용은 박봉래는 원고 김언지의 남편 박명보의 생존 당시 1910년부터 머슴살이로 들어와 있었는데, 남편 명보가 1914년 7월 20일 사망한 뒤에도 봉래를 계속 고용해 왔는데, 봉래는 불측한 악의로 원고의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해 자기가 호주가 된다는 사유로 거짓 신고를 하고 원고의 양자로 자칭하며 가독 상속자인체 하고 남편의 유산을 모두 횡령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기에 그 지나침을 꾸짖는 동시에 속히 호적을 고치라 하였으나 끝내 불응한다는 뜻으로 소송을 일으켰다고 한다.

1917-10-05 이 군수 송별기념 [매일신보]기사|01면|06단|

1917-10-07 李(이) 군수 부임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17-11-03 김포: 천장절 奉祝(봉축)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 천장절 봉축

김포군에서는 천장절 축일 오전 11시에 군청 뒤에 신궁전에서 축하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민 유지 백수십명이 회에 참석하여 부전경찰서장은 일동에게 개회사를 하고, 이 군수는 축사를 겸하여 일본 국체, 만세일개황실, 위대한 천황폐하의 성덕 내선인 일치협력 등에 대하여 일장의 훈화를 한 후 만세 삼창하고, 연회를 가졌는데 근년에 없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1917-11-04 경기 秋蠶(추잠) 상황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0월말 현재 조사한 금년도 경기도내 있는 추잠상황을 알아본즉 사양호수는 6천1백24

호로 소립장 수가 9천2백 9장인데 누에꼬치 생산액은 1천7백48석이 넘고 사양호수가 2천5백25호 소립장 수가 3천192장인데 누에박 생산액이 508석이 증가하여 사양호수가 같이 원잠종 소립장수는 증가한데 반해서 누에꼬치 생산액이 감소한 것은 양주, 양평, 이천, 안성, 수원, 김포, 강화, 파주, 장단등 각 군에서 소립후병잠이 발생한 지방의 영향이라고 한다.

1917-11-22 小松(소송) 권업주임 출발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7-11-25 김포: 小作(소작인) 품평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 김포군에서는 농사장려회 김포지회의 사업으로 이달 30일부터 2일간(수상식은 12월 1일) 김포보통학교 내에서 소장품평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 방법은 올가을 소작인으로부터 지주 또는 마름에게 납입한 벼를 각 삼흡씩을 지주나 마름으로부터 출품케해서 심사한 후 우량품에 대해서는 그 출품 소작인에게 상을 주어서 소작 벼의 향상,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원활케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장소 같은 것도 지나치게 치장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만 참석하게해서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한 즉 소작농이 많은 김포군에는 시의적절한 일로서 장래 각 지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다.

따라서 경성 기타 김포군 외에 거주하는 지주들에게는 초대하지 않으나 이날에는 가급적 회의에 참석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1917-12-05 김포: 소작미 품평회 성황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 김포군 농사장려회 지회주최의 소작 및 품평회는 11월 30일부터 김포보통학교내에서 개최하였는데 출품 410여점, 참고품 약200점 관람인은 누계 800여명이 열심히 관람했다고 한다.

또 수상식은 올봄에 개최되었던 단책형묘대 품평회입상자와 함께 12월 1일에 거행되었는데 아부 경기도 권업기수가 심사보고서를 하고 각 입상자 백여 명에게 상품과 상장을 수여하고 회장식사, 내빈축사에 대하여 수상자 대표의 답사와 회장의 훈화가 있는 후 성황리에 폐회되었는데 당일 내빈 중 부천 거주 농업 만치풍재회씨는 참고품에 출품도 하고 조선어로 축사를 하여 갈채를 받았고, 읍내의 유지 최형묵, 오순기 등 12명은 각 면에서 온 빈객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대한 초청 연회를 개최하였다.

1917-12-20 풍범선 전복, 1명 동사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 한 사람은 행위 불명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후평리 선부 김창제, 김영택의 두 명은 이달 5일 풍범선으로 경성에 와서 9일 산화칼슘을 싣고 한강으로 내려가다가 그날 밤 풍랑에 습격을 받아 파선되며 김창제는 종적이 없고, 김영택은 돛대 아래에서 얼어 죽어 떠내려 오는 것을 10일 오후 고양군 중면 장항리 한강에서 발견하였다.

1917-12-20 곡물선 난파, 김포 앞바다에서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 앞바다에서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용강리 한강 앞바다에서 12월 4일 200석 실은 풍범선 한 척이 침몰하였다.

그 배에는 콩 95석을 싣고 가다가 바위 뿌리에 충돌되어 침몰하였는데, 주민의 구조로 콩을 간신히 건져내었으나 약 1,000원 유실되었고, 선체의 손해는 약 130원에 달하였고 승조원은 항행 중의 다른 배에 구조되어 무사하였다.

1918-01-25 김포: 부업장려와 독지가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 부업장려와 독지가

김포군 양서면 문묘 직원 김목희씨는 군의 지금 형편으로 농가의 부업장려가 급선무임을 통찰하고 군에 장려방침을 도와서 자택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연직(대자리) 견습소를 설치하고 견습 수료자에게는 기구를 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수량을 제조케 하여 그 판매 이익금으로 기구를 구입배부하기로 하였다.

희망하는 자에게 제1회 견습회를 개최하고 1월 19일에 견습수료식을 거행하였는데 수료 인원은 14명이고 성적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김포군 군내면에서도 읍내 유지 박용희, 최형묵, 오순기등 제씨가 서로 의논하여 군의 장려방침에 따라 부업 장려의 목적으로 각자 60원씩을 출자하여 가마니 제조 견습소를 조직하고 매월 견습 은 20명씩을 모집하여 기구를 구입하고, 견습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타 제조 및 판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1918-03-13 경무부장 巡關(순열)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8-03-17 2차 방화하고자, 변소에다 불을 놓아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문영순의 집에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경에 그 집 변소에서 불이 나는 것을 얼른 발견하고 곧 꺼버렸으나 발화의 원인이 방화인 것 같아서 조사 중이다.

그 후 열흘 만에 또 그 집 변소에서 다시 불이 나서 연소하려 하는 것을 꺼버렸는데, 이번도 역시 방화 의심이 있어서 소관 경찰서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범인을 엄탐 중 마침내 이웃에 사는 이쇠들의 처 공소실(13)이라는 여자아이의 소행임을 알고 인치하여 취조한 결과 공소실은 피해자 문영순의 딸이 공소실의 잘못된 품행을 자주 시부모에게 밀고하여 꾸지람을 듣게 하는 까닭으로 분하게 생각하고 그 집에 불을 놓았다고 한다.

1918-03-17 경기 임야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18-03-21 유 참여관 출장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8-04-20 도적질하고자 인가에 방화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율리 간상옥(22)은 동리 집에 불을 놓고 다른 집 사람들이 불 끄려 간 사이를 타서 절도질을 할 꾀로 작년 11월 중 양촌면 학운리 최윤렬의 집에 쌓인 솔나무에 불을 놓아 200 못을 태워버렸다.

그날 오전 3시 동리 윤병도의 집에 침입하여 의복가지를 절취하고 연속해서 최초일의 집에서든 은비녀 등을 훔쳤고, 3월 14일 양동면 염창리 이인환의 집에 불을 놓고 그곳으로 사람이 모인 틈을 타서 동리 강재련의 집에 침입하여 의복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수 절취한 일이 탄로나 지금 경성지방법원에서 취조중이다.

1918-04-21 김포: 기동식씨 표창됨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김포, 기동식씨 표창됨

김포군 고촌면 향산리 기동식씨는 일찍부터 학사장려에 진력하여 사립금란학교를 설립하고 자제를 교육하고 마을회를 조직하여 미풍양속을 도모하고 기타 지방에 산업개선에 도 당국의 장려사항은 반드시 술선 실행하였다.

나아가 일반 농가를 권유하여 그 공적이 현저함으로써 이번 도장관으로부터 은배를 받아 표창되어서 김포군에서는 지난 13일에 이 군수 주재 하에 각 관공서 직원은 물론 각 면 유력인사와 학교 학생생도등 400여명과 경기도로부터 고건기사가 참석하여 성대한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1918-05-11 산본씨 대기획, 간사지 기간 경영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산본씨 대기획

간사지 기간경영

신호송창양행주 산본유삼량씨는 수도경작과 양어사업 경영의 목적으로 경기도 관내 부천과 김포 양군에 걸쳐 있는 간사지 면적 4,900여 정보를 향후 10개년간 무료 대부를 총독부에 출연하였다.

5월 7일부로 허가의 지령이 있어 이번에 그 사업계획의 개요를 알아본 즉 대부허가를 받은 앞에 기술한 지역 간사지의 연해안에 바닷물을 빼고 기타 급수에 필요한 제방을 축조하였다.

수도경작과 양어를 할 목적으로 개간사업을 할 것인데 총 경비예산은 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의 설계는 먼저 대부받은 땅 총면적 4,911정5반보 중에 경작실효 면적 4,064정 4단여 보와 양어지 실효면적 289정 3단여보로 이번 대면적의 토지를 개간하여 수도경작과 양어를 할 계획이다.

현재 이 지역의 집수 유역은 740정보 인데 거의 물을 쓸 수 없는 상태임으로 이번 설계에는 이 급수 방법을 연구하여 멀리 김포군 김포읍 부근의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하였다.

양어사업은 김포군 검단면 안동포 부근에서 흐르는 수로는 간사지 평균 표면보다 약 20척 더 깊게 하고 폭은 60여칸으로 하고 수면은 227정보를 양어지로 하고 봄, 여름, 가을

동안 고기를 키워 겨울까지 축양하고 경성 인천을 비롯하여 철도역 주변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소작인들에게 겨울철 농한기에 고기를 잡고 운반하는 등의 부업을 갖게 했다.

그리고 또 10개년간 사업을 성공할 토지의 종류와 그 내용을 알아본즉 제1년도 사업실지의 준비와 측량 설계 조사, 제2년도 공사착수와 공사일부의 준공, 제3년도 공사 전부의 준공, 양수기관의 운전, 제4년도 바닷물을 빼기위하여 바닥면에 관수하고 결빙기를 제외하고 약 8개월간 양수기관의 운전을 계속하여 물을 가둬주고, 제5년도 전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바닷물을 빼고, 제6년도 개간면적 2,373정보 실경면적 2,120여 정보를 완공하고, 벼농사의 모내기를 시작하여 수확을 하고 제7년도 신 개간면적 400정보 실경면적 358정보여를 더 준공하여 전과같이 농사를 짓고, 제8년도 신개간면적 450정9반보 중 실지로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 403정7반보를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과같이 경작을 하게하고, 제9년도 신개간면적 543정보를 실경면적 486정보를 확장 준공하여, 제10년도 신개간면적 772정보 실경면적 691정3반보로 즉 출원구역 전부의 예정사업을 완료한다고 한다.

1918-05-11 김포: 김주연씨 호세 대납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18-05-26 김포에 권총 강도, 왜묵 한 필을 훔쳐 가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23일 오전 3시쯤 되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수참리 구장으로 있는 김상윤의 집에 들 어간 3명의 도적이 있는데 도적은 손에 육혈포 혹은 식칼을 가지고 누워 자는 집안사람 을 두들겨 일으켜가지고 모두 결박을 한 후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겨우 왜묵 한 필 및 은시계 한 개를 강탈 도주하였는데 도적은 모두 얼굴을 싸냈으므로 얼굴, 나이도 알 수 없으므로 소관 경찰서에서는 지금 엄탐중이라고 한다.

1918-05-29 대포 발견, 강화도에서 구한국시대의 것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경기도 김포로부터 강화도로 가는 나루터를 경영하는 내지인 울도모는 요사이 나루터 근 처 흠속에서 중량이 100여 관이나 되는 구한국시대의 대포 한 개를 발견하였다.

1918-05-30 山本(산본)씨의 농사경영방침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18-07-02 4천 정보의 개간, 東拓(동척)의 계획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18-07-14 매약상이 의원질, 발각되어 벌금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발각되어 벌금

본적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출생으로 지금 경성 태평동 일정보 240번지 방칠중 (56)은 지나간 1월 이내로 표면은 약 행상의 감찰을 받고 실상은 약을 팔지 않고 스스로 침을 놓는다 하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병을 고쳐준다고 하고 사리에 맞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요사이 발견되어 7일 종로 경찰서에 고발되어 10일에 25원에 처벌하였다고 한다.

1918-08-04 인사소식 [매일신보]|인사|02면|08단|

1918-08-18 호우와 稻作(도작)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호우와 도작

이번에 호우로 경기도 관내에 도작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침수구역은 경성, 양주, 고양, 시흥, 김포, 수원 등이 일시 침수되었으나 물에 빠짐이 아주 빨라 토지 유실 등에 의한 큰 피해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한다.

1918-09-03 경기 대두작황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18-09-11 김포 儒林(유림) 美學(미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수백 원을 들여 향교를 일신 수리

경기도 김포군 통진향교는 십 수 년 내로 풍우에 그대로 두어 퇴락된 곳도 많으나 향교에 붙어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수입은 춘추의 제사 기타에 쓰고 여유가 없어 그대로 내려오더니 올해에 이르러서는 통진향교 직원 조한구 씨를 대표로 하여 심준택, 어호선, 이운하 등 유림 사람들이 서로 협의한 결과에 약 500원의 금전을 제공하여 새롭게 수리하고 금년 가을 제사에는 유림대회를 겸하여 수백 명의 참배자가 있었다.

당일에는 동군수 이각중 씨가 참석한 유림 사람들의 그 훌륭하게 잘한 일을 찬양하는 동시에 유림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범이 되며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설명을 한 즉, 유림 사람들도 매우 기뻐하여 박수갈채 중에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1918-10-06 아편을 휴대하고, 팔러다니다 가장하고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팔러 다니다 가장하고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도사리에 사는 최양섭 31세 된 자는 올해 8월 하순부터 아편을 판매할 목적으로 아편을 넣어 만든 담배 2,000개의 양 중 가격 14,000원어치를 감춰가지고 경성 각처로 다니며 비밀리 팔러다가 발각되어 종로경찰서의 탐지로 양섭을 인치 취조한 후 5일경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보냈다고 한다.

1918-10-29 학사 시찰 일정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8-12-26 한강에서 범선이 난파되어 13명이 죽었다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이달 21일 오전 4시경에 강화군 월곶부두에서 행인 16명과 쌀 47섬을 실은 배 한척이 경성으로 향하여 가던 중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복선이 되었는데, 마침 근처에 배 한척이 있다가 즉시 와서 구제하였으나 선인 두 명과 행인 세 명은 구제되고 그 외 13명은 물에 가라앉아 그 시신은 방금 수색중이고, 손해는 약 2,000원에 달한다는데 이 급보를 접한 강화 경찰서에서는 이경부가 당시에 출장하였다고 한다.

1918-12-28 경기 임야이외 토지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19-03-25 소요사건의 후보, 경기도 김포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22일에 김포군 군하리에서는 군중 약사 백 명이 모여서 소란을 일으키므로 수모자를 체포하였다. 『경무총감부 발표』

1919-04-03 강화 김포에 소요 수모자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지난 22일 강화도의 소란을 위시하여 23일 운수리, 24일 통진, 25일 김포 등 각지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18명은 4~5명의 보병과 2~3명의 순사의 호위로 오후 7시 인천발 열차로 경성으로 향하여 압송되었는데 그 우두머리 중에는 나이 30세 가량의 여자 한 명도 있다고 한다.

1919-04-11 김포 평온에 귀함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한 사람도 사상자를 내지 않고

저번에 경성 강화에 소란이 일어나자 김포군에도 파급되어 수천의 군중은 각처에서 소란을 일으켰으나 경관은 엄중한 경계를 하고 힘을 아끼지 않고 해산에 힘을 썼으며 심한 곳은 군수가 출장하여 군중을 앞에 놓고 간절히 말로 타이르며 혹 면장들도 주재 경관과 협력하여 설명한 결과 다 무사히 종식되며 조금도 사상자가 없었다. 따라서 부평 고양 방면으로부터 김포에 피난하는 자가 많으며 이웃 골의 참상을 들은 김포의 유지는 관헌의 조처가 온당한 까닭으로 동군에는 다행히 무사한 것을 중심으로 감사하다고 한다.

1919-04-12 선생의 온정에 감격한 부자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19-05-08 김포의 청년강화회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청년지도의 목적으로

경기도 김포군에서는 청년 지도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으로 지난 5월 3일 김포공립보통학교 안에서 청년 강화회를 개최하여 각 면의 직원을 중심으로 하고 관내의 청년을 권유하여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120여 명에 이르렀으며 동군내의 새 교육을 받는 청년은 오전부터 경성의 소란으로 인해 자기 집에 돌아와 있는 상급학교 생도 및 졸업생, 그동안 공무에 종사하던 자 등 소위 시대적 청년의 거의 전부를 망라하고 또 2~3명의 노인도 참가하여 회장의 기분은 자못 긴장하였다.

이 군수의 식사가 있는 후부터는 경찰 서장은 시국에 관한 총독 유고의 취지를 전달하고 고정상 수비대장은 수비대 설치의 주지 및 난민 보호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케다 김포공립보통학교장은 청년의 의지 수양담을 하고 계속하여 이한 양훈도 청년의 고백담이 있었고 맨 뒤에 이 군수는 청년을 본위로 한 조선의 장래와 청년의 자각에 관한 강화가 있던 후 성행 중에 집회를 마치고 다과의 향응이 있던 후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모임에 온 모든 사람들은 많고도 큰 감동과 각성한 모양이 얼굴에 나타났다.

1919-05-12 군내의 명망가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백여 명을 모아놓고 시세의 귀추를 설명

김포의사 민정대회

김포 군청에서는 5월 4일(일요일)에 관내 명망가 백여 명을 소집하여 이 군수로부터 앞에 있었던 소란의 경과에 관하여 유력한 명망가들이 다른 선동자들의 유혹하는 말을 배척하고 위협한 협박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굴 불요의 정신으로서 분별없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한바탕 치사를 하였다.

아울러 난민의 주의할 바와 시세의 돌아가는 바를 설명하여 장래에 기을을 내어 힘을 쓰기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에 경찰서장 수비대장의 강화가 있었다.

또 이날 석상에서는 작년에 조직하여 오던 '사민정덕회'의 규약을 결정하고 아울러 직원을 선정하여 김포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며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 규약과 임원은 대개 왼쪽에 적힌 내용과 같다.

△본회는 김포군내의 명망 있는 시민으로서 조직하고 사무소를 군청안에 둬.

강요 1. 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제국시민의 본분을 지키며 거상에 안심 귀의할 것 2. 당국의 지도 장려사항은 반드시 숙선 실행하여 서민의 의표되는 실정을 보일 일 3. 서로 친애 경애하여 예절과 신의를 숭상할 일

△사업 1. 적당한 시기에 강화회를 개최할 일 2. 각 리의 이민공려회에 참가하여 민심 지도를 힘쓸 일 3. 민풍 개선에 필요한 업을 하며 또는 이를 원조할 일

△회장 이 군수

△부회장 조동선, 기동식. 간사 이케다보통학교장, 능천군 서기

△이외에 위원 18명을 둬

1919-05-20 내지 독립단 소식 [신한민보]|02면|01단|

1919-05-23 善行(선행)을 褒彰(포창)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감정리 이병익 씨 어머니 쪽의 일가 김필자 부인은 이전부터 효성과 정절을 훌륭하게 지키는 행위가 한 고을에 유명하던바 동군에서는 이번에 동면 우저서원으로 하여금 공적을 조사하게 하여 지난 3일에 군내 양반 유생 명망가 백여 명의 회동한 석상에서 그 표창식을 거행하였는데 우저서원장의 식사가 있는 후 이군수의 훈사가 있었고 같은 곳 수비대장, 경찰서장, 보통학교장 및 관공리의 감사하는 축사가 있어서 일반 회동자에게도 좋은 감화를 주었으며 장래 지방 풍교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겠다는데 그 부인의 행상은 왼쪽에 적힌 내용과 같다.

△남편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자손을 위해

김씨 부인은 17세 되던 해에 이 씨 집에 출가하여 부드러운 본성과 정숙한 행실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집안에는 항상 화목한 분위기가 가득하여 유복한 세월을 보내던바 운수가 불행하여 31세 되던 해 을유년 겨울에 그 남편은 서글프게 병을 얻어 몸져누워서 일어나지 못한지 다섯 달 만에 김씨 부인은 옷끈을 풀지 않고 주야로 약시증을 들며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고자 하늘에 축원하였으나 천명을 어찌하지 못하여 끝내 병세가 위독하게 되자 손을 끊어 피를 흘려가지고 입에다 넣었으나 마침내 구하지 못하고 마침내 봉변한 뒤에는 정신이 아득하여 당장이라도 남편의 뒤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늙은 부모와 유아를 부탁할 곳이 없다고 하여 터지는 가슴을 억제하고 삼년상의 예절을 지키며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고 그 시어머니가

△별세한 뒤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80세 노인의 그 시아버지를 지성으로 공양하여 아침과 저녁때에는 반드시 옆에 있어 수저를 집어드리며 반찬을 가르쳐 드리는 등 조금이라도 불편하실까 두려워하며 그 공경하고 삼가며 매우 조심스러운 정성은 십년동안 변하지 않으니 이일을 아는 자 그 누가 탄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침내 집안일을 주관하여 맡은 뒤에는 자손을 법으로 가르치고 집안 살림살이를 돌보는 것을 근검하게 하여 늙도록 그만두지 않는 이씨의 가업이 영구히 있게 되었다.

1919-10-01 호역 휘보, 28일 현재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경기도 김포군에 2명 <중략> 새로운 환자 발생 (위와 같음)

1919-10-04 호역 휘보, 10월 2일 현재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19-10-10 김포 교사의 전임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18-10-29 학사 시찰 일정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학사시찰일정

총독부에서 주최한 조선인 교원 내지 학사시찰단이 오는 11월 7일에 경성을 출발한다는 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단장은 산구시일랑, 간사는 현현, 산노충부 제1반 <중략> 김포보통학교 이교승 <중략> 그 일정은 11월 7일 오전 8시 40분 경성을 출발하여 <중략> 29일 오후 9시에 부산에 도착하여 해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1919-11-03 양곡 공보교 신설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양곡공립보통학교 신설

경기도 김포군에 양곡공립보통학교 설치할 건을 김포군수로부터 신청중인 바 10월 25일부로 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1919-11-05 소위 독립운의 내막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경기도 진위군 북면 하북리 당시 경성부 연지동 199번지 보성학교 졸업생 윤태호(30)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당시 경성부 익선동 민내극(28) 등은 가정부원이라 칭하고 대한민국 주요한 기밀인 도장을 위조하고 자본금을 모집하는 문서를 만들어 그 인장을 찍은 후 지방인민을 속여 돈을 모집하고 또 경성부 저동에 사는 만모에(김금이라) (만모

에)김이라 칭하는 자가 한갓 이런 □영배의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살찌움에 불과한데 비록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꿈속에 방황하는 정신을 번쩍 깨일 일이라 자- 보라 아래에 기록한 실례를.

1919-11-05 돈만 내면 대신(大臣) 등용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경기도 진위군 북변 하북리 당시 경성부 연지동 109번지 보성학교 졸업생 윤태호(30세),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당시 경성부 익선동 민내극(28세), 등은 가정부원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 추밀원 지인(도장)을 위조하고 자본금을 모집하는 문서를 만들어 그 인장을 찍은 후에 지방민을 속여 돈을 갈취하고 또 경성 재동에 사는 민 모씨에게 돈 500원을 자본금으로 내놓으면 가정부의 중심인물이 될 것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고양경찰서에서 탐지하고 체포 취제중이라 한다.

1919-11-12 京畿林野調査(경기임야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19-12-25 진기한 이혼 소송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부부의 화락을 얻기 어렵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

최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는 다음과 같은 진기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경성부 화천정 36번지 이술순(21)이란 부인이 그 남편 되는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원산리 조재욱(29)를 상대로 하여 10월 20일에 이혼 소송을 일으켰다.

이술순은 1915년에 조재욱과 결혼하여 4년 동안을 같이 살았으나 조재욱은 생리상에 결함이 있다하여 별거하였으므로 이번 소송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오늘까지 입천(부장판사), 삼전촌(배석판사), 대충(배석판사) 양배석 판사가 맡아가지고 벌써 4번이나 공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되는 조씨는 어디까지 던지 자기의 생식기관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여 한결 음도 손색이 없고 원고 이씨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공판은 난잡한 문답뿐이어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심하므로 방청을 금지하고 심리 취조한 결과 피고 조 씨에게 의사의 감정을 얻어 오라 하여 이달 12일 총독부 병원 피부과에 가서 감정을 청구하였는데 이 진기한 소송의 판결은 26일 경에 끝날 듯하다.

어찌되었건 혼인의 정의로 생식의 기능이 필수 요건이라 하면 피고가 피소될지도 모르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고가 피소될 것이다. 이 같은 진기한 소송은 내지의 대심원 판결례에도 없었고 조선의 고등법원 판결례에도 없었으므로 이번의 판결은 범조계의 비상히 흥미 있는 문제라고 한다.

# 1920-1929

## <범례>

○ 기사본문

▶ 원문해석

<중략>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 생략

1920-02-15 경기객년 미작, 평년작 이상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0-04-09 부평 김포 대수리계획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부평, 김포 대수리계획

몽리구역 3천여정보

경기도청에서는 김포, 부평 양군에 큰 수리조합을 설치하고자 양군 관내에 대지주 27명을 소집하여 지난 5-6일 이틀 동안 협의한 바 그 결과 설립위원장으로 반전선차량씨를 선출하였고, 그 외에 조선인 2명, 일본인 4명을 선정하여 설립을 진행 중이다.

이 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은 부평 2,700정보, 김포 600정보 합계 3,300정보 대면적으로 지방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임이 많이 풀려 어려운 사람의 구제에도 필요하다고 한다.

1920-04-11 수리조합 계획, 지주회의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김포평야 수리조합계획

지주회의 개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한해를 구제키 위하여 경기도 지시에 따라 한해 가뭄피해가 극심한 면의 공조조합을 조직케하여 저리자금의 차입을 편의를 강구하고 아울러 수리조합 기타 토목사업을 일으켜 노임을 풀 계획을 하였는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1920-04-13 경성 비료문제, 신처지방 교섭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경성비료문제

신처지방 교섭

경성시에서 나오는 분뇨의 처치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경성부는 올해부터 분뇨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료로 팔아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경성 가까운 근교에 있는 김포지방의 농사경영자와 수급방법과 가격 등에 대해 교섭 중이던 바 그 공급을 환영하는 고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며 동시에 여러 해 동안의 현안도 해결하게 되었다.

1920-04-18 수리대출 자금 이율인상 관측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수리대출자금

이율인상 관측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에서 융통하는 수리조합 자금은 최고 인가이율이 8푼에서 8푼 5리이나 금리가 최고로 오르고 제반 공임이 많이 올라서 실제로는 9푼에까지 달하는 현상인데 동측에서는 이 이율로는 현재 물가가 올라서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약 1할까지 인상을 종용하는 중이라 하며 식산은행에 자금을 신청한 곳은 김포와 정주 기타 여러 군 테인데 총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1920-04-30 경기 漆樹(칠수)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0-05-04 15만원 사기사건의 예심 결정서 발표(1)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 19세의 미성년자를 짜먹고자 한 사기사건, (대구지방법원 발표)

은 조선을 요동케 했던 15만 원대 사기 사건이 그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취조 중이던바 이번에 이르러 예심이 종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예심 판결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중략> 경기도 김포군 도순사 김옥현 (28) <중략> 판결 주문, 본안의 피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부친다.

1920-05-11 경기부장 시험성적 [동아일보]|2면|사회|

▶ 경기부장 시험성적

과반 시행한 경기도 관내 순사부장 시험성적 합격자는 제3부 28명, 창덕궁 5인, 본정서 7인, 종로서 17인, 서대문서 4인, 동대문서 6인, 용산서 5인, 고양서 2인, 인천서 4인, 김포서 3인, 강화서 2인, 수원서 5인, 진위서 2인, 용인서 1인, 광주서 1인, 포천서 1인, 개성서 4인이라 한다.

1920-05-30 高陽泛舟記(고양범주기)(3) [매일신보]|문예|01면|03단|

1920-06-02 동척 비료 배부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0-06-04 水+畚逸(수일한 승려)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 기생집에서 놀다가

용산서에 유치되어

경기도 김포군 봉릉사 승려 김유일(20)과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승려 최운석(24)과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망해암 승려 정춘만(22), 김용식(22) 4명의 중이 지난 5월 15일 경성으로 올라와서 동냥을 한다고 강교다리 근처에 자리를 정하였다.

그러나 동냥은 하지 않고 밤낮 없이 색주가 집만 다니는데 이번 달 2일 오후 7시쯤에 먼 곳의 어떠한 기생집에 가서 승려계의 적당치 못한 행위를 하고 승려의 태도는 없고 부랑자의 행위만 있으니 최근 각 경찰서에서 승려 강도가 횡행한다고 조희가 있기에 강도혐의자로 유치를 당하였다.

1920-06-13 旱害窮民(한해궁민) 구제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 한해 궁민구제

대정8년 한발로 인해 피해 소작인과 소작겸 자작자 중에 노무 또는 부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아주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이번 국고로부터 식량비를 지출하기로 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48,612원. 관내 피해 군에 다음과 같이 당 배부하였다.

진위군 35,340원, 강화군 1,280원, 부천군 5,000원, 안성군 810원, 개성군 1,870원, 양평군 960원, 김포군 1,280원, 여주군 802원, 이천군 1,760원

1920-07-17 각 군면장협의회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0-07-17 수해 의연금 할당 결정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20-07-19 각 회사에서 연출된 이재의연금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1920-08-01 한강수해, 김포운하를 굴착하라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운하를 굴착하라

당국은 이점에 주의하여 급히 수책을 연구할 일  
원 김포군수 이각종씨 말씀

이번 장마에 한강이 증수되어 용산 뚝섬 등지에 수해가 참혹함은 일반적으로 아는 바거니와 이를 어떻게 구제할까 하여 관민 식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로 구제 방책을 의논 중이다.

이에 대해 저번까지 김포군수로 있어 한강의 수리 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것을 연구하던 이각종 씨는 말하되 치수 방법으로는 가령 상류에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여 수원을 조절하든가 하천을 일정한 넓이를 유지하도록 수질을 개선한다.

용산 방면의 수해만 면하자면 여러 가지 것들과 또는 갖은 편한 방법이 있겠지마는 아주 근본책으로 하려면 김포, 부평들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파서 한강물을 속히 인천바다로 빠지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계책이다.

원래 이 수해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매년 상류에서 내려오는 한강물은 하류가 좁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까닭에 2-3일씩 중간에 멈춰서 강변평야로 넘치는 것이니 한강 하류는 지도로 보면 강화 교동 사이 넓은 내로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임진강 하류와 합하여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의 좁은 곳으로 빠지는데 이 사이는 좁고 군색하기로 유명한 갑곶이 손돌목들 암벽으로 된 협곡이 있어 멀리서 내려오는 물이 미처 빠질 수 없고 상류로 나와 물이 많아지면 더욱 곤란하여 번번이 강변도처에 들이관 들에는 모두 물이 넘쳐 들어와 며칠 후에 차차 빠진다.

이에 대한 아는 옛이야기가 있으니 김자점이라 하면 우리 조선에 유명한 경제 정책가며, 수상 운송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세상이 알거니와 그때에 팔도대동배는 창고에 상납을 할 때에 반드시 손돌목과 갑곶이를 돌아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이가 좁고 험하여 항상 파선이 되어 국고 수입을 매해 용왕과 절반으로 나누게 되며 또는 오강(한강, 용산, 마포, 현호, 서강 백성이 매해 수해를 당하므로 그 당시 호조판서로 있던 김자점 씨는 한 방책을 생각하여 김포, 부평 들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뚫어 첫째는 대동미를 운반하는 관아의 배를 무난히 창고에 들어오게 하고 둘째는 강변 백성들을 수해를 면하게 하려고 여러 고을 부역을 풀어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좁게 파다가 김씨는 정변에 죽고 이 공사는 폐지되어 이후 300여년에 이 파던 개울에 들어오고 나가는 한강물 소리와 전

해오는 옛이야기만 남았다.

이 운하를 팔 자리는 길이가 한 20리나 되고 매우 지반이 얇은 평야이며, 인천 바다에 이르는 끝에 조그마한 고개가 있으나 역사를 하기는 매우 용이한 내지이나 한강 쪽보다 낙차가 얼마나 되며 운하로 하여 인천조수가 도로 잘 들어오지 않을지, 주안 염전과 인천 축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문 기술자가 실제 조사한 후에 아니면 알 수 없다.

오늘날 어디서 어떤 능력으로 이런 사업이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오히려 문제는 이따금 도시와 농촌의 이해가 충돌되는 수가 있으니 당국자는 널리 백성의 말을 들어 아무쪼록 옛날의 수단을 취하지 말고 완전하게 연구하고 상류, 하류 외 도시 농촌이 두루 이익을 얻을 좋은 방안을 좇아 해결되기를 바란다.

▶ 일인의 농장경영으로 제방 축조한 결과라고

지난번에 한강이 크게 범람하여 연안일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큰물이 위협하였으므로 우선 용산을 비롯하여 연안 각지에서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것을 강구하는 바이지만 고양군 용강면 현석리에 사는 쌀장사 박동수 현석리 구장 장세균, □수털리 구장 장세익 등 3명은 작년 한강 연안 김포군내에 있는 김포 농장이 설치되어 관개 공사를 실시한 결과로 한강의 지역의 넓이가 좁아져 유수 배수가 완만해진 까닭에 이번과 같은 대홍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농장 현장의 실제 답사를 마치고 수해 당한 일반 주민에게 격문을 발하였다.

지난 18일 동면 현석리에 이선현성학교로 각 대표자를 회동하고 근본적으로 홍수 피해를 막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는 바 그 외에도 일본인의 농장 경영으로 제방 축조의 결과로 이번과 같은 대홍수를 보게 되었다는 유언비어를 내어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런 말이 낭자함으로 경기도 제3부는 관할하는 김포경찰서를 시켜서 현장의 실제 답사를 명하였다.

김포경찰서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강척식주식회사 농장에서 독을 쌓는 것은 황해사의 공사로 김포군 군내면 걸포리 한강 연안의 나라 소유의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 면적 600정보를 개간하여 그 주에 축제를 하였다.

그 외에 제방 연장 3,174간 제방과 한강 건너편에는 800간의 거리가 그대로 현존한바 개간지 출원 당시는 이 거리가 600간이던 것을 특별히 총독부 토목국 의도가 800간으로 확대한 것이며 지금까지 이 개간된 600정보가 황무지로 홍수가 나는 경우는 제일로 범람되는 곳이었으나 개간된 후로는 유수가 일정한 넓이로 흐르는 결과 이 부근에서는 홍수 때를 당하여 하폭이 협소하여 연안 기타 부근에 대한 영향은 있을 듯하나 멀리 용산 방면까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복명서가 있음으로 경기도 제3부에서는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유언비어를 하는 자에 대해 엄중하게 잡아낸다고 한다고 한다.

1920-08-01 한강 대홍수에 대한 유언비어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20-08-21 농담하다가 살인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 이것을 보며 행여 농담은 아니할 것 -인천에서-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임철석과 동리 조상만은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절친한 사이인데 8월 11일에 두 사람이 서로 농담을 하다가 철석이가 상만의 아랫배를 한번 발로 찼는데 상만은 즉시 기절하여 넘어지며 인사불성이 된 바 즉시 의사를 청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이 15일에 상만은 드디어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관 인천지청 무라이 검사 대리와 조서기는 사토 의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히 가서 검사한 결과 철석은 상해 치사범으로 즉시 구금되어 계속 취조 중이다.(인천)

1920-09-09 본사 모집 수해 의연금 불일간 분배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경성, 고양, 시흥, 김포 각 군에 공평히

올해 7월 상순경에 경성 일대를 대표로 고양군 관내와 시흥군 관내와 김포군 관내에 홍수가 더욱 심하여 수해를 당한 사람은 부지기수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참상은 가히 말로 형언할 수 없으므로 본사와 경성일보사에서는 이재민을 구제하고자 일반 독지가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함에 노력한 결과 이미 본 지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의연금 총액이 5,755원 93전에 달하였고 기타 의복감이 다섯 필이며 어린 아이들 옷이 3벌이고, 목옷이 두벌이고, 어린아이들 적삼과 기타 잡품이 다섯 가지였는데 그 의연금과 물품을 피해의 정도를 따져서 공평하게 배부해 달라고 경기도청에 위탁하였더니 <중략> 김포에는 29원 93전을 보내어 각각 이재민 정도와 의연의 취지를 헤아려 불일내에 공평하게 배부하도록 하였다.

1920-10-09 고 이희공 전하, 어묘소 면봉의식 순서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고이희공<sup>1)</sup> 전하

묘소를 이장하는 의식순서

8일에 김포를 떠나신다.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에서 이장예식을 거행함

이희공가(家)에서는 돌아가신 고 이희공 전하의 묘에 천례를 하실 터인데 도중 행렬로는 8일 오전 7시에 김포에서 발인하여 육로로 영등포를 지나서 한강인도교로부터 구룡산을 지나서 공덕리 식장에 도착해서 다시 공덕리를 출발하여 봉래정 남대문동 황금정을 지나서 훈련원으로부터 동대문 밖 춘천가도를 나서서 순도로를 따라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묘소에 도착할 예정이고 또 이우공 전하는 8일 공덕리에서 상여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데 묘소에 천례할 의식순서는 다음과 같다.

△8일 오전 7시 김포발, 정오 12시에 양화도에서 주다례를 행하고 진식, 일동 오후 5시 공덕리에 도착

△9일 하루 묵고 오후 12시 영구앞에 분양, 10일 오전 5시 공덕리 출발 일동 오전 8시 고양군 송인동 병점리에서 조식, 일동 오후 12시 30분에 양주군 한금면 지금리에서 주다례를 하고 주식, 일동 오후 6시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도착

△11일 하루 묵고 12일 오전 1시 30분 출발, 일동 2시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 묘소에 도

1) 고종의 친형(흥친왕:興親王)

착, 일동 6시 30분 하관 매장.

1920-10-16 고이희공 전하의 어묘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0-12-27 지방통신: 署長更迭(서장경질)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1921-01-08 경기 地稅(지세) 수납성적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경기지세 수납성적

경기도 각 군에 지세 제1기분 수납성적을 알아본 즉 대정9년 12월 31일 현재 조정 전체 금액은 599,822원으로 수입전체 금액은 540,144원으로 이 수입실적은 실로 9할을 나타내는 양호한 성적으로 다른 도에서는 그러한 비율을 볼 수 없고 완납한 군은 양주, 가평, 안성, 수원, 부천 5개 군이고, 그 다음은 광주 973%, 연천 986%, 이천 983%, 용인 985%, 진위 966%, 시흥 970%, 김포 919%, 강화 919%이고 가장 불량한 성적을 나타낸 곳은 양평 630%, 개성 668%, 파주 장단 등도 개성과 같이 종래 조세수납 성적이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모두 6~7할을 면치 못하였음은 아마도 시국민심의 동요가 원인이 아닌가 의심할만하다고 경기도 제2부장 정상주계씨는 말하였다.

1921-01-20 수리관계 사업 성황, 경기도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수리관계 사업 성황...경기도에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수리관계 사업이 뚜렷하게 잘된 곳을 볼 수 없었는데 장강척식회사가 작년 김포군 군내면에 5~600정보의 논을 만들고 이곳에 한강물을 이용하여 양수기를 설치하고 미곡증수 성적이 좋아 일반 벼의 5석을 수확한 실례를 보더라도 관개사업이 유리한 사업임을 일반 농민에게 알리게 하였다.

이로서 이 관개사업을 뚜렷하게 하려는 곳은 부천군 계도면 주이면, 김포군 고촌면의 1개면과 부평수리조합을 설치하고, 관개방수사업 시설을 위하여 군마현인, 평유선사사랑의 12명이 발기인이 되어 제반 계획 중에 있으며 그 관개 면적은 2,700 정보이고 사업비는 123만 원 정도로 빠른 시일 내로 착수하고자 하며 <중략>

1921-02-22 농산 퇴비품평회 예정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1-02-22 불정승려 지방법원에 송치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21-02-28 근역지(56), (44) 경기도 [매일신보]|문예|01면|02단|

1921-04-09 환전표를 절취, 못된 우편소 사무원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못된 우편소 사무원

서류우편에서 절취

장원도 김화군 기오면 창도리 305번지 이순철(31)은 양주군 시돈면 의정부 우체국 사무원으로 그 우체국 사무를 전부 맡아서 일을 보아오던 바 <중략>

같은 해 12월 25일에 전과 같은 수단으로 우편물 중에서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이인갑에게서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이종범에게로 보내는 서류 우편물에서 17원의 통상 위체 증서 한 장을 절취하고 <중략>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으로 넘어와서 오는 14일에 공판을 개정한다고 한다.

1921-04-14 진단서를 위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21-04-15 근역지(62), (43) 경기도 [매일신보]|문예|01면|05단|

1921-04-15 군수 시찰단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1-04-16 협잡배, 내지인 3명이 공모하고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 내지인 3명이 공모하고 조선인을 사취

1919년 1월 중에 경성부 행정정 일정목 오반디의 1번지 다무라와 동정 일정목 56번지 안도와 동정 일정목 89번지 하본원지조 3명은 지금 서대문 감옥에 갇혀있는 자인데 그 죄상을 들은 즉, 3명이 공모한 후 토지 매매 대금 명의로 경기도 시흥군 북면구 노리 한익회에게서 돈을 편취하려고 계획하고 홍경순이란 자를 사이에 놓아서 한익회에 대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및 대곶면에 있는 논 82,602평을 사라고 하자 한익회는 실로 이 사람들이 토지를 팔 의사가 있는 줄 알고 승낙하여 같은 달 14일에 앞에서 말한 공모자 안도의 집에서 세 사람과 만났었는데 하본원지조가 토지를 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해 한익회는 정말로 이 사람에게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받을 줄로 잘못 믿고 현장에서 대금 13,000원으로 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속금으로 당일에 1,000원과 그 이튿날 15일에 500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해 2월 14일에 나머지 돈 12,500원을 지불하였는데 내지인 3명의 소행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의사가 없이 오로지 한익회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 대금으로 앞에서 말한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한익회는 이 세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해 김기현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경성지방법원에 고소하였다.

이토 준키치 재판장이 맡아서 피고 세 명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고 토지 대금 13,000원 및 1921년 3월 20일까지 채무를 완전히 갚는 기한까지의 연 5번의 이자를 한익회에게 지불하고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을 피고 세 명이 부담하기로 판결하였는데 피고 하본원지조와 안도 두 명은 이에 불복하고 오쿠보, 목미 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경성복심법원으로 공소하였다.

1921-04-17 근역지(63), 백금생(43) 김포군 [매일신보]|문예|01면|05단|

▶ 근역지(63) 백금생(43) 경기도(속)

김포군

(가)연혁, 고구려 시대의 검포현이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장제군(부평)에 영현이 되었다.

고려 명종왕 때에 감무를 설치하였고, 고려 신종 원년에 현감을 두었으며, 이조 태종 14년에 양천을 합하여 금양현으로 칭하고, 이어 양천을 나누어 금천(시흥)으로 옮길 때 본현은 부평부에 합하였고, 후에 현을 다시 설치하여 인조왕 때에 군으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대정 4년 군폐합시에 통진읍 12면과 양천읍 5개 면이 본 군에 합병되었다.

(나)군 폐읍, 통진읍은 삼한시대에 분진, 동성, 수안 3현이었으나 고구려때에 한데 합쳐 평회압현이라 칭하고, 신라조에 이르러 분진현이라 하였으며 고려조에는 통진현이라 고쳤다가 이조 숙종 때 부를 설치하더니 조선 개국 504년 재차파현이었고 신라 경덕왕이 공암현이라 고쳐 율진군(과천)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조 현종 9년에 수주(부평)에 속하였다가 충선왕 2년에 양천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었으며 이조말엽에 이르러 군을 설치하였다.

(다)군세, 본 군은 본 도 중부 남단에 있으며 동단은 동경 126도 54분 16초이고, 서단은 동경 126도 31분 11초이며, 남단은 북위 37도 33분 8초이고 북단은 북위 37도 47분 39초이며 동서의 길이는 8리 22정 18칸이고, 남북의 길이는 6리 27정 25칸이며 총면적이 25,141 방리(39,099정 3단보)이다.

경지면적은 15,912정 6단보, 대지면적 409정 1단보, 산림 기타 면적 23,177정 6단보이다. (인구표 생략)

1921-04-24 제6회 당선자 발표 [매일신보]|광고|03면|10단|

1921-04-30 대강도 逮捕(체포)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21-04-30 조선 공산물현황(2)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1-06-12 부평 수리계획, 3천5백 정보에 금한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1-07-15 경기도작상황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1-07-15 김포에 8명의 강도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러시아로부터 파견된 강도인 듯하다고 크게 주의 중임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수두리 218번지 신택민의 집에는 10일 오전 2시에 강도 8명의 한 단체가 들어와서 4명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4명은 방안에 들어와서 협박하여 금전을 다수히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는데, 일부 풍문에 의하면 러시아로부터 파견한 강도 8명이 경기도 관내에 침입하였다고 하는데 신택민의 집에 든 강도가 그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주의중이다.

1921-07-23 김포군에 호균 습래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만일 진정이라면 참으로 큰 걱정거리다

무서운 콜레라 환자는 각지로부터 우리 조선을 향하고 차차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조선 안에도 의심스러운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곳까지 생기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에 각지에서 발생한 것과 각 위생당국자의 여기에 대한 방역책에 대해 기록한다.

<중략>

▲경인선의 중간에 있는 김포군 양촌면 김동근(53)은 지난 18일에 발병하여서 그곳의 경찰서에 있는 공공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출장하여 대변 검사를 한 결과 콜레라 환자로 의심되므로 총독부 경무국 위생 당국자는 여기에 대하여 말하길 '이것이 만일 정말로 콜레라 환자라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방역 계획으로 도회지 주민 50만에 대해 예방주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의 결과를 보고 철저한 예방을 할 작정이라고 한다.

양촌면은 한강 연안에 있는 곳이므로 만일 병균이 한강으로 흘러내려 오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걱정스럽다. 아키타 수도과장이 말하길 '김포군은 한강 하류에 있으므로 수도에 대해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적당한 처치를 하고 있으므로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일반은 안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바 조선에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치 않으면 안 되는 이때에 더구나 이미 경성과 인천의 중간에 있는 김포군에서 의심 환자까지 발생되었으므로 일반은 더욱 주의하여 예방 주사를 함은 물론이고, 음식 거처 등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1921-07-25 김포호역은 陰性(음성)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그렇지만은 재차 검사하는 중이다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 231번지 김동근(53)은 일전에 사망하였으니 현미경으로 감사한 결과 콜레라 음성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차 검사하기로 하였다.

1921-09-05 재판관할 문제로 경성은 안 되고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21-09-17 수리조합 성립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1-09-23 집회: 경기교화 강연회 [매일신보]|기타|02면|09단|

1921-10-07 사회교화 순강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1-10-12 선내 석탄매장량, 1개년 소비고는 약 백만톤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1-10-23 민총기등 검거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21-11-27 진위 김포 임야사정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21-11-28 김포 야학교 개학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김포 야학교 개학

김포군 향산리 금란학교 동창회에서는 회의 사업으로 노동야학을 설립하여 교장에 홍의 표씨와 제 임원을 선정하고 기정석, 김병형 씨를 명예교사로 초빙하고, 한문, 산출, 일본어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1921-12-25 광복회 예심결정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우이건 등 14명은 마침내 기소

1919년도부터 경성을 중심으로 광복회를 조직하여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던 우이건 등은 그 동안 비상한 활동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끝내 독립운동에는 자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선지방을 위시하여 조선 전도의 각 부호에게 군자금을 다수 모집하다가 이것이 끝내 당국에 발각되어 오랫동안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예심중이더니 이번에 김동진, 김준한 두 명만 무죄방면 되고 그 외는 모두 유죄 결정되어 같은 법원 공판에 부치게 되었는데 예심 결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심 종결 결정

<중략>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35번지 심영택(53) <중략>

1922-02-03 마곡리 시장 인가, 김포군 하성면에 [동아일보] 02면 09단

▶(마곡리시장 인가, 김포군 하성면에)

좌기 시장설치의 건은 기간 동군수로부터 인가 신청 중이었는데 이번에 인가 되었다 한다. 마곡리시장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1922-03-09 夫婦同居(부부동거) 訴訟(소송) [매일신보]|기사|03면|3단|

▶근래 조선 사회의 풍기는 퇴폐하였는지 재판소에 제기되는 소송 중에는 남자가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십중팔구는 여자로부터 제기하는 것인데, 이에 더욱이 구역이 날만한 현상은 부부동거 소송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이것은 이혼 소송의 반대로 남자 쪽으로부터 제기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된 내용을 들으니 6일에 경성지방법원에 제기된 것도 2건인데 그 한 건은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 732번지 최명춘은 인천부사정 5번지 방원섭 방에 있는 방음전이이란 23세 된 여자를 상대로 부부동거를 청구하였는데 그 내용을 들은 즉, 원고는 1918년 4월 16일에 피고와 정식 혼례를 거행하고 그 후 계속하여 동거하여 오던 바 피고가 혼인 연령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11월 13일에 자기 친정으로 간 후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 돌아오기를 권고하였으나 도저히 듣지 않으므로 이에 동거하자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1922-03-30 처자를 방대한 못된 남편을 걸어 [매일신보]|기사|03면|8단|

▶ 못된 남편을 걸어, 재판소에 이혼소

<중략> 피고는 또다시 장녀 15세의 흥순을 김포군에 있는 자에게 80원을 받고 팔았음으로<중략>

1922-04-01 전과녀의 이혼소, 남편과 못살겠다 [매일신보]|기사|03면|11단|

▶ 남편과 못살겠다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323번지 이반분(23)은 자기 부모가 1911년 12월 중에 조학술(33)을 데릴사위로 들여 부부 동거하여 오던 중 그 반분은 이번에 조학술과 이혼을 하겠다고 경성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는 피고와 부부가 된 후 생활이 곤란하여 자연 부부의 정리가 소원하던 바 작년 7월에 피고는 원고더러 간통하였다 하여 같은 해 8월 12일에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는데, 더욱이 피고와는 동거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리가 없어졌으므로 동거할 수가 없으니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였다.

1922-04-21 금융조합 증설 [매일신보]|기사|02면|6단|

▶ 금융조합 증설

금융조합은 전 조선을 통하여 총433개소가 있고, 이중 촌락조합은 291개, 도시조합은 지난달 말 설립인가 된 경상남도 구 마산, 구 부산 제3의 2개 조합을 합하여 43개소인데 근래에 사회경제 상태는 한층 더 하위 금융조합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당국에서 조합증설 지점에 대해서 협의한 바 촌락조합 20개, 도시조합 5개를 증설하기로 결정하여 각 도에 설립준비 진행을 통첩하였는데 그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촌락조합이 49개가 되어 총 460개가 되며 이번 새로 신설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촌락조합, 경기 김포군 양촌면, 여주군 금사면 <중략>

1922-04-23 승려로 강도질 [매일신보]|기사|03면|6단|

▶ 10여 명이 모두 승려

지난 19일 오후 4시경에 서대문 경찰서의 응원으로 합농 흥파동에서 김포경찰서 사람에게 체포된 강도단 10여 명은 전부 승려뿐으로 평소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좋지 못한 일을 행하던 중 18일 오전에 김포읍내에 사는 이균의 집에 침입하여 권총을 가지고 금품을 강탈하였으며 요사이 여러 곳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수단으로 침입하였다고 한다.

1922-05-04 공의 강습회 [매일신보]|기사|02면|8단|

▶ 공의 강습회

조선총독부 위생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조선 각지에 공의 35명을 소집하여 전염병과 세균 기타에 대한 강습회를 열고 지금 시내 삼청동 위생과 세균소에서 소립, 지가 두 박사

와 천하기사 제씨가 강습을 실시하는 중인데 세군소에서 오는 22일에 이 강습 종료식이 있다하며 출석한 공의는 다음과 같다.

△김포 이석준, <중략>

1922-05-07 강도단 잠입, 부내 경찰의 엄탐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7단 |

1922-05-13 통진 공보생 원족회 [동아일보] | 04면 | 05단 |

▶(통진공보생원족회(강화))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구 통진읍) 공립보통학교에서는 남녀생도 2백명이 교장 좌등인장 시외 교원 3~4인의 영솔하에 동교를 출발하여 10여리 되는 문수산 문수사에 왔다가 동일 하오 4시에 무사귀교 하였다 한다.(강화)

1922-06-07 김포 수양구락부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5단 |

▶김포수양구락부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수양구락부는 창립된 지가 반년이 지났으나 경비의 곤란으로 수양구락부 운영을 못하다가 본부 부장 오순기씨가 발 벗고 나서 회원 여러 사람의 노력은 물론이고 일본인 회원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에 힘입어 수양구락부 회관을 건립하기로 합의가 되어 1,500원의 거액을 회원이 각자 각출하여 4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초순에는 준공되겠으며 중순에는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한다고 한다.

1922-06-10 경기 춘견 입찰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7단 |

▶7일 정오부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각 군 봄 누에코치 약 4,400석의 입찰을 집행하였는데 참가인은 9명이다.

고양, 여주, 시흥, 진위, 김포, 강화, 파주, 개성 등 9개 군은 군의 희망에 의하여 도에서 경영하는 경성제사장에서 매수하고 기타 12개 군은 입찰한 결과 양주, 연천, 양평의 3군은 조선제사회사로, 용인, 수원, 2군은 태천일조로, 부천군은 소사, 국전충의씨로, 광주, 포천, 가평, 이천, 안성, 장단 6개 군은 대구제사조합(산10조, 평창조, 조선생사회사 미택조)으로 낙찰 되었다고 한다.

1922-06-16 시모가 무녀란 이유로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5단 |

1922-06-20 경기 우시장, 매매두수 격증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4단 |

▶경기 우시장

매매두수 격증

경기도 관내 중 시장 47개소에 생우매매 중개는 종래에는 시장 경영자인 면에서 매매하였으나 올 4월부터는 이를 축산조합에 위탁하여 생우 매매에 원활을 기하고 가격조정을 기하고 생우의 적정 가격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축산조합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지출하고 증개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출하물량에 원활을 도모한 결과 올 4월 중에 성적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하여 출장두수는 2,900여 두이고 매매두수는 1,700여 두로 매매가격은 157,000여원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 사항을 기록하면 전년 4월중에 시장 수는 47개소로, 출장두수는 14,622두이고 매매두수는 5,238두이며 가격은 278,919원으로, 본년 4월중에 출장두수는 17,002두이고 매매두수는 6,414두이며 가격은 426,226원인데 특히 이천군의 출장두수는 964두에서 1,375두로, 매매두수는 323두에서 582두로, 매매가격은 10,000여원에서 32,000원으로, 수원군의 출장두수는 2,321두에서 2,575두로, 매매두수는 904두에서 1,349두로, 매매가격 55,500여원에서 102,000원으로, 기타 용인, 연천, 가평, 안성, 김포, 장단군도 거의 전년에 비하여 배 이상의 출하물량이 늘었고, 우시장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은데 점차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중이다.

1922-07-11 경기실업 시찰단 [매일신보]|기사|02면|8단|

▶경기실업 시찰단

경기도 주최 제3개면 각 시찰단은 우수한 실업가 약33명이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의 예정으로 국내에 각 요지에 시찰을 위하여 11일 오전 10시 남대문 발 특급열차로 출발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문서과장 신미수씨와 유정도하수, 태전도서기, 야강도서기 등과 이 김포군속, 이 양평 군속 등이다.

1922-08-06 금회의 강우와 손해 [매일신보]|기사|02면|5단|

1922-08-13 승려력사, 기차에 치어서 팔다리가 끊어져 [매일신보]|기사|03면|8단|

1922-08-21 김포군 구 통진보교 동창회 [동아일보] 04면 03단

▶(구 통진보교 동창회(강화))

김포군 월곶면 군하리(구 통진읍내) 공립보통학교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동교 강당에서 졸업생 동창회를 개최하고 모교 장래의 진행방침에 대해 호상협정할 예정이라는 데 당일 회비는 각자 50전씩 휴대한다더라.(강화)

1922-09-03 경기 수해조사 [매일신보]|기사|02면|6단|

1922-09-08 경기도내 6백만원 [매일신보]|기사|03면|1단|

▶경기도내 농작 피해 600만원

통계에 의하면 59,012정보

다른 도의 피해는 어떨가

지난 7월과 8월 줄기차게 내린 폭우로 인하여 황해도를 필두로 전 조선 각지에 참혹한 피해와 인명의 상실이 많았음은 물론이고 경기도내만 파주, 강화, 연천, 광주, 김포, 개

성, 부천 등 각 군을 위시하여 피해 입은 논이 20,000여 정보에 달하였다함은 본지에서 이미 보도한 바 같다.

현재 경기도 농과에서 전답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답 침수한 곳이 916정보이고, 유실되어 땅이 쓸려나간 곳이 3,527정보이며 물에 잠기기만 한 곳이 47,569정보에 달하여 합계 59,012정보라고 하며 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피해 금액은 600여만 원에 달하는 처참한 광경이 일어났는데 경기도내에 농작물 지역만 이럴진대 기타 다른 지역의 피해는 묻지 않아도 짐작할 만한 일로서 과연 사람의 눈으로 참아 보기 어려운 처참한 모습이었다.

1922-09-15 법인등기 공고 [매일신보]|광고|01면|7단|

1922-09-17 방화 협박죄로 음분녀는 검사국 [매일신보]|기사|03면|5단|

1922-09-21 임야조사사업인계 [매일신보]|기사|02면|7단|

1922-10-06 경기 연합품평, 11월개최 [매일신보]|기사|02면|6단|

▶경기연합품평회 11월 개최

11월 개최

경기도 관내 다음의 군에서는 산업장려를 목적으로 오는 11월 중순에 연합품평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기히 12,000~13,000의 예산을 계상하고 각각 준비 중이라고 한다.

고양, 양주, 포천, 가평, 양평, 광주, 연천 등 7개 군의 연합품평회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청량리 농업학교에서 개최하고, 개성, 장단, 파주, 김포, 강화등 5군의 연합품평회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개성 전매지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품종은 보통 농산물과 양잠, 임업, 축산 및 농가의 부업품 등으로서 심사는 도와 각 군의 기술관이 하고 심사 역은 근업모범장의 기술관에게 위탁하려고 하는데 포상 수여식은 전부 폐회 전날에 할 예정이다.

1922-10-07 범정에 입한 내외, 계집은 음부이오 [매일신보]|기사|03면|7단|

1922-10-14 천정속에 권총 탄환 [매일신보]|기사|03면|4단|

▶천장속의 권총탄환

피 묻은 의복까지

인천경찰서의 활동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오니산리 212번지에 사는 김춘식(40세)은 본월 6일에 인천화정 5번지에서 빨감 장사를 하는 김은준의 집을 사서 수리하는 중에 그 집 천장 속에서 난데없는 육연발 권총 한 자루와 탄환 10발, 피멍치가 된 조선의복 한 벌을 발견하고 대경 질색하여 즉시 경찰서에 보고하여 인천경찰서에서는 권총의 출처와 범인을 수색 중이라고 한다.

1922-10-19 法人登記公告(법인등기공고) [매일신보]|광고|01면|6단|

1922-11-19 도경찰부내 이동 [매일신보]|기사|02면|9단|

1922-12-14 삼처강도의 진범인 [매일신보]|기사|03면|7단|

1923-01-09 辭令(사령) [매일신보]|인사|02면|9단|

1923-01-10 집회: 부인식씨 송별회 [매일신보]|기타|02면|9단|

1923-01-11 집회: 부인식, 허섬씨 송별회 [매일신보]|기타|02면|9단|

▶부인식씨 송별회

이번 경기도 김포군수로 임명된 부인식씨의 송별회가 총독부 우정학무과장, 고교치학관, 남궁사무관, 고원훈씨 등의 주선으로 오는 11일 오후 6시 명월관에서 개최한다고 한 다는데 참여 희망자는 10일까지 총독부 학무국에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1923-01-16 월미도에서 대총돌 [매일신보]|기사|03면|1단|

1923-01-29 재판은 조화무궁 [매일신보]|기사|03면|1단|

▶무죄 되어 나온 노름꾼의 환희

검사의 공소도 소용이 없었다.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조홍묵(28)은 1921년 2월 9일 동면 보곳리 임재하의 집에서 몇 명이 모여서 가보잡기 노름을 한 일이 발각되어 작년 12월 11일에 인천지방법원지청에서 벌금 20원의 형을 언도하였다.

본인은 징역을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벌금형에 크게 기뻐하던 차에 지청검사가 공소 하였으므로 매일 답답하게 지내다가 사건은 경성복식법원으로 보내져 중야 재판장, 도변 삼포랑 배석과 강본 검사가 맡아 지난 24일 공판이 열렸다.

피고 조홍묵은 검사의 공소가 있어서 반드시 징역을 할 것은 의심이 없는 일이라 하고 두려워하는 얼굴로 법정에서 자 강본 검사는 '피고의 범죄는 1921년 2월 9일의 일인 즉 일 년 이상이 되어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무죄가 될 것이다.' 고 하고 재판장은 즉시 조홍묵에게 면소의 판결을 주자 조홍묵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덩덤히 서 있다가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실로 재판이란 것은 귀신의 조화라고 하고 머리를 연방 끄덕이며 법정에서 물러났다.

인천지청 검사가 시효가 지난 것은 생각지 않고 공소하였다가 판결 후 비로소 알고 즉시 판결을 뒤집어 피고를 무죄로 하여 달라고 공소한 일이다.

1923-02-05 경기 시장 취임 [매일신보]|기사|02면|7단|

▶경기 시장 취임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관내에 있는 20개 시장(서울, 인천 제외)의 작년중 물동량은 5,849,000원으로 대정10년도에 비하여 약 130,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장별 물동량은 다음과 같다.

지명, 대정10년, (단위 1,000원), 대정11년, 전략

<중략>

김포 41천원 66천원

<중략>

1923-02-22 수리조합 近狀(근상) [매일신보]|기사|04면|3단|

1923-04-15 人事消息(인사소식) [매일신보]|인사|02면|9단|

1923-04-15 어선 130척 행방 불명 [매일신보]|기사|03면|5단|

1923-04-19 부평수리 認可(인가) [매일신보]|기사|03면|5단|

1923-05-05 금란교 운동회 [매일신보]|1923-05-07|기사|03면|8단|

▶금란학교,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행산리

김포군 고촌면 행산리 사립금란학교에서는 그 학교 동창회의 주최로 16일에 춘계운동회를 동리에서 개최하였는데 일반 동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먼 곳에서까지 많은 군중이 모여 각종 경기를 하며 그날의 하루를 유쾌하게 보냈다고 한다.

1923-06-16 토지개량사업 현황 [매일신보]|기사|02면|3단|

1923-06-29 부평수리조합 기공식 집행 [매일신보]|기사|02면|8단|

1923-07-03 人事消息(인사소식) [매일신보]|인사|02면|9단|

1923-09-30 김포 도착상황, 시실지사 시찰단 [매일신보]|기사|02면|7단|

▶김포도착상황

시실지사 시찰단

시실 경기도 지사는 22일 좌동 내무부장 외 두 사람을 데리고 관내 수리조합과 도착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김포군 일원을 시찰하였다.

이 시찰에 대하여 시찰담을 들어본 즉 「김포군은 관내에서 비교적 면적이 협소한 군이나 한강에 좋은 수원이 있는 관계로 양동, 양천, 부평의 각 수리조합과 김포농장 등 5천여 정보의 수리사업지가 있어 수리사업 모범 군으로서 양동수리조합은 대정 10년 9월에 설립인가를 받아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양수기의 설치 이외에는 거의 완성을 보

았으며 관개 및 방수가 주목적이다.

몽리면적은 688정보에 달하여 기히 소작인 10여호가 이주하였으며 양천수리조합은 올해 3월에 설립되어 몽리면적이 554정보로 관개 및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방공사는 종료되었고 지금은 양수기를 선정 중에 있어 내년에는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도모하고 있다.

부평수리조합은 부평군에 맡겼는데 몽리면적은 2,600여 정보로 관내에서는 가장 큰 수리조합으로 금년 4월에 설립되어 기히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조합은 전기한 조합에 비하여 배수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38인치 펌프 6대를 운전할 때에는 장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며 김포농장은 장강척식회사가 경영하는 곳으로 한강연안에 황무지 500정보에 방수제방과 양수기를 설치하여 개간한 곳으로 기히 공사가 완성되었다.

농장용 수로에 완비와 구획정리등 현재 조선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모범농장이며 단지 유감이 있다면 이 농장은 수리사업이 보급되었으나 각 사업지에 사업 착수 시기가 각각 다른 결과 다소 계획상 통일성이 없는 점이 있어 장래에는 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김포일원은 수십 년 만에 풍작으로 농민들은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923-10-16 박지타지하여 치사케 [매일신보]|기사|03면|4단|

1924-01-01 郡石歌(군석가) [매일신보]|문예|12면|05단|

1924-01-11 패도한 것을 봉적 신고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패도한 것을 봉적신고

강도피해는 빨간 거짓말이고 실상은 놀음에 빼앗긴 것이다.

경기도 김포군 원당리 671번지 이종완(48세)은 지난 4일에 강도를 맞았다고 하여 김포경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김포경찰서에서는 곧 각처로 수배하는 동시에 범인을 수색하기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피해자 이종완의 언동이 이상함으로 이것을 의심하여 조사한 즉 이자는 원래 남의 소한마리를 팔아가지고 떡이다가 이것을 팔고 다른 소를 사려고 지난 12월 26일에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시장에 가서 76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자는 원래 놀음을 즐겨하는 자이라 소판 돈으로 도박을 시작하여 소비하여 버리고 할 수 없이 장기리 시장에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잃은 것과 같이 신고한 것이 판명되어 방금 계속 취조중이며 또 도박한 사실 등에 대해서도 연루자들도 조사 중으로 허위신고와 도박죄로 처벌되리라고 한다.

1924-03-01 보제방을 파괴하여 천정보 관개 불능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24-03-01 세계 무전 여행자라 사칭하고 위협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24-03-20 수은에 중독 즉사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남의 말을 듣고 약을 피우다가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원산리 389번지 서병준(37)은 수년 전부터 매독에 걸려 올해 1월 이내로 병석에 누워있던 중 병이 그 처에게 감염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마침내 병이 완전히 고쳐지지 않아 근심하고 있었다.

대동군 양택리 164번지 서범이(68)에게 매독 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약을 사달라고 샀돈 15원을 주었는데 서범이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경성에 올라와서 종로의 어떠한 약상에서 수은과 석유황 등 다섯 가지 약품을 사가지고 돌아가서 서범준의 온돌에서 방문을 닫아 공기의 유동을 막은 후에 그 약품을 피어 환자에게 그 기운을 호흡하게 하였다.

서병준은 갑자기 열이 나고 배가 부어 무한히 고민하다가 지난 3월 4일에 죽었는데 김포서에서 조사한 결과 이상의 사실이 발각되어 서범이는 과실 치사죄로 인치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가 아닌 자가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므로 이후 이 같은 자에게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약재의 판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층 엄중히 하겠다고 하였다.

1924-03-26 각도 평의원의 후보자 당선 발표 [매일신보]|기사|08면|03단|

1924-03-27 인천 강도 체포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24-04-14 김포군의 우량 농촌 표창식 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군의 우량 농촌

표창식 거행

농사장려회 총회와 아울러

김포군 농사장려회에서는 4월 11일에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부인식(군수)씨의 사회로 대정12년도 세입세출과 경과보고, 금년도 농사장려회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고, 회칙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각종 권업장려 사항에 대한 20명의 수상자가 있어 겸하여 다음 부락들을 우량농촌으로 표창하였다.

김포군 고촌면 향산리,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김포군 대곶면 거물대리, 이상 표창기 각 1개씩 수여.

1924-04-16 김포 영등포간 우편물의 수송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김포 영등포간 우편물의 수송

자동차부가 인수하여

김포 영등포간 우편물은 9월 하순경부터 김포자동차부에서 운송하기로 이달 12일 영등포우편국과 자동차부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앞으로는 우편물이 전보다 약3시간 가량 빨라질 것이며 자동차 시간도 철저히 지켜서 승객도 편하게 되었다고 한다.(김포)

1924-04-17 道(도) 보조금의 용도 [매일신보] 기사|04면|04단|

1924-04-19 김포전염병 증가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24-04-20 김포學議(학의) 개선 [매일신보]|기사|10면|04단|

▶ 김포학 의원 개선

김포군 학교비 평의원을 지난 21일에 각 면협의회에서 선거하였는데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김포-이민응, 송윤식, 김목희, 차석민, 김인근, 조종건, 이시용, 권이옥, 강준희

1924-04-23 4인 사기단, 신문지를 돈이라고 [시대일보]|01면|05단|

1924-04-24 군 신문의 발행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 군 신문의 발행

김포군수 부인식씨는 이번 군과 각 면 그리고 기타 단체의 제반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4월 19일부터 “김포군” 이라는 군 신문을 발행하고 매월 1회씩 각 면과 단체에 무료로 배부한다는데 신문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포)

△편집실 창에서 △감명 △자만화 △사회사상 △군으로부터 면에 △본지로부터 면에 △여행에 관하여 △집회개최 △면장의 노

1924-04-25 金陵青年(금릉청년) 설립총회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 금릉청년, 설립총회

김포군 군내면에서는 박영원, 조용봉 두 사람의 발기로 4월 6일에 이 지역 유지의 찬성을 얻어 금릉청년회를 설립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규약과 기타사항은 정동환씨 사회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회의 설립목적은 공공사업, 수양, 지의 개발, 풍속개선, 체육장려라고 하며 회원 수는 이미 66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임원은 다음과 같다.

(김포) 회장 정동환, 부회장 김중묵, 총무 홍순경, 기타 8인

1924-05-15 부평평야의 관개공사,[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24-05-16 전과를 회전하고 법정에서 체음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24-05-22 강화의 사격대회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24-06-14 김포 방면의 폭풍우, 피해가 많다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 피해가 많다

김포 지방에서는 11일 오후 5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이나 폭풍우와 우박이 쏟아져서 반

좁 허물어진 가옥이 20여 호에 달하며 심은 지 사십년이나 되는 노송 20여 주가 부러지고 또한 마포 방면으로 장작을 싣고 가던 배 수척이 뒤집혀졌으나 생명은 무사하였다. 이 외에도 복선이 있으므로 생사자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김포)

1924-06-20 인천 축항에서 미인 자살미수 [매일신보]|기사|05면|06단|

1924-07-01 김포 위생전람 상황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 위생 전람 사항

김포군에서는 27일 위생 전람회를 김포공립보통학교 내에서 개최하고 위생상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도 경찰부에서는 위생선전에 대한 활동사진을 김포군 주민에게 관람시켰는데 29일에는 양동면에서 개최하고 일반에게 관람케 한다고 한다.

1924-07-05 김포 춘견매매, 25일로 종료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 춘견 매매

지난 25일로 종료

김포군 견 공동판매는 매년 시행하는데 그 성적을 알아보면 작년보다 50석이나 증가되었으며 지난달 중순부터 25일까지 취급한 물량이 170석여 인데 그 외에는 교통운반상 문제로 경성, 인천 등지에 수출된 것이 적지 않다고 한다.

1924-07-06 계란 공동 판매 [매일신보]|기사|06면|05단|

1924-07-23 김포 학생 巡講(순강)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김포 학생 순강

경성에 유학하는 김포 학생 친목회에서는 고향사람들을 위하여 하기 학예강연회를 본사 김포분국 외 기타 단체의 후원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였는데 김포군으로서도 이와 같은 강연은 처음으로 성황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

△연사 심상정(고공), 민옥인(보성전문), 최종호(서울법전), 원용달(의전), △약사 정환선(고예), △7월 22일 양천 △23일 김포 △25일 양곡 △26일 통진 △27일 하성 마곡

1924-07-27 경기 관내의 수해 상보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24-08-05 肥後武雄(비후무웅)씨의 특지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24-08-10 위조지폐 발견, 조선은행 1원권 [매일신보]|기사|05면|02단|

1924-08-13 금고파괴 절도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24-08-21 김포 점사 驅除(구제)상황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 점사(썰기) 구제 상황

김포군에서는 소나무 썰기 구제의 목적으로 해마다 이를 시행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참가자에게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추점제도를 도입하고 관과 민이 일치 노력한 결과 구제량이 200여석이며 이 달 안으로 추첨할 계획이라고 한다.

1924-08-21 김포군 대곶면 분서강습소 [동아일보]|03면|01단|

▶(김포군 대곶면 분서강습소, 발전의 희망이 만다)

김포군 대곶면 유지의 발기로 작년부터 초등보통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분서강습소를 설립하고 교육협찬회장 김홍윤씨 급동위원 제씨의 노력으로 150여명의 아동을 교원 3인이 분담교수하며 적립금도 3천여원에 달하였다는데 금회 당지 일반에게 교육사상을 환기하기 위하여 인천에서 연사를 청빙하여 지난 16-17일 양일간 교육 강연회를 연바 매일 청중이 500-600여명에 달하는 성황을 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일반의 교육열이 더함을 따라 해강습소는 더욱 발전하리라고.

1924-08-26 김포금융조합 업적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군 금릉조합 업적

김포 금릉조합에서는 금년부터 거치저금을 노력한 결과 현재 95좌로 35,000원에 달하는 많은 저축고를 올렸다. (김포)

1924-08-27 김포친목회 교육열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김포친목회 교육열

김포친목회는 이번 강습부를 설립하고 이 지역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곤란한 아동 50명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경비는 유지 측의 기부와 친목회 회비로 사용한다고 하며 교원은 매월 30원 내외의 월급으로, 전무 1인을 둔다고 한다.

1924-09-01 지방집회: 大和田(대화전)서장 송별회 [매일신보]|기타|04면|06단|

1924-09-04 진재기념 상황: 김포군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김포군

김포 금릉조합에서는 지진 1주년 기념일인 9월 1일에 등정 이상의 직원이 총출동하여 표어가 적힌 깃발을 들고 읍내를 일주하며 저금에 대한 선전을 하였다고 한다.

1924-09-05 하성면 사무소 낙성비의 징수 [동아일보]|03면|01단|

▶(하성면사무소 낙성비의 징수 기아의 면민 설상의 가상)

경기도 김포지방은 금년 중 수재 한재로 농작은 흉경을 면치 못하고 민심은 흉하여 생활방침이 없는 참상 중인데 동군 하성면에서는 금춘에 면사무소 건축을 낙성한 후 이제

와서 낙성식을 거행한다고 칭하고 기비용 오백 원을 목하 민간에게 징수함으로 민정은 조금도 살피지 않는 행동이라 하여 면민의 분개와 일반의 비난이 비등하다고.

1924-09-06 지방집회: 池田(지전)교장 송별회 [매일신보]|기타|04면|06단|

1924-09-16 時實(시실)지사 김포 시찰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24-09-16 교육을 반대하는 면장 [시대일보]|02면|06단|

1924-10-03 한강 지류에 시체 漂着(표착)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아마 관리인 듯

지난 21일에 김포군 아래 양촌면 양곡리 한강 지류에 남자의 시체 한 개가 물결에 떠돌아 다니다가 물에 닿은 것을 발견하고 검시한 결과 죽은 지 약 20일이 지난 것이 판명되었다.

몸에는 흰 양복을 입고 검정 구두를 신었는데, 그 모양이 관리 같기도 하여 같은 지역의 경찰서에서는 각지로 조회 수배중이라 하며 발견 당시의 모양을 보면 타살인 혐의가 있으므로 엄중히 조사를 진행 중이나 타살이 아니면 결국 배가 얹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한다.

1924-10-24 김포의 夜間講話(야간강화)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24-10-26 도작연부조제 실행조합 설립 [매일신보]|기사|06면|03단|

▶도작연부 조제

실행조합 설립

김포군에서는 해마다 일반 농민에게 자리를 깔고 탈곡하는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를 일반 농민이 실행하는 일이 적어 금년 가을부터 각 리에다가 도작연부 탈곡 조합을 설립하고 3개년 내에는 모두 시행하기로 계획 중이다.

보조금 관계로 우선 금년에는 군내면, 고촌면, 검단면 3개 면을 시행하기로 하여 방금 착착 실행중이라는데 특히 지정부락에는 도급기계 구입에 금 10원씩을 보조하며 조합규약 준칙을 보면 위반자는 5원이하의 과태금까지 징수한다는 엄중한 규약이 있다.

1924-10-27 김포 범죄의 감소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 죄범의 감소

김포경찰서에서 작년도 범죄자 건 발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보다 점차 감소된 모양인데 그 중 도박건 발생은 3할 이상 감소되고 절도범은 예년보다 4할 이상 증가하였다는데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포)

횡령범 37, 사기범 52, 절도범 57, 유괴범 7명, 도주범 10, 상해죄 54, 문서위조범 17, 동화위조범 2, 중혼죄 6, 감금죄 6, 실화죄 4, 도박죄 14, 무고죄1, 협박죄 3, 기타 30

1924-10-28 김포 소작인의 대불평,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3단 |

▶ 김포 소작인의 대불평

재경 지주의 물의한 요구로

경기 김포군에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해마다 소작료 분배율에 대하여 양방간의 분쟁이 있는데 금년에는 특히 한해로 예상수확이 예년보다 약2할이 감소되어 일반 소작인들은 아주 비판하고 있다.

지주 측에서는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무리한 청구를 하는데 소작인측도 50대 50으로 반분작을 작정하고 소작하는 자기는 큰 불평이 없으나 도지로 작정한 자기는 불평이 크고 해당 지주가 본군 주민이면 이에 대하여 약간의 동정도 있을법한데 재경 지주들로 논한다면 불량지주가 없지 않아 금년 수확에 7할 이상이나 요구하는 자도 있다.

그 중에서도 월곶면이 심하여 김포군 근업과장 이명렬씨와 월곶면장 신갑균씨는 선후책을 강구하여 재경 지주 측에 상호 의논하자고 통지하였으나 하등의 회보가 없고 출두치도 아니하여 대단히 곤란한 입장이며 여하한 방침으로 할는지 두 사람은 고심 중이라 한다.(김포)

1924-11-17 김포시찰단 출발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6단 |

▶ 김포시찰단 출발

김포군 면장 시찰단 일행 9인은 이번 김천에서 개최된 품평회를 시찰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오전 10시 열차로 출발하고 면서기 일행 13인은 김포군 권업과 담임 기수의 인솔하에 12일 오전 8시에 광주 품평회를 시찰코자 출발하는데 면장 일행은 5일간 면서기 일행은 4일간 예정이라고 하다.(김포)

1924-11-24 太商金(태상금)을 절취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3단 |

1924-11-24 김포 무덕관 상량식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6단 |

1924-11-27 김포 가축품평 유망한 계획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5단 |

▶ 김포 가축품평과 유망한 계획

김포군에서는 농가에 부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동 양계 등 각종 축산물에 선진화된 양축 활동을 통하여 우량한 축산물을 생산 해마다 각 도에 종계 종란으로 제공한 것이 금년에는 종계 1천2백여 마리와 종란 1,800여개 내외이다.

특히 금년 가을까지 군내에 가축모범부락 36개 동을 지정하여 이 부락에서 생산된 가축을 출품시켜 이 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가축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그 출품 수는 개량닭 1,320수 개량축우 721두, 돼지 5,060두 기타 잡종과 재래종 1,905마리에 달하였으며 심사장으로 경기도 송기수이고 심사위원으로는 김포군에 근무하는 장야기수인데 지금 순회심사중이며 부상품으로는 지방비 70원의 보조금과 축산연합회 보조금 40원을 시상한다.

현재 김포군에 근무 중인 장야에응씨(기사)는 말하기를 장야기수가 고양군에 6년간 근

무할 적에 양돈분야에 우량한 성적을 올렸다하며 김포군의 장래계획은 각 보통학교 학생들에게 1개월의 2회씩 1명에게 개량 난을 20개씩 가져오게 하여 그 대금으로 학생은 월 사금을 내고 개량종 보급에 발전을 도모한다고 한다.

#### 1924년 12월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3조

▶(경찰서 직할 담당구역 및 경찰관 파출소·동 주재소 명칭·위치·담당구역표)를 중 김포경찰서 난을 일부 개정한다.

명칭 풍곡경찰관주재소를 고촌경찰관주재소로 위치-김포군 고촌면 풍곡리를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로 개정한다.

1924-12-11 경기도 관내 整理淘汰(정리도태), 합 59인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4-12-11 김포의 행정 정리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 ▶김포의 행정정리

경기도 김포군에서는 이번 행정정리에 따라 군 권업과를 폐지하여 과장 사퇴와 군속 사퇴자가 있었으며 경찰서는 6인의 전근과 일본인 부장 1명과 조선인 순사 1명의 퇴직자가 있었는데 이미 12월 1일부터 3개소에 주재소를 폐지하였는데 폐지된 주재소는 다음과 같다.

김포-검단면 마전주재소, 양서면-송정주재소, 대곶면-율생주재소

1924-12-15 김 면장의 칭송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 ▶김면장의 칭송

김포군 검단면장 김중혁씨의 10주년 근속 기념식을 하고자 김포군내에 유지들의 발기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기념품도 준비하여 이 달 5일경에 검단면사무소 내에서 식을 거행하려고 하였는데 김면장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알고 금년같이 한해와 수해로 면민들의 생활이 즐겁지 않은데 이러한 때에 소위 면장이라는 사람이 10개년 기념 축하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하여 기념품까지 반환하는 일이 있어 일반 서민들은 더욱 면장의 깊은 뜻을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다.

1924-12-18 연초 소매인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 ▶연초 소매인대회

경성연초 원매별 회사 주최로 김포군내에 있는 연초 소매인에게 전매규정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말라는 제목 하에 소매인 대회를 지난 10일 군내면 금릉공회당에서 개최하고 전매국 출장원의 입장 강연이 있는 후 사원에게 소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여흥으로 행운권 추첨을 하고, 무사히 대회를 마쳤다.

1924-12-18 농사개량 강습회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4-12-27 김포군 공조회 역원회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군

공조회 임원회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공조회에서는 이 달 22일 김포 군내면사무소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병희씨 사회로 장래 사무진행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고문으로 평산 김포경찰서장, 부인식 김포군수 그리고 윤병희 면장을 선임한 후 오후 1시에 폐회하였다.

1924-12-27 연합검도 納會(납회)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24-12-28 조선어 試驗(시험)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01-13 성황을 이룬 동지척사대회 [매일신보]|기사|면|단|

▶성황을 이룬 동지척사대회

명예의 일등은 김포인사에게

동지구락부 주최 제2회 윗놀이대회는 28일 밤에 시내 명월관 지점에서 제1회 대회 때 이상으로 성황을 이루어 개최되었는데 각처에 용장이 모여 격렬한 대결을 계속하여 명월관에 온 주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었는데 이날 밤 명예의 승리를 얻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1등 18급 손목시계 1개,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 21번지 이의두 <중략>

1925-01-30 성황을 극한 동지척사대회, 명예의 일등은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중략> 제1회 이상의 성황으로 개최되어 각처의 용장이 모여 최고조에 달한 뜨거운 열정의 싸움을 계속하는 어느 한쪽의 주객이 자못 하룻밤의 환락을 구하였는데 이날 밤 명예의 승리를 얻은 인사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1등 18급 손목시계 1개 김포군 군내면 풍무리 21번지 이의두 <중략>

1925-02-04 출가한 소녀, 못된 자 따라서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25-02-07 汽船(기선)에서 분만, 배에는 오색기발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배에는 오색 깃발 영아의 출산을 축하

인천-지난 3일 아침 10시경 인천, 강화 간 정기항로선 <중략> 김포군 고양리에 잠시 들르려고 할 때 <중략> 배에 탄 사람 중 강화군 화개면 상동

1925-02-16 김포군 생산물품평회, 22일부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25-02-16 현대의 王祥(왕상)인 白樂親兄弟(백악친형제)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2-18 朴齊淵(박제연)씨 慈善(자선)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02-20 김포산업 강습회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02-26 김포에 毒感蔓延(독감만연)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김포) 최근 각지에 유행하는 독감은 몇 달 전부터 김포 지방에도 심하게 유행중이더니 요사이에는 집마다 한두 사람씩 걸리지 않은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

1925-03-01 김포읍내에 괴화빈빈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일반민심이 매우 흉흉해

(김포) 경기도 김포군 읍내에 요즘 화재가 빈번한데 그 원인이 매우 수상하여 일반 민심이 흉흉하다.

1925-03-10 김포군수 부인식에게 [동아일보]|03면|05단|

▶구아군은 무인절도망량배의 주장이 아닐 것이며 적어도 7만 여의 생명이 거주하는 김포반도의 군수이다. 그러면 군은 직무상으로는 책임상으로는 군내 민중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 민간 알력과 충돌이 없도록 일치 협력하여 자근함이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 군은 이번 양촌면 사건에 대하여 방약무인 군약무민의 태도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기색할 만큼 날고 뛰어나지 못하다.

19세기 깊이 든 잠을 아직 깨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군의 전매특허인 전용식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는 대중본위인 현대에는 적합지 못한 방식이다. 이제 그 양촌면 사건의 전말을 들어 말해보자.

민중은 시대의 추이를 따라 대중본위의 사회를 건설코자 한다.

그럼으로 객년 12월 중 양촌 면장 사면에 대하여 양촌 면민 일동은 동기로 하여 면민본위인 면자치제 실행 촉진을 운동하였다고 그 실행방법으로 위 선면장 출석을 민의에 참석하자고 선언하는 동시에 과거 급장래에 감하여 전 면장 이운하씨의 유임을 끈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7천여 민중이 면민대회를 3~4회 개최하고 군급 도당국에 4~5차례 진정하였건 만은 군은 진정위원회에 대하여 과거 3.1운동 실패로 전 민족에게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하면서 일항 거절하는 동시에 제3자의 권력까지 빌어 시위운동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민중을 견마시하고 물건 대함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소위 재등장군의 간판 좋은 민의창달이란 것도 군에게 알아야하는 일층 더 노골적으로 양두를 걸고 구육을 파는 격이로구나.

그 후 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노후물에게 고문하여 가지고 소위 신임면장이라고 임명하였으니 차는 독부면장이다.

민중이 긍정치 않고 어디까지든지 불신임을 운동할 것은 세고 당연한 일이다. 그 정정당당한 민중운동은 제 아무리 출두천의 재주를 가졌다하더라도 막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그로 말미암아 신임 면장 취임 이후 각리 구장급 면협의회원이 총사직하였으며 면민은 면장을 구수시사 할대하여 면내의 공기는 긴장하고 인심은 흉하니 독부 군수 독부 면장이 탁상정치나 하고 말려는가

군아 반성하라, 현대는 썩어진 19세기 사투식 전제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이 민중분위로 되는 시대임을 깨달으라. 그리하여 민의가 있는 곳을 좇아 존중하여라. 따라서 군이 그 자리가 결코 관권을 남용하고 봉급만 적식하라는 직부가 아닌 것을 깊이 반성하라. 쾌지호

1925-03-15 김포부인저축회, 부업 장려와 학자로 계란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03-16 김포군 자강구락부, 10일에 발회 [동아일보]|05면|02단|

▶(김포군에 자강구락부, 11일에 발회)

김포군 자강구락부는 예정대로 지난 11일에 오후 2시에 양촌면 김포청년회관에서 발회식을 하였는데 발기인 중 취지설명 보고가 있는 후 회칙통과하고 집행위원으로 차석민, 이운하, 남정용씨외 27인을 선출하고 진행방침 기타를 일임하고 6시경에 산회하였는데 당일엔 내빈 축사 부원감상 등도 있었다고.

1925-03-19 공의의 약에 중독즉사, 검사까지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검사까지 출동

본적을 강원도 춘천에 두고 각지로 돌아다니며 매약 행상을 하는 한일선(43)은 수일 전에 김포군 하성면에서 돌연히 사망 하였는데 죽은 원인이 매우 의심스러워 인천지청으로부터 검사가 출장하여 시체를 해부하고 엄밀한 조사를 행한 결과, 한일선은 혹독한 매독에 걸려 인천의 어떤 공공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약을 사서 피우다가 중독이 되어 즉사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즉시 그 공의를 인천서에 인치하고 눈앞에서 엄중히 취조하였다.

1925-03-20 김포금조 낙성식기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김포 금릉조합 낙성식

김포군 금릉조합의 신축공사는 이미 작년 12월 중순에 준공이 되었으나 낙성식을 거행치 못하였는데 오는 4월 초순경 동조합 정기총회를 기회로 하여 조합장 기동식씨의 10주년 근속 기념식을 겸하여 신축낙성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1925-03-21 김포학교평의회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 학교 평의회

김포군 학교비 평의회는 지난 17일 군청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대정14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통과하였다고 한다.

세입

- .30,828원, 경상부, 예산고

- .8,339원 임시부, 예산고

세출

- .32,814원, 경상부, 예산고

- .6,353원, 임시부, 예산고

이와 같이 금년도 통진 및 양곡학교에 학년연장은 예산관계로 연장치 못하게 되고 하성 공립보통학교 신설 건축은 이미 적립금으로 7,739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당국으로부터 인가가 내려오지 않아 일반 평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인가가 내려오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1925-03-24 김포군 축산품평회 [매일신보]|3면|

1925-03-24 김포군 축산품평회 수상식 성황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군 축산품평회 수상식 성황

김포군 축산 동업조합에서는 축산장려와 개량종 보급을 위하여 이번 축산부락품평회를 개최하고 그간 순회심사를 하였는데 비교적 인민의 자각으로 우량한 부락이 많이 생겨 그 중에 모범 부락 36개 리 중에 13개 부락을 1,2,3등으로 나누어 지방비 보조금으로 200원과 경기도 축산조합연합회로부터 40원의 보조금을 얻어 종자용 양축가에게 시상하기로 하고 이번 달 20일 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 시상식을 거행한 결과, 부인식 군수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장야기수 심사보고가 있는 후 수상자 대표 조영만씨의 답사와 정상교장, 등정이사 두 사람의 축사로 성대한 식을 거행하고 오후 3시에 폐회하였다.

1925-03-31 옥구군의 면이원 시찰단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25-04-07 김포의 양단체 기념 식상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25-04-13 김포농사장려회 정기총회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김포농사장려회 정기총회

포상수여식 및 우량촌 표창식

김포군 농사장려회는本月 9일 김포군청 앞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부인식 군수의 사회아래 제반 사무진행에 대한 보고를 끝낸 후 각 품평회 포상수여식 및 우량촌 표창식을 거행하고 오후 2시에 폐회하였다.

1925-04-17 김포금조의 정기총회 낙성식을 겸하여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4-28 자부의 발악에 시아비가 목을 매어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5-05-08 각지 은혼식 봉축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5-08 김포 범죄건수, 절도범 최다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25-05-12 김포군의 일어 해독자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군의 일어 해독자

매년증가중

경기도 김포군은 9면 88리로 총인구가 일본인 306인, 조선인 5,785인, 지나인 335인 중 조선인의 일어 해독자는 최근에 이르러 인구 1만인에 비하여 38인이 좀 넘는다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해독하는 자와 보통 회화하는 자를 구별하여 보면 조금 해독하는 사람 중에 남자는 1,054인이고, 여자는 86인이고, 보통 회화를 하는 정도의 사람은 남자는 807인, 여자는 86인에 달하는데 앞으로는 현재 교육기관을 감안하면 매년 남자가 200인, 여자가 50인 이상 회화가 능한 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925-05-13 은혼식 당일에 공전성황의 각지 봉축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5-13 김포 호수 증가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5-05-16 각지 독지가 : 도로공부의 칭송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05-16 기념저금 기부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25-05-16 김포정구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5-05-21 김포 초유의 정구대회,대성황리에 종료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초유의 정구대회

대성황리에 종료

김포 정구구락부 주최에 조선일보 김포지국 그리고 본사 김포분국의 후원으로 개최된 김포 개인 정구대회는 예전과 같이 이번 달 17일 금릉코트에서 오전 10시 회장대리 최의순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15일까지 신립수속을 마친 선수가 추첨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만장의 관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정구대회는 개인경기여서 각 선수의 참전의지가 대단하였으며 김포에서 처음으로 대성황을 이루어 오후 3시에 사회자를 끝으로 대회를 종료하였는데 회장 부인식 군수가 상품수여식을 마치고 이번 대회를 위하여 기부한 사람을 발표하였으며 당선된 1,2,3등의 선수는 다음과 같다.

<기부자 방명> 문선택 상점-수건 3타, 김포자동차부-금2원, 공인식대서소-금2원, 도변 상점-사이다1타, 빈택상점-사이다 반타, 연초영업소-맥주 한상자, 최석기 상점-맥주 한상자, 조선일보 김포지국-금10원, 매일신보 김포분국-금5원, 금릉구락부-금5원

<수상자 명단> 1등 라켓 2정, 박일량, 차태순(김포), 2등 운동복 2벌, 이범호, 문두연

(김포), 3등 도변매삼랑, 최의순(김포), 전춘산, 오춘빈(통진) 각 수권 반타(4등(양곡), 5등(양천)은 상품이 없음.

1925-05-22 무상한 인생을 비관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 향리는 풍유한 재산가

본인은 서문서에 보호 중

이상한 동기로 인해 일생의 방향이 변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하리 255번지 호주 이씨의 외아들 박인용(21)은 지난 4월 30일에 우연히 집을 나가 지금까지 종적이 묘연해서 그의 모친 이씨는 사방에 의뢰하여 아들의 행방을 열심히 수색하였으나 지금까지 찾지 못하였는데 수일 전에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 한명이 아무리 봐도 그 행색이 거지같지 않아 조사하여 본 결과 박인용임이 판명되었다는데 박인용의 집은 상당한 재산이 있어서 오히려 부유한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하루는 우연히 자기 집 문 앞에 서있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별안간 인생 무상함과 세상만사의 헛됨을 느끼고 그대로 집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와서 돈이 없어서 스스로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서는 자기 본가로 통지하여 데려가도록 하고 본인은 서에서 보호 중이다.

1925-05-26 거동수상자 引致(인치)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5-05-31 장시 격투후 체포 [시대일보]|02면|07단|

1925-06-04 김포에 강도 2명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5-06-08 지방집회: 영암면장 위로연 [매일신보]|기타|03면|08단|

1925-06-10 광견예방주사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5-06-10 김포묘대품평회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25-06-13 양계개량과 부인활동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6-14 김포시의 기념 [매일신보]|기사|05면|06단|

1925-06-14 김포에 춘잠견 공동판매 [매일신보]|기사|05면|08단|

1925-06-22 부인 저축회에 계란 절도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5-07-09 6일래의 호우로 각처 하천증수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5-07-15 부평수리제방 4개소 결계 목하 수리중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25-07-18 부평수리안전 4개소 결과는 전연무근 낭설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25-07-19 정행묵씨와 창영부장의 기부 수해재민구제로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5-07-22 사자불지기수 행위불명자도 수천명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25-07-22 수리조합 피해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수리조합 피해

경기관내 수리조합 피해는 상당히 커 김포군내의 양동, 양천, 부평 등 여러 조합은 그 지역이 대부분 침수로 김포농장은 전번 물이 빠질 적에 제방이 파괴된 고로 피해가 컸고, 임진강 연안의 수리조합은 작년 피해에 비하여 경미한 듯하다.

임진수리조합은 제방 일부가 무너져 나가 지역이 침수된 듯하나 이와 같은 여러 조합의 실상은 20일 관계자를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으니 오늘 내일 중에 피해 정도가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1925-07-23 경인간 3군 답사기, 니해 150여리 돌파 [시대일보]|03면|01단|

1925-07-24 적신도생자 600, 170호는 터도 없이 되고 [시대일보]|02면|07단|

1925-07-24 본보 인천지국 구호반 활동 [시대일보]|03면|02단|

1925-07-24 사망자 194명 전괴 가옥이 537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7-24 점차 판명된 부평야의 수재참황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07-24 인천 각 단체, 수해 구호상황 [시대일보]|03면|04단|

1925-07-25 수재삼화(2) 1만 사생의 비극 [시대일보]|02면|05단|

1925-07-25 대홍수와 각지 구제 소식 [시대일보]|03면|01단|

▶사망자 194명

전괴가옥 537호

경기일대의 피해상보(23일 경찰부 발표 제3보)

김포

유실 318호, 도괴 239호, 침수 1,234호, 이재민 3,450명, 수용인원 1,700명, 기타상세 조사 중

1925-07-25 전지침수가 6천정보 도괴가 200호 유실이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전담침수가 6,000 정보

도괴 200호, 유실 400호, 가축의 사상 헤아릴 수 없다.

김포 5개리 거의 전멸

이번 홍수로 인하여 김포군에도 한강연안은 물바다가된 동시에 양천수리조합, 양동수리조합, 부평수리조합 제방과 장강척식회사 제방이 무너져 5,000 정보의 전답이 침수되고 가옥 침수가 2,000호, 유실 가옥이 400호, 도괴 가옥이 200호 가량인데 인축의 사상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며 군내의 양동면 가양리, 양화리, 고촌면 신곡리, 군내면 흥도평, 양촌면 누산리 등 부락은 23호의 가옥만 남겨두고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1925-07-25 농작물 유실로 悲觀繪死(비관액사) 죽은뒤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5-07-27 수난의 참적을 답사 [시대일보]|03면|01단|

1925-07-29 간신히 도보 통행 전신전화 개통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간신히 도보통행

전신전화 개통

지난 18일부터 대홍수로 인하여 김포는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었는데 지난 23일부터 통신전화를 임시로 가설공사에 착수하여 개통이 되었고, 사람과 가축이 간신히 도보로 통행 중인데 종전에 정기 자동차 영등포 김포간 통행은 당분간 3등 도로를 보수하기까지는 통행이 어렵다고 한다.

1925-07-29 김포수해 참상과 7월 22일까지 조사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수해참상과

7월 22일까지 조사

김포군의 수해는 귀 보도한 것 같이 이달 22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 또한 유지들로부터 동정한 것이 다음과 같은데 고촌면에서는 면장 홍익표씨가 구제반을 조직하고 필사적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유실가옥 324동, 전괴가옥 290동, 반괴가옥 151동, 침수가옥 957동, 이재민 13,307인, 이 수해참상에 동정하는 유지는 다음과 같다.

정행묵 금90원, 령무늬대부 금52원, 하전시 외3인(양곡리) 금32원, 금릉상회(읍내) 금25원, 정상시 외 8인 쌀 7두5승, 이운하 외 8인(양곡) 보리 한석, 김기원(신곡리) 밥 150인분.

1925-07-30 황량한 폐야에 낭자한 통곡성 명재단석인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25-07-30 피난중에도 절도사건 빈발 하로 몇차례식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5-08-09 통진에 適雨(적우) [시대일보]|03면|10단|

1925-08-23 수해동정금 재대판 동포로서 [매일신보]|기사|05면|08단|

1925-08-28 各地 篤志家(각지 독지가)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25-09-14 어하사금 전달식 김포의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5-09-14 김포 일군의 수해액 250만원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일군의 수해액 2백5십만 원 예상

지난번 미증유의 대홍수로 인하여 김포군 한강연안 일대는 보도한 바와 같이 가옥의 유실과 기타 전답은 알아볼 수 없는 바다가 되었고 군 당국은 피해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25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김포군 이 군의 최의선 직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군의 수해 액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 예상액이 약250만원이라고 하나 단언할 수 없으며 농작물 외에도 3개 수리조합 복구공사비와 내년 가을까지 농민의 생활비를 포함하면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은 들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지금 3등도로 복구공사비도 아주 많이 들어갈 것인데 곧 이 공사비는 경기도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1925-09-23 국세조사의 감독관 임명 21일에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25-10-26 김포 각교 정구 11월 3일에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25-10-26 김포소채품평 11월십 5일경 개최예정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25-10-30 김포정구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김포정구대회

김포정구대회는 11월 3일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김포금릉코트에서 개최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포)

일시 : 11월 13일, 장소 : 김포금릉코트, 신청일 : 11월 2일까지, 추첨기일 : 11월 3일 오전 9시, 참가금 : 2인 1조 1원, 신청서 : 조선일보 김포지국

1925-10-30 용산-김포간 발동기선 개통실시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용산 김포 간 발동기선 개통실시

한강지류를 이용하여 용산~김포 간에는 11월 2일부터 경성 원정 4정목 94번지 시송상회 통선부에서 발동기선이 정기적으로 매일 왕복 2번씩 개통하게 되었다는데 용산과 김포 간 교통은 일층 편리하게 되었으며 당분간은 승선료도 김포에서 용산까지 80전으로 정하였다는데 일반 서민들은 환영한다고 한다.

1925-11-03 김포 수해복구지 답사기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김포 수해복구지 답사기

서상렬

<중략>기자는 다시 고촌면으로 향하여 재해지를 답사하고 군내면 홍도평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수해 전에는 100여호가 사는 부락으로 장강척식회사 농장이 있는 구역으로 매년 풍작을 보게 되어 생활이 매우 풍족하였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큰 바다가 되어 가옥부지도 찾기 어렵고 500명 이재민은 읍내로 들어가 군 당국의 구원을 받고 있다.

그 후에 홍도평으로 가서 전과같이 가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당국은 만일을 염려하여 읍내에다 정하고 건축 자료로는 김포 장릉에 있는 소나무를 이왕직에 불하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는 즉시 벌목을 하여 일반 이재민에게 배부하는데 이것도 식량이 없어 건축치 못하고 장차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국도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이것을 듣고 보건데 어찌 한줄기 눈물이 없을 수 있으랴. 설상가상으로 앞에 닥쳐오는 엄동설한을 어찌 살아야 하는가? 여러 이재민 동포를 위하여 비탄을 금치 못하고 자동차를 돌렸다.

1925-11-18 토지를 양처에 매도 여자인 것을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여자인 것을 업신여기고 두 명이 공모한 후 사기했다.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릉리 267번지에 사는 신정옥(62)은 같은 마을에 사는 김길성과 고양군 벽제면 대자리 205번지에 사는 강상복 두 명을 지난 17일 오전 10시경에 시내 서대문 경찰서 사법계에 고소를 제출하였다.

고소의 내용을 알아본 즉, 신정옥은 일찍이 자기의 남편을 잃고 난 후 그간 푼푼히 저축한 돈 300원으로 지난 1924년 봄에 김길성의 소개로 강상복의 소유인 고양군 신도면 오금리에 있는 밭 56평과 논 397평을 샀다.

그 두 명은 신정옥은 일가친척도 없고 홀몸인 것을 업신여겨 토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차일피일 하여서, 신정옥은 그간 수차례 명의 변경을 독촉하여 오던 중 지난 6월경에 김길성에게 돈 10원을 준 후 이 돈으로 명의변경 수수비용을 하여서라도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하였다.

두 명은 또한 수수비용으로 받은 10원까지 쓴 후 지난 9월 26일에 고양군 은평면 홍제내리 99번지 김준명에게 400원에 판 것이 신정옥에게 발각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고소를 제출한 것이다.

1925-12-02 김포 3조의 현상표어 모집 1등 입상자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12-02 김포의 농산품평 포상식 거행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25-12-08 도강타가 負傷(부상)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25-12-21 東西南北(동서남북) [매일신보]|가십|03면|09단|

1925-12-21 김포 이재민의 철저한 구조방침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 이재민의 철저한 구조방침

군 당국에서 성안 진행 중

여러 번 보도한 바와 같이 김포군에 3개면 이재민은 농작물 전부를 흉탕물에 버리고 내년도 수확기까지 3천 주민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 중이라 함은 본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그간 군 당국에서는 구조방침에 노력하던 바 이번 각 방면에서 모금된 구휼금으로 일반 이재민을 어떠한 방침으로 구제해야 할까 강구중으로 부업을 통하여 구조할 방침을 세워져 이를 진행 중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으로서 양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개량종 레구홍이나 고지를 매호당 5마리씩 무료 배부하여 생산되는 계란은 군 공동판매부에서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2. 이재민들 중에 1단보 이상의 경지가 있는 자에게 마령소 종자를 무료 배부한다.
3. 가족이 2인 이상인 이재민에게는 가마나나 돛자리 짜는 소양이 있는 자에게는 가마나나 돛자리 짜는 기계를 반값만 받는다.
4. 이재민으로 단독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식량을 지급한다. 더하여 군내 2개소에 판매소를 특설하고 일반 이재민에게 한하여 식량품을 판매케 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안이 되지 못하여 지금 군 당국이 노력 중이라고 한다.

1925-12-22 동성학원 유망 [시대일보]|03면|04단|

1925-12-23 토사붕락 2명 중상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6-01-14 조선인구통계 (1) 경기도 [시대일보]|03면|02단|

1926-01-14 노량진 살인강도 김포서 체포압송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김포서 체포 압송

노량진 살인강도 마침내 체포

작년 11월 중순경에 영등포 경찰서 관내인 노량진 부근에서 소를 판돈을 가지고 가는 시골 사람 두 명을 단도로 죽인 후 금품을 강탈, 도주한 범인을 체포하고자 소관인 영등포서에서는 각 경찰서에 범인 체포 수배의 통지를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계속 활동을 하였으나 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으로 빠져서, 영등포서에서는 더욱 활동을 하던 중 지난 12일에 경기도 김포 경찰서에서 범인을 체포하여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하였다.

1926-01-17 매일 10시간 노동에 최고임금 50전 [시대일보]|05면|01단|

1926-02-13 김포척사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6-02-25 김포척사대회 성황으로 종료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김포척사대회

성황으로 종료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전김포척사대회는 예정과 같이 이달 21일(음 정월9일)에 관민유지 여러 사람들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흥백전으로 나누어 개최된 바 당일은 경성 일류 기생 한성권변 정옥진, 박옥진의 <지화자> 소리에 일반선수는 더욱 흥분이 되어 장래에는 더욱 이채를 띠었고, 결국 입상자를 결정하는 결승전은 다음날 오후 2시에야 성황으로 끝났다. 특히 본군 군수 부인식씨로부터 1,2등 당선자에게는 금일봉의 시상이 있었다.

1926-03-15 사산봉락으로 인부참사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26-03-18 김포에 학교비평의회 12일에 개최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에 학교비평의회

12일에 개최

김포에서는 이달 12일 오전 11시 김포군회의실에서 대정 15년도 예산을 편성코자 학교비평의회를 통하여 여러 안건을 원만히 타결하고 오후 4시에 무사히 폐회하였다.

1926-03-25 춘복의차매행불진 지방구매력불기로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26-05-01 란간계류 시체의 死因(사인)이 극히 수상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사건은 의외 진전 할 듯

지금 인천서에서 엄중 조사 중

어제 보도 = 인천 월미도 돌제도로 난간에 새끼로 묶어서 하루 종일 버려두었던 문체의 시체 — 인천부 신화수리 조복석(32)의 죽은 원인은 인천경찰서에서는 술에 취하여 바다에 실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결정하고 유족에게 인도하였다.

지난 30일 아침에 죽은 사람의 친척인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조평산(29)이 인천 경찰서에 출두하여 죽은 조복석은 당일 오후에 친구 9명과 같이 월미도에 놀러 갔다가 그 중 7명은 먼저 돌아오고 시내 향정 중촌운송정에 있는 김일쇠(36)와 죽은 조복석만 따로 있었다.

가지고 갔던 술도 석 되에 불과한 것을 열두 명이 나눠먹었으니 그렇게 취할 수는 없었을 뿐 아니라, 전후 사정이 이상한 것은 따로 있던 김일쇠는 집에 돌아온 후로 아무 말도 없었고 시체를 발견한 부근은 난간이 있음으로 실족하였더라도 바다에 떨어질 리가 없으니 사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므로 인천서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사건은 의외 진전될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1926-05-02 김포군 농회 설립인가<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39호>

▶김포군 농회 설립을 3월 22일자로 인가한다. 명칭-김포군농회, 지구-김포군 일원, 사무소-김포군청 내, 인가연월일-1926년 3월 22일

1926-05-02 조복석 시체, 내막조사 애원 [시대일보]|05면|02단|

1926-05-06 공금 이천 원을, 횡령한 금조서기,[시대일보]|02면|11단|

1926-05-22 구제금 인수 [시대일보]|03면|03단|

1926-06-05 김포군 통진공보 교장훈도 분쟁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김포군 통진공보, 교장 훈도간 분쟁

결국 양인을 초치하여 군수가 시말서 수취

(김포)김포군 통진공립보통학교는 요즈음 그 학교 교장과 교사 박헌병씨와의 분규사건이 있어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는 비평이 비등하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지난 25일 오후 8시경에 박헌병 교사가 자기 숙소인 군하리 박춘실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학교 소사가 와서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고 함으로 박 교사는 밥을 먹은 후 즉시 학교로 가던 중 교장이 마주 오다가 박 교사를 보고 교장이 부르는데 더디 온다고 질책함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교장은 학교운동장 부근에서 청년 몇몇이 노는 것을 보고 불온사상을 가진 청년이 많이 있으니 곧 가서 잡아오라고 함으로 아무 일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바 교장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는 구실로 박 교사에 뺨을 수십 차례 때리므로 박 교사는 그대로 맞기만 하고 말로만 순순히 그렇지 않다고 이유를 말하였다.

그런데 결국 군하리 주재소까지 박 교사를 끌고가서 교장에게 반항하였다고 하면서 또 뺨을 때리는 등 갖은 폭행을 가하여 일대 활극을 연출하였다.

그 주재소 안본순사 중재로 겨우 해산되었고 그 다음날 박 교사가 학교로 출근한 후 박 교사는 교장을 향하여 전날의 피차간의 오해로 잘못된 일은 용서하라 한즉 교장은 돌연히 안색을 바꿔 교장에게 반항하였다고 당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는 등 자못 난폭한 작태를 보였다.

한때는 학생의 수업까지도 중재하는 등 여러 가지 상서롭지 못한 급보를 접한 일반 학부모 측에서는 방금 그 대책을 강구중이며 일반 사회여론이 들끓어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되리라 한다.

1926-07-09 김포 학생 순강, 금년 하기에 [시대일보]|02면|04단|

1926-07-25 김포학생 순회강연 본사지국후원 [매일신보]|기사|05면|09단|

▶◇ 본사지국 후원

경성에 유학하는 김포학생으로 조직한 김포학생친목회에서는 본사 김포분국의 후원으로 이번 여름을 이용하여 순회강연과 연극대회를 연다는데, 그 일정과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여러 가지 관계로 일정은 1~2일 틀릴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7월25일 양천 △26일 김포 △27일 오라리 △28일 분서강습소 △29일 통진읍 △30일 마곡리

1926-07-30 김포수해, 도로 심리에, 침수로 교통곤란 [시대일보]|02면|01단|

1926-08-21 수해파괴의 도로복구 영등포김포간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6-10-12 부평 수리조합 사업지별 견개황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26-10-26 김포서 사격회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김포서 사격회

[김포] 경기 김포경찰서에서는 이달 22일 이곳 사격장에서 서원 일동이 우승점점 사격회를 시행한 바 이 경찰서에서는 최초의 기록으로 전전직립씨가 46점의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

1926-10-31 수원에 체포된 괴한 경찰부로 호송취조 [매일신보]|기사|05면|07단|

1926-12-16 젖은 붓고 생각은 간절하야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7-01-23 김포군에 소작인 조합창립 근근총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1927-01-24 地方短評(지방단평)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27-02-22 경기도의 약수분석 김포가 제일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가 제일

이전 보도 = 경기도 위생과

(위생과)에서 관내 각 군에 흩어져 있는 약수에 대하여 지난 13일부터 세밀한 분석을 하여 사람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해로움이 있는 것을 확실히 하여, 일반의 위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김포군에 있는 네 곳의 약수에 대하여 어제 이미 분석이 끝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위생과 주임의 자세한 말을 들으니, 김포군에는 대곶면 쇠암리와 양촌면 대포리와 고촌면, 군내면에 약수가 있으나 분석한 결과로 보면 수돗물보다 물맛이 좋은 물에 지나지 않고 사람에게 확실한 이로움이 있는 성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상 네 약수 중에 이상스러운 약수터는 대곶면 쇠암리에 있는 약수터이다.

이 약수터는 김포군으로부터 강화도로 건너가는 나루터에서 해변으로 약 2정 가량 들어가서 바다 가운데 있는 물터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만조가 될 때에는 4자 이상 7~8척의 바닷물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

이 약수를 먹으려면 바닷물이 나간 후에 갯벌 흙을 깊이 2자쯤 파고 약 30분쯤 있으면 맑은 약수가 솟아 나오는 고로 일반 물을 먹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끌게 될 뿐만 아니라 약수터에 앉아서 보면 강화도의 경치 좋은 절벽이 손에 잡힐 듯이 보여 경치가 좋으므로, 삼월 삼진날부터 물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매일 400명 이상 1000여 명씩 모여든다.

이 약수터는 수백 년 전에 발견된 이유로 가장 이름이 높으며 사실에 있어서는 피부병과 위장병이 낫는 까닭에 김포군에서는 첫 손을 꼽는 약수라고 하며, 어제부터는 장단군의 약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장 조사 중이라고 한다.

1927-03-20 열반기념 강습회 [매일신보]|기사|06면|06단|

1927-03-25 김포에 도망군이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27-04-09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타|03면|07단|

1927-04-16 김포견학단 금일 입경 본사분국 후원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27-04-18 김포견학단 일행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27-05-16 재판소 속이고 사기하려든 자 [중외일보]|02면|04단|

1927-05-16 경기도내의 모범 우물수 아래와 같다 [중외일보]|02면|09단|

1927-05-16 과부가 생남하여 아이 내어버리고 잡혀 갔다 [중외일보]|03면|03단|

1927-05-20 큰 늑대와 강상에서 격투 [중외일보]|02면|10단|

1927-06-02 단오가절에 전선공술회 김포에서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27-06-12 김포공보 유훈도 불경죄로 수기소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불경죄로 수기소

천황폐하의 존영을 찢었다.

(인천)김포공립보통학교 훈도 본적지 경성부 유명준(22)는 수일 전에 친구 되는 동지군 청원모와 작반하여 같은 곳 중국 요리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요리점의 벽에 걸어 놓은 금상천황의 어진영을 찢어낸 것이 탄로 나서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삼포검사

의 지휘로 8일 김포경찰서에 검거 되어 10일 오후에 인천경찰서에 송치되었는데 본인은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중이라 하고, 사건은 즉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어갈 모양이다.

1927-06-13 10년근속 양씨 기념축하회 성대히 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27-06-17 소금으로 금전사취 인천서 문제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27-06-22 6인조 권총단 경관대와 교화 쌍방에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27-06-23 모성의 룬락과 실자쟁송 빈번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어머니가 개가한 까닭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161번지 김담순(23)은 같은 곳에 사는 김순여와 개성군 영북면 길상리 138번지 장석윤에 대한 호적 말소 청구, 서자 확인 소송을 지난 21일 경성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 일정 신청은 피고 김순여는 원고 김담순이 피고의 친 아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피고 장석윤은 원고가 피고의 서자라는 것을 확인하여 입적을 시켜 달라는 것이다.

[본래 김담순은 그 생모 정도자가 김경도라는 사람의 처로 있다가 1887년 김경도가 죽은 뒤 1902년 2월에 장석윤에게 재가하여 1903년 9월에 김담순을 배어 그 후 장석윤과 헤어져 김순여의 집으로 들어와 원고를 해산하였다.

그 후 정도자는 장석윤의 간 곳을 알지 못하여 원고를 김경도의 아들 김순여의 아우로 호적에 입적을 시켰다가 최근 정도자로부터 원고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려줌으로 원고는 정말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소장을 낸 이유이다.

1927-06-24 불법고문 난타 살상 대명리민의 대폭행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한 명은 죽고 네 명은 중상당해

사망 1인, 중상 4인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삼포검사는 22일 새벽에 서기 한 명과 인천 부립병원 사토 의사를 데리고 배편으로 김포군에 출동하였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김포군 서해안 대명리란 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내용을 들으면 지난 20일 오후에 얼마 전부터 인천에서 인부 10여 명을 거느리고 대명리에 가서 제방공사에 종업 중이던 인천부 사정 16번지 토목청부업 주행도가 그곳 구장모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싸움이 벌어져서 주행도가 구장의 친척 되는 대명리에 사는 김진성(37)에게 무수히 구타당한 것을 주행도의 아들 용규(30)가 듣고 분하게 여겨 부하인부 4명을 데리고 복수를 할 작정으로 근처 [시루]란 서움에 간 김진성을 찾아가서 한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기회를 보아 복수를 하려고 같은 배편으로 대명리에 돌아오는 도중에 어찌된 셈인지 별안간 김진성이 물에 떨어져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되어서

이 일을 김진성의 친가에 소식을 전하였는데, 김진성의 집에서는 틀림없이 복수할 목적으로 김진성을 묶어서 물에 던져 죽인 것이라 오해하고 용규의 일행 다섯 명과 뱃사공까지 새끼로 결박한 후 먼저 뱃사공을 고문하였는데 때리는 것에 겁이 난 뱃사공은 사실을 어기어 '여러 명이 억지로 결박하여 물에 던진 것이다' 고 대답 한 것이 오해에 오해가 더하게 되어 김진성의 친척을 비롯하여 동리 사람 십 수 명은 일행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제각기 몽둥이로 당일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함무 <중략>

1927-06-27 대명리 살상범 인천에 이송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27-06-29 해상의 비밀 자살이나 피살이나 행선중에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자살이나 피살이나 행선 중에 수중 원혼

바다 속에서 외롭게 빠져 죽은 김진성의 죽음에 쌓인 큰 의문  
삼포검사의 고심

(인천) 인천부사정 19번지 주용규(30)가 자기 친부 행도를 구타한 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부하 4명을 거닐고 자기 친부를 구타한 김진성(34)을 찾아가서 나룻배에 같이 탄 일이 있었고 동행하던 김진성이 중도에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주용규 일행이 보복의 목적으로 묶어서 물에 던진 것이라 하여 김진성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의 친척들이 주용규 일행을 기둥에 결박하여 놓고 밤새 난타한 결과 주용규의 부하되는 인천사정 김근수(42)는 매에 못 이겨 사망하고, 나머지 4명은 중상을 당하였다는 김포군 대곶면 대명리에 일어났던 살인사건과 주용규 일행을 구타하여 한명을 죽였다는 대명리 사람 김좌향, 김덕향, 김진수, 김진각, 김기원 등 다섯 명이 검사의 영장으로 검거되어 인천검사국에 송치된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계속 하는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삼포검사는 이어서 문제의 나룻배의 책임자 고순복(40)과 주용규의 부하로 이번 사건에 관계한 인천사정 김인준을 김포경찰서에 구인하여 두고 인천에 돌아오는 즉시 27일에는 인천 부립병원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주용규와 그의 부하로 주용규와 활동을 같이 하는 인천사정 19 하익선, 주덕정, 양원식 도합 4명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급하고 이어서 증인으로 대명리 사람 두 명에게 호출을 놓아 김진성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타살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준비를 마친 모양이다.

이 사건 중에 김진성의 친척들이 주용규의 무리에 대하여 행한 보복적 살인사건은 상해 치사 사실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 바이나 주용규의 무리가 김진성을 나룻배에서 물에 집어넣었는지 아닌지를 밝혀야할 문제이며, 삼포검사의 머리를 썩혀오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탐문한 결과는 이러하다. 김진성이 물에 빠져 죽은 때는 20일 오후 3시경으로 문제의 나룻배는 그보다 수분 전에 대명리 건너편 [소림]이란 서음에서 떠났으며 승객으로 주용규의 일행 다섯 명과 빠져 죽은 김진성 외에는 아무도 없고, 선두 고순복이 단독으로 배를 저어 건너다가 해상에서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 사건의 비밀의 열쇠는 물

적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선두 고순복 한명이 잡고 있는 것이다.

**1927-07-05 의문의 해상비극 결국 타살로 증언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증인은 바로잡음을 꺼려 일시 위증을 하였었다고

(인천)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검사국에서 계속 취조중인 김포군 대곶면 대명리 해상에 발생한 오살인지 피살인지 판명되지 못한 대명리에 사는 김진성의 의문의 죽음 사건은 한명 밖에 없는 증인 나룻배 사공 고순복(40)이 김진성의 친척에게 언명한 최초의 증언을 번복하여 검사에게는 김진성이 좋지 않게 빠져 죽은 것이라고 증언할 뿐 아니라 뜻밖의 재앙으로 죽은 김진성과 고순복은 이웃관계가 있는 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낯 모르는 판 고을 사람이 가해자로 의심받는 주용규 무리에게 이롭게 할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진술한 증언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나.

고순복의 증언 중에 나룻배가 항해하는 중에는 말다툼을 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소림서음]에서도 싸운 일이 없다 하는 점은 일부러 복수를 하러 쫓아 간 불량배들의 일로는 미덥지 못한 점이라고 하여 삼포검사를 괴롭게 하는 중이라고 한 내용은 이미 보도된 바이다.

그 후 삼포검사는 주용규 무리가 중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 없으므로 검사는 그들이 구인되어 있는 인천경찰서에 출장하여 심문을 하여 보았으나, '우리들이 물에 넣은 일은 절대로 없다' 고 하여 내려옴으로 동 검사는 김포경찰서에 갇혀 있던 선두 고순복을 지난달 31일에 인천에 데려와 심문을 하였는데 김진성은 좋지 않게 빠져 죽었다는 여전한 답변이 있어서 검사는 괴로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바, 2일에는 또다시 전에 한 증언을 번복하여 '김진성은 대명리에서 죽은 김근수와 주덕형 두 명이 격투 끝에 발로 걷어차서 물에 떨어트려 죽인 것이며, 전날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은 본인은 주용규의 공사에 용선되는 중이므로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돈벌이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함이며, 둘째는 주용규 무리의 포악성을 알고 있었고, 후일을 두려워함이라' 고 자백하였으므로 조만간 경성지방법원 합의부에 옮긴다는데 이번의 진술은 확실한 모양이다.

**1927-07-12 축산동업조합 연합회 설치인가<조선총독부고시 제217호>**

▶1927년 7월 8일 조선중요물산동업 조합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동업조합연합회의 설치를 인가한다. 명칭-경기도축산동업조합연합회 연합회를 조직하는 동업조합 이름-<중략> 김포군축산동업조합<중략>

**1927-07-24 김포청년회 혁신임총, 대발전의 서광 [중외일보]|04면|06단|**

**1927-08-05 도박단 검거 [중외일보]|04면|10단|**

**1927-08-05 인천 대 김포 정구 [중외일보] 04면 10단**

**1927-08-06 어림없는 짓 하다, 독사에게 물려 [중외일보]|02면|09단|**

1927-08-10 쩌어 나리다 소년중상 차표 일코서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27-08-13 상해 공산당의 소굴을 포위 습격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1927-08-16 남선각지에 업권총창궤 구제방법도 불명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27-08-26 부평수조 문제로 관계지 주회 [중외일보]|02면|01단|

1927-08-29 김포 점등 개시 7일부터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27-08-30 퇴비 제조 강습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퇴비제조 강습

(김포)김포군 농회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군내 각 산미증식조합원을 중심으로 퇴비제조와 기타 농사에 대한 강습회를 열고 강사로는 농회장과 이, 남씨 양기수였고 일반에게는 농사개량상의 적지 않은 실익이 있었다고 한다.

1927-09-02 문제만흔 부평수조공사 자초지종의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27-09-04 우편소원 공금횡령 목하 엄탐중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우편소원 공금횡령 목하 엄탐중

(김포)경기도 김포우편소에서는 이 우편소 사무원 정모가 공금2천원을 소비횡령하고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에 모범면으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김포경찰서에서는 서장 이하 도 변형사가 출동하여 본국에서 온 감찰원과 같이 동 우편소에서 사무검열을 행하는 동시에 조선내 각 경찰서에 수배원을 보내고 방금 활동하는 중이라 한다.

1927-10-05 김포 각 학교 추기 대운동회 체육데에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 각 학교 추기대운동회 체육-day에

[김포]체육대회를 기념하고자 추기대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큰 성황을 이루었고 각 기관 공직자들의 정구시합이 있었다.

1927-10-08 경기도내 납세 우량면 표창 [매일신보]|기사|01면|09단|

1927-10-13 김포 우적 출현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27-10-20 변호사 사무원등 부호자유인감금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재산양도증서에 날인을 강요!

변호사 사무원들의 공모로 부호자를 피어

문밖 절간에 감금한 후 재산을 횡령하고자 해 종로서 사법계에서는 수일 전 부내 돈의 동 유모(27)를 검거하고 지금 엄밀히 취조하는 중이다.

그 내용은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부호 고 김근배 씨의 일가에 관한 재산 횡령의 음모 사건으로 아직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치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김근배 씨는 약 5년 전에 매우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후 그의 독자 김종성이 만아들의 신분으로 상속하였으나 다소 정신에 이상한 점이 있어 현재 재산은 고 김근배 씨의 아우 김익배씨가 후견인이 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유모 외 모 변호사의 사무원 모모 등이 그 집 내정을 알고 횡령하기를 공모한 후 김종성을 유인하여 내어 술과 요리로 우선 환심을 산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위임장에 날인하게 하려다가 종성이가 그 옳지 못한 계획을 짐작하고 거절하자 그자들은 다시 종성을 자동차에 싣고 동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 모 절간에 감금하고 의연히 재산 처분 위임장에 강제 날인하게 하려는 것을 김종성이 틈을 보아 그 절간에서도 도망해 나와 종로서에 밀고하여 곧 검거를 개시한 것이다.

1927-10-27 미국대학교수 농촌단체시찰 김포에서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27-10-27 김포 강화간 자동차 개통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김포 강화간 자동차 개통

[김포]김포 자동차부에서는 정기 승합 선로 영업구역을 김포에서 강화까지 연장코자 수개월 전에 허가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번에 허가가 되어 오는 22일부터 하루 두 차례 정기로 운행한다고 한다.

1927-11-01 스포-쓰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7-11-12 역둔토 대부료를 결정하는 벼 1섬당 환산가격

▶1927년의 역둔토 대부료를 결정하는데 소용되는 벼1섬당 환산 가격을 정한다. )벼 1섬당 가격-적용지역) <중략> 11원40-수원-김포<중략>

1927-11-19 인천 주류품평 20일 포상 수여 [중외일보]|04면|06단|

1927-11-22 김강석 도적 김포서 잡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김성배(42)는 이달 10일 교북동 5번지에 털가죽 중개업 김희종의 가죽이 두꺼운 개를 팔아준다고 하고 650원을 받아 그중 425원을 편취한 것 외에 또 같은 달 12일 봉익동 60번지 귀금속상 유용식에게서 250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와 관철동 221번지 서병관에게서 250원짜리 진주 한 개, 550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한 개와 또 같은 달 14일 서병관에게 다이아몬드, 넥타이, 진주 두 개 시가 35원을 전과 같은 수단으로 거짓으로 속여 빼앗아 가지고 그날 밤 자기 처를 데리고 멀리 달아날 예정으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로 도망한 것을 김포서에서 발견하고 지난 16일에 체포하였다.

1927-11-23 5군 연합 조선주 품평회 성황으로 폐막 [중외일보]|04면|09단|

1927-12-04 악지주 징치를 종로경찰에 탄원 [중외일보]|02면|01단|

1927-12-14 곡물 반입검사 수수료권 매팔 허가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8호>

▶1927년 12월 2일부로 김포군 박대원 외 4명에게 경기도 곡물 및 가마니검사 수수료권 매팔을 허가한다.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19번지-박대원, 김포군 내면 북변리-박제옥, 김포군 대곶면 대능리 467번지-김연철,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 315번지-경만수, 김포군 하성면 신리 116번지-김광호

1927-12-24 살인죄 지은 8명의 피고 원수의 원수값다가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원수의 원수 값다가 철창에

사암도 사건의 후문

원수의 원수를 서로 갚고 양쪽이 모두 범망에 걸려 살인불법체포, 상해치사의 죄명으로 공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다.

<중략> 김포군 하익선(39) <중략> 김포군 대곶면 대벽리 김좌경(67)(여), 김덕경(31), 김진옥(31) 등 8명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죄명으로 얼마 전 인천지청에서 예심 결정을 받고 경성지방법원 공판으로 넘어와 □년 1월 중에 제1회 공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죄상은 피고 주용규는 토목청 부업을 하는 자로 올해 6월 8일 자기의 부하 피고 김인준으로 하여금 김포군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자기 부친 주공도에게 심부름을 갔다오라하여 김인준은 자전거를 타고 동면 대벽리를 지나다가 구장 침상희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했는데 이 사실을 동리 김진성이란 사람이 듣고 김인준을 잡아달라고 하여 주공도가 이 말을 듣고 김진성에게 그 불법한 행동을 꾸짖다가 역시 그자에게 매를 몹시 맞고 병석에 누워 있게 되었다.

그 후 주용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개하여 그달 20일 자기 부하인 주덕형, 양원식, 하익선, 김인준 4명을 거느리고 그 원수를 갚고자 김진성이 피신하여 강화군 사암도에 있는 것을 쫓아가서 김진성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애걸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컷 때려준 후 다시 김진성에게 주용규의 부친에게 가서 사죄를 하라거 하여 그를 끌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주용규는 또 분이 일으키어 김진성을 또 난타하고 결국 바다 속에 집어넣어 참혹하게 죽였다.

앞에서 말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후인 그 달 22일에 피해자 김진성의 모친 김좌경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크게 분개하여 피고 김덕경, 김진옥 외 동리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주용규의 집으로 찾아가서 주용규 외 그 부하들을 모두 결박하여 놓고 수없이 난타하여 모두 치료 5주 이상의 중상을 당하게 하였다.

1927-12-27 보교졸업생에게 농업실제 지도 [중외일보]|04면|01단|

1928-01-07 정의부원2명 신의주에 이송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8-01-24 김포 구력연말 경계 서장이하총출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구력 연말경계

서장이하 총출(김포)

김포경찰서에서는 이개당서장 이하 서원들이 총출동하여 연말 경계에 노력중이다.

1928-02-24 김포에 강도 소득은 업서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8-02-25 경향각지를 횡행하는 강도일단 4명 피착 [중외일보]|02면|05단|

1928-02-25 인심을 불안케 하든 4인조 강도를 체포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28-02-25 범죄사실을 시인한 피고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8-03-16 미인은 박명! 기생되는 안해 차저주오 미인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8-03-31 순사 살해강도, 5월 1일에 공판 [중외일보]|02면|08단|

1928-04-21 김포에 염병 통계가 8명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28-04-25 김포염병감세 사자는 3명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28-04-26 우편소원 체포 [중외일보]|02면|06단|

1928-05-03 순사 살해범 검사 사형을 구형 [중외일보]|02면|10단|

1928-05-14 순사 살해범 무기와 12년에 [중외일보]|02면|08단|

1928-05-15 아즉도 뒤를썩는 경성의 발진염병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8-05-26 석존의 법신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8-05-26 석가세존의 강탄기념일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8-05-27 釋尊(석존)의 法身(법신)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28-07-05 대절도범 [중외일보]|02면|12단|

1928-07-09 김포의 강도 경성으로 왔다고 크게 수색중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김포의 강도 경성으로 왔다고 확대 수색중

김포군 하성면 전류리에 있는 신곡농장에 23일전에 여러 명의 강도가 나타났는데 김포경찰서에서 범인을 수색하던 중 그 범인이 한강의 배편으로 경성방면으로 도망하여 왔다는 첩보를 접한 경성부내 용산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서 그 관내에 있는 한강일대를 엄중 경계중이라고 한다.

1928-07-13 의문의 살인사건 주범은 무죄 [중외일보]|02면|11단|

1928-07-18 흥농조합총회 新隅山上(신우산상)에서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28-08-07 篤農家列傳(독농가열전) (12)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독농가 열전(12)

김포군 하성면 서기 민병훈씨

민병훈씨는 대정11년 7월 김포군 하성면 서기에 취직된 이래 지금까지 5-6년간을 시종 일관 변함없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면이래 종사하여 면 내외업무에 통달하여 그 성적이 양호하며 특히 농사개량과 같은 주민에게 장려 지도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천적으로 시행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부락으로부터 점차로 다른 부락으로까지 보급하여 그 효과가 가장 현저하다고 한다.

그는 권업사무를 맡은 이래 농사에 개량을 도모하고 실지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제반 장려사항은 자신이 출선수범한 후에 주민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농사, 누에치기, 축산 그리고 기타 부업 등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출선수범하여 열심히 그 사업을 장려한 결과 현재 하성면에 시설사항을 보면 벼우량 품종의 보급을 위시하여 제반 농사개량상 그 성적이 좋아 김포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산업품평회에는 언제든지 최우등을 차지하고 현재 권업에 모범면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는 올봄 기원절 좋은날을 맞아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1928-08-07 김포면장회의 한재 대책강구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김포 면장회의 한재 대책강구

김포군청에서는 지난 4일 오전 8시부터 군내 면장 회의를 김포군회의실에서 소집하였는데 신 군수 사회로 한재 대책 강구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협의하였다.

1.식량보충 방법, 2.수입증가에 관한 일, 3.법씨를 보충할 방법, 4.수리개선의 조사 설계, 5.소 방매 방지의 건, 6.퇴비증식의 건, 7.계란공동 판매 방법

1928-08-15 열차도하자 처벌 [중외일보]|02면|08단|

1928-08-30 팔미도 해상에서 선원 3명을 살해 [중외일보]|02면|06단|

1928-09-09 7세 소아가 전신이 사형화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28-09-20 신궁기 인천예선 래월 2일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신궁경기 인천예선 다음달 22일(인천)

이번 16일에 거행할 예정이던 인천부청 주최 신궁경기 예선 운동회는 수일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오는 22일 토요일로 연기하였는데 일반선수들은 당일 정오까지 인천공설운동장으로 모여야 하며 오후 1시부터 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일이 촉박하여 제2예선대회도 계속하여 23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데 이번 예선대회에는 김포, 부천, 강화군에서도 참여한다고 한다.

1928-10-16 地方片片(지방편편)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28-10-16 김포수조 창립위원회 조직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수조창립위원회 조직

경기도 김포군은 경기도내에서도 으뜸가는 쌀 생산지이나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일반 농가의 생활이 안정치 못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예종석 외 20명의 유지가 지난 11일 경성구락부에서 모여 김포수리조합 창립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28-10-30 전매 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의 관할 구역 개정

▶전매 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의 관할 구역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 1928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중략> 김포군<중략>

1928-11-20 인천난파 진상, 인명은 전부 구조 [중외일보]|02면|07단|

1928-11-20 한강하류에 파선 승객 7명은 모조리 죽었다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8-11-20 김포서야연활동 서장이하 활동을 개시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8-11-22 익사시삼개 처처에서 발견되었다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28-12-11 비강타가 중상 시골사람이 덩빙대다가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28-12-23 국경의 일년간 검거된 범죄수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1929-01-05 삼일본산 대표 집합 각황사에 승려대회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29-01-10 혼인잔치에 살인한 범인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9-01-18 순사죽인 강도 원심대로 무기언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순사죽인 강도, 원심대로 무기징역

김포강도의 복심공판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김원식(42세)에 대한 강도 순사 살해사건은 15일 경성복심법원 대법정에서 근본판사장과 도부검사 입회로 개정하였다.

피고 김원식은 작년 9월 9일 오후9시경에 경성부내 인의동 포목상 태수경의 집에 들어가 식칼을 빼어들고 금품을 강탈코자 하려할즈 태수경의 처되는 김 씨가 강도야 부르짖는 소리에 순찰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순사부장 김용성씨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고를 체포코자 일대 격투가 있을 때에 피고는 식칼로 순사를 살해한 것으로 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판결을 언도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복심까지 온 것인데 근본재판장은 원심대로 무기징역에 판결언도를 한 후 폐정하였다.

1929-03-03 의복도적 서서에 인치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9-03-22 인천해에 난파, 인명은 무사 [중외일보]|02면|03단|

1929-03-22 바다의 勇者(용자)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29-03-28 잠적 3시간 후 여관에서 체포 [중외일보]|02면|04단|

1929-03-28 여관 잠복중 강도를 종로서에서 잡았다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29-04-12 황윤식 판결, 징역 6개월 [중외일보] |일반기사|02면|09단|

1929-04-14 인가 신청 중의 김포수리조합 [중외일보] |일반기사|04면|03단|

1929-04-29 탁주마저 빼앗아 통음 잠적 [중외일보]|02면|02단|

1929-05-16 만성이 비등하는 석존강탄제의 성황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29-05-19 김포에서 금릉학원 기성,[중외일보]|03면|07단|

1929-05-20 김포수조 창설에 대하여 삼동지주측이 반대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김포수조 창설에 대하여

삼동 지주측이 반대

몽리구역 구역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당국에 탄원서 제출

경성분회 다옥정에 사는 예종석씨 외 19인의 발기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군내면, 대곶면, 하성면 등지를 망라하여 김포수리조합을 창립하고자 목하 지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중이며 머지않아 당국에 인가신청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동조합 몽리구역중 하성면 후평리, 양택리, 신리 등 3개 동리 지주와 소작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지주대표 김진수, 김명재 양씨 외에 여러 명이 김포군수를 방문하고 전기 3개 동리는 몽리구역에 편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말하는 동시에 50여명이 연서한 장문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금명간 다시 도지사를 방문하여 또 진정하리라고 하는데 반대이유는 앞서 말한 하성면 후평리, 양택리, 신리 등 지주는 연내로 농사를 지을 적에 관수나 배수에 곤란을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3개 동리에 걸쳐 곳곳에 보를 항시 설치하여 물을 담아 이를 충분히 관개에 사용함으로 농사짓는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는 곳이라서 김포수리조합에 창립에 착수할 때에는 전기 3개 동네는 구역 내 편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요즘에 와서 몽리구역의 범위가 좁다는 구실아래 전기 3개 동리도 편입을 시키고자 창립위원들이 각 방면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원이 충분한 지역까지도 구역 내에 편입하여 쓸데없는 공사비를 들일뿐만 아니라 농촌의 경제가 극도로 궁핍한 오늘에 있어서 도리어 유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이 수리조합을 인가하되 전기 3개 동리는 몽리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1929-06-27 일사병으로 청년사망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29-06-29 서북지방은 흠족 남부지방 상불족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29-08-28 황해상에 습대한 폭풍우로 [중외일보]|02면|01단|

1929-09-01 김연의씨 출옥 [중외일보]|02면|09단|

1929-09-13 실모상대로 친권행사금지소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29-09-17 인천에 호역침입! 환자 6명중 4명 사망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 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적용 16일 도령 호외 발표

인천 호열자 발생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16일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연후 호외로 전염병 예방 17조에 의하여 <부천군 문학면 동춘리 골짜기로부터 부천군 용유면 팔미도 남단과 부천군 영종면 운서리 신봉도 서편을 거쳐 김포군 대곶면 쇠암리 도선장까지의 연결선내에서는 어로 유영과 해수 사용을 금지함> 이라는 도령을 발표하였는데 위법자는 5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한다.

1929-10-05 김포 시흥, 등지에 축우 감모 대유행, [중외일보]|04면|06단|

1929-11-11 11명의 노부랑단 종로서에 검거 [중외일보|02면|11단|

1929-11-28 각 군면의 결정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29-12-04 동거리행소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29-12-19 대곶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97호>

▶공립보통학교 설립 건을 인가한다. 설립인가일-1929년 11월 28일, 개교예정일-1930년 6월 1일, 학교명-대곶공립보통학교, 위치-김포군 대곶면 율생리

1929-12-23 고촌면사무소 위치 변경<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100호>

▶김포군 고촌면사무소 위치를 1929년 11월 22일 동면 신곡리로 변경한다.

# 1930-1939

<범례>

○ 기사본문

▶ 원문해석

<중략>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 생략

1930-01-27 묘령녀의 출가 묵하 수사증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지난 24일 오후 9시반경에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개곡리 707번지 김진숙(60)의 장남 성근의 처 이성녀(19)는 집안 사람에게 이렇다는 말도 없이 시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혹시 불량배에게 유혹된 것이 아닌가하여 김포경찰서에서 수색중이라한다.

1930-02-14 화촉성전도 작야몽 파경탄의 삼쌍소송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화촉의 꿈도 한때의 부질없는 생각

13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는 이혼소송이 3건씩이나 제출되었다. 정절없는 아내를 가진 남편의 호소-방탕한 남편을 맞은 아내의 호소- 파경의 애달픈 호소는 완고한 법관의 머리까지 어지럽게 하였다.

고양군 용인면 공덕리 김대순은 대정12년 2월 20일에 부천군 곳면 백석리 윤재금을 아내로 살아오던 바 재작년 12월 12일에 가난한 남편이 싫다고 무다 집을 나가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이교일과 배가 맞아 사니 간통죄로 고소는 추후에 하겠으나 이전 갈라섰겠다고 소송을 일으켰다.<중략>

1930-02-28 경기도 평의회원 후보자 선거관련 공고<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5호>

▶경기도 평의회원 후보자 선거를 시행할 부군의 선거할 후보자 인원 수 및 선거기일을 공고한다. 1)선거를 행할 부군 및 선거할 후보자 인원 수 <중략> 김포군 2인

1930-03-15 조선 선거사의 신기록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首善(수선)의 府(부)인 京城(경성) 出馬者(출마자)는 七人(칠인) 一府(일부)廿郡(군)의 立候補者(립후보자)는 如何(여하) 모다 一騎當千(일기당천)의 猛士(맹사)

이제 경기도내 2부 20군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경성부만 조선인 정원 11명, 내지인 정원 2명 합하여 4명이오 기타 각 부군에서는 내선인을 불구하고 1명 밖에 선출치 아니함으로 총정원이 25명인데 현재 입후보자의 수를 각 부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중략> 김포군 권영옥(하성면), 신석영(현도평), 김봉침(점주면), 이대영(양동면) 이상 4명

1930-03-22 금일 일제 투표하는 경기도의 후보자 [중외일보]|04면|07단|

1930-03-23 김포수조인가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 수조인가

경기도 김포수리조합 설치신청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내년 모내기까지 공사를 낙성하도록 금일 중에 인가하기로 되었는데 금년 5월에 기공을 예정으로 물리구역은 약 4,000 정보로 경기도에서는 부평수리조합 다음가는 큰 조합이라고 한다.

1930-04-06 토개대행 계약 [매일신보]|기사|08면|06단|

1930-04-25 병어리임을 기화로 토지사기 [매일신보]|기사|07면|01단|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368번지의 논, 밭, 임야 등 가격 3만여원어치는 동군 진동면 평원리에서 사는 병어리 권병속과 그의 친족의 공유물로 등기까지 한 종중재산인 것을 동군 동면 읍내리567번지에 사는 권명수와 김포군 하성면 마조리 144번지 권명택 장단군 대강면 우면리 이원(28) 세사람은 토지에 대하여 등기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로서 작년 음력 12월 중에 권이원은 병어리 권병속의 집에 와서 권병속에게 임야의 수목을 매도함에 대하여서는 문중 대표자되는 병어리 권병속의 인장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달라고 함으로 권병속의 인장은 손자되는 명옥이가 소지하였다고

1930-05-06 불교대강연 각황사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30-05-22 인천에 大賊(대적)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인천의 대적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 41번지에 사는 배명근(19세)은 지난 19일에 출옥하여 인천에서 배회하다가 20일 오후 11시경에 인천 송천리 253번지에 있는 전당국 주인 안학규 집에 들어가 현금 110원 28전과 순금반지 19개 비녀 두 개를 합하여 420원 28전과 수채금고를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그 집 가족이 발견하고 야단하는 틈을 통해 도망가 변소 뒤에 숨었다가 인천경찰서원에게 체포되어 지금 엄중 취조중이다.

1930-06-25 坐洲沈沒(좌주침몰)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30-07-03 경기서부 7군의 연합재무연구회 각 군수 이하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30-07-07 외간남자와 밀통 가산낭비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가산을 낭비 시모 분개 제소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윤억자라는 할머니는 손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숙하지 못한 며느리 이연옥을 5일 오전 10시에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친권 상실 소송을 일으켰다. 할머니가 제소한 이유를 보면 음란하고 방탕한 며느리로 말미암아 점점 쇠퇴하여 가는 집안 형편의 눈물겨운 내막을 호소함이였다.

손자 조영휘의 아버지는 13년 전에 죽고 며느리 이연옥은 과부로 지내오는 중이었는데 3년 전부터 이연옥은 동리 어떤 남자와 불의의 관계를 맺고 무단히 집을 나와 지금은 부내 현지동

1930-07-08 地方辭令(지방사령) [매일신보]|인사|03면|12단|

1930-07-11 노동자 모집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김포군, 한강하천개수공사

김포군 관내 한강하천 개수공사는 지금 농번기로 노동자가 격감하여 경성부 직업소개소로 의뢰를 보내왔다. 하루 품값은 70전부터 1원 내외라고 한다.

1930-08-02 自動車竊盜(자동차절도) [매일신보]|기사|07면|06단|

1930-08-06 풍곡경찰관주재소의 명칭 등 변경<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58호>

1930-08-09 승객자동차가 김포 영등포간 개통 [중외일보]|04면|08단|

1930-08-16 급탄에 범선침몰 선객 18명 익사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30-08-16 水害義捐金(수해의연금) [매일신보]|기타|02면|11단|

▶장보고 돌아가던 상인들의 뜻밖에 닥쳐온 불행

김포군 강령포의 참극

(강령포에서 문산지국 흥천길 발신)

닷새 전인 8월 9일 문산 장날에 직물과 생선을 배에 가득 싣고 강화도의 상인 김덕기(53), 김대근(40)의 두 사람이 문산장에 와서 포목과 생선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소매상에게 넘기고 오후 7시 반경 썰물에 문산포구를 출발하여 강화도를 향할 즈음에 강화도에서 장사하는 사람 16명이 동승하게 되었다.

밤 11시경에 김포군 월곶면에 있는 강녕포 근방을 통과하다 급한 여울에 쓸려서 암초와 충돌해 배는 산산이 부서지며 배에 탔던 18명은 일시에 물고기의 밥이 된 참사가 발생하였다.

그 후 이 일이 있는지 닷새가 된 13일에야 강화도의 상인이 문산장에 갔다가 사람의 시체와 물품과 파선된 배 조각들이 강령포 부근에 표류하는 것을 보고 이 참사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부근 어부들과 경찰 당국의 필사적 노력으로 시체 8개만 발견하였는데 아직 성명도 판명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방금 강화서에 의뢰하여 문산장에 갔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중이다.

1930-09-05 금조급지소 62개소 증설 조합활동은 [매일신보]|기사|08면|03단|

1930-09-17 남창청년회 정기총회 경과 [중외일보] 04면 05단

1930-09-18 각 경찰서별의 발생 검거수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30-09-19 3인조 강도단 [중외일보]|02면|04단|

1930-09-22 김포수조, 용지가격 결정 [중외일보]|04면|04단|

1930-09-30 수해의연금 [중외일보]|02면|10단|

1930-10-08 사형감흐려다 피소된 면장 [매일신보]|기사|07면|04단|

1930-11-05 송충이 구제 예방규칙에 의한 활엽수 벌채 금지조치

▶1926년 조선 총독부 경기도령 제1호의 송충이구제 예방규칙 제4조에 의하여 1931년 1월 1일부터 1933년 12월 31일 경까지 지정 지역 임야 내에서 활엽수의 벌채를 금지한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벌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중략> 김포군 고촌면 일원<중략>

1930-12-03 전개화산농민사 김포에 창설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30-12-25 3군 부연합 국자조합 창설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30-12-26 3군 연합국조 출자는 양조업자에 분담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31-01-14 朝鐵業績不振(조철업적불진)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31-01-15 금폭락 上海(상해)의 [매일신보]|기사|08면|02단|

1931-01-17 송전선의 확장 [매일신보]|기사|08면|05단|

1931-01-18 면포류의 수이입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매일신보]|기타|08면|03단|

1931-01-31 취직식혀준다 하고 3명에게 8원 편취 [매일신보]|기사|07면|08단|

▶(수원) 자칭 김포군 월곶면 박천리에 산다는 이기룡(28)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농촌 우민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는데 일전에 진위군 병남면 지체리 이덕상(20)의 집에 가서 같은 리에 사는 이홍상(19), 우동식(16) 3명에게 감언이설로 수원 모 주조장 점원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같이 수원을 가자고 하여 데리고 수원 산루리 수산여관에 와서 3명에게 하는 말이 우선 취직하려면 양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니 양복 살 돈을 내라고 하고 이덕상에게 3원, 이홍상에게 2원 60전, 우동식에게 2원 60전 합계 8원 20전을 편취하여 어디론가 교묘히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1931-02-03 기생에 반하여 불제자 범행 [매일신보]|기사|07면|06단|

1931-03-10 김포수리 해산설 대두 [매일신보]|기사|08면|03단|

1931-03-30 1931년분 호세부와 예정액 배당 <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1호>

▶1931년분 호세부와 예정액을 다음과 같이 배당한다. (김포군) 군내면-1,631원, 검단면-1,441원, 고촌면-839원<총9면 하락><중략>

1931-04-01 3군 연합국자조합 창립위원회개최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3군 연합회 국자조합 창립위원회 개최

자금은 75,000원으로 결정

조합장은 인천 당업자를 선정

(인천)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창립준비중인 인천부 외 부천, 강화, 김포 3개 군의 연합국자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7일 인천부청 회의실에서 각 부 군에서 16명의 대표위원(인천부 5명, 부천, 강화 각 4명, 김포군 1명)의 출석과 관청 쪽에서는 송도 인천부윤, 조 김포군수, 윤 강화군 재무주임, 신 부천군 직원 기타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정관설정의 건, 예산, 사업계획, 기타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으므로 4월 13일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동조합에 총자금은 75,000원(액면 50원, 1,500구좌)으로 대략 결정되었는데 조합의 공장은 인천에다 세우고 명칭은 <인천국자조합>이라고 결정되었다.

8월에는 제1회의 자금불입(1/4)을 끝내고 즉시 영업을 개시할 터인데 내년 중에는 자금 전액이 불입된다고 한다. 그리고 조합장은 인천부 당업자 중에서 선임될 터이고 이사는 도청 재무계통 중에서 피임될 것이라고 한다.

1931-04-15 출애비 한집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한집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

추행 끝에 득아 참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209번지에 사는 농사일을 하는 양현모(46)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처를 상 치르고 여태 독신생활을 해오던 중 역시 7년 전에 과부가 된 자부(아들의 처) 안원순(27)과 비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결국 지난 4월 7일에 옥동자를 낳게 되어 세상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즉시 화로에 있는 재로 질식하여 사망하게 한 후 뒷동산에 묻은 것을 소관하는 김포경찰서에서 탐지하고 그들 두 명을 체포하여 엄중한 취조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1931-04-15 면제개정 경과규칙에 의한 읍면 인구<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31호>

▶면제개정 경과규칙 제3조에 의한 읍면 인구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중략> 김포군 군내면-6,720인, 검단면-5,970인, 고촌면-3,771인, <총9면 하락><중략>

1931-05-01 경기도내에 신설할 14개 공보교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경기도내에 신설할 14개 공보교 공사는 5월 초순부터 개시 7,292원 보조

금년도 경기도의 신설 보통학교는 다음 14개교로 결정되었는데 공사는 5월 초순부터 일

제히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비 보조는 전부 7,292원이라고 한다. <중략> △김포군  
검단면(이상 14개교)

1931-05-01 한강하류 복선참변 후보 [매일신보] |기사|02면|01단|

▶30일까지 판명된 조난 사망자의 주소와 이름은 아래와 같다.

김포군 하성면 봉성리 166 민영옥의 처 서 씨(34) 민영옥의 장녀 봉식(9)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이인규의 며느리 이 씨(45) 이인규의 누이의 아들 류복동(9), 김  
포군 군내면 북변리 365 김금생의 손아래 누이 순이(16), 김포군 양촌면 도사리 신용규  
의 처 하씨(41),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민병구의 처 심씨(33), 김포군 하성면 동성리 장  
경복의 처 김씨(53), 김포군 월곶면 용강리 서진구의 모 방씨(66)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장원구의 처 최씨(58),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 정성여의 처 신씨  
(60), <중략>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민위식의 처 이씨(31)

1931-05-13 진행 열차에서 쫓겨내려 즉사 [매일신보] |기사|02면|04단|

1931-05-14 비강타가 로파가 참사 진행열차에 [매일신보] |기사|07면|08단|

1931-05-17 경기도내각읍면별 작년말인구총수 [매일신보] |기사|02면|01단|

1931-05-17 안해와 싸우고 여식을 교살 [매일신보] |기사|02면|09단|

1931-05-22 충북도의 우량촌 조성금 송강하소량리에 [매일신보] |기사|03면|01단|

1931-05-24 절도범 체포 [매일신보] |기사|07면|07단|

1931-05-25 병처와 유아를 버리고 잠적 [매일신보] |기사|02면|04단|

1931-05-28 한강에서 발동선 전복 [신한민보] |02면|02단|

1931-06-12 경기서부 7군의 군사무 연구회 [매일신보] |기사|03면|08단|

1931-06-21 서해안어민이 갈망튼 충남수산교인가 [매일신보] |기사|03면|01단|

1931-07-03 전매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관할구역 개정

▶전매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관할구역 중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함.<중략> 김포군<중략>  
전매지국의 직할 및 출장소의 판매소관할구역 개정<조선총독부전매국공시 제8호>  
전매지국의 직할 및 출장소의 판매소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중략> 김포군<중략>

1931-07-06 도·부·군·도·면별 인구<조선총독부 고시 제351호>

▶1930년 조선국세조사의 결과에 의거 1930년 10월 1일 현재 도·부·군·도·면별 인구는 아래와 같다. (도·부·군·도·면별 인구) 본표 괄호안의 숫자는 현재 인구 중 육·해군 부대, 합선, 형무소 내의 인원을 표시하는 것이다. <중략>

김포군-55,181<중략>

1931-07-07 김포군 김포소방조 직원의 정원 확정<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56호>

▶1931년 2월 1일 설치한 김포군 김포소방조 직원의 정원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조두1명, 부조두:1명, 소두:3명, 소방수:30명, 계:35명

1931-07-10 김포 자동차 6월부터 운전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강화) 강화~경성간 자동차 운전은 삼심기전주식회사와 김포자동차부 양 회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김포자동차 강화주재 차는 차량번호 제경429호, 운전수 이인목, 오는 6일 차를 강화에 두고 운전개시와 동시에 이 회사 중요간부 박태종씨 및 이 회사 대표 명진호씨가 각 방면에 인사를 다녔다는데 시간은 강화읍 출발이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 2회 운행하고 운임은 1원 60전으로 결정되어 오늘부터 개통한다고 한다.

1931-08-12 강화, 문산, 김포 3군 대항정구전 [매일신보]|기사|07면|01단|

1931-08-26 굶으며 품파는 인부에 강제로 저금을 시켜 [동아일보]|07면|04단|

▶(굶으며 품 파는 인부에 강제로 저금을 시켜)

그날그날 먹기에도 품삯이 빠듯한데

강제로 품삯에서 저금을 떼고 주어

김포군 군하공민구제장

(김포)김포군 관내에는 총독부 내무국토목국 사업인 한강호안 제방공사장이 김포읍내에 90여만 공사와 김포군 양천에 40여만 원 공사와 양촌면 누산리에 40여만 원의 공사장 세 곳이 있는바 이 사업이 소위 지방군민 구제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음으로 일반 주민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바 가득이나 박한 품삯에서 무슨 여유나 있는 것처럼 강제로 저금을 시켜 일하는 이조차 없어져서 공사장은 텅 비어 있는 상태라 한다.

소위 빈민구제 사업이라는 명칭을 부친 사업이 김포읍내는 벌써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양천은 작년 겨울부터 누산리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착수하였는데 새벽 5시경부터 나가서 어두워 들어와도 평균임금이 40전도 못되는데 게다가 강제저금을 떼이고나면 한 사람의 밥값도 못되어 주린 창자의 영양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는 출역치 않음으로 자연 공사장은 휴업상태로 빠져지는 때가 많아 이즈음에는 외치지방의 인부들을 모집하여 근근이 일을 진행하나 그들도 역시 며칠 해보다가 그날그날의 밥값도 못되니 그대로 돌아가는 형편으로 각공사장의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일반의 비난은 날로 높아간다고 한다.

1931-09-06 수미환사건 유족이 제소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31-10-24 16세의 소녀가 계모를 모살하기까지 [매일신보] |기사|02면|06단|

1931-10-27 성대교수까지 출장 머슴의 시체 해부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31-11-06 역둔토 대부료 산정용 쌀 1섬당 환산가격

▶1931년의 역둔토 대부료를 결정할 쌀 1섬당 환산가격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쌀1섬당 환산가격-적용지역 <중략> 김포군, 6월 <중략>

1932-02-02 경기지부 취급의금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32-03-05 양기선 총돌 [매일신보]|기사|07면|04단|

1932-03-15 전매지국 및 전매지국 출장소의 판매소 위치 변경

▶전매지국의 직할·출장소·파출소의 관할구역 중 아래와 같이 개정, 193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판매지국명 : <중략> 김포군 <중략>

1932-03-19 검단공립보통학교 설립인가<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8호>

▶아래와 같이 공립보통학교 설립을 인가한다. -설립인가연월일-1932년 3월 8일, 개교 예정연월일-1932년 3월 11일, 학교명-검단공립보통학교, 위치-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1932-04-11 1932년분 호세부와 예정액 배당 <조선총독부 경기도시 제12호>

▶1932년분 호세부와 예정액을 아래와 같이 배당한다.

<중략>김포군 군내면-1,697원, 검단면-1,440원, 고촌면-842원 <총14면 하략> 계-13,236원<중략>

1932-05-04 의무는 이행안코 권리만 주장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32-05-10 대절도 체포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32-05-30 타살의 농후한 괴시체 표착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32-08-09 시국광구에 관한 양부장의 포부 (4) [매일신보]|기사|01면|08단|

1932-09-02 産業美談(산업미담) (10) [매일신보]|기사|06면|01단|

1932-09-07 제2회 학생브나로드운동 [동아일보] | 04면 | 01단 |

▶ (제2회 학생브나로드운동 각지대원 소식(33))

책임대원 김윤제, 김포군 14명 해독, 15명중 1인은 해독 못해

우리의 브나로드 책임은 끝났다. 모르는 아이가 알려고 열심히 모여들어 15명중 1인은 완전히 해독하지 못하였으나 한자식은 알아보고 14명은 완전히 해독하였다.

1932-09-10 조림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65호>

▶ 조림보조규정 제2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단 카라마쓰, 테우센마쓰, 크리의 식재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역 이외의 곳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략> 김포군 월곶면·대곶면 <중략>

1932-09-26 탈주 잠적한 강도범 잡어드리기까지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4단 |

1932-10-04 김포수리조합에서 공비 5할보조요망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7단 |

▶ 김포수리조합에서 공비 5할 보조요망

쌀값 폭락으로 절대로 유지불능

지주대표 본부에 진정(영등포)

경기도 김포수리조합은 김포 군내면, 검단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면, 양촌면 등 6개 면장이 그 면 소재 토지 중 약3천여정보의 천수답이 매년 가뭄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여 수리관개 시설의 편리를 절실히 통감한 바 있어 수리조합을 설치하고자 소화3년 10월 11일 수리조합 창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조합설립을 추진하였다.

다음해 7월 2일 몽리구역 3,777정 405단보로 총공사비 1,515,390원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김포수리조합 인가신청을 당국에 제출하여 소화5년 3월 26일 인가를 얻어 창설하였다.

조합설립 추진당시 계획으로는 논 1반보에 1석1두6승에 수확을 보던 것을 수리공사가 완성되면 2석8두5승8합의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결국 1석9두8합의증수를 하게 됨으로 이것을 석당 12원으로 환산하면 공사비 배당금 6원79전과 조합비를 빼고도 매 반보에 약 1원60전의 순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여 조합을 창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되어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수리공사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소화5년 수확기부터 쌀값이 대폭락하여 예상 쌀값이 12원에서 6원으로 하락하여 이러한 쌀값으로는 조합비는 고사하고 공사비 배당금도 내지 못할 형편으로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고 때를 기다려 오늘에 이르렀는데 쌀값은 여전히 오를 가망이 없다.

일부 지주 측에서는 조합해산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 동조합으로서는 소화5년 5월 중에 당국의 보조금 330,680원 중 136,810원 보조금을 받아 사용해 조합해산도 어려운 상황이며 파관곡절이 있어 일반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조합 당국자는 존폐기로에 있는 이 조합을 어떻게 조처해 나갈지 주야로 고심해오던 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동조합평의원인 지주대표자가 동조합 사무실에서 회합을 하여

그 선후책을 강구한 결과 현 상태로는 도저히 조합을 존속할 여망이 없고 경기도당국에 구원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별도 방안이 없으므로 총공사비의 5할 보조와 차입금의 5분5리 인하를 본부에 진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하여 오는 3일 본부 농림국에 방문 진정하기로 하고 오후1시 30분에 산회하였다.

조합원은 금후 본부 당국의 성의 있는 선처를 바라마지 않으며 이번 진정위원 일행이 과연 얼마만큼 진정의 성과를 얻어올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 1932-10-11 면장후임 문제로 면장대회 개최 [동아일보] 07면 08단

▶(면장 후임문제로 면민대회 개최, 김포군 월곶면에서 열어, 대표가 군청에 진정)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에서는 면민 대표로 면협의원(면협의원) 조한구, 성락선, 박규원 등 3인이 지난 10월 9일에 면장취임에 대한 진정서를 김포군에 제출하였는데 이제 그 진정원의 사정을 들은 바에 의하면 김포군 월곶면장 신용균씨는 10여 년간 면장으로 있던 바 가정 형편으로 2일에 그 직을 사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임으로는 본면 내에도 적합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에서는 다른 면사람으로 면장을 취임시킨다는 설이 있어서 지난 7일에 긴급히 동면민대회를 열고 다른 면 사람으로는 절대로 면장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를 협의한 후 그 대표로 3인을 선정하여 진정서를 군 당국에 제출하였다 한다.

#### 1932-10-18 김포면장회의 농촌진흥협의로 [매일신보] |기사|03면|05단|

▶김포 면장회의 농촌진흥협의로(영등포)

김포군에서는 지난 12일, 13일, 14일, 3일간 농촌진흥책에 대하여 협의코자 군내 각 면장을 소집하여 조충현 군수 주재아래 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1932-10-19 김포군 농촌진흥대회 년내로일제 설치 [매일신보] |기사|04면|01단|

#### 1932-10-22 농촌진)의 인기 (三) [매일신보] |기사|06면|02단|

#### 1932-10-26 영등포 김포 양서 대항 경점사격회 [매일신보] |기사|07면|05단|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신길리 사격장에서 영등포경찰서와 김포경찰서가 대항 경점사격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 1932-10-29 김포 금조업적 9월말 현재 [매일신보] |기사|04면|03단|

▶금년도 상반기 9월말 현재 김포금릉조합의 예금과 대출액을 보면 예금이 165,883원이고 대출이 259,996원으로 예금액보다 대출액이 94,113원이 많으며 대출액 259,996원을 조합원 1,723명으로 나누어 보면 조합원 1인당 150원81전의 부채가 있는 형편으로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김포 농촌의 경제상태가 극도로 피폐하여 자못 어려운 궁지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말하고 있다.

1932-11-05 김포군의 자력갱생 실천운동은 맹렬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4단 |

▶ 김포군의 자력갱생 운동은 맹렬

군내 400촌에 진흥회 조직

조군수의 지도 주효

(영등포) 자력갱생의 기치가 날리는 이때 일반 군민의 철저한 이해 하에 농촌진흥회의 조직에 일로 매진하는 김포군은 군내 9개면 400여 촌락에 일제히 촌락농촌진흥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군민의 충분한 자각으로 파죽지세로 촌락 진흥회가 설치된 동기는 조충현 군수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조 군수는 김포군에 부임한 이래 삼개성상 동안 항상 군민에게 친절을 베풀고 실지지도에 노력함으로써 군민은 조군수를 자부와 같이 신뢰하며 존경을 받아 이번 본부의 방침에 의한 자력갱생을 위한 농촌진흥회에 대하여는 각면을 군수 자신이 하루에 4-5리를 자동차나 또는 도보로 순회하여 자력갱생, 농촌진흥책에 대한 취지 선전강연을 열성적으로 하였다.

일반 군민은 그 열변에 도취하고 그 열성에 감복하여 군수가 이번과 같이 열성으로 군민지도에 노력함은 총독시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으며 방금 농번기 입에도 불구하고 취지강연을 듣고자 참여하는 민중이 날로 증가하였다.

지난 11월 1일 군내면의 강연시에는 3-400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김포군에서 일반 군민이 조군수의 열성에 감복하는 동시에 자력갱생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각 촌락 진흥회 조직이 의외로 잘 진행되어 벌써 월곶, 하성, 대곶면 등에서는 30여개소의 촌락 진흥회가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이면 오는 11월말까지 군내 400여 촌락에 농촌진흥회를 예정과 같이 일제히 조직하게 되리라 한다.

1932-11-08 침효부 표창식 [매일신보] | 기사 | 07면 | 07단 |

1932-11-21 김포군내면 협의회 개최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13단 |

1932-11-21 김포 연초 매상고 4만5천원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6단 |

▶ 김포연초 매상고 45,000원

작년보다 1할 감소

(영등포) 김포군 전매국 판매에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초 매상고를 보면 45,192원이라는 금액에 달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하면 약 1할 가량은 감소되었다는데 그 원인은 차츰 파멸되어가는 극도의 재정곤란으로 연초 소비량이 감소된 까닭이라고 한다.

1932-11-22 민심작흥 자력갱생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3단 |

▶ (영등포) 김포군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일반 군민의 정서를 일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운동을 착착 실행 중인데 더욱이 지금 농촌부녀자들이 아주 소중한 현모양처의 책임을

털옥만치도 이행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날 그날을 소비하는 생활을 하여 나아가는 현 실태를 개탄하고 농촌의 퇴폐기풍을 소탕하려면 한 가정의 흥망성쇠에 원동력이 되는 주부의 정신부터 쇠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임을 절실히 깨달은 조충현 군수는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군내 검단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부근에 많은 부녀자 여러 명을 참석시켜 생활개선, 자력갱생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당일 참석한 부녀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단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외면하여 내외를 하였는데 조군수의 열변에 점차 이해와 감화가 되어 나중에는 단상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조군수의 사자후의 도취한 듯 만족한 태도로 열성으로 청강을 하여 당일은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1932-11-22 김포 공보교 수업료 성적우량 [매일신보] |기사|07면|03단|**

▶(영등포)전 세계를 휩쓰는 살인적인 불경기의 폭풍이 우리 조선에 내습한지도 벌써 오래이며 날로 심각하여 가는 불경기의 여파는 조선내의 방방곡곡에 있는 각 공립보통학교까지 파급되어 수업료를 납입할 가망이 없어 중간 퇴학자가 속출하며 매년 신학기 입학 아동이 격감하여 갈 뿐만 아니라 그중 더욱 심한 지방에서는 교원의 봉급지불을 잠시 유예하였다는 등의 참상이 속출하는 이때에 경기도 김포군 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수년 내로 전교생도 500여명이 수업료 250원가량 되는 것을 수년 동안 꼭꼭 완납하여왔다 하며 10월분 수업료도 생도 511명의 수업료 255원을 기일 내에 완납하였다는데 이런 성적은 조선 안에서는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군 당국 모씨는 말하였다.

**1932-11-23 김포 공보교생 락수집습 민심작흥운동 [매일신보] |기사|04면|05단|**

▶(영등포)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민심작흥 운동에 일환으로 천황의 조칙을 발표한 기념일을 맞아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근검저축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전교생 500여명이 부근 전답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모은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다섯 가마나 되는 많은 양이었다.

**1932-12-08 김포서에서도 나방기금 모집 [매일신보] |기사|05면|07단|**

▶(영등포)나병예방 협회설립에 대한 기금모집은 일반 사회에 많은 동정이 있어 전조선적으로 기부금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 중인데 김포경찰서에서도 지난 3일부터 일반 독지가의 기부금을 취급중인데 관내에 독지인사의 액수 다소를 불문하고 많은 회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1933-01-07 김포 월곳에 금광을 발견 [매일신보] |기사|02면|03단|**

**▶김포 월곳에 금광을 발견**

(영등포)김포군 월곳면 고양리에 있는 수년전 무연탄광이 발견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동리 부근에 있는 금렬산과 태봉산 일대에 금광이 발견되어 경성부 마포에 있는 조성현씨가 시굴한 금돌을 총독부 연료연구소에 가서 분석하여 본 결과 1만분의8이라는 다량의 금이 함유되어 있어 자못 유망한 금광임으로 즉시 채굴이 인가 신청을 당국에 제출하였

다고 하는데 인가가 나는 대로 즉시 채굴에 착수할 것이며 채굴이 개시되는 날에는 당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1933-01-17 경기도 관내의 자력갱생 부락 [매일신보] |기사|02면|04단|

1933-01-19 김포, 영등포 양서 구연말 경계 [매일신보] |기사|07면|02단|

▶(영등포)영등포경찰서에서는 지난 6일 동안 구연말 경계를 개시하였는데 양력년말 경계에는 서장이하 전 서원이 혈안이 되어 물샐틈없이 경계를 하였으나 절도, 강도사건이 계속 속출되어 이번에는 더욱 엄밀한 경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김포경찰서에서도 이달 18일부터 구연말 경계를 개시한다고 한다.

1933-01-21 변심한 남편 걸어 양반 안해 제소 [동아일보] |02면|04단|

▶1일 3건의 이혼소

변심한 남편 걸어

양반 아내 제소

공부 갔다 와서 배척한다고

위자료 천여원 청구

애육의 갈등, 인습결혼과 정책결혼의 폐해는 허다한 인생의 비극을 비쳐낸다

20일 경성지방법원과 복심법원 민사부에 3건의 이혼 소장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역시 조선사회의 과도기의 사회상을 설명하면서 해결을 보려는 사건으로 가난한 시골양반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자 자기의 소작인인 양반을 졸라 며느리를 삼았으나 그 후 자식이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는 ○야반 아내를 구박하여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자료 1천4백2십6원90전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의 민산옥(23)으로 피고는 동리 정일동(21)과 정일동의 조부 정성녀이다. 이혼 이유는 소화2년 10월 피고는 지방의 장자로 살아가니 가문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마침 소작인이나 양반인 민산옥의 친부 민창식을 졸라서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한 혼인을 억지로 하였는데 그 후 피고 일동이가 경성에 유학하여 모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집안사정으로 중도 퇴학한 후 집에 돌아온 이래 원고를 구박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지은 밥을 먹지 않고 지은 옷을 입지 않고 야단스럽게 굴어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잉태한 몸을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해산하였다는 말을 듣고 겨우 쌀 한말을 보냈을 뿐이요, 불고한 탓으로 마침내 아이도 죽어버리어 원고는 한낱 마음을 붙이고 살다가 모든 것에 절망하고 그러한 남편은 믿고 살수 없으니 이혼하겠다는 것이다.

1933-02-22 부안군장동 진흥회총회 [매일신보] |기사|04면|08단|

1933-02-23 인습결혼이 낳은 비극 [신한민보] |02면|03단|

1933-03-26 흥, 송 양씨 출옥 [조선중앙일보]|02면|08단|

1933-03-28 27일에도 20명의 신환자 [조선중앙일보]|02면|05단|

1933-04-01 역원 개선한 예산 각진총회 [매일신보]|기사|04면|11단|

1933-04-12 이원찬 군수 명경기도 김포군 재근 [동아일보]|01면|09단|

▶사령<중략> 이원찬 김포군수로 임명 <중략>

1933-04-15 축산동업조합 해산 ①<조선총독부고시 제162호>

▶1933년 3월 31일부로 아래와 같이 축산동업조합 해산 건을 인가하다. <중략> 김포군 축산동업조합<중략>

1933-04-20 천연두 의연 만연 [조선중앙일보]|02면|07단|

1933-04-21 경기도회 투표일·선거구·의원 수를 확정<조선총독부 경기도고시 제34호>

▶경기도의회 의원선거를 해하여 선거기일·선거구·의원 수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선거기일-1933년 5월 10일, 단 아래의 투표기일을 1933년 5월 1일 조정하여 시행한다. <중략> 2)선거구·의원 수-<중략> 김포군 1인<중략>

1933-05-02 강화군 산조 제2기 총회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1933-05-08 사건층 생첩출 [조선중앙일보]|04면|02단|

1933-05-12 조선 통치사의 신기원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1933-05-15 법원 인천지청, 부활론 대두로 [조선중앙일보]|02면|01단|

1933-05-21 13만원 보조받아 설립되기도 전에 소비 [조선중앙일보]|2면|7단|

1933-06-03 화성명충(化性螟蟲) 구제조치<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10호>

▶수도에 화성명충의 발생이 만연될 우려가 있는 전답의 소유자 및 경작인은 아래의 내수도에 구제를 행하여야 한다.

1)구제시행 기간-1933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구제방법 <중략> 3)구제지역 <중략>  
②김포군-고촌면 내 신곡리·전호리·태리·양서면 내 개화리·과해리·방화리

1933-06-05 부읍면별 현주 인구<조선총독부고시 제259호>

▶1933년 12월 부읍면별 현주 인구는 다음과 같다.(지역)-조선인 수-일본인 수-외국인 수-합계)

<중략> 김포군-53,590-291-11-53,892

1933-06-12 군민의 열혈로 포광폭도로 완성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군민의 열혈로

김포 광폭도로 완성

지난 10일, 김포군청에서 품평회 수상식 거행

(영등포)김포군에서는 영등포 강화간 41,587미터와 김포 부평간 3,278미터의 장거리 도로 품평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지난 4월부터 전 군민의 부역으로 노면개수 공사와 모래표기 공사를 하여 지난 5월말 부역을 마쳤다.

도로개설 개수와 모래 퍼기 부설공사 할당량이 1호당 1칸2분으로 소요 68상자라는 과중한 부담이 있었으나 당국에 열렬한 지도와 '내 도로는 내가 관리한다' 고 하는 군민의 자각정신에 의하여 춘궁기를 당하여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죽으로만 해결하는 군민들이 일일이 먼 거리의 산에서 큰 돌덩어리를 반출하여 이것을 작게 부쇄 도로면에 부설하는 등 실로 어려운 일로써 열성을 다하여 마쳐 보기 좋은 도로가 완성되었다.

지난 5-6일 양일간 경기도 토목과 도전기사 일행이 심사를 거쳐 10일 품평회와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당일 군청앞 뜰에 설치된 식장에서는 송전토목과장, 조 강화군수, 금삼신 전무를 필두로 군내 각 관공사와 회사 사장 그리고 민간인 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정각 11시에 이 군수가 개회를 선언하고 송정토목 과장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그 다음 상품과 감사장 수여가 끝난 후 이 군수 회장의 식사, 도지사 고사 대독, 조 강화군수의 여러 사람의 축사가 있었고 수상자의 답사를 마치고 대성황으로 폐회하였으며 일동은 군 회의실에 마련된 오찬장으로 옮겨가서 오찬을 끝내고 3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타고 도로 시찰을 하였는데 당일 입상의 영예를 받은 동리는 다음과 같다.

(사진은 수상식 광경)

등급      상품                      동리면

1등 금100원과 표창장 하성면 봉성리

2등 금70원과 표창장 월곶면 서암리

2등 금70원과 표창장 양촌면 도사리

3등 금45원과 표창장 양서면 과해리

3등 금45원과 표창장 양동면 등촌리

3등 금45원과 표창장 월곶면 고막리

4등 6개리, 5등 13개리, 6등 45개리 이하생략.

1933-06-12 김포방공강화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33-06-20 문제의 김포수조 해산 [조선중앙일보]|02면|02단|

1933-07-01 김포읍 중앙관통 도로 확장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읍 중앙관통 도로확장

(영등포)김포군에서는 다년간 현안으로 있던 영등포 강화간과 김포~부평간 도로의 노면 확충 개수공사가 요즘 완성됨에 따라 김포읍내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까지 지방비 보조를 받아 노면을 확충하게 되어 그간 도로의 편입될 토지와 가옥 소유자들의 승낙 기타 제반 준비에 노력하던 중 그 준비가 거의 진척되었으므로 머지않아 기공하리라고 하는데 이 도로공사가 준공되면 김포읍은 김포자동차부 사옥 신축과 아울러 시가지가 번듯하게 될 것이다.

1933-07-01 김포이양 완료 우량흙축으로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33-07-02 흥친 돈으로 여흥하고 잡힌 자 [조선중앙일보]|02면|09단|

1933-07-02 각 면마다 담당 지도원 배치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각 면마다 담당지도원 배치

군 직원과 산업단체 직원을 김포군에

김포군의 농촌지도책

(영등포)김포군에서는 면, 학교, 주유소, 금릉조합 직원들만 군내에 각 촌락 진흥회에 실지 지도자로 정하여 지도하여 왔었고, 군 직원은 각 면을 담당하여 격려하여 오던 것인데 이와 같은 방책으로는 실지 지도자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 종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이번에는 군 직원과 각 산업단체 직원등 약40여명을 각 면에 안배하여 종전 각 촌락 진흥회에 실지 지도원과 협력하여 매월 월례회의나 기타 다른 회의 있을 때마다 반드시 출석 지도케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내 관공서 직원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지도하기로 되었는데 각 면에 안배된 직원 수는 다음과 같다.

군내면 3명, 검단면 4명, 고촌면 4명, 월곶면 5명, 대곶면 4명, 양촌면 3명, 하성면 5명, 양동면 3명, 양서면 3명.

1933-07-02 김포의 춘경가 비작년 5배로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33-07-08 김포주조조합 추천권부로 대매출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김포주조조합

추천권 부처 대매출

(영등포)김포군 주조조합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술의 보급선전을 하기 위하여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추천권을 부처 대매출을 하여 양호한 성적을 내었다.

6월 25일 군청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천을 행한 결과 총 20,200장 중에서 1등에서 5등까지 입상자 번호와 상품은 다음과 같다.

1등 소 1두, 추첨번호 19,212번, 2등 광목 1필, 추첨번호 5,148번, 1,292번, 3등, 시계 1개, 6,206번, 7,299번, 10,581번, 13,092번, 4.5등 생략.

**1933-07-09 김포군 고촌보교 설립기성회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김포군 고촌보교 설립기성회 개최

(영등포)김포군 고촌면에서는 공립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지난 7월 1일 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일 쉴새없이 폭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면내 유지 30여명이 출석하였으며 총공사비 7,000원은 도보조금 4,800원과 동리재산 1,110원, 민간기부 1090원으로 마련되어 늦어도 금년 9월이나 10월경에는 공사의 착수한다고 하며 당일 선임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진기, 간사 유인섭, 이극희, 윤홍섭

위원 노병훈, 조영증, 윤대봉, 조영중, 조종훈, 허철, 고문 조관(?), 현정연, 죽지천본.

**1933-07-18 김포군 농회 평의원 선거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33-07-18 김포 면장회의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김포면장 회의

(영등포)김포군에서는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권업행정과 농촌진흥운동 지도방침에 대한 협의결정이 있었다.

**1933-07-25 김포군교육회 하계강습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33-08-20 천오백 계몽 대원 활동 [동아일보]|02면|01단|**

▶(1500 계몽대원 활동 제3회 학생계몽운동 각지 대원소식)(15)

김포군

전동문자해득

동아일보에 감사

장소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흥신리

일자 7월 17일 오후 10시 반

생도수 남 55명 합계 55명

대원수 남선생 3인 합계 3인 비용 출처

칠판 10전, 백묵 30전, 기타 대원자담 다행히 하향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왔더니 생도 수는 정돈 되었었다. 이번 강습의 결과로 동네에 한글과 산술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인근 동네사람은 동아일보에 감사인사를 합니다.

**1933-08-22 열차절도범 영등포서 검거 [매일신보]|기사|07면|07단|**

1933-09-14 강도절도 계속 [조선중앙일보]|04면|02단|

1933-09-16 부천의 지정살인범 김포군서 체포 [매일신보]|기사|07면|05단|

1933-09-22 혼상시절악 철저히 실행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33-09-25 김포군농촌진흥위원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김포군 농촌진흥위원회 개최

(영등포)김포군에서는 겨울 농한기를 맞이하여 농촌진흥책의 연구와 그 지도방법을 협의코자 21일 김포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군면위원 연합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협의 결정하였다.

1.농민계몽에 관한 건 : 올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요령에 의하여 강습회나 야학회를 개최하기로 함.

1)강습회와 야학회는 한 진흥회를 단위로 진흥회가 주최하기로 함. 2)교재는 경기도 농민독본을 주로하고, 국어 또는 산술을 첨가함도 무관함.

1933-09-28 잠방동진흥회 이회장의 미거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1933-09-29 빈촌의 진흥 위하여 오천원채권포기 [매일신보]|기사|07면|06단|

1933-10-09 7세 소아가 자동차에 중상 [조선중앙일보]|04면|08단|

▶김포행 자동차 치인 아이 골절중상

(영등포)지난 5일 오후 5시경에 김포자동차부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수 김선득(가명)이 조정하여 영등포를 떠나 김포를 향해 운전하던 중 김포와 시흥 경계선인 한강제방 도로상에서 김포군 양동면 염창리에 사는 오재봉의 장남 만성(8세)군을 치어 두 다리의 골절상을 입혀 운전수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엄중 취조중이라고 한다.

1933-10-19 혼잡한 가두에 스리가 횡행 [조선중앙일보]|02면|02단|

1933-11-02 김포군의 납세선전 군직원총출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33-11-09 란고동진흥회 금주단연 성과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33-11-10 김포군의 음주량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군의 음주량

(김포)김포군에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조선주류 소비량을 보면 탁주 5,231석, 약주 479석, 소주4,431석이다.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물경 133,700여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된다. 또 이것을 호별로 보면 매호당 13원70전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전년도 주조분량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바야흐로 경종을 울리고 있는 자력갱생 농촌진흥 운동에 자극되어 주민들도 금 주 또는 감주를 실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33-11-10 조서환발 10주년기념 주간의행사 [매일신보]|기사|08면|13단|**

▶민심작흥 기념일 김포군의 행사

조서를 봉덕하고 확수

(김포)김포군에서는 민심작흥에 관한 조서발표 기념일인 11월 10일을 중심으로 전후 1주일간 민심작흥일을 설정하고 각 관공서와 학교 그리고 기타 단체가 각기 다음사항을 실행하며 그 외에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정신의 고조를 도모하리라고 한다,

11월 7일 경신경조일

11월 8일 가족 상애일

11월 9일 생활개선일

11월 10일 극기 인고일

11월 11일 정리 정돈일

11월 12일 사회봉사일

11월 13일 보훈감사일

**1933-11-10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인사|04면|11단|**

**1933-11-12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인사|04면|10단|**

**1933-11-12 김포보교생의 소채품평회 [매일신보]|인사|04면|01단|**

▶김포보교생의 소채 품평회

지도상의 도착 퇴비도 심사

시식회도 개최

(김포)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농본국외에 건전한 제2국민의 양성과 생산증식운동의 하나로 이 학교 학생의 소채, 도착, 퇴비등 각종 품평회를 지난 9일에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소채류의 흥작이었음에도 그 성적이 양호함으로 참관한 부형들이 감탄하였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포상수여식에 들어가 덕전 김포공립보통학교 교장의 의미심장한 개회사를 비롯하여 김포군 기수 김우근씨의 심사에 의한 입상자 수여식을 마치고 시식회장으로 옮겼는데 아동들의 1년간의 땀 흘린 결정인 만큼 진미 100%로 내빈들의 늦가을 미각을 만족케 하였다.

**1933-11-13 교동구 정동진흥회 공경 [매일신보]|기사|03면|11단|**

1933-11-13 양촌면 납세성적 우량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양촌면 납세성적 우량

(김포)김포군 양촌면은 금년도 제2기 호세 징수성적이 가장 양호하여 12월 1일에 납부 고지서를 배부하였는데 이달 6일에 한 집도 체납이 없이 완납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납세성적이 양호하게 된 것은 이 김포군수 김 재무주임 이하 면직원들의 철저한 납세홍보의 결정으로 주민에 납세관념이 향상된 것과 각 진흥회 위원회 열성의 결과라고 한다.

1933-11-14 중견인물 양성으로 보교졸업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중견 인물 양성으로 보교졸업생 선발

21일부터 진흥강연회 개최

김포군의 진흥운동

(김포)농촌진흥운동에 철저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한 중견 인물에 부족을 절실히 체감한 김포군에서는 중견 인물을 양성하자! 라는 모토로 각 진흥회 담당자를 보통학교 졸업지도생 중 100여명을 선발하여 농촌진흥 강습회를 개최한다는데 강습생의 지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군내 고촌, 검단, 대곶, 양촌의 각 면은 30전, 기타 다른 면은 1원에 식비를 보조까지 하기로 하였다.

강사에는 좌백 도청직원, 이 김포군수, 강유 김포경찰서장, 이 사회주사, 양곡, 김포공립보통학교 교장등 제씨가 강사로 임명되었는데 장소와 시일은 아래와 같다.

제1회 김포공립보통학교 22일-23일

제2회 양곡공립보통학교 24-26일

1933-11-17 퇴호 재무부장 김포 시찰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퇴호 재무부장 김포시찰

12일 오후에

(김포) 퇴호 재무부장은 이번 정신작흥 주간과 납세의 날 실시 상황을 순시하기 위하여 권용차 도청 직원을 대동하고 지난 12일 오전 8시 경성을 출발하여 시흥, 수원, 인천, 부평 관내의 시찰을 마치고 귀도중 13일 오후 3시 30분에 김포군에 도착하여 군수실에서 북정 서무주임과 전 군직원의 정신작흥 주간 실시 현황을 청취하고 김 재무주임으로부터 납세의 날 실시 현황을 청취한 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김포읍 광폭 신도로 공사와 금릉조합 증축공사에 진척사항 및 김포군 대형연료 보급장려회가 경영하는 연탄제조 작업상황의 시찰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 자동차편으로 귀성하였다.

1933-11-18 대용 연료를 장려 분말석탄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대용연료를 장려

분말석탄으로 연탄제조로 착수

임업기술을 감독기수로 임명

### 김포군 당국의 고안

(김포)대용 연료를 보급하여 연료부족을 완화하고 한편 산림의 황폐를 방지하는 일거양득 명안-김포군은 자고로 임야가 협소하여 연료축적량이 적은만큼 군민은 연료부족으로 고통을 당하여 오던 중이다.

최근에는 퇴비연료와 가축의 사료 등에도 임야초를 이용하게 되어 임산물의 채취는 날로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산야에 황폐에도 극에 달하였으며 그 정반대로 부족량이 많아지는 연료의 부족은 직접 군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참상에 빠지게 되어 일반 식자 간에는 그 앞날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 군수 이원찬씨가 부임한 후로 군민의 생활을 안도케하며 한편 국토보존에 노력하겠다는 큰 결심을 가지고 대책강구에 부심하여 마침내 지난 10월에 가장 적절한 명안을 이루었으니 그는 수년전에 계획 실시 하였다가 연구부족으로 설계가 불안전하여 실패하고 중지하였던 연탄제조의 공급계획을 합리화하게 한 것으로 즉 기계설비와 제조기술에 정확을 도모하여 양호한 품질을 생산케하며 원료구입과 제조공급을 이상적으로 설계하여 생산비를 경감케하고 경제적으로 군민의 연료부족을 보충케 한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산림회 경기도 지부의 보조를 받아 먼저 각 관공서와 기타 연료소비량이 많은 군민유지를 규합하여 대용연료 보급장려회를 조직하고 이 김포군수가 회장에 취임하고 임업기술을 장려회 기수에 임명하여 직접 생산자로부터 분탄을 구입, 연탄을 제조하여 실비로 일반 수용가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연료가 비싼 본군에서는 이 연탄이 저렴하고 그 사용이 아주 간편하여 불을 때는 노력이 많이 줄어들어 이것 역시 일거양득의 경제적 좋은 실적을 낳았다.

이에 일반 식자 간에는 위대한 이 군수의 공적을 극구 찬양하여 그 공로에 감동하여 연탄의 주문이 쇄도하고, 장려회에서는 연탄제조 사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아직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충분한 기능을 발휘치 못하나 앞으로는 내용면에 충실히 하여 그 공급범위를 확장하여 점차 전 군에 보급하고자 한다.

1933-11-20 언쟁튼 십장 인부를 살상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6단 |

1933-11-21 향산부인단의 활약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3단 |

#### ▶향산부인단 활약

(영등포)갱생의 전도에 있는 조선 농촌의 부녀들도 오래된 인습을 용감히 타파하고 자력갱생 전선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이 사진은 김포군 농장 해주대삼랑씨의 열성적인 지도하에 인습타파, 생활개선, 근로호혜등의 슬로건을 세우고 작년 11월 조직된 고촌 향산부인단이 공동협조의 정신으로 피땀을 흘려 공동 경작한 벼를 베어 개량탈곡법에 의하여 조급기를 회전시켜 벼를 터는 광경으로 농촌진흥운동과 아울러 부녀자의 각성 동향을 말없이 설명하고 있다.

1933-12-01 김포군 농촌 진흥협의회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3단 |

#### ▶김포군 농촌진흥협의회

(김포)김포군에서도 진흥운동의 실천적 체험에 의하여 새로운 지도방침을 깊이 연구할 목적으로 제4회 농촌진흥위원회 토론회를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협의하였다.

1. 색복장려의 관한 건 2. 경제개생에 관한 건 3. 청소용 빗물저장고 설치에 관한 건 4. 소사육 장려의 건

#### 1933-12-04 김포서 사격대회 우승 축하회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 ▶김포서 사격대회 우승

축하회 성대히 개최

(영등포)김포경찰서는 요즘 도내 26개서(도경찰서 포함) 경점사격대회에 평균점수 46.3분의 최고 득점으로 영예의 우승기를 획득했다.

그리하여 27일 도경부에서 우승기 수여가 있었고, 28일은 김포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축하회를 개최하였는데 그간 일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 날은 일기가 청명하여 날씨도 이 기쁨을 축하해 주는 듯 하였다.

12시 30분 무덕관에서 개최된 축하회에서 입상자의 시상식이 있는 다음 강전 김포경찰서장의 인사와 이 군수의 축사가 끝난 후 오후3시 산회하였다.(사진은 우승기를 획득한 선수일동)

#### 1933-12-08 고촌면 보교 위치 결정 [매일신보]|기사|04면|11단|

##### ▶고촌면 보교 위치 결정(김포)

김포군 고촌면에 공립보통학교를 설치한 것은 기 보도한바와 같거니와 군 당국에서는 지난 5일 도학무과 길전 도청직원과 서도기수와 함께 교사 위치를 물색한 결과 고촌면 신곡리 면사무소 남쪽으로 선정하였는데 건축공사는 내년 봄 해빙기를 기다려 기공한다고 한다.

#### 1933-12-09 제1기 계획으로 가마니 백만매 산출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 ▶제1기 계획으로 가마니 100만장 산출

판로도 이군수의 활동으로 예약

김포군의 부업대책

(김포)전 경지면적 16,400정보에서 그 7할 이상이 군외 지주 소유로 그 나머지 2할 이상이 군내 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만큼 김포군의 경제상황이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 세계를 휩쓰는 불경기의 영향으로 군민의 생활은 극도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처참한 현실을 통감한 이원찬 군수는 군민의 빈곤한 생활을 부유케 하고자 각 방면으로 연구한 바 우선 부업을 장려하여 농가의 수입을 늘려 그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전임지인 강화의 직무를 모방하여 일반농가로 하여금 기계로 직물을 짜게 하는 동시에 산업조합을 창설하여 직물에 생산 공급을 원활하게 할 방침으로 이를 장려하여 현재 이에 참여한 농가는 60~70호에 달하였으나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실현하기

란 곤란한 만치 장차 그 실적을 보아가며 구체안을 신중히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행하고 저하며 우선 가장 간편한 농가의 부업인 가마니 짜기 장려에 주력하였다.

이전에 김포군에서 가마니 짜기 기계 4,250대로 연간 생산량 70만장을 생산하였던 것을 군내 농가 8,280호중 영세농가 5,600호에 가마니 짜는 기계 8,250대를 증설하여 연간 생산량 100만장을 생산할 계획을 수립하고 요즘 전매국 인천출장소와 소금가마니 35만장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지난 3일에는 인천에 있는 가등정미소와 소금가마니 50만장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도합 85만장의 인수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러한 현상으로 보면 최초 생산계획인 100만장은 무난히 소화하게 될 것이며 이 가마니 생산으로 농촌에 미치는 물질적 영향은 이 가마니 짜기에 참여한 농가의 수입은 한 장당 7전으로 100만장을 예상하면 년 7만원이라는 큰돈이 영세농가에게 돌아갈 것이다.

#### 1933-12-09 김포군내의 주류경쟁 해결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 ▶김포군내의 주류경쟁 해결, 김주임 알선으로

(김포)김포군에서는 이번 가을부터 경성 천일양조 제품인 약탁주가 김포로 유통되어 맹렬한 경쟁을 하여 군내의 각 양조업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어 군 당국에서는 그 대책강구에 몰두하던 바 이는 동업자간의 공중공영의 정신으로 상호 양보하는 구체안을 수립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으므로 김 재무주임은 그간 천일양조장 경영자를 설득하여 지난 6일 천일양조장 경영자와 김포주조조합 운영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아 종전의 경쟁을 일소하고 지난 15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가격을 협정 판매케 되었다.

탁주 1두 1원60전, 1되 18전

약주 1두 4원50전, 1되 50전

#### 1933-12-09 김포군의 도량형기 검사 3일부터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 1933-12-17 인부 1명 력사 [매일신보]|기사|07면|09단|

#### 1933-12-20 김포군 가마니 생산 계획 백만매 산출 결정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 ▶김포군 가마니 짜기 계획 100만장 산출 결정

각 면으로 산출량을 배정 장려

판로는 예약하고 실행

(김포)김포군은 부업대책 제1기 계획으로 가마니 100만장을 산출케하여 그 판로까지 예약하였다는 것은 기히 보도한바 있거니와 군 농회에서는 판매알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면별로 배정하여 장려한다고 한다.

<소금가마니>

면별 소화9년 할당매수

군내면 20,000장

검단면 20,000장  
 고촌면 10,000장  
 월곶면 210,000장  
 대곶면 220,000장  
 양촌면 300,000장  
 하성면 220,000장  
 계 900,000장

<비료용 가마니>

면별	천위	지위	계
군내면	20,000장	40,000장	60,000장
검단면	20,000장	40,000장	60,000장
고촌면	20,000장	40,000장	60,000장
양동면	10,000장	20000장	30,000장
양서면	10,000장	20000장	30,000장
계	80,000장	160,000장	240,000장

1933-12-20 김포 면장회의 [매일신보] |기사|04면|02단|

▶김포면장 회의

(김포)김포군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관내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다  
 음사항을 협정하였다.

농가경제 갱생계획 실시에 관한 사항 지시 및 협의  
 벼 저장시설에 관한 지시 및 협의  
 소화9년도 품종별 채종답 설치면적에 관한 지시  
 가마니 생산 장려에 관한 협의  
 지세징수에 관한 건  
 임야세 징수에 관한 건  
 공금보관에 관한

1934-01-03 진흥운동에 참된 공적자 [매일신보] |기사|07면|05단|

1934-01-16 농한기 이용하야 야학회 개설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1934-01-16 대경성의 실현재이 [매일신보]|기사|07면|02단|

1934-01-15 조선곡물 검사령에 의한 검사지 지정<조선총독부고시 제16호>

▶조선곡물검사소 지소 관할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지소·출장소의 소속 검사지정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중략> <김포출장소> 경기도 김포군 군내면-동군 군내면-월곶면 성동리와 고양리·양동면 목동리-김포군 일원-김포군 군내면·검단면·고촌면·대곶면·하성면·양동면

1934-01-20 김포공보교 농업강습회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김포공보교 농업강습회

(김포)김포공립보통학교는 영농법의 합리화와 견실한 신진 인물의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휴가를 이용하여 농사강습회를 개최하고 졸업생을 소집하여 농사법에 대해 강습을 하여왔는데 금년에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졸업생 40여명을 소집하여 농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수양 강화, 보통농사, 영농법, 채소, 비료 등에 관한 강습을 행하였으며 17일 수료식에서는 취미 100%의 유머경진대회를 행하여 당첨자에게는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시상하였다.

1934-01-21 김포군의 염료 공동구입 실시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34-01-21 작년중 김포군 연초 매상고 [매일신보]|기사|04면|13단|

▶지난해 김포군 연초매상고

(김포)한 모금의 연기로 사라지는 돈, 무려 김포군에서만 83,500여원의 거액이다. 전매국 김포판매소의 조사에 의하면 소화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초 매상고가 83,517원 84전의 거액에 달하였는데 지금 농촌진흥운동으로 소비절약을 부르짖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소에 나타나는 통계숫자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1934-01-23 김포군의 자작농 집단적 설정계획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김포군의 자작농

집단적 설정계획

군 당국과 금릉조합 연합하여 진행

토지도 염가로 매입

(김포)김포군은 본부 10개년 계획에 기준하여 소화7년도부터 매년 11호씩 자작농을 설정하여 왔는데 올해부터는 종전과 같이 산발적인 설정보다는 집단적 촌락을 단위로 설정을 하는 것이 그 성적이 양호함을 감안하여 이원찬 군수는 조창 금릉조합 이사와함께 경성으로 올라가 여러 방면으로 활동한 결과 40,000여원의 저리 자금을 융통하여 양서면 개화리 내촌진흥회, 고촌면 신흥리 장곡, 천등현 두 진흥회와 신흥리는 행정 진흥회 등 세 곳을 합쳐 100여호의 자작농을 설정한다 하며 이자는 연 8푼9리 가량 하여 15개년간 연부로 상환한다고 하며 또 토지 매입에도 지주와 누차 절충하여 평당 20전 내지 25전의 염가로 매입한다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자작농을 집단적으로 설정하기는 전 조선에서 처음인 만큼 일반 농민은 물론 각 분야의 사람들도 환성이 높다고 한다.

1934-01-24 김포군 각 진흥회 야학실시 [매일신보]|기사|05면|05단|

1934-01-25 김포군 농촌진흥위원회 [매일신보]|기사|05면|12단|

▶김포군 농촌진흥위원회

(김포)김포군은 군면 농촌진흥회 위원연합회의를 23일 오후 1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토의한 후 오후 3시에 산회하였다.

협정사항

- 1.농촌진흥회 부설 단체 명칭의 건
- 2.월례 개최 시각 변경의 건
- 3.기부금 사용의 건
- 4.우량농촌진흥회 표창의 건
- 5.우량 농촌진흥회 표창비 거금의 건
- 6.장기 벼 저장의 건
- 7.부채 정리의 건

1934-01-26 경기도내 신설 보교 3개 [매일신보]|기사|01면|05단|

▶경기도내 신설보교 3개

이번 경기도내에 신설될 공립보통학교 수는 3개교로 그 소재지와 학교명은 다음과 같다.

- ▲용인군 남사면 봉무리 남사공립보통학교(1월 30일 개교)
-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고촌공립보통학교(5월 1일 개교)
- ▲개풍군 진봉면 봉동리 진봉공립보통학교(4월 1일 개교)

1934-01-26 경기 3처 공보 신설 [조선중앙일보]|02면|07단|

1934-01-27 낙성식 비용을 진흥회에 기부 [매일신보]|기사|05면|08단|

▶낙성비용을 진흥회에 기부

도로수선에도 기부 많아

김포자동차부의 미거

(김포)김포자동차부는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는 낙성식에다 거액의 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 도리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진흥회에다 기부를 하여 이 운동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본부 사무소 신축 낙성식에 사용할 비용 500원을 김포군내에 각 진흥회에 기부하기로 정식으로 결정되어 이 김포군수에게 그 기부금이 전달되기까지는 성공미담이라고 할 일화가 허다하다. 그 중에는 사재 4-500원을 기울여 도로개수공사를 한일도 있고, 도로품평회에 현금 400여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 기타 김포군내의 공공사업에는 직간접적으로 시에 힘이 움직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한다.(사진은 신축한 자동차부와 대표 명진식씨)

1934-01-28 김포군 장학아동 표창식 [매일신보]|기사|05면|06단|

▶김포군 장학아동 표창식

김포군은 아동장학자금 사업규정에 의하여 표창할 아동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26일 천황폐하 성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각 학교가 일제히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표창아동

김포공립보통학교 제6학년 심명섭, 통진공립보통학교 제4학년 임인수, 양천공립보통학교 제6학년 이은명, 양곡공립보통학교 제4학년 윤기완, 하성공립보통학교 제4학년 양해덕, 대곶공립보통학교 제4학년 전한응

1934-01-30 시가에 갈 찬물업서 허위강도 고발 [매일신보]|기사|05면|11단|

1934-02-08 敬老會(경노회) [매일신보]|기사|05면|12단|

1934-02-12 기원가절에 영예의 표창자 발표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1934-02-22 국제 공산당 기소결정 [신한민보]|02면|02단|

1934-02-25 김포군 농촌연합협의회 [매일신보]|기사|05면|02단|

▶김포군 농촌연합협의회

(김포)김포군은 지난 21일 군 회의실에서 군, 면 농촌진흥위원회연합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

협정사항

- 1.농가 갱생 계획의 실행과 부락의 올바른 계획수립의 건
- 2.갱생부락 지도체계에 관한 건

1934-02-27 김포군 집회 일속 [매일신보]|기사|05면|12단|

▶김포군 집회일속

△김포군 검단공립보통학교는 23일 학예회를 개최

△양천수리조합은 23일 제5회 수도수확 품평회 상품수여식을 거행

△검단면은 24일 검단공립보통학교에서 농사강습회를 개최, 강사에는 군 기사 전우근씨

△김포금릉조합은 24일 조합회의실에서 평위원회의를 개최

△군내면은 24일 면회의실에서 면협의회를 개최

△검단면 여래농촌진흥회는 25일 남녀 가마니 짜기 경기대회를 거행

1934-03-05 강화 합일교에 김포군부 석탄 기부 [매일신보] |기사|04면|11단|

1934-03-06 김포군 제2기 지세 납부성적[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34-03-06 농민무용촬영 [매일신보]|기사|07면|10단|

1934-03-13 김포 양곡보교 학급연장 진정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김포 양곡보교 학급연장 진정

(김포)수년간 현안으로 내려오던 김포군 양곡공립보통학교 학급연장 문제는 이제 점차 노골화하여 신석영(양촌면), 권이옥(하성면), 심영택(대곶면) 세 대표는 본 지방의 특수 사정을 진정하기 위하여 9일 경기도청에 갔다고 하다.

1934-03-16 김포학교평의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김포학교 평의회 개최

(김포)김포군은 지난 12일에 군 회의실에서 학교평의회를 개최하고 <소화9년도 학교 비세입세출예산의 건>외에 5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오후 3시경에 폐회를 한 후 소연장으로 옮겨 술과 담소로 여흥을 즐겼다고 하다.

1934-03-16 주인 돈 훔치고저 인가에 방화소동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주인돈 훔치고 저 인가에 방화소동

욕심이 지나쳐, 김포서에 피체

김포 양곡리에서

(김포)김포군 양촌면 양곡리에 사는 신태근(19세)은 양서면 과해리 원세영씨의 집에 와서 기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 원 씨가 현금이 있음을 본 신태근이는 그것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이웃에 사는 김규우의 집에다 방화를 하여 그 소동 속에 원세영의 집이 빈틈을 타서 감쪽같이 현금을 절도하여 가지고 어디론지 종적을 감추어 버린 것을 지난 12일 양천주재소에 근무하는 김순사가 인천 거리에서 배회하는 신태근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1934-03-21 김포군농회 지주간담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5단|

▶김포군농회

지주간담회 개최

(김포)김포군농회는 17일 군 회의실에서 관내 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협의하였다.

협의사항

- 1.미납소작료와 대부금의 정리
- 2.소작료의 종류·수량·징수방법
- 3.소작료 이외의 소작인의 부담
- 4.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장려
- 5.마름의 지도와 훈련
- 6.소작계약 양식
- 7.지주와 군 농회와의 연락

1934-03-22 김포 각 보교 졸업식 [매일신보]|기사|04면|12단|

1934-03-25 자라나는 명일의 경성 대도시계획 [매일신보]|기사|06면|01단|

1934-03-27 김포군 각종 품평포상식 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34-03-27 부인조까지 출동한 김포군제입경기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부인조까지 출동한 김포군 가마니 짜기 경기, 특히 부인조에 금일봉 특상  
(김포)김포군은 가마니 짜는 군으로서 유명하여졌음은 일반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 농회에서는 더욱 그 지도 장려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가마니 짜기 경기대회를 18일  
군 회의실에서, 19일에는 통진공립보통학교에서 각각 성대하게 거행하였는데 입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부인참가조에게는 이군수로부터 금일봉에 특상까지 있었다고 한다.

입상자(김포지역)

1등 군내면 운양리 이문화, 이응교조

2등 검단면 마전리 홍재선, 홍재철조

이하 3등, 4등은 생략

입상자(통진지역)

1등 대곶면 대능리 이종환, 이종렬조

2등 하성면 전류리 심씨, 신씨(부인)

월곶면 귀전리 황인승, 황인호조

이하 3등, 4등은 생략

1934-04-07 경북제입 공로자 표창식 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34-04-08 향토예술의 자랑 [매일신보]|기사|07면|05단|

1934-04-09 우리의 향토예술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34-04-12 부업의 김포군 기업을 지도장려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부업의 김포군

기업을 지도 장려

군수 이원찬씨가 고심한 결과

최신기계 3대 구입

(김포)양잠, 양축, 가마니 짜기 등에 중요부업 이외에 직물업을 지도 장려하여 농촌에  
잉여 노동력을 소화하는 한편 필수품의 자급자족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안,

김포군은 전군민의 가장 보편적인 부업인 가마니 짜기 장려에 전력을 경주한 결과 <김  
포가마니>의 명성은 명실 공히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나 원래 김포군은 임야가 넓지 않고

주민의 대부분이 벚짚을 연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어 가마니 짜기 장려에 전도에는 원료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함으로 이원찬 군수는 이 부업대책 해결을 위해 고심하던 중 마침내 직물을 짜는 기술을 지도 장려 해야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1934-04-24 대만 수출용 표준 가마니 김포군서 제작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대만 수출용 표준가마니를 김포군서 제작**

이를 전 조선각지에 배부하여 견본이 되게 하다

(김포)대만으로 수출할 가마니에 표준가마니(견본가마니) 1천여 장을 제조하여 전 조선에 배부하는 동시에 135,000매의 생산이 김포군에 할당되어 <김포가마니의 명성으로 기업을 통하는 김포군> - 대만에서는 종래에 대만 쌀 포장에 마대를 사용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가마니를 처음 쓰게 되어 올 5월 제1기 쌀 포장용으로 전 조선을 통하여 60만장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김포군은 당국의 지도에 의하여 대만으로 수출될 가마니에 표준가마니 천여 매를 제작하여 전 조선에 배포하는 동시에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40일간에 경기도 할당매수 280,000매 중 약 반이 넘는 135,000매를 아래와 같이 면별로 배당하여 생산한다고 한다.

면별 배당 매수/군내면 5,000매, 대곶면 3,500매, 검단면 5,000매, 양촌면 15,000매, 고촌면 5,000매, 하성면 35,000매, 월곶면 35,000매 계135,000매

**1934-04-24 시흥, 김포 양군 부인견학단 조직 [매일신보]|기사|05면|03단|**

**▶시흥 김포 양군, 부인견학단 조직**

최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본보 영등포지국 봉사

(영등포)농촌부녀자에 상식 식견을 함양하고자 본보 영등포지국에서 부인견학단을 조직하는 것은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그간 김포자동차부와 임금타협이 지연되어 임금발표도 늦게 되었으며 견학일자도 연기되었는데 그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견학일시 5월 1일, 2일 양일간 2.견학장소 경성방적회사

**1934-04-26 김포 농촌진흥으로 부녀강습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김포농촌진흥으로 부녀강습회 개최**

각 면을 단위로 실행

(김포)김포군은 농촌부녀자에게 농촌진흥의 요지를 철저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각 면을 단위로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그 일정과 개최 장소는 아래와 같다.

면명            일시            개최장소

양동면 5월 1일 오전 10시 양천공립보통학교

양서면 5월 2일 오전 10시 양서면사무소

고촌면 5월 3일 오후2시 고촌면사무소

군내면 5월 4일 오후2시 김포공립보통학교

검단면 5월 5일 오후2시 검단공립보통학교  
양촌면 5월 6일 오전10시 양곡공립보통학교  
대곶면 5월 7일 오후2시 대곶공립보통학교  
월곶면 5월 8일 오전10시 통진공립보통학교  
하성면 5월 9일 오후2시 하성공립보통학교

1934-05-04 김포군수 외투 도난 [매일신보]|기사|07면|03단|

▶김포군수 외투 도난

김포군수 이원찬씨는 수일 전에 경기도청에 용무가 있어 상경하였다가 도청안 휴게소에 걸어둔 레인코트를 어떤 자에게 절취를 당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종로경찰서에서는 방금 그 범인을 수색중이라고 한다.

1934-05-09 사기결혼 당하고 분개방화 [매일신보]|기사|05면|12단|

1934-05-12 김포상공진흥회 총회 [매일신보]|기사|05면|11단|

▶김포상공진흥회 총회

(김포)김포상공진흥회는 8일 오후2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행면씨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김용문씨의 경과보고가 있는 후 임원개선과 회칙개정을 마치고 <회원출석에 관한 건> 외에 여러 항을 협의하고 강전경찰서장과 이원찬군수의 축사가 있는 후 폐회하고 일등은 소연장으로 옮겼는데 당일 새로 선출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정행면, 부회장 박일량, 이사 김용문, 송명성, 평의원 중필모 외 9인

1934-05-12 코스모스 파종 [매일신보]|기사|05면|11단|

▶김포도로변에 코스모스 파종

(김포)연장 45키로나 되는 도로양측에다 한말 너 되는 많은 양의 코스모스 종자를 파종하여 농촌에 미화를 도모하는 김포군-김포군은 농촌미화의 한 방법으로 관내의 3등도로 양측에다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군 면직원은 물론 관내 농촌진흥회를 총동원하여 일제히 파종하였다는데 나무가 시들어가는 가을! 우수수 잎이 지는 그때에도 붉은 꽃과 흰 꽃이 서로 뽐내며 무르녹아 문자 그대로 낙원을 이루리라 하며-김포군수 이원찬씨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파종만으로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각 학교 아동과 농촌진흥회의 월례회를 이용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게 하는 동시에 꽃에 대한 애착심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1934-05-15 고촌보교 개교식 20일부터 거행 [매일신보]|기사|05면|03단|

▶고촌보교 개교식 20일부터 거행

(김포)김포군 고촌공립보통학교는 그간 제반 설비가 거의 정리되었으므로 오는 15일부터 학업을 시작하고 개교식은 20일에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이 학교의 직원은 교장 대송장삼랑, 훈도 한병목씨라고 한다.

이 학교가 개교하기까지는 이 면 주민의 희생적인 원조가 컸음은 물론 멀리 경성에 거주하는 김재성씨는 천여 평의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면민의 칭송이 자자하고 이로써 김포군은 한 면에 한 학교를 두는 제도가 완성되었다 한다.

1934-05-15 주점의 도박차 검거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1934-05-21 기구한 노과부 생활난 자살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34-05-21 당목 훔친 도적놈 소녀강간타 피체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당목 훔친 도적놈 소녀 강간하다 피체

11세 소녀를 강간하다가 동민에게 현장에서 발각

(김포)지난 15일 김포군 대곶면 율생리 사는 이수남(38세)은 양곡시장 이하용 상점에서 당목 1필을 절취하여 돌아가는 길에 양촌면 구래리 동산에서 이 동리 박모씨의 딸 정자(11세)를 만나 치받치는 짐승 같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드디어 앞서 절도한 당목으로 소녀의 얼굴을 가리고 잠깐 짐승 같은 욕정을 느끼다가 동리 사람에게 발각되어 짐승 같은 욕정의 꿈은 마침내 김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깨웠는데 이 경찰서는 절도, 소녀 강간미수죄로 엄중 취조하는 한편 18일 오 부장과 이 형사가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한다.

1934-05-22 김포고촌보교 개학식 거행 [매일신보]|기사|05면|05단|

▶김포 고촌보교 개학식 거행

(김포)김포군 고촌공립보통학교 개교식은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학교 내에서 각 관공서 기타 유지 여러분과 많은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는데 학교 교장인 대송상람씨가 식사를 위시하여 도지사의 고사와 이원찬 김포군수, 강전 김포경찰서장, 덕산 김포공립보통학교 교장, 추길 양천공립보통학교 교장 등의 축사가 끝난 후 이날 오후 1시 일동은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4-05-23 3군 18동을 편입 200만 인구 도시건설 [조선중앙일보]|02면|01단|

1934-05-23 지력증진 위해 심경법을 장려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34-05-26 김포군 양곡리 전등가설 운동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김포군 양곡리 전등가설 운동

(김포)김포군 양촌면 양곡리는 군내 상업의 중심지이며 하나밖에 없는 물산의 집산지로서 명실공히 작은 읍을 이루었으나 다만 한 가지 유감인 것은 불야성을 자랑해야 할 근

대 상가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전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침침한 램프가 상점 앞에서 즐고 있는 것처럼 칙흑같이 어두운 상가지역에 대하여 지난 18일 이곳 주민들 대표 60여명이 회합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등가설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신석영씨를 대표로 선정하여 경성전기주식회사와 직접 교섭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다고 한다.

**1934-05-31 김포군 초등 교장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김포군 초등교장 회의 개최

(김포)김포군 군내 공립초등학교장 회의는 지난 28일 오전 11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향토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경영에 관한 건>외 9가지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이날 오후 3시에 산회하였다.

**1934-05-31 촌부의 수황증 김포서에 피검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김포자동차부 승합차, 논에 추락 전복, 다행히 승객은 무사, 풍무리에서 질주 중

(김포)지난 27일 오후1시 30분경 김포자동차부 승합차 자동차번호 경제4079호 운전수 민용석(31세) 민용석이 승객 9명을 태우고 군내면 풍무리 3등도로 위를 달리던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서 급정차를 하였으나 탄력에 의하여 마침내 승객을 태운 그대로 물이 있는 논 옆으로 전복되었는데 다행히 승객은 월곶면 군하리 이기종씨가 경부에 작은 찰과상을 입은 외에는 무사하였다는데 소관 김포경찰서에서는 추전 부장이 현장을 인검 하였다.

**1934-06-01 세워둔 보트를 김포가서 賣喫(매깅) [매일신보]|기사|05면|07단|**

▶세워둔 보트를 김포 가서 팔아먹으려다 청룡환 유선구락부의 수난

범인 도전은 검거

(김포)보트업자의 공황시대-경성부 원정 사정목 99번지에 사는 도전정양(19세)은 지난 18일 오전 8시경에 한강인도교 밑에 있는 청룡환 유선구락부에 보트 한 척을 세내어 타고 이날 오후 8시경에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에 와서 자기 배라고 하며 팔아먹으려다가 시운이 다하여 방금 김포경찰서에 신세를 끼치고 있다고 한다.

**1934-06-02 김포군 농진 표창식 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김포군 농진 표창식 거행

(김포)김포군 우량농촌진흥회 표창식과 도 농회 독농가 표창식이 지난 27일 빛나는 해군 기념일을 맞이하여 군 회의실에서 다수의 내빈이 참석 하에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전 직원 개회사를 비롯하여 지사의 지시사항 낭독과 표창장 수여, 이 위원장의 식사가 있을 후 수상자 총대표 여래리 농촌진흥회 회장 임흥규씨에 답사가 있을 후 폐회하였는데 당일 표창한 진흥회와 독농가는 아래와 같다.

<우량진흥회> 1등 금 15원 : 월곶면 동막농촌진흥회, 2등 금 10원 : 검단면 여래농촌진흥회, 양촌면 곡촌농촌진흥회, 하성면 소곡농촌진흥회, 3등 금 5원 : 대곶면 농촌진흥회, 고촌면 은행정농촌진흥회, 군내면 양도농촌진흥회, 양동면 오금농촌진흥회, 양서면

내촌농촌진흥회, <독농가> 검단면 대곡리 이정하

1934-06-02 김포서 사격회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김포서 사격회

(김포)김포경찰서는 지난 31일 오전 7시부터 실록이 무르익은 신사 산 사격장에서 춘계 사격대회를 거행하였는데 이날 성적은 아래와 같다.

1등, 원전진웅 2등 원전평차, 3등 추전희태랑, 4등 평산화부, 5등 본지영치, 6등 장곡 천호, 7등 등 우수, 8등 박육목

1934-06-07 김포군 잠건공판소 1개소를 신설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김포군 누에꼬치 공판소 1개소를 신설

지리 관계로 양곡시장에 설치

통진 방면을 상대로

(김포)김포군농회의 알선으로 봄 누에꼬치 공동판매소를 종래에는 김포읍 1개소에서만 운영하여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누에치기 농가의 분포상황과 기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양촌면 양곡리 시장에도 누에꼬치 판매소를 신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통진방면에 양잠 농가는 아주 편리하게 되었다 하며 공동판매일 기일은 아래와 같다.

김포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양곡리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1934-06-09 인천지청 문제 부활준비 진척 [조선중앙일보]|05면|04단|

1934-06-14 秧歌爭唱(양가쟁창)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1934-06-23 김포탁아소에 공의가 순회 [매일신보]|기타|05면|09단|

▶김포탁아소에 공의가 순회

(김포)농번기를 맞이하여 부녀자의 옥외 노동을 장려하는 한편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김포군은 각 농촌진흥회를 경영주체로 하여 탁아소 설치에 노력한 결과 총 91개소나 되며 수용아동수가 3,113명이나 되는 많은 아동들을 제일 바쁜 모내기시기에 약15일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탁아소에는 양철복과 그네를 비치하고 아동들의 여름철 위생을 위하여 공의로 하여금 각 탁아소를 순회하여 아동들의 건강진단을 한다는데 이는 현 농촌의 적절한 시설인 만큼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

1934-06-24 김포군진흥회 야학강사강습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김포군진흥회, 야학 강사 강습 출석 93명으로

(김포)김포군농회 주최로 진흥회 야간 강습회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김포공립보통 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강습생이 93명이나 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1934-06-25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타|04면|11단|

1934-06-26 지나가는 괴한 의외의 대적 [매일신보]|기사|07면|07단|

1934-07-03 처일코 남의 집에 방화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1934-07-08 김포군농회 산업연합회의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1934-07-09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및 인구<조선총독부 고시 제355호>

▶1933년 말 현재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는 다음과 같다. 1933년 7월 9일  
(지역)조선인 호구·인구수-일본인 호구수·인구수-외국인 호구수·인구수)  
<중략>김포군9,814·54,360-84·292-46-9,902·54,659

1934-07-10 농촌경제로 보아 축우생사를 장려 [매일신보]|기타|04면|03단|

▶농촌경제로 보아 축우 생사를 장려  
연료와 시간의 이득이 많고  
축우도 더욱 건실

(김포)농촌진흥은 축우의 증식으로부터! 소의 증식은 생사로부터! 라는 표방 밑에서 생육의 대대적인 장려를 행하는 김포군-원래 축우는 먹이를 자연그대로 먹이는 것이 신체 구조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 소화와 영양상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소를 키우는 수고를 덜어주는 한편 연료까지 절약하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나 일반 농가는 오랜 인습과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소기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김포군은 그 장려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제등기수를 초빙하여 각 관공서 직원 및 중견청년등 100여명을 참석케하여 생사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김포 이 군수, 관야주임, 조원축산 기수 등 여러 사람이 제일선에서 각 진흥회를 단위로 하여 생사 야간강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농가는 자못 기대가 높다고 한다.

1934-07-12 김포군 장촌면 흥회장 총회 [매일신보] |기사|05면|04단|

1934-07-13 영등포 주조조합 주가협정 [매일신보]|기사|05면|09단|

1934-07-14 김포서 의생강습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3단|

▶김포서 의생강습회 개최

(김포)김포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의생강습회를 개최한다는데 강사에는 강전 김포서장과 한 공의 두 사람이라고 하며 강습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생리학 및 위생학 대의
2. 일반 전염병 및 지방병의 특징과 그 예방법

3. 소독약의 종류와 그 응용
4. 의생규칙과 약품취급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규
5. 중두술, 구급법, 붕대법 기타 간이 기술
6. 침구술에 대한 주의
7. 미신적 요법과 위험요법의 교정

1934-07-27 박오창씨 영전 [매일신보]|기사|05면|06단|

1934-08-06 안동이재민 철저한 구조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34-08-08 김포군 산업협회의 자금비료증산을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34-08-09 경전이 강화도 통진에 전기공급 [동아일보]|04면|03단|

▶강화군 부내면 및 선원면과 김포군 월곶면 지방의 주민이 수년간 전기를 요망하고 있었으나 변추의 지로써 이때까지 전기에 은혜에 욕치못하였는데 이번 경성전기가 이 지방을 공급구역에 편입하고 군내면의 신곡리 발전소로부터 약이십육천의 보통고장배선을 연장하여 전기를 공급하기로 되었다 한다.

1934-08-10 증견청년 일야강습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1934-08-13 김포 지주협의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김포지주협의회 개최

(김포)김포군농회는 관내 지주와 마름협의회를 개최하여 벼건조, 조제, 개량과 아울러 공동판매에 관한 건과 <벼건조에 관한 건>과 <벼건조 조제개량에 따른 소작벼의 할당과 장려교부에 관한 건> 외에 여러 항목의 사항을 협의하리라는데 시일과 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주협의회>

8월 10일 월곶면사무소

8월 11일 양촌면사무소

8월 12일 양동면사무소

8월 13일 군내면사무소

<마름협의회>

8월 15일 월곶면사무소

8월 16일 양촌면사무소

8월 17일 양동면사무소

1934-08-17 조선은 인정나라 붓드자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조선은 인정의 나라

붙들자, 일으키자

80노파의 3칸 집 폭풍우에 파괴

면 구장 발기로 신축해 주어

김포군 동변리의 미풍

(김포)인간 세태는 나날이 야박하여 가기만하는 이때 가련한 노파를 싸고도는 눈물의 동정미담 하나-

김포군 군내면 동변리에 사는 이소사(80세)는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고 주위에 도와 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이 곤란하여 남의 집을 찾아다니며 결식으로 그날 그날을 지내오던 중dlek.

설상가상으로 노파의 전 재산인 동시에 생명선인 3칸 떼집이 이번 장마에 무너져 동네를 방황하는 참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여 이 참상을 접한 군내면장 윤병희씨, 동리 구장 황도수 두 사람이 발기로 100호 동민이 일치단결하여 매호당 재목 두 세 개와 집(곡초) 한두 단씩 모아서 새로 4칸의 작은집을 건축 중이라고 한다.

또 가옥이 완성될 때까지 이소사 노파의 침식을 마을 유지들이 돌아가면서 공급한다는 바 동리 사람들의 따뜻한 동정심에 의하여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노파는 물론 동리 주민들도 동변리의 아름다운 미풍을 찬양하여 마지않는다고 한다.

1934-08-19 김포군 연초소매인 조합 정기총회 [매일신보]|기사|05면|04단|

▶김포군 연초 소매인 조합 정기총회

(김포)김포연초소매인조합 제3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김포공립보통학교에서 전매국 직원 청민정, 이 김포군수 외에 많은 내빈과 180여명의 조합원이 출석한 가운데 조합장 김용문씨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매지국장의 훈사와 우량소매인 표창자의 상품 수여식이 끝난 후 청민정씨의 강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는데 이날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검단면 왕길리 정희순, 하성면 신리 김원규, 군내면 북변리 채경옥, 양촌면 대포리 최영웅

1934-09-15 김포교육회 총회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3단|

1934-09-16 김포군기업고속도로 증가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34-09-19 김포곡검출장소 곡물업자 간담회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곡검출장소, 곡물업자 간담회

(김포)인천 곡물검사소 김포출장소 주최로 곡물과 가마니 업자 간담회가 14일 오전 11시부터 중토소장의 개회로 시작하였는데 이 날 간담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곡물건조에 관한 건, 2. 건조정도에 관한 건, 3. 포장에 관한 건, 4. 수검운반 및 장치장에 관한 건, 5. 조합설립에 관한 건

1934-09-27 노동임금으로 이재동포 구제 [매일신보]|기사|05면|06단|

1934-10-03 거동진흥조합에 쾌종을 기부 [매일신보]|기사|05면|02단|

1934-10-03 조선연극회 김포에서 흥행 [매일신보]|기사|05면|07단|

▶조선 연극회 김포에서 흥행

(김포)영등포, 인천 등지에서 순회 흥행하여 일반 연극 팬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음은 물론 극단의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남쪽 수재민 구제와 지방 사회기관에 회사하여 여러 곳에서 찬성이 자자한 극단 조선회 단장 이삼숙 외 남녀배우 30여명은 강화에서 1주일간 성황리에 흥행을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3일간은 김포읍내 가설극장에서 현대극 <800호 가판상>과 향토극 <아리랑> 흥행가치 100%의 각본을 골라서 일반 손님을 맞이하리라고 한다.

1934-10-09 본보 김포분국의 독자위안의 밤 [매일신보]|기사|05면|11단|

▶축 매일신보 <본보 김포분국의 독자위안의 밤>

추첨으로 상품 진정

(김포)본보 김포분국은 이곳에서 지금 흥행중인 극단 조선연극회가 주민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인기리에 흥행중임을 이용하여 3,4,5,6일 4일간 <독자 위안의 밤>을 개최하고 본보 독자 한하여 무료우대권을 매일 배부 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있거니와 4일간 동안 매일 평균 입장자가 800-900명을 돌파하는 김포에서는 다시없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이 극단과 본보 분국에서는 이번 흥행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고 주민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겨두기 위하여 경품추첨을 매일 시행하였는데 상품은 아래와 같다.

1등 매일 1인씩 밀가루 1포대(3일), 의장 1대(4일), 시계 1개(5일), 백미 한석(6일), 2등 매일 1인씩 경대 1대(3일), 치마, 저고리 1감(4일), 밀가루 1포(5일), 밀가루 1포(6일), 3등 이하 10등까지 생략(사진은 조선연극회 일행)

1934-10-09 김포군 면장 협의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5단|

1934-10-11 경성부 행정구역에 편입 될 군부지역 [매일신보]|기사|07면|05단|

▶경성부 행정구역에 편입될 군부지역

고양 2활 시흥 1활5부 그 외 김포는 산1좌

경성부 도시계획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행정구역확장협의회가 어제 보도한바와같이 8일 오후 1시 반부터 경기도 고양군, 시흥군 각 경찰관, 소방서등 관계인 30여명이 참석하여 경성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경성부 당국에서는 도시계장이 조사한 계획내용을 설명하고 일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날 오후 5시경에 폐회하였는데 이 행정구역에 가입되는 지역은 고양군 2활, 시흥군 1활5부 그 다음 김포군의 산 하나라고 한다.

1934-10-11 김포군 면사무 연구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5면|03단|

1934-10-12 성동리 노변에는 코스모스가 爭妍(쟁연) [매일신보]|기사|05면|11단|

▶성동리 노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

(김포)김포군은 농촌의 미화작업의 하나로 관내 3등도로(영등포-성동리간 연장 12리) 양측에다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음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다. 지난달 하순부터 한송이 두송이 피기 시작하여 요즈음에는 붉고 흰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어 행인으로 하여금 피로를 잊게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농촌미화의 의의를 통감케 된 일반 민중은 군수 이원찬 씨를 찬양하여 마지않는다.(사진은 노변의 코스모스와 이 군수)

1934-10-16 조선노동자동맹 노사석 등의 공판 [조선중앙일보]|02면|04단|

1934-10-18 세상의 악한 아비 [조선중앙일보]|04면|05단|

1934-10-21 망동진흥조합 업적이 날노 증진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34-10-24 거짓 訃告(부고) 장비사기 [매일신보]|기사|07면|08단|

1934-10-24 멀쩡한 사람을 죽었다고 속여 [조선중앙일보]|02면|11단|

1934-10-26 인사 [조선중앙일보]|01면|12단|

1934-10-27 계관도 놀내는 교묘한 사기 파산당하다 [매일신보]|기사|06면|01단|

1934-10-27 청년상인이 사기로 피검 [조선중앙일보]|0면|05단|

1934-10-28 김포군 고산하리 부인회의 업적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김포군 고산하리 부인회의 업적

갱생의 의기는 실로 충천

공경공예도 실시

(김포)전통과 인습에 파무쳤던 고산하리에 명랑하게 들려오는 갱생행진곡!

김포군 김단면 원당리 고산하리 진흥회 부설 부인회는 지난 24일 공동으로 경작한 벼를 베었는데 오랫동안 인습에 젖었던 부인들이 자력갱생을 자각하여 노래를 맞추어가며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은 갱생운동에 위대한 실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 동네는 금년도 갱생계획촌락이 된 이래 이 동네 동장 김봉협씨와 진흥회장 김중성씨 청년회장 김낙동씨 등 세 사람의 지도하에 온 동네가 일치단결하여 갱생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바 불온간 김포제일의 우수 촌락이 되리라고 일반 주민들은 기대가 자못 높다고 한다.(사진은

부인회 베틀 배기 광경)

1934-10-28 김포군 양촌면 산업협의회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김포군 양촌면 산업협의회

(김포)김포군 양촌면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면회의실에서 면내 각 이장, 구장, 진흥회장, 지주마름 60여명을 소집하여 산업협의회를 개최하고 농지령 해설과 기타 사항을 협의하였다.

1934-11-01 김포군에서 인검사 실습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군에서 베틀검사 실습

(김포)김포군은 이번 본부령으로 발표된 조선벼 검사 규칙을 일반에게 철저히 이해시키기 위해 지난 25일에 각 면 담임서기와 기수 지도원을 소집하고 본 규칙실시에 대한 실행방법을 협의하는 동시에 베틀 감정 연습 및 포장방법을 배워 익히게 하였으며 따라서 각 면에서는 부락마다 본 규칙시행에 대한 취지와 실행방법을 배워 익히게 하리라고 한다.

1934-11-01 김포 양곡 소조발회식 [매일신보]|기사|05면|03단|

1934-11-05 이종석씨의 특지와 보인교운의 융창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이종석씨의 특지와 보인교운의 융창

어렵던 교운을 융창케 만들어

감사의 송덕비 건립

부내 수창동 보인보통학교는 현 설립자 이종석씨의 특지회사로 작년 여름쯤에 기본재산 5만원의 재단법인 인가를 받고 보통학교로 승격되었음은 이미 보도한 바 있다.

그 후 설립자 이종석씨는 이 학교에 기초를 공고히 하고 규모를 정비하는데 전력하였으며 이 봄에 다시 3,500원의 현금으로 학교와 연결한 8필지의 토지를 사들이고 교지를 확장하는 동시에 연화 2층집 150여 평의 교사를 증축하여 10월말에 준공을 하였다.

금년 여름에는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소재에 있는 연 수확 300여석이 되는 전답을 사들여 기본재산을 늘려 학교의 기초를 태산과 같은 반석위에 올려놓았고 이와 같은 이 씨의 특별한 뜻은 조선교육계에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다.

그간 이 학교와 관계되는 유지들은 이 씨의 특별한 뜻에 감격하여 이씨의 송덕비를 이 학교교정에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에 건립이 완성되어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이 학교 교정에서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1934-11-06 강화에 전등가설 12월경에 실현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강화에 전등가설, 12월경에 실현

연선에 있는 김포군 각 처에도 동시에 가설을 희망

(김포)전등화하는 통진 지방-경성전기주식회사는 이전부터 인천근해에 산재한 여러 섬

에 송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간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짜오던 중 제1차 계획으로 강화도에 송전하기로 되어 총공사비 10만여 원의 예산으로 김포 강화간 연장 30키로의 공사를 급년 6월부터 착수하여 방금 착착 진행 중인데 늦어도 12월 하순경에는 실현된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김포 강화간 연선에 있는 김포군 양곡리, 마송리, 군하리 3개 부락 주민들은 전등설치 기성회를 조직하여 경성전기주식회사측에 수차례 진정까지 하는 등 맹렬한 운동을 하였으며 이제 경성전기주식회사 측에서도 구체적인 입안을 보게 되어 오는 1일 경성전기주식회사 본사로부터 영업계 주임 원중극기 수금계 주임 판목무 두 사람은 김포 윤병희씨와 함께 양곡리, 마송리, 군하리 3개소에 출장하여 점등수를 조사하는 동시에 수금인 계약까지 완료하였다.

늦어도 12월 초순에는 통진 방면에 전기가 들어오리라 하며 이날 조사한 점등수와 수금계약인 성명은 아래와 같다.

양곡리 200등 조용한, 마송리 80등 심상덕, 군하리 70등 최복용

1934-11-06 중간 이득 안 주기 위해 농민이 직접 매곡 [조선중앙일보]|02면|03단|

1934-11-06 객주입자에 대타격, 인천 경기도 좌우 [조선중앙일보]|02면|04단|

1934-11-07 김포군 소작위원 [매일신보] |기사|05면|10단|

▶김포군 소작위원

(김포)김포군 소작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위원 : 강전충웅(김포경찰서장), 관야구지족(내무주임), 한백형(금릉조합장), 심기덕(양천수리조합 이사)

예비위원 : 전구등오랑(김포경찰서 경무주임), 조창일미(김포금릉조합 이사), 한정현(유지), 박근춘(군속),

서기 : 박근춘(군속), 강태연(군속)

1934-11-14 파선된 범선의 사망자 판명 [조선중앙일보]|02면|01단|

1934-11-19 3각 총들의 교통진 사고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34-11-21 소년절도 피체 [조선중앙일보]|02면|07단|

1934-11-29 뱃속 검은 뱃사공놈 [매일신보]|기사|06면|04단|

▶뱃속 검은 뱃사공놈

비바람이 몹시 부는 27일 새벽 1시경 총독부 앞 넓은 거리로 행동이 수상한 1명이 지나가는 것을 종로경찰서원이 발견하고 체포하였는데 취조한 결과 그 자는 본래 중립동 315번지 70호에 사는 김규남(26세)으로서 지난 17일 김포군 하성면 양택리 조재영이가 벼

아홉 석을 팔아달라는 것을 배에다 싣고 마포방면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해륙물산 이희조에게 260원에 팔아가지고 그대로 달아나려던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여죄도 상당한 듯함으로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한다.

1934-12-01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타|06면|11단|

1934-12-14 김포금릉조에서 수요품 공구 조합원을 위하여 [매일신보]|기타|05면|01단|

▶김포금릉조합에서 수요품 공구

조합원을 위하여

(김포)김포금릉조합은 2천2백여 조합원의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필수품의 공동구입을 계획 중이었는데 요즈음 일반 농가의 김장철을 기회로 그 첫 시험으로 인천에서 호령(중국소금) 286가마를 공동구입하였는데 시장시세보다 매가마당 20전씩이나 저렴하게 되어 그 결과가 양호하게 되었으므로 또 계속하여 소기의 공동구입을 하는 동시에 이 사무를 전적으로 맡아 담당 처리할 서기 1명을 채용하여 점진적으로 필수품의 공동 구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또 구정 말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마른 명태, 곤포(다시마), 해의(김)등 공동구입을 하고자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성적도 양호하다고 한다.

1934-12-14 농촌진흥의 암인 고리채 정리 진보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1934-12-15 광부 임금 갖고 도주한 덕대 [조선중앙일보]|02면|08단|

1934-12-16 와촌동진흥회 성적 양호 유범석씨 진력으로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34-12-28 한강연안이 김포군 연료공황시대 현출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한강연안인 김포군 연료공황시대 현출

(노전도 치수로 일체 경지화 평야지대의 비에)

(김포)연료공황 시대인 김포지방-

본군은 한강연안에 전개된 평야지대로서 임야면적이 불과 13,238정보인데 경지면적에 비하면 약3,000정보나 적다. 또 이것을 임상별로 보면 임목지 7,942정보, 산생지 2,367정보, 일미임목지 1,319정보, 기타 1,610 정보로서 실제 연료에 이용되는 곳은 약 8,000정보의 임목지 뿐이라 한다.

또 농가호수는 8,201호중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2,408호이며 관리자 1,630호를 제외한 4,163호(5할 이상)는 임야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연료를 얻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모든 노력을 이에 소비하는데 한강연안에 사는 약500호 가량은 연안황무지에 있는 갈대를 근근이 연료로 대용하여 왔는데 이것마저 한강의 치수공사로 인하여 대부분이 경작지로 되어버려 종래의 23%도 연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평야지대에 거주한 약1,000호는 곡초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이것도 퇴비와

가마니 짜기 등으로 곡초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있어 농가에 연료난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쌀은 있으나 나무가 없어) 슬픈 이야기는 차마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또 이 반면에는 필연적으로 시탄대가 폭등하여 술값 한속(약2관) 18-20전, 풀한 묶음에 10-15전, 장작 100근에 1-1원50전이라는 고가인 즉 임야를 갖지 못한 영세한 농민층은 이것을 사들일 가망은 전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연료공황 시대를 만난 김포지방의 영세민층은 전전긍긍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1935-01-17 김포의 살인범, 김갑쇠 사형 구형 [조선중앙일보]|02면|01단|

1935-01-22 김포군 교장회의개최 [매일신보] |기사|05면|03단|

1935-01-22 김포 살인강도, 김갑쇠 사형 언도 [조선중앙일보]|02면|01단|

1935-01-24 한서흥업회사 발기인회 개최 [매일신보] |기사|03면|02단|

1935-01-26 인부에게 매맞고 제소한 청부업자 [조선중앙일보]|02면|06단|

1935-01-31 색복 착용자기 9할4분 [조선신문]

1935-02-09 농촌의 암 점차 제거 자력갱생의 효력현저 [매일신보]|기사|05면|01단|

1935-02-24 책사러간 소년이 실종 된지 1개월 [조선중앙일보]|02면|05단|

1935-03-09 익사자 3명 중, 선부 시체만 발견 [조선중앙일보]|02면|01단|

1935-03-26 경기도의원 김포시찰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경기도 의원 김포시찰

갱생부락 기타, 당일로 귀성

(김포)경기도회 의원 일동은 김 산업부장 인솔 하에 지난 23일 오전 9시 경성을 출발하여 11시 김포에 도착하여 약 30분간 김포군 경제갱생부락인 군내면 풍무리 선수동 진흥회를 시찰하고 이날 11시30분 강화로 향하였는데 일행은 김포에서는 농업, 강화에서는 공업, 인천에서는 수산을 시찰하고 이날 오후 7시경에 귀성하였다.

1935-03-28 기직김포의 이상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기직 김포에 이상

(김포)농촌부녀인 잉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한편 연료난을 완화케 하는 김포군에 기직장려- 김포군 군내면 직물조합에서는 지난달 13일부터 약2개월간 군 회의실에서 직물강

습회를 개최하고 남녀 50여명이 매일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기직김포)를 이룩하여 새로운 역군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한다.

1935-03-29 경기도 의원단 강화를 시찰 [매일신보] |기사|04면|02단|

1935-03-30 가마니 시장 이전에 반대운동 [매일신보] |기사|04면|11단|

▶가마니시장 이전해 반대운동 맹렬

김포군 하성면에서

(김포)김포군 하성면 가마니 시장문제를 싸고도는 기분 나쁜 저기압-군 농회에서는 가마니시장이 마곡리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희생하고 있는 운임 장당 3리를 없애기 위하여 가마니의 직접 반출 장소인 하성면 신리에다가 가마니시장 1개소를 더 증설할 방침인데 반대 측에서는 각 관공서가 있는 소재지이며 날마다 발전 향상되고 있는 마곡리 시장의 사황이 걸린 문제라고 하여 맹렬한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의 사실상 열쇠를 쥐고있다고 볼 수 있는 검사소의 태도가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들은 즉 이 검사소에서 신리 증설에 대하여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며 주민의 대변자인 면장은 양쪽이 다 일리일회가 있으며 지리적으로 남북주민의 주장이 다르니만큼 결정적인 재단을 내리지 못하고 진퇴유곡에 빠져있다고 한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일반 주민들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

1935-03-31 김포군 마곡리 입시장 [매일신보] |기타|06면|01단|

1935-04-05 재귀열에 걸린 영등포 토지 [매일신보] |기사|05면|05단|

1935-04-08 단침히 선거에 득히총통 진출 [매일신보] |기사|01면|03단|

1935-04-15 못이루는 사랑 죽어서 잇자 [매일신보] |기사|02면|06단

▶못이루는 사랑 죽어서 잇자

애인을 남기고 먼저 간 청년

김포명문의 애자

(김포)12일 오후 2시경에 김포읍내 박재옥씨 4남 건양은 자기 집 창고 타면기 샤프트에 동아줄로 목을 매어 28세의 반생을 일기로 원한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정을 들은즉 그는 결혼 후 10년 동안 부부가 의가 맞지 아니하여 항상 갈등이 있어왔던바 작년 7월에 영등포에서 이춘도(18세)란 소녀를 알게 되자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져 벌써 그해 9월에는 경성 냉동 금화산 밑에 아가씨가 사는 스위트홈에서 단꿈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따르는 저주의 검은손은 마침내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완고한 가정의 억압과 본처의 발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감으로 그는 무엇을 각오하였던지 자기 집 돈 800여원을 집어내어 가지고 애인 춘도와 함께 원한 많은 서울을 떠나 원산행 열차를 탔

으니 때는 가을 밤 달이 뜰에 가득한 16일 오후 11시 30분이었다.

그 후 약1개월간 원산, 함흥, 강릉, 포항, 부산, 대구 등지로 사랑의 여행, 아니 죽음의 2인행각을 마치고 그해 선달그믐에 김포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은 것은 여전히 차디찬 현실이었으니 날마다 일어나는 갈등을 연약한 춘도는 참을 수 없어 영등포 은나비 카페의 여급으로 데뷔하였다.

그 뒤에도 건양은 날마다 영등포로 와서 새벽동산에서, 또는 밤깊은 여관에서 애달픈 가슴을 울음 속에 속삭이곤 하였다. 12일 밤에 흐르는 재즈 속을 금붕어같이 헤어 다니던 춘도는 이 참보의 소식을 들은 후 한마디 말없이 그대로 쓰러졌다 하며 그의 동무들은 춘도의 만일의 염려를 위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 과연 그도 장차 어찌될는지.

#### 1935-04-16 김포시가 하수공사 20일경에 준공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5단

##### ▶ 김포시가 하수공사 20일경에 준공

이로써 시가 면목은 일신

(김포) 김포 시가 하수구 공사는 총공사비 3,500여원으로 3월 1일부터 착수하여 4월 20일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 도로는 김포 고양간 관문인 이산포 나루터로 가는 등 외 도로서 양측에는 각 관공서 및 상점 등이 즐비한 요충 지대이나 배수구의 설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우기와 해빙기에는 구거가 범람하여 민가침수와 도로파괴등 피해가 막심하던 바 이번 공사로 말미암아 면목이 일신되리라고 한다.

#### 1935-04-17 김포소방조 근속자 표창 춘계연습 당일에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11단 |

##### ▶ 김포 소방조 근속자 표창

춘계 연습 당일에

(김포) 김포 소방조는 근속공로자 표창식을 겸하여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김포경찰서 뒤뜰에서 춘계연습을 실시하였는데 강전 서장의 점검이 있었고 뒤이어 17년간 근속자인 소두 최정규씨에게 부영 경기도지사의 은배 1개를 전달하고 분회장과 본사 지국에는 부상을 수여한 후 무덕관에서 축하연회가 있었다.

#### 1935-04-27 면협의회원 선거 특례일부 개정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4호>

▶ 1930년의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8호 면협의회원선거 특례 별표 제1호 중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중략> 김포군내에 검단면, 양촌면, 하성면, 양동면을 삭제한다 <중략>

#### 1935-05-24 풍우 일과후의 각지 선거 후보 [매일신보] | 기사 | 04면 | 04단 |

#### 1935-05-25 당선된 면협의회원 [동아일보] | 03면 | 02단 |

##### ▶ (당선된 면협의회원)

김포군 군내면 명진석, 한중섭, 정낙현, 심의중, 신의균, 임 방태랑, 이혁희, 방만식, 김용해, 이학균, 검단면 심세택, 김사적, 이건영, 김낙동, 문희순, 이광순, 김경흠, 박

경래, 신기영, 권리옥, 고촌면 김진환, 조용준, 이금희, 이영구, 김선장, 윤인섭, 노동우, 조덕준, 월곶면 이기중, 송의섭, 이사득, 박봉희, 임용구, 임노위, 유근익, 성낙선, 윤광현, 송구식, 대곶면 심영택, 신익수, 심필섭, 이효구, 유영덕, 한용섭, 김연철, 이주창, 이학교, 최덕교, 양촌면 배성모, 이이환, 미병하, 윤영섭, 임의상, 이태의, 심의관, 이강익, 홍중표, 채훈, 하성면 권이옥, 김상기, 민병훈, 조재욱, 조충호, 이일영, 어수갑, 민우식, 민서귀, 이종협

1935-05-28 5인조 체포-농촌을 전문으로 횡행하든 [매일신보]|기사|05면|09단|

1935-06-04 二(이) 少婦(소부) 출가 [조선중앙일보]|02면|02단|

1935-06-07 강도살인의 양흉범 최후심도 사형 [매일신보]|기사|05면|06단|

1935-06-08 실종 8개년 비참한 소식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35-06-16 영등포세무서 인지세 검사 [매일신보]|기사|04면|12단|

1935-07-05 김포군 국세조사협의회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35-07-07 각군 학평 당선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각 군 학평당선

<중략>김포 군내면 명진석, 검단면 권학규, 고촌면 조중한, 월곶면 송운식, 대곶면 김연근, 양촌면 이운하, 하성면 권이옥, 양동면 신춘봉, 양서면 정인섭<중략>

1935-07-09 붓방아 [매일신보] |문예|02면|05단|

▶붓방아

(김포)지난 6월 24일에 김포군 고촌면 풍곡리 정철성씨 집에서 100원 내기 굿을 하다가 당년 18세 된 앞날이 청청한 소년이 죽자 굿을 하던 무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였다 한다.

무녀의 간교에 속아 굿을 하면 나올 줄 알았던 어리석은 그 가족은 불쌍히 주검의 몸이 되어 부모의 무식과 무녀의 간교함을 원망하는 듯 시체를 붙들고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1막의 희비극을 연출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앞길이 청청한 소년을 무엇이 죽게 하였으며 100원 내기 굿이라 함은 무슨뜻이였는가?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즉 다음과 같다.

사망한 소년은 김포공립보통학교에 다니는 정택권이라는 두뇌가 명석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담임선생도 그의 장래도 많이 기대하였다는데 평시에 건강하던 그가 죽기 10일전에 우연히 발이 붓고 아프기를 시작하여 집에서 생약으로 시약을 하였으나 낫지 아니하고 전신에 병이 퍼져 위독함으로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부친군 계양면 이화리에 사는 개똥이와 쇠똥이라는 무녀가 와서 그 병은 귀신의 짓이니 굿을 하여야지 병원에 가면 죽겠

다고 간교한 수단을 썼으나 처음에는 그 소년의 부친 되는 칠성씨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무너는 곳을 하여 고치겠으니 염려말라하며 만일 곳을 하여 낳으면 100원을 받겠다고 하고 낳지 않으면 자기가 100원을 주겠다고 큰소리로 장담함으로 어리석은 그 가족은 이 말에 속아 곳을 하였다고 한다.

곳을 하기 전에 선금으로 일금 4원을 먼저 받고 곳을 하다가 환자가 죽자 무너는 곳을 파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하였는데 정철성은 계약한 100원을 받지 않으려 할뿐이며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음을 후회 할뿐이라고 한다. 앞의 개똥이와 쇠똥이 모너는 이 외에도 촌사람을 농락하는 이가 많으므로 주민들은 경찰당국에 처치를 바란다고 한다.

1935-07-24 김포침수로 자동차 불통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김포침수로 자동차 불통

김포군과 강화 사이의 도로에 금이 가고 산이 무너진 곳이 적지 않으며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3등 도로 부근에는 길 위에 4척이나 침수가 되었는데 도로 유실된 곳도 적지 아니하여 이로써 이 방면의 자동차 교통은 전부 두절되었다.

1935-07-24 4호 유실 김포의 수해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4호 유실, 김포에 수해

김포군에는 500미리의 강우가 내려 김포군 군내면 걸포리 제방이 무너지고 제방 밖에 있던 인가 4호가 유실되었다. 쏟아지는 비에 주민들은 일찍이 가구를 들어내었으며 인축과 기타에는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김포군은 대정14년 대홍수때 400미리의 비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500미리의 강우량으로 10년 이래 대홍수였다고 한다.

1935-07-26 부·읍·면·별 호구 및 인구<조선총독부고시 제419호>

▶1934년 말 현재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는 다음과 같다.<각 읍·면·별 인구 생략>  
(지역)조선인 호구수·인구수-일본인 호구수·인구수-외국인 호구수·인구수-합계)  
<중략>김포군 9,942·55,436-87·307-45-10,033·55,748<중략>

1935-07-30 강화에 정전소동, 만 8시간동안 암흑화 [조선중앙일보]|03면|03단|

1935-07-31 김포군하에 복면한 장난감 권총 강도 [조선중앙일보]|02면|06단|

1935-08-29 폭한들 만나 주막서 봉변 [매일신보] |기사|05면|09단|

1935-09-01 전등료 불인하로 강화시민 분개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35-09-05 3군 1읍 신가입으로 팽창되는대경성부!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35-09-14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남대문통에서 [조선중앙일보]|02면|03단|

1935-09-18 경기도관하 인검사지정지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35-09-29 가마니 검사지정지구 및 지정지<조선총독부고시 제547호>

▶조선입(吠);가마니) 검사규칙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지구 및 지정지를 1935년 10월 1일까지 선정한다. <중략> 김포군 일원<중략>

1935-10-13 소전 이왕직 장관 김포에서 강연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35-10-17 양곡청년회 적이 우량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양곡청년회, 성적이 우량

(김포)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청년회는 소화7년도에 창립한 이래 매우 성적이 양호하여 주민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회원은 26명이며 대개 상업에 종사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일치 협력하여 공동경작, 공동노동 등으로 기본금 조성에 힘쓰며 보건부, 산업부, 문예부, 교풍부, 소년초등 각 부를 두어 청년운동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회장 이상희(28세)씨는 현직 양곡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바쁨에도 불구하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노력을 하여 주민은 감격해하고 있다.

1935-10-28 김포군 정조 검사장소와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김포군 정조(세곡)

검사장소와 일정

(김포)김포 군내에 벼 검사장소와 일정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검사장소	1회	2회	3회
봉성리	1일	11일	21일
전류리	1일	11일	21일
신리	10일	20일	30일
신곡리	2일	12일	22일
풍곡리	2일	12일	22일
왕길리	3일	13일	23일
성동리	4일	14일	24일
고양리	5일	15일	25일
대명리	6일	16일	26일
약암리	6일	16일	26일
대능리	7일	17일	27일
누산리	8일	18일	28일
북변리	9일	19일	29일

사우리 9일 19일 29일

1935-10-31 음악구락부에 악기를 기증 김포군 [매일신보]|기사|04면|11단|

▶음악구락부에 악기를 기증

김포 정, 박양씨가

(김포)김포 음악구락부를 창립하였음은 이미 보도한 것 같이 창립 이후 김포음악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적이 매우 우량하여 주민들은 이 구락부가 성과가 클 것을 예상하였으나 물질적으로 빈약하여 악기를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개탄하고 정민해(28세), 박성용(30세) 두 사람이 악기를 자진 기부하여 주민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일을 칭송해마지 않는다고 한다.

1935-11-06 김포청년단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김포청년단 3일에 결단식

(김포)농촌계발과 농촌 갱생운동에 중진이 될 농촌청년들의 지덕향상, 심신단련, 상호친목, 인격수양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결성되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은 김포청년단의 탄생을 기대하였는데 지난 3일 정오에 명치가절을 맞아 김포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김포군 군내면 일원의 모든 청년이 참여하여 김포청년단 결단식을 거행하였다. 이 날은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설줄모르고 내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300여 건아들이 모였고 관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단장 덕산춘조씨 개회를 선언하고 단장의 의미심장한 식사 있는 후 이어 단원대표 정준군의 선서가 있었다. 단장으로부터 임원 임명 및 위촉이 있었고, 장 김포군수의 고사, 우정시약의 훈시, 원전 김포경찰서장, 이 사회주사의 축사가 끝나자 단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2시였다.

1935-11-20 경기 각 군 사무검열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35-11-21 금년도 경기도 농회 정조저장수량 현미합하야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35-12-04 하성주재소 2일에 낙성식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하성주재소 2일에 낙성식

(영등포)김포경찰서 관내에 5개소의 경찰관 주재소는 대개 협소한 조선식 초가고옥으로 도로변에 떨어져 있어 경찰사무 집행상 불편하여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원전 김포경찰서장은 부임이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지가의 회사를 종용한바 있고, 하성면 석탄리 유지 이행의씨가 2천원의 성금을 내어 하성주재소를 신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전 김포서장이 고심 연구한 설계로 경성 황금정 이정목 동근견지함씨가 공사를 맡아 지난 10월 하순에 기공하여 11월 말에 준공이 되어 2일 오후 1시부터 도경찰부장 대리 삼병경부를 필두로 군내 관민 유지 등 100여명을 초대하여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신축된 주재소는 양철지붕에 목조 양옥으로 건평 7평5합의 사무실과 슬레이트

지붕 목조 일식의 14평 부속의 사택은 초현대식으로 지어져 경성시내의 파출소에도 손색이 없을만한 화려한 건물인 바 이는 공사를 맡은 동근씨가 희생적으로 건축한 것이라 한다.

1935-12-10 동변청년단 야학회 [매일신보]|기사|04면|11단|

▶동변청년단 야학회

(김포)김포읍에는 문맹퇴치를 할 야학회가 없는 것을 주민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야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오던 중 동변 청년회 주축로 6일부터 야학회를 개교 하였으며 강사로는 정준, 강인수, 진영춘, 문오득 제씨라고 한다

1935-12-10 의례준칙 강연 김포보교에서 [매일신보]|기사|04면|11단|

▶의례준칙 강연, 김포보교에서

(김포)7일 오후 1시부터 약3시간에 걸쳐 김포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류일선씨의 의례준칙과 색복착용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수강자수가 약300명에 달하여 큰 유익을 끼쳤다고 한다.

1936-01-04 확장안 실현되면 일약 60만부민 면적도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36-01-06 이팔소녀가 영아를 압살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36-01-07 분만한 아이를 압살한 처녀 [조선중앙일보]|02면|04단|

1936-01-24 김포군하에 광견이 횡행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김포군내에 광견이 횡행

(영등포)김포군에는 광견이 출현하여 일반 면민에게 불안을 끼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9시에 김포군 월곶면 고양리 민영득(27세)의 장녀 정순(7세)양이 마당에서 노는데 미친개가 달려들어 오른팔을 길이 1촌과 깊이 3분으로 물어뜯어 방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그 이튿날 또다시 그 동네 김 모 외 두 사람이 몰려 동민은 그 개를 잡고자 진력하고 있으나 미친개가 되어서 이리저리 피하고 숨기도 함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1936-01-24 假(가)경전사원 [조선중앙일보]|02면|04단|

1936-01-24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타|04면|12단|

1936-01-25 십년 중 김포군 가마니 제조 상황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0년 중 김포군 가마니 제조 상황

125만매 돌파

(영등포)조선농촌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부업 가마니 짜기, 소화10년도 김포군의 생산

을 보면 소금가마니 1,114,551매, 쌀가마니 138,068매인데 그 중 공동판매된 것이 875,519매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9,754원이라고 하는 돈이 김포군의 수입으로 된 것인데 소금 가마니는 383,896매가 증가되었고, 쌀가마니는 123,677매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1936-01-26 270회의 강습 수업생 3,700명 김포문맹퇴치 [매일신보]|기사|04면|11단|

1936-02-06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타|04면|12단|

1936-02-09 오는 4월부터 경성인구 증가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36-02-11 김포군 색복 장려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김포군 색복장려

(영등포)김포군은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구하기 위하여 흰옷을 색있는 옷으로 착용하자는 뼈라와 포스터를 각 면내에 살포하고 군 면직원이 나서서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데 그 중 군내면 면장 윤병희씨는 양복을 벗어놓고 일부러 한복을 착용하고 버선과 토시, 대님 등 무엇이든 검정색으로 하고 면내를 순회하고 선전한 결과 군내면은 약 90%가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한다.

1936-03-07 제1회 전김포군축구대회 [동아일보]|04면|10단|

▶(제1회 전김포군축구대회, 주최 동아일보사 양곡분국 후원 양곡청년회)

회일제 전김포군 축구대회

-일시 : 3월 8일(음력 2월 15일)

-장소 : 양곡공보교구장

-신청기일 : 3월 5일까지

-참가 금메달 삼원

-신청 장소 : 동아일보사 양곡지국

-주최 : 동아일보사 양곡분국

-후원 : 양곡청년단

동아일보사 김포지국

1936-03-07 취객이 중상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5일 오후 5시 15분 경의선 일산 역구내2호 포인트 부근에서 경성발 신막행 열차가 일산역을 출발 진행 중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권중철이가 뛰어내리다가 떨어져서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수술 후 소생하였다. 권은 술에 취해 있었다.

1936-03-11 흉상밀조단 사건 검거범위 점광대 [조선중앙일보]|02면|04단|

1936-03-14 김포군농회의 양기수 검거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김포경찰서에서는 지난 7일 모종의 독직혐의로 군농회원 모씨 2명을 검거 취조하였다. 그리고 그 이튿날 8일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으로 수사하는 한편 미곡 상인들을 소환 취조하고 돌연 김 모와 이모 양 기술자를 검거하고 극비밀리에 취조를 시작하였다.

동서에서는 무슨 단서를 얻었는지 오후 4시 형사대는 군내면 사우리에 출장하여 정조저장 창고의 세밀한 조사를 하였는데 사건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군농회원 모씨가 은행에서 차입한 돈 수만 원을 이용하여 가지고 미곡상들과 은은한 약속을 맺고 벼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데 창고의 현품조사가 끝나고 보면 어떤 단서가 들어날는지 주민의 주목을 끌고 있다.

1936-03-24 고양, 시흥, 김포3군 면리구역의 변화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고양, 시흥, 김포3군

면리구역의 변화

경성부에 일부씩 양도를 한 후 경기도에서 내용발표

경기도에서는 4월 2일부터 경성부 구역확장에 따르는 정동명을 기보한바와같이 개정하여 2읍 246면 2,770정 동리도를 1읍 242면 2,732정 동리도로 개정하는 동시에 경성부 가운데 186 정동을 259 정동으로 개정한다는 것을 23일 정식으로 고시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고양군의 12면 155리를 9면 94리로 시흥군의 1읍 9면 83리를 8면 74개리로 김포군의 88리를 87개리로 개정하기로 결정되어서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중략> 김포군의 부중 88리를 87리로 <중략>

1936-03-25 김포군 독직사건 6명 송국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김포군독직사건 6명 송국

지난 6일 김포경찰서에 검거된 김포군청 농회원을 비롯하여 기타 미곡 상인들의 배경으로 망라된 1만원 문제의 독직사건은 일단락을 지어 지난 20일 김원보 가명 외 5명을 일건 서류와 함께 검사국으로 송국하였다.

1936-03-26 회갑연비 절약 학각설립에 기부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36-03-31 김포노상에서 자동차 살인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김포로상에서 자동차 살인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서 경찰에선 처치 난

29일 오후 5시 40분에 김포군 군내면 사우리 3등 도로상에서 김포 자동차부 차량번호 경제4070호 자동차를 운전수 황치동(24세)이 운전하여 가다가 추정연령 47-8세 되어 보이는 남자와 부딪쳐서 행인을 치었는데 키는 5척3촌 가량이고 흰 저고리에 검정바지와 검정 조끼를 입었고 조선 갓을 쓴 이로 집세기를 신은 외에 호주머니에는 1전짜리 5매를 가졌을 뿐이라서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서 소관 김포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조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1936-04-14 농실교 설치에 50원씩 기부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농실교 설치에 50원씩 기부

김포 조, 김 양씨

(영등포)금번 김포군의 농업실수학교 설치에 관하여 각 인사로부터 기부금이 답지 하는 중인데 이번에도 김포군 고촌면 풍곡리 조종두씨와 향산리 김선장씨는 각각 50원을 기부 하였다.

1936-04-27 김포군 농실교 20일에 개교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김포군 농실교 20일에 개교

명륜당 가교사에서

(영등포)김포군 농업실수학교는 방금 공사 중인데 지난 20일 오후 1시에 군 회의실에서 입학식을 거행하고 임시로 명륜당을 빌려서 수업을 하기로 되었는데 교장은 옥천희삼랑, 강사는 성낙참 양씨이고 생도는 김포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인데 이 학교는 1년 졸업으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에 종사할 사람으로 중심인물을 양성한다고 하며 32명을 4인조로 나누어서 8가구의 농가를 만들고 졸업할 동안은 학교 합숙소에서 생도들이 자취해가며 농사를 짓고 공부도하고 수입 지출을 보통 살림하듯이 전부 해놓았는데 학교이면서도 평화스러운 농촌과 같이 생각된다는바 과목과 1일 일과는 다음과 같다.

과목(보습과), 국어, 산술, 수신, 농업

1일 일과

- 1.오전행사 : 가. 기상 오전 6시, 나. 조회 오전 6시 10분, 다. 미화작업 오전 6시 30분, 다. 아침식사 오전 7시 30분
2. 주간행사 : 가. 수업과 작업 오전 8시, 나. 점심 정오, 다. 작업 오후 1시 30분, 라. 작업 끝 오후 6시
3. 저녁행사 : 가. 저녁식사 오후 6시 30분, 나. 자유휴식 오후 7시 30분, 다. 자습 오후 8시, 라. 취침 오후 10시

1936-05-07 판매회사 설립코 양조업자를 구제 [매일신보]|기사|05면|11단|

▶판매회사 설립코, 양조 업자를 구제

인천세무소 알선으로

(인천)인천세무소 관내 (인천부와 부천, 강화, 김포 3군) 조선양조업자는 오랫동안 판매경쟁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도산할 위기에 직면하여 길야동 서장은 이를 통제하여 양조업자의 공영공존을 도모하고 아울러 품질의 개선을 하기 위하여 지난 날 동업조합 총회 석상에서 판매회사의 설립을 중용하였는데 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인천세무소에서는 지금 주식회사 조직의 판매회사를 계획 중으로 머지않아 구체화 할 모양인데 이 회사가 설립 되면 외상판매는 일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천세무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선주의 연 생산량은 탁주 45,000석, 약주 65,000석이라 한다.

1936-06-17 축건 단속 규칙 중 일부 개정<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10호>

▶축건 단속규칙 제10조의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중략> 김포군-군내면<중략>

1936-06-24 김포군하에 직물업 보급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1936-06-24 김포군 면장회의 [매일신보]|기사|05면|10단|

1936-06-24 김포 농민들의 연료문제 해결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김포군 농민들의 연료문제 해결

장 군수의 극진한 노력으로 임야소유자도

연료문제로 머리를 앓고 있는 농민에게 반가운 소식-김포군내에는 9천여 농가에 임야 총 면적이 1만2천여 정보가 있으나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1정보도 없어서 눈두렁 풀이나 남의 산에 가서 삭쟁이 등을 주어다가 때왔으나 보안림이 생기고 사방공사가 생긴 이후로는 빈약한 농가로서는 연료 문제로 인하여 큰 문제 중에 있었다.

그런데 김포군 장영환 군수는 벌써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오던 중 지난 16일 오전 9시에 군내면장과 각 담임자 60여명이 집합하여 현재 12,000여 정보를 9천 농가에게 1정보씩 똑같이 나누어 주어서 연료로 인한 곤란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그리하여 군내 각 임야 소유자에게 일일이 순회 방문하여 소유자 측으로도 많은 양해를 얻어 동 군에서는 일이 주선 되는대로 분배 실시할 예정인데 그 분배방침은 금융조합의 저리대금 또는 간이생명의 돈을 저리 대출하여다가 소유자의 임야를 사가지고 나누어 주고서는 10개년 이상 예정으로 갚아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1936-06-28 珍奇三胎犢(진기삼태독)[매일신보]|기사|02면|08단|

▶진기3태독

세쌍둥이 송아지 이야기

지난 24일 오후 4시 반경에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윤이섭씨 집에 있는 암소가 일시에 송아지 세 마리를 분만하였는데 근처 사람들은 소 한마리가 송아지 세 마리 낳는 것은 희한한 일임으로 날마다 구경꾼이 물밀 듯 모여든다는바 김포군에서는 이를 다음에 연구자료나 혹은 자라나는 대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잘 보관하여 두기로 하였다 한다.

1936-07-01 마입견직 장려 [매일신보]|04면|02단|

1936-07-10 약혼파기 당코 처녀가 음독 [동아일보]|04면|09단|

▶약혼자 파기당하고 처녀가 음독

김포군 양곡에서 일어난 일

### 기혼남자 조롱에 분개

(김포)지난 7일 오후 5시에 꽃 같은 처녀가 양젓물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뜻하던 서승길은 밟지도 못하고 괴롭게 알은 쓰라림과 아픔에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는 사실이 있다.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이명희(20,가명)는 미혼처녀로사 3년 전에 고향인 문산서 자기 오빠를 따라 양곡으로 이사를 온 후 이성애에 맞은 배우자를 구하던 중 그의 오빠가 근무하고 있는 양곡금융조합 서기 김복산(25)이라는 기혼청년을 알게 되어 꿀 같은 사랑을 주고받고 하며 불타는 애정을 금치 못하여 두 몸 처지와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약혼을 하여 타오르는 사랑에 힘을 억제치 못하고 약혼은 하였으나 김복산은 차일피일 결혼식을 미뤄오다가 근자에 와서 태도가 변하여 약혼까지 파기선고를 함으로 그와 같이 비관한 나머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살코자 한 것인데 방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 1936-07-10 부여의한 인세 자살도 불여의 [매일신보] | 기사 | 07면 | 05단 |

#### ▶부여의한 인생 자살도 불여의

한강에서 죽으려다가 들키고 인천 가서도 또한 실패

(인천)8일 오후 6시경 인천 월미도 돌제도로에서 1명의 남자가 바다에 뛰어든 것은 통행인이 위기일발에 건져내어 무사함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민홍식(45세)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당일 오전 경성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발견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길로 인천에 내려와서 제2차의 자살을 결행하려다가 구조된 것인데 자살도 여의치 못한 기구한 놈이라고 한탄하면서 목하 인천경찰서의 보호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 1936-08-03 축음기 절도 [조선중앙일보] | 02면 | 05단 |

### 1936-08-13 홍수 일과후의 참상!, 독도 일대 감수로 [조선중앙일보] | 02면 | 01단 |

### 1936-09-01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 <조선총독부고시 제481호>

▶1935년 현재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 수는 다음과 같다. (부·군명-총 호구수·인구수-조선인 호구수·인구수-일본인 호구수·인구수-외국인 호구수·인구수)

<중략> 김포군 10,294·57,598-10,216·37,311-74·278-4·9

### 1936-09-06 도적질한 돈으로 극단을 조직 [매일신보] | 기사 | 02면 | 06단 |

▶인천 부내를 횡행하는 대적의 일당이 검거되었다-지난 8월 11일 밤 인천 금곡리 4 급은상동신상회 윤덕남의 집 금은제품 1천여 원어치 도난사건이 발생된 이래 부내 조선인 시내의 도처에서 재봉기계, 라디오, 세트 의류 기타 금품의 도난 사건이 빈발함으로 인천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쫓고 있는 중이다.

지난 2일 김포군 대곶면 마산리 절도전과 2범 박장호가 부내 금곡리 어떤 음식점 작부

의 미모에 유혹되어 돈을 물 쓰듯 할 뿐만 아니라 수일중에 그 작부의 빚을 갚고 결혼식을 거행하리라는 소문을 들은 동서강전 부장 이하 형사들이 수상히 여기고 본서에 구속하여 취조하였다.

그 결과 부내에서만 20여건 총액 5천여원의 절도를 범행하였다는 자백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굴을 수사한 결과 산갈이 쌓인 장물도 발견하였고, 공범 2명-당진출신 절도전과 3범 유재현, 김포출신 절도전과 2범 이명근도 검거하여 여죄를 취조중인데 앞서 유재현이는 도둑질한 소득으로 경인선 소사에서 극단을 조직하여 개연준비 중에 검거된 것이라고 한다.

#### 1936-12-08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인천지소 소속 출장소의 명칭·위치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지소 소속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지소·출장소의 소속검역 지정지를 1936년 12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인천지소의 출장소 : <중략> 김포출장소-김포군 군내면<중략>

곡물검사지정지 및 검사대상 곡물<조선총독부고시 제696호>

조선곡물검사령 제1조에 규정하는 지정지 및 해당 지정지에서 검사를 받을 곡물을 1936년 12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중략> <김포군>군내면 북변리, 사우리, 고촌면 신곡리, 풍곡리, 양동면 가양리, 검단면 왕길리, 오류리, 대곶면 대릉리, 대명리, 월곶면 성동리, 고양리<중략>

#### 1937-01-16 외국인 토지법 개정

▶외국인 토지법 중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2조 조선에서는 제7조 중 경매법은 조선민사령, 전조 제1항 중 구재판소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 동조 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은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것을 정하여 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육군대신 및 해군대신이 별표상의 조선부분에서 제시하는 지적하는 지역에서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할 때에는 미리 조선총독과 의논해야 한다.

별표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지정지구 중 북해도 부분에 이어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조선]<경기도> <중략> 김포군 군내면·검단면·양촌면·대곶면·월곶면·하성면, <중략>

#### 1937-01-25 서울은 무서운 곳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서울은 무서운 곳, 툇치고 지나간 놈 어느 틈에 돈뭉치를 뽑아 갔다

23일 오후4시 30분경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557번지 미곡행상 김필제가 부내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사러 다니던 중 어떤 자가 자기를 슬쩍 받고는 달아남으로 수상하여 돈지갑을 찾아보았더니 어느 틈인지 현금 540원 뭉치를 빼어들고 간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적놈이라 고함을 치며 뒤를 따라갔으나 그때는 벌써 어디로 도망한 후라 어쩔 줄 모르고 본 경찰서를 찾아 제출하였다.

1937-02-07 특수원 양5천에 파경지탄이 百八十(180)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작년 인천법원지청 조사에 의하면 인천, 김포 강화 1부 3군의 결혼건수는 4,894건, 이혼건수는 180건인데 그중 내선유희로 인한 결혼건수가 10건이라고 한다.

1937-02-27 김포 농실교 졸업 거행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김포 농실교

졸업거행

(영등포)김포 농업실습학교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바 졸업생은 22명이다.

1937-03-10 농가경쟁 암고리채 대수술 [조선신문]

1937-03-11 진흥농촌의 송춘보 고리채 5십만원 정리 김포,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37-04-03 78명 증인조사한 공문서 위조사기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인천)인천지방법원 인천지청 설립이후 관공리를 망라하여 대규모의 공사문위조행사

그 유가증건 위조행사 사기 사건은 처음본 것인데 이는 인천법원지청에 투서가 들어서 동검사를 위시하여 도 경찰에서는 작년 6월 초순부터 근거지인 김포군을 싸고도는 검은 장막을 뚫고 엄중 탐색한 결과 만1년간 78명의 증인을 조사하고, 금12년 3월 31일부로 김포군 군내면 북변리 전우근(39세) 동면 장기리 심상범(35세), 이갑룡(29세), 동면 북변리 김용준(30세) 동군 월곶면 용정리 심진택(34세), 이덕희(28세)를 유죄결정으로 예심종결이 되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우근은 김포군농회 기수로써 농업창고 감독을 이용하여 조선식산은행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3백 원을 사취하고, 심진택은 동군 농회조수인데 이갑룡, 김용준과 공모하고 식산은행에서 또한 문서위조를 4,829원을 횡령 소비하였다.

김용준도 또한 810원과 55원을 같은 수단으로 소비된 것이 발견되어 그 피해금액이 6,000원에 달하였다는데 실로 농촌도시의 김포의 불상사이면서 공사간에 일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1937-05-11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경기도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1937-05-13 증식계획의 전초공작 경기중모우 검사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37-05-27 노파즉사 도선중에 충돌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노파즉사, 도선 중에 충돌

김포군 월곶면 포내리 윤명진의 모친 배씨(67세)는 25일 오후 3시 반에 동군 월곶면 성동리 나루를 떠나는 배를 타고 강화군 선원면으로 향하여 가려다가 그 나룻배에 자동차를 싣고 건너려고 자동차가 굴러들어 오다가 배와 충돌하는 찰나에 잘못 부딪쳐서 즉사하였다고 한다.

1937-06-20 곱돌솥 통진 쌀밥운림 [동아일보]|06면|02단|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고량진미에 젖어 음식사치가 나날이 늘어 감은 보통 그러나 귀한 집 아기 자랄 적에 음식을 갈아 먹여 버릇을 하여 보통 먹는 음식을 못 먹는 것이 틀린데다가 아무 때나 교양방자로 기하는 것은 석복하는 이의 미워하는 바이다.

정승한지 40년에 가진 풍파와 고생으로 청검하던 오리 상공이 어느 해 여러 조관들과 같이 번상을 갈다가 먹는데 왕보근친인 군대감이 진미육을 대하고서 눈살을 찡그리며 “애 이밤이 나 먹을께 아니구나?” 하니 하인의 대답이 “아니올시다. 택마님께서 오늘은 바쁘셔서 다른 진지를 담아드려 보내셨습니다.” 한즉 “응 그거 무슨 소리니 안먹을테니 도로 내가거라” 하고 내몰린다.

오리 상공은 옆에서 보기에 이상스러워서 “여보시오 대감 그 밥이 어째서 아니 잡수시오?” “네 나는 일상 곱돌솥에 지은 통진 쌀밥을 먹었기로 다른 밥은 입맛에 붙지를 않아서 먹지를 못해요” 하거늘 오리는 “네 그러세요?” 대답은 하였으나 속으로 괘씸히 여겼다.

그 뒤에 임진란을 당하여 대가가 의주로 파천하시매 오리 상공이 정승이 되어 상감을 모시고 지낼 새 상감의 수라(수라; 인군이 잡수신다는 말)와 왕자비빈과 조신들의 의복 음식을 다맡아 차하하게 되었다.

그때 그 번상을 내몰리던 왕친 군대 감도 다라가 있어 오리의 차하하여 줌을 쳐다보고 있는데 괴상스러운 것은 오리가 다른 사람 심지어 내관 나인에게까지 다 끌고루 차하하면서 특히 자기에게만 보내지 않는다 한번 두 번 건너뛰매 제일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어 참다못해 오리에게 말하되 “대감 먹을 것을 내게는 차하를 아니하셨어요” 한즉 오리의 대답이 “네 대감께서는 곱돌솥으로 지은 통진 쌀밥이 아니면 안잡수신고로 안 보냈습니다.” 하니 그 대감은 얼굴이 벌거지매 고개만 푹 숙으렸다.

1937-06-20 두 번이나 거듭 노적에 발화 [동아일보]|04면|06단|

▶화인은 아직도 미궁

(양곡)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경에 김포군 하성면 전류리 민병림씨 집 앞에 개성 한명 석씨의 작년 추수 쌀6백석을 적재한 노적에 발화된 것을 동리 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로 대동이 모여 1시간 만에 간신히 진화되었다는데 백여 석이 소실되었다한다.

지난 5월 1일 오전 3시경에도 전기 노적에서 발화되어 60여석을 소실하였다는데 전번의 발화진상도 미궁이며 이번 발화원인도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1937-07-30 김포군 농회기수 사기사건 [동아일보]|02면|09단|

▶군농회 기수가 미곡상과 결탁하여 농회창고에 벼가 저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잇는 것 같이하여 공문서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여 萬(만)여원을 사취하였다는 김포군농회(金浦郡農會)기수 김우근(金祐根)(39세)등 6명에 관한 사기사건의 언도공판은 29일 오전 10시경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법정에서 개정되었는데 증촌 재판장은 피고 김우근에 대한 징역 2년으로부터 1년까지의 체형을 각각 언도하였다.

▶김포군 농회에서는 동군 군내면 사우리와 월곶면 고양리, 양동면 가양리등 3개처에

각각 조창고를 설치하고 군 농회기수를 2명내지 3명을 파견하여 농민으로부터 창고에 넣어진 예입벼를 담보로 기탁자에 대하여 저리자금을 대출하여 주게 되었는데 김우근, 심상범 외 수명의 군 농회 기수는 자기들이 김포군농회 기수로 각각 창고 소재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미곡상으로 이덕하 외 수명과 결탁하여 예입한 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소화 10년 10일월부터 수차에 걸쳐 식산은행에서 만여 원을 사취하였다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피고들에 대한 언도는 다음과 같다.

기수 김우근(39) 징역1년, 조수 심상범(36) 징역1년, 기수 이갑룡(29), 이덕희(38) 각 징역 1년6월, 김용준(30), 심진택(26) 징역 각 1년(각3년간 집유)

**1937-08-05 김포군민대회 개최, 기원제 거행 [동아일보]|04면|06단|**

**▶(김포군민대회 개최, 기원제 거행)**

김포군에서는 지난 2일 4시부터 김포공보교정에서 5천여 명이 모여 군민대회를 열고 장 김포군수의 개회사가 끝나자 김포음악회의 장엄한 주악에 맞춰 국기게양식이 있고 기원제에 들어가 장군수의 기원문 낭독, 최고경례, 도전 김포서장의 선언문 봉독, 결의문 낭독, 격려전보를 타전하기로 하고 만세삼창과 국기강하식이 있던 다음 5시경 산회하였다.

**1937-08-05 김포 국방의금 총회 [동아일보]|4면|7단|**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김포공보교 강당에서 김포국방의회를 열고 장 회장의 간단한 인사와 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도전 김포서장의 시국에 대한 강화가 있던 후 5시 30분에 산회하였다.

**1937-08-05 답지하는 국방 헌금 [동아일보]|4면|9단|**

▶시국이 더욱 긴장됨을 따라 예천에 있어서의 국방열도 더욱 팽배하여 국방헌금 또는 입영 군인 위문금 등을 자진 의연하는 인사가 속출하는 현상인데 지난 2일까지 예천경찰서에 도달된 금액과 씨명은 아래와 같다한다.

<중략> 지난 8월 3일 김포군 하성면 유지일등은 이번 북지사변에 대한 국방비로 502원을 모집하여 비행기협회와 군사후원회 두 곳으로 보낸다한다.

**1937-09-01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조선총독부고시 제641호>**

▶1936년 말 현재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는 다음과 같다. (지역)총 호구수·총 인구수-조선인 호구수·인구수-일본인 호구수·인구수-외국인 호구수·인구수)

<중략>(김포군)10,427-57,961-10,342-57,707-79,246-68 <중략>

**1937-10-26 통진산조 설립재이 [동아일보]|07면|12단|**

**▶(통진산조설립재이)**

산업 김포로 세사에 알려진지 오래이나 풍부한 생산물을 통제할만한 기관이 없고 중산계급 이하 대중을 위하여 산업개발 지도 장려와 소비품 구입 등 알선기관이 없어 일반

대중의 경제적 손실은 적지 않아 일반 군민들은 벌써부터 적당한 산업기관 설립의 필요를 느껴오던 바 통진 산업조합이 설치되리라는 소식이 있다.

이 산업조합은 중산계급 이하를 표준으로 한 기관이라 하며 생산품을 공동판매 알선할 뿐만 아니라 일반의 소비품을 공동 구입하여 배급하는 등 또는 산업개발상 필요한 자금조달 등을 하리라고 하며 이 조합의 구역은 양촌, 대곶, 월곶, 하성의 4개면이라고 하는데 조합사무소의 위치는 전기 4개 면의 중앙인 양곡시가 유력하다고하여 벌써 내정된 듯하다.

1937-10-26 김포-안동포간 3등로 개수계획 [동아일보]|07면|06단|

▶김포군 당국에서는 도로개수에 노력중이던바 특히 김포읍으로부터 검단면 왕길리 안동포간 도로는 교통이 빈번할 뿐 아니라 산업도로로써 여러 가지로 개수의 필요를 느끼며 이에 개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도로는 이미 3등 도로로 그다지 손색이 없으나 교량의 불완전으로 불편한 곳이 많아 이번 계획 중에 교량 20여개를 전부 콘크리트로 개수할 예정이라고.

이 도로가 완성되면 자동차도 개통되리라 예측된다. 특히 안동포에서 약3마정 가량 떨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 길무도라는 섬에서는 유명한 약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치가 좋아 이 섬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므로 교통 불편이 제거되면 그 부근 일대와 더불어 장차 굴지의 유원지로 장래가 촉망된다고 한다.

1937-11-12 인천, 김포직통의 도로공사거의 완성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37-11-13 권갑중 군수 명 경기도 김포군 재군 [동아일보]|01면|11단|

▶사령, 12월 20일 발령 조산총독부

<중략> 권갑중 명 경기도 김포군 재군 <중략>

1937-11-21 김포군청에서 면치강습 개최 [동아일보]|07면|09단|

▶(김포군청에서 면치강습 개최)

김포군에서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면치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군내 각 면에서 서기2명씩을 선발하여 강습을 시켰으므로 그 효과가 현저한 바 있다하며 강사는 도급 군 직원이었다고 한다.

1937-11-16 강화, 김포 양군 위시 도량형순차 검사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강화, 김포 양군 위시

오는 11월 25일과 27일의 양일간 강화군 부내면과 김포군 군내면의 두 곳에서 도량형기의 검사와 부정한 형기를 사용하는 것을 일제히 취척하게 되었는데 검사 장소는 강화경찰서와 김포군청이라하며 두 곳 이외에도 순차로 경기도 1반에 한하여 도량형기를 검사 취척 하리라고 한다.

1935-12-04 하성주재소 1일에 낙성식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하성주재소, 2일에 낙성식

(영등포)김포경찰서 관내에 5개소의 경찰관 주재소는 대개 협소한 조선식 초가고옥으로 도로변에 떨어져 있어 경찰사무 집행상 불편하여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원전 김포경찰서장은 부임이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지가의 회사를 중용한바 있고, 하성면 석탄리 유지 이행의씨가 2천원의 성금을 내어 하성주재소를 신축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전 김포서장이 고심 연구한 설계로 경성 황금정 이정목 동근견지합씨가 공사를 맡아 지난 10월 하순에 기공하여 11월 말에 준공이 되어 2일 오후 1시부터 도경찰부장 대리 삼병경부를 필두로 군내 관민 유지 등 100여명을 초대하여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였는데 신축된 주재소는 양철지붕에 목조 양옥으로 건평 7평5합의 사무실과 슬레이트지붕 목조 일식의 14평 부속의 사택은 초현대식으로 지어져 경성시내의 파출소에도 손색이 없을 만한 화려한 건물인바 이는 공사를 맡은 동근씨가 희생적으로 건축한 것이라 한다. (사진은 낙성된 주재소)

1937-12-08 김포지방 소개판을 간행하면서...김포지국 [동아일보]|06면|01단|

▶(신흥 김포지방 소개 판을 발행하면서

기서유일의 곡창 천혜무진의 옥야천리

대공장등도 속속 진출되고 있어

신흥 김포의 약진상

경기서부 유일의 곡창이란 칭호를 받는 본군은 본도 서북부에 위치한 반도로써 동남은 경성부와 부평군에 육접하고 동북으로 한강을 끼고 고양, 파주, 개풍, 강화의 각 군과 대치하여 있으면서 지세가 비교적 평탄하여 비옥하나 왕왕 한강의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민생활에 큰 불안을 주어 오고 있다.

근년 한강연안의 치수공사와 더불어 양천, 양동수리조합을 비롯하여 각 농장의 물리사업 진행으로 1만7천여정보에 달하는 농작지는 옥토양전이 되어 연산 17만석의 농산물을 산출하며 연년히 개량되어 가는 농사방법으로 인하여 김포미의 성가는 전국적으로 높아가며 그에 따라 농민생활도 점차 안정되어가며 광대한 황무지의 개간사업도 방금 진행도상에 있다.

그리고 농가의 부업으로 앵잠, 입직, 급가축 등은 최근 비약적 발전을 보이는데 경성, 인천 등지로부터 근년 양동양서 방면에 거재를 투하여 연와, 도기등 공장이 설치됨을 보든지 경인, 강화일체화로 본군 서남부 해안에 철도부설 계획과 염전, 질소공장등의 설치설이 있으면서 도로개수 공사의 착착 실시 등을 볼 때 장차 공업김포로도 유망시 된다.

이리하여 모든 방면에 있어 건설도상에 있는 김포군은 장차 산업김포로서의 세상에 알려질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시급한 당면문제는 교육시설의 확충, 일면일교 완성이나 취학근일할)

명일의 김포를 건설하때 무엇보다도 긴급한 문제는 교육기관의 완비다.

현재 군내에 일면일교를 완성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사립학교가 3개 그리고 서당 수개처가 있을 뿐 전 김포주민의 9할이 문맹으로 있는 현실에 취학아동은 학령아동의 1/3에 불과한 상태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는 먼저 각 학교의 학급증설과 또는 학술강습소의 설립 농민에학의 개설 등에 있을 것이 뜻있는 인사는 분발하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에 몸을 던져 암흑에 잠긴 낮은 문맹들을 구출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의 향학열도 고도에 달하였으나 유의의 독지가가 출현하기만 바라며 위정당국의 현명한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한학계의 시숙인 하정 심성택옹)

옹은 본군 출생으로 금년 73세의 고령인 유교의 거성이다.

소시부터 학문이 탁월하여 성균관 사마진사에 초사하여 동관경학과 후보를 겸임하였고 광무11년에 용산부 용암포재판소 판사를 역임하며 법조계에 이채를 띄었고 을회3년에 원통진군 신명의숙장이 되며 교육보급에 커다란 공헌을 남기고 명치44년 동군 참사로 임명을 받았다가 대정2년에 경기도 토지조사임시위원촉탁이 되어 활약하다가 동군공보교육부위원의 요직을 겸하여 크게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통진군이 김포군에 병합하자 대곶면에 행정기관을 설치하니 중망에 의하여 초대면장으로 취임하여 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선도하였고 문화양상에 현신적 효력을 하여왔으며 교육진전을 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유교의 정신을 배양함에 전력을 다하였다.

사로에 인퇴하여서 유교에 격별히 뜻을 두어 거재를 투하여 약산에 공자묘대성전과 강당을 건립하고 매년 춘추로 제향을 지내는 열렬한 신앙가이다. 선생을 숭앙하여 모여든 제자가 100여명에 달하며 일익 성망이 높아간다.

▶(유일한 자선가 이의철씨)

이 씨는 김포굴지의 부농으로 성품이 인자하고 이해성이 풍부하며 동정심이 많고 인정미가 흐르고 일반의 신망이 두터워 백여 명 소작인에게 자부와 같은 존경을 받는다.

이씨는 자선심이 풍부하여 매년 구 년말에는 자신이 빈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식량을 나눠주며 적지 않은 금액을 던져 구제 사업에 막대한 공헌을 일구었으며 사회사업에도 막대한 금액을 희사한 유위의 인물이다.

▶(사학계의 은인 금란학교장 기동식씨)

기옹은 남다른 기개와 포부를 품은 지조가 정직하고 품성이 고결한 인물로 봉사적 노력이어서 일찍이 육영사업에 뜻을 두어 명치42년 7월에 거재를 투하여 사립금란학교를 창설하였다.

스스로 교편을 잡고 과거 30년간을 분투노력하여 많은 영재를 길러내 교육계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일시는 사년제의 백여 명 생도를 수용하여 혁혁한 존재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경영하는 당지가 수리의 편익이 없이 연년한해를 당하므로 사설저수지를 축조하여 일반농가에 수리의 편익을 주고 그 사용료를 받아 동 학교경영에 충당하여 왔으며 기지기타는 씨의 독담하여 오로지 발전에 힘써 왔고 기외에도 문화계발사업에 헌신적 노력을 하였었다. 기씨야말로 김포교육계의 은인이며 사회의 중추이다.

▶(한방의계 중진 보생의원장 조성재씨)

선생은 승원출생으로 일찍이 한방의학을 연구하여 대정3년에 약종상의 면허를 얻고 약업에 종사하면서 더욱 연구를 쌓아 소화3년에는 의생면허를 받아 적수공권으로 당지에 오시어 보생의원을 개업하였다.

독특한 처방으로 일반에 명성이 높아 개업한지 1년 만에 영업을 대확장하고 더욱 정진하여 금일의 융성을 보았거니와 성격이 온후하고 동정심이 풍부하여 일반 환자의 존경을 일신에 모으고 있으며 무산자에게 3년간이나 무료진료를 시행하는 등 인술의 품격이 고아한 실로 한방계의 중진이다. 선생은 8년간의 한방의 귀중한 체험을 쌓았으니 앞으로 장래가 촉망된다.

▶(문방구계의 권위 문화상회 박이양씨)

박씨는 김포공보교를 마친 후 관계에 투족하여 10여년을 한결같이 봉직하다가 소화2년에 관직을 사퇴한 후 당지에 와서 문방구상을 개업하여 학교지정 판매인으로 박씨의 민활한 활동에 의하여 대음성하여가는 문방계의 권위이다.

▶(문화시설정비 수육교통지편 6만 인구를 내포외웅)

본군은 고구려 시대에 금포현이라 칭하였고 신라 경덕왕때 김포현이라 개칭하다가 장제군(부평)의 영현으로 있다가 이조 태종시대에 양천을 병합하여 김양현이라 칭하였다.

다시 양천을 갈라서 금천 시흥에 옮기고 부평에 병합하였다가 그 후 현을 복치하고 인조시에 김포군으로 되어 대정3년 3월 통진군, 양천군을 합해 행정구역으로서 교통, 위생, 금융업등 각 방면으로 문화시설이 정비되는 일방 산업적 개발을 촉진하여 금일에 이르렀다.

인구 호수10,385, 남자 29,677, 여자 27,799 합계 57,598명, 종교 예수교 13개소 신자 674명, 불교사찰 5개소, 신도 15인, 의료기관 병원 3, 의사 2인, 약종상상 15, 중두시술생5, 교육기관 공보교구 소학교 1, 간이학교 3, 실습교1, 사립학교 1, 서당16, 금융기관 금융조합 3, 통신기관 우편소 3, 육상교통은 편리하여 경성, 강화, 부평, 양곡의 각선로에는 매일 3-4회의 자동차 왕복이 있으며 수운역이 편리하다. 현대 육상 운수업자 1, 승용차 22대, 화물차 3, 수상운수업자 1, 발동선1, 저명시장 김포, 양곡, 마곡, 통진명소 구적 장릉, 봉릉사, 용화사, 문수산성, 문수사, 약사암 등이 있다.

▶(문화발전상 배전노력 기대 김포군수 권갑중씨)

이번 귀사에서 김포 소개판을 발행하심에 당하여 그 의미 깊은 기도에 찬의를 표하는 동시에 귀지의 금후 익익발전됨을 축하하여 마지않은 바입니다.

군의 방침 등에 대하여는 마침 부임한지 며칠 안 되어 무어라고 기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기관의 중대 사명에 감동하여 관계 각위의 익익분려 하심을 빌며 행정 당국의 직면적 지도와 보도기관의 측면적 격려가 병행되어 본 지방 문화진전상에 많은 공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서업계 권위 사법서사 김정흠씨)

김씨는 검단면 출생으로 일찍이 검단면 서기로 행정계에 투신하여 과거 30년간 민첩한 활약과 수완이 탁월한 행정가로 명성이 높았으며 소화8년에 검단면 서기를 사임하면서부터 사법서사로 대서업에 종사하여 더욱 김씨의 독특한 수완을 발휘하여 신속한 처리와 친절한 태도에 일반의 신망을 일신에 집중시키는 사계의 권위로 면협의원, 금조평의원, 인천 사법서사회 평의원, 보교학무위원, 농촌진흥회장등 모든 요직에 취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는 민첩한 활동가이니 장래가 크게 기대된다.

▶(행정계의 원로 군내면장 윤병희씨)

윤씨는 일찍이 향리에서 한문을 수학한 후 대청광서 11년에 통례원인의 초사하여 융희3년까지 봉직하였으며, 명치43년에 통감부 겨알관서 속으로 취임, 대정8년에 경시로 승차하고 동 10년에 금산군수가 되고 행정계에 귀중한 체험을 쌓았으며 대정12년에 퇴임하여 민민의 열망으로 군내면장으로 취임하여 십 수 년간 오로지 군내면 건설에 진력하여 을축년 대홍수에 600여명의 재해민을 구제키 위해 불면불식의 활동을 하여서 완전히 구제하였으며 교육진전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위하여 농촌개생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능달하고 노련한 정치적 수완으로 면행정에 커다란 공적을 나타냈다. 일반의 신뢰와 명망이 자못 높은 행정계의 원로이다.

▶(문화시설의 선구 이운하씨)

이씨는 본군 출생으로 대정3년에 양촌면 초대면장에 취임하여 전후17여성상을 중시일관으로 양촌면 건설에 진력하신 분으로 기간에 양곡공보교의 창설, 금융조합의 설립, 농민지도등 각 방면으로 번영책을 꾀하며 문화시설에 헌신적 노력을 하여온 대선배로서 양촌면이 금일의 번영이 있기까지는 이씨의 과거 반생의 분투노력의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모든 공직에서 퇴임하여 노래의 정양으로 한산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민민의 이시에 대한 존경은 깊어갈뿐이다.

▶(견실한 경전출장소장 금대남씨)

금씨는 군산출생으로 군산00학교를 마친 후 현해탄을 건너 동경전기학교를 고학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소화3년에 경전에 입사한 후 견인불발하여 금일에 미친바 소화9년에 당지출장소장으로 부임한 후 일층정력을 다하여 업무진전에 노력하는 견실한 청년 소장이다.

▶(도규계의 권위 양곡의원장 임정규씨)

임씨는 김포출생으로 경성의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천에서 개업하여 일반의 존경을 받으며 연구와 체험을 쌓아 치료에 대한 확실성을 얻고 소화8년에 고향인 당지에 이전 후 일층 천재적 기능을 발휘하여 도규계의 명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일반 환자의 인기를 일신에 집중하고 있다.

▶(양조업계의 군림, 김포양조장주 정행면씨)

정씨는 다년간 관계에 근무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정중하면서 실무에 통달하고 결당성이 풍부하여 사업에 착신하면 불권불식하여 변함이 없고 관계한 사업은 실패한 적이 없다.

정씨가 김포양조장을 설립하기는 소화2년도로 연산 200석에 불과한 것이 현재 2,700여 석에 달하며 종업원 12명이 설새없이 활동하고 양조방법이 순 조선식이면서 주미 우량하여 수차례 품평회에서 표창장을 받았으며 애주당의 총애를 독점하여 김포맹주계의 패권을 잡고 있다.

이외에도 대서업으로 정미업으로 다각적 활동을 하는 일편에 사회사업에도 공헌이 불소하여 김포의 실업계는 물론 사회에 신망을 일신에 집중한 인물이요 전무 정민해씨는 원기 왕성한 청년실업가로 천성이 쾌활하고 처사가 주도하여 금일에 업적이 일익번성함도 한 가지 이유이겠지만 정씨는 주미향상을 도하여 양주에 대한 호평을 득하고 따라서 기술, 자본, 인물의 삼자가 겸비하였으니 전도가 혁혁할 것은 일반이 깊이 믿는 바이다.

▶(청년실업가 김재운씨)

김씨는 사물에 관찰력이 민속하고 사업에 충실하여 일반의 신임이 두텁고 농사에 정진하는 일방 정미업에 착신하여 그 업적이 일익 진전되며 더욱 성실하여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

▶(청부업계 독보 유동정씨)

유씨는 양천출생으로 빈한한 가정에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근면 각고하여 일직이 토목사업에 착안하고 다수의 토목공사에 손을 대면서부터 20여 년간 적공에 청부업계의 권위자가 되었다.

유씨는 18세에 김포로 온 후 정미업에도 착신하여 김원정미소를 설립하였고 성격이 온화하고 동정심이 풍부하면서 행동이 민첩하여 어떠한 사업에나 실패를 모르고 피로를 느끼지 않는 불태불휴로 활동을 하는 근면한 인물인지라 금일의 번성이 있기는 오직 유씨의 민활한 수완과 불휴불식의 활동에 이한 노력의 결정일 것이니 앞으로 장래가 크게 기대된다.

▶(도규계의 중진 공이 김상은씨)

김씨는 경남울산 출생으로 소화3년 경성세전을 졸업하고 동 연구실에서 노력하다가 소화11년 1월 김포읍 공의로 취임하여 평화의원을 개업하고 명민한 재질로 집도하여 김포

군민의 보건을 위하여 성심 노력하는 성품이 강점유하고 인후 호활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며 진심우애에는 대하는 사람마다 감화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스포츠맨으로 자신부터 보건에 주의하여 김포체육회의 이사로서 어디까지든지 군민의 체력발달을 기도하는 지조가 고상한 인격자로 더욱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다.

▶(지략적 수완가 도회원 명진석씨)

명씨는 황해도 출생으로 일찍부터 사업에 투신하여 다방면으로 귀중한 체험을 쌓고 소화4년에 김포에 자동차부를 매수인계 경영하여 크게 발전을 보았으니 소화4년 당시는 차가 3대에 영등포, 김포간 정기운행이 있을 뿐이었던 것이 그 후 익익발전하여 경성, 강화 간에 일일 4회의 정기운행을 하게 되었다.

자금은 1원50전에서 1원으로 경성, 김포간 인하하였으며 다시 부평, 양곡까지 개통하여 소화11년에는 주식회사로 개조하였고, 대수는 20대로 격증을 보이며 종업원 60여명을 두고 운수업계 패권을 잡았을 뿐 아니라 소화11년부터 경서운송회사까지 겸영하여 업적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명씨의 지략 있는 수완가임을 가히 알 수 있거니와 경기도회의원 선거전에 출마하여 절대다수로 당선하여 김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활약을 하고 김포소방조두학교비평의원 등 중요직에 있어서 문화향상에 산업발전에 크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에는 빼놓지 않고 거금을 희사하여 만든 공적을 이루는 실로 김포사회의 중진인지라 김포시설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다각적 활동가 양곡주조회사장 강일회씨)

강씨는 양촌면 출생으로 일찍이 관계에 투신하여 많은 공적을 남기고 소화5년에 관직을 퇴임한 동시에 양곡주조회사를 인계 경영하게 되었는데 성품이 관후하여 이해와 동정이 풍부한 고로 인정미가 흐르고 의지가 견인지구하여 여하한 난관에 봉착하여도 능히 감내하면서 소신의 목적으로 매진하는 굳은 결심이 있는 인사이다.

강씨가 양곡주조회사를 인계하면서부터 업적이 일익 번영하여 금일에는 연산 1700석으로 각처에 판매점을 두고 향상을 도하여 일반의 신임을 독점한 주조업계의 권위다. 더욱 강씨는 농촌에 대한 인식이 깊어서 농촌청년지도에 격별한 노력을 하며 농촌진흥회위원으로 헌신적 생활을 하는 다각적 활동가이다.

▶(양촌면 공로자 신석영씨)

신씨는 명치43년 보성고보 출신을 호 간계에 다년간 봉직하다가 퇴임 후 대정15년 면민의 중망으로 양촌면장에 취임하여 전후 7년여 성상을 여일하게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었고 소화2년에는 경기도평의원으로 지방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기신 강인한 의지와 두뇌가 명석한 인물이다.

지금은 인퇴한적의 생활을 하시나 신 씨의 공헌이 많음은 새삼스럽게 느낀다.

▶(덕망 높은 자선가 오순기씨)

오씨는 부친군 출생으로 조실부모한 역경에서 가진 고난을 겪어가면서 의지가 강의하고 인내력이 강하여 무엇이든지 굽힐 줄 모르는 견인불발의 사업가로서 일찍이 소자본으로 상업에 종사하여 농업에 전신하고 사회사업에 깊은 뜻을 두어 막대한 금액을 투척하여 금릉공회당을 건립하였으며 을축년 대홍수에도 막대한 금액을 희사하여 구제 사업에 많은 공헌을 남기었으며 연면히 빈민들의 연체된 세금을 대납하는 등 6000천여원의 채권을 포기하여 채무자들의 감격을 사게 하는 자선심이 풍부하고 인정미가 흐르는 김포사회의 덕망가이며 사업계의 공로자인지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오씨의 공헌은 적지 않다.

▶(김포사회의 중진 박일양씨)

박씨는 일찍이 경성중학을 마치고 동양염직회사, 공익사 등에 역임하여 관계입하고 수년간 민활한 활약을 하다가 소화2년에 퇴관후 입표, 농구, 비료, 철물상의 두밀상회를 경영하여 민활한 수완으로 업적이 크게 번성할 뿐 아니라 김포공보교 후원회장, 김포소방조 부조두 등 여러 요직에 있어서 지방발전을 위하여 김포사회의 문화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하는 김포사회의 중진이다.

▶(공익사업 분신 독농가 이홍복씨)

이씨는 성품이 온순하고 총명하여 사람을 대할 때마다 순진한 태도에는 누구나 호인상을 갖게 하는 근실한 독농가이다. 농촌진흥 운동에 언제나 헌신적 노력을 하며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심력을 아끼지 않고 각양각색으로 거금을 희사하여 공공사업에 분신하는 중추적 인물이며 사물에 이해성이 풍부하고 행동이 민활하여 어떤 일에도 실패가 없는 유력 인물이므로 일반의 신임이 두텁다.

▶(백화계의 왕좌 화신연쇄점주 김중목씨)

김씨는 일찍부터 상업에 종사하여 귀중한 체험을 쌓고 입연전 독립하여 일개의 상업가로 입세하니 그의 건실하고 온순 정직한 수완으로 업적이 일익유창하며 일반의 신임이 두터워 크게 성공하였고 소화8년에 화신연쇄점을 경영하여 더욱 번성하니 월 매출고가 천여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사업에도 뜻을 두어 적지 않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헌이 크다고 한다. 김씨의 장래가 크게 촉망된다.

▶(위대한 인격자 조선개척의 김포농장 해굴태일랑씨)

해굴태일랑씨는 화가산현 출생으로 대정15년 4월에 선만개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황해도 연안농장장으로 있다가 소화3년에 김포농장장으로 부임 과거 10년 동안 농사개량과 경작면적 400여 정보에 420여명의 소작인을 지도하여 배 이상의 수확하고 소작인의 생활 안정을 이르게 하고 일반의 성망이 높은 전지하고 지덕이 겸전한 인격자로 학교조합장 관리자등 모든 요직에 취하여 만반노력을 불석하는 김포사회의 공헌자이다.

▶(근실한 실업가 운흥양조장주 하재홍씨)

하씨는 황해도 진주 출생으로 12년 전에 이곳으로 와 운흥양조장을 설립하고 견인불방하여 근실히 활약하여 업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현재 연 생산이 1,200석의 군내 양조업계의 독보이며 종업원 8명을 잘 독려하여 주미향상과 신용본위를 견지하여 수용가에 정평이 있을 뿐 아니라 성품이 온후하고 행동이 신중하여 어떠한 사업에도 실패를 모르는 근실한 실업가로 사회사업에도 공헌이 크다.

▶(민활한 행정가 하성면장 민병훈씨)

민씨는 명치43년에 휘문고보를 마치고 경성중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토지조사국원으로 10여년에 그의 명제한 두뇌와 활발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는 일반의 신임을 독점하여 그의 기민한 활동으로 면행정에 많은 성과를 일구어 오던바 중망에 의하여 금년에 하성면장으로 취임 더욱 정진하여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농민지도와 농촌갱생운동으로 제일선에 서서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는 실제적 인물인지라 소화4년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는 신념의 인물이다. 앞으로 지방발전을 위하여 크게 촉망된다.

▶(신망이 돈후한 김포서장 도전씨)

도전씨는 대정8년에 경찰계에 투신하여 20여 년간 모범 경찰관으로 민중의 신망이 높은바 소화11년 2월 김포로 전임되어 농촌진흥 운동에 다대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부하를 독려하여 월례회를 이용 민중의 선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대한 실적을 나타냈다.

요즘 시국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보급시키기 위하여 그간의 300여회 좌담회를 열어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전씨는 특히 경찰계의 정화 관민일치의 정신을 고취하여 중대 시국에 임하여 끈고달린 여하한 고난에 봉착하여도 능히 감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김포에 부임이래 각 방면으로 경이적 성과를 내어 일반의 신망이 두터운 경찰계 모범적 인물이다.

▶(청렴한 청년소장 김포우편소장 유촌구간씨)

유촌구간씨는 소화5년에 경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7년에 적지에 내임하여 11년 6월에는 김포우편소장으로 취임. 근면 착실히 활약하여 업적이 일익 번성하는지라 역사가 깊은 김포우편소 중임에 적절한 인물이라 하겠다.

유촌구간씨는 아직 35세의 청년소장이니 장래가 크게 기대되며 김포우편소장은 명치39년에 우편취급소에 인가되었고 동43년에는 우편국이었던가 동45년에 우편소로 된 역사가 오랜 우정계 중추이다.

▶(명망가 심상덕씨)

심씨는 일직이 경성중앙고보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귀농하여 사회를 위하여 분투노력하였고 소화8년에 면민의 열성적 성원으로 양촌 면장에 취임하여 더욱 농촌갱생, 시장번영을 위하여 만단을 돌파하여온 열정적 행정가이었다.

이외에도 양곡금융조합장, 양곡공보교후원회장의 요직을 역임하였고 양촌면을 위하여 크게 활약한 심강 착실한 명망가이다. 지금은 모든 직에서 물러나 유유자작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적 지도자 김포금융조합이사 고송도태랑씨)

씨는 북강현 출생으로 대정14년에 경성고상을 졸업하고 소화2년에 강화금융조합이사로 취임하였다.

개성금융조합 이사를 거쳐 소화10년에 부임이내농민의 부업장려와 고리구채정리, 갯생부락 지도에 전력을 다하여 기간에 비약적 업적을 나타냈다.

농민생활의 합리화를 획하여 28개의 식산계를 설립하고 농민의 필수품을 공동구입하여 배급하고 생산품을 공동 판매하여 이익을 도모하고 부업을 장려하여 유축농업을 권장하여 구매자금을 대여하고 금비절약을 이루어 퇴비를 장려하니 그의 실적은 나로 높아서 농민생활에 안정을 주었으니 씨의 이상적 지도자임을 알겠거니와 고리구채정리와 자작농 창정에 있어서 크게 성과가 있는지라 다음의 통계를 보아 씨가 얼마나 농민생활을 이상적으로 지도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하겠다.

아직 34세의 청년이사이니 장래가 크게 촉망된다. 고리채 정리액 240호

▶(온후 독실한 신사 면협의회원 어수갑씨)

어씨는 호담독실하고 지덕이 겸비한 인격자로서 그 성격이 고아하고 지조가 정대한 인물로 일찍이 중앙고보를 마치고 구 시대일보사 기자로 활동하다가 사회운동에 투신하여 열렬한 투쟁을 하였으니 생각한바 있어 농촌에 들어와 팔을 걷고 농업에 종사하는 실천적 독농가이다. 농민의 문맹퇴치, 계몽운동으로 성심하는 일편 협의원의 요직직에 취하여 농민의 복리증진에 분투하고 있는 모범적 인물이다.

▶(정치적 수완가 검단면장 김봉흠씨)

김씨는 일찍이 관계에 투신하여 과거 15년간 귀중한 체험을 쌓고 정치적 수완에 정평이 있는 정년신사로 소화 2년에 중장으로 검단면장에 취임, 동면의 산업발전에 농촌진흥회를 통하여 갯생운동에 식량충실, 구채정리, 교육진전에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봉사적 역할로 면장으로 10여년에 검단공보교의 창립을 보고 농사개량을 이루어 산업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보이었으며 소화9년에는 김포금융조합장에 선거되어 더욱 김씨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실천적 지도자 양곡금융조합 이사 백천청부씨)

씨는 북해도 천로시 출생으로 소화6년에 경성제대 법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소화8년에 양곡금융조합 이사로 부임한 후 물심양면으로 조합원을 지도하여 개인지도에서 단체지도로 직원을 독려하여 제일선에 서서 헌신적 노력을 하는 금년 31세의 성격이 쾌활한 청년이사로서 그간 고리구채정리 자작창정에 주력하여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민첩한 활동가 미국회사 분점 김창석씨)

씨는 조실부모하고 가정의 빈곤하여 유씨부터 가진 고난을 다시 겪어가며 쓰라린 경험을 맞보면서도 15때부터 소자본을 어떤 상업에 종사하여 민첩한 활동으로 한때는 업적이 크게 번성하였으나 뜻한바 있어 4년 전에 미국회사에 입사하고 민활한 수완으로 일익 성적이 양호하여 성과가 컸으므로 소화11년 9월에 김포분점 주임으로 임명되어 더욱 그의 활약은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종사원 7인을 독려하여 업적이 날로 융성하니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을 일반은 크게 믿는다.

▶(명량한 인격자 면협의원 이강익씨)

씨는 성품이 명량하고 활발하여 누구를 대하든지 웃음으로 맞이하는 명량하고도 유쾌한 인물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품위가 고상하고 한번 보아 그의 인격을 알기 넉넉하다.

현재 영촌면협의원의 요직에 취하여 지방발전을 위하여 크게 활약하고 있다.

▶(모범청년 민경후군)

군은 7년 전에 김포공보교를 마친 후 자가에서 농사에 정진하는 일방 하성청년단 분단장으로 영예 있는 모범청년이다.

▶(직업별로 본 약진산업 동태)

연부년 약진일로를 걷고 있는 제반 산업의 유별상황은 아래와 같다.

농업 본군산업의 수위를 점하는 것으로 호수 8,947호로 총호수의 9할을 점하고 경작 면적 17,000여 정보에 최근 일 년간 수확고는 대요여좌하다.

쌀-17,680석, 보리-40,476석, 두류-18,487석, 잡곡-2,380석, 석공업 총생산고 43만 4,708원으로 약진도상에 있으며 공장 수는 근년 비상이 증가되어 현재 30여개 소에 달하는데 그중 연와도기업이 왕성하다.

임업 임야면적 13,238정에 주로 군내연료로 수용된다.

수산 본군은 서남부에 해안부에 한강을 연하여 반도를 이루고 있으나 수산은 그다지 전개를 보지 못하여 연산 14,735원에 불과하나 금년 전차 활황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아 장래가 유망시 된다.

누에치기 근년 비상이 약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양보다 질적으로 향상을 보이며 생산은 부다 하나 부업으로서 농가에 비익이 크다.

축산 근년 비상이 황황을 정하여 양계로는 계란의 품질좋은것으로 도처에서 칭송을 받으며 양돈, 양계 역시 성한 편이다.

▶(근고)

신흥금 유근의 전모를 좀 더 여실히 소개하려는 것이 준비 중에 말 못할 사정도 있어 생각하였던 것과는 상상 이외에 빈약하여 졌음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것은 지면 관계도 있지만 비상이기이니만큼 관대히 양해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기회를 보

아 제2단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오며 특히 간행시 다노하여 주신 배형과 아울러 찬조하여 주신 제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동아일보사 김포지국 이화영, 배용희

**1937-12-17 석유등잔을 조심하라 [동아일보]|07면|06단|**

▶석유등잔을 조심하라 등잔에 석유 넣다가 노유 7명 사상 하룻밤 동안에 두 곳이나 발생 김포군하의 대참사

(양곡)지난 12월 13일 오후 9시경에 김포군 하성면내의 두 곳에서나 발화가 되어 사상자 7명을 낸 폭발인건의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자세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성면 전류리 244번지 황준성의 집 건너방에서 가족 5인이 함께하여 가마니 입을 짚었는데 불 등잔에 석유가 없음으로 준성의 매제되는 성녀(19)가 불 등잔에 석유를 붓다가 실수하여 석유병과 등잔을 넘어트렸다는데 이에 무참하게도 일반가족에게 불이 당겨 황준성의 장녀 옥순(5)은 무참히도 화기에 절명하고 일반가족들도 불에 중상을 당하였다는데 그중에 성녀는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이에 손해는 조사중이라 한다.

동일 오후 6시경 동면 가금리 장진옥 집에서도 불 등잔에 석유가 없음으로 어두운 곳에서 조의영(28)이 석유를 넣는다는 것이 잘못되어 휘발유를 넣어 성냥불을 켜는데 이에 폭발되어 부근에서 놀던 의영 장남 수영(4), 진옥의 장남 영택(6) 두 아이에게 인화되어 혼수상태의 대증상을 입었다 한다.

**1937-03-11 양곡등 금조 지도로 김포군 농가 점명량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진흥농촌의 송춘보

고리채 50만원 정리

김포, 양천, 양곡 등 금릉조합 지도로

김포군 농가의 희소식

(영등포)김포군에서는 농촌진흥회에 주력하게 된 이래 군내 각급 관공서와 연락 협조하여 중견 인물양성등 기타에 전력하고 있는데 김포, 양천, 양곡 등 각 금릉조합에서는 고리채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한바 그 성적이 특기할만하다.

즉 특별한 뜻이 있는 독지가의 채권포기 등 각종의 방법으로 고리채 정리한 총액은 실로 50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농촌경제 갱생에 끼친 영향이 커서 주목을 끌고 있다.

**1937-05-11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경기도 [매일신보]|기사|01면|02단**

▶도의원 선거전 총결산 정전월여 승패 양분

감격, 흥분의 선풍

10일, 168명이 영관획득

신흥진 앞도적 개가

삼순으로 마감된 열전 분투, 신성한 심판의 날은 오고야 말았다. 오늘 5월 10일!

천혜의 명랑한 일기로 초여름의 연록도 향기로워……. 하늘도 축복을 내리는 듯 화창한 투표일이다.

이 날 전 조선 251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투표가 개시되어 283명의 영광의 자리를 목표로 오래된 지역의 토호와 신예 853명의 다수가 각축전을 벌여 도의원 총선거 전선에 마지막 곡이 울려 퍼지고 도민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10일에 개표된 선거구만 153개구, 당선외 영예로 승전보에 이름을 올린 자가 168명이 확정되어 그들의 머리위에는 영광의 관이 빛나고 있다.

그리고 11일로서 나머지 각 군도 일제히 개표되어 283명의 도의원은 확정될 터인데 10일의 개표결과를 보면 지역 토호의 아성엔 자못 세력이 다한감이 있고, 이에 반하여 신흥지역에 비약적인 진출이 현저하여 첫째 날에 당선된 168명 중 신진만 무려 114명으로 각 도정에 선진화에 이들 신인들의 활동이 기대되는 바 자못 크다.

이제 또 전 조선 각 군에 투표 성적을 보면 당국의 기권방지, 공명한 한 표의 슬로건도 효과적이어서 밝은 조선건설에 매진하는 민중의 선거사상은 현저히 향상되어, 이와 같은 기록은 남총독 부임 후 최초의 일이다.

자치제 실시 후 두 번째로 치른 총선거는 조선의 지방자치 사상 빛나는 약동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되었다.

영예의 당선자(11일 오전 0시 현재)

경기도 <중략> 김포군 (정원 1명, 후보 2명) 45표, 명진석(40세), 직업 상업, 신, 차점 36표, 이익중(전) <중략>

#### 1937-05-13 증식계획의 전초공작 경기 종모우 검사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증식계획의 전초공작

경기 종모우 검사

16일부터 각 군에서 실시

경기도내에는 최근 사우 종돈에 대한 10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증식에 대한 적극적인 방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농가경제의 기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축에 대한 건전한 사우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증식을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종모우를 기르는데 있다.

이것을 심사하고자 오는 16일부터 도내 전반에 걸쳐 종모우 검사를 행하기로 되었는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경기도 축산 계에서는 기사와 기수들까지 출동하여 이 검사를 행하리라 한다. <중략> 김포군 군내면 5월 30일 <중략>

#### 1937-11-12 인천, 김포직통의 도로공사 거의 완성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인천, 김포직통의 도로공사 거의 완성 서곶면의 발전상 기대 커

자동차 허가도 머지않아

(인천)약진하는 경인 도로망은 현재 경인 산업 도로를 위시하여 장차 실현될 공업도로에 시설 등으로 교통망이 확충 완벽을 기하고 있는 중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부천군

에서 인천 서곶면을 통하여 김포까지 폭 4칸, 거리 60리에 직통 도로를 계획하고 군과 서곶면이 협력하여 도로시설에 노력한 결과 90%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소송자동차회사에서는 자동차 노선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실현될 때에는 서곶면의 발전은 물론 김포, 강화, 인천의 교통은 지극히 편리해질 것이며 경인 일체화에 있어서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하며 주민들은 노선의 허가가 조속히 나오기를 갈망한다고 한다.

1937-12-01 도회지 이용, 번영책 공장유치에 노력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도회지 이용 번영 책 공장유치의 노력>

권 김포군수 포부담

(영등포)입지전적인 사람-일찌기 군 고원으로 다시 학창에 나가 당시 조선의 최고 학부라 할 수 있었던 보성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다시 경기도 관방에 임관하여 계속 영예의 승진을 이어나온 신임 김포군수 권갑중씨는 27일 찾아온 기자에게 아래와 같이 포부의 일단을 말하였다.

아직 별 감상이라던가 경륜은 없다. 군 행정은 아무리 도회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농촌이라도 획일적인 행정방침은 절대 금물이다.

전임지 용인은 토지도 비옥하고 살림도 무성하며 군민의 생활도 여유로워 보통 농사에도 실적을 거양할 수 있었으나 본 군은 일부 수리조합 몽리구역을 제외하고는 거개가 천수답이며 산림은 불과 1만3천여 평인데다가 군민의 경제도 빈약하여 도에서 가장 가난한 군이므로 다른 군의 농촌지도 방침으로는 그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절대 비관할 바는 아니다. 본 군은 경성의 인접지인 만큼 보통 농촌의 농정방침을 전환하여 대도시 인접지의 적응한 행정방침을 수립하여 지도한다면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리라고 믿는다.

농촌지도에 대하여서도 다른 군처럼 농사용 소의 번식 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양계, 양돈 등에도 주력하며 대경성의 팽창과 문화생활에 향상을 따라 다량으로 소비되는 생화 재배를 지도하는 등 대경성을 이용하여 군민의 수입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본군은 공업용수가 풍부한 만큼 공장유치에 노력하여 신흥연도 영등포 공장지대에 연장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최근 요로 당국에서 경인일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실현될 때에는 경인간 대도시에서 흘러넘치는 경기를 이용 흡수하여 본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군의 장래는 자못 다행하리라고 확신하여 마지않는다고 말하였다.(사진은 권 군수)

1937-12-19 『싸소링』에 인화폭발 무참! 부자소사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38-01-11 무의한 맥전에 축한이 습래 김포군하 농가 [동아일보]|08면|08단|

1938-01-13 강화도, 김포간의 철교가설을 진정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강화도, 김포간의 철교가설을 진정

20일내로 군민대표들이 상도

한은지점도 유치

(강화)강화번영회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삼신운수주식회사 2층에서 소화13년 제1회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박 강화군수와 갑비 서장, 이 면장등 세 고문이 임석하고 임원 등이 참석한 후 김근호 회장으로부터 신년인사와 개회사가 있는 후 이 회의에서 제의된 다음의안을 토의하였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강화-김포간 철도가설 문제로 하루 4번 자동차 연락을 소형 발동선으로 하던 것을 유수로 인하여 겨우 조수에 따라 하루 한번 밖에 못하는 위험한 현상으로 교통이 일체 두절된 상태이므로 9만 강화도민의 생활이 걸린 문제라 하여 군민 대표로 김근호 도회의원 외 두 사람을 이달 20일 내로 진정차 상경케하기로 했다.

한은지점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3년 전에 수삼차 본부 이제과에 진정한 바 있어 당국으로서도 실지조사까지 완료하고 있으나 아직 어떤 소식이 없어 촉진운동을 개시하기로 하다.

이른 시일 내에 강화군내에 중진인 김 도의회의원을 위시하여 강화물산조합 이사 송정현, 조양방직주식회사 사장 홍재룡, 강화번영회 이사 오영섭, 목요회 금철, 고천 우편소장 등 여러 사람을 진정위원으로 선정하고 스포츠단체인 강화군체육협회를 강화군 당국에 이관하여 조직하기로 하고 기타 사항을 토의한 후 이날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직 확장의 건 (1)회원증모의 건 (2)본회 경리에 관한 건 (3)본 회관 설치에 건

강화 김포간 가교문제의 건

중등학교 설치 운동 촉진의 건

은행지점 설치운동 진정에 건

공설운동장의 건 (1)공설운동장의 완성 경비건 (2)공설운동장 완성 후 관리의 건 (3)강화체육협회 조직의 건

공회당 설치에 관한 건

본 군 선전에 관한 건 (1)강화군 소개 군지발행의 건 (2)그림엽서 발행의 건. 기타

1938-01-14 강화, 김포간과 임진강 가교계획은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강화, 김포간과 임진강 가교계획은 무산되다

지방주민 대망의 교통난 완화에

구체안을 예의 고구

경기도는 이번 소화13년도 비상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건축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외에는 일체 신규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방침아래 이를 심사하는 만큼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저 지사의 결정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그만큼 방금 신중한 심사를 시급히 하여 머지않아 내무부장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 토목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리라고 추측된다.

즉 소화12년도에 토목비 전반을 보면 경상부와 임시부 또는 토목비 계속비 전부가 1,917,800원에 달하였었는데 이번에는 계속사업 즉 도내 15개 중소하천 개수공사만은 중

래대로 계속하게 되겠지만 그 외에는 도로와 가교에 있어서는 그다지 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년에 비하여 훨씬 그 예산이 격감될 것은 필연한 사실이 될 것이며 올해의 숙제요 또한 현안인 강화 김포 간에 가교 문제와 임진강 문제도 신년예산에 유감스럽게도 계상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두 곳의 가교문제는 연내로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희망을 가져오던 것으로 특히 강화 김포간의 가교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9만 강화도민의 교통 통신 식량등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곧 강화도민의 사활문제도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망은 긴급한 상황이다.

매년 한 번씩 겨울에 강화 갑곶과 김포 성동 사이는 얼음덩어리로 막혀 통신과 교통 일체 두절되어 현대 문화시설에 대한 큰 모순과 정반대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도 당국에서도 긴급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그 효과적 문제로 인하여 이를 주저하고 있으며 또한 경비를 보아도 2백만 원 이상의 거액이 들게 됨으로 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라 하여 도에서는 이번 예산심사와 함께 감저 지사와 윤 참여관, 신곡 내무부장, 송정 토목과장 등이 심사숙고하여 다른 방법을 연구키로 한만큼 매년 당하는 불안을 배제할 좋은 안이 구체화될지 모른다고 한다.

#### 1938-01-20 조선총독부 감액 예비규정 <관동첩 제2호>

▶1930년 관동첩 제342호(조선총독부 감액예비규정 제55조에 규정한 지방지정 건) 중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중략> 김포군 향 중 군내면을 김포면으로 <중략> 으로 개정한다.

#### 1938-01-20 강화 김포간 연락하는 "케-블카" 가설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 ▶강화-김포간 연결하는 케-블카 가설

지사가 군수를 불러 실정 듣고

강화교통상의 궤보

유빙으로 인하여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절해고도로서 폐색되고 마는 역사적 고도이오. 경기산업계에 요충으로 되어있는 강화도에 가교를 하자고하는 것은 벌써 전부터 큰 여론으로 되어있던바 지난 10일경에도 34일씩이나 교통이 끊어져 또 한번 강화도가교를 절실히 느끼게 되어 이것을 도당국에 진정하고자 8만 도민을 대표해서 김근호 도회의원이 상성하였다함은 기보한바와 같다. 그래서 도당국에 진정한 결과 도에서도 딱한 사정에 십분 양해하고 가교 대신에 케블카를 가설하기로 결정짓게 되어 18일에는 감자 지사가 박제승 강화군수를 불러가지고 19일 오후 2시부터 도에서 최종적으로 절충을 하였다.

그 절충한 내용을 살펴보면 케블카 공사에는 15만원과 22만원이 드는 두 가지의 공법이 있는데 전자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자동차까지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든지 강화도에서 총공사비의 1/3을 부담하는 성의를 보일 것과 나머지는 도비로 할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군수와 김 도회의원은 이 채보를 가지고 19일 시급히 강화로 돌아가서 오는 21일에 면장회의를 개최할 것과 강화유지들과 회합할 준비를 하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몇 해를 두고 현안으로 내려오던 가교문제는 결국 케이블카로 해결되어 종래의 교통두절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는 여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

#### 1938-01-21 강화, 김포간 고가전철 지원부담금이 문제 [매일신보]|기사|04면|

##### ▶강화, 김포간 고가전철

지원 부담금이 문제

총공비의 3분지1만 내놓으면

불원 공사착수 확실

여름에 막혀서 교통이 두절되고 교통이 두절됨으로 인하여 식량문제라든지 혹은 통신문제가 생기는 강화도는 금년에도 사나흘씩 여름에 막혀서 교통통신이 두절되었음으로 이 사정을 도 당국에 진정하고자 강화 8만2천 도민을 대표하여 김근호 도회의원이 상성하였었다함은 기묘한 바와 같다.

이 진정결과 강화, 김포사이에 케이블카를 부설하기로 절충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15만원과 22만원이 드는 두 가지 종류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전자는 20명까지의 인원을 태워갈수 있는 공사가 되고 후자는 자동차까지 건널 수 있겠는데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채택하든 강화도로서는 그 공사비의 3분지 1를 부담하는 성의만 보이면 곧 이 공사에 착수를 하게끔 그 실현성은 농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강화도는 면적이 26방리나 되고 인구가 8만2천명 주로 농산물의 산지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강화도로서 이 3분지1의 공사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가 이 문제 실현의 핵심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강화도는 본래가 농산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부요한 군민만큼 생활수준도 다소 높은 편이며 또 작년도만하더라도 농작물이 대풍작이어서 약1백만 원의 증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깐 이론으로 보아 작년 1년의 징수액인 백만 원의 10분지 1만 내더라도 그것이 10만원에 달하게 된다고 현재의 형편으로는 넉넉히 공사비의 3분지 1은 낼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다.

하여간 강화도 장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뜻있는 이번 문제인 만큼 강화도민 전체가 과연 이 문제에 얼마마한 성의를 보일까가 주목되는 문제이며 그 성의 여하가 결국은 이 케이블카 실현을 꿈으로 돌리고마느냐? 혹은 실제의 구름다리로서 그 용자를 나타나게 될 것이냐가 흥미 있는 일이 되어 있을 뿐이다.

#### 1938-01-24 강화연락에 “케블카” 가설은 결정적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 ▶강화연락에 ‘케블카’

가설은 결정적

도민 일동이 찬의를 표하게 되어

## 24일 가부를 회답

기보-방화를 잇는 강화도에 케이블카를 가설하는데 강화도민 8만2천명이 여기에 요하는 총공사비 3분지 1를 내일 납부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남은 문제로 된 김포-강화간 고가전철에 대하여는 얼마 전 감자 지사가 김포 도회위원의 진정을 받고 박 군수를 초청하여 최종협의를 하였다함은 보도한바 그 후 박 군수와 김 도회위원은 19일에 강화도로 돌아와 여러 가지로 분주히 주선을 한 결과 3분지1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될 듯 호소한 일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즉 22일 임시 군수회의에 출석하여 박군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감자 지사로부터 도민의 성의를 보이면 자기도 용단을 하여 수년간 현안으로 되어있는 강화 김포간의 교통문제를 해결 짓겠다고 한 그 성의에 감격한 만큼 군수를 비롯하여 김 도회위원과 8만 도민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

어제도 긴급히 면장들을 소집하였고 또 그 외에도 각 방면 유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 모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 문제는 드디어 문제해결의 서광을 보게 될 것을 믿고 있다.

대체로 실력 있는 유지들의 쫓기를 나로서는 희망하며 둘째로는 도민들의 성의 즉 각 면별로 이것을 부담하는 성의 그것을 바라고 있으며 만족할만한 결과를 짓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의 예산사정이 금명간에 곧 나게 되는 만큼 강화로부터의 '예스'와 '노'는 24일에 도지사에게 통지하기로 되어있다 한다.

## 1938-01-24 김포군 연초의 면장회의 개최 [동아일보] | 04면 | 05단 |

### ▶(김포군연초 면장회의 개최)

(김포)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김포군청회의실에서 금년 들어 처음인 면장회의를 열었다는데 9개면 각 면장이 출석하여 관내 상황보고가 있었고, 권군수의 의미심장한 훈시가 있었다.

특히 중대 시국에 대처할 군민의 각오와 군 발전에 대한 백년대계를 말하여 크게 감격을 주었다하며 계속하여 오후에는 권군수의 각 면장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각 사항에 대한 타합이 있고 오후4시경 원만히 끝마쳤다고 한다.

## 1938-01-25 면장회의의 긴급 초집 케이블카 문제토의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1단 |

### ▶면장회의의 긴급소집

케이블카 문제 토의

24일 강화도에서

(강화)강화도의 현안이던 강화 김포간의 케이블카 가설 문제로 지난 21일 오전 11시에 군수실에서 군내 각 면장을 긴급소집하고 신비 서장을 비롯하여 신문단체인 목요회원 등이 임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화-김포간 케이블카 가설비에 대한 토의한 결과 제2안인 240,000여 원에 대한 것을 채

택하기로 결정하였는데 24일에도 또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것을 신중히 토의하기로 하고 이날 정오경에 산회하였다.

1938-01-26| 강화의 “케블카” 문제 7일에 확정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강화의 ‘케블카’ 문제 27일에 확정

유영으로 민의 합 못되어

도민 활동은 맹렬

기보-여름으로 인하여 유폐되는 강화도와 그 대안인 김포에 케블카를 가설하기로 경기도 당국과 강화군 사이에 절충이 되어 강화도 8만2천명 도민이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 3분지 1를 부담하면 도당국은 13년도 예산에 이를 편성하리라고 한 것은 기보한 바 같다.

강화도에서는 이 대답을 24일에 통지하기로 한것을 사정에 의하여 27일까지로 연기하기로 24일 강화군으로부터 통지가 왔다고 한다.

즉 지난 21일에 강화도에서는 면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면별로 면민의 의사를 종합해가지고 24일에 도청에 회답하려하던 것인데 그 후 각 면과 면사이에 유빙으로 인한 교통이 또 다시 두절되어 연락이 완전히 되지 못하여 24일에 확답을 못하였다는 것이다.

방금도 강화군청에서는 박군수 이하 각 주임이 가면으로 활동 중이며 김 도회의원 역시 각방으로 유세중이라고 하는바 오는 27일에는 최후의 통지가 오리라고 도에서도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1938-01-30 강화유지 좌담 고가전철 문제로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강화유지좌담

고가전철문제로

강화 김포간 케블카 문제에 있어 지방 부담에 대한 일반 주민과 상공업자와 관계자등이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강화군 회의실에 약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하고 토의하였다고 한다.

1938-01-31 면의 명칭·구역 개정<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28호>

▶1914년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3호(면의 명칭 및 구역) 중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193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군 부분의 명칭란 중 ‘군내면’ 을 ‘김포면’ 으로 개정한다. <중략>

1938-02-26 김포군에서 표창식 거행 [동아일보]|07면|09단|

▶(김포군에서 표창식 거행)

(김포)김포군에서는 지난 19일 군청회의실에서 관하 납세성적 우량 면으로 고촌면 양촌면을 표창하는 동시에 영년근속 면직원으로 김포면 김동석씨와 월곡면 김갑성씨 우량 면직원으로 고촌면 노용희씨에 대하여 각기 표창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1938-02-26 김포 농민교 제2회 졸업식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 농민교 제2회 졸업식

(영등포)김포공립농민학교는 농업조건에 있어 제일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한 이래 3개년을 지나 제2회 졸업생 18명을 배출하여 지난 22일 이 학교 강당에서 옥천 교장의 사회로 본군 권 군수를 비롯하여 관민유지와 학부형들의 참석으로 성대히식을 거행하였는데 우등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한상식, 박찬기, 임병옥

1938-02-27 김포 각 학교 졸업식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 각 학교졸업식

(영등포)김포군내 각 학교에 졸업식 예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김포공립보통학교 3월 19일, 검단공립보통학교 3월 18일, 고촌공립보통학교 3월 19일, 통진공립보통학교 3월 24일, 대곶공립보통학교 3월 16일, 양곡공립보통학교 3월 18일, 하성공립보통학교 3월 18일, 양천공립보통학교 3월 18일, 신정간이학교 3월 18일, 후평간이학교 3월 17일, 서암간이학교 3월 19일, 대벽간이학교 3월 17일, 농업실수학교 2월 22일

1938-03-02 한심한 교육기관 6천 주민의 자녀가 문제 [동아일보]|08면|6단|

1938-03-10 김포군 청사신축 기성회 결성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군 청사 신축 기성회 결성

목적달성에 매진!

(영등포)다년간 현안이었던 김포군 청사 신축문제는 지난 1월경부터 다시 논의되어 이달 19일에 각 면장을 위시하여 경찰관서와 일반 유지들이 발기인회를 조직하여 그 준비 활동을 개시한바 각계에서 김포군 청사 신축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지난 3월 7일 오후2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김포군과 김포경찰서의 순회간부와 각 면장 경찰서 주재소원을 비롯하여 민간 유지등 50여명이 모여 기성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도전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관청 건물은 첫 번째 채광과 보온이 충분히 잘되어 사무를 보는데 능률적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사무와 직원의 통제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관청의 위신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김포군청은 세 번째 조건인 위신문제는 고건물이나 근근이 유지할 수 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하나도 갖춘 것이 없다.

적어도 6만 군민의 복리와 김포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청사가 사무집행상 비능률적이며 직원의 감독이 미치지 못하여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영향을 받는 자는 누구냐는 등에 청사신축의 간절함을 약 1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하여 장래를 긴장시켰다.

이대영 면장이 임시의장으로 추천되어 규약을 부의심의하고 임원선임이 별 탈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새로 선임된 부회장 해골태일랑씨가 의장석에 좌정하여 회무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으며 이어서 권갑중 군수의 정중한 인사가 끝난 다음 폐회를 하였는데

김포군청 청사 신축문제는 주민들이 그 긴급함을 외치고 있는 만큼 자못 급속도록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된 임원 : 회장 명진석, 부회장 해골태일랑, 윤병희, 고문 권갑중, 도전희대중, 상임위원 주월환섭 외 14인, 보통위원 고송도태랑 외 28인, 간사장 삼산수길, 간사 김종은 외 3인

#### 1938-03-12 다년간 현안중이든 김포군청 신축실현 [동아일보]|07면|01단|

▶현 김포군청사는 300여년전 건물인바 사무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보아 현대적 가치라고는 하나없는 극히 불안정한 건물로 일찍부터 전주민의 절실히 느껴오던 청사신축문제가 드디어 실현을 보게 되리라는바 지난 7일 오후 2시에는 김포군청회의실에서 기성회 총회를 개최하고 순서에 의하여 김포서장이 일어나 발기인회 경과보고로 불안전하고 무너져가는 김포군청사를 보고 우리는 그 신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감격에 넘치는 일장 연설이 있는 후 후임 임시의장으로 양동면장 이대영씨가 피선되어 다음과 같은 토의 사항이 있는 후 오후 4시 폐회하고 별석에서 연회가 있었다고 한다.

#### 1938-04-01 김포군 학교평의회 [동아일보]|04면|05단|

#### 1938-04-13 획기적 대매립공사 인천서 서곶면 지나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 ▶획기적 대 매립공사

인천에서 서곶면 지나 사암도까지

1,500만평의 시공

(인천)북인천항의 대뱃는 해를 거둬들수록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공업항으로서의 시설을 다하기 위하여 4만여 평을 매립하고 3,000톤급 내지 4,000톤급의 기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이제 영정 인천부윤은 이 매립공사의 완료와 함께 10년 대계의 동양 제1의 매립공사를 계획 중이라 한다.

이에 그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 착공중인 공업항을 기점으로 하여 부천군 서곶면 해안을 통하여 김포군 대곶면 사암도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을 매립할 계획이라는데 이 면적은 5,000정보에 달하여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1,500만평에 달하는 그야말로 매립공사로는 획기적인 큰 대사업이다.

#### 1938-05-22 식모 능욕한 주 면도로 절경자살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 ▶식모 능욕한 주인

면도로 목을 잘라 자살

본 남편에게 주검으로 사죄

유부녀인 자기 집 식모를 꼬여서 간통한 것이 발각되어 본 남편에게 질책을 받자 주검으로 사과한 참사가 있다.

부내에 삼반통 25번지 전기치료사 지상원평(48세)은 자기 집 여종인 김포군 이강석(가

명)의 처 이말순(31세)과 일통한 것을 그 남편이 알고 21일 오후 4시경 본 남편인 이강석이 지상원평이를 찾아가 <당신은 남의 처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문책을 하자 여기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며 슬그머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면도칼을 들고 목욕탕에서 자기 목을 찢러 자살을 도모하였다.

옷을 갈아입고 나올 줄 알던 이강석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므로 수상히 여기고 집안을 뒤져보다가 그와 같이 자살한 것을 보고 놀라서 용산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용산경찰서에서 급히 달려와 본 결과 아직 생명이 남아있으므로 철도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몇 분이 안 되어 절명하였다고 한다.

1938-06-09 3군 기독교도 회집 내선연합회결성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3군 기독교도 집회

내선연합회 결성

인천, 김포, 강화

인천부와 김포, 강화의 1부 2군의 기독교도 500여명이 대동 단결하여 연합회 결성하기로 하였다는데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인천부내 용강소학교에서 500여명의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 발표회식을 거행하리라고 한다.

1938-07-01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수<조선총독부고시 제535호>

▶1937년 말 현재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는 다음과 같다.(부·군명-총 호구수 · 인구수-조선인 호구수 · 인구수-일본인 호구수 · 인구수-외국 호구수 · 인구수)

<중략>김포군-10,675-58,918-10,596-58,655-77-265-22 <중략>

1938-08-18 남편과 살기가 싫어 낮으로 난자 김포군하에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남편과 살기가 싫어 낮으로 난자

김포군하에 살부극

조혼으로 인한 살부 미수사건이 발생하였다-김포군 김포면 사우리 43번지 임성금이라는 여자는 지난 5월 16일에 시집을 갔으나 남편인 류춘석이 이를 싫어하여 여자가 살해할 뜻을 두고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남편에게 기도를 드리자고 뒷 송림 속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속이어 밧줄로서 남편을 나무에 붙들어 매고 눈을 가린 후에 낮을 배를 찢러 여러곳을 함부로 난자하여 빈사케한 것을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경성대학병원에 입원 응급 수술을 가하는 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범인 임성금은 소환경찰서에서 체포하여 엄중 취조중이다.

1938-08-20 누산도로 완성을 양곡면민 갈망 [동아일보]|03면|11단|

▶(양곡)양곡 누산간 도로는 양곡시장에 육상교통로로 제일 중대하다는데 그럼에도 불완성으로 교통상 지장이 많다는데 지난 17일 내리는 비에 통행하던 자동차는 또 두절되었다 한다. 이에 양곡 시민들은 이 도로에 완성하기를 갈망한다고 한다.

1938-08-20 김포 군사강연 [동아일보]|04면|12단

1938-09-22 부평역과 김포읍간에 사설 철도부설 기획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부평역과 김포읍간에 사설 철도부설 기획

부평번영회에서 기성회 조직하고 25일 관계자 회의

(인천)경인 일체 구현화 계획에 따라 경인선 중간인 부평평야를 공장지구로 하고 동양 제일의 공업도시화를 목표로 각종 시설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오늘, 부평번영회에서는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이의 급속한 실현을 도모하고 부평역을 기점으로 하여 김포 읍까지 거리 20키로에 걸쳐 사설 철도부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부평과 김포면 평야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을 망라하여 자본금 100만원에 철도회사를 창립하여 제1차 계획으로 부평 김포 간까지 부설하고, 제2차 계획으로는 김포, 강화도까지 부설하고, 제3차 계획으로는 김포에서 경성까지 부설하기로 계획하며 오는 25일에 부평읍 부내면 사무소에서 부평번영회 주최로 김포 부평지주와 기타 관계당국자가 회합하여 철도회사 창립기성회를 조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과연 경인일체의 구현촉진과 아울러 동양경제 산업에 중심도시로 될 것임은 물론 긴 안목으로 보면 실로 큰 사업으로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한다.

1938-11-02 근로지도강 습회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39-01-18 「오토싸이」와 충돌! 신혼자동차 봉맥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7일 오후 3시쯤 되어 노량진정에 있는 전 시흥군 북면 사무소 안에서 원서정 40번지에 사는 이연우와 그의 아내 최순이 및 그의 처삼촌인 최재봉등 세 명이 영등포쪽으로부터 평안택시 경제1973호 자동차를 운전수 임춘걸이가 운전해가지고 달려오다가 때마침 신용산쪽으로부터 김포군 양촌면 누산리에 사는 인태식이란 사람이 식료품을 가득히 싣고 운전수 신태경을 시켜 운전해가지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시클과 서로 충돌하여 두 차가 모두 크게 깨어진 바람에 두 편에 탄 사람들은 현장에서 인사불성에 빠진 것을 그 부근 금강의원으로 데려다가 빨리 구호를 한 결과 자동차 전차 운전수 신태경만이 바른 다리와 왼다리에 완전히 낫기까지 3주일가량 결릴 중상을 받았을 뿐 그 밖에 사람들은 다행히 모두 무사하였다.

그런데 택시에 탔던 이연우는 수일 전에 진위군 북면 어설리로 장가를 들어서 최순이를 새 아내로 맞아가지고 후행으로 따라오든 처삼촌인 최재봉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뜻밖에 변을 당한것이라 한다. 그리고 손해와 원인은 소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중이다.

1939-01-19 경향에 불덕한 준동! 채권자를 타살투강 [동아일보]|02면|01단|

▶(경향에 부덕한 준동, 채권자를 타살투강

도박으로 돈 잃고 값지 못해서

김포군하 회유의 흥한)

(김포지국전화)작년 12월 2일 김포군 하성면 석탄리 김갑준(24)은 자기 형이 도박죄로 유치된 것을 벌금으로 갚으려고 한 동에 사는 어물상 권용규(43)에게서 30원을 꾸어가지고 벌금은 물지 않고 역시 도박에서 잃어버리게 되어 다시 20원을 더 꾸어왔다.

이어 갚지를 못하고 재촉은 급하므로 생각하던 나머지 권을 살해하고 금전을 더 강탈할 목적으로 역시 한 이웃에 사는 권용남(40)을 꼬여 공모하기로하고 9일 권용남이 없는 사이 권용규를 빗갠다고 꼬여 권용남의 처만 혼자 있는 곳에 데려다놓고 자기는 나와 용남을 시켜 유부녀를 보러 다닌다는 생트집을 잡게 하여 설왕설래 중 두 사람이 사정없이 구타하여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밤중에 강물에다 띄어 버렸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중 그는 홀아비로 아들들만 집에 있는바 금년 1월 4일까지 통진 집에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상하여 경찰에 고발하여 왔으므로 전기 김갑준, 권용남 두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 취조하니 전혀 말을 안하고 있다가 17일에 와서야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므로 취조가 끝나는 대로 불일 송국하리라고 한다.

1939-01-28 무면허 운전수 살인! 김포가도서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26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김포군 북변리 293번지 변필직의 미곡점 앞길에서 경성 남대문동 경서 트럭으로 면허 없는 운전수 박경근이 백미 마흔두 개의 가마니를 싣고 변필직의 미곡점으로 향하던 길에 부근에 있는 정미소 인부 고경신을 치어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부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했으나 그날 저녁때 죽어버렸는데 가해자 박은 김포경찰서에서 취조중이다.

1939-03-07 시흥 근로단 제5차 출발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39-03-15 오정면 부천 오곡리 김포군 편입에 반대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39-03-29 조선총독부 곡물검사소 지소 출장소 명칭·위치 개정

▶1936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95호(조선총독부곡물검사소지소 출장소의 명칭·위치에서 지소출장소의 소속감사지정지)중에서 1939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중략> 동부 김포출장소 항 중 '군내면' 을 '김포면' 으로 개정한다. <중략>

1939-05-04 김포군 음사회 총회개최 [동아일보]|04면|04단|

1939-07-05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조선총독부고시 제544호>

▶1938년 말 현재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는 다음과 같다. (지역)총 호구수·총 인구수-조선인 호구수·인구수-일본인 호구수·인구수-외국인 호구수·인구수  
<중략> (김포군) 10,948-60,709-10,860-60,469-84,236-4-4 <중략>

1939-08-08 내외동방을 방해하는 처와 장모를 작살 [동아일보]|02면|02단|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정백인 (57)의 장남 영래(21)는 작년 가을 동리에 사는 감우홍의 둘째 딸과 결혼한 바 정씨의 집이 가난하여 일상 아내의 친절에 가있으면서 불평을 일으켜오고 그의 장모가 자주 찾아와 내외간 동침도 못하게 해왔었는데 6일도 역시 그의 장모가 와서 한방에 자지 못하도록 딸을 끌어내는 등 한동안 범석을 떨었다.

새벽 1시경 정영대는 갑자기 낯을 들고 달려들어 장모의 입을 찢러 직사케 하고 찢른 자리를 대쪽으로 꿰어 놓은 것을 그의 아내가 보고 놀라 도망하는 것을 쫓아가 역시 낯으로 옆구리를 찢러 직사케 하고 어디로인지 달아나 버린 바 이 급보를 받은 김포경찰서에서는 즉시 현장을 임검하는 동시 범인 체포에 노력 중이다.

1939-09-06 토끼의 적극증식 김포군서 강습회 [동아일보]|07면|07단|

▶(토끼의 적극증식)

김포군에서 강습회 개최

(김포)김포군에서는 축우양돈에 대하여는 벌써부터 증식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장려를 해온 결과 점차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터인데 금년부터는 일반 농가에 대하여 토끼증식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군 농회에서는 사육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토끼의 구입 판매 등에 알선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충케하는 동시에 군수자원을 원활케하며 양토의 발달을 도모코자 그 사양관리 방법에 대하여는 군 당국에서 강습회를 개최하고 그 지식을 보급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1939-09-13 수답에도 이모작 김포군의 한해 대책 [동아일보]|02면|08단|

1939-10-19 지주간담회에서 작인구제책협의 김포군의 한해 [동아일보]|04면|06단|

1939-10-20 황기 2600년 기념 감나무 증식계획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군에서는 명년이 황기 2600년에 해당함으로 이를 기념함에는 임업관계 사업을 실시함이 의미심장하다는 견지 하에 관내 각 애림부, 각 진흥회 부락, 소학교, 신명야사경내에 일제히 기념식수를 실시코자 계획을 진행 중이던바 이번에 또다시 김포명산인감의 개량증산을 적극 장려코자 고촌면 풍곡리 애림부를 모범부락으로 선정하고 동부락내 농가호수 22호에 대하여 고염나무 1,500주를 식목을 실시하려고 계획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경비는 산림부 김포지부에서 지출케된다는 바 일반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기대 중이라고 한다.

1939-10-22 강연영화회 23일 김포군에서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김포에서는 군과 경찰서와 연합주최로 교육과 종교에 대한 강연회와 영사회를 오는 23일 오후7시부터 김포군청 구내 광장에서 개최한다는 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강사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사 일연종조선개교사 원산항지지주지 중산연행

1939-10-22 김포 양촌과 인천간 관통도로를 신설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4단 |

▶(김포)김포군은 경성과 인천같은 대도시를 접하고 있는 만큼 교통이 빈번함에도 현재 김포 인천 간의 교통상황을 보건대 경인선 부평역에 자동차로 가서 또다시 기차로 연결을 하게 되어 그 불편함은 물론 시간에 불경계가 막심하여 군 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려고 김포 인천 간 직통도로를 신설코자 도당국에 누누이 교섭을 하였다.

도당국으로서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경비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한해구제사업을 각 방면에 실시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이 도로를 기어이 실시코자 군 당국에서는 맹렬한 운동을 하여 결국 이를 실시키로 결정하고 그간 모든 준비를 진행 중이던바 지난 18일 오후 1시에 양촌면 양곡리 평야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당일은 우천임에도 각 관공서장이며 관계면장 제씨와 일반 유지들이 다수 출석하여 성대한 기공식을 거행하였는데 이번 이 도로는 폭이 20척이고, 거리가 약2리이며 총공사비가 약7만원으로 이 공사비는 한해민의 수중에 전부 드러날 것이라 한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양촌 인천 간 교통은 이웃집 다니는 일반으로 편리하게 될 것으로 주민은 속히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한다.

1939-10-22 김포에 경방단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9단 |

▶김포군관내 각 경방단은 지난 16일로서 그 결단식을 완료하였는데 단장이하 각 단원은 전부 분투노력의 일념 하에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하며 각 단원은 아래와 같다.

김포경방단 단장 박일양, 부단장 송명, 김동연, 고문 권갑중, 윤병희 길간상일 단원수 81명

1939-10-27 김포강연과 영화회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5단 |

▶김포강연과 영화회

김포군청과 김포경찰서 연합주최로 교육과 종교에 대하여 강연과 영화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같다.

예정대로 23일 오후 6시 반부터 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정각 전부터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었으며 먼저 활동사진에 영사기 있었고 이어서 연사 중산일련사의 열변으로 동 11시경에 폐회하였다.

1939-10-28 김포군 경비 전화 래월초 착공 [동아일보] | 07면 | 07단 |

1939-10-28 미검 위반자에 김포서에서 벌금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2단 |

▶요즈음 김포에서는 미곡 미검사 반출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김포경찰서에서는 취체에 부심 중이던 바 지난 25일 무검사로 반출한 자 수삼인을 검거 취체한 후 미곡검사령 위반으로

50원 혹은 30원의 벌금에 처하였다. 그리고 요사이 경성, 인천에 있는 정미업자들은 점원을 파견하여 공정가격을 무시하고 고가로 암암리에 매매한다는 소문을 들은 경제경찰에서는 이를 소탕할 방침으로 철저히 취체를 하고 있다는데 만일 위반자가 있는 경우 단호히 엄벌할 방침이라고 한다.

#### 1939-11-01 토목공사 실시에 관한 협의회 개최 [동아일보]|06면|01단|

▶지난27일 오전 10시부터 김포군청 회의실에서 한해 대책 토목공사 실시에 관한 협회가 있었다는데 관계 각 면장급 담임서기와 경성토목 관구 소장 외 1명, 김포군수 이하 관계 군 직원이 회합하여 목하 시공 중인 한해 대책 토목공사를 1층적확 유효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임금지불의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공사 감독상 주의사항 기타를 충분히 협의하고 오후 1시에 폐회하였다 한다.

#### 1939-11-03 경비 전화를 가설-김포서와 각 주재소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김포경찰서에서는 종래 관하 각 주재소와 연락을 취하려면 공문서로 왕복을 하기 때문에 급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불편함은 물론 시간에도 관계가 있어 유감천만이던 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본서와 각 주재소간에 경비전화가 설계계획을 세웠던 것이 마침내 실현을 보게 되어 지난 10월 27일부터 기공을 하였는데 오는 15일경에는 그 완성을 보게 된다고 한다.

#### 1939-11-05 3백만매 목표 김포입직 보국운동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의 소화14년도 가마니 생산고는 군 당국의 적극 장려로 인하여 작년 1년간 생산된 2백50만 판매를 6개월 만에 무난히 돌파하여 금년도 김포군 생산활당된 250만 판매도 10월에 이미 맞추었다는 기록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군수 권갑중씨는 금년 안으로 3백만 판매를 돌파하고자 부하 직원을 격려 중이라는 바 지금까지의 성적을 비추어 본다면 생산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1939-11-05 중간 상인을 취체하고 식량배급을 앞선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김포서는 이번에도 당국 취지에 순응하여 관내 식량수급 조정과 아울러 인근 도시식량 대책에까지 공헌하여 비상시 식량문제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지난 1일 오후 1시부터 군 경찰서 연합 주최로 관내 면 경찰관주재소 금융조합, 곡물검사소, 직원 70여명이 집합하여 협의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었다는데 이제 협의에 대한 중요점을 대상 소개하건대 김포군의 벼잡 공정 가격은 방주 삼등품 매근에 9전 8리 4모로 결정되고 각 등급의 차는 1리5모라하며 종래 미가정책을 문란케하는 중간상인의 취체를 엄격케 하기 위하여 중매인 인증표를 경찰서장이 발행케 되었는데 이 증표가 없을 시는 미곡의 취인을 못하게 된다고 하며 곡식의 반출 반입에 대하여도 경찰서장의 인허를 받아야 한다는데 만일 범측하는 때에는 엄중 처벌하리라 한다.

또 군 농회와 금융조합에서는 합동사업으로 농회원과 식산계원에 대한 벼 공동 판매도

실시할 것은 물론이요 위탁이 있는 때에는 쌀의 정맥위탁 판매도 한다는데 그 방법은 일정한 시일장소의 공동출하를 하면 군 농회와 금릉조합에서는 공정가격에 대한 벼값을 일시 임채한 후 그 벼를 정맥미로 하여 판매한 후 정산 지급한다고 한다.

협약사항

- 미곡수급 조사에 관한 건
- 쌀정맥 위탁에 관한 건
- 관내 수요 식량 미배급에 관한 건
- 미곡보관에 관한 건

1939-11-08 김포경리회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1단 |

▶김포군농회에서는 일반 회원에게 개량경안과 개량쟁기 보급선전과 심경, 추경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관내 양동, 양서, 고촌면을 제외한 6개면에서 독농가를 양촌면 양곡리에 회합케하여 경리회를 개최하리라는 바 이번 경리회에 출장하는 농우는 거세우가 14필이며 보통소가 4필이라 한다.

1939-11-22 금재순씨 특지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6단 |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금재순씨는 이번에 자택을 신축하고 이 기념으로 신축낙성연을 하려는 경비를 아래와 같이 공공사업에 써달라고 각 관계관공서에 기증하였다는바 주민의 칭찬이 자자하다.

- 황군간금 20원 지원병후원금 50원
- 군사후원연맹 50원
- 월곶면각시설비 200원
- 계320원

1939-11-23 김포금릉학원 50원 기부 신흥군씨 특지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9단 |

▶김포금릉학원에 50원 기부

신흥군씨 특지

김포읍내 금릉학원은 현재 교사가 협착하여 불평함이 많으므로 이를 신축코자하나 경비문제로 설립자 정준씨는 각 방면으로 운동을 한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다.

이 소문을 들은 김포면 풍무리 신흥군씨는 이에 감동하여 그리 부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50원을 희사하기로 하였다는데 주민은 신 씨의 선행위에 감사하며 칭찬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9-12-02 지원병 훈련생-각지에서 귀향봉고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7단 |

▶제국군인 후보생으로 육군지원병 훈련소에 입소중인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심범택군은 지난11월 17일에 훈련을 마치고 29일 출소하여 일시 귀국하였다가 명춘에 육군현역 보병으로 입영케 된다는데 귀향도중에 김포읍내에 잠시 내려 신명 신사에 참배를 하리라 한다.

1939-12-05 한해 의연금- 김포양회사미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에는 이번에 조선 사회사업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온 한해구제의연금 기부모집 배당이 800원이나 되어서 군 당국에서는 이를 또다시 각면에 분배하여 기부모집을 할 예정이나 김포에도 금년 한해가 심한 곳이 많아서 이 대책에 부심중이라는 소문을 들은 양동식산회사와 인천에 본사를 둔 <가네미>협우조합 김포농장에서는 자진하여 각사 백원씩 거출하였는바 주민은 그 후에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1939-12-06 갯생계획 수립-김포면 서기지도회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39-12-06 1면 1사 실현-김포군 면에조영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김포군에서는 일면 일사 계획을 세우고 각면에 신명 신사를 영조하고자 본부에 허가원을 제출하여 양서면외 3개면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이거니와 나머지 각 면에도 지난 11월 28일부로 허가가 되었음은 계획한바와 같이 일면 일사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 한다.

1939-12-09 귀향 지원병-눈물의 신화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에 사는 심범택(20세)군은 육군지원병 훈련소를 마치고 지난 11월 29일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부친 심의각씨는 그전부터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을 아들에게 감추고 아들의 봉공정신이 식지 않도록 힘써 오던바 드디어 아들이 돌아온 날 즉 29일 오전 10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동리 유지들은 면사무소에서 그를 위한 환영회를 열어주어 심군은 부친의 죽임은 자기 한 집의 개인적일이고 환영행사는 사회적 모임이니 출석하지 아니 할 수도 없고 일이 난처하나 드디어 눈물을 감추고 환영식에 나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동리 사람들은 그의 심경에 감격하여 한층 더 성대한 환영회를 열어주었다하며 그리고 심군은 부친의 장례가 끝난 뒤 군 당국의 지원병예비훈련에 참가하여 활동 중이라 한다.

1939-12-11 김포군에서도 경제전 강조 운동 [동아일보]|04면|09단|

▶지난 7일 김포군. 김포경찰서 공동 주최하에 오후1시부터 김포군 청년 회의실에 관공서장 및 각 학교장, 각 주재소 수석, 각 단체 대표자가 모여 경제전 강조월간에 관한 실시운동으로 여러 가지 실시할 방침과 사항에 대하여 각 방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 바 그 실시사항으로 대용식일 주무일 저축실행일 등 여러 가지로 방침을 세워 전시국민으로써 경제전에 만 유감없기를 기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939-12-11 술 마셔 낭비하고- 허위강도고발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김포군 김포면 장기리에 사는 김순영(22세)은 지난 6일 오전 7시경 김포경찰서에 출두하여 자기는 각처 시장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행상인데 5일 하성면 마곡리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밤늦게 돌아오는 도중 원산이 고개에 당도하였을 때 검은 방한모자를 쓴 괴

한이 나타나서 불문곡직하고 뺨을 쳐서 쓰러트린 후 자기를 깔고 안져서 몸에 지닌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

그래도 수상함으로 당에서는 이를 다시 조사한 결과 본인은 금년 8월에 자기 아버지에게 장사를 할 자금으로 470원을 얻어가지고 의복행상을 하여 오던바 지난 5일 마곡장에서 물건을 판후 그날 밤에 자기와 같이 행상을 하는 동 모수人口인과 같이 그 근처 음식점으로 다니면서 낭비를 많이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꾸중 받을 일을 생각하고 이와 같은 허위 신고한 것이 판명되어 구류처분을 받았다.

#### 1939-12-16 축 김포지국 설치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 1939-12-22 강도 명일송국 서부 경성의 공포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근래 김포가마니 생산량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점점 증산되어 군 당국에서는 금년 생산목표를 300만매로 정하고 적극 장려하여 온 결과 예정 목표의 실현을 보게되리라 하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생산 장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품질향상을 시키고자 진나 15일부터 가마니 가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한다.

#### 1939-12-22 김포미곡 반출 금월중 이만석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에서는 경찰서와 연합주최로 지난 18일에 관내 지주와 외지주주의 관리자 50여명을 경찰서도장에 초대하여 양미 조절에 대한 좌담회가 있었다.

총래 김포군에서는 판매에 대한 식량조정은 물론 이에 아울러 인근 도시 식량까지도 조절시키기 위하여 중간상인을 취척하는 한편 경성에 있는 하수조합으로 출하를 하여왔었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이해치 않고 다만 곡가를 오르기만 기다리며 적치하여두는 영향이 많으므로 이번에는 이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재 각 지주 측에 있는 미곡수량을 조사하는 동시에 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총래에 당국의 눈을 피하여 비밀매출을 하여 오던 행동은 일절 폐지하기로 되었다하며 이달에 출하할 예정량은 약 2만석 가량이라고 한다. 비밀매출을 하는 때에는 판 사람은 물론 산사람까지도 단호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 1939-12-23 김포 경성간 선경 춘철에서 인계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오래동안 현안 중에 있던 경성 강화 간을 왕복하는 삼신자동차 설로를 경춘철도자동차부에 매각설은 결국 그 실현을 보게 되어 21일부터 경춘에서 인계하여 운전을 개시하였는데 그 동안 승객은 나날이 늘어가지고 차 수요는 적어서 일반 여객의 불평함이 자못 많아왔는데 금후로는 차수효도 다소 늘리게 될 듯하다고 하며 운전시각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리라고 이로 인하여 여객의 불평함이 다소 완화되리라 한다.

#### 1939-12-29 김포에 화객홍수-교통기관의 부족으로 대곤란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근래 김포지방에는 교통기관으로 인한 일반의 불평이 자못 높다는 바 이제 그 자세

한 내용을 들어본다.

원래 김포군은 경성과 인천 같은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는바 그간 두 도시가 다시 구획장을 하게 되자 그로 말미암아 여객과 화물은 날로 늘어가는 현상이다.

군내 교통기관으로 경춘 철도의 직영인 김포자동차부와 삼신자동차부가 있으나 운전하는 차가 17대 밖에 없어서 매일 승객 6,700명의 운송은 전혀 불가능한고로 차마 다 만원은 물론 발착시간이 되면 저마다 타지 못할 염려가 있어 다투어가며 타려고 큰 난리가 난 것 같다.

이것이 한두 번에 그친다면 관계치 않겠으나 하루도 몇 번씩이고 보니 그 불안한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한다.

그리고 또 한편 화물운반으로는 본사를 김포읍에 둔 경서추력운송주식회사가 있는데 화물이 원체 많고 차 수요는 1대 밖에 아니 됨으로 이를 밤낮없이 실어낸다해도 전부의 운반은 도저히 어렵겠는데 김포산물인 가마니가 년산 3백만 매나 됨으로 차 1대에 1천매씩만 실어 들인다면 하루 2번 왕복을 할 셈치고 400여일을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고 보면 일반 화물은 좀처럼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일반 화물운반에 대한 그 교통이야말로 여지없는 참담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일반 화주들은 속히 차 수요를 늘리기를 갈망하고 있는 중인데 모방면으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회사측으로서도 미안히 여겨 차수효를 늘리고자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중으로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운송의 기근이 다소 완화될 듯하다.

#### 1939-12-29 꾸지람 듣고 소년이 자살 [매일신보] | 기사 | 03면 | 04단 |

▶ 16세 된 소년이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목을 매어 자살한 사실이 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김포군 김포면 풍무리(모루재)에 사는 강주향의 아우 강문향은 지난 26일 대수롭지 아니한 일에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집에서 났는데 이웃에 사는 이원자가 자기 집 온돌에 불을 때고 나서 불조심하느라 집 뒤 굴뚝 편에 들어갔더니 어떤 수상한 사람이 강주향씨 집 후원에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주인에게 가서 방금 수상한 남자가 당신 집에 들어와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하니 강 씨는 놀라서 가보니 자기 아우 문향이가 뜻밖에 목을 매어 죽었음을 발견하였다 한다.

내이권

# 무신인미

이벽 삼삼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공부 인가

### 특별보

○청국 공사가 저작일에

폐현하고 박천 국서 부본을 엮

더 광포호노라

대청국 대황대는 공명 호야

대한국 대황대 폐하씨 요음을

못조오며 우리 두 나라이 혼씨

아세아주에 있어서 물이나 룩디

가 긴척하게 련호야서 슈백년이

리로 아롭다운 일이나 슬픈일에

서로 상관 호기를 남의 일이나

너 일을 부변치 아니호고 므릇

서로 붓들고 도아줄 일에는 문

득 드음파 힘을 다호야 씨 편안

호기를 괴약호거슨 귀국 문적에

나 잇슬터이니 번거히 괴록호것

던거니와 광서 초년에

귀국에서 미리 파 구라파 여러

나라로 더부러 약도 홀때에 인

호야 글을 갖추어 룩디 호거시

죽히

귀국이 오리도록 이저 바리지 아니함을 요구호

는 아롭다음을 징현호거시오 근년에 세게 작국

이 다 저혼자 주장호고 저혼자 보전 호는거스로

공변된 의를 삼으니 일노 씨 광서 이십 일년

에 중국파 일본이 마관서호 약조 첫조판에

귀국이 독립 조주함을 알아 받겠스며 멀리 넉져

에 조하 호는거슬 생각호고 근일에 시세에 간우

함을 살피족 인사파 니가혼 의를 더욱 맛당히

한가지 갑구 호야 홀터이기로 이품 혼 후보

삼품 경당 서슈봉을 파송호야 출스 대신을 삼어

서 친히 국서를 꾸려가지고 한성에 나아가서 집

의 뜻을 대신호야 폐게호되 이 대신이 박실호고

충성스리워 일을 판단 호는디 발고 련속호오니

다히히 바라건디

대황대 폐하는 접디 호기를 너너하게 호사고

귀국 정부로 호야 품 더부러 의론호야 동상 약조

를 작당호야 씨 오리고 멀도 룩 지네게 호시오 일

노 좇차 두 나라이 길게 화합호고 조하 호을 두

독히 호야 하가지로 스펡 호을 누리기를 직이 듯

터히 바라오

광서 이십스년 팔월 이십일일

○륙품 도변철은 아산 군수를 임호고 ○륙품 최

### 판보 이월 이일

# 1940-1945

<범례>

○ 기사본문

▶ 원문해석

<중략> 김포와 관련 없는 내용 생략

1940-01-05 축 황기 2600년 [매일신보]|기사|06면|10단|

1940-01-14 지원병 출발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심범택군은 지원병 훈련소를 졸업하고 임시 귀향중이던바 지난 19일에 용산연대 입영케 되어 지난 9일 김포신명신사에서 대입영봉고제를 엄숙히 거행하고 오후 12시 반에 경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출발 당시에는 각 단체와 일반 유지가 무려 6~700명이나 모여서 환송하였다.

1940-01-16 머슴이 절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문창헌씨 집 머슴이 주인의 돈지갑을 훔쳐 줄행랑을 쳤다는데 이제 자서한 내용을 들어보건대 문씨 집에서는 지난 11월 초순경에 자칭 충청도산다는 주소 불명한 조갑룡을 머슴으로 고용하였는데 지난 10일 밤 주인과 같이 자던 중 11일 새벽 6시경에 온다간다 말없이 없어졌으므로 주인은 수상히 생각하고 자기가 지녔던 현금 121원50전이 든 지갑을 찾아본 바 행적도 없이 없어졌으므로 즉시 소관 김포서에 신고하였다 한다.

1940-01-16 金浦臨時種痘(김포임시종두)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지난 11월 함경남도에서 발생한 두창(마마)은 점점 창궐하여 현재에는 조선적으로만 연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일찌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 김포경찰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임시종두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김포군으로서는 일반의 통행객이니만큼 일반은 방역에 일층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하는 종두에 빠지는 사람이 없이 두를 마저 각자 주의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김포면 1월 18일 도회의실, 검단면 1월 17일 면사무소, 고촌면 1월 16일 면사무소, 월곶면 1월 18일 면사무소, 대곶면 1월 17일 면사무소, 하성면 1월 19일 면사무소, 양동면 1월 16일 가양주재소, 1월 17일 양화교상, 양서면 1월 18일 십말출장소, 1월 17일

1940-01-23 김포군 9면에 신사-2면 1사를 완성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빛나는 황기 2천6백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경기도 김포군에서는 1면 1사의 계획을 세우고 작년 말까지 9개면 전부가 신사를 건립하였는데 22일 오전 10시 조선 신궁에서 감자 경기도지사와 도작과장 권갑중 군수 이하 면장과 구장 등이 모여 신채봉대식을 거행하고 당일 신사에서 진화제를 거행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필두로 하여 장차 장단, 강화 등 각 군에도 금년안으로 1면 1사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1940-01-24 김포수조는 유산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몽리구역 4,000여 정보와 공사비 190여만원의 방대한 계획 내용을 가지고도 사업실시 중도에 곡가 폭락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시 사업정지를 한이래 십개성상을 수면상태에 빠져있던 김포수리조합 문제가 작년 한해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어 보자는 소

리가 떠오르자 김포수리조합장이요 또 김포군수인 권갑중씨는 일반에서 그와같이 요망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한해극복 항구책으로 기어이 실현을 보게하려고 그간 각 관공서장과 일반 지주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끊임없는 운동을 계속하여 왔었는데 근일에 이르러 또다시 구체적 타협을 한 결과 여러 가지 관계로 김포수리조합 부활은 실현성이 어렵고 부평수리조합 물리구역 확장으로써 사업실시를 하기로 결정되어 곧 사업착수를 보게 되었다는데 김포수리조합 사업계획보다는 다소 변경이 있을 듯하다고 한다.

**1940-01-25 귀환 지원병 각지 순회 강연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지원병으로서 금번에 귀환한 4명은 25일 군당국 후원아래 김포군 회의실에서 특별지원병제도 취지보급강연회가 있을예정이라는데 일반은 이 제도의 중요성에 비취 많이 참석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李邦根(이방근), 姜錫柱(강석주), 李熙龍(이희용), 崔順業(최순업)

**1940-01-26 전상향토 용사-김포에서 평유기원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군 양촌면 도사리 청수금용 군은 사변이 발발하자 응소되어 제일선에서 험격한 무훈을 세워 오던 중 불행히 적탄으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오다 다시 전선에 나갔다가 정부에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오자 군의 고향 양촌면에서는 지난 24일 양촌 신명신사에서 관민이 다수 집합하여 평유기원제를 거행하였다 한다.

**1940-01-26 김포서 무도납회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2주일간 매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서원일동이 내한무도를 하였었는데 그 동안 영하 28도라는 엄한에도 불구하고 일동은 열심히 연습하여 지난 24일 오후 1시 납회를 하였는데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역도부 1등 곡본수사, 2등 동부장, 3등 강구수사, 검도부 1등 등산교수사, 2등 윤장수사, 3등 등청본부장

**1940-01-27 결혼 방해한 장인 걸어 제소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사위가 그 전날 장인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갑곶리 395번지 남궁진은 자기 어머니 김씨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마송리 320번지 구련희와 옛 장인 구연식 두사람을 상대로하여 손해배상 1,2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26일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하였는데 내용인즉 원고는 피고 구연식의 큰 딸이서와 약혼한 사이였다가 작년 11월 13일 마침내 두 남녀는 화촉의 성전을 베풀게 되었던 바 피고 두 사람은 당시 아무런 이유없이 축복하는 결혼식장에 뛰어 들어와 결혼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렸으므로 말미암아 받은 타격이 막음으로 원고는 위자료 700원과 손해배상으로 499원80전 도합 1,199원80전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1940-01-27 김포군 하에도 3인조 강도-경찰총동원 수사 중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미아리에서 3인조 살인강도사건이 발생하여 75만 부민이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 경성에서 가까운 김포군하에 또 3인조 강도사건이 생겼다. 즉 25일오후 6시경에 김포군 양촌면 유현리 이허용(20)이가 부근의 양곡시장에 팔을 팔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 구래리의 고개에 이르러 3명의 괴한이 나타나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후 소년이 가지고 있던 현금 20원을 강탈 도주하였다.

피해자 이허용은 즉시 김포경찰에게 신고하여 그 경찰서에서는 곧 경기도 경찰부로 보고하는 동시 서원이 총동원하여 범인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1940-01-30 브로커 초년생 일반에 피해가 부소-김포서에서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근일 김포에는 부로-커 경기가 좋다는 소문이 있어 각지로부터 운집하는 부로-커는 물론 농촌에서 건실히 가마니짜며 기타 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일확천금을 꿈꾸며 부업은 커녕 본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부로-커에 종사하는 사람이 날로 속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사기수단을 쓰면 혹은 기외에도 여러 가지 폐해가 적지않다 하며 경찰당국에서는 이를 소탕하여 버리려고 방금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바 일반 부로-커들은 각자 근신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다.

1940-02-03 사기 당하고 허위강도 고발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김포군 양촌면 유현리 이정석(21)은 지난 1월 24일 인천갔다 오는 길에 양촌면 구래리 고개에서 3인조 강도를 만나 현금 20여원을 빼앗겼다고 김포경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신고를 받은 김포경찰서는 즉시 도경찰부에 보고를 하고 비상소집을 하여 각처에 수사망을 세우고 범인수사에 노력하는 동시에 피해자 이정석에게 사실을 조사하였든바 의심된 점이 있으므로 즉시 서원을 인천으로 보내 피해자의 행동을 조사한 결과 11일 명태장사를 하려고 현금29원을 변통하여 인천으로 가서 송현정 39번지에 사는 자기 외숙인 권태옥이 집에서 자고 이튿날 명태를 사러 집을 나가다가 어떤 사기꾼에게 속고 28원을 뺏기고 나서 그대로 오면 집에 있는 부모를 대할 면목이 없으므로 다시 자금을 변통할까 하고 23일 인천을 떠나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자기 친척된 임용덕을 찾아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위고발을 한 사실이 판명되었으므로 동서에서는 허위강도 사건이 이번을 합하여 4번째나 된만큼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1940-02-04 유빙이 강화도 봉쇄-김포간도 수두절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해마다 엄동이 되면 강화 갑곶과 김포 성동 사이의 나루터는 밀고쓰는 조수에 산같은 유빙이 밀려들어 꽉차게되며 나룻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역시 밀려드는 얼음덩어리로 인해 이 두 곳 나루터는 얼음으로 막히고 말았다.

수로에 의해서 문물을 받아들이며 기타 본 고장 생산물이 외의 일용물자는 경성과 인천으로부터 이를 공급해 드리는 이곳 강화는 전후좌후가 얼음에 싸여 완전히 빙해고도가

되고 말았다.

그 동안 추위가 심해지기 시작할 때 부터 유빙이 이곳 물길을 막아왔으나 가까스로 인천과는 통하던 것이 지난 29일로 막혀 버렸으며 다시 경성으로 통하는 이 갑곶과 성동과는 가까스로 얼음을 밀치면서 교통을 유지해오던 것이 요즈음에 이르러 추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이곳마저 지난 2일부터 막히고 말았다.

어제 3일에는 날이 약간 풀리어 개통될 줄 알았던 것이 아주 막혀버리고 말았음으로 앞으로 강화도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이나 봉쇄상태에 빠질것이며 일반 민심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유빙으로 인한 봉쇄 때문에 일반 우편통신물이 일체 못오는 것은 물론 일반 일용품도 못들어 오고 있음으로 앞으로 8만여 도민이 총후생활에 큰 영향을 줄것임으로 이 유빙의 화를 탄식하는 소리가 각 방면에 높아가고 있다.

#### 1940-02-04 地方集會(지방 집회) [매일신보]|기사|03면|13단|

#### 1940-02-06 김포유도회 결성 [매일신보]|기사|03면|12단|

▶김포군에서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시부터 동공립소학교 강당에서 동아신결서의 대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황도정신발휘와 아울러 유도진흥을 도모하여 거국 대동단결을 강화하여 진중보국의 정신을 함양코자 유도회를 결성하였는데 군내 유림이 다수참석하여 공전의 대성흥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권갑중 부회장 윤병희

#### 1940-02-07 식량수급을 조절-김포도 미곡배급 조합을 결성[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에서는 지난 3일 군 회의실에서 면장회의를 열고 식량수급조정에 대한 타협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건대 이번에 본부방침에 순응하여 절미운동을 적극 강화한 동시에 미곡배급조합을 설치하고 각 미곡 소유지의 남은 쌀을 전부 매상하여 관내 식량조정을 원활을 도모하기로 되었다. 미곡배급조합이 아직 되지 아니한 김포로서는 당분간 군 농회에서 그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면에서는 불일내로 각 미곡소유자의 소지미를 조사하는 한편 배급조합에 미곡을 출하겠다는 승낙서를 받게되었는데 미곡 소유자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매석, 매점을 하여 미곡조정상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음으로 이러한 오해는 이 기회에 없애버리고 상애상조하는 정신을 갖기를 바란다 한다.

만일 면 당국에서 이해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군당국에도 하는 수 없이 전일에 발표된 미곡배급조정령에 의하여 단호한 조치가 있으리라는 바 일반 미곡소유자는 극히 주의하는 동시에 양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 1940-02-09 가마니 보국운동 김포서 작년중에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의 자랑인 가마니 생산은 군과 면당국 지도 장려에 따라 해마다 늘어가는 현상으

로 지난 14년도 생산고는 실로 270만매라는 방대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농가에서는 가을 추수를 끝낸 후에는 전 가족이 이에 종사하는 형편으로 심하면 7~8세된 어린아이들까지도 가마니를 짜는 것을 보면 양증말기도 하거니와 기특하여 보인다. 그리하여 가마니 장날이 되면 저마다 팔리나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현상이며 농가부업으로는 이에 더 나을것이 없는 줄로 자각을 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집집이 열심히 가마니를 짠다한다.

#### 1940-02-09 식산계 사무, 김포서 강습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금융조합에서는 지난 5일부터 관내 식산계 간부 50여명을 소집하여 식산계 사무처리 방법 기타 사업실시에 대한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일반 강습원은 열심히 강습을 받았음으로 앞으로 식산계 사무처리에 많은 상식을 얻었다하며 강사로는 경기도 농촌진흥과 중촌씨와 동과축탁류인상씨였다 한다.

#### 1940-02-10 군청원을 매수코 -김포백미반입 사건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얼마전에 종로서에 검거된 부내 공평정에 사는 이연길(35)은 사기전과 8범으로 취조에 다라 여죄가 자꾸 들어나고 있는 중인데 백미를 비밀히 부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김포군농회 감시원에게 30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부내 각 경찰에 발견된 폭리취체망에 위반 된 피의자 집을 돌아다니며 경성 지방법원 검사 서기라 칭하고 3천여원을 사취하고 또는 경기중학교 교우라는 명함을 위조하여 가지고 일반 가정으로 돌아다니며 자식의 입학을 시켜주겠다고 빙자하고 천여원을 사취한 사실 등이 판명되어 불원간 서류와 함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하게 될 모양이라고 한다.

#### 1940-02-10 절미보국을 강조 김포정동리사장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김포군에서는 관내 각 연맹 이사장 대회를 지난 3일 동공립소학교 강다에서 개최하였는데 각이사장 200여명이 출석하였으며 경기도 지사의 고사와 린군인강화, 부천 각 군수의 축사축전과 내빈의 축사가 있는 후 특히 도연맹으로부터는 도회의원인 김민식씨가 참석하여 비상시국에 대한 강화가 있었으며 이번 대회에 결의사항으로는 회원은 매월 1회 이상 신사에 참배할 것과 절미운동의 강화 철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또 복지전선에서 악전고투하는 황군에 감사함을 표하는 전문을 결의하여 지나과건 군사령관과 동함대사령관에게 발송하였다는바 동회는 오후 1시반에 대성황리에 폐회하였다 한다.

#### 1940-02-11 경기도에서 거행될 각종의 표창식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 1940-02-11 김포 경성간 교통난 완화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 유일무이의 교통기관인 김포운수주식회사와 경성 강화간 정기 여객운수 기관인 삼신운수주식회사가 전후하여 경춘철 도로 양도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 금번 정식으로 경춘에 명의변경까지 되기로 결정하여 지난 1월 31일부로 정식인가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김포의 교통량은 갑자기 늘어나 지금의 현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여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던 바 그 완화책으로 우선 목탄차 3대를 증배하여 교통난 완화에 공헌하기로 되었다 한다.

1940-02-13 김포군 내무과 삼산과장 영전 [매일신보]|기사|03면|11단|

▶김포군 내무과장 삼산수길씨는 금번에정부서무과장으로 영전되었는데 그는 시흥군으로부터 부임한지 2년 동안에 일반 지방행정에 대하여 분투노력으로 큰 공적이 많았음으로 이러한 명과장을 보내는 군민은 석별의 감을 금치못한다고 한다.

1940-02-14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15단|

1940-02-28 초지대명간- 도선객 불평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40-03-01 지원병지망자 김포서 예비훈련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김포 육군지원병 후원회에서는 지난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김포공립농업실수학교 강당을 빌려 금년도 지원병 희망자 50명을 소집하여 예비훈련을 시키는 중인데 강사로는 동 남공립심상소학교 훈도와 농업실수학교 교원 여러분이라고 한다.

1940-03-01 속성 상전 설치 김포양잠 장려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에서는 시국상황에 감하여 외화획득과 아울러 농가경제의 윤택을 목표로 금년에 군내 하성면 6개리에 식상 10만본을 하기로하여 목하착착 실시중이라 하는데 이제 그 실시방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건대 농가 1호당 경지5반보 이상을 가진 사람은 그 소지면적의 1할에 해당하는 속성상전을 설치하여 뽕나무를 심은지 2년째 되는때부터 양잠을 시작하게 된다 하며 3년째 되는 준잠에는 잠종 한 장 이상을 집마다 다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국에서 장려하여 온 식상장려 방법으로는 각 면 갱생부락에 한하여 공지이용등 식상방법이었음으로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계획은 산업부문에 정통한 권 군수의 특안으로 다른 지방에 출선하여 실시를 하게 된 것이니만치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한다.

1940-03-03 강화도와 김포간의 가교문제들어 통론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0-03-05 김포애국남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군에서는 군 경찰서 면과 및 주재소의 취지 선전철저로 금년도 지원병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중 군내 월곶면 개곡리 이경천(20)이라는 청년은 일사봉공의 굳은 마음으로 혈서로써 지원하여 일반은 군의 굳은 뜻을 감히 감사히 여긴다 한다.

1940-03-06 절미운동 강화 김포서 좌담회 열고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절미취지와 아울러 각종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주지의 철저를 목적으로 좌담회가 있었는데 출석한 사람은 경찰서 경제주임, 경제담임자 군산업기수, 미곡업자, 요리음식점 각려판매업자 등 출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일반 출석자는 절미최지와 제반 통계법령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으로 많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 1940-03-12 순직한 여차장 김포 각계 동정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지난 8일 경성 강화간을 정기운전하는 경춘 승객차가 질주하는 중에 문옆에 섰었던 차장이 문이 열리면서 떨어져 즉사 하였다함은 기보한바다.

그 자동차에 탔던 승객들이 이 참혹한 경상을 보고 동정에 넘치는 마음으로 5전, 10전 모은돈 15원30전을 즉시 경춘본사에 향로로 부의를 하였다 하며 또 본사를 김포에 둔 경서 트럭 종업원 일동이 금10원을 모아 향전으로 김포영업소를 거쳐 보냈는 바 이를 들은 일반은 그 후 이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 1940-03-31 김포동소교 정원의 5배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김포읍내에 있는 동 소학교에서는 모집정원 80명에 대하여 입학지원을 한 아동수는 400여명이나 되어 5대 1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입학에는 금년부터 생긴문제가 아니라 몇몇해 동안을 두고 해마다 점점 심하여 가는 형편인데 그 동안 감독관청인 군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선후책을 강구하였으나 경비관계로 지금까지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바 동 소학교로 말하면 현재 8학급이지만 남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급으로 제한 나머지 2학급을 가지고 여자 1학년으로 4학년까지 아동을 수용하고 여자 5학년은 남자와 같이 공부를 시키는 어쩔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지원아동은 점점 늘어가는 바 이러한 폐단을 다소 완화시키려면 적어도 5학급 가량은 증축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 곤란을 면치 못할 것임으로 독지가의 출현을 바란다 고 한다.

#### 1940-04-02 경기도 소학교장 이동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 1940-04-12 소녀 능욕한-인천서에서 체포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지난 6일부터 용강정에서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을 체포해 엄중조사중이라고 하는바 자백한바에 의하면 그는 충남 당진군에 본적을 둔 임수명(25)이란자로 지난 30일부내 용강정 모소개업자의 내실에 취침중에 있는 김포군 월곶면 박행자(12)라는 소녀를 능욕한 후 중대한 상처를 입힌채 행방을 감추었다가 마침내 전기와 같이 체포된 것이라 한다.

#### 1940-04-12 인천의 양대 도로, 북해안선과 수인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금년 4월 현재의 4배로 구역을 확장하여 조선의 제2위를 점할만큼 각방으로 시설의 번잡구획정리 등으로 부당국은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인천부로서는

새로운 양대 도로를 기공기로 되었는데 이 도로는 김포읍으로부터 북인천 해안을 통하여 인천에 이르는 신설도로로 도공비로, 수인선 도로확충은 인천부비로 각각 금년 초기부터 기공기로 되었다. 이것이 개통되면 수인 루트는 물론 개인 루트가 육로로 연결될 날도 머지 아니하리라 하며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 1940-04-15 양곡금융조합 총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양곡금융조합 제18기 총대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금융조합사무소에서 개최되었는데 총대 50여명과 유지 다수가 참석한 후 각 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게되고 오후 1시반에 폐회하였다한다.

#### 1940-04-16 김포소채조합 연합회를 결성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군에서는 경성과 인천같은 대수요지를 인접한만큼 소채 재배를 적극 장려하여 도시부식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일찍이 김포, 고촌, 검단, 양릉, 양서 5개면에 면을 단위로 각각 소채조합을 조직하여 총조원 211명을 망라하여 소채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지도장려를 해온 결과 큰 수확을 보게되어 일반으로부터 많은 환심을 끌게되었던 바 이번에 이 5개 조합을 또다시 망라하여 김포소채조합연합회를 조직하기로 하여 제반 준비중이며 예정과 같이 지난 11일 김포군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던 바 제반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게되고 따라서 임원선정에 이르서는 조합장으로는 김포군 농회장인 권갑중 김포군수가 선임되고, 부조합장으로는 김포군농회 부회장인 윤 권업과장이 선임되었다고 한다.

#### 1940-04-21 교목상수를 재배-김포의 산견장려책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군 고촌면 영사정 부근에는 하천부지가 100여정보에 이르는데 종래에 이용사항을 본 당국자는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이용치 못할가하는 견지에서 약5년전에 시험적으로 교목상수를 재배하였던 바 그 성적이 기대하던 만큼 이르렀으므로 금년에는 동 하천부지 전부에 교목상수를 심었다는데 앞으로 3년 후이면 고촌면을 일약 양잠 호화면이 될 것은 다시 말할필요도 없거니와 그 부근 일대는 피서지 유원지로서의 가치가 일층 더하리라 한다.

#### 1940-04-25 가마니 증산 김포에서 독려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곡물검사소 김포출장소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김포군내에 가마니 증산 장려를 목적으로한 타합회천이 섰는데 이번에 특별히 인천지소로부터 익계 검사 감독관과 경기산업인천지점 초전지점장 경기도기수 임만인씨가 출석하여 앞으로 증산장려에 대한 좌담적 타합으로 여러 가지의 경제출과 실시 방법등 원만한 타합이 섰고 증산목표로 말하면 금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동안 120만매의 가마니를 생산케 할것이라고. 원래 김포로서는 년산 300만매를 생산하고 있는 중에 더욱이 이번 모임은 그 생산율에 대한 박차를 더욱 가하게 되었으므로 김포의 가마니 생산량은 점점 늘것이라 한다.

1940-04-25 적십자무료치료 김포군 3개면에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김포군 양촌, 하성, 고촌 3개면에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부터 의사 2인과 간호부 1인이 출장하여 순회치료를 하여 주민으로서는 그 호의에 감사함을 갖고 있는데 더욱이 17일에는 조선본부로부터 좌좌목부총장까지 출장을 하여 치료상황을 시찰하였다 한다.

1940-05-07 위생강화회 김포서 성황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국민건강 주관을 맞이하여 김포군에서는 관민일치 협력하에 국민운동과 위생정신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킴에 노력중인데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는 소학교강당에서 이 운동의 강활목적으로 한 강화회와 및 좌담회가 있었는데 회장은 초만원에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먼저 삼말서장이 영지를 봉독하고 권등군수의 개회사를 하며 공의한중섭씨와 경기도 축탁다구안정씨의 강화가 있었으며 구씨의 유창한 조선말은 주민에게 대단한 환심을 주었다.

회는 오후 5시까지 계속하였고 7시부터는 경기도로부터 특파한 영화반에서 영화상영이 있었는데 이도역시 입추이여지가 없이 성황이었으며 이번 두 가지 모두가 주민에게 위생관념이야말로 그 외 다른바 자못 많다한다.

1940-05-08 전군민이 일치 창씨에 매진-김포는 공전의 호적[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내의 창씨열은 날이 갈수록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며 중군청경찰서와 각 면사무소 각 주재소 각 소학교에는 창씨상담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뿐 아니라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이에대한 취지선전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근일에 와서는 창씨 제출자가 급증하여 각 면사무소에서는 그 수리에 대단히 바쁘다는데 이대로 간다면 늦어도 이달 중으로 전군을 통하여 전부 완료될 듯 하다한다. 그리고 지난 4월말 현재 제출한 인원수를 각 면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김포2,360, 검단면 442, 고촌966, 월곶267, 대곶788, 양촌222, 하성269, 양서94 계 6,446

1940-05-12 경춘 「빠스」 또 전복! [동아일보]|02면|01단|

1940-05-14 탕촌농림국장 김포지방시찰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본부 농림국장은 김포군 농촌실정을 시찰하고자 지난 10일 경기도 산업부장과 도무과장을 대동하고 시찰하여 김포면 곁포리와 김포면 사우리에 들러 묘대설치상황과 기타 각 산업방면에 대하여 실지시찰을 마치고 다시 김포면 풍무리 갯생부락을 시찰한 후 경성으로 돌아갔다 한다.

1940-05-15 구문 전보 취급을 폐지한 우편국분실 및 우편소

▶1940년 5월 31일까지 다음의 우편국분실 및 우편소에서는 구문전보의 취급을 폐지한다. <중략>김포우편소<중략>

1940-05-17 시국좌담회 김포 각면에서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서는 주민에게 시국에 대한 인식을 주기위하여 관내 각 주재소에서는 일찍이 매월 10회의 야간 시국좌담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 각 부락을 단위로 순차적 순회개최한 후 수개월 동안에 그 실적이야말로 상당하였는데 이번에 신임 조장 경무주임은 이를 더 한층 강화시키고자 이번에는 면을 단위로 한 계획을 거듭세워 제일착으로 지난 12일에는 하성면, 30일에는 월곶에서 각각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은 초만원의 대성황을 이루었을뿐만 아니라 주민으로하여 많은 인식을 얻게하였으며 나머지 각 면도 금월내로 전부 완료하리라고 한다.

1940-05-21 년산량 삼백만매 한해를 극복코 김포입직 호조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가마니 왕국 김포의 가마니 생산고는 년산 300만매라는 방대한 숫자를 보이고 있어 그것을 환산한다면 실로 40만원이나 되어 일반 농가의 경제를 윤택시키는 커다란 존재가 되고 있다.

경기도 관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은 수원, 강화, 평택, 김포로 김포가 제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농가호수의 비례로 보면 1호당 300매로 경기도내에서도 제일이요 범위를 넓혀 전선적으로 볼때에도 단연코 첫손가락을 아니꼽을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도 소화14년도에는 일찍이 보지못한 한재로 말미암아 대단한 휴작인 관계로 가마니 원료인 집이 모자라서 그 생산에 크나큰 지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300만매를 돌파하여 지난 17일 성대한 축하식이 거행되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년내에 가마니 생산 장려에 노력하여 온 일반 공로자에 대하여 감사장을 보내고 아울러 <가마니> <무시로> 증산장려회 입상자에 대한 상을 수여식을 대성황리에 거행하였었다. 그리고 각종 품평회 수상식을 거행하였는데 입상자는 아래와 같다.

#### 1.가마니증산장려회 입상자

(1)단체입상 1등 고촌면, 2등 월곶면, 대곶면, 3등 하성면, 양촌면 <중략>

1940-05-22 시내전화 가설 김포읍민 요망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는 경성과 인천같은 대도회지를 인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 경성 인천부의 구역확장으로 인하여 관내 양동, 양서의 두면은 거의다 그 계획구역으로 편입을 보게될 형편이어서 김포의 발전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파죽지세로 날을 거듭함에 따라 대발전을 보게되고 있다. 이에 경성 인천을 상대로 통신건수는 점점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내전화의 설비가 없어 하는수없이 우편소에 가서 통화를 하게되는데 어떤 때는 두시간이라는 긴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 김포발전에 크나큰 영향이 있음으로 일반 상인측으로서는 시내전화가 속히 가설되기를 요망하는 중이라 한다.

1940-05-25 김포근로보국대들 부평공사에 출역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군에서는 각 면에 있는 근로보국단을 지난 소화 3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0개

월 동안 양서면 해리 토목공사장으로 쫓출동을 시키어 보국작업에 봉공케하였던 바 이제 그 출동인원을 보건대 일회에 153명씩 10회에 한하여 실로 68,850이라는 큰 숫자를 나타내어 그 실적에 이르러서도 예상이상의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오는 6월 1일부터 명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부평역전에 있는 육군관계토목공사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회에 100명씩을 출동시키기로 하였다 한다.

**1940-05-25 김포동소교 후수회총회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김포동공립소학교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동교강당에서 후원회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출석한 회원들이 무려 6-700명에 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총회에 제의한 사항은 소화1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14년도 결산보고가 있었고 결원중에 있는 부회장 선거가 있어 무원혁희씨가 선임되었다 한다.

**1940-06-01 지방 종합판-해소될 김포수조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몽리구역 4천정보와 총공사비 190만원이라는 방대한 계획으로 사업실시에 착수한지 불과 수개월에 곡가 폭락관계로 수지가맞지 않는다는 이유아래 사업실시를 중지한 후 심여성상을 동안 수면중에 있던 김포수리조합은 이번에 또다시 그 이름조차 없어지게 되는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그 경로를 대강 들어보면 동 조합은 소화 3년 8월에 설립착수를 하게되자 반대파와 찬성파가 대립하여 파란중첩한 가운데 허다한 난관을 돌파하고 떠어 소화5년 3월에 정식인갈르 얻어 동년 5월부터 공사착수 준비를 하는 중 설상가상으로 그해에 곡가가 폭락하여 수지가 도저히 만지 않게 됨으로 하는 수 없이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10여년을 수면중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또다시 한해가 닥쳐오자 김포수리조합장이이며 김포군수인 권갑중씨는 작년 8월에 관내 관공서장과 지주를 초대하여 한해극복책을 상의한 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포수리조합 부활문제가 또다시 대두하게되자 권군수는 6만 군민에 생사문제를 완전해결함에 있어 이를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철저한 운동을 계속하여 왔는데 쉬관계와 및 그 외 여러 가지 관계상의 문제로 실현이 곤란하게 되는 형편임을 권군수는 다시 이 대책에 고심한 나머지 현재 부평수리조합 구역확장을 하여서라도 몽리를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감독관청과 부평수리조합을 방문하여 맹렬한 운동을 한 효험이 있어 근근히 실현을 보게되어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관계대지주와 유지를 소집하여 지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관관외지주가 다수 참석석하여 권군수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지주들은 이구동성으로 김포수리조합을 해산하는 동시에 부평수리조합 구역 확장안에 대한찬성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지주측으로부터 관계당국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왕이면 속히 실현케 하여달라는 진정을 하기로 하였다 한다.

**1940-06-05 사기도박단 김포서서 타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 양촌면 대포리 소범준이라는 자는 남의 소유 임야를 감쪽 같이 팔아 먹은 사

실이 발각되어 김포서에 피촉되어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임야 소유자는 소연성이라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20여년전에 내지 산화현에 가서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감을 위조하여 가지고 대곶면 가현리 임야 4천평을 자기 명의로 이전 수속을 하여 다시 인천부 신청사는 중촌판일이라는 사람에게 가격 800원을 받고 팔아먹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1940-06-07 김포 절도체포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지난 4월 21일 김포읍내 화신연쇄점에 절도가 침입하여 현금400여원을 훔쳐간 절도사건이 발생한후 소관 김포경찰서는 범인 수사에 노력해오던 바 지난 1일 드디어 체포하였는데 범인은 대곶면 대능리 이해규(20)이라는 자로 범행하기 3~4일전에 취직을 할 목적으로 김포읍내까지 와서 3~4일동안 다니면서 직장을 구하여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절도질이라도 해 볼 생각을 정한 후 이리저리 거닐다가 화신연쇄점에는 큰 상점이니만치 현금도 상당히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그날 낮에 그 상점주위를 살펴둔 후 밤에 다시 사다릴르 걸쳐놓고 이층으로 들어가서 다시 아랫○ 주인이 자는 방에 침입하여 조끼주머니에 든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밖에 다시 여죄가 없는가 하여 방금 취조를 계속중이라 한다.

1940-06-23 김포군 근로보국 작업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0-07-01 부·읍·면별 현 거주 호구 수<조선총독부고시 제698호>

▶1939년 말 현재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는 다음과 같다.

(지역)총 호구수·총 인구수·조선인 호구수·인구수·일본인 호구수·인구수·외국인 호구수·인구수)

<중략>(김포군)11,214·62,414-11,121·62,153-87·253-9·8 <중략>

1940-07-19 식량전표제도-김포군에서도 실시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1940-07-26 전군민이 창씨-김포군서 봉고제 집행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40-07-31 竊盜(절도)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0-07-31 창씨완료 봉고제-김포의 성전, 축하식도 거행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40-08-10 장고봉기념일 김포군서 시국강연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0-08-18 김포군 면장회의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1940-09-08 양곡 대 김포군 8일에 정구시합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1940-09-29 식량 확보에 만전 김포군관공서총동원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식량확보에 만전 김포군 관공서 총동원

적기예취 퇴비증산 독려

(김포)김포군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1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면장 타합회를 개최하였는데 타합사항 중 중요한 것은 1, 도 조기예취, 벼 조기에 벼베기, 2.벼의 조기출하, 3.퇴비증산 장려, 4.가마니생산 장려에 관한 것 등으로 벼 일찍베기를 적극 장려코자 김포군청에 독려본부를 설치하고 면에는 동지부를 설치한 후에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후 3회에 나누어 군 직원, 경찰관현, 금릉조합, 학교, 수리조합 등 각 기관을 망라하여 진행상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벼의 조기출하를 격려하여 군내 식량배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따라서 인근 도시에 식량수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벼의 매매는 군농회에서 알선하고 개인적으로 출하하는 것을 절대로 불허하는 동시에 위반자는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 퇴비증산 장려에 대하여 비료주기에 중요성을 일반에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가마니 생산장려에 대하여는 현재 김포신년산액 250만매 생산량으로 도내 1위를 점하고 있느니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증산장려에 박차를 가하여 가마니 왕국 김포건설을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1940-09-29 김포공설운동장 수축비 답지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김포읍내에 설치중인 공설운동장 수축공사에 대하여는 그간 근로보국단 출동, 부역출동, 각 단체의 근로봉사로 대부분 완성되었으나 아직도 물자난으로 상당한 곤란중에 있는데 금번에 이 내용을 탐지한 유지로부터 이 운동장 수축자금에 사용해 달라고 좌기와 같이 기부를 하였으므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진전홍일(원 이의중)씨 300원, 명진석 200원, 태본광성(협우회 김포농장장) 300원

1940-10-01 장가 못감을 비관- 청년결항자살 [매일신보]|기사|06면|09단|

1940-10-06 김포성지봉채기서식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40-11-01 교육칙어 환발 50주년 기념식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40-11-01 황기 2600년 김포군 봉축대회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0-11-03 김포 표창자 전달식 [매일신보] |기사|03면|09단|

1940-11-05 각지 명치절 배하식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40-11-07 김포군하 면화공판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40-11-07 김포양곡조합 창립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40-11-13 밀주 도처 성행-인천서에서 20명 적발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밀주 도처 성행

인천서에서 20명 적발

(인천)인천세무소에서는 이미 보도한바와 같이지난 7, 8, 9일 3일간에 걸쳐 관내인 김포군 하성면, 월곶면, 양촌면 등 일제히 검색하여 밀주를 취체한 결과 지난번에는 7명의 밀조자를 적발하였는데 이번에는 20명이나 막걸리를 만들어 최하 한 말에서 최고 여섯말까지 만들어 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법을 하였는데 요즈음 농가에서는 신곡이 나오자 인부들의 중참이라고 술을 담그는 것이 대부분이라 동 서에서는 전기 20명을 호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김포, 강화 두 군에 밀주 취체에 전격부대로서 간세과 직원을 출동시키게 되었다. 이번에 걸리는 위반자는 단호한 처벌을 하게 되었다는 바 이번은 막걸리 한잔이라도 발각되면 최하 50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의 벌금에 처하도록 취체진이 강화되었다.

1940-11-16 요소에 직원파견 군외 반출을 감시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0-11-1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40-11-30 김포군 출신-지원병 8명 입영 [매일신보]|기사|03면|04단-05|

▶김포군 출신 지원병 8명 입영

(김포)김포군에서 금년도 제1기생으로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에 입소한 좌기 8명은 지난 27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29일 각각 입영하게 되었으므로 김포군에서는 권등군수를 비롯하여 총 서장, 적성 재향군인회 김포분회장, 대곶지원병 후원회장, 화촌 김포군속, 단월 부장등 제씨와 그 외에 입영자 가족 다수가 경성 역두에 집합하여 환송하기로 하였다 한다.

입영자명단 월곶면 영본민, 도천철령, 양동면 금목의웅, 고촌면 오번세군, 송정영곤, 이상 조선군 제4부대 입영(청진), 월곶면 송변민부 제73연대 입영(회령), 양촌면 금촌희열 제2부대 입영(청진), 월곶면 권동행정 제12부대 입영(경성)

1940-11-30 김포서의 정신단련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김포경찰서에서는 금년 중 강도사건을 위시하여 기타 범죄사건이 빈발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비상시국하 경찰관의 정신단련을 목적으로 지난 27일 오전 2시에 본서와 관내 각 주재소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본서 단월 부장을 강도로 가장시

켜 양동면 염창리 산중에 잠복케 한 후 직원을 8개 부대로 나누어 이를 수색케하였던 바 도변부장의 부대가 수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충 서장의 강평이 있은후 고촌면까지 자동차로 회주하여 가지고 다시 인고단련의 의미로 고촌면으로부터 본서까지(약4키로 반) 직원 전부가 마라톤을 하였다. 주간에는 무도연습을 한 후 각각 해산하였다 한다.

1940-12-08 김포군 관내 주요지 양곡배급일 재개시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40-12-08 김포군의 직장려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40-12-08 김포군의 명년도 비료배급 수량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40-12-17 양력과세 실행 김포군서도 적극지도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0-12-21 김포군 각면 직경기회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1-01-15 천일염 판매가격

▶가격 등 통제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일염 판매가격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배급기지 및 주요도시 지명(배급기지)-인천부, 상품명-조선염·수입염, 등급-1등·2등, 단위-60톤, 원판매업자 판매가격-1등 1원790·2등 1원620·가마니들이 판매도매가-1등 1원967·2등 1원791, 가마니들이 판매 소매각-1등 2원052·2등 1원868원, 가마니들이 판매 1근 소매가-1등 0.024원·2등 0.022원(중략) <별표> <중략> 김포군 김포면 북변리(김포)·동 양촌면 양곡리(통진)·동 대곶면 대명리(대명)·동 양촌면 누산리(누산) <중략>

1941-01-16 폭발되는 각지의 지원병열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41-01-18 김포군 직경기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41-01-26 표창될 모범 아동 김포군하에 10명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표창될 모범 아동 김포군하에 10명

(김포)오는 26일 천황폐하 여성훈 기념일을 기하여 경기도 지사로부터 소학교 아동 중 학업우등, 품행방정하여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될 만한 아동을 표창키로 되었는데 김포군 관내 각 학교에서는 좌기 아동 15명이 영예의 모범상을 받게 되었다고한다.

△동소학교 6년 방촌문원, 송미소좌, △양천소학교 6년 김원기석, 평조금예, △통진소학교 6년 진전범창, △양곡소학교 6년 양천재정, △대곶소학교 4년 임철기, △하성소학교 4년 완산병부, △고촌소학교 4년 서원상만, △검단소학교 4년 광촌중훈, △송정소학교 4년 문의한성, △신정간이소학교 2년 평산호석, △서암간이소학교 2년 암송

병준, △후평간이학교 2년 충천용언, △대벽간이소학교 2년 정상강운

1941-01-31 체신관서 관제에 의한 우편국 지정<조선총독부고시 제109호>

▶조선총독부 체신관서 관제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칙에 따라 우편국을 1941년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중략> 김포우편국 <중략>

1941-02-01 청송군 상등병에 승진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1941-02-02 춘풍추우 13년간 농회를 위하여 진체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1-02-06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기사|03면|09단|

1941-02-09 고조된 지원병열-각지에 혈서응모자속출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고조된 지원병열

각지에 혈서응모 속출

(김포)장래 국가의 간성이 될 육군특활지원병이 되고자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청년들은 응모기일에 마감일이 며칠남지 아니한 근일에 와서는 마음을 조리고 줄이고 있는 터인데 금번 김포군 월곶면 조강리 24번지 해연삼랑(20)이라는 청년은 자기를 지원병으로 채용하여 주기를 바라며 일사보국으로 일신을 군국에 바치겠다고 오른손 작은 손가락으로 쓴 혈서를 김포경찰서에 제출하여 부근 청년들에게 큰 충동을 주었다고 한다.

1941-02-10 표창받을 명예의 자복가정-경기도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1-02-11 슛불에 주의하라 일가 5명이 중독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1-02-11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1941-02-12 경기도청 표창식 [매일신보] |기사|02면|05단|

1941-02-13 세기의 첫 기원절-방방곡곡에 봉축일색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새세기의 첫 기원절

방방곡곡에 봉축일색

(김포)빛나는 황기2601년의 기원절을 맞이하여 김포군은 군경 관공서 연합으로 당일 오전 8시 55분부터 군회의실에서 관공서 직원과 민간유지 다수 참석하에 성대한 기원절 봉축식을 거행하였고 관내 각 소학교 각 면에서도 이날 같은 시각에 각각 축하식을 거행하였다.

1941-02-13 저축 장려공적자-77명을 표창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저축장려 공적자 77명 표창

저축조합 48개소도 그리고 경기도

<중략> 김포군 송산범성씨, 곡본덕희, 학전영택

저축조합 <중략> 김포군 양곡양조회사 저축조합<중략>

1941-02-13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41-02-14 각선결항 속출-인천강화간만 난항계속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1-02-15 각계 공적자 표창장 전달식-김포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41-02-16 애국반을 철저 지도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1941-03-07 김포군 공품생산보국 주간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41-03-23 김포군농회 16회 총회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1-03-28 방법좌담회 [매일신보]|기사|03면|01-02단|

▶(김포)김포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관내 유력상업자와 각 관공서 관계자를 소집하여 국가 총동원개정 요강 수출입품등 임시 조치법 개정에 대한 타합회와 아울러 일반 경찰에 대한 범죄방지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1941-03-28 김포군내 6소교 학년연장 결정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김포군내 6개 소학교

학년연장, 학급증설 결정

(김포)매년 입학기를 당하면 입학난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가진 일반 가정에서는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터인데 이번 김포군에서는 학년 연장과 학급 증설을 보게된 학교가 6개 학교가 된다고 한다. 즉 동서학교, 하성소학교, 대곶소학교, 송정소학교에는 금년부터 1학급을 증설하게 되었고, 하성, 대곶 각 소학교는 현재까지 4년제이던 것을 6년제로 학년을 연장하게 되었던 바 이로써 입학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1941-03-28 김포군하 자복가정 표창장 전달식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군하 자복가정

표창장 전달식

(김포)자녀를 건전히 부양함은 국민생활의 근간인 가정에 기초를 견고케하여 단체배양에 기여하는바 지대함으로 이번 각 도에서는 자복가정을 표창하였던 바 김포군에서

도 좌기 다섯 가정이 선정되어 표창장과 상금이 도착되었으므로 지난 24일 오후 1시에 동소학교 강당에서 권등군수를 비롯하여 유지 다수가 참석하여 총 서장의 자복가정 표창 취지의 설명이 있은후 각각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하성면 석탄리 권이옥, 고촌면 신곡리 김홍선, 고촌면 향산리 송원성윤, 하성면 마조리 이근택, 양서면 방화리 함학진

1941-03-28 각지 동전 헌납열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김포)지난 10일 육군기념일을 전후하여 김포군내 각 애국반원들이 한푼씩 헌납한 동전은 총액 438원63전에 달하는데 지난 22일 국민총력 김포군연맹을 거쳐 헌납수속을 취하였다고 한다.

1941-04-11 면화 3,000만근 공판 목표로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1-04-13 경기도의 입후보자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1941-04-13 김포, 통진, 양천 각문묘석전제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41-04-13 김포양곡 금조총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41-04-13 의용연맹을 조직 입직을 철저독려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41-04-14 맹아가 입직 김포군수가 표상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맹아가 가마니짜기

김포군수가 표상

(김포)요즈음 김포군에서는 경찰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가지고 관계 관공서 직원을 총출동시켜 가마니 생산독려를 적극적으로 독려중이던 바 지난 11일 권갑중군수는 부하 수명을 데리고 검단방면에 가마니짜는 상황을 시찰 중 장님 아이가 가마니 짜는 것을 발견하고 하도 신통하여 30분 동안이나 그가 가마니짜는 광경을 보고 현장에서 금일봉을 주었다는 진기한 사실이 있다 그 주인공은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구봉저의 2남 경서군인데 금년 15세된 맹인으로서 거의 가마니짜는 수단이 눈뜬 사람보다 익숙하여 자기 언니와 같이 하루 평균 10매 이상을 짠다고 한다.

1941-04-18 입공출의 신기록 한 면에서 하루에 십만매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1941-04-20 가마니 50매를 헌납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1-04-23 김포면작타합회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1941-04-27 선거사무 타합회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41-05-01 까마귀 잡다가 감전 즉사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41-05-02 김포경서축구대회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조선, 매신지국 주최

(김포)조선신문과 본보 김포지국에서는 공동주최로 오는 11일-12일 양일간 김포공설 운동장에서 경서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참가신청은 김포읍내 육풍상회로 오는 8일까지 하면 좋다. 그런데 본 대회에서는 축구화 사용은 허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1941-05-02 각지 건강증진운동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각지 건강증진운동

(김포)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건강증진 주간을 맞이하여 김포경찰서에서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관내 각 면에서 일제히 관민 유지를 각 신명신사에 모이게 하여 결핵예방에 대한 영지봉독식과 건강기원제를 엄숙히 거행하는 동시에 김포경찰서 무도장에 건강상담소를 설치하여 서원공의로 하여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결핵예방과 아울러 진찰에 관한상담에 응하게 하고 오후 1시부터는 공의를 중심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위생사상을 고취시켰다.

1941-05-02 각지 천장절 봉축식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각지 천장절 봉축식

(김포)지난 29일 천장가절을 맞이하여 김포군은 당일 오전 7시50분부터 군경 연합주최로 봉축식을 관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와 8시 싸이렌 소리에 맞추어 궁성요배가 있는 다음 국가봉창과 황기2600년에 하사하옵신 칙어 봉독 후 충 서장의 축사가 있었고, 국민서사 제창과 성전만세삼창으로 식을 폐하였다.

1941-05-02 경기도의 입후보자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경기도의 입후보자

(김포)김포군 고촌면 향산리 향산달옹씨는 지난 13일 김포군 선출 도회 의원 입후보자로 입후보계를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1941-05-02 영연근속 표창장 전달식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김포)김포경찰서 근무 도변 순사부장은 춘풍추우 십오개성상을 직무에 매진하여 금번 조선경찰협회 총재인 대야 정무총감으로부터 표창을 받게되어 지난 29일 천장가절에 김포서에서 표창장 전달식이 있었다.

1941-05-09 전구역이 상당건조 산화방지에 노력하라 김포군[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41-05-09 김포군 양잠타합회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1941-05-17 총력전의 수훈부대 각도에서 26명 선발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1-05-21 문묘직원 개선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1-05-21 육순연 폐지 현금 [매일신보]|기사|03면|02-03단|

(김포)김포읍내 두밀상회 박일량씨는 지난 15일이 그의 아버지(박제옥)의 육순이므로 당일 친척지기를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려 하였으나 시국인식이 두터운 박제옥씨는 이같은 시국에 육순연회를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이 못된다 하여 그 비용을 현금하라함으로 박일량씨는 부모의 훈시대로 아래와 같이 헌납하였다고 한다.

△국방성금 50원 △재향군인회 김포분회 50원 △검단면 지원병 후원회 100원

1941-05-21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덕강의부(김포군농회기수) 금번 퇴직인사차 28일 김포지국 내방

1941-05-28 맥적기예취 김포군에서도 장려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1-06-01 유도강연회 [매일신보]|기사|03면|09단|

▶(김포)김포군은 가천구사씨를 초빙하여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동국민등학교 강당에서 유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41-06-01 김포지방에서도 이양 개시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김포)금년은 날씨가 좋아서 각지에서 풍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지난 29일부터 시국에 순응하여 남녀 총출동으로 이양에 착수하였다.

1941-06-01 논두렁엔 “콩”을 김포군서 재배 장려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논두렁엔 ‘콩’을, 김포군서 재배 장려

(김포)김포군은 근래 면화, 감저등의 증산계획 수행에 따라 대두재배 면적이 축소되어감에 비추어 그 대책으로 논두렁을 이용하기로 하여 파종할 수 있는 논두렁 150정보에 대두를 파종하기로 하고 군농회에서 지도하기로 되었다는 바 이로 인하여 종전의 휴한지로 있던 논두렁에서 대두 900석을 생산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1941-06-01 지원병 최종 전형시험에 김포군선 출33명 전부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지원병 최종 전형시험에 갑종 합격만 17명

김포군 선출 33명 전부 합격

금년도 김포군 육군특별지원병 모집자 중 예비전형에 합격된 33명은 지난 24일 충서장, 포전 도의원, 대곡 후원회장, 고미 재향군인회 분회장, 단성부장, 성곡축탁등 다수 인사에게 인솔되어 경성으로 가서 다음날 용산 해행사에서 최후의 전형시험을 받았는데 갑종합격이 17명, 을종 갑 합격이 13명, 을종 합격이 3명으로 그 성적이 자못 양호하였다.

1941-08-14 김포군 우마차 운반통제조합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 우마차 운반통제조합

(김포)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1시 관내 우마차업자 358명을 김포경찰서 무도장으로 소집하여 안부 서장의 지시사항이 있은후 우마차 운반통제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조합장에는 풍산광섭씨, 부조합장에는 풍전(?)오씨가 선정되었고 한다.

1941-08-27 김포군 관민유지 대육회를 조직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41-09-05 건강진단·사체검안 지역<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23호>

콜레라 예방을 위한 전염병예방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지역 내에서 건강진단 혹은 사체검안을 행한다. <중략> 김포군 하성면·검단면·양촌면·대곶면·월곶면. <중략>

1941-09-17 김포군 청년단 결성식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김포군 청년단 결성식

김포군은 임전체제하에 청년의 사기를 고무하고 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고자 남녀 청년대원을 1,500여명을 지난 14일 오후 1시 공설운동장으로 소집하여 성대한 결단식을 거행하였다.

1941-10-05 김포염사상조합 창립 [매일신보]|기사|03면|02단|

1941-10-07 금천원식 기부-검단교 학급 증설비로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금1천원씩 기부

검단교 학급증설비로

(김포)김포군 검단공립국민학교에서는 내년 봄에 학급을 증설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거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비임으로 이 학교 후원회에서 이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장 이건영씨와 불로리 김병영씨는 즉석에서 금1천원씩을 자진 기부하여 주민들을 감격시켰다

1941-10-09 김포 관공서 직원 근로 보국대 편성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김포관공서 직원 근로보국대 편성

(김포)김포군은 국민개로운동에 출선수범하고자 각 관공서 단체 직원을 총동원하여 임시 근로보국대를 편성하고 좌이 일정의 근로보국 작업을 하게 되었다.

10월 9일 벼베기 작업, 10월 17일 신사경내의 미화작업, 10월 24일 도로수리와 미화 작업

1941-10-09 현금과 유기 헌납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현금과 유기헌납

(김포)김포군 김포면 북면청년대에서는 지난 6일 1전자리 구리동전 500개를 거두어 모아 군부에 헌납하여 달라고 군청에 기탁하였다.

1941-10-09 회갑연비 절약 2백원을 각계에 기부 [매일신보]|기사|03면|03단|

▶회갑연비 절약

200원을 각계에 기부

(김포)김포군 김포면 풍무리 풍곡재록씨는 금번 자기 회갑연 회비를 절약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헌금과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겠다고 지난 6일 본보 김포지국에 현금 200원을 기탁하였다.

-국방헌금 50원, -동초등학교 50원, -동광학원 50원, -지원병 후원회 50원 계200원

1941-10-21 優良牛 檢査(우량우 검사)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41-11-22 적성의 현금 답지 [매일신보]|기사|03면|01단|

▶적성의 현금답지

(김포)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송전재덕씨는 그의 조모 별세시에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 100원을 지난 19일 김포군청을 통하여 국방헌금 하였다 한다.

1941-11-28 去勢牛(거세우)가 優良(우량)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1941-12-28 적성의 현금답지 [매일신보]|기사|03면|05단|

1942-02-01 翼贊(익찬)-동아공영-김포 [매일신보]|기사|03면|13단|

1942-02-17 도 순사 숙소료 지급에 관한 토지등급 지정<조선총독부훈령 제7호>

▶1941년 조선총독부령 제158호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순사의 숙소료 지급에 관한 토지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939년 조선총독부훈령 제35조는 폐지한다. (구분-서(서)소재지 등급, 주재소소재지 등급)

<중략> 김포-6등, 8등, <중략>

1942-02-20 미국 공출을 완료 김포군민들 신전에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2-02-21 만세성천지를 진감 [매일신보]|기사|03면|04단|

▶만세성천지를 진감

각지의 제1차전첩축하일행사

김포) 싱가포르 함락됨을 기회로 처음으로 축하행사를 각처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있는데 김포군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 군청앞 뜰에서 관공서 단체 합동으로 축하식을 거행하고 이 날 10시 신명신사 대전에서 1,000여명의 관민이 참여하여 대동아에 있는 미영세력의 격멸 보고와 전승 기원제를 종료한 후 계속하여 깃발행진을 하고 공설운동장에 모였다가 만세삼창으로 해산하였다.

1942-02-21 철, 동 헌납부대 군 애국부에 연일육속 [매일신보]|기사|03면|11단|

1942-02-24 시국인식 강연회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김포

김포군에서는 대동아 전쟁 개시 이래 일반군민이 국방헌금 기타 흥병금 위문품등을 더 많이 헌납하고 있는에 이번에는 소아학생 흥병금과 1전 동화의 헌납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송원지섭씨는 1전 동화 1,620개를, 같은 동리 송원광웅씨는 1전짜리 동화 472개를, 하성국민소학교 부설 후평간이학교 생도 일동은 현금 30원을 각각 지난 20일 김포군청을 통하여 육해군에 헌납 수속을 취하였다고 한다.

1942-02-24 현곡 거출제를 폐지하고-김포군의 구장우 우안 [매일신보]|기사|03면|06단|

▶현곡 거출제를 폐지하고

연 2회 상여금 지급

김포군의 구장우 우대안

김포군은 오랜 동안 현안으로 있던 구장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듭하여 오던 결과 근일 그 구체안이 성립되었다는데 구장 1인당 직무보수의 의미로 100원 내외의 상여금을 연 2회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구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장의 보조사무 촉탁 1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장 상여금의 일부는 보조촉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재원은 종래의 현곡 거출을 일체 폐지하고 신규로 특별호세를 매호 평균 2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면민 생활의 정도에 의하여 5등 내지 10등급으로 갈라 최고 10원 최하 50전을 년 2기로 나누어 받게 된다. 실현방법의 개략은 이상과 같으나 본 군 각 면의 구장은 각인이 예외없이 연맹 이사장과 기타에 공직을 겸무하게 하는 방침인바 구장의 전시하에 직책은 심히 크다.

이번 처우개선은 결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금후 구장들의 노력을 바라며 따라서 그 대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한다.

1942-06-07 영전된 군수들-영정전 강화군수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42-06-11 京畿道辭令(경기도사령)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2-06-11 榮轉(영전)된 權藤郡守(권등군수)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2-06-16 소학생도 총출동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소학생도 총출동

(김포)김포군은 방금 농번기를 당하여 부녀자까지 옥외 활동을 하고 있는터인데 지난 11일부터는 동 공립초등학교 금릉학원 4학년 이상의 학동 600여명을 총출동시켜 김포농장의 광야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이양의 근로봉사를 하고 있는 광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주고 있다.

1942-06-16 점심은 각자 지참 일꾼 밥해 먹이는 습관 폐지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점심은 각자 지참

일꾼 밥해 먹이는 습관 폐지

김포군에서는 종래 농가의 관습으로 일꾼의 밥해 먹이는 것을 일제히 타파하고 공동작업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휴대하게 되었다. 큰 농가에서는 1일간 4-50명의 일꾼의 밥을 해먹이려면 동리 부녀자까지 얻어 마치 잡치집 같이 분주하여 밥짓고 운반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뿐만 아니라 인근 사람까지 밥을 먹이게 된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거듭 고려중이던 바 금년 이양시기부터 시행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942-06-29 노력조정에 만전 전면적 공동작업 전개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42-07-07 兩少女 出家(양소녀 출가) [매일신보] |기사|04면|09단|

▶두 소녀 출가

(김포)김포군 김포면 북변리 37번지 목촌순봉(임순봉)씨의 수양녀 김간난(15세) 같은 동리 328번지 청송일택(심일택) 수양녀 강간난(15세) 두 소녀는 6월 25일에 무단 출가하여 행방불명임으로 경찰당국에 수사원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1942-07-07 회수연비절약 헌금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회수연비 절약 헌금

(김포)김포군 김포면 북변리 유촌남수씨는 지난 7월 5일 77세 탄생일을 맞이하여 그 회수의 연회비를 절약하여 가지고 현금 50원을 김포군청을 통하여 국방헌금으로 기탁하였다.

1942-07-09 지나사변 기념일 각지서 성대한 행사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2-07-11 獻金一束(헌금일숙)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헌금일숙

(김포)김포군 김포면 장기리 운곡학술강습회 아동일동은 지나사변 5주년을 맞이하여 농번기 중에 이양, 모내기와 보리베기 혹은 과수원의 봉지씌우기 등의 일을 하여 보수금 47원79전을 모아 지난 8일에 본보 김포지국을 통하여 황군 위문금으로 보내달라고 기탁이 있음으로 곧 송금의 수속을 하였다.

1942-07-16 中東版(중동판)-소매상조합설립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2-07-16 中東版(중동판)-품평회 입상자 표창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2-07-19 中東版(중동판)-각지에서 헌금적성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각지에서 헌금적성

김포 하성공립초등학교 부설 후평간이학교 아동일동은 부근 밭에서 노력봉사를 하여 작업의 사례금으로 현금 25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지난 9일에 김포군청을 통하여 육해군에 각10원씩 흥병금으로 5원을 헌납하여 달라고 기탁하였다 한다.

1942-08-20 부·읍·면별 현거주 호구 수<조선총독부고시 제1131호>

▶1941년 말 현재 부읍면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지역)총세대·인구수-조선인세대·인구수-일본인세대·인구수-외국인세대·인구수)

<김포군>11,611-65,602-11,530-65,362-78,234-36

1942-08-21 일본부인회 김포지부 결성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일본부인회 김포지부 결성

(김포)일부 조선본부 김포군지부 결성식은 지난 14일 오전 11시 동초등학교 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과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김포면 지부도 합동결성을 하게 되었는데 군지부장은 영정유기자, 면지부장은 근전스에 양씨로 선정하고 오후 1시경 만세삼창으로 산회하였다.

1942-08-25 원전 경기경찰부장 김포군내 초도 순시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42-08-27 고경기도지사 강화초도 순시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2-08-29 입직경기대회-김포군서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2-09-01 고경기도지사 김포군내 순시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2-10-04 3백만 경기도민의 저축액 절반육박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2-10-17 김포군 직원연성회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42-10-17 김포군청 신축낙성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김포군청 신축 낙성

김포군청사 신축공사는 옥(?)조청부로 금년 3월부터 기공되어 6개월 만에 준공되었는데 신청사는 106평의 연와평가 건물이라 하며 총공사비는 6만5천원이라 한다.

지난 13일에 경기도 산본 내무부장 안성군수를 비롯하여 관내·관외의 다수의 내빈이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마친다음 성대히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신청사에서 사무집행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1942-10-17 잡곡류 반출 엄금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김포군은 군민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즈음 신곡이 점차로 수확기를 맞아 관외로 비밀 반출한 자가 적지 아니함으로 각 요소마다 감시원을 배치하고 엄중한 취제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백미는 물론 잡곡류라도 그 수량의 다소를 불구하고 관외반출은 절대 엄금할 방침이라고 한다.

1942-10-21 농촌부녀를 계발 경기도 800여 부락에 강습회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농촌부녀를 계발

경기도 800여 부락에 강습회

대동아전쟁의 중요성과 총력전하의 반도 농민에 사명 그 중에서도 부인의 책무의 중대성 그들의 자각 발본을 촉진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도내 산재하여 있는 855개소의 4만여명의 부녀자들을 모아 부락 부인농사강습회를 열게 되었다.

강습회는 농한기를 이용하는데 대체로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5개월 기간으로서 각 동네의 부락에서 수시로 강습회를 개최하는바 강사는 군·면·읍 직원 외 중견 농사지도원들이다.

강습 과목은 (1)시국하의 농촌 부인의 책무 (2)부락생산확충계획의 요지와 그 실행 (3)부인근로와 농업생산의 확충 ①농작개량의 여행 ②공동작업의 실시 (4)생활개선과 저축여행 (5)행사와 훈련등인데 각 군별의 수강부락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중략> 김포군 40개소, 연인원은 1,802명 <중략> 그리고 도에서는 이 강습회용 자료집 5만부를 각 부군에 배포하였다.

1942-11-10 김포저축 간담회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42-11-12 경제좌담회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경찰서 무도장에서 각 관공서 직원과 관

내 상업인등 100여명이 모여 국민의례를 마친 다음 서촌 서장의 개회사가 끝나자 경제좌담회로 들어가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상 필수품 배급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당일은 경찰부 경제과 금목본육씨 외 각계 담임직원 6명이 임석하여 각 업자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청취한 후 오후 2시 산회하였다.

1942-11-12 김포군 저축실적 4월부터 10월까지 30만여원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김포군 저축실적

4월부터 10월까지 30만원

김포군에 각 금융기관에 올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저축실적을 군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8,010원에 불과했다. 이 숫자로서는 6만 군민의 저축성적이 양호하다고는 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전시하 국민저축은 절대로 피치못할 것은 다시 말할필요도 없지만은 국가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성전 완수할때까지 저축의 중대 사명을 완전히 할 것이라고 군당국에서는 독려중인데 각 금융기관별로 저축실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조합 분

김포 125,701원, 양천지소 4,842원, 양곡 159,115원, 계289,658원

2.우편국 분

김포 12,004원, 양곡 14,715원, 양천 21,634원 계48,352원

1942-11-12 김포군 청원연성회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김포군청원 연성회

(김포)전시하 관리의 체력을 연성하기 위하여 김포군은 영정군수 지휘아래 100여명의 군청 직원들은 지난 2일부터 매일 아침 약 1시간 동안 라디오 체조 군사훈련을 실시중이라고 한다.

1942-11-12 김포 간보 성적부진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김포군내 각 우체국에 올 10월말현재로 간이 보험가입자 수를 군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678인에 불과하다. 올 4월부터 한 호 한구좌 보험가입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와같은 좋지 못한 성적을 보게 됨은 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편당국에서는 군 면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한 운동을 실시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1942-11-26 면화 공출 부량한 6개군에 득려 통첩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2-11-28 4백만원 채권 소화전 연말 상여를 기해 전개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2-12-02 중동판-특별청년연성소 건병으로 대진군-京(경) [매일신보]|04면|01단|

1942-12-14 지역별론 시흥수위-경기도, 저축목표의 6할 돌파 [매일신보]|03면|04단|

1942-12-15 김포미곡 공출 [매일신보]|02면|10단|

1942-12-16 성전기념 헌금보-김포 [매일신보]|04면|06단|

1942-12-24 국어교실-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북부강습회 [매일신보]|02면|06단|

1943-01-28 미곡공출 호성적-김포군 목표량 9할8분 달성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3-01-31 다리 다섯달린 송아지 탄생!-김포군의 기담일편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다리 다섯달린 송아지 탄생

김포군의 기담일편

(김포)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송원봉섭의 사양우는 지난 22일에 오각일체의 소우를 출생하였다는데 경부에 약 1척5촌 되는 다리 한개가 더 있다. 발톱이던지 무릅뼈등이 보통 다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하며 그 송아지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며 기형의 송아지가 출생하였다는 소문이 전파되어 원근에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매일 답지한다고 한다.

1943-01-31 이파 경기보안과장-김포군내를 시찰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이파 경기보안과장 김포군내를 시찰

(김포)경기도 이파 보안과장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도 송변 산업부장은 그 다음날인 오전 11시 30분에 각기 초도 순시를 겸하여 고공품 장려 사항을 시찰코자 다수관민의 출영을 받으면서 김포에 도착 먼저 군청을 들러 군수실에서 관공서장 기타 지방유지들을 만난 후 영정군수의 관내사항 등을 청취하고 오후 3시경에 강화로 향발하였다.

1943-02-02 시국간담회 성황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3-02-07 김포, 기원절 행사 [매일신보] |기사|04면|05단|

1943-02-10 물리 면적 4만여 정보 [매일신보]|기사|01면|07단|

1943-02-10 우량청춘과 청년대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우량청춘과 청년상

기원가절을 맞이하여 경기서 표창

광영의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반도 청년의 애국 지성은 날이 거듭할수록 불타오르는 이때 경기도는 도내 각 청춘청년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와 개인을 선발하여 온 11일 기원가절을 기하여 표창키로 하고 그간 신중히 조사하여오던 중 드디어 다음 5

개소의 청년대 7명의 청훈직원, 7명의 청년대원을 각각 정식 표창기로 결정하였다.

이들 단체와 개인의 표창은 경성부내와 고양, 시흥, 양군 관계자는 11일 경기도 학무과에서 그 외 모두는 각각 그 소재지의 군청에서 도지사의 표창장과 부상금을 전달할 터이다. <중략> 청년대 김포군 하성면 청년대 <중략>

1943-02-10 필승의 경기 저축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 필승의 경기 저축전

1월말 현재로 2억2백만원 돌파

1억6천백만원은 경기도민 300만이 오는 3월말까지 기어이 달성시켜야 할 저축의 금자탑이다.

지금 <솔로몬>에서 피투성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황군 장병들과 같은 결의를 가지고 저축 돌격전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민은 지난 1월말까지 2억2백2만천원을 돌파하여 총목표액의 77.4%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소화16년도에 1월말 현재의 56.8%, 15년도에 1월말 현재의 61.5%에 비교하여 상당히 좋은 성적이나 그러나 14년도의 100.48%, 13년도의 82.1%에 비교하면 결전총후의 저축전은 결코 안심할수 없는 형세에 있다.

각 군별로 보면 김포군은 144.6%를 돌파하여 제1위를 차지하였고, 시흥군의 138.6% 등 벌써 목표액을 돌파한 군은 9개 군에 이르렀으나 개성, 인천, 경성의 대도시는 대개 55-76% 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 각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동척이 201.7%와 동일은행의 110.8% 가 겨우 목표액을 달성하였을뿐이고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은 그다지 불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대체로 사업자금의 이동관계라고 당국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데 가장 기괴한 것은 1월말까지의 저축실적은 작년 12월말까지의 그것보다 약 400만원이 감소된 것이다. 이것은 주로 근본 증세실시를 앞두고 일반 국민은 그다지 필요도 없는 물건을 한꺼번에 사두기 위하여 대개 저금을 찾아낸 탓이라고 하여 도당국에서는 새삼스럽게 총후 도민의 자숙과 저축 돌격의 강화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1943-02-13 명심하라 이 영광을 기원절에 경기도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2-14 9할9분 돌파-김포의 정조 공출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3-02-14 오늘의 현금·현품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2-16 김포저축 전개가-목표액을 멀리 돌파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3-02-27 김포의 입직 증산운동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2-27 명태 특별배급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명태특별 배급

(김포)대동아 전쟁하 국책에 순응하여 멸사봉공의 정신으로써 생산보국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소라도 위안을 주고자 김포군에서는 건명태 1만 4천급(1급 20수)을 생산지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매호에 한급씩 골고루 특별 배급을 하기로 되어 근일 중 각 가정에 분배되리라고 한다.

1943-03-06 식량 대책 협의회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3-03-0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3-09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3-11 김포군청원들 죽으로 점심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김포군청원들 죽으로 점심

(김포)김포군은 현하 긴박한 식량사정에 비추어 6만 군민에서 소비규정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1일 한끼씩은 반드시 죽을 먹도록하여 총후 식량이 소비절약을 일층 강조시키고 있다.

그런데 군내 관공서들이 슬선하여 하루 1끼씩 죽을 먹도록 하고 군청 직원들은 8일 대조봉제일로부터 군회의실에다 임시 식당을 가설하고 매일 정오에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점심으로 주글 먹도록하여 전시하 식량대책에 활발한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되었다.

1943-03-14 적성의 현금 헌품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43-03-18 부락 지도공로자 표창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43-03-18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 |기사|04면|10단|

1943-04-01 화류항도 전부 휴업 가마니증산에 김포군민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3-04-01 임야도를 지적도로 간주할 지역 지정<조선총독부고시 제420호>

▶조선지세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야도를 지적도로 간주할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김포군:양촌면 학운리 보도·소미도·소매장도·대매장도·봉거지도·대미도·송장도·사들곶도·안암도·대곶면 대벽리 대당서·소당서·방마도·견도·도서·사서·도로·약암리 대송서·소송서·검단면 오류리 토도·길무도·소길무도·승도·전립도

· 육도 · 고도 · 추도 · 방우도 · 울도 · 소율도 · 매도 · 도도 · 거치도 · 왕길리 종도 · 월곶면 포구곶리 유도 · 고촌면 신희리 오류도 <중략>

1943-04-02 농지가산출배를 개정 기초는 임대가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3-04-06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3-04-07 청년연성소 개소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청년연성소 개소

김포군에서는 지난 4월 1일을 기하여 관내 김포, 고촌, 검단, 양촌, 대곶, 양천, 송정 등 7개 초등학교에서 청년 특별연성소 개소식이 일제히 거행되었다.

1943-04-07 학교평의회회 개최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학교평의회회 개최

(김포)김포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군처외의실에서 영정군수 통제하에 학교평의회를 개최하고 소화18년도 학교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검단, 고촌, 송정 등 3개 초등학교에 각 1학년씩 3개 학급이 증설되었다고 한다.

1943-04-09 농촌순회 영화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3-04-10 농회통상총회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3-04-10 방공감사자금 답지 3월말 현재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방공감사자금 답지

3월말 현재로 7만원을 돌파

방공감시대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감사금을 조선방공협회와 조선신문협회에서 모집한바 지난 3월 30일까지 모은 돈은 7만원을 돌파하여 관계 당국을 감격해 하고 있는데 그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김포군 양동면 염창리 유촌무과 10원,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 고전항작 5원, 김포군 양서면 과해리 남야무양 5원, 김포군 김포면 운양리 이장화 5원, 김포군 김포면 북변리 월담 선재 14원, <중략>

1943-04-10 증산공로장 수여 경기도연맹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증산공로자 수여

경기도연맹에서 20명 애국반원 표창

경기도 총력연맹에서는 증산전에 앞장서서 노력한 애국반원을 표창하여 그 감투의 노고를 위로하게 되었다. 표창을 받을 사람은 미곡증산과 임산물 증작에 헌신 노력한

사람들로서 2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인데 이 외에 부인들의 옥외 근로정신을 고취하고 생활개선, 국어전해운동, 영양법 개선, 공동작업의 철저, 부락노무조정, 운영등에 모범을 보인 우량반원들이다.

이들에게 근간 경기도지사의 표창장을 각 군을 통하여 증산공로장과 금일봉을 전달할 터이다.

표창자 <중략> 김포군 강천등송 ,중략>

1943-04-10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3-04-1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4-20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5-21 유기일만점 김포군민들의 적성으로 헌납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3-05-22 휴반에 콩을 재배 김포군서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3-05-29 시간을 지킵시다-김포군련맹의 6월중 실천사항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3-06-01 저축에 총력전 김포부서 각면의 배정액 결정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6-03 김포서 지주대회 증산보국의열의를 피력 [매일신보]|기사|04면|08단|

1943-06-06 가마니 짜서 소 한마리씩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43-06-15 면협의회원 선거권 요건 중 일부개정<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6호>

▶1940년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7호 면협의회원의 선거권 요건중에서 면세 연액을 저하는 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읍면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협의회원의 선거권 요건 중에서 면세 연액을 아래와같이 인하한다. <중략> 김포군 고촌면, <중략> 광덕면의 면협의회원 직에 있는 자의 피선거권은 재임기간 중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43-06-10 근로로 농가 장려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6-13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6-16 김포서도 이양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6-16 송산성훈씨미거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6-16 해군지원병제 취지 보급좌담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6-19 목표액 달성기원 각지서 엄숙한 식거행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6-20 맥주기에취독려 영정김포군수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43-06-24 부평지구 농지개발사업 기공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부평지구 농지개발사업 기공

(김포)김포군 누산평야를 중심으로 김포, 고촌, 검단,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등 7개 면에 35개 리를 포용한 몽리면적 3,300 정보와 총공사비 350만2800원 예산으로 수도 8만석 증산을 목표로 금년 5월부터 농지개발 용단에서 대규모의 토지개발사업을 실시중인 부평지구 농지개발사업의 수리공사 기공식은 6월 25일 오전11시부터 김포면 결포리 공사현장에서 경기도 도농림국장 대리관을 위시하여 고경기도지사 이하 각 관계 관민 유지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식전이 거행되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 제전이 집행되어 농지개발영단 이사장, 경기도농림국장, 고지사, 영정군수, 목천김포경찰서장, 진전 기성회회장, 관동조공사청부 대표자등의 옥곡봉전이 끝난 후 제전을 마치고 계속하여 기공식이 거행되어 개발영단 이사장의 식사와 농림국장 고지사 이하의 내빈의 축사 등으로 결전하 필승체제를 강화하는 식전이 성대히 종료되었다.

1943-07-01 김포서 면리원 시험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43-07-01 유언비어를 삼가고 청결, 위생에 힘쓰자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7-15 미곡사전 할당과 농민의 협력 - 증산열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3-07-15 勳員(동원)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3-07-16 경기도수영지도순회강습회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1943-07-18 김포이양장황고지사가 축찰 [매일신보]|기사|04면|06단|

1943-07-25 건초와 퇴비증산 [매일신보]|기사|04면|05단|

1943-07-28 결전생활 일층강화 각지서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결전생활 일층강화

각지서 애국 반원들이 신전 선서

(김포)국민총력 김포군연맹에서는 7만 군민에게 결전 생활에 실천철저를 일층 강화시키고자 지난 25일을 기하여 관내 각 면 신사대전에서 일제히 선서식을 거행하여 총후 국민의 결의를 신전에 맹서하였다.

1943-07-28 대맥공출에 개가 김포서 목표량을 돌파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대맥기공출에 개가

김포서 목표량을 돌파

(김포)김포군은 전시 식량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영정군수와 목천 서장이 진두에 서서 맥류공출에 7만 군민이 총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25일로서 목표수량을 완전히 돌파하였으므로 대맥 공출에 개가를 올리고 있다.

1943-08-03 地方集會(지방집회) [매일신보]|기사|04면|10단|

1943-08-04 김포군연맹 역원상회 [매일신보]|기사|04면|07단|

1943-08-14 김포군에서 면리원 강습 [매일신보]|기사|04면|09단|

1943-08-15 목표의 2할에 불과 불진하는 경기도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3-08-19 거울면장 치적보고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3-08-26 상이군인 건강진단 경기도에서 순회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43-08-28 송탄유채취 호성적 [매일신보]|기사|04면|01단|

1943-08-31 김포군민 적성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김포군민 적성

(김포)징병제 실시의 감격과 감사는 현금의 적성으로 분화구 같이 폭발되어 각지에서 헌납운동이 매일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김포읍내 곡산원강씨는 징병제 실시의 감사를 피력하기 위하여 가정에 있던 유기전부(8관)와 옛날 돈을 국방자재로 지난 25일 김포경찰서에 헌납 기탁하였고 김포읍내에 정준씨는 푼푼이 모아두었던 구리동전 8원50전을 국방현금으로 25일 김포서에 기탁하였고 김포군 양동면 신당리 원영작씨는 현금 60원을 과학병기 자료비로 25일 김포서에 현금을 기탁하여 계원을 감격시켰다.

1943-09-02 징병감사결의 선장-김포 [매일신보]|4면|2단|

1943-09-07 송산지채취에 김포관민동원 [매일신보]|4면|5단|

1943-09-09 징병취지 보급-김포 각면에서 강연 [매일신보]|4면|10단|

1943-09-15 김포각경방단 연합검열성대 [매일신보]|2면|09단|

1943-09-22 부인 총궐기 운동 김포군에서도 성대 거행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부인총궐기 운동, 김포군에서도 성대거행

(김포)김포군은 결전 하 부인층의 각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대일본 부인회 김포군지부 주최로 군내 부인대표 200여명이 참석하여 부인총궐기 운동대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 영정지부장의 영지봉독과 인사가 있는 후 영정군수의 보고와 목천서장, 월담면장 등의 축사가 끝난 후 실천철저사항 등에 대한 협의와 성전만세 봉창으로 대회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화전문학교 교장 천성활란씨의 강연이 있어 청중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1943-09-28 몸뻘用(용) 면포 배급 [매일신보]|2면|10단|

1943-09-29 부인국어강습 김포일부 지부서 [매일신보]|2면|4단|

1943-09-29 김포부면장 임명 [매일신보]|2면|10단|

▶김포부면장 임명

금번 읍면제실행규칙 개정건에 대하여김포군에서도 부면장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김포면에서 먼저 초대부면장으로 동면내 부주임으로 있는 김십정대씨가 임명되었다.

1943-09-30 연행정연구회 개최 [매일신보]|2면|10단|

1943-09-30 농사간담회 개최 [매일신보]|2면|10단|

1943-10-08 부평, 김포간 자동차운전시간을 개정 [매일신보]|2면|10단|

▶경춘철도 부평영업소에서는 부평역전에서 읍내 김포로 통하는 여객자동차의 발착 시간을 지난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운전회수를 종전보다 1회 줄여 운전하고 있는데 되도록 승객에 편의를 주고자 경인선 열차시간과 잘 연락되게 편성한 것이다.

1943-10-13 콜레라 예방관련 건강진단 등 시행<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26호>

▶콜레라 예방을 위한 전염병 예방령 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 건강진단이나 사체검안을 행한다. -<중략> 김포군 검단·양촌·대곶·월곶·하성면, <중략>

1943-10-19 금년 김장 걱정 말자 수요량확보하고자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43-10-19 145만원 목표 김포에서 저축대평정회의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3-10-19 부인강습회 김포군에서 개최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43-10-20 고공품 증산하자 경기도에서 각 군을 독려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43-10-23 신사 추계 예제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김포군 김포면에서는 지난 20일 오전11시부터 김포신명신사대전에서 각 관공서 직원 부락대표자 우중등 다수 참석하에 추계예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1943-11-26 김포서도 전원지원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반도인 학도에게 두 번다시 오지못할 광영에 넘치는 특별지원병 제도에 의한 김포군하의 적격자 대학전문 재학생 5명도 전부 지원수속을 마쳤는데 지원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江本康錫(강본강석), 金城東旭(김성동욱), 權東寬(권동관), 白川勝暉(백천승휘), 靑松正澤(청송정택), 上智大學(상지대학), 明大(명대), 普專(보전)

1943-11-26 김포군연맹 역원회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43-11-27 일본적십자사원 총회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43-12-01 세무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표

▶세무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명칭-위치-관할구역)

인천-인천부-인천부부천군-김포군-강화군,

<중략> 전매국 지국. 출장소의 판매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조선총독부고시 제1384호) 조선총독부 교통국 관제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매국 지국. 출장소의 판매소를 설치해서 그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정한다. 1931년의 총독부고시 제341호(전매국 지국. 출장소의 판매소의 명칭과 위치)는 폐지한다.

1)판매소의 명칭과 위치(직함이나 출장소-판매소명-위치)

<중략>전매국-경성전매국-직할-김포판매소-동 김포군 김포면 <중략>

1943-12-12 중서-결전 저축 총결기 운동-김포군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3-12-12 농작물 공출 성적-김포군 각면 모두 양호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농작물 공출 성적-김포군 각면 모두 양호

결전하에 있어 식량을 확보함은 전쟁완수상 가장 중대요소이므로 총후 국민은 멸사

봉공의 정신으로서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증산하여 식량공출에 적성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김포군은 금년에 한재로 인하여 농작물의 수확이 대폭으로 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할당 수량만은 기어이 달성시키고자 영정군수와 목천서장이 진두에 서서 명량한 공출전을 포진하여 가지고 각 기관 총동원하에 쉬지 않고 미곡공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으로 7만 군민도 이 온정 깊은 독려방침에 감동하여 당국을 절대 신뢰하고 어려운 일을 견디면서 각자의 책임수량만은 완료하고자 말겠다는 굳은 결의로서 당국 방침에 순응하여 공출완료에 적성을 기울인 결과 지난 13일 현재로 전국 목표수량에 8할 이상을 완료되었으므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목표수량이 무난히 돌파될 것을 자신하고 필승공출에 대 기염을 올리고 있다.

1943-12-17 김포국민개창운동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김포국민 개창운동

(김포)전시생활의 명량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시적으로 국민개창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는 이때에 김포군에서도 국민총력군연맹 주최와 본보 김포지국 후언으로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김포 동초등학교 6강당에서 국민개창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방금 그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1943-12-17 오산농산부장 래금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김포)경기도 오산 농산부장은 관내 순시를 겸하여 미곡공출 독려와 토지개량 공사의 진척사항 등을 시찰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오전 11시경에 김포에 도착하여 김포군수실에서 각 관공서 단체등의 대표자를 만난 다음 영정군수로부터 관내 사항을 청취한 후 직원 일동에게 결전 하 각급 행정에 대한 훈시가 있는 후 오찬을 마치고 다시 군내 사항을 일일이 시찰한 후 동일 오후 2시경 강화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1943-12-22 김포국민개창대회성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43-12-23 저축은 부인서부터-김포군서 지도층 여성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3-12-25 송탄유 증산에 박차 김포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3-12-29 정조공출에 개가 김포관민의 일치협력이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01-07 김포경찰 훈련 시식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김포)빛나는 대동아전쟁 제3년의 신춘을 맞이한 김포경찰서에서는 총후치안 확보에 봉공하는 경찰관들의 필승사기를 일층 더 굳게 하고자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김포 신명신사 대전에서 영정군수 이하 관민 다수가 참석하여 경찰훈련 시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전 서우언이 무장을 갖추고 정열한 가운데 목천서장으로부터 선서문을

남독하여 총후치안의 정신봉공 할 것을 신전에 맹서한 다음 장소를 옮겨가지고 공설 운동장에서 점검과 분열식이 끝난 후 목천서장의 총후 경찰이 책무를 다하여 8만 군민의 치안 확보를 기하라는 열렬한 훈사와 영정군수의 축사로서 신춘 연두 정전 제3년의 경찰정신을 더한층 앙양시키었다.

1944-01-07 新年始式(신년시식)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신년배가식

(김포) 결전 제3년에 신춘을 맞이한 김포군은 1일오전 10시부터 김포동 국민학교 강당에서 영정군수와 목천서장을 비롯하여 각 관공서 단체 직원 참석으로 신년 배가식을 엄숙히 거행한 후 다시 축하회로 옮겨 축배를 들어 성전 만세를 보창하였다.

1944-01-07 신년시식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김포)빛나는 대동아전쟁 하 결전 제3년에 신춘을 맞이한 김포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직원 일동이 김포 신명신사 대전에서 영정군수를 선두로 총후관리의 술선수범을 신전에 맹서한 후 다시 군회의실에 이르러 신년시식이 거행되었다. 먼저 영정군수로부터 과거 1년간의 직원의 노고를 치하한 후 결전하 금년도에도 배전의 능률을 요청하는 동시에 최저의 생활을 강조하여 성전하 불가결의 원동력이 되는 급속한 증산문제, 청년층의 지도 연성회에 대하여 열렬한 훈시로서 신춘 연두 정전 제3년의 각오를 한층 더 새롭게 하였다.

1944-01-07 6만석 증수를 목표누산평야에 수리공사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전시하 식량확보를 위하여 필승증산에 힘찬 진군을 개시하고 있는 조선농지개발영단에서는 작년 3월부터 김포의 누산평야를 중심으로 동리면적 3천3백 정보의 총사업비 471만원 예산으로 대규모의 수리공사를 실시중인데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영단출 장소에서는 현 긴박한 식량사정에 비추어 추츄공사 준공기간 3개년을 2개년으로 단축하여 금년부터 수리를 이용하도록 방금 급속도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완성되는 때에는 매년 6만석의 큰 증수고를 보이게 될 것임으로 곡창 김포의 면목이 일층 새롭게 될 것이다.

1944-01-08 경인시가지 계획 관련 결정사항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경인시가지 계획 구역변경, 가로, 토지구획정리지구, 공단 및 녹지 지역, 풍치지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관계도면은 인천시청, 소사읍사무소, 오정. 동. 서. 계양. 양동. 양서. 고촌면사무소에 비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경인시가지계획 구역변경

-구역-경기도 시흥군 동면.서면의 일부, 동 부천군 오정면, 계양면의 일부. 소사읍 일부,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의 전부. 고촌면의 일부<중략>

1944-01-08 필승신념 더욱 굳게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44-01-09 근량을 속이는 고기 장사 엄벌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요즈음 김포군내 수육판매업자 중에는 근량을 속여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음으로 김포서 경제계에서는 그런 부정업자를 소탕시키기 위하여 지난 28일에 군 상공계와 협력하여 계원들이 저울을 들고 읍내가두에 나서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일일이 근량재조사를 행하여 수육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를 내렸다. 그리하여 금후로 만약 이러한 부정업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기필코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1944-01-13 최후의 혈투를 계속-김포군의 저축운동 최고조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4-01-13 회갑연비 절약 헌금 [매일신보]|기사|04면|04단|

1944-01-15 가마니 이백만매 생산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44-01-15 獻金二件(헌금이건)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4-01-16 보국 가마니 공출-김포군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보국 가마니 공출

김포군에서 기간 정하고 증산

(김포)김포군은 금년도 가마니 증산 200만매를 목표로 7만 군민이 총력을 들여 목표 달성에 돌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와 병행하여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을 보국 <가마니> 공출기간으로 정하여가지고 각기 가마니 책임수량의 비례로 100매에 대하여 12매씩을 따로 짜서 저축하기로 고공품 증산에 일대 박차를 가하기로 되었다.

1944-01-26 김포군연맹 역원회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01-29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44-01-29 뢰호지사, 초순시-김포의 증산상황을 독려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4-01-29 시국강연, 사상강습-김포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시국강연 사상 강습

김포에서 영연중좌 맞이하여

(김포)재향군인 김포분회에서는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김포읍내 화월관에서 경성 육군 병사부 과장 영연중좌를 맞이하여 사상강습회를 개최하고 시국강연과 사상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영화를 상영하여 군민에게 감격을 주었다.

1944-01-29 미영격멸 전의앙양협의회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미영 격멸 전의앙양협의회

김포에서는 결전 제3년을 맞이하여 7만 군민으로 하여금 미영 격멸에 필승신념을 한층 굳게 하여 전력증강에 일로 매진시키고자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걸쳐 관내 9개 면에서 미영 격멸 전의앙양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이에 제일보로서 지난 25일 오후 1시부터 김포면 연맹 주최로 군회의실에서 영전군수와 목천 서장을 비롯하여 각 관공서 단체 대표자 부락 연맹 이사장, 그리고 보국반장 등 다수 참석하에 전의앙양협의회가 개최되어 먼저 국민의례를 마친다음 월담면장의 선전대조 봉독과 개회 인사가 있는 후 영정군수의 격려사와 조선연맹 사무국 총장의 축사(대독), 적성 김포금릉조합 이사회 필승선언문 낭독이 끝난 후 황국신민선서 낭독과 성전만세 봉창으로 협의회를 마친다음 이어 도연맹 보도특별 정신대원 석천승구 씨로부터 전의 앙양에 대한 강연이 있는 후 성송농업실수학교장의 총궐기선언문 낭독과 황군만세 삼창으로 폐회되었다.

1944-02-01 김포저축 성적 양호-목표의 9할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02-02 우량아동을 표창- 김포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44-02-05 관기진속을 강조 - 김포면장회의 석상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44-02-06 벽촌도 멀적기백-순후한 농민도 분기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전선 방방곡곡으로 파견되어 결전하군국반도의 중대한 임무를 독려할 보도정신대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경성부민관에서 성대히 장행회를 거행하였거니와 이보다 한걸음 앞서서 지난 1월 25일 경성을 출발하여 2월 1일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경기도 선발대 가운데 김포군을 맡아 동군내 3면을 두루 돌며 순회강연을 한 경기도회의 의원 쓰다씨는 그가 직접 목도하고 온 농촌의 씩씩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에 보도정신대 선발대원의 한사람으로 김포군내를 1주일 동안 순회하며 조선농촌을 직접 목도하고 내가 첫째로 느낀바는 놀라울만치 몰라보게 변한 농촌생활의 모습이였다.

즉 우렁한 역사의 물결은 산촌벽지 집집마다 현저하게 깃들리어 순박한 농부들의 얼굴에 기어코 싸워 이기려는 육중한 결심의 빛이 더들고 있는 것이다.

동구마다 첫 발을 들여놓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조선말로 써붙인 <미국 영국놈을 대매로 때려버리자>라는 격문이였다.

꽤 평범한듯한데 이런 격문 가운데서도 조선농부의 특유한 색채가 들어나 그 끈기있고 순박한 성품에 커다란 믿음을 갖게한다. 그리고 어떤곳에서는 내가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즉 총력전이라는 말은 현재 국가에서 세계가운데 가장 물질이 풍부한 나라와 싸움을 하고 있는만치 1억 국민이 각기 맡은 바 직장에서 증산을 하기에 온갖 힘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즉 한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저는 배운 것이 농사짓는

일과 틈틈이 가마니를 짜는 일을 할 뿐이니 무슨 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저 꾸준히 일을 할뿐입죠>

어느 정도 통명스럽다고도 할 수 있을만큼 단순한 이 대답에서 나는 어떠한 능란한 웅변보다도 오히려 굳센 의지를 느낀 것이다. 우리 일행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농부들이 회장 가득히 쇄도하여 연사의 말이 혹시 미영의 무도한 행동에 언급하면 갑자기 장내 가득히 순박한 노기가 새로 갈아엮은 밭이랑처럼 출렁거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조선농촌의 힘이다. 이외에 조선농촌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더 바랄것이 있을까? 앞으로 이들의 아들과 동생이 싸움터로 나아가 존귀한 피를 흘리게될 때 미영에 대한 무서운 분노와 함께 조선 농촌의 싸우는 힘은 남김없이 발휘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점을 발견하고 조선농촌에 큰 기대를 품으며 막을길 없는 환희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1944-02-10 국민총력기 운동-김포군에서 강력 전개 [매일신보]|기사|04면|02단|

1944-02-10 면민 지기양양대회-김포면서 성대 거행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02-17 김포상업사봉대-3월10일 [매일신보]|기사|04면|03단|

1944-02-19 군면직원 연합연성대회 [매일신보] |기사|02면|02단|

1944-02-26 고공품 증산을 독려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고공품 증산을 독려

김포군에서 가마니 200만매 목표로

(김포) 고공품 증산은 결전하에 있어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이므로 김포군에서는 금년도 가마니 증산 200만매를 목표로 7만 군민 한 덩어리가 되어 목표 달성에 방금 혈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도 책임돌파에는 낙관할 수가 없는 현상이므로 군 당국에서는 금년 2월말까지는 기어이 목표수량을 돌파시키고자 종래에 독려대를 일층 강화하여 군 직원은 물론 군내 각 기관 총동원으로 독려대를 편성하여 영정군수와 반 서장이 진두에 서서 독려반을 각 면 부락에 파견하여 면직원과 협력하여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철저한 독려를 가하여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최후의 돌격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1944-02-26 김포군 연맹상회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김포군연맹 상회

(김포)국민총력 김포군연맹에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부터 군 회의실에서 관하 면장과 각 면 저축사무 담당 서기, 각 금릉조합 이사, 각 우편국장 등이 배석하여 영정군수 통제로 연맹 상회를 개최하고 결전하 전력증강상 최대 근무인 가마니와 송탄탄유

증산, 저축증강등 중요 안건을 내걸고 만반의 격려시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3월의 실천 철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3일 실천철저 사항

1. 농업생산에 앞장서서 전력을 증강시킬 일
2. 저축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일
3. 국어를 상용화 할 일

1944-02-26 김포농업전수교 졸업식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 ▶김포농업전수학교 졸업식

(김포)김포공립농업실수학교에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동교 제8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 금년 졸업생은 17명이다.

1944-02-26 총력운동의 공적자 [매일신보]|기사|03면|07단|

#### ▶총력운동의 공적자

연맹에서 대조봉제일에 일제 표창

총독정치에 발을 맞추어 결전 반도에 신체제를 확립하려는 웅대한 계획아래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소화15년 10월에 첫 걸음을 내어디딘 이후로 어언간 3년 반이 조직을 통하여 조선은 그 동안 적지 않은 발전을 하여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내선일체라는 커다란 이상을 향하여 확고한 신념을 품고 매진하고 있는 일반민중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은바가 가장 크지만은 그 배후에는 수많은 조선의 선각자들이 이 역사적인국민운동에 참가하여 헌신적인노력을하여온 공적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동연맹에서는 전 조선 13도로부터 이 운동에 한몸을바쳐 피난나 노력을 하여온 단체의 개인을 선택하여 표창을 하여되어 그 도안 도연맹에서 신중히 전형을 하여오던 중 요즈음 결정이되었으므로 오는 3우러 8일에 대조봉대일날에 일제히 표창을 하기로 되었다.

표창자는 단체가 67, 개인이 63명인데 그 소재지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부 <중략> 김포군 고촌면 은행정부락 연맹 <중략>

1944-03-02 中西(중서) 말단행정쇄신강화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4-03-05 저축실적 150여만원-김포군민 열성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44-03-05 전시생활 좌담회-김포군에서 세국민 모아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4-03-07 조기·청소운동 김포군연맹도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03-11 입자 이백만매는 목척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4-03-12 경기도 김포에 개가-애국기 이백대 기금 [매일신보]|기사|03면|08단|

▶경기도 김포의 개가

애국기 200대 기금 선착으로 완납

적 미영은 물질의 양만을 하늘처럼 믿되 그 중에도 가장 크게 믿는 것은 비행기이며 또 대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번 싸움에서 아무리 쳐부수고 쏘아 떨어트려도 한량없이 별 때처럼 달려드는 적 항공기의 방대한 수호에는 결코 없수이 여길수 없는 힘이 이 있는 것이다. 비행기가 한 대라도 더 많이 전선으로 비행기를 보내자 이것은 현재 적을 무찌르는데 가장 절실한 욕망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이런 절박한 요청에 따라 일찍이 애국기 100대 헌납운동을 일으켜 예상했던 이상의 큰 성과를 얻었음으로 다시 200대 헌납운동을 일으켰는데 전선 방방곡곡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우리들의 애국열을 발휘할때에는 바로 이때이다)고 13도 각 도청을 중심으로 현금부대가 앞을 다투어 모여들고 있거니와 경기도에서는 김포군이 가장 먼저 돈을 거두어 동군 하시모토 내무과장이 배당액을 훨씬 초과한 37,932원을 11일 경기도로 가지고 왔다.

이번 헌납운동의 경기도 배당액은 491만9천원인데 이대로 진행되어 가면 지난번 100대 헌납운동 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과가 기대된다.

1944-03-21 조기, 청소에 독려반-김포에서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44-03-22 부인국어강습회-일부 김포군지부서 개최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4-03-26 시국인식 철저 간담회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04-09 17만석을 목표-토지개량사업과 수리사업으로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7만석을 목표

토지개량사업과 수리사업으로

(김포)김포군은 결전식량의 증산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수도작 17만 2천석을 목표로 군 전반에 걸쳐서 수리사업과 토지개량 공사를 가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와 병행하여 올봄부터 논에 조춘경을 실시하기로 방금 각 기관 총동원하에 적극 독려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1944-04-09 적탄받고서도 맹격!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고 전의재환 병장

면민장 성대히 집행

북지전선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호국의 녀으로 사라진 반도출신 육군특별지원병 고 전기병장의 장의는 지난 7일 오후3시부터 그의 모교인 고촌국민학교에서 면민장으로 엄숙 성대히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전기병장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사대리관, 경성육군병사부장 대리관

나카이, 김포군수, 반 김포경찰서장 이하 군관민 다수 참석한 가운데 하라 위원장의 관리로 장의가 시작되어 수불, 헌찬, 축사, 주사에 이어 하라위원장의 조사와 시라가와 고촌면장, 경기도지사, 경성육군병사부장, 나카이 군수, 반서장, 재향군인회 김포분회장, 대일본부인회 김포군지부장 등 10여명의 조사를 낭독하니 그 순간 제장은 고요히 슬픔에 잠기어 참석자의 얼굴에는 격렬하고야 만다는 적개심이 폭발하였다. 이어서 하라위원장이 유족과 참석자들의 옥관 봉전이 끝난 다음 일반의 소향이 있는 후 장엄한 가운데 장의를 마쳤다.

1944-04-09 적탄 받고서도 맹격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전의병장의 공에 부대장이 절찬

지원병 출신의 일병졸로서 응약성전에 참가하여 북지전선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작년 11월 8일 하남성 00부근 전투에 척탄분대 탄약수로서 완강히 저항하는 적의 자동화기를 무릅쓰고 적진에 돌입하여 맹렬한 육탄전으로 역전 분투하다가 불행히 왼편 어깨에 적탄을 받아 넘어졌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적을 추격하여 섬멸시킨 후 최후까지 황군의 위대한 공격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발군의 위훈을 빛내고 기진하여 쓰러지자 전우들의 구조로 00육군병원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다가 작년 11월 16일에 지나대륙에서 호국에 넘으로 사라진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출신의 지원병훈련소 제10기생 전기병장의 훈공에 대하여 현지 소속대장으로부터 전기병장의 엄친 동로씨에게 찬사와 아울러 조의를 표한 편지가 도달하였다.

1944-04-12 탄환절수 당첨 즉시 비기자금 헌납 [매일신보]|기사|02면|08단|

1944-04-19 婦人屋外勤勞(부인옥외근로)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44-04-19 時艱克服座談會(시간극복좌담회)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4-04-22 地主賑起大會(지주궤기대회)[매일신보]|기사|02면|02단|

▶지주궤기대회

(김포)전시식량 증산의 국가적 요청인 농업생산 책임제를 실시함에는 지주가 책임자 입장에서 소작인을 지도 격려함에 있다

그럼으로 김포군에서는 지주층의 왕성한 책임감을 파악하여서 증산계획의 필승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관하 각 면장을 위시하여 재정 지주와 군내 지주등 100여명을 소집하여 가지고 영정군수 통제하에 미곡비상증산 지주궤기대회를 개최하고 먼저 국민의례와 선언서 봉독이 끝난다음 영정군수로부터 충분히 발휘하여 지주는 모름지기 윤리적 애정으로 소작인을 지도하여 식량증산의 책임제를 완수치 않으면 안된다는 유시가 있는 후 송전 권업과장으로부터 농업생산 책임제 요강에 대한 설명과 지주층의 의견과 희망사항 개진이 있는 후 지주대표의 선서문 낭

독이 끝난 다음 반 서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봉창한 후 오후 4시 의의가 깊은 가운데 폐회하였다.

1944-04-22 군청구내농원화전청원성한 작업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44-04-25 김포서원의 수범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44-04-25 각지가봉감사봉고제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1944-04-26 홍보위원회개최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홍보위원회 개최

국민총력김포군연맹에서 날로 격렬한 현 시국에 대응하여 총력운동의 보국<중략> 위함과 동시에 군민 <중략> 홍보선전 운동을 전개시키고자 지난 19일 오후2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관내 각 면 홍보위원을 소집하여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정군수로부터 인사가 있는 다음 금후 홍보선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여 민심지도에 적극적 실천을 기하기로 되었다.

1944-04-29 菴麻増産(비마증산)의 壯觀(장관)-일부 회원 만여명이 출동 식재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44-05-03 獻金(헌금)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4-05-05 잠사제 성대거행 김포군서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1944-05-07 부인들 근로작업 김포군 유지부인 동원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1944-05-10 金浦貯蓄協議會(김포저축협의회) [매일신보]|기사|02면|10단|

1944-05-12 노무원호협력회조직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1944-05-12 중서-고하원수 충훈 다탁 김포군민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고가원수 충훈 다탁

김포군민 증산으로 보답 맹서

고가 연합함대 사령관이 남태평양에서 웅대한 작전을 지도하던 중 장렬한 순직을 하였다는 비보가 국내에 발표되자 1억 국민은 비분과 슬픔에 잠기어 이 원수는 우리의 손으로 갚겠다는 굳은 결의로 구적 격멸의 적개심이 열화같이 폭발되고 있는 이때에 김포군에서는 고가 원수의 충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해군비행기 헌납자금 1만원을 모집하기로 일대 애국운동을 전개시키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

여 1만원의 기념저축운동을 일으켜 고가원수의 위혼을 현창하기로 군내 각종 연맹에 통첩을 하여 7만 군민의 일대 분기를 촉진시키고 있다.

**1944-05-12 적십자사총가입 경기는 구군완료 [매일신보]|기사|03면|12단|**

▶적십자사 총가입

경기는 9개면 완료

처참가열한 전국에 비추어서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경기도지부에서는 금년안으로 도내 57만호의 총가입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작년에도 경기도내 적십자사원 가입수로 전선에 제1위를 차지하여 안성, 김포, 개풍, 여주의 비군이 한 집도 빠짐없이 가입하였는데 금년에 와서 이천, 평택, 강화, 양주, 가평의 5개 군이 총가입을 보게 되어 이미 9개 군은 마쳤으며 금년안으로 나머지 부군도 총가입을 하게 할 것이다.

**1944-05-14 선제, 감사저축을 김포군에서 결정 발표 [매일신보]|기사|02면|01단|**

▶선제, 감사저축을

김포군에서 결정발표

총후국민의 저축은 그대로 비행기의 탄환등 제일선 장병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전선에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혈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총후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생활을 최소한도로 뜯어고쳐서 전시생활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단행하여 필승저축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그럼으로 김포군에서는 금년도 저축목표액 2백10만원을 내걸고 7만 군민이 자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한 푼이라도 많이 국민저축을 실행하도록 1일1전 저축과 부인저축 감사저축등 종래의 저축방법을 일초 강화하여 저축총궐기 태세를 확립하기로 친인 저금과 감사저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저축보국에 돌진하고 있는 중이다. <중략>

**1944-05-16 부락마다 사무촉탁-김포군에서 근근설치 [매일신보]|기사|02면|06단|**

**1944-05-17 육상에게서 받은 상금 즉시국방헌금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육상에게서 받은 상금

전시국방헌금

김포군 김포면장 쓰기부지씨는 작년 8월 징병제 실시이래 그 취지 철저와 사무에 공적이 현저하여 이번에 육군대신으로부터 기념품을 받았는데 이 영예의 상금을 국가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념품대 30원을 국방헌금으로 지난 8일 대조봉대일에 김포경찰서로 헌납하였다.

**1944-05-17 부평, 김포간 자동차발착시각개정 [매일신보]|기사|03면|10단|**

▶부평, 김포간 자동차 발착시각 개정

경인선 열차운전 시각 개정에 따라서 경기자동차 부평영업소에서는 부평역전에서 읍내를 경유하여 김포에 이르는 자동차 발착시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을 열차 발착시간 연락

에 최선의 편의를 도모하여 편성한 것이라 한다. 부평역전을 기준으로 한 발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부평읍내행 오전7시30분, 9시20분, 11시, 오후12시40분, 3시, 4시30분, 6시5분

김포행 오전 9시30분, 12시, 오후 2시30분, 5시30분

#### 1944-05-17 논두렁에 콩을 심자 [매일신보]|기사|03면|11단|

농산물 생산책임제를 완수하여 결전식량을 확보함에는 무엇보다도 공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식량의 증산확보를 거함이 반도농촌에 부하된 최대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김포군농회에서는 군내의 경지면적 1만6천 정보에 대하여 한뼉의 공지일지라도 전부 이용하기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논두렁과 밭두렁에다 콩을 심도록 7만 군민에게 필승증산 동원령을 내렸다.

#### 1944-05-18 고하원수 추모 현익기금-김포군민이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 '우리들 군민은 애도의 마음만으로만 이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증산으로, 저축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바쳐 고하원수의 뒤를 따라 승리의 길을 돌진합니다.

16일 오전 경성해군무관부에 김포군 낭아이 군수와 반 경찰서장 이하 도회의 의원 면장 등 군민대표가 나라와 미쓰모도 무관을 만나고 현금 1만원을 특히 고하원수의 복수를 해군비행기 제작기금으로 내놓았다.

고하원수 기상순직을 하였다라는 비보를 듣고 김포7만 군민은 경도와 통분을 필승의 전력증강으로 바꾸어 고하원수 총령계승 비행기 헌납 자금과 저축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비행기 제작 기금으로 우선 1만원을 모아 헌납하는 동시에 다시 1만원을 저축하였다. 이는 전선에서 최초의 일로 당국을 크게 감격시키고 있다.

#### 1944-05-22 고하원수, 김포군민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 1944-05-23 김포생필조합 총회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 1944-05-23 김포산채 채취운동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 ▶ 김포 산채채취운동 전개, 주간 설정하고서 전개

격렬한 전국하에 국가에서 요청하는 임산물을 많이 공출함은 우리 총후 국민의 부담된 책무이다. 그러므로 김포군에서는 기정계획의 하나인 산채를 공출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동안 산채채취 운동 주간을 정하고 군내 애국반을 총동원시켜 이 산채 공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금 채취에 분주한 중이다. 그리고 19년도 공출계획은 다음과 같다.

갈나무껍질 72,000 근

떡갈나무 껍질 10,000

짜리껍질 24,000

아카시아껍질 1,000

고사리 200관

1944-05-26 부인 총궐기는 이때-김포군서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대일본부인회 김포군지부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반부터 군회의실에서 각 면지부장과 서기 분회장 등을 소집하여 부인총동원 운동에 대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국민의례를 행하고 영정군수의 훈시가 있는 다음 소화19년 부인회 지도방침에 대한 지시와 <중략> 협의가 있었는데 현시국에 비추어 일반인의 총력을 결합하여 황국에 받쳐서 전력을 증강한데는 부인보국운동에 기대가 많은바 이 사명을 다하고 전 가족이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 근로하여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하루바삐 증산하는 동시에 총후생활의 표준을 다시 내려서 절실과 절약에 힘써 저축하여 국가 요청에 보답하고자 이 목적 달성에 매진하기를 굳게 맹세하였다.

1944-05-28 4만8천원 회사-서주중도씨가 [매일신보]|기사|02면|05단|

1944-06-06 남자에 지지 않게-김포군서 [매일신보]|기사|02면|07단|

▶김포군에서는 전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산 책임제를 완수함에는 남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책임을 할 수 없으므로 농촌부녀자의 활동을 배가시켜 결전식량의 필수증산을 기하고저 군내 269개 부인작업반을 일제히 동원하여 6월 초순부터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총진군을 개시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금년부터는 비농가 부인작업반도 증산 전사에 참가하여 일반 농가에 봉사하기로 되었다.

1944-06-10 이양에 공동작업반-김포군서 주식에 [매일신보]|기사|02면|04단|

1944-08-04 증산에 拍車(박차) [매일신보]|기사|02면|02단|

1944-10-11 맥류증산에 총력전 [매일신보]|기사|02면|03단|

▶김포군에서는 결전하 총후 식량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맥류증산 운동을 전개하여 논보리 직부면적 2만6백 정보를 목표로 여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 면적만은 절대 확보하기로 군면 직원 총동원하에 7만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이달 15일까지는 전부 과종을 마치도록 식량증산 운동에 일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 국민총력 김포군연맹에서는 이 운동에 호응하여 지난 8일 대조봉대일을 계기로 연맹입원 총동원하에 나아가 군수와 반 서장을 총지휘관으로 독려반을 편성하여서 마쓰다 권업과장 지휘하에 각 면을 분담하여 맥류증산에 철저한 독려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1944-01-14 김포수리조합 폐지(조선총독부고시 제1241호)

▶수리조합 폐지를 아래와 같이 인가하다.

1)인가연월일-1944년 10월 10일, 2)조합명칭-김포수리조합, 3)조합구역-경기도 김포군 내(면리 생략) 4)조합목적-관개 배수

1945-02-23 근로동원과 설치와 각 군 전임과장 임명 [매일신보]|기사|02면|11단|

▶<중략> 岩本(암본)■孝(효)(金浦郡內務課長(김포군내무과장)),<중략> 村夏載(촌하재)(金浦郡勤勞動員課長(김포군근로동원과장)), <중략>

1945-05-31 강습소생이 현금 [매일신보]|기사|02면|12단|

▶김포읍내에 있는 금릉학술강습회에서는 지난 27일 해군기념일을 맞아 아동들이 푼푼히 모은 돈 153원을 국방현금으로 김포면사무소에 기탁하였다.

1945-06-02 은제품 헌납 반 서장이 해군에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김포군에서는 얼마전부터 은과 니켈 등 금속류의 회수운동을 전개시켜 방금 7만 군민의 적성을 기우리고 있거니와 김포서에서도 이 운동에 박차를 기하여 이번에 전선적으로 실시된 필승기원 기간을 중심으로 1주일 동안 은 헌납 운동을 일으켜 반 서장이 격려문을 발송하여 군민의 열의를 한층 촉진시킨 결과 지난 29일까지 모아진 은제품이 4관 350몸매에 달하였으므로 반 서장은 즉시 경성 해군무관부로 헌납 수속을 마쳤다.

1945-06-06 국원군이 징용자원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영예의 징병검사를 마치고 미구에 군문으로 들어갈 날을 앞둔 장정이 날노긴박을 기하고 있는 현 전국하에 하루라도 빨리 결전장에 나아가 산업전사로서 성전완수를 위하여 국가에 봉공하겠다고 적개심에 불타오르는 열의를 억제치 못하여 징용을 지원한 응증미담의 한송이 꽃 김포군 하성면 신리 77번지 구니하리씨의 2남 기성군은 금년도 징병적령자로서 을중 합격이 되어 압호로군문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으나 날로 긴박한 현 전국하에 하루라도 빨리 결전장으로 나아가 산업전사가 되어 구적격멸에 정신 분투하겠다고 감연히 징용을 자원하여 지난 2일내지 00요원으로 용약 출발하여 관계당국의 감격을 일으키었다.

1945-06-07 京畿郡守異動(경기군수이동) [매일신보]|기사|01면|14단|

▶(4일부)

(경기김포) 본부군수 영정 택수

명 경기도 고양군 재근

본부 충남도 군속 향도 전

임본부군수(7등)

경기도 김포군수 재근

(경기고양) 본부군수 량천 위원

의원면본관

1945-06-12 영정군수 고양으로 후임에는 藤邱軾氏(등구식씨) [매일신보]|기사|02면|09단|  
▶전 김포경찰서장 반씨는 작년 3월에 부임한 이래 만1년 3개월 동안 결전하총후 국민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많은 공적을 남기고 이번 경기도 경찰부 경무과로 영전되고 후임으로 서서방가 서장이 전날 7일 오전 10시40분에 도착 자동차로 관공서 단체등 다수 출영리에 후임하였다.

1945-06-17 권농일의 盛況(성황) [매일신보]|기사|02면|12단|  
▶김포군에서는 결전 국가의 요청인 식량증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14일 권농기념일을 계기로 당일 오전 10시부터 후저오 외 군수와 관공서 단체 직원과 벼농가 부인등 200여명이 결포리 김포농장구내에 이르러 약 2시간 동안 이양작업이 실시되어 모범을 보였다.

1945-06-17 地方人事(지방인사) [매일신보]|기사|02면|12단|

1945-06-18 藤邱金浦郡守(등구김포군수) 着任(착임) [매일신보]|기사|02면|12단|  
▶ 낭아이(永井)군수 후임인 후지오카(藤邱) 김포군수는 지난 12일 오후2시반 각 관공서 단체 직원 등 다수 출영리에 부임하여 군수실에서 열반과 접견을 마친 다음 군회의실에서 일반 청원에게 <대화일치>를 표어로 내걸고 결전하 말단행정에 명량을 기하라는 일장의 훈시가 있었다.

1945-06-27 적기이양에 돌격전 [매일신보]|기사|02면|11단|  
▶적기이양에 공세전  
이양기를 당한 김포군에서는 전시식량의 필승증산을 기하고자 후지오카의 군수이하 군면 직원이 총출동하여 적기 이양을 촉진시키고 있는 한편 지난 20일부터 군내 각 초등학교 아동과 남녀 작업반 등을 총동원하여 이양작업에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인데 늦어도 6월 말일까지는 이양을 마치자고 지금 김포평야에는 곳곳마다 이양돌격전이 전개되어 곡창 김포의 본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편저자 김진수(金振壽)

- 김포시 양촌읍 출생
- 강남대 신학과 졸업
- 강남대실천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졸업
- 한신대신학대학원 신학과 수료
- 주)미래신문사 발행인
- 김포3.1만세운동연구소 소장
- 김포새누리교회(기장) 담임목사
- 김포시기독교연합회 회장(2013)
- 김포문화원 부원장(2009-2011)
- 김포문화원 학예연구사(전문위원)(전)
- 김포시 시지 편찬위원(전)
- 김포시3.1만세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전)

<저서> · 김포항일독립운동사-김포평야에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2006)

- 김포실록-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김포이야기(2007)
- 김포3.1만세운동사료집(2008)
- 김포독립운동조사자료집(2009)
- 김포6.25전쟁비사(2009)
- 김포문화를 바라보다(2010)
- 실록을 펼쳐 김포를 말하다(2012)
- 고지도에 그려진 김포의 땅이름((2014)

<조사연구> · 김포지역 독립운동 조사사업 용역(2009)

- 김포지역 농기구와 생활용구 조사사업(2010-2011)
- 언더우드선교사 김포행적 고증 학술용역(2014)

---

## 고신문을 통해 본 김포 근대역사 1883~1945

---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인쇄일 : 2014년 6월 25일

편저자 : 김진수

발행인 : 김포문화원장 이하준

발행처 : 김포문화원

주 소 : 우)415-801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 3층

☎ 031-982-1110 팩스 983-1110

· 이 도서는 김포시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